

청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유민상 · 신동훈



청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저 자 유민상, 신동훈

연구진 연구책임자_유민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위원)
공동연구원_신동훈(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연구보조원_이민정(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사업운영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보고서를 펴내며

2019년 12월 20일, 서울의 무중력지대 양천에서 작은 토론회가 열렸다. 한 청년 연구자가 이 기관에서 연구비를 지원받아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였다. 이 기관의 대표는 나에게 매우 미안한 목소리로 세종에서 서울로 토론을 해주러 와줄 수 있는지 물었고, 내가 참석하겠다고 이야기하자 매우 기뻐하였다. 나는 청년 당사자의 연구 발표회라는 상징적인 의미 때문에 더 기대되는 마음으로 토론회에 참석하였다.

이 청년 연구자는 ‘은둔형 외톨이 발생 요인 및 지원정책 연구 결과’라는 생생한 연구를 발표하였고, 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희망플랜 담당자와 치유헤움가집단 공감인 담당자와 함께 토론에 참여하였다. 참석한 사람들은 청년 연구자가 땀 흘리며 발로 뗀 연구에 모두 귀를 쫓긋 세우며 발표를 들었다. 큰 창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과 작은 공간에서의 울림 속에서 참여자들은 각자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열띤 토론을 하였다.

나는 이 토론회를 통해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 사회적 고립이라는 개념은 한 사람을 지칭하기보다는 하나의 상태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다양한 문제를 겪는 대상자들은 연구하기 어려우므로 학계가 나서기도 어렵고, 서비스의 효과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므로 정부 부처나 민간기관이 선뜻 나서기 어려운 영역일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이것을 언제까지 이렇게 미지의 영역으로 놔두어야 할지에 대해 많이 고민하

게 되었다. 다행히 이러한 고민들이 우리 연구원에서 과제화되었고, 1년 동안 연구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그날 작은 토론회에 참여했었던 것이 이러한 행운을 가지고 온 것이다.

이 연구는 모두가 온라인으로 연결될 수 있는 초연결 사회에서 왜 청년들이 점점 고립되어 가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고, 이후 생애주기적 시각에서 청년들의 고립의 원인과 결과 및 대응방안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였다. 우리는 사회적 고립의 개념이 무엇인지, 은둔형 외톨이와 니트(NETs)와는 어떻게 같고 다른지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시작하였다. 그리고 여러 고민들은 청년 당사자들과 가족들, 현장 실무자들의 목소리와 관련 문헌들, 그리고 데이터들을 통해 어느 정도 해소되었고 보고서로 완성되었다.

그럼에도 아직 가야 할 길은 멀다. 이 연구는 한 해의 연구를 마무리하지만, 이것은 매우 초기의 연구로서 현상을 분석한 것에 불과하고 아직 연구되어야 할 내용이 많이 남아 있다. 앞으로 이러한 현상에 대한 과정과 대응에 대해 더 심도 깊은 연구들이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더 많은 연구들을 통해 청년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정책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청년들의 고립과 그로 인한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란다.

연구에 영감을 주신 노가빈 청년 연구자, 청년 연구자를 지원해주고 토론회에 초대해준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문유진 대표, 그리고 현장에서 고립된 청년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하는 K2인터내셔널코리아를 비롯한 청년 활동가분들께 감사드린다. 무엇보다 연구에 참여하여 자신의 깊은 내면과 경험에 대해 생생한 목소리로 들려주신 청년 당사자들, 가족들, 현장 전문가들께 감사드리며, 연구를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 주신 자문위원들, 집필진들, 공동연구자께도 감사드린다.

연구진을 대표하여 유 민 상

연구요약

1. 연구목적

-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청년들의 사회적 고립(social isolation) 실태 및 특성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임. 이 연구는 아직 학술적, 정책적으로 개념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회적 고립의 개념, 영향 요인,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해 살펴보고 정책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음.
- 청년들이 살아가는 현대사회는 개인화와 공동체의 소멸이라는 사회적 변화의 축과 정보화와 초연결화라는 기술적 변화의 축 등 두 가지 축에 의해 큰 사회변화를 맞이하고 있음. 청년들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사회와 점차 연결되지 못하고 외부적, 내부적으로 고립되어 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그동안 사회적 고립은 노인의 문제로 인식되어 왔으나 청년의 사회적 고립 문제 역시 늘어나고 있음.
- 이 연구의 연구문제는 두 가지임. 하나는 생애전반기 사회적 고립은 누구에게, 왜, 어떻게 발생하고, 그 결과는 어떠한가임. 생애전반기의 사회적 고립은 생애사건들이 누적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부정적 영향은 장기화되어 인생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따라서 생애초기의 사회적 고립의 원인, 영향, 결과 등에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함. 두 번째는 생애전반기의 사회적 고립에 대한 정책대응 방안은 무엇인가임.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적 고립 관련 정책은 사후적이고 임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사후적 접근은 큰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개인에게 많은 고통을 줄 수 있으므로, 이 연구는 생애전반기에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2. 연구방법

- 이 연구는 청년들의 사회적 고립의 실태, 원인, 과정, 결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문헌연구, 양적연구(설문조사 및 2차데이터 분석), 질적연구(고립 청년 당사자들과 가족, 서비스 실무자 면담), 국내 법률 및 정책분석, 국내 사회적 고립 청년 민간프로그램 사례분석, 해외 정책사례 분석 등을 진행하였음.

3. 주요결과

1) 문헌연구 결과

- 사회적 고립이란 ‘한 개인이 사회와 다차원적으로 고립된 상태’를 의미함. 외부적 고립(external isolation)은 ‘한 개인이 타인과의 관계망이 없거나 거의 없는 상태’로 정의하고, 내적인 단절을 의미하는 내부적 고립(internal external)은 ‘한 개인이 사회적 관계망에서 고립감을 느끼고 있는 상태’로 정의할 수 있음. 외부적 고립은 타인과의 사회적 연락(social contact), 사회적 지원(social support), 개인 간 정서적 교류(emotional relationship)가 없거나 거의 없는 상태로 정의함. 내부적 고립은 인지된 사회적 고립(perceived social isolation)이나 외로움(loneliness)이라는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음.
- 사회적 고립 청년은 고용, 훈련, 진학을 하지 않은 니트(NEETs) 개념, 일정 기간 동안 외부로 나가지 않는 은둔형 외톨이 개념과 유사하지만 차별성이 존재함. 니트(NEETs)는 지위 중심적 개념으로 고용되거나, 훈련 중이거나, 진학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 하지만 고용, 훈련, 진학 중에도 개인의 네트워크가 빈약하거나 스스로 고립되어 있다고 느낄 수 있음. 은둔형 외톨이는 행동 중심 개념으로 일정기간밖에 나가지 않는 행동(외출)과 그 행동을 하는

사람을 지칭함. 하지만 사회적 고립은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나타날 수 있으므로 외출과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음. 사회적 고립 개념은 니트, 은둔형 외톨이 개념보다 다차원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음.

- 사회적 고립은 인생의 어느 시기에나 나타날 수 있으므로 생애주기적 관점을 통해 분석되어 왔음. 사회적 고립의 영향요인은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adverse childhood experience)이나 청년기에 경험하는 부정적 경험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 아동기 영향은 아동학대, 가정폭력 목격과 같은 가정환경 요인, 학교폭력, 따돌림, 낮은 학업성취, 진학실패와 같은 학교 관련 요인 등이 있음. 청년기 영향은 취업실패, 노동시장에서의 부적응, 장기실업상태 등과 같은 노동시장 요인이 있음.
- 사회적 고립은 개인에게 우울증과 자살생각 같은 정신건강 문제, 성인기의 낮은 사회적 네트워크와 사회적 기술로 인한 진로의 불안정과 경제적 안정성 문제 등을 유발할 수 있음. 장기화되는 사회적 고립은 문제를 더 강화시킬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

2) 양적연구 결과

-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를 통해 사회적 고립을 다각도로 측정하였음. 그 결과
① 어려울 때 도와줄 사람이 2명 이하인 청년 18.1%, ② 타인과 전반적인 교류 빈도가 3개월에 한두 번 미만인 청년 8.5%(대면 교류) 및 8.1%(비대면 교류) ③ 사회적 지원이 없는 청년 9.6%(정보적 지원), 4.5%(도구적 지원), 3.8%(정서적 지원), ④ 은둔 청년 5.1%, ⑤ 타인으로부터 고립감을 느낀 적이 있는 청년 13.4%(단일 문항) 및 외로운 감정들을 일정 수준 이상 느낀 적이 있는 청년 35.0%(종합 문항)로 나타났음. 전체 청년 중 2.5%는 총 9개의 지표 중 5개 이상의 지표에서 취약하였음.

- 아동·청소년기 및 성인기 부정적 경험의 비율은 사회적 고립 지표에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 청년에게 더 높았음. 일반적으로 가족에 소속감을 느끼는 사례가 대부분이나, 사회적 고립 청년의 경우 소속감 자체가 낮고, 가족 이외의 집단에서 다른 청년에 비해 더 많은 소속감을 느끼는 사례가 관찰됨. 사회적 고립 청년은 삶의 질과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대해 부정적으로 느끼는 경우가 많음. 사회적 고립 상태의 청년들이 특징적으로 더욱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는 심리·마음건강 상담과 복지·생활 관련 상담 및 지원이었음. 도와줄 주변 사람이 없는 청년과 내부적인 고립감이 높은 청년은 대인관계, 취업, 직업훈련, 건강, 주거 등 모든 영역에서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수요를 보여 복합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드러냄.
-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를 통해 아동·청소년기 경험이 사회적 고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결과, 아동·청소년기에 양육자가 얼마만큼 자녀의 교육 및 건강 등에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는지가 핵심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이와 같은 결과는 대규모 패널자료를 통해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사회적 고립의 영향요인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청년기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기 위해 선제적 대응과 양육자 교육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함.

3) 질적연구 결과

- 사회적 고립을 경험한 청년 당사자, 가족, 서비스 실무자들에 대한 면담을 통하여 사회적 고립은 어떠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고, 그 상태는 어떠한지, 악화되는 과정은 어떠한지, 부정적 영향을 막아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고립을 막기 위한 정책은 어떻게 설계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음.
- 전체적으로 사회적 고립은 아동·청소년기뿐만 아니라 청년기에 경험하는 부

정적 생애사건들에 의해서도 발생하며, 고립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더 상태가 악화되는 경향이 있었음. 사회적 고립의 상태는 외부적인 교류와 연락이 줄어들고 점차 물질적, 심리적 교환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와해되는 경향이 있었음. 당사자들은 이 시기를 거치며 외로움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사회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고립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었음. 사회적 고립 원인은 개인적 기질과 특성, 아동기 부정적 경험, 청년기 부정적 경험 등으로 인해 나타나며 사회적 조건과 상호작용하며 발전할 수 있음. 아동기 부정적 경험은 가족 간 불화와 폭력, 가정 밖 보호 경험, 학교폭력 및 부적응, 결핍과 지역사회 분리, 게임중독과 중첩된 취약성 등이며, 청년기 부정적 경험은 사회적 역할 지연과 상실, 실업과 취업준비, 멀리 떨어져 생활, 관계에 대한 실망 등이었음. 이와 상호작용하는 사회적 조건은 치열한 경쟁, 연령구분과 역할규범, 차별과 타자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사회경제적 충격 등이었음. 고립을 막아주는 우산과 완충제는 개인의 회복탄력성과 소속감을 느끼는 공동체 등이며 외부의 전문적 개입이 도움이 되기도 하였음. 가족은 고립을 촉진시키기도 하고 고립에서부터 보호하는 기제로 작용이 되기도 하는데 가족에 대한 지원도 함께 이루어져야 효과적일 수 있음.

- 재연결을 위한 사회적 방안은 전환기 지원, 단계적 지원, 개별화 지원, 역할부여 및 교류기회 지원 등으로 대별될 수 있으며, 이러한 지향을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대상 중심적 지원보다는 상태 중심적 접근, 제도화를 통한 안정적·전문적 서비스 지원, 당사자 중심적 정책설계 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음.

4) 국내 법률 및 정책분석 결과

- 국내의 중앙 수준에서 사회적 고립의 대상 중심 개념에 대응하는 법률(고립 청년, 은둔형 외톨이, 은둔형 청년)이나 상태 중심 개념에 대응하는 법률(외로

움, 고립감)은 부재하므로,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더 장기적인 시각으로 포괄적이면서도 정교한 법률 및 정책 마련이 요청됨. 지방자치단체 수준에는 지역사회 청년의 사회적 고립에 대응하고자 하는 노력이 시작되고 있어 긍정적이나 대체로 선언적인 수준에 머무르거나 고독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사후적인 차원에 머무르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생애주기별로는 아동·청소년·청년기에 지원 연속성이 떨어지며, 특히 아동·청소년기는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거나 조기에 관리할 수 있는 결정적 시기임에도 이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정책 및 서비스에 한계가 있음. 생태체계적인 수준에서 보면,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 부정적 생애경험(adverse childhood experience)에 노출되는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개입근거가 아동학대와 가정 외 보호 등으로 매우 제한적임. 학교 체계를 통한 지원은 위(Wee) 클래스 등의 지원근거 및 서비스 근거가 미약함. 학교 밖 체계도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실행 수준에서의 사업 안정성과 전문성 등에는 어려움이 있어 개선이 요구됨.

5) 국내 사회적 고립 청년 대상 민간프로그램 분석 결과

-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고립 지원 사업은 청년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해서도 사회경제 및 심리정서 지원을 함께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음. 희망플랜의 사례에서 확인되듯, 사업의 연속성이 없어 축적한 실무 경험의 전수가 어려우며, 당사자들에게도 서비스 회피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고립 청년들에 대한 사업은 중장기적인 고려가 필요함. 장기고립 상태에 있는 청년들의 지원에는 초기 진입단계에서의 세심한 지원이 필요함. 무중력지대양천의 사례는 사업 성과지표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함. 단기성과의 강조는 변화가 용이한 청년을 대상으로 서비스할 위험을 야기하

고 목표 타당성을 떨어뜨리며, 나아가 사업의 연속성과 인력운용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음. 대상자의 안정과 지속적 상태변화를 이루고 실무자의 직업 안정을 높여 노하우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장기적 관점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서비스를 지원해야 할 것임. K2인터내셔널 사례는 민간의 역량만으로는 사회적 고립 청년에 대한 지원을 하기 어려우며, 사업추진 및 예산마련 등을 위한 정책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줌. 일본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단계적 지원을 기획하고 공동생활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공공에서의 예산지원 방식의 한계와 운영의 지속가능성의 한계를 보였음. 민간 서비스의 확대를 위해서는 서비스의 양적확대와 질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고, 실무자 양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체계적 방안이 필요함. 고립 청년 지원 서비스는 청년 당사자들로부터 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잃을 경우 청년들이 더 깊숙하게 고립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므로, 향후 법제도적 토대 마련뿐만 아니라 인력 양성과 서비스 지원 기관 발굴이 동반되어야 할 것임.

6) 해외사례 분석 결과

- (영국사례) 잉글랜드에서는 점점 많은 개인들이 외로움 문제에 노출되고 있으며, 이들에게 미치는 외로움 경험의 영향이 지속적이고 치명적이라는 인식 아래 범정부적인 외로움 대처 정책이 시행되고 있음. 잉글랜드의 외로움 대처 정책의 목표와 계획은 2018년에 발표된 “A Connected Society(연결된 사회): A Strategy for Tackling Loneliness” 보고서를 통해 구체화되고, 실제 정책 집행으로 이어지고 있음. 외로움 문제의 주무부처인 시민사회부에서 관련 정부 정책을 총괄하고 조율하고 있지만, 실제 관련 사업은 주무부처 외에도 교육부, 교통부, 노동연금부 등 정부 내 전 부처에서도 수행하고 있음. 또한, 중앙 정부는 지방정부, 영리기업, 제3섹터, 그리고 가족·친구·공동체

등 다양한 주체들을 외로움 대처 전략의 주요 주체로 설정하고, 각자의 역할을 부여하는 한편, 주체 간 협력을 강조하고 있음.

- (미국사례) 미국에서는 교육 및 취업 등에 참여하지 않는 16~24세 ‘단절 청년’의 성인기 이행을 돕는 데 정책적 지원을 투입하고 있음. 인종·민족적 구성에 따라 상이한 단절 청년의 비율과 이들이 경험하는 문제의 복합성을 고려할 때 연방정부 중심의 단편적이고 분절적인 정책사업의 효과성이 크지 않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었음. 이에 따라 주/지방/부족 정부의 연방 기금 사용에 유연성을 제공함으로써 교육, 고용 등에서 단절 청년을 위한 실제적인 성과들을 달성하는 데 중점을 두는 성과협력 시범사업이 운영되고 있음. 성과협력 시범사업으로 선정되면 기관별로 분리되어 있는 단절 청년을 위한 예산체계를 통합하여 편성할 수 있으며, 사업의 성과 평가와 자료의 공유 등을 보다 유연하게 운영해 행정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음.

- (일본사례) 지난 1990년 이래로 일본에서 사회문제로 불거져온 히키코모리(ひきこもり)에 대한 법적, 제도적, 정책적 지원 사례는 다양한 측면에서 시사점을 제공함. 일본은 사회적 고립이 전연령에 걸쳐 나타난다는 기초 아래 0~30대 아동·청년에 대한 사회적 고립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며, 히키코모리에 대한 실태파악을 통하여 증거기반의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음. 다만, 일본에서도 히키코모리에 대한 개념은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음. 일본에서 연구된 바에 따르면 히키코모리를 만드는 핵심적인 요인은 부모와의 불안정한 관계와 사회적인 구조임. 일본 정부는 등교거부 및 학업중단에 대한 조기 대응을 위하여 학교뿐만 아니라 학교 외부의 히키코모리 및 청년지원체계를 마련하여 학교 안팎의 지원을 이어나가고 있음. 특히, NPO와의 협력을 매우 강조하고 있으며, 정부는 리더십과 책무성을 가지고 NPO와 협력하여 미시체계에서의 서비스 전달이 잘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음. NPO는 아웃리치(outreach)를 통한 대상자 발굴, 당사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의 책임을 갖

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성과평가에 히키코모리 지원체계에 특화된 기준을 도입함으로써 서비스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4. 정책제언

- (정책도출과정) 각 파트별 시사점 및 함의를 종합하여 청년의 사회적 고립에 대응하는 정책을 도출함.
- (비전 및 3대 원칙) 본 연구의 정책제언은 “고립과 외로움을 넘어 새로운 기회를 통한 재연결로”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생애전반기 예방 원칙”, “역할과 소속감 증진 원칙”, “서비스 제공 협력 및 통합 원칙”을 주요 원칙으로 도출하였음.



그림 i - 1 본 연구의 비전, 원칙, 정책영역 개념도

- (6개 정책영역) 이를 통해 도출한 정책영역은 6가지임: ① 첫 번째 정책영역은 ‘법제도적 근거 및 기반’으로 개인이 경험하는 사회적 고립에 사회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토대 마련 관련 영역임. ② 두 번째 정책영역은 ‘생애주기별 지원체계 마련’으로 아동·청소년·청년기에 발생하는 고립위험에 대한 대응에 관한 영역임. ③ 세 번째 정책영역은 ‘생태체계적 지원체계 마련’으로 가족, 학교, 직장 생활에서의 지원 및 사회문화적 환경개선에 관한 영역임. ④ 네 번째 정책영역은 ‘서비스 연결망 강화’로 전통적 아웃리치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재연결 강화 관련 영역임. ⑤ 다섯 번째 정책영역은 ‘새로운 기회 제공을 통한 재사회화’로 역할과 정체감 부여를 통한 사회통합을 위한 영역임. ⑥ 여섯 번째 정책영역은 ‘코로나19에의 대응’ 영역으로 2019년부터 현재까지 나타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충격이 청년들에게 장기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집중 지원하는 것과 관련한 영역임.



그림 i - 2 본 연구의 세부정책과제 개념도

- (22개 세부정책과제) ① 법제도적 근거 및 기반 영역의 세부정책과제는 ‘아동·청소년·청년 기본법 내 사회적 고립 대응 추가’, ‘사회적 고립 관련 조례의 개정 및 제정’, ‘아동·청소년·청년 정책기본계획 내 사회적 고립 추가’, ‘사회적 고립 관할 부처 지정 및 사무 부여’, ‘사회적 고립 실태조사 및 정기 보고서 발간’, ‘고립 청년 대상 서비스 제공인력 및 실행기관 양성’ 등임. ② 생애주기별 지원체계 마련 영역의 세부정책과제는 ‘학령기 학교안팎의 지원체계 마련’, ‘성인 이행기 어려움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 ‘서비스 연속성을 고려한 장기적, 통합적 서비스 제공’ 등임. ③ 생태체계적 지원체계 마련 영역의 세부정책과제는 ‘당사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 ‘생태체계를 고려한 공동체 및 연결망 구성’, ‘고립을 촉진하는 사회문화적 규범 및 환경개선’, ‘생태체계적 지원체계의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 강화’ 등임. ④ 서비스 연결망 강화 영역의 세부정책과제는 ‘아웃리치를 통한 재연결’, ‘재연결을 위한 이동 편의와 공간 제공’,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정보접근성 증진 및 가상공동체 구성을 통한 재연결’, ‘메타버스 및 AI 활용을 활용한 고립의 완화 및 연결’ 등임. ⑤ 새로운 기회 제공을 통한 재사회화 영역의 세부과제는 ‘활성화 프로그램을 통한 맞춤형 출발기회 제공’, ‘시민사회의 파트너십을 통한 역할기회 제공’, ‘단계적 역할제공과 조력자의 지원 제공’ 등임. ⑥ 코로나19에의 대응 영역의 세부과제는 ‘코로나19 특별 활성화(activation) 대책 마련’, ‘코로나19 특별 외로움 지원 대책 마련’ 등임.

청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연구보고 21-R07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 2. 연구내용 6
- 3. 연구방법 10

II. 청년의 사회적 고립에 관한 문헌검토

: 개념, 현황, 영향요인 및 결과

- 1. 청년의 사회적 고립 : 개념과 정의 19
- 2. 청년의 사회적 고립 현황 22
- 3. 청년의 사회적 고립의 영향요인
및 결과 관련 문헌분석 27
- 4. 요약 및 시사점 31

III. 우리나라 사회적 고립 청년의 실태

- 1. 개요 35

2. 청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부가문항)	36
3. 생애전반기 경험이 청년의 사회적 고립에 미치는 영향 (심화분석)	83
4. 요약 및 시사점	96

IV. 사회적 고립을 경험한 청년 당사자들과 가족, 서비스 실무자들의 목소리

1. 연구개요	101
2. 사회적 고립 청년 당사자들과 가족, 서비스 실무자들의 목소리	111
3. 요약 및 시사점	203

V. 국내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 법률 및 정책 분석

1. 개요	209
2.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 관련 법률 및 조례 현황	210
3. 중앙부처 정책 현황 및 지자체 정책현황과 문제점	241
4. 요약 및 시사점	249

VI. 국내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 프로그램 사례

1. 개요	253
2. 민간기관 고립 청년 지원 프로그램 사례	254
3.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사업의 성과, 한계, 대안 : 서울시 무중력시대 양천사례	261
4.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 사업의 지역화 특성 : 전주시 희망플랜 사례	287
5. 은둔형 외톨이 지원 사업의 과정, 성과, 발전방안 : K2인터내셔널코리아 사례	308
6. 국내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 프로그램 사례 요약 및 시사점	328

Ⅶ. 해외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정책 사례

1. 개요	333
2. 영국의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 정책 (Tackling loneliness)	335
3. 미국의 단절 청년을 위한 성과협력 시범사업(P3)	365
4. 일본의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 정책	381
5. 해외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정책 사례 요약 및 시사점	419

Ⅷ. 정책제언

1. 제언 도출 과정	425
2. 사회적 고립 청년을 위한 정책 방향	437
3. 사회적 고립 청년을 위한 정책과제	439

참고문헌	485

부 록	507

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중 사회적 고립 관련 문항	509

국문초록	517

Abstract	519

표 목차

표 I-1 설문조사 개요(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11
표 I-2 심층면접 주요 내용	12
표 I-3 자문회의 개최 결과	13
표 I-4 콜로키움 개최 결과	13
표 I-5 포럼 진행 결과	14
표 I-6 정책연구실무협의회 개최 결과	15
표 II-1 사회적 고립의 개념 구성	21
표 II-2 생애주기에 따른 사회적 고립의 원인	29
표 III-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중 사회적 고립 관련 문항	40
표 III-2 연결망 관련 문항(기존)	41
표 III-3 연결망 관련 문항(신규)	42
표 III-4 사회적 지원 관련 문항(신규)	43
표 III-5 외출 관련 문항(기존)	45
표 III-6 내부적 고립 관련 문항(신규)	46
표 III-7 사회적 고립의 원인 관련 문항(신규)	48
표 III-8 사회적 고립의 현황 관련 문항(신규)	50
표 III-9 사회적 고립의 결과(인지적 측면) 관련 문항(신규)	51
표 III-10 사회적 고립의 결과(정서적 측면) 관련 문항(기존)	52
표 III-11 사회적 고립의 결과(신체적 측면) 관련 문항(기존)	52
표 III-12 고립 청년을 위한 지원 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문항	53
표 III-13 사회적 고립 지표(연결망)	56
표 III-14 사회적 고립 지표(지원, 외출, 내부적 고립)	63
표 III-15 아동·청소년기 부정적 경험	65
표 III-16 성인기 부정적 경험	68
표 III-17 소속감	74
표 III-18 사회적 고립과 주관적 삶의 질	75
표 III-19 사회적 고립과 주관적 건강(신체 및 정신)	78

표 III-20 서비스 욕구	82
표 III-21 주요 변수 기초통계	87
표 III-22 변수별 t-test 결과	89
표 III-23 사회적 고립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90
표 III-24 부정적 생애경험 리스트(아동·청소년기, 청년기)	92
표 III-25 아동·청소년기와 청년기 부정적 생애경험이 사회적 고립과 삶의 질에 미친 영향	94
표 III-26 우리나라 사회적 고립 청년의 실태 주요 내용 및 시사점	98
표 IV-1 질적연구 개요	104
표 IV-2 청년 당사자 심층면접의 면접내용 프레임	106
표 IV-3 고립 청년 부모 모임 참여자 FGI의 면접내용 프레임	107
표 IV-4 고립 청년 지원사업 실무자 FGI의 면접내용 프레임	107
표 IV-5 면담 참여자 주요 정보	109
표 IV-6 심층면담 분석결과	112
표 IV-7 사회적 고립 상황의 범주 및 하위범주	114
표 IV-8 사회적 고립 원인의 범주 및 하위범주	121
표 IV-9 사회적 고립의 과정과 개인에게 남은 결과 범주 및 하위범주	148
표 IV-10 심층면담 분석결과	169
표 IV-11 새로운 기회를 통한 재연결 방안 범주 및 하위범주	179
표 V-1 「청년기본법」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 목록	212
표 V-2 「청년기본법」 청년정책기본계획 수립 관련 조항(제8조)	212
표 V-3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안 (의안번호 17892)	215
표 V-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안(의안번호 18234)	218
표 V-5 「아동복지법」 내 사후관리 서비스 관련 조항	219
표 V-6 「청소년기본법」 내 상담서비스 관련 조항 (제12조, 제13조)	220
표 V-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내 상담서비스 관련 조항	221
표 V-8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내 상담서비스 관련 조항	222
표 V-9 「위(Wee) 프로젝트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내 상담서비스 관련 조항	224

표 V-10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고립 청년 관련 조례 현황	226
표 V-11 서울특별시 양천구와 제주특별자치시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 조례 주요 내용	227
표 V-12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고립 관련 조례 현황 (예시)	230
표 V-13 청년 사회적 고립 관련 조례 및 전체 사회적 고립 관련 조례의 Word Cloud	231
표 V-14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은둔형 외톨이 관련 조례 현황	232
표 V-15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둔형 외톨이 관련 조례 내용	233
표 V-16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외로움 관련 조례 현황	237
표 V-17 부산시, 강원도 횡성군 외로움 지원 관련 조례 주요 내용	238
표 V-18 은둔형 외톨이 조례와 외로움 관련 조례의 Word Cloud	240
표 V-19 제1차 청년정책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사회적 고립 청년 관련 정책 현황	242
표 V-20 지자체 사회적 고립 청년 관련 정책 현황	248
표 VI-1 민간단체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사업 현황	257
표 VI-2 무중력시대 양천의 사업 대상 '사회적 배제'의 개념	262
표 VI-3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에서 수행한 고립 청년 지원사업	263
표 VI-4 양천구 청년지원모델 시범운영 사업	265
표 VI-5 2018 양천구 청년지원모델 시범운영 사업 프로그램	267
표 VI-6 사회적 배제를 경험한 청년에게 정책이 미치는 영향 연구보고서 개요	268
표 VI-7 서서권역(강서·양천·영등포) 자치구 단위 청년지원모델 사업	270
표 VI-8 서서권역(강서·양천·영등포) 청년지원모델 사업운영 프로그램	273
표 VI-9 지역기반 사회적 고립 청년 밀착지원 사업(네트워크 기관)	274
표 VI-10 고용노동부 청년센터 희망멘토링	276
표 VI-11 무중력시대 양천 자립역량강화 사업	278
표 VI-12 고용노동부 청년도전지원사업	279
표 VI-13 희망플랜 사업 대상자	291
표 VI-14 사업 지역 및 기관 현황	292

표 VI-15 희망플랜 평화센터의 세부 프로그램	296
표 VI-16 고립 청소년·청년에 대한 주요 개입 지점	302
표 VI-17 고립 청소년·청년에 대한 주요 개입 유형	302
표 VI-18 국내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 정책 및 프로그램 사례 주요 내용 및 시사점	330
표 VII-1 잉글랜드에서의 외로움 측정 문항	342
표 VII-2 외로움을 빈번하게 느끼는 개인들의 특성	345
표 VII-3 외로움 문제에 가장 취약한 집단	346
표 VII-4 “A Connected Society: A Strategy for Tackling Loneliness”의 주요 내용 및 제시된 정책 목표	352
표 VII-5 사회적 처방 주요 정책 및 성과	354
표 VII-6 ‘성과협력 시범사업(P3)’ 사업별 지역 및 개요	370
표 VII-7 서포스테 이용자의 실태조사 결과(아웃리치와 내방자 비교) ···	396
표 VII-8 해외 사례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421
표 VIII-1 세부 정책 과제	441
표 VIII-2 법제도적 근거 및 기반 마련 영역의 주요 정책과제	442
표 VIII-3 해당 과제 실현을 위한 청년기본법 개정(안)	444
표 VIII-4 아동·청소년·청년 기본법 및 관련법 내 사회적 고립 대응 추가 과제의 추진사항	445
표 VIII-5 청년 사회적 고립 관련 조례 및 전체 사회적 고립 관련 조례의 Word Cloud	446
표 VIII-6 은둔형 외톨이 조례와 외로움 관련 조례의 Word Cloud ···	446
표 VIII-7 부산시, 강원도 횡성군 외로움 지원 조례의 예	447
표 VIII-8 사회적 고립 관련 조례의 개정 및 제정 과제의 추진사항 ···	448
표 VIII-9 아동·청소년·청년 정책기본계획 내 사회적 고립 관련 정책 추가 과제의 추진사항	450
표 VIII-10 사회적 처방 주요 정책 및 성과	450
표 VIII-11 사회적 고립 관할 부처 지정 및 사무 부여 과제의 추진사항	451
표 VIII-12 잉글랜드에서의 외로움 측정 문항	453
표 VIII-13 해당 과제 실현을 위한 청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455
표 VIII-14 사회적 고립 실태조사 및 정기 보고서 발간 과제의 추진사항	455
표 VIII-15 고립 청년 대상 서비스 제공인력 및 실행기관 양성 과제의 추진사항	457

표 VIII-16 생애주기별 지원체계 마련 영역의 주요 정책과제	457
표 VIII-17 위(Wee) 클래스 및 위(Wee) 센터 구축 현황 (‘21. 4월 기준)	459
표 VIII-18 「위(Wee) 프로젝트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	460
표 VIII-19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461
표 VIII-20 학령기 학교 안팎의 지원체계 마련 과제의 추진사항	461
표 VIII-21 성인 이행기 어려움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 과제의 추진사항	463
표 VIII-22 서비스 연속성을 고려한 장기적, 통합적 서비스 제공 과제의 추진사항	465
표 VIII-23 생태체계적 지원체계 마련의 주요 정책과제	466
표 VIII-24 당사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 과제의 추진사항	467
표 VIII-25 생태체계를 고려한 공동체 및 연결망 구성 과제의 추진사항	468
표 VIII-26 고립을 촉진하는 사회문화적 규범 및 환경개선 과제의 추진사항	469
표 VIII-27 생태체계적 지원체계의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 강화 과제의 추진사항	470
표 VIII-28 서비스 연결망 생성의 주요 정책과제	471
표 VIII-29 아웃리치를 통한 재연결 과제의 추진사항	473
표 VIII-30 재연결을 위한 이동 편의와 공간 제공 과제의 추진사항	474
표 VIII-31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정보접근성 증진 및 가상공동체 구성을 통한 재연결 과제의 추진사항	475
표 VIII-32 메타버스 및 SI를 활용한 고립의 완화 및 연결 과제의 추진사항	477
표 VIII-33 새로운 기회 제공을 통한 재사회화 영역 세부정책과제	478
표 VIII-34 활성화 프로그램을 통한 맞춤형 출발기회 제공 과제의 추진사항	480
표 VIII-35 시민사회의 파트너십을 통한 역할기회 제공 과제의 추진사항	481
표 VIII-36 단계적 역할제공과 조력자의 지원 제공 과제의 추진사항	483
표 VIII-37 코로나19에의 대응에 관한 정책과제	484

그림 목차

그림 Ⅰ-1 정책추진 방안과 과제 도출	9
그림 Ⅰ-2 연구 내용 및 방법에 관한 흐름도	16
그림 Ⅱ-1 사회적 고립의 구성 개념	22
그림 Ⅱ-2 우리나라 청년니트 비율(2003-2020)	23
그림 Ⅱ-3 외출하지 않는 청년들의 비율(2017-2020)	24
그림 Ⅱ-4 우리나라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의 비율(2013-2020)	25
그림 Ⅱ-5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도움 받을 사람이 없는 비율(2011-2019)	25
그림 Ⅱ-6 연령집단별 사회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 (OECD 2013-2018)	26
그림 Ⅱ-7 사회적 고립의 사회적 맥락 개괄	27
그림 Ⅱ-8 생애주기에 따른 부정적 생애경험의 영향	28
그림 Ⅱ-9 사회적 고립의 생애주기별 발생 및 발달	30
그림 Ⅲ-1 사회적 고립 지표(연결망)-전체	55
그림 Ⅲ-2 사회적 고립 지표(연결망)-도와줄 사람: 연령, 주거형태	57
그림 Ⅲ-3 사회적 고립 지표(연결망)-대면 교류: 연령, 주거형태	58
그림 Ⅲ-4 사회적 고립 지표(연결망)-비대면 교류: 연령, 주거형태	59
그림 Ⅲ-5 사회적 고립 지표(지원, 외출, 내부적 고립)-전체	60
그림 Ⅲ-6 사회적 고립 지표(지원, 외출, 내부적 고립)-지원 : 연령, 주거형태	61
그림 Ⅲ-7 사회적 고립 지표(지원, 외출, 주관적 고립)-외출 : 연령, 주거형태	62
그림 Ⅲ-8 사회적 고립 지표(지원, 외출, 주관적 고립)-내부적 고립 : 연령, 주거형태	62
그림 Ⅲ-9 아동기 부정적 경험 - 연결망	66
그림 Ⅲ-10 아동기 부정적 경험 -지원	66
그림 Ⅲ-11 아동기 부정적 경험 - 외출	67

그림 Ⅲ-12 아동기 부정적 경험 - 내부적 고립	67
그림 Ⅲ-13 성인기 부정적 경험 - 연결망	69
그림 Ⅲ-14 성인기 부정적 경험 -지원	70
그림 Ⅲ-15 성인기 부정적 경험 - 외출	71
그림 Ⅲ-16 성인기 부정적 경험 - 내부적 고립	71
그림 Ⅲ-17 소속감을 느끼는 집단 - 전체	72
그림 Ⅲ-18 사회적 고립과 주관적 삶의 질-전체	76
그림 Ⅲ-19 사회적 고립과 주관적 삶의 질-연결망	76
그림 Ⅲ-20 사회적 고립과 주관적 삶의 질-지원	77
그림 Ⅲ-21 사회적 고립과 주관적 건강(신체 및 정신) - 신체적 건강	79
그림 Ⅲ-22 사회적 고립과 주관적 건강(신체 및 정신) - 정신적 건강	80
그림 Ⅲ-23 사회적 고립과 주관적 건강(신체 및 정신) - 우울	80
그림 Ⅲ-24 서비스 욕구	81
그림 Ⅲ-25 사회적 고립(심도 깊은 니트) 측정	85
그림 Ⅲ-26 조사 시점별 사회적 고립(심도 깊은 니트) 청년 비율	88
그림 Ⅳ-1 면접조사 연구수행과정 도식	102
그림 Ⅳ-2 질적연구의 결과 도식	204
그림 Ⅵ-1 아동·청소년 사업(14-19세)	293
그림 Ⅵ-2 청소년·청년 사업	294
그림 Ⅵ-3 희망플랜 단계적 운영모형	294
그림 Ⅵ-4 희망플랜 평화센터 운영모형	295
그림 Ⅵ-5 단계별 은둔형 외톨이 지원	310
그림 Ⅶ-1 인구·사회적 집단별 ‘외로움을 빈번하게’/‘결코 느끼지 않는’ 이들의 비율	343
그림 Ⅶ-2 외로움 대처 사업의 주체 및 주체별 역할	350
그림 Ⅶ-3 ‘성과협력 시범사업(P3)’ 지역 분포	370
그림 Ⅶ-4 핵심 협력 기관 유형	373
그림 Ⅶ-5 친구가 몇 명 정도 있습니까?	386
그림 Ⅶ-6 은둔 상태	386
그림 Ⅶ-7 히키코모리 인구 조사	388
그림 Ⅶ-8 부등교 아동 수의 추이	390
그림 Ⅶ-9 은둔을 탈출한 사람에 대한 질문 - 사는 것이 힘들다고 느끼나요?	398

그림 Ⅶ-10 은둔형 외톨이가 밝는 단계와 마음의 어려움	398
그림 Ⅶ-11 히키코모리·이키즈라사의 발생 구조	402
그림 Ⅶ-12 불안이나 고민을 상담한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411
그림 Ⅶ-13 와카야마 대학교의 히키코모리 지원 프로그램	418
그림 Ⅷ-1 제언 도출과정	426
그림 Ⅷ-2 이 연구의 비전, 원칙, 정책 도출 간의 순환 관계	426
그림 Ⅷ-3 사회적 고립 상태의 개념도	427
그림 Ⅷ-4 본 연구의 비전, 원칙, 정책영역 개념도	437
그림 Ⅷ-5 본 연구의 주요 정책 과제	439
그림 Ⅷ-6 사회적 고립 개념의 하위개념 및 측정요소	454

○———— 제1장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 연구내용
- 3. 연구방법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청년들의 사회적 고립(social isolation) 실태 및 특성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정책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오늘날 성인이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사회적 고립에 대한 실태 분석을 통해 정책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국가 수준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정책이 마련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구체적으로 사회적 고립의 개념은 무엇인지, 누가 고립되는지, 고립의 과정은 어떠한지, 고립의 결과는 무엇인지, 고립 해소를 위한 사회적 방안(재연결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였다.

현대 사회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연결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공동체의 약화로 인해 사회와 적절히 교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회적 고립 현상이 함께 증가하고 있다. 생애전반기 성장과정에서의 부정적 사건을 경험하거나 진학, 취업 등 사회로의 진출에 실패할 경우 사회적 고립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의 높은 청년 실업률과 코로나19로 인한 노동시장 충격 등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청년들의 사회적 고립 현상은 향후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과거 노인의 문제로 여겨졌던 사회적 고립은 청년들의 사회진출의 어려움과 1인 가구 증가와 맞물려 생애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김춘남, 박승민, 박승희, 김서인, 2018; 박찬웅, 김노을, 유부원, 윤민지, 2020). 그동안

1) 이 장은 유민상 연구위원, 신동훈 부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작성하였다.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에 관한 관심이 증대되었으나 청년에 초점을 맞춘 사회적 고립 연구는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사회적 고립 혹은 고립 청년이라는 용어는 명확한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정책영역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 정책의 발전에도 한계를 가져오고 있다. 서로 다른 이해 때문에 정부, 지자체, 민간 기관이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지고 정책을 준비하며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따라서 청년들의 사회적 고립에 관한 학술적 공백 영역을 메우고, 사회적 고립 청년에 대한 이론적, 정책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청년을 19세부터 34세까지의 사람으로 정의하고, 사회적 고립을 한 사람이 사회를 살아가며 다른 사람과의 관계망이 단절되어 교류할 수 없고 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태, 다시 말해 한 개인이 사회와 다차원적으로 고립된 상태로 정의한다. 사회적 고립과 유사하게 청년 니트(NEETs), 단절 청년, 사회적 외톨이, 은둔형 외톨이 등의 용어가 사용되나, 이러한 용어는 사회적 고립 현상을 담아내지는 못하고 있다. 청년 니트는 포괄적 개념이기는 하나, 교육·고용·훈련으로의 지위변동이 생기면 대상 범주에서 제외되어 버리는 한계가 있다. 은둔형 외톨이는 사회적 고립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으나 은둔형이라는 말은 자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외톨이라는 용어 자체가 당사자에게 낙인을 줄 수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은둔형 외톨이 개념은 고립 상태가 매우 심각한 대상들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아 정책대상으로서 매우 사후적인 접근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청년 니트의 개념은 개인의 삶보다는 지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은둔형 외톨이는 사회와 고립되어 방 안에 갇혀 있는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연구는 한 사람의 지위나 행동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한 개인이 사회와 외부적(external), 내부적(internal)으로 고립되어 있는 상태에 초점을 맞추어 청년들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최근의 연구 경향은 청년의 사회적 고립 연구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과거에는 사회적 고립 연구가 노년기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되었으나, 사회적 고립은 전생애적인 일상의 경험의 누적으로 발생하여 나타나는 것이므로,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 전반에 걸쳐 살펴볼 필요가 있다(김춘남 외, 2018; 박찬웅 외, 2020). 이는 청년기에 발생하는 사회적 고립의 현황에 대해 더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아동기와 청소년기 동안에 누적으로 발생한 일들과 청년기 사회적 고립의 연관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걸 의미한다. 따라서 청년기 사회적 고립의 현황과 생애주기적인 영향 및 궤적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충격이 발생하고 있는 2021년 한국사회는 청년의 사회적 고립 문제에 대해 적절히 대응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1990년대 일본에서는 경제위기 이후 은둔형 외톨이(히키코모리, ひきこもり) 문제가 발생하였고, 2008년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 이후에는 유럽에서 청년 니트(NEETs), 미국에서 단절청년(disconnected youth)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제 막 사회로 진출해야 하는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사회경제적인 충격은 크고 오래된 상처를 줄 수 있고, 이는 회복하기 어려운 인생궤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일본에서 1990년대 발생한 고립된 청년 중 일부는 현재까지 상태가 유지되고 있으며, 이제는 고립된 중년이 되어 80대의 노부모가 50대의 고립된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8050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고립된 청년들이 받는 사회경제적 충격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러한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장기화될 수 있는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청년들의 사회적 고립 문제를 살펴보는 것은 이러한 일들을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청년들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특성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정책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있다. 이 연구는 사회적 고립 청년 실태분석 및 국내외 사례 조사를 통해 국가 수준에서의 생애전반기 사회적 고립 대응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2. 연구내용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청년들의 사회적 고립 실태와 특성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정책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연구 내용을 조금 더 명료화하기 위하여 연구문제를 제시하고 이에 따른 연구내용을 제시하였다.

1) 연구문제

이 연구는 두 가지의 연구문제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연구문제는 ‘생애전반기 사회적 고립은 누구에게, 왜, 어떻게 발생하고, 그 결과는 어떠한가?’이다. 생애전반기(아동기·청소년기·청년기)에는 가정폭력, 학대, 학교폭력, 가구빈곤, 가정해체, 학교 부적응, 진학실패 및 취업실패 등으로 인해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는 사회적 고립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다. 생애전반기의 사회적 고립은 생애사건들이 누적적으로 작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부정적 영향은 인생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생애초기의 사회적 고립의 원인, 영향, 변화궤적, 결과 등에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고립된 대상들은 빈곤아동, 가정 밖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은둔형 외톨이, 니트 청년 등으로 다르게 분석되어 왔다. 이 연구는 생애전반기에서 이들이 경험하는 사회적 고립의 원인을 분석하여 종합적인 이론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두 번째 연구문제는 ‘생애전반기의 사회적 고립에 대한 정책대응 방안은 무엇인가?’이다. 사회적 고립이라는 동일한 현상에 대해서 대상별·부처별로 분절화되어 대응하는 것은 사후적이고 임시적인 대응에 치중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사후적 접근은 큰 사회적 비용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다. 아동·청소년기에 사회와 단절된 이후에 사후적·분절적 대응을 할 것이 아니라, 예방적·통합적 대응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

는 이러한 시각에서 생애전반기에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연구내용

(1) 선행연구 고찰을 통한 사회적 고립의 개념과 유형 탐색 및 정리

이 연구는 청년기 사회적 고립에 주목하는 초기 연구로, 사회적 고립의 개념에 대한 이론적 정의와 조작적 정의에 대해 심도 있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주로 노년기에 치중되어 왔던 사회적 고립 연구를 생애전반기에서부터 정리하여, 아동·청소년기·청년기·성인기·노년기 동안의 생애사건 발생이 사회적 고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리하였다.

(2) 실태조사를 통한 사회적 고립의 실태, 원인, 결과, 변화 분석

청년기의 사회적 고립 상태는 비단 청년기에 나타난 사건 때문이 아니라 생애전반기에 걸쳐 나타난 사건들이 누적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가정이 실증데이터와 질적면담을 통해 확인이 되는지 살펴 보았다. 양적 연구를 통해 횡단데이터와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청년기 사회적 고립을 유발하는 생애전반기의 사건과 결과에 대해 살펴보고, 질적연구에서는 양적 데이터로 확인할 수 없는 개인의 경험, 인식, 전망에 대해 심도 깊게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의 목적은 두 가지를 보여주는 것에 있다. 하나는 사회적 고립 청년들의 다양한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고립 청년의 다양성에 기반한 맞춤형 지원정책이 발전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다른 하나는 사회적 고립이

어느 순간 한 번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생애전반기 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해온 사건이 누적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사후적이고 임시 방편적인 접근으로는 사회적 고립 청년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청년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생애전반기에서부터 사회적 보호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증거기반의 정책의 근거자료를 마련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3) 국내외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 관련 법, 제도, 프로그램 분석

최근 제주, 광주, 서울시 양천구 등의 지자체의 조례 제정을 통해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기관과 협력하여 사회적 고립 청년에 대한 사업을 늘리고 있다. 하지만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의 미비로 지원 사업 운영 자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보고되고 있으며 지원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사회적 고립 청년에 대한 지원이 예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장기적인 시각에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을 위한 국내의 법적, 제도적 문제점을 살펴보고, 해외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에 주는 함의를 정리하였다. 거시적 차원에서 각 국가의 법, 제도적, 근거를 살펴보는 것뿐만 아니라 세부 프로그램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다. 이는 사회적 고립 청년이 가지고 있는 심리·정서적 문제를 함께 해소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매우 세심한 프로그램 설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서울시 청년이음 프로그램, 전주시의 희망플랜 프로그램의 세부 프로그램을 함께 보고하고, 이러한 사업들에서의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현실적인 프로그램 개발에도 기여하고자 하였다.

(4) 사회적 고립 청년에 대한 정책 추진방안과 과제 도출

이 연구는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 정책 도출을 위해 기획된 과제로서 앞에서 살펴본 연구내용을 통해 정책제언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 고찰을 통한 사회적 고립의 개념과 유형 탐색 및 정리, 실태조사를 통한 사회적 고립의 실태, 원인, 결과, 변화궤적 분석, 국내외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 관련 법, 제도, 프로그램 분석을 통해 학술적, 정책적, 임상적 정책제언을 도출하였다.

이 연구는 청년 당사자 중심 원칙, 생애전반기 예방 원칙, 역할과 소속감 증진 원칙, 서비스 제공 협력 및 통합 원칙을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법제도적 근거 및 기반 마련, 생애주기별 지원 체계 마련, 생태체계적 지원체계 마련, 서비스 연결망 강화, 새로운 기회 제공을 통한 재사회화,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을 정책과제로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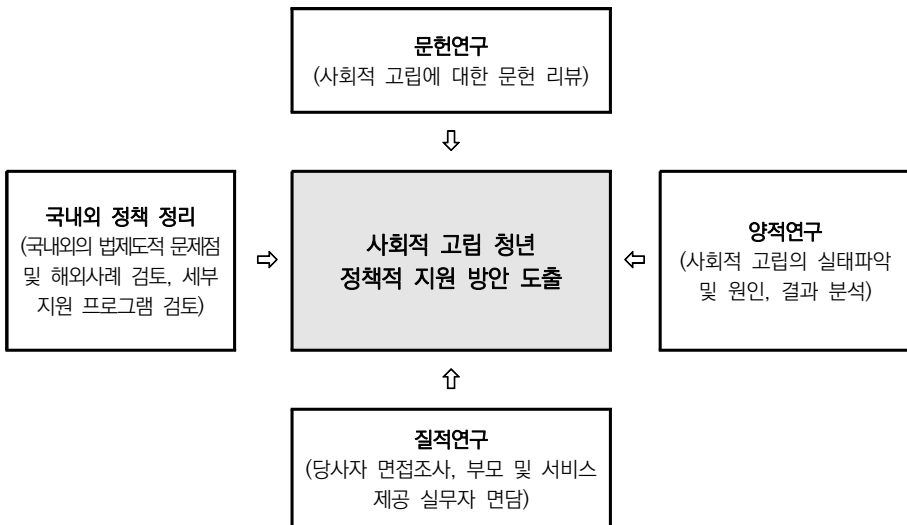


그림 1-1 정책추진 방안과 과제 도출

3. 연구방법

이 연구는 다음의 연구방법을 통하여 청년들의 사회적 고립의 실태, 원인, 과정, 결과를 분석하여 정책대응 방안에 대해 제시하였다.

1) 문헌연구

이 연구는 기존에 발표된 사회적 고립 연구를 종합하여 생애주기에 걸친 사회적 고립의 현황 및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사회적 고립 문헌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사회적 고립 연구의 동향, 원인, 특성, 결과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비록 이 연구는 정책연구로 설계되었으나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회적 고립에 대한 학술적 공백을 메우고 정책발전에 정보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설문조사(양적연구)

이 연구는 청년들의 사회적 고립 현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일반 청년 중 사회적 고립의 경험 혹은 실태를 파악하고, 회고적 질문을 통하여 청년들의 사회적 고립의 원인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설문조사에 사용한 측정도구는 아동·청소년기 부정적 생애 경험(adverse childhood experience), OECD 고립 측정 문항(도움, 의지), OECD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 측정 문항, 소속감 관련 문항 등이다.

설문조사는 조사의 효율성을 위하여 통계청 승인통계인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의 부가조사 형태로 진행하였다(통계청 국가승인통계 제402004호).²⁾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는 인구주택총조사를 표본틀로 다단계층화집락표집방법을 활용하여 조사하였다. 이번 조사는 전국의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2,000명

2) 설문조사는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와 통합조사 형태로 진행되었음.

내외를 조사대상으로 하여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 청년들의 사회적 고립 현황을 파악하는데 적합하다. 이번 2021년 들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가구조사를 시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실사 기간을 조정하는 등 객관적인 실증데이터 수집을 위해 노력하였다.³⁾

표 1-1 설문조사 개요(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주요 요소	내용	비고
모집단	전국의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표본틀	2019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수	2,000명 내외	최종 2,014명 완료
표집방법	다단계층화집락표집방법	
조사시기	6월~10월(기준일은 6월 1일)	코로나19의 발생으로 가구조사 방식의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의 완료 일정이 지연되었음

3) 심화분석

심화분석은 두 가지 주제로 이루어졌다. 첫 번째 주제는 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여 아동·청소년기의 경험이 청년기 사회적 고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것, 다른 하나는 2차 데이터를 활용하여 청년기 사회적 고립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아동·청소년패널조사」 KCYPS 2010 유지패널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3)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는 통계청 국가승인통계로 통계청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시행됨(승인번호 제 402004호). 이 연구는 가구조사 방식으로 코로나19의 발생으로 조사가 지연되었으나, 조사의 정확성과 엄밀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 하에 진행되었음.

4) 고립 청년 당사자들과 가족, 서비스 실무자 면담(질적연구)

질적연구는 심층적인 내용 분석을 위하여 사회적 고립을 경험한 청년에 대한 심층인터뷰(IDI)와 그들의 가족 및 현장전문가에 대한 초점집단면접(FGI) 등으로 진행하였다. 사회적 고립 청년은 연구자 개인의 인적 네트워크 및 관련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눈덩이 표집을 하여 11명을 섭외하였고, 이 중 8명을 2회 이상 면접하였다. 이는 연구주제와 참여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라포(rapport) 형성 후 면담을 진행하는 것을 기획하였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청년 당사자 이외에도 부모, 심리상담 전문가, 관련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개별면담 및 초점집단면담(FGI)을 시행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질적연구 분석방법을 통한 분석 및 정책제언 도출을 시행하였다.

표 1-2 심층면접 주요 내용

주요 요소	내 용
면담참여자 수	• 총 22명 면담
면담참여자 특성 개요	• 고립 청년 개별면담 (11명) • 고립 청년의 부모 FGI (3명) • 고립 청년 지원사업 실무자 FGI 및 개별면담 (8명)
면담방식 (구조화 정도, 개별 혹은 집단면담)	•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한 면접방식 • 개별면담(IDI) & 초점집단면접(FGI)
면담장소	• 온라인 줌(Zoom) 회의실 ※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대면면접을 시행하지 않고 온라인 줌 회의실을 통해 면담 진행함
면담 시간 및 횟수	• 청년 당사자 개별면접 1인당 90분씩 1-2회 면담 • 가족 및 실무자 1회 면담
면담자료 기록 및 녹취 여부	• 면접 시 녹음하여 전사
참여자 모집 방법	• 연구자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모집 • 고립 청년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한 모집
면담자 및 분석	• 연구진
기타	• NYPI IRB 심의 완료

5) 전문가 자문

사회적 고립은 심리학, 사회학, 정신의학, 사회복지학 등 다학제적인 접근이 필요한 영역이다. 사회적 고립 청년과 관련한 이론적 배경, 현황, 대응방안 등에 대해 파악하기 위하여 이 연구는 다양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표 1-3 자문회의 개최 결과

자문영역	자문진	비고
사회적 고립의 이론과 측정과 관련 자문	○ 학계, 공무원, 청년단체 및 고립 청년 관련기관 실무자 등	
사회적 고립 청년 대상 지원서비스 관련 자문		
사회적 고립 청년 심층면접에 관한 자문		
사회적 고립 청년 관련 정책과제에 대한 자문		

6) 콜로키움 개최

이 연구는 사회적 고립 청년에 관한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콜로키움(colloquium)을 진행하였다. 콜로키움은 현장에서 사회적 고립 청년을 발굴, 면담, 사례관리 하는 현장전문가의 주제 발표로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일반적인 고민들과 이러한 고민들의 변화 추이에 대해 논의하고, 전통적인 아웃리치(outreach) 방법을 넘어 사회적 고립 청년들에 닿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표 1-4 콜로키움 개최 결과

콜로키움 주제	발표자	비고
고립과 불안을 대하는 청년의 두 가지 양상	장재열 대표 (청춘상담소 좀 놀아본 언니들)	웨비나

7) 포럼 개최

이 연구는 주제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과 연구 성과 확산을 위하여 포럼을 개최하였다. 연구진의 사회적 고립 청년에 관한 학술적 논의와 토론, 현장전문가의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사업의 성과와 과제를 중심으로 포럼을 진행하였다.

이 포럼은 “청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대응방안: 고립을 넘어 새로운 기회를 통한 재연결로” 라는 주제의 웨비나(webinar)로 진행되었다. 이 포럼의 기조 강연은 Eurofound의 Massimiliano Mascherini 박사가 “유럽 Youth Guarantee의 도입, 성과, 변화방향”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 발표에서는 유럽의 청년 보장제(youth guarantee) 도입과정과 그동안의 성과,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의 제도 변화 방향에 대해 청취하였다. 이어 국내 발표에서는 국내 현장 실무를 담당한 연구자 및 실무자가 참석하여 각 사례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K2인터내셔널에서는 일본의 사회적 고립 대응 방안에 대한 소개를 함께 진행하였다. 이 포럼에는 현장실무자와 사회적 고립 청년 당사자 및 부모가 참석하여 (1)사회적 고립 청년 관련 실태 및 시사점, (2)사회적 고립 청년 관련 정책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표 1-5 포럼 진행 결과

주요내용	참석자	개최시기	방식
[제12차 청년정책포럼] 청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대응방안: 고립을 넘어 새로운 기회를 통한 재연결로	학계 및 현장전문가 총 30명	2021년 10월 5일	웨비나

* 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년정책포럼의 일환으로 개최되었으며, 유튜브를 통해 송출하였음.

8)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사회적 고립 청년에 대한 지자체나 청년단체의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중앙정부는 관련 법령이나 정책, 서비스 체계를 관할하는 곳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번 연구는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들과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서울시 청년정책기획단과는 지자체 수준의 사회적 고립 청년 사업의 발전방안에 관해 협의하였다. 또한, 현재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인 고용노동부와 고립 청년 기회 제공을 위한 고용정책 재편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표 1 -6 정책연구실무협의회 개최 결과

차수	주요내용	참석공무원 부처(과)	개최시기	비 고
1차	사회적 고립 청년 통계 산출 논의 (청년 니트 비율 산출 등)	통계청 통계정책과	10월	
2차	고립 청년 기회 제공을 위한 고용정책 재편 방향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11월	
3차	지자체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을 위한 청년정책 발전방안 논의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	12월	

지금까지 소개한 이 연구의 과정을 하나의 도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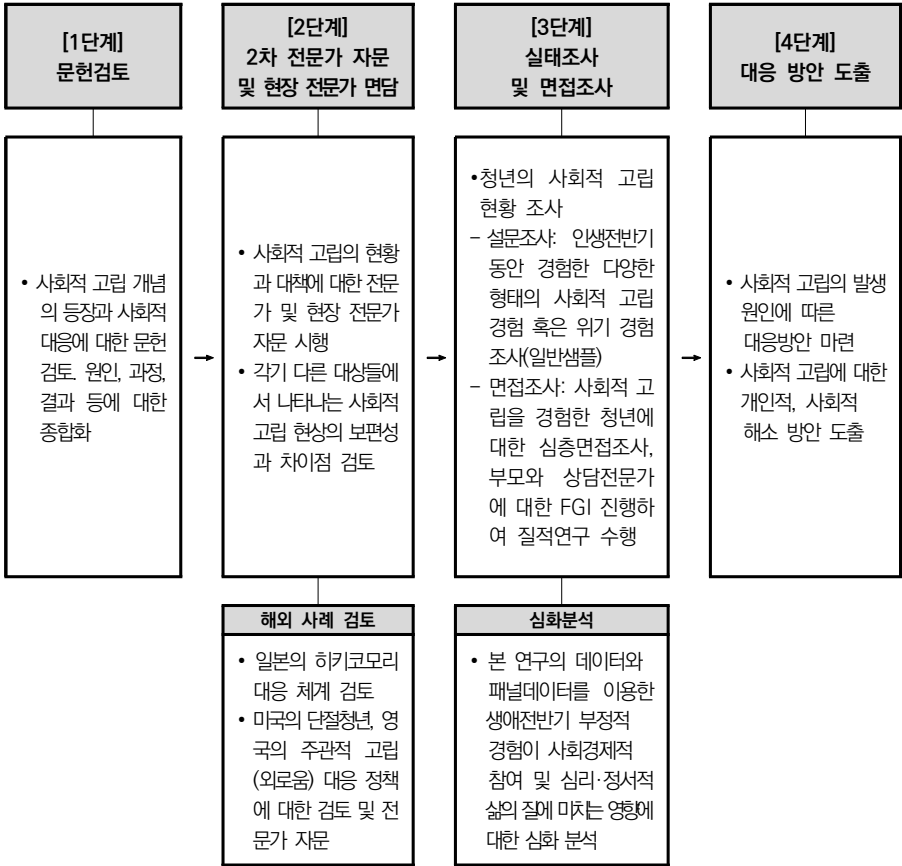


그림 1-2 연구 내용 및 방법에 관한 흐름도

다음 장부터는 사회적 고립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소개하고, 양적연구와 질적연구의 결과를 보고한 후, 국내의 관련 정책의 현황 및 해외사례에 대해 검토할 것이다. 이후 청년의 사회적 고립 현황에 기반하여 정책적 지원 방안에 대해 제안한다.

○ — 제2장 청년의 사회적 고립에 관한 문헌검토 : 개념, 현황, 영향요인 및 결과

- 1. 청년의 사회적 고립
: 개념과 정의
- 2. 청년의 사회적 고립 현황
- 3. 청년의 사회적 고립의 영향요인
및 결과 관련 문헌분석
- 4. 요약 및 시사점

청년의 사회적 고립에 관한 문헌검토 : 개념, 현황, 영향요인 및 결과⁴⁾

이 장에서는 선행연구들을 통해 청년의 사회적 고립이란 무엇이고, 얼마나 발생하는지, 그리고 청년의 사회적 고립이 왜, 어떻게 발생하고, 그 결과는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본다.

1. 청년의 사회적 고립 : 개념과 정의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사회적 고립은 인간에게 외로움(loneliness)을 야기하여 심리정서적인 고통을 유발하고, 네트워크를 통한 자원이나 도움에 대한 교환 부족으로 적절한 생활을 향유하지 못하게 한다.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외로움은 인간의 인지적, 정서적, 신체적 능력을 저해할 수 있어 선진국을 중심으로 사회적 고립 문제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 문제가 노년기뿐만 아닌 생애전반기로 확대되면서 영국과 일본은 국가차원의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실행 중이다.

그동안 청년 대상의 연구에서 사회적 고립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기존 연구들은 사회적 고립과 유사한 개념들을 통해 취약청년을 정의하여 정책 대상화하는 수준에 머물렀다(김기현, 유민상, 김창환, 정지운, 2019). 예를

4) 이 장은 유민상 연구위원, 신동훈 부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작성하였다.

들어, 청년 정책의 핵심 대상을 규정하기 위하여 청년 니트(NEETs: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단절청년(disconnected youth), 은둔형 외톨이(히키코모리) 등의 개념을 활용하였다. 이 개념들은 유사하게 이행기 청년들의 사회적 역할 수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강조점에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청년 니트는 유럽의 2008년 경제위기 이후 강조된 개념으로 청년기에 교육을 받지 않거나, 고용되어 있지 않거나, 훈련받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며(Mascherini, Salvatore, Meierkord, & Jungblut, 2012; OECD, 2021; 김기현, 배상률, 성재민, 2018), 역할(role)이나 지위(status)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단절청년(disconnected youth) 역시 미국의 2008년 경제위기 이후 강조된 개념으로 유럽의 니트 개념과 유사하게 학교에 있지 않거나 일하지 않고 있는 16세부터 24세까지의 사람을 말하며(Burd-Sharps & Lewis, 2013), 역할(role)이나 지위(status)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은둔형 외톨이(hikikomori)는 일정 기간 집 밖으로 나가지 않거나, 가족과 대화하지 않거나, 방 안에만 머무르며 지내는 사람을 의미하며, 의도(intention)와 행위(behavior)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객관적 상태의 고립, 주관적 상태의 고립, 관계적인 측면의 고립, 지원적인 측면의 고립으로 사회적 고립을 구분하고 있다. 최근에는 김춘남 외(2018)와 박찬웅 외(2020)의 연구와 같이 다차원적으로 사회적 고립을 나누려는 시도가 늘어남에 따라 사회적 고립의 다면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노력이 확대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고립은 아직 합의된 정의가 없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고립에 대한 다차원적인 정의를 시도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회적 고립이란 ‘한 개인이 사회와 다차원적으로 고립된 상태’로 보았다. 고립은 한 개인을 중심으로 외부와의 외적인 단절과 내적인 단절의 형태로 발생하는데, 이 연구는 외적인 단절을 외부적 고립(external isolation)으로 ‘한 개인이 타인과의 관계망이 없거나 거의 없는 상태’로 정의하고, 내적인 단절을 내부적 고립(internal isolation)으로 ‘한 개인이 사회적 관계망에서 고립감을

느끼고 있는 상태'로 정의하였다(Zavaleta, Samuel, & Mills, 2017).

사회적 고립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고립의 요소에 대해 더 명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외부적 고립을 타인과의 관계망이 없거나 거의 없는 상태로 정의하고, 타인과의 관계망의 구성 요소로서 사회적 연락(social contact), 사회적 지원(social support), 개인 간 정서적 교류(emotional relationship)를 설정하였다. 즉, 외부적 고립이란 사회적 연락, 사회적 자원, 개인 간 정서적 교류가 없거나 거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여기서 사회적 지원과 정서적 교류는 사회적-정서적 호혜 관계 볼 수 있다.

표 II-1 사회적 고립의 개념 구성

	외부적 고립 (External Social Isolation)	내부적 고립 (Internal Social Isolation)
구성요소	· 사회적 연락(social contact) · 사회적 지원(social support) · 개인 간 정서적 교류(emotional relationship)	· 인지된 사회적 고립(perceived social isolation) 혹은 외로움(loneliness)

* 출처: Zavaleta, Samuel, & Mills(2017) 내용을 토대로 저자가 재구성하였음.

내부적 고립은 외부적 고립과 다르게 개인이 주관적으로 사회적으로 고립된 상태에 있다고 느끼는 것이다. 내부적 고립은 인지된 사회적 고립(perceived social isolation)이나 외로움(loneliness)이라는 개념으로 연구되고 있다 (Zavaleta, Samuel, & Mills, 2017; Valtorta, Kanaan, Gilbody, & Hanratty, 2016; Cacioppo & Hawkey, 2009). 내부적 고립의 특징은 외부적 고립의 상태와 구분된다는 점이다. 즉, 외적으로 고립된 것으로 보이지 않더라도 내부적으로는 고립감을 느낄 수 있다. 이는 외부적 고립과 다른 차원에서 청년이 느끼는 고립감을 측정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다만, 여기서 개념화하는 외로움

(loneliness)은 고독(solitude)과는 다른 개념이다. 고독은 개인이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삶의 형태에서 발생하는 부정적 감정이라면 외로움은 개인이 비자발적으로 놓인 상황에서 관계의 결핍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 감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서영석, 안수정, 김현진, 고세인, 2020).

추가로, 현대 사회는 디지털 전환의 흐름 속에서 비대면적인 교환 관계가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개인의 연결망과 정서적 관계를 어디까지 확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2. 청년의 사회적 고립 현황

여기서는 청년의 사회적 고립 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사회적 고립의 구성 개념 중 일부와 유사개념(청년 니트, 은둔형 외톨이 청년)의 현황을 함께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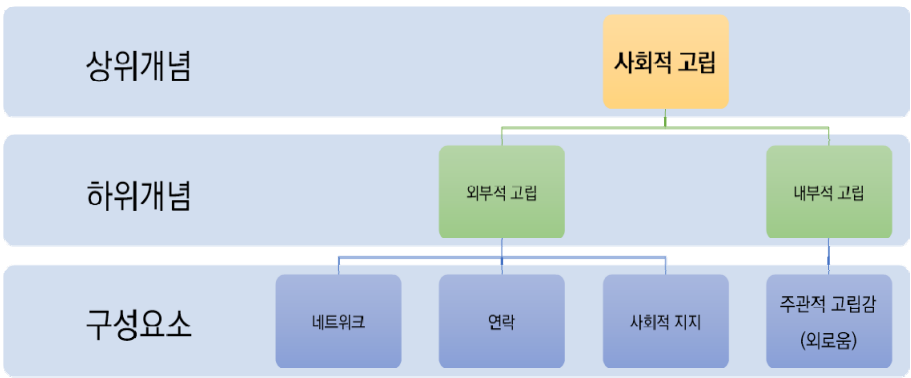


그림 II-1 사회적 고립의 구성 개념

* 출처: 저자작성.

우리나라에서 OECD 기준 니트 청년의 비율은 201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하락 추세를 보였다가 2010년대 후반 다시 상승추세에 들어섰다. OECD 기준으로 21.59%의 청년들이 고용, 훈련, 교육을 받지 않는 니트 상태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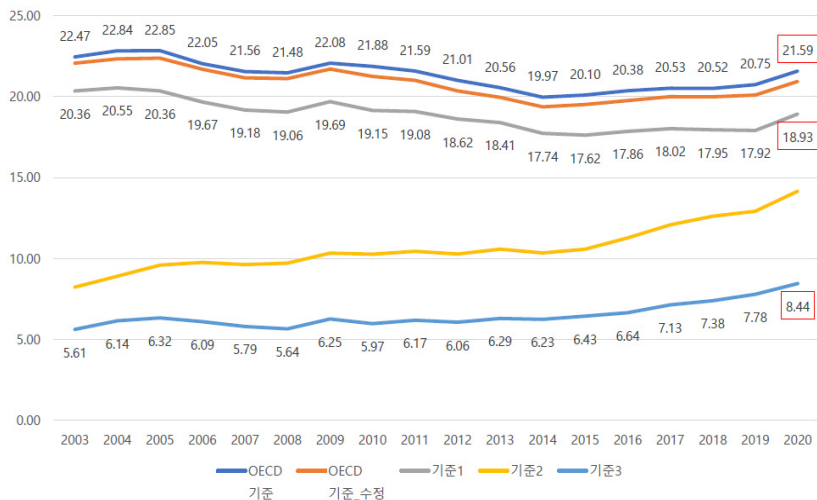


그림 II-2 우리나라 청년니트 비율(2003-2020)

- * 출처: 김기현, 유민상, 배정희, 신동훈, 박성재, 정지운(2021)에서 통계청(각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산출한 니트(NEETs) 비율을 토대로 도식화하였음.
- * 주: 그래프의 니트 기준은 윤혜준, 민숙원, 유한구, 금예진(2017)의 정의를 참고하였음.
 모든 기준은 경제활동 인구 중 실업자를 포함하지만, 비경제활동인구의 하위집단 중 포괄하는 범위가 다름.
 ①OECD 기준은 실업자, 정규 교육기관 통학, 입시학원 통학,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통학, 육아, 가사, 취업 준비, 진학 준비, 군입대 대기, 연로, 심신 장애, 쉬었음, 기타 등이 포함됨. ②OECD 수정기준은 OECD 기준에서 정규 교육기관 통학 제외, ③기준1은 OECD 기준에서 정규 교육기관, 입시학원 통학,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통학을 제외, ④기준 2는 OECD 기준에서 정규 교육기관, 입시학원 통학,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통학, 육아를 제외, ⑤기준3은 OECD 기준에서 정규 교육기관, 입시학원 통학,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통학, 육아, 가사, 취업준비, 진학준비, 군입대 대기를 제외(즉, 기준 3은 쉬었음과 기타만 포함하여 니트 규모를 산출함).

은둔형 외톨이 상태에 있는 청년이 얼마만큼 있는지 측정하기 위해 외출 빈도 관련 문항이 주로 활용된다.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를 통해 해당 변수에 관한

결과를 살펴보면 6개월 이상 외출을 거의 하지 않는 빈도의 비율이 워낙 낮아 조사 연도에 따라 다소간 수치의 등락이 있는 점이 확인된다. 또한, 여기에는 출산 및 육아 등의 원인으로 외출이 드문 경우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이 수치를 그대로 은둔형 외톨이(히키코모리)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대략적인 규모를 산출 한다는 의미에서 전체 청년의 2~5% 가량을 외출이 거의 없는 고립 청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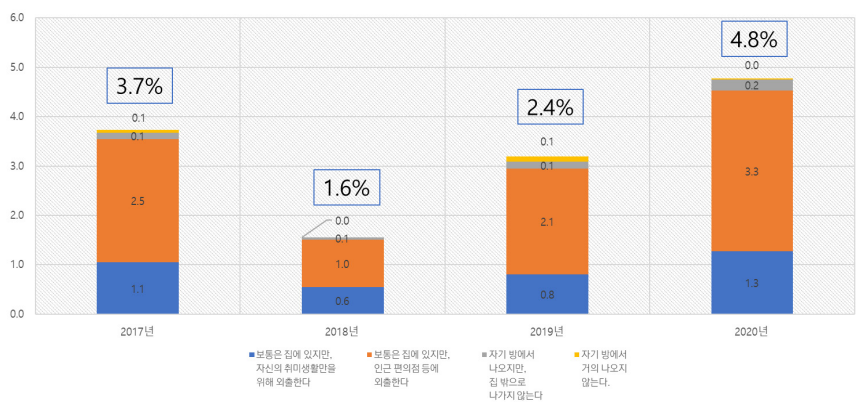


그림 II-3 외출하지 않는 청년들의 비율(2017-2020)

* 출처: 연구진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한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의 연차별자료를 재가공하여 제시하였음 (연령범위: 19세~34세).

외로움을 느끼는 비율은 점차 감소 추세에 있다. 하지만 청년들의 경우에도 전체의 15.3%가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앞서 살펴본 외출 비율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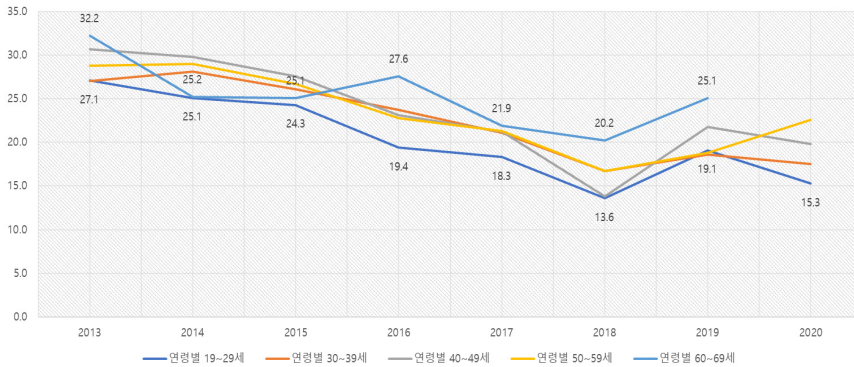


그림 II-4 우리나라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의 비율(2013~2020)

* 출처: 한국행정연구원이 조사한 『사회통합조사』의 연차별자료를 KOSIS에서 다운로드 받아 재가공하여 제시하였음.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17&tblId=DT_417001_0035&conn_path=I2에서 2021년 10월 1일 인출.

* 주: 2013~2019년은 19~69세로 발표되었으나, 2020년은 60세 이상을 60세 이상, 65세 이상으로 구분하여 이 그래프에서는 별도 제시하지 않음(60세 이상 30.8%, 65세 이상 3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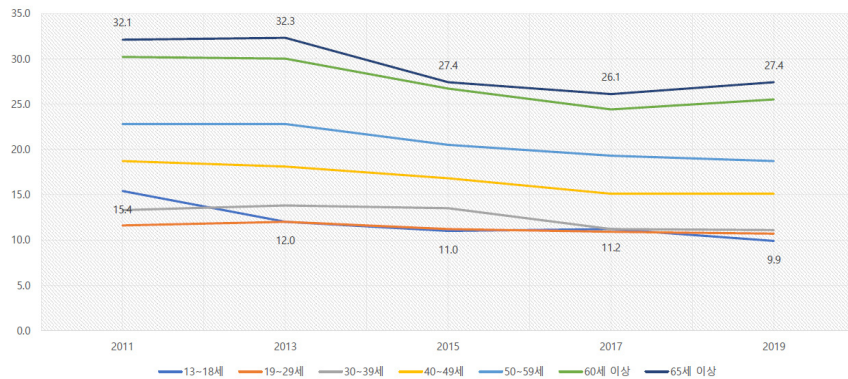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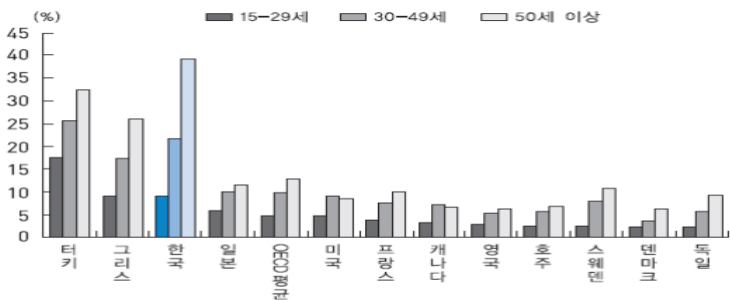


그림 II-5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도움 받을 사람이 없는 비율 (2011~2019)

* 출처: 통계청이 조사한 『사회조사』의 연차별자료를 KOSIS에서 다운로드 받아 재가공하여 제시하였음.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SP041R&conn_path=I2에서 2021년 10월 1일 인출.

사회적 고립에 대한 합의된 정의가 없으므로 사회적 고립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가 매우 부족하다. 최근의 국제 연구들은 몇 가지 핵심 문항, 예를 들어, 어려울 때 도와줄 사람이 있는지, 평소 교류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등을 변수로 하여 실태를 파악하는 경향이 있다.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할 상대가 필요하지만 도움 받을 사람이 없는 경우는 연령별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경우 27.4%가량이었지만 청년은 9.9%로 비교적 낮았다. 하지만 10명 중 1명꼴로 사회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관심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국제비교 데이터에서 사회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준(2019)의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사회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높으며, 국민들 내에서도 연령에 따른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연령대별로 청년에서는 비중이 낮게 나타나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증가 추세에 있다.



출처: OECD, *Society at a Glance*, 2016.

그림 II-6 연령집단별 사회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OECD 2013-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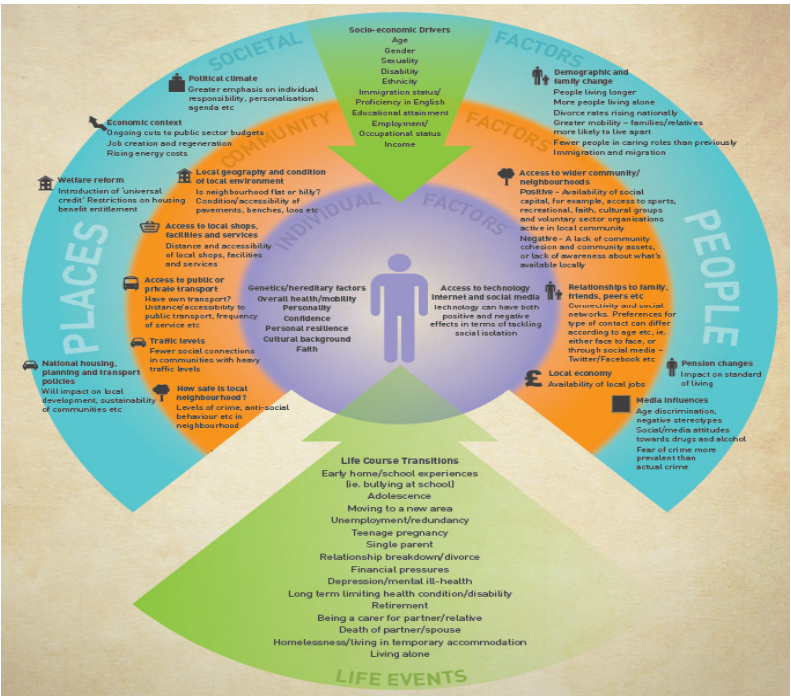
* 출처: OECD (2016), *Society at a Glance*. Paris: OECD; 한준 (2019). 사회적 고립의 현황과 결과. 한국의 사회동향 2019. 통계청에서 재인용.

국내에서 사회적 고립에 대한 대규모 조사는 통계청의 사회조사, 한국행정연구

원의 사회통합실태조사 등을 들 수 있다. 청년층만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고립 실태에 관한 연구는 매우 최근에 진행되었으나 사회적 고립에 대한 합의된 정의 없이 이루어진 특징이 있다.

3. 청년의 사회적 고립의 영향요인 및 결과 관련 문헌분석

사회적 고립은 인생의 어느 시기에나 나타날 수 있다(Duncan & Bell, 2015: p.5). 또한 사회적 고립은 개인을 둘러싼 생태체계적 환경에서 다차원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Clarke & McDougall, 2014).



* 출처: Clarke & McDougall (2014). Social Isolation in Bristol: Risks, Interventions and Recommendations Report. p.10.

그림 11-7 사회적 고립의 사회적 맥락 개괄

사회적 고립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으나,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의 사람들은 더 취약할 수 있다. 사회적 고립은 불평등하게 배열된 사회적 위험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은 학대, 방임, 가족 역기능으로 구성된다. 아동학대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를 포함하고, 방임은 물리적 방임, 정서적 방임으로 대별된다. 가족의 역기능은 아동이 거주하는 가정환경에서 가족 구성원에게 정신질환이 있거나, 가정폭력을 목격하거나, 이혼하거나, 가족이 감옥에 수감되거나, 약물중독인 가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의 영향은 생애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아래 그림과 같이 심각한 위험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Felitti et al. 19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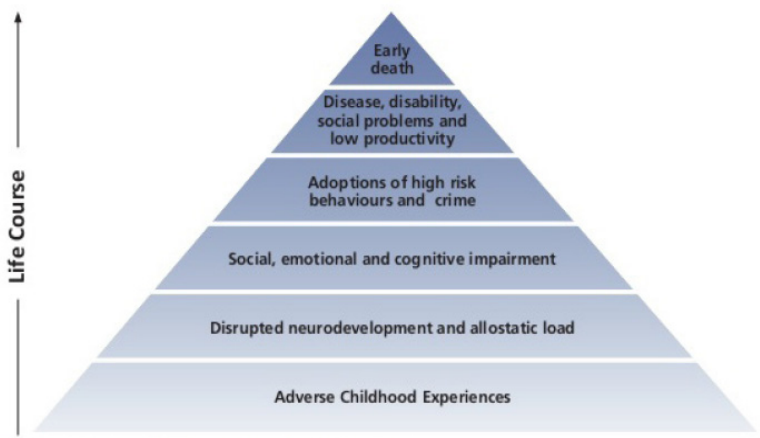


Figure 1: Model of ACE impacts across the life course¹

* 출처: Public Health Wales (2016).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and their association with chronic disease and health service use in the welsh adult population. p.4.

그림 II-8 생애주기에 따른 부정적 생애경험의 영향

청년기 사회적 고립은 생애전반기 동안의 부정적 경험이 누적되어 발생한다 (Caspi, Harrington, Moffitt, Milne, & Poulton, 2006). 생애전반기 동안 발생하는 이러한 부정적 사건 등은 심리적 상처를 남기게 되고, 이것이 중장기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청년기 자체에도 부정적인 경험이 발생할 수 있는 취업의 실패, 직장 부적응,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 등이 있다. 선행연구들에서도 도출된 생애 전반기에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고립의 위험은 다음과 같다.

- 가정폭력, 아동학대와 같은 가정환경 요인
- 학교 폭력, 따돌림, 체벌, 낮은 학업성취, 진학실패와 같은 학교 관련 요인
- 취업 실패, 노동시장에서의 부적응 및 갈등과 같은 노동시장 관련 요인
- 친밀한 사람과의 이별 혹은 상실 등 개인의 관계적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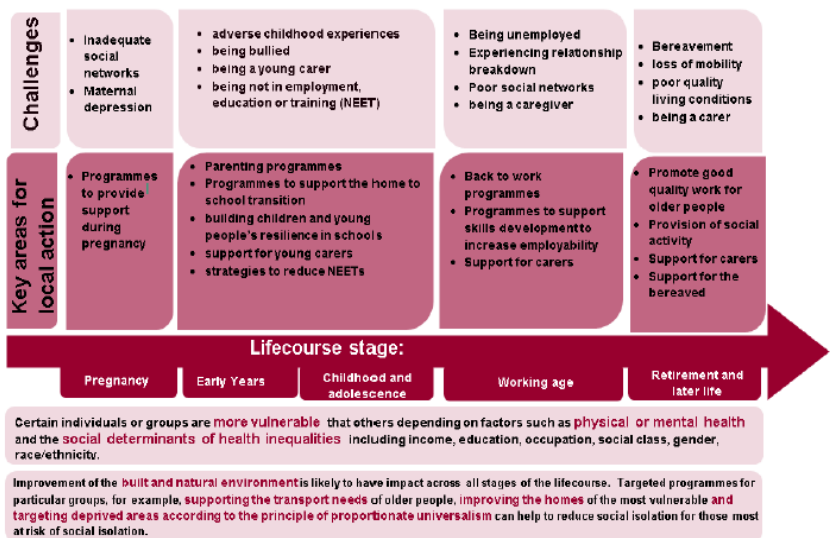
김춘남 외(2018)는 생애주기에 따른 사회적 고립의 원인, 유형,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아동·청소년기에는 학교적응, 가정환경, 친구관계, 방과 후 활동을, 청장년기에는 직업, 결혼 및 이혼, 경제환경, 친구관계 등을 원인으로 정리하였다. 이는 생애주기에 따른 사회적 고립의 위험요인이 생애주기별로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II-2 생애주기에 따른 사회적 고립의 원인

	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 원인		
	아동·청소년기	청장년기	노년기
원인	·학교적응 ·가정환경 ·친구관계 ·방과 후 활동	·직업: 실업과 퇴직 ·결혼, 이혼 등 ·경제환경 ·친구관계	·퇴직 후 적응 ·자녀, 배우자 ·경제환경 ·건강상태

* 출처: 김춘남, 박승민, 박승희, 김서인 (2018). 사회적 고립의 유형분석 및 지원방안. 경기: 경기복지재단. p.ii.

이외에도 개인적 특성으로 성격, 외모, 비만, LGBT, 장애, 소수인종, 가족특성으로 빈곤(사회적 관계유지 비용), 부정적 생애사건(빈곤, 가정폭력, 약물중독), 학업스트레스, 진로갈등, 관계 특성으로 관계 특성, 따돌림과 괴롭힘, 학업중단(성인기 낮은 사회연결망과 사회적 기술로 직업적 사회계층 낮을 가능성이 있음), 학업/직업특성으로 이주, NEETs, 실업(네트워크, 동료들로부터 연락을 하지 못하게 됨) 등이 있다. 기타 특성으로 중독(게임/약물/알코올)이 있다. 이러한 특성들은 특정 대상들에게 중첩되어 나타날 수 있다(Duncan & Bell, 2015).



* 출처: Duncan & Bell (2015). Reducing social isolation across the life course. p.28.

그림 II-9 사회적 고립의 생애주기별 발생 및 발달

이와 같은 생애전반기의 사회적 고립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전 생애동안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본에서 1990년대부터 사회문제화된 은둔형 외톨이(히키코모리) 중에는 사회와 단절된 채 30년 이상 장기화된 경우도 있고, 이

때문에 80대의 노부모가 40-50대의 히키코모리를 부양하는 현상(소위 8050 문제)이 나타나고 있다. 일본에서 히키코모리를 지원하기 위한 청년정책의 기준연령이 점차 증가하여 최근 40대 이상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변화되는 것은 히키코모리가 청년세대에서만 발생하는 현상이 아니라 특정 사회경제적 충격을 받은 코호트(cohort)에게 장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사회적 고립 문제는 일시에 해소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높으므로, 적극적인 사회 정책 및 서비스로 생애전반기 사회적 고립을 예방해야 한다.

4. 요약 및 시사점

사회적 고립이란 ‘한 개인이 사회와 다차원적으로 고립된 상태’를 의미한다. 외부적 고립(external isolation)은 ‘한 개인이 타인과의 관계망이 없거나 거의 없는 상태’로 정의하고, 내적인 단절을 내부적 고립(internal external)으로 ‘한 개인이 사회적 관계망에서 고립감을 느끼고 있는 상태’로 정의할 수 있다. 외부적 고립은 타인과의 사회적 연락(social contact), 사회적 지원(social support), 개인 간 정서적 교류(emotional relationship)가 없거나 거의 없는 상태로 구성된다. 내부적 고립은 인지된 사회적 고립(perceived social isolation)이나 외로움(loneliness)이라는 개념으로 구성할 수 있다.

사회적 고립은 인생의 어느 시기에나 나타날 수 있으므로 생애주기적 관점을 통해 분석되어 왔다. 사회적 고립은 노인 연구들에서 먼저 시작되었으나 개인화와 공동체의 소멸과 같은 문제로 인하여 사회적 고립은 청년기의 문제로도 지적되기 시작하였다. 사회적 고립은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adverse childhood experience)이나 청년기에 경험하는 부정적 경험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아동기 영향은 아동학대, 가정폭력 목격과 같은 가정환경 요인, 학교폭력, 따돌림, 낮은 학업성취, 진학실패와 같은 학교 관련 요인 등이 있다. 청년기 영향은 취업실

때, 노동시장에서의 부적응, 장기실업상태 등과 같은 노동시장 요인이 있다. 사회적 고립은 개인에게 우울증과 자살생각 같은 정신건강 문제, 성인기의 낮은 사회적 네트워크와 사회적 기술로 인한 진로의 불안정과 경제적 안정성 문제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장기화되는 사회적 고립은 문제를 더 강화시킬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제3장 우리나라 사회적 고립 청년의 실태

- 1. 개요
- 2. 청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부가문항)
- 3. 생애전반기 경험이 청년의
사회적 고립에 미치는 영향
(심화분석)
- 4. 요약 및 시사점

1. 개요

이 보고서에서 청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파악은 양적연구와 질적연구로 구성되어 있다. 본 장에서는 양적연구를 통해 사회적 고립을 유발하는 생애전반기의 사건 결과에 대해 살펴보고, 다음 장에서는 질적연구를 통해 데이터로 확인하기 어려운 개인의 경험, 인식, 전망에 대해 심도 깊게 살펴볼 것이다. 구체적으로 양적 연구를 다루는 이번 장의 목적은 사회적 고립 청년의 실태를 설문조사 데이터와 2차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회적 고립 청년의 규모, 특성, 고립의 원인, 결과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개요를 제외하고 이 장은 총 세 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절은 이 연구에서 참여한 2021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중 사회적 고립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기초적으로 분석하여 보고한다. 두 번째 절은 패널분석을 통해 청년기 사회적 고립의 이행에 대해 살펴보고, 이 연구에서 수집한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자료를 토대로 생애전반기 경험과 사회적 고립 특성 간의 관계에 대해 분석한다. 패널자료를 활용한 분석에서는 아동·청소년기 경험이 성인기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인과성을 확인하였으며, 횡단자료에서는 사회적 고립 측정이 다각도로 가능한 장점을 바탕으로 사회적 고립과 아동·청소년기 및 청년기 동안의

5) 이 장은 신동훈 부연구위원, 유민상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작성하였다.

경험 간 연관성을 파악하는 회고적 연구(retrospective study)를 추가적으로 실시하였다. 세 번째는 소결파트로 각 분석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정책제언을 위한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2. 청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부가문항)

1) 조사개요 및 대상

본 연구는 청년층이 경험하는 사회적 고립(social isolation)의 실태 및 특성을 파악함에 있어 자료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연구진과 공동조사를 실시하였다.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는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가 제안해 지난 2013년과 2015년 실시한 조사를 바탕으로 2017년부터 통계청 승인(국가통계 승인번호 402004호)을 받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청년들의 교육, 건강, 결혼, 출산, 일자리 등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김기현, 신동훈, 변금선, 고혜진, 신인철, 2020). 이 연구는 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에 부가조사 형태로 사회적 고립 문항을 추가하여 조사하였다.⁶⁾

지난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2021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는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18세~34세에 해당하는 청년 2,04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기존 조사에 참여한 연령은 19세~39세(2013년, 2015년)와 15세~39세(2017년~2019년) 등 조사별로 차이가 있었다. 이후 2020년에 접어들면서 청년기본법 시행과 선거연령의 하향에 맞추어 조사 연령이 만 18세~34세로 조정되었다(김기현 외, 2020). 올해 조사에서도 2020년도 조사와 동일하게 조사기준일(2021년 6월 1일) 기준 만 18~34세로 대상을 유지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6) 이 연구의 양적조사는 2021년 4월 28일 NYPI IRB의 승인을 받았으며, 승인번호는 NYPI-202104-HR-고유-0040이다.

2) 조사 절차⁷⁾

이번 2021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는 예비조사와 본 조사의 절차로 진행되었다. 예비조사는 2021년 5월 10일부터 23일까지 총 2주간 진행하였으며 총 50부의 설문조사를 성별(남성 25부, 여성 25부), 연령별(18-29세 25부, 30-34세 25부), 생활상태(취업자 25부, 미취업자 25부), 혼인여부(미혼 25부, 기혼 25부) 등을 고려해 실시하였다. 본 조사에 선행한 예비조사를 통해 설문문항의 적합성(신뢰도 및 타당도)과 문항 서술에 대한 이해의 용이성, 조사 소요 시간, 자기기입식 조사 진행 시 개선할 점 등 조사 전반에 걸쳐 예상되는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예비조사 결과 연구진이 구성한 문항에 어려움이나 불편함을 느낀다는 지적이 일부 있었다. 예컨대, 몇몇 문항에 대해 문항 길이가 길고 내용이 추상적인 부분이 있어 소요시간이 다소 길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또한, 과거 경험을 묻는 문항을 응답하는 데 불편함을 느낀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전반적인 설문의 난이도(2.5점/5.0점)와 불편함 정도(2.48점/5.0점)는 기존 실시된 설문조사와 유사하게 나타나 조사 설계 또는 문항 변경 등이 강력하게 권장되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따라서 연구진은 질문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관련 문항을 미시적으로 수정하는 방향으로 반영하였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 의견이 제시된 문항에 관해서는 문항의 수정보다 실제 설문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혼동이 있을 수 있는 내용에 대해 부가적인 설명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본 조사 조사표에 반영하였다.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는 통계청 승인통계에 해당하므로 이번 조사에서는 조사대상 규모 변동(2020년 3,500명 → 2021년 2,000명)에 따른 표본설계와 설문 유형 통합, 세부 조사문항 추가·변동·문구수정 등에 대한 사항을 반영해 변경승인 과정을 거쳤다. 또한, 연령 및 권역 등의 분석단위를 수정하여 최종적으로 2021년 7월 5일 변경 승인이 완료되었다.

7) 이 조사는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를 주관하는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 : 일자리」 과제와 공동조사를 실시하였으므로, 본 절의 2) 조사 절차에서 5) 표본 설계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

3) 조사 방법

예비조사에 이어 본 조사는 1:1 가구방문 개별면접으로 진행되었다. 조사원이 조사 대상자(만 18-34세)와 대면해 면접하는 방식이며,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에 방문하여 ① 조사 참여 여부 확인, ② 참여대상 가구원 확인, ③ 참여 대상자 면접의 흐름으로 진행되었다. 주된 면접 조사방법은 TAPI(Tablet PC Aided Personal Interview, 태블릿PC를 활용한 대면면접조사)로 수행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제약 및 청년층의 경우 조사를 진행하는 주간 시간대에 부재중인 경우가 많아 일부의 경우에 한해 가구원 유치 조사를 병행하였다.

조사원 교육은 본 조사에 앞서 총 두 차례(2021년 6월 17일 및 6월 21일)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교육은 조사개요, 조사표 교육, 현장조사 방법론 등 총 3개 영역에 걸쳐 3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아울러 해당 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인원을 대상으로 두 차례의 추가 교육(2021년 7월 13일 및 7월 15일)과 추가 조사원을 위한 수시교육도 병행하였다.

4) 조사 기간

본 조사는 2021년 7월 19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되었다. 최초 현장 조사 기간 목표는 6월 14일부터 7월 30일까지 총 7주를 계획하였으나 변경승인 과정에서의 설계 변경과 이로 인한 조사구 수령 등이 지체되어 당초 목표보다 약 1개월 지체되어 현장 실사가 시작되었다.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의 경우에는 조사 준비 기간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로 격상, 유지된 상황이라 타 지역 대비 1주 정도 늦은 7월 26일부터 현장 조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협의하였다. 그러나 수도권 지역 거리두기 단계가 이후에도 계속 4단계로 유지되어 4단계로 격상된 강원도 강릉시를 포함하여 다시 8월 8일까지 2주가량 현장 조사를 일시 중단하고 나머지 지역만

현장 조사를 우선 진행하였다. 이후, 8월 8일 이후에도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낮아지지 않아 연구진 간 논의를 통해 수도권을 포함하여 전국 조사를 재개하였으며, 현장 조사 일정을 10월 31일까지로 조정하여 조사를 완료하였다.

5) 표본 설계

이번 2021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는 청년기본법 상 청년 연령대(19세 이상~34세 이하)와 선거 가능 연령(만 18세 이상)인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일반 국민을 목표모집단으로 설정하였다. 다만, 현실적인 조사 추진 여건을 고려하여 조사모집단은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에 해당하는 아파트 조사구 및 일반조사구 내 일반가구(인구주택총조사 상의 섬, 기숙시설, 특수사회시설, 관광호텔, 외국인 조사구 등 제외)에 거주하는 청년으로 정의하였다(김형주, 연보라, 배정희, 2020). 여기에 해당 하는 표본 추출 표집틀로 가용한 가장 최신의 자료라 할 수 있는 2019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구 리스트를 활용하였다.

지난 2020년 조사와 비교해 2021년 조사는 표본수가 축소되어 이를 감안해 표본설계가 이루어졌다. 총 2단계의 층화 과정 중 첫 번째 단계에서는 총 16개의 시도(특별·광역시: 7개, 도: 9개) 수준에서 층화를 수행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9개의 도 지역에 대해서 동부와 읍·면부로 층화하였다. 표본수가 제한됨에 따라 권역 분석 시 수도권과 비수도권 2개 단위로 통계를 작성하도록 설계하였다.

표본배분 방식은 각 시도별 조사대상 인구에 비례하여 290개 표본 조사구를 제공근비례배분 방식으로 배분한 후 각 시도에서 세부 층(시도, 동지역, 읍면지역) 조사 대상 인구에 비례하여 배분하였다. 각 표본 조사구별 목표표본은 7명으로 설정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2019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만 18-34세 인구: 동지역 0.56명, 읍면지역 0.40명)에 따라 조사 대상 표본 가구는 동부의 경우 13가구, 읍면부의 경우 17가구로 설계하였다.

6) 설문문항

이 연구는 2021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에 사회적 고립의 측정, 원인, 현황, 결과, 그리고 희망 서비스 및 정책 등 다섯 가지 영역에 해당하는 문항을 포함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 설문을 수정 및 보완하거나 추가하는 방식으로 구성하여 청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특성을 파악하였다.

표 III-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중 사회적 고립 관련 문항

구분	영역	하위 영역	지표	출처	비고
사회적 고립의 측정	외부적 고립	연결망	어려울 때 도와줄 친구(가족, 지인) 수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기존문항	-
			교류하는 가족/친구/그 외 사람들 여부 및 빈도	통계청(2019)의 사회조사 내용을 대면/비대면으로 나누고 빈도를 추가하여 측정	연구진 자체 개발
		지원	사회적 지지 혹은 지원(social support)의 3가지 차원 통합(정서적 지원, 도구적 지원, 정보적 지원)	통계청(2019)의 사회조사 문항을 토대로 현대 한국인의 의식과 관행 조사(이문용, 1998)와 이 자료를 활용한 김재우(2015)의 사회적 지지 개념을 반영하여 연구진이 수정·보완하였음.	기존 문항을 연구진 수정·보완
		외출	평소 외출 형태, 외출이 거의 없었던 기간, 외출을 하지 않게 된 계기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기존문항	-
	내부적 고립	주관적 고립감	외로움	-Russell, D. W. (1996). UCLA Loneliness Scale (Version 3): Reliability, validity, and factor structur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66(1), 20-40. -진은주, 황석현 (2019). 한국판 UCLA 외로움 척도 3 판의 타당화. 청소년학연구, 26(10), 53-80.	기존 문항을 연구진 수정·보완
원인	생애전반기 부정적 경험(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Adverse childhood experience(ACE) 및 이행 지연사건 경험	류정희 외(2018)가 번역한 부정적 생애경험(Adverse Childhood Experience) 척도와 임형문 외(2020) 은둔형 외톨이 조사의 내용을 토대로 연구진이 수정·보완하여 작성하였음	기존 문항을 연구진 수정·보완
현황	현재 상태		소속감	연구진 개발	연구진 자체 개발
결과	주관적 삶의 질	인지적 측면	가족/친구/일반관계 만족도	International Wellbeing Group (2013). Personal Wellbeing Index: 5th Edition. Melbourne: Australian Centre on Quality of Life, Deakin University의 내용에서 관계 영역을 수정·보완하였음.	기존 문항을 연구진 수정·보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의 기존문항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상을 구분하지 않고 조사하고 있어, 연결고리의 다양성이 측정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가족, 친구, 그 외의 사람들과의 교류에 대한 문항을 구성하여 보완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연구진은 2019년 통계청 사회조사의 사회적 관계망과 관련한 문항을 참고해 설계한 바탕에, 비대면 교류가 활성화되는 점을 반영하고 동시에 다양한 대상과의 교류 빈도에 중점을 두고 신규문항을 개발해 설문에 도입하였다.

표 Ⅲ-3 연결망 관련 문항(신규)

구분	문항
원안 (2019 사회조사)	26-1) 귀하는 평소에 대면, 인터넷(SNS), 전화 등의 방식으로 교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면 하루 평균 몇 명의 사람과 교류하십니까? (교류는 전화, 우편, 대면 등의 방식으로 다른 사람과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는/의사소통하는 것을 말합니다.)
	1. 가족 또는 친척(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제외) ① 있다 () 명 ② 없다 2. 가족 또는 친척 이외의 사람(업무상 접촉은 제외) ① 있다 () 명 ② 없다

수정안	문99-1) 귀하는 다음과 같은 집단의 사람들과 평소에 직접 만나는 대면 형태로 얼마나 자주 교류하십니까?						
	☞ 교류란 다른 사람과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거나 의사소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같은 사람이든 다른 사람이든 일주일에 매일 같이 사람들과 만난다면 직접 만나는 교류에서 '거의 매일'로, 온라인으로 연락한다면 온라인으로 하는 교류에서 '거의 매일'로 응답해주시면 됩니다.						
	문 항	전혀 없다	1년에 한 두 번	3개월에 한두 번	한 달에 한두 번	일주일에 한두 번	거의 매일 (일주일에 서너 번 이상)
	(1) 가족들과의 대면 교류	①	②	③	④	⑤	⑥
	(2) 친인척들과의 대면 교류	①	②	③	④	⑤	⑥
	(3) 친한 친구나 친한 사람과의 대면 교류	①	②	③	④	⑤	⑥
	(4) 이외 직장, 학교, 동네에서 알고 지내는 사람들과 대면 교류 (업무 상 교류 제외)	①	②	③	④	⑤	⑥
(5) 온라인 커뮤니티, SNS로 알게 된 사람들과의 대면 교류	①	②	③	④	⑤	⑥	

문99-2) 귀하는 다음과 같은 집단의 사람들과 평소에 인터넷(SNS), 전화 등의 비대면 방식으로 얼마나 자주 교류하십니까?
☞ 교류란 다른 사람과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거나 의사소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같은 사람이든 다른 사람이든 일주일에 매일 같이 사람들과 만난다면 직접 만나는 교류에서 '거의 매일'로, 온라인으로 연락한다면 온라인으로 하는 교류에서 '거의 매일'로 응답해주시면 됩니다.

구분	문항					
	문항	전혀 없다	1년에 한 두 번	3개월에 한두 번	한 달에 한두 번	일주일에 한두 번 (일주일 에 서너 번 이상)
	(1) 가족들과의 비대면 교류	①	②	③	④	⑤
	(2) 친인척들과의 비대면 교류	①	②	③	④	⑤
	(3) 친한 친구나 친한 사람과의 비대면 교류	①	②	③	④	⑤
	(4) 이외 직장, 학교, 동네에서 알고 지내는 사람들과 비대면 교류 (업무 상 교류 제외)	①	②	③	④	⑤
	(5) 온라인 커뮤니티, SNS로 알게 된 사람들과의 비대면 교류	①	②	③	④	⑤

* 출처: 통계청 (2019). 2019 사회조사 조사표. 통계청 홈페이지 <https://www.narastat.kr/metasvc/index.do>에서 2021년 6월 1일 검색 및 인출.

외부적 고립 측정 가운데 지원에 관한 문항은 사회적지지의 세 가지 차원(정서적 지원, 도구적 지원, 정보적 지원)을 통합하여 구성하였다. 통계청에서 실시한 2019년 사회조사의 사회적 관계망 틀을 기본으로, 현대 한국인의 의식과 관행 조사(이문웅, 1998)와 이 자료를 활용한 김재우(2015)의 사회적지지 개념을 반영해 연구진이 수정 및 보완해 작성하였다.

표 III-4 사회적 지원 관련 문항(신규)

구분	문항
원안 (2019 사회조사)	26) 귀하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가족, 친척, 친구, 이웃, 직장 동료 등)이 몇 명 있으십니까? 1.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해야 할 경우 ① 있다 () 명 ② 없다 2. 갑자기 큰돈을 빌려야 할 경우 ① 있다 () 명 ② 없다 3.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① 있다 () 명 ② 없다
수정안	문98) 귀하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가족, 친척, 친구, 이웃, 직장 동료)이 있으십니까?

구분	문항		
	문항	없다	있다
	(1) 취업이나 진로에 관한 조언이나 정보를 물어볼 수 있는 사람	①	②
	(2) 나에게 필요한 주거/금융/법률 관련 정보를 물어볼 수 있는 사람	①	②
	(3)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해야 하는 경우, 집안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	①	②
	(4) 몸이 아파서 거동하기가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①	②
	(5) 내가 돈이 필요할 때 갑자기 큰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	①	②
	(6)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①	②
	(7) 내가 갑자기 연락 두절되었을 때, 나의 안부(생사)를 확인해줄 수 있는 사람	①	②

* 출처: 통계청 (2019). 2019 사회조사 조사표. 통계청 홈페이지 <https://www.narastat.kr/metasvc/index.do>에서 2021년 6월 1일 검색 및 인출.
이문웅 (1998). 현대 한국인의 의식과 관행조사. 한국사회과학자료원 홈페이지 <https://kossda.snu.ac.kr/>에서 2021년 6월 1일 검색 및 인출.
김재우 (2015). 사회적 지지와 연결망 배태: 자아연결망 다층분석의 활용. 한국사회학, 49(1), 43-76.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는 일본에서 사회적 문제로 자리한 은둔형 외톨이를 측정하기 위해 활용하는 평소 외출 정도와 그러한 상태의 지속 기간에 관한 문항을 포함하여 6개월 이상 사회적 단절을 경험한 국내 청년 현황과 그 계기를 파악해왔다. 이 연구에서도 동일한 문항을 활용하여 사회적 고립 청년 측정 지표의 일부로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조사 참여자는 평소에 얼마나 외출하는지 응답하고, 일정한 빈도 이내에 해당하는 응답자는 상태의 지속 정도와 그 계기에 대해 답하도록 구성되었다.

구분	문항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기존문항	문97) 귀하는 평소 얼마나 외출하십니까? ① 직장이나 학교로 평일은 매일 외출한다 ② 직장이나 학교로 일주일에 3~4일 외출한다 ③ 여가생활을 위해 자주 외출한다 ④ 사람을 만나기 위해 가끔 외출한다 ⑤ 보통은 집에 있지만, 자신의 취미생활만을 위해 외출한다 ⑥ 보통은 집에 있지만, 인근 편의점 등에 외출한다 ⑦ 자기 방에서 나오지만, 집 밖으로는 나가지 않는다 ⑧ 자기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는다 → 문98로 이동 → 문97-1로 이동
	문97-1) (문100에서 ⑤,⑥,⑦,⑧ 응답자만) 현재의 상태가 얼마나 지속되었습니까? ① 6개월 미만 ② 6개월 이상 ~ 1년 미만 ③ 1년 이상 ~ 3년 미만 ④ 3년 이상 ~ 5년 미만 ⑤ 5년 이상 ~ 7년 미만 ⑥ 7년 이상 문97-2) (문100에서 ⑤,⑥,⑦,⑧ 응답자만) 현재의 상태가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① 학업중단이나 대학진학 실패로 ② 취업이 잘되지 않아서 ③ 인간관계가 잘되지 않아서 ④ 장애가 있거나 몸이 불편해서 ⑤ 임신이나 출산 때문에 ⑥ 기타()

* 출처: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기존문항.

타인과 교류가 드물고, 외출을 거의 하지 않는 등 외부적으로 고립된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내적으로 외로움이나 고립감을 느끼지 않는다면 사회적인 고립 상태라고 진단하기에 무리일 수 있다. 반대로 외적으로 고립 상태는 아니지만 스스로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낀다면 사회적 고립 상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외부적 고립뿐만 아니라 내부적 고립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를 포함하였다.

구체적으로 Russell(1996)이 개발한 UCLA Loneliness Scale(Version 3)의 번안 및 타당화 작업을 수행한 진은주와 황석현(2019)의 연구가 제시한 항목을

기본으로, 전문가 자문을 거쳐 수정한 후 반영하였다. 먼저, 기존 번안 문항의 표현이 어색하다는 의견에 따라 “얼마나 자주”를 문항별 서술에서 제외하고 질문에 포함하였다. 다음으로 진은주와 황석현(2019)의 연구에서 실시한 요인분석 결과 중 요인 부하량이 0.60 이하에 해당하는 세 문항(2, 8, 17)을 검토하여 서술에 모호함이 있는 (2)번 문항은 수정하여 포함하고, 나머지 두 문항(8, 17)은 주관적 고립감 측정과 거리가 멀다고 판단하여 제외하였다. 또한, 번안한 지표 중 (3), (11), (20)에 해당 하는 문항은 본래 Russell(1996)이 측정하고자 의도한 내용과 본 연구의 취지에 부합함과 동시에 측정 문항 간 유사성을 배제할 수 있도록 서술을 일부 수정해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직접적으로 고립의 감정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일정 정도 이상 느낀다고 응답한 참여자로부터는 그러한 감정을 느끼게 된 시간을 함께 파악하고자 했다.

표 Ⅲ-6 내부적 고립 관련 문항(신규)

구분	문항				
원안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드물게 그렇다	가끔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얼마나 자주 주변 사람들과 잘 통한다고 느끼십니까?	①	②	③	④
	(2) 얼마나 자주 사람들과의 교제가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①	②	③	④
	(3) 얼마나 자주 도움을 청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느끼십니까?	①	②	③	④
	(4) 얼마나 자주 혼자라고 느끼십니까?	①	②	③	④
	(5) 얼마나 자주 친구들 모임에 속해 있다고 느끼십니까?	①	②	③	④
	(6) 얼마나 자주 당신 주위사람들과 비슷한 점이 많다고 느끼십니까?	①	②	③	④
	(7) 얼마나 자주 당신이 더 이상 아무하고도 가깝지 않다고 느끼십니까?	①	②	③	④
	(8) 얼마나 자주 당신의 흥미와 생각들이 주변사람과 나누어지지 않는다고 느끼십니까?	①	②	③	④
	(9) 얼마나 자주 자신이 적극적으로 호의적이라고 느끼십니까?	①	②	③	④
	(10) 얼마나 자주 사람들과 가깝다고 느끼십니까?	①	②	③	④
	(11) 얼마나 자주 혼자 남겨졌다고 느끼십니까?	①	②	③	④
	(12) 얼마나 자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의미 없다고 느끼십니까?	①	②	③	④
	(13) 얼마나 자주 당신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느끼십니까?	①	②	③	④
	(14) 얼마나 자주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 있다고 느끼십니까?	①	②	③	④
	(15) 얼마나 자주 당신이 원할 때에 함께 있어줄 사람을 찾을 수 있다고 느끼십니까?	①	②	③	④
	(16) 얼마나 자주 당신을 정말 이해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고 느끼십니까?	①	②	③	④
	(17) 얼마나 자주 수줍음을 느끼십니까?	①	②	③	④
	(18) 얼마나 자주 사람들이 당신과 진정으로 함께 있지 않고 그저 주위에 있는 것이라고 느끼십니까?	①	②	③	④
	(19) 얼마나 자주 당신이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20) 얼마나 자주 당신이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느끼십니까?	①	②	③	④

구분	문항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드물게 그렇다	가끔 그렇다	항상 그렇다
수정안	문100) 다음 문항을 읽고 얼마나 자주 이러한 감정을 느끼시는지 응답해주시시오				
	(1) 나는 주변 사람들과 잘 통한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친구관계가 부족하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3) 나는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없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4) 나는 혼자라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5) 나는 친구들 모임에 속해 있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6) 나는 주위사람들과 비슷한 점이 많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7) 나는 더 이상 아무하고도 가깝지 않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8) 나는 스스로 적극적이고 호의적이라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9) 나는 사람들과 가깝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10) 나는 소외감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11) 나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의미 없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12) 나는 나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13) 나는 내가 원할 때에 함께 있어줄 사람을 찾을 수 있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14) 나는 나를 정말 이해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15) 나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함께 있지 않고 그저 주위에 있는 것이라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16) 나는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17) 나는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18) 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 있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문101) (100~(18)번의 ②, ③, ④인 경우만 응답) “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 있다”라는 감정을 느끼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① 6개월 미만				
	② 6개월 이내 1년 미만				
	③ 1년 이상 2년 미만				
	④ 2년 이상 3년 미만				
	⑤ 3년 이상				

* 출처: Russell, D. W. (1996). UCLA Loneliness Scale (Version 3): Reliability, Validity, and Factor structur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66(1), 20-40.
진은주, 황석현 (2019). 한국판 UCLA 외로움 척도 3판의 타당화. 청소년학연구, 26(10), 53-80.

(2) 사회적 고립의 원인

청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를 진단하고 예방적 차원의 정책을 구안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 고립 상태에 접어들게 된 원인을 진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조사(임형문 외, 2020) 결과와 류정희 외(2018)가 번안한 부정적 생애경험(Adverse Childhood Experience) 척도를 토대로 생애전반기의 부정적 경험(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수정해 설문조사에 포함했다. 아동·청소년기와 성인기의 경험이 다르므로 각 시기별로 경험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분해 질문했으며, 대상자 또는 구체적 경험을 직접 서술해 불편함을 줄 수 있는 표현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정했다. 다만, 연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원인 진단을 위한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고자 했다.

표 Ⅲ-7 사회적 고립의 원인 관련 문항(신규)

구분	문항		
원인	문항	있다	없다
	(1) 부모님과 떨어져서 다른 사람 집에서 양육된 경험	①	②
	(2) 부모님의 실직 혹은 사업실패 등으로 인해 가정형편이 급격히 어려워진 경험	①	②
	(3) 부모님이나 조부모, 친척들로부터 구타나 모욕 같은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당했던 경험	①	②
	(4)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가족구성원이 있었던 경험	①	②
	(5) 부모님께서 이혼 혹은 별거를 한 경험	①	②
	(6) 어머니, 아버지(혹은 양육자)가 돌아가신 경험	①	②
	(7) 전학이나 이사를 자주 한 경험	①	②
	(8) 다른 사람들에게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당했던 경험	①	②
	(9)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진학을 하지 못했거나 휴학했던 경험	①	②
	(10) 부모님으로부터 진로와 취업에 대한 압박을 받았던 경험	①	②
	(11) 원했던 시기에 대학입학을 못해서 쉬어야 했던 경험	①	②
	(12) 원했던 시기에 취업을 못해서 쉬어야 했던 경험	①	②
	(13) 인간관계에서 실패했던 경험	①	②
※ (1)~(8)은 류정희 외(2018)가 번안한 부정적 생애경험(Adverse Childhood Experience) 척도를 사용하였고, (9)~(12)는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조사결과에서 일부를 발췌 및 수정하여 사용하였음			

구분

문항

문103) 귀하께서는 성인이 되기 전 시기(아동·청소년기)에 다음과 같은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문항	없다	있다
(1) 가정형편이 급격히 어려워진 경험	①	②
(2) 양육자로부터 과도한 체벌 또는 정서적 공격을 당한 경험	①	②
(3)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가족구성원이 있었던 경험	①	②
(4) 가까운 사람을 잃은 경험	①	②
(5) 전학이나 이사를 자주 한 경험	①	②
(6) 학교나 동네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당했던 경험	①	②

수정안

문104) 귀하께서는 성인이 되신 이후 다음과 같은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문항	없다	있다
(1)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학교를 휴학하거나 그만두어야 했던 경험	①	②
(2)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취업 압박을 받거나 진로 변경을 강요받은 경험	①	②
(3) 내가 원했던 시기에 대학입학을 못했던 경험	①	②
(4) 내가 원했던 시기에 취업을 못했던 경험	①	②
(5)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거나 사기를 당한 경험	①	②

* 출처: 류정희 외 (2018). 생애주기별 학대 경험 연구-아동기 학대 폭력의 중복적 경험과 정책적 대응.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임형문 외 (2020).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연구. 광주: 풀인사이트.

(3) 사회적 고립의 현황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는 청년들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특성에 대한 100여개 이상의 문항을 측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고립 청년들의 사회·경제·문화적 특성 및 현황은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의 다양한 문항을 통해 비교할 수 있다.

연구진은 이에 더하여 사회적 고립의 특성을 반영하는 문항을 추가하고자 하였는데, 바로 소속감(sense of belonging)이다. 이는 두 가지의 궁금증이 반영된 것이다. 첫째는 현대사회의 ‘연결’이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나타나고 있는데 물리적으로 고립된 청년들이 온라인에서 어느 정도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는지에 관한 궁금증이며, 둘째는 물리적 연결망을 갖춘 청년이 실제 자신을 둘러싼 생태체계 내에서 소속감을 느끼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소속감이 객관적 고립과 주관적 고립을 매개하는지에 대한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소속감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은 청년의 생태체계를 반영하여 자체 개발하였다. 즉,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가족, 학교, 직장, 이웃, 지역사회, 그리고 온라인 활동의

활성화로 특히 청년층에 의미가 클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포함해 소속감을 느끼는 모든 집단을 모두 고를 수 있게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고립된 청년들이(혹은 전체 청년들이) 소속감을 어디에, 얼마나 느끼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표 Ⅲ-8 사회적 고립의 현황 관련 문항(신규)

구분	문항
소속감	문105) 귀하는 현재 가족, 학교, 직장, 이웃, 지역사회, 또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소속되어 있다는 느낌을 가지고 계십니까? ① 아니다 → 문106으로 이동 ② 그렇다
	문105-1) (문105에서 ② 그렇다 응답자만) 다음 중 귀하는 어느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고 느끼십니까? 소속감을 느끼시는 집단을 모두 골라주십시오. ① 나의 가족 ② 출신 학교나 동창 모임 ③ 출신 지역이나 지역 모임 ④ 여가활동 및 사회활동 모임 (환경활동, 구호활동, 정치활동 모임 등) ⑤ 소속 직장이나 직업 모임 (직업 기반 협회 또는 조합 등) ⑥ 온라인 커뮤니티(포털 사이트의 커뮤니티, 온라인 카페, 인터넷 사이트 등) ⑦ 기타

* 출처: 연구진 자체개발.

(4) 사회적 고립의 결과

사회적 고립은 개인의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이해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연구는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에 포함되어 있는 기존 문항과 신규문항을 통해 인지적, 정서적, 신체적 측면과 사회적 고립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했다.

인지적 측면은 삶의 여러 영역에 대한 만족을 측정하는 신설문항으로 구성하였다. Personal Wellbeing Index(International Wellbeing Group, 2013)를 기본으로 사회적 고립 측정에서 중요한 요소인 대인관계(personal relationships)에 대한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수정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래의 지표

에서는 대인관계를 한 개의 문항으로 물었으나, 연구진이 수정한 설문에서는 가족, 친구, 일반적 대인관계로 구분하였다.

표 III-9 사회적 고립의 결과(인지적 측면) 관련 문항(신규)

구분

문항

원안

문90) 귀하는 다음 삶의 영역들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질문을 듣는 즉시 떠오르는 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항목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 매우 만족한다									
(1) 생활수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건강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삶에서 성취한 것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 일반적 관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5) 삶 전반에서의 안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6) 미래 안정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7) 시간적 여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8) 내가 살고 있는 동네환경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9) 전반적인 나의 인생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수정안

문90) 귀하는 다음 삶의 영역들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질문을 듣는 즉시 떠오르는 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항목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 매우 만족한다									
(1) 생활수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건강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삶에서 성취한 것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 가족 관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5) 친구 관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6) 일반적 대인 관계 (학교, 직장, 동네에서의 인간관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7) 삶 전반에서의 안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8) 미래 안정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9) 시간적 여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0) 내가 살고 있는 동네환경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1) 전반적인 나의 인생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 출처: International Wellbeing Group (2013). Personal Wellbeing Index: 5th Edition. Melbourne: Australian Centre on Quality of Life, Deakin University.

다음으로 정서적 측면은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의 성인 우울척도(CES-D)에 토대를 두고 있는 기존 문항을 활용했다. 지난 1주 간 우울함과 관련된 감정을 느낀 빈도를 측정하고 있어 사회적 고립의 상태가 우울함으로 이어지는지 분석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표 III-10 사회적 고립의 결과(정서적 측면) 관련 문항(기존)

구분	문항				
	문88) 귀하는 지난 1주 간 얼마나 자주 다음과 같이 느꼈습니까?				
	문항	극히 드물다 (일주일 1일 미만)	가끔 있었다 (일주일 1~2일간)	종종 있었다 (일주일 3~4일간)	대부분 그랬다 (일주일 5일 이상)
청년· 사회 경제 실태 조사 기존 문항	(1) 먹고 싶지 않고 식욕이 없다	①	①	②	③
	(2) 비교적 잘 지냈다	①	①	②	③
	(3) 상당히 우울했다	①	①	②	③
	(4) 모든 일들이 힘들게 느껴졌다	①	①	②	③
	(5) 잠을 설쳤다 (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	①	①	②	③
	(6)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①	①	②	③
	(7) 큰 불만 없이 생활했다	①	①	②	③
	(8) 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다	①	①	②	③
	(9) 마음이 슬펐다	①	①	②	③
	(10)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①	①	②	③
	(11) 도무지 뭘 해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①	①	②	③

* 출처: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기존문항.

마지막으로 신체적 건강과 사회적 고립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에 포함되어 있는 기존 문항을 활용했다. 이 문항은 5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응답자가 주관적 건강 상태를 답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III-11 사회적 고립의 결과(신체적 측면) 관련 문항(기존)

구분	문항
	문83) 귀하는 신체적으로 건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청년·사회 경제실태 조사 기존 문항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 출처: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기존문항.

(5) 희망서비스 및 정책

사회적 고립 상태에 있는 청년의 서비스 욕구는 다층적이면서 복합적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를 파악할 목적으로 연구진은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거나 지원이 필요한 정책적 서비스를 몇 가지 영역으로 분류하고 모두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상담이 필요한 서비스의 경우 선호방식을 함께 응답하도록 구성하여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자 했다.

표 III-12 고립 청년을 위한 지원 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문항

구분

문항

문111) 다음의 청년 대상 정책 서비스 중 본인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 서비스를 모두 선택 해 주십시오.

문항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1) 심리·마음건강 상담 서비스 (인간관계 고민 등)	①	②
(2) 복지·생활 관련 상담 및 지원 서비스 (생계급여, 청년수당 등)	①	②
(3) 대인관계, 사회성 증진 서비스 (인간관계 개선 훈련 등)	①	②
(4) 취업·진로 상담 서비스 (취업준비, 일자리 알선 등)	①	②
(5) 청년 공동체 교류지원 서비스 (동아리 및 소모임 구성 등)	①	②
(6) 직업·훈련 교육 서비스 (기술교육, 직업교육 등)	①	②
(7) 건강검진 서비스 (신체건강검진, 정신건강검진 등)	①	②
(8) 주거지원 서비스 (편하게 지낼 수 있는 독립된 공간 제공)	①	②
(9) 문화·취미 지원 서비스 (독서, 영화, 취미 지원)	①	②
(10) 기타 (자세히 적을 것 :)	①	②

→ 문111에서 (1)(2)(3)(4) 항목 중 1가지 상담이라도 ①필요하다 응답 시 문111-1로 이동, 아닌 경우는 배경문항1로 이동

문111-1) 상담 서비스가 제공될 때 상담사를 만나는 방법으로 다음 중 어느 방법을 가장 선호하십니까?

- ① 내가 담당 센터에 찾아가는 방법(센터 방문)
- ② 온라인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방법(온라인 화상회의 등)
- ③ 상담사(담당자)가 내 집으로 찾아오는 방법(가정 방문)
- ④ 상담사(담당자)가 내 집 근처의 장소로 찾아오는 방법(카페, 공용 회의실 등)

서비스 욕
구

* 출처: 연구진 자체개발.

7) 주요 결과

이 절에서는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에 참여한 총 2,041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사회적 고립 현황, 원인, 결과 등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분석에는 가중치를 적용하였다.

(1) 사회적 고립 측정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고립을 외부적·내부적 고립으로 구분하였다. 외부적 고립은 청년들의 연결망, 지원, 외출 등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통해 살펴보았으며, 내부적 고립은 주관적인 고립감을 측정하여 파악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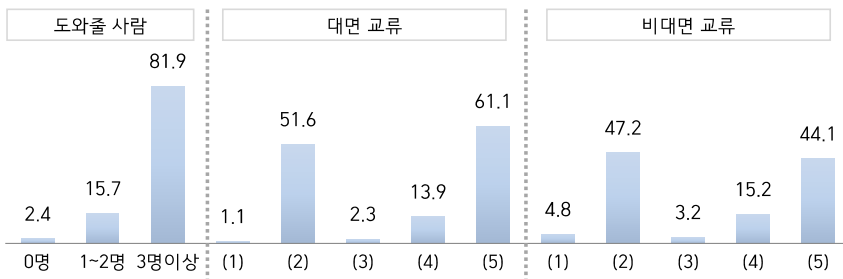
① 연결망

외부적 고립감 중 연결망은 어려울 때 도와줄 친구의 수와 주변 사람과의 대면 및 비대면 교류 빈도 등을 통해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조사에 참여한 2,041명의 청년 중 2.4%가 어려울 때 도와줄 친구(가족, 지인)가 없다고 응답했고, 15.7%는 1-2명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청년 중 18.1%는 어려울 때 도와줄 사람이 매우 적거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변 사람과의 교류에 관한 문항은 교류 빈도가 매우 낮은(교류가 전혀 없거나 1년에 한두 번 교류한다고 응답) 청년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가족과 직접 만나 교류하는 빈도가 매우 낮은 청년의 비율은 1.1%였으며, 가족과 비대면으로 소통하는 빈도가 매우 낮은 청년은 이보다 높은 4.8%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일상적으로 가족과 마주하기 때문에 비대면 소통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이와 같은 결과로 나타났다고 해석할 수 있다. 친인척들과의 대면 및 비대면 교류 수준은 모두 낮게 나타났다. 청년의

51.6%는 친척들과 1년에 한두 번 이하로 만난다고 응답했고, 비대면 수단을 통해서도 47.2%가 친척들과의 교류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두 명 가운데 한 명의 청년은 명절 정도에만 친인척들과 교류한다고 볼 수 있다. 친한 친구나 친한 사람과 교류 빈도가 매우 낮은 청년의 비율은 2.3%였고, 비대면 교류의 경우도 3.2%로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친한 친구나 친한 사람과는 교류 형태에 따른 차이가 대체로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직장, 학교, 동네 등에서 알고 지내는 사람들과 교류가 매우 드문 청년의 비율은 각각 13.9%와 15.2%로 나타났다. 온라인 커뮤니티 또는 SNS로 알게 된 사람들과의 대면 교류 수준은 낮았으나, 비대면 교류의 수준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직접 만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61.1%였던 것과 비교해 비대면으로는 44.1%만이 거의 교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또는 SNS로 알게 된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단위: %)



* (1) 가족, (2) 친인척, (3) 친한 친구나 친한 사람, (4) 이외 직장, 학교, 동네에서 알고 지내는 사람들(업무상 교류 제외), (5) 온라인 커뮤니티, SNS로 알게 된 사람들

그림 Ⅲ-1 사회적 고립 지표(연결망)-전체

연결망과 관련해 집단별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에 따라서 도와줄 사람의 수와 대상에 따른 교류 빈도 등에 차이가 있었다. 남자는 도와줄 친구가 2명 이하(0명 및 1~2명)인 경우가 16.9%였지만, 여자의 경우 19.5%로

나타났다. 또한, 남자보다 여자가 직장, 학교, 동네에서 알고 지내는 사람들과의 대면 교류가 드문 편이었다. 반면, 친인척과의 교류에서는 대면 또는 비대면 형태의 구분 없이 남성의 교류 빈도가 낮았다.

표 Ⅲ-13 사회적 고립 지표(연결망)

구분		사례수	연결망														
			도와줄 사람			대면 교류					비대면 교류						
			0명	1~2명	3명 이상	(1)	(2)	(3)	(4)	(5)	(1)	(2)	(3)	(4)	(5)		
전체		(2,041)	2.4	15.7	81.9	1.1	51.6	2.3	13.9	61.1	4.8	47.2	3.2	15.2	44.1		
성별	남자	(1,074)	2.4	14.5	83.1	1.3	52.9	2.0	12.4	60.8	5.3	50.1	3.7	15.4	43.3		
	여자	(967)	2.4	17.1	80.5	0.9	50.1	2.7	15.5	61.5	4.2	44.0	2.6	15.0	44.9		
연령	만18~19세	(185)	3.5	13.5	83.1	1.0	50.1	2.2	18.0	60.9	7.6	48.7	4.2	23.0	46.5		
	만20~24세	(588)	2.9	13.9	83.3	0.8	54.1	1.3	16.3	59.9	6.1	48.7	2.9	19.3	44.4		
	만25~29세	(668)	1.6	15.7	82.7	0.8	50.0	2.4	12.6	61.3	4.2	48.1	2.6	12.8	42.6		
	만30~34세	(600)	2.5	18.3	79.2	1.8	51.3	3.3	11.7	62.1	3.3	44.4	3.6	11.6	44.5		
지역	서울	(414)	1.6	17.4	81.0	1.0	55.5	1.6	11.1	49.9	3.0	44.9	2.8	9.5	36.8		
	인천/경기	(618)	3.3	15.4	81.3	1.6	48.9	2.7	11.9	64.3	3.7	42.5	2.7	11.7	42.5		
	대전/충청/세종/강원	(308)	1.1	16.6	82.3	0.6	57.1	1.5	18.3	53.0	8.2	57.5	2.1	18.9	45.7		
	광주/전라/제주	(225)	1.5	17.6	80.9	1.4	52.9	3.7	10.6	60.3	9.7	52.8	5.1	24.7	49.6		
	부산/울산/경남	(287)	3.1	16.1	80.7	0.0	42.0	1.1	17.3	65.1	5.7	45.8	5.2	22.5	50.1		
	대구/경북	(189)	2.4	9.6	88.0	2.0	57.9	4.3	18.9	80.3	1.3	51.3	1.7	14.1	48.2		
학력	고졸이하	(565)	3.3	18.6	78.0	2.1	55.6	3.5	16.6	58.3	5.4	51.8	4.5	18.5	44.1		
	대학/대학원 재학	(451)	1.8	11.5	86.6	0.9	53.0	0.9	13.1	61.8	6.9	45.9	2.5	17.3	41.8		
	대졸이상	(1,025)	2.1	16.0	81.9	0.7	48.7	2.3	12.7	62.4	3.5	45.2	2.7	12.4	45.0		
주거	동거	(1,206)	2.1	15.3	82.6	0.3	48.0	1.9	14.4	60.9	6.0	45.7	3.3	16.3	43.1		
형태	비동거/독립	(835)	2.9	16.5	80.7	2.6	57.4	3.0	13.1	61.4	2.8	49.7	3.0	13.4	45.6		

* (1) 가족, (2) 친인척, (3) 친한 친구나 친한 사람, (4) 이외 직장, 학교, 동네에서 알고 지내는 사람들(업무상 교류 제외), (5) 온라인 커뮤니티, SNS로 알게 된 사람들

도와줄 사람이 얼마만큼 있는지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20-24세에서 3명 이상으로 응답한 비율(83.3%)이 가장 높았다. 만 30-34세는 3명 이상 도와줄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79.2%)이 가장 낮았으나, 1-2명 있다고 응답한 비율(18.3%)은 가장 높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청년층 내에서도 연령대에 따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차이가 있음을 드러낸다.

주거형태에 따라 동일한 지표를 살펴보면, 두드러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부모와 동거하고 있지 않거나 독립한 경우 도와줄 사람이 한명도 없다고 응답한 사례(2.9%)가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청년(2.1%) 보다 다소 많은 점을 지적할 수 있으나 그 차이가 크지 않다. 이와 같은 결과는 1인 가구에 집중되어 있는 사회적 고립 관련 정책의 효과성이 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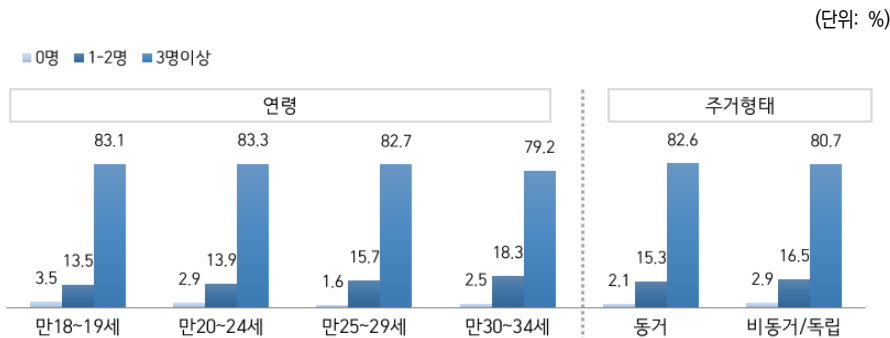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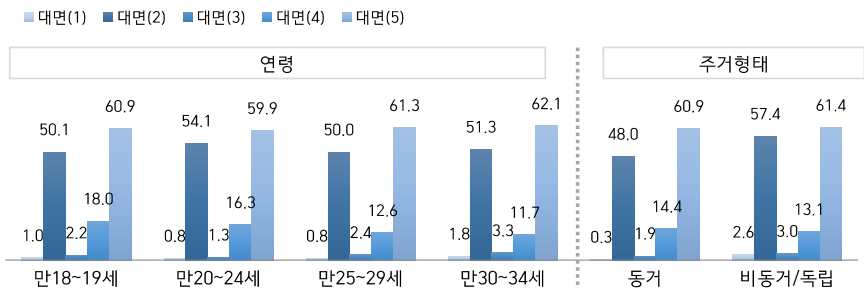
그림 Ⅲ-2 사회적 고립 지표(연결망)-도와줄 사람: 연령, 주거형태

연령별 대상에 따른 대면 교류 조사 결과를 보면, 만 20-24세의 경우 친인척들과의 교류가 상대적으로 드물었다. 대조적으로 이 연령대의 청년들은 가족, 친구, 그리고 온라인으로 알게 된 사람들과 상대적으로 빈번하게 교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직장, 학교, 동네에서 알고 지내는 사람들과의 교류 빈도가 높아지는 점은 특징적이다.

주거형태에 따라서는 부모와 동거하지 않거나 독립한 경우 가족, 친인척, 친구, 그리고 온라인으로 알게 된 사람과의 만남이 드문 사례가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경우보다 많았다. 이와 달리 직장, 학교, 동네에서 알고 지내는 사람들과의 만남은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경우 더욱 드물었다. 다만, 이와 같은 주거형태에 따른 차이는 친인척과 교류를 제외하고는 그 크기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단위: %)



* (1) 가족, (2) 친인척, (3) 친한 친구나 친한 사람, (4) 이외 직장, 학교, 동네에서 알고 지내는 사람들(업무상 교류 제외), (5) 온라인 커뮤니티, SNS로 알게 된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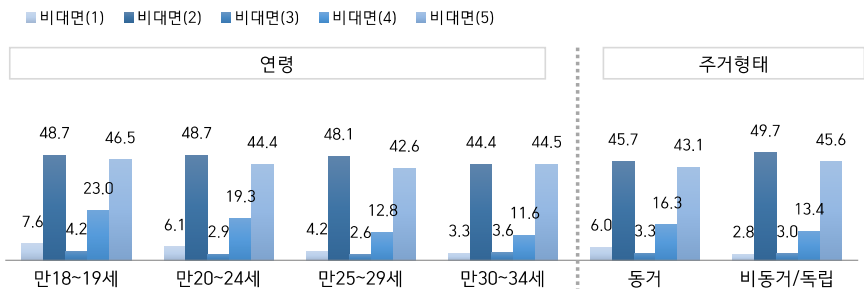
그림 Ⅲ-3 사회적 고립 지표(연결망)-대면 교류: 연령, 주거형태

비대면 교류에서 특징적인 결과는 낮은 연령대일수록 가족이나 직장, 학교, 동네의 지인과 소통의 빈도가 낮았다는 점이다. 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람과 비대면 교류도 유사한 양상을 보였으나, 연령별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는 않았다. 청년 중에서 10대와 20대의 경우 30대에 비해 친인척과의 비대면 교류가 상대적으로 드물었다. 친한 사람이나 친구와 비대면 교류는 20대에서 가장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경향성은 대면 교류에서 나타났던 결과와 전반적으로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부모와 동거여부에 따라서는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이 가족이나 직장, 학교, 동네에서 알고 지내는 사람들과 비대면으로 교류하는 빈도가 낮았다. 부모와 동거하지 않거나 독립 상태인 청년의 경우 친인척이나 온라인으로 알게 된 사람들과의

교류가 상대적으로 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연령대에 따라 부모와 동거 여부에 차이가 있는 점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단위: %)



* (1) 가족, (2) 친인척, (3) 친한 친구나 친한 사람, (4) 이외 직장, 학교, 동네에서 알고 지내는 사람들(업무상 교류 제외), (5) 온라인 커뮤니티, SNS로 알게 된 사람들

그림 Ⅲ-4 사회적 고립 지표(연결망)-비대면 교류: 연령, 주거형태

② 지원, 외출(은둔), 내부적 고립

외부적 고립 지표 중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은 정보적, 도구적, 정서적 지원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청년 참여자 가운데 9.5%는 정보적 지원(취업·진로 및 주거·금융·법률)을 받을 사람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몸이 아플 때 집안일을 해주거나 도움 줄 사람’ 또는 ‘돈이 필요할 때 갑자기 큰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도구적 지원이 빈약한 청년의 비율(4.5%)은 정보적 지원이 없는 청년보다는 낮았다. 정서적 지원은 ‘우울할 때 속마음을 털어 놓을 수 있는 사람’이나 ‘연락이 두절되었을 때 안부를 확인해줄 수 있는 사람’의 존재 여부로 파악했는데, 3.8%가 이러한 지원이 없다고 밝혔다.

일본에서는 외출과 관련한 지표를 활용해 일정 기준에 따라 은둔형 외톨이의 규모를 파악한다. 이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기준에 의하여 ‘보통은 집에 있지만,

자신의 취미생활만을 위해 외출하는 경우’를 포함해 이보다 외출이 드문 사례를 은둔으로 구분하였다. 그 결과 전체 조사 참여자 중 은둔에 속하는 청년은 5.1%였다. 이들 중 이와 같은 상태의 지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은둔 초기’ 상태는 0.9%였고, 그 이상으로 유지된 ‘은둔 중장기’의 경우 4.2%였다.

내부적 고립감은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총 18개의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이 가운데 ‘나는 다른 사람들과부터 고립되어 있다고 느낀다’고 고립감 정도를 직접 조사한 문항에 대한 결과는 ‘고립감 단일’로 표기하고 그러한 감정을 전혀 느끼지 않는 사례를 제외한 나머지를 고립감이 높다고 분류하였다. 그 결과 청년층 가운데 13.4%(드물게 그렇다: 7.8%, 가끔 그렇다: 5.2%, 항상 그렇다: 0.4%)를 고립감이 높은 것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단일 문항을 포함한 18개의 문항에 대한 응답의 평균은 ‘고립감 종합’으로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고립감을 느끼는 빈도가 평균적으로 ‘드물게 그렇다’ 이상인 청년을 고립감이 높은 것으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 약 3명 중 1명에 해당하는 35.0%의 청년이 사회적 고립감을 일상에서 어느 정도 수준 이상으로 느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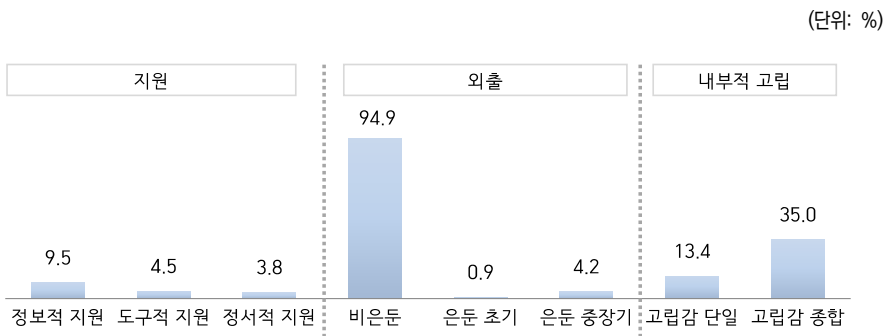


그림 Ⅲ-5 사회적 고립 지표(지원, 외출, 내부적 고립)-전체

성별, 연령, 학력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결핍된 지원이 다른 결과는 주목할 만하다. 도구적 지원과 정서적 지원에서는 남성(각각 5.5%, 4.7%)이 여성(각각 3.3%, 2.8%)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했으며, 정보적 지원에서는 여성(10.3%)이 남성(8.9%)에 비해 부족했다. 연령별로는 만 20-24세의 청년이 정보적 지원에 부족함을 느끼는 비율(11.2%)이 가장 높았다. 도구적 지원과 정서적 지원을 받을만한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10대에서 각각 5.4% 및 4.4%로 가장 높았다. 학력에 따라서는 고졸이하 청년이 정보적, 도구적, 정서적 지원 모든 면에서 가장 취약하였다. 주거형태에 따라 비교해보면,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정보적 지원 측면에서만 상대적 취약성(9.7%)을 보였고, 부모로부터 독립한 경우 도구적 지원(6.4%)과 정서적 지원(5.2%)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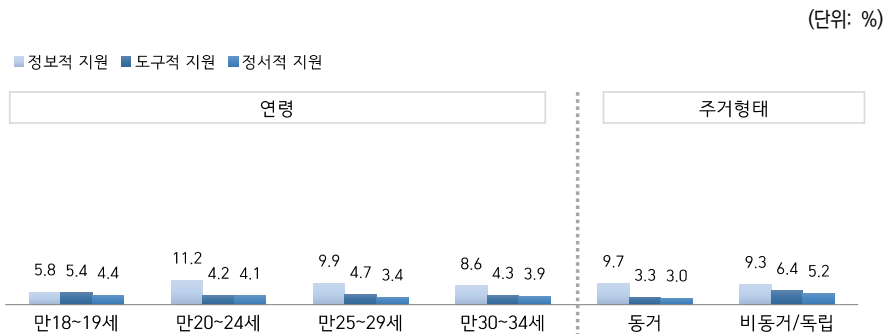


그림 Ⅲ-6 사회적 고립 지표(지원, 외출, 내부적 고립)-지원: 연령, 주거형태

은둔 지표에서는 여성의 비율이 높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은둔의 비율이 높아지는 점이 특징적이다. 또한 부모와 함께 거주하지 않거나 독립한 경우 은둔으로 분류되는 비율이 높았다. 이와 같은 결과에는 임신 또는 출산이 원인인 사례가 포함된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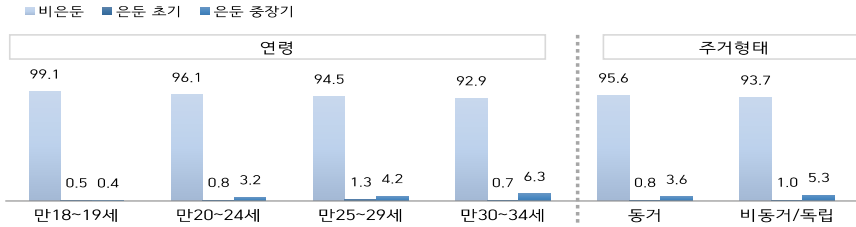


그림 Ⅲ-7 사회적 고립 지표(지원, 외출, 주관적 고립)-외출: 연령, 주거형태

내부적 고립 지표에서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여성의 경우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 있다고 느끼는 사례(13.8%)가 남성(13.1%)보다 많았으나, 그 차이가 크지 않았고, 오히려 종합적으로는 남성이 고립감을 느낀 비율이 35.8%로 여성(34.1%)보다 다소 더 높았다. 연령에 따라서는 일정한 경향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만 25~29세에서 직접적인 고립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고, 만 30~34세의 경우 종합적으로 고립과 관련된 감정을 느낀 비율이 37.6%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다. 주거형태에 따라서는 부모와 동거하고 있지 않는 청년층의 고립감(단일: 14.5%, 종합: 35.7%)이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청년(단일: 12.7%, 종합: 34.6%)보다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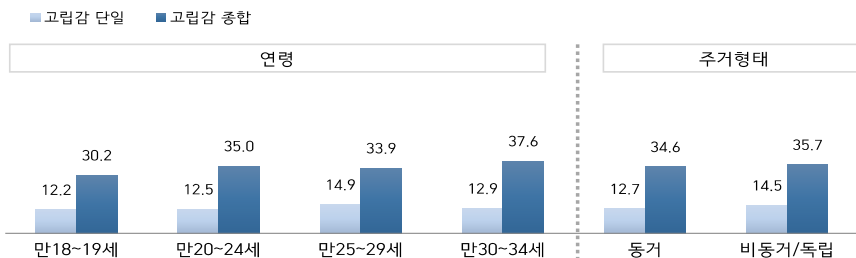


그림 Ⅲ-8 사회적 고립 지표(지원, 외출, 주관적 고립)-내부적 고립: 연령, 주거형태

표 Ⅲ-14 사회적 고립 지표(지원, 외출, 내부적 고립)

구분		사례수	지원			외출			내부적 고립	
			정보적 지원	도구적 지원	정서적 지원	비은둔	은둔 초기	은둔 중장기	고립감 (단일 문항)	고립감 (종합)
전체		(2,041)	9.5	4.5	3.8	94.9	0.9	4.2	13.4	35.0
성별	남자	(1,074)	8.9	5.5	4.7	96.8	0.7	2.5	13.1	35.8
	여자	(967)	10.3	3.3	2.8	92.7	1.1	6.1	13.8	34.1
연령	만18~19세	(185)	5.8	5.4	4.4	99.1	0.5	0.4	12.2	30.2
	만20~24세	(588)	11.2	4.2	4.1	96.1	0.8	3.2	12.5	35.0
	만25~29세	(668)	9.9	4.7	3.4	94.5	1.3	4.2	14.9	33.9
	만30~34세	(600)	8.6	4.3	3.9	92.9	0.7	6.3	12.9	37.6
지역	서울	(414)	3.7	2.4	3.0	97.6	0.5	1.9	13.8	35.9
	인천/경기	(618)	12.4	4.1	3.6	92.5	0.7	6.8	13.1	34.2
	대전/충청/세종/강원	(308)	8.6	5.2	4.4	96.3	1.9	1.8	12.7	30.1
	광주/전라/제주	(225)	10.3	8.3	5.8	94.4	0.2	5.4	17.6	35.4
	부산/울산/경남	(287)	13.0	5.6	3.2	94.4	1.1	4.5	12.7	47.9
	대구/경북	(189)	8.2	3.6	4.5	96.5	1.5	2.1	10.9	22.4
학력	고졸이하	(565)	14.4	7.2	6.2	94.5	1.7	3.9	17.2	43.6
	대학/대학원 재학	(451)	6.9	3.8	3.2	97.9	0.2	1.9	9.5	28.1
	대졸이상	(1,025)	8.1	3.3	2.8	93.8	0.8	5.5	13.0	33.3
주거 형태	동거	(1,206)	9.7	3.3	3.0	95.6	0.8	3.6	12.7	34.6
	비동거/독립	(835)	9.3	6.4	5.2	93.7	1.0	5.3	14.5	35.7

③ 사회적 고립 지표 종합⁸⁾

앞서 제시한 사회적 고립 지표를 사회적 고립 정도가 높거나 낮은 것으로 이분화한 결과를 종합하면 ① 어려울 때 도와줄 사람이 2명 이하인 청년 18.1%, ② 타인과 전반적인 교류 빈도가 3개월에 한두 번 미만인 청년 8.5%(대면 교류) 및

8) 여기에 제시된 값은 가중치를 반영한 결과로 표 Ⅲ-15, 16, 18, 19, 20의 사례수를 토대로 계산할 때 결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8.1%(비대면 교류) ③ 사회적 지지가 없는 청년 9.6%(정보적 지원), 4.5%(도구적 지원), 3.8%(정서적 지원), ④ 은둔 청년 5.1%, ⑤ 내부적 고립감이 높은 청년 13.4%(단일 문항) 및 35.0%(종합 문항)이다. 전체 청년 중 2.5%는 위의 9개 지표 중 5개 이상에서 고립 정도가 높았으며, 이를 4개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할 경우 6.2%가 여기에 해당되었다. 이는 사회적 고립의 다차원성과 복합성을 동시에 드러내는 결과이다.

(2) 사회적 고립의 원인

① 아동·청소년기 부정적 경험

사회적 고립에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다.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를 통해 아동·청소년기 부정적 경험이 사회적 고립 지표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아동·청소년기에 부정적인 경험을 한 청년의 비율을 유형에 따라 살펴보면, 가정형편이 급격히 어려워진 경험을 한 사례가 가장 많은 17.6%를 차지했다. 양육자로부터 과도한 체벌 또는 정서적 공격을 당한 경험이 있는 청년은 이보다는 낮은 7.8%였으며, 이와 유사한 7.2%에 해당하는 청년이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가족구성원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가까운 사람을 잃었던 사례는 15.3%, 전학이나 이사를 자주 했던 경우는 12.1%였다. 마지막으로 조사 참여자의 6.4%가 학교나 동네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와 같은 부정적인 경험 중 한 가지 이상이라도 경험한 비율은 전체의 31.9%에 달하여 약 3명 중 1명의 청년은 아동·청소년기에 부정적인 경험을 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표 Ⅲ-15 아동·청소년기 부정적 경험

구분			사례수	아동·청소년기 부정적 경험						
				(1)	(2)	(3)	(4)	(5)	(6)	(7)
전체			(2,041)	17.6	7.8	7.2	15.3	12.1	6.4	31.9
연 결 망	도와줄 사람	0명	(54)	31.8	19.7	22.5	23.6	27.8	21.5	53.6
		1~2명	(304)	26.2	10.6	7.4	20.1	13.7	8.1	43.3
		3명이상	(1,683)	15.5	6.9	6.7	14.2	11.3	5.6	29.1
	대면	교류적음	(185)	30.0	19.0	14.7	22.6	19.1	15.9	50.0
		교류많음	(1,856)	16.4	6.7	6.5	14.7	11.4	5.5	30.3
	비대면	교류적음	(166)	17.4	6.9	6.9	12.4	12.7	10.7	33.8
		교류많음	(1,875)	17.6	7.9	7.2	15.6	12.0	6.0	31.8
지 원	정보	없음	(196)	21.9	11.9	11.0	17.8	14.9	11.1	36.8
		있음	(1,845)	17.1	7.3	6.8	15.1	11.7	5.9	31.4
	도구	없음	(108)	28.6	10.0	15.7	20.0	16.2	11.7	40.7
		있음	(1,933)	17.1	7.7	6.8	15.1	11.9	6.1	31.5
	정서	없음	(89)	23.5	10.2	13.3	15.4	13.6	11.9	30.8
		있음	(1,952)	17.4	7.7	6.9	15.3	12.0	6.2	32.0
외 출	비은둔		(1,940)	17.1	7.5	6.8	15.1	12.1	6.1	31.2
	은둔	은둔(a+b)	(101)	26.2	13.8	14.5	19.1	12.0	11.2	45.0
		초기(a)	(16)	17.8	12.9	9.8	22.4	7.1	3.7	44.6
		중장기(b)	(85)	28.0	14.0	15.5	18.4	13.0	12.8	45.1
내부 고립	고립감 (단일)	낮음	(1,744)	15.4	6.6	5.5	14.7	11.3	5.1	29.9
		높음	(297)	31.5	15.4	18.0	19.3	16.7	14.5	45.1
	고립 (종합)	낮음	(1,328)	14.2	5.8	4.8	13.0	10.6	4.6	29.0
		높음	(713)	23.9	11.4	11.6	19.7	14.7	9.7	37.4

* (1) 가정형편이 급격히 어려워진 경험, (2) 양육자로부터 과도한 체벌 또는 정서적 공격을 당한 경험, (3)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가족구성원이 있었던 경험, (4) 가까운 사람을 잃은 경험, (5) 전학이나 이사를 자주 한 경험, (6) 학교나 동네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당했던 경험, (7) (1)~(6) 중 한 개라도 경험한 비율

주: 대면 및 비대면 교류 문항은 ① 가족, ② 친인척, ③ 친한 친구, ④ 직장·학교·동네 사람, ⑤ 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람과 교류에 대한 응답의 평균이 3개월에 한두 번 미만인 경우와 그 이상인 경우로 이분화함.

지표별로 이와 같은 비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면, 사회적 고립에 가까울수록 아동·청소년기에 부정적인 경험을 한 청년의 비율도 함께 높아졌다. 우선, 연결망이 취약하고 다른 사람들과 교류가 적은 청년들 가운데 두 명 중 한 명은 아동·청소년기 때 부정적인 경험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예외적으로 비대면

교류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는 아동기 부정적 경험의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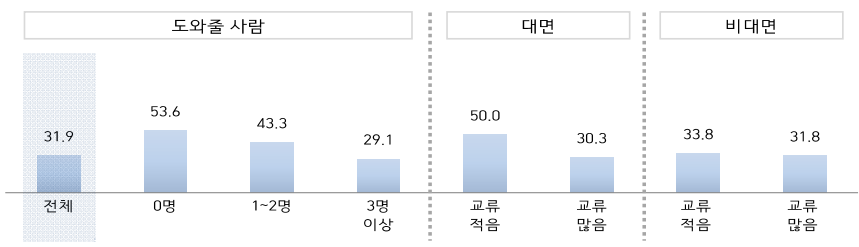


그림 Ⅲ-9 아동기 부정적 경험 - 연결망

정보적 지원과 도구적 지원이 없는 경우도 아동·청소년기 부정적 경험의 비율이 높았다. 해당 지원을 제공할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청년들은 지원 받을 곳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와 비교해 각각 5.4% 및 9.2%씩 부정적 경험을 한 비율이 더 높았다. 대조적으로 정서적 지원에서는 지원 받을 곳이 있는 경우가 부정적 경험을 한 비율이 다소 더 높았다. 다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정서적 지원이 없는 경우 여섯 가지 유형의 부정적 경험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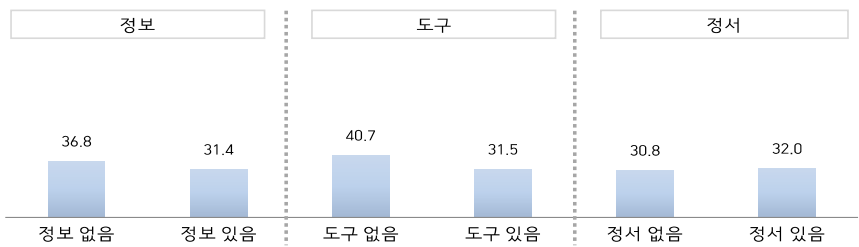


그림 Ⅲ-10 아동기 부정적 경험 -지원

아동기 부정적 경험을 한 청년의 비율은 은둔 정도에 따라서도 달랐다. 외출의 빈도가 낮지만 그러한 상태의 지속 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짧은 청년의 44.6%는 아동·청소년기 부정적 경험에 있어, 외출의 빈도가 높은 청년들(31.2%)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였다. 외출의 빈도가 낮은 상태가 6개월 이상 오랫동안 지속된 청년들 가운데 아동·청소년기 부정적 경험에 있는 비율은 45.1%로 가장 높았다.

(단위: %)



그림 Ⅲ-11 아동기 부정적 경험 - 외출

내부적 고립 지표 역시 아동·청소년기 부정적 경험과 밀접한 연관이 있었다. 고립감이 높은 청년들의 부정적 경험 빈도가 더 높았으며, 특히 사회적 고립감을 직접 묻는 문항에서 고립감이 높은 것으로 분류된 청년들의 경우 45.1%가 아동·청소년기 최소 한 가지 이상의 부정적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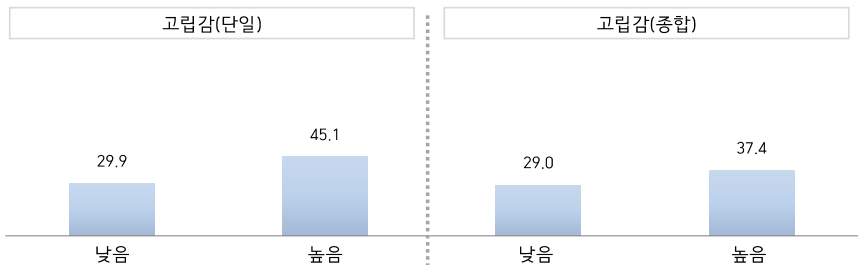


그림 Ⅲ-12 아동기 부정적 경험 - 내부적 고립

② 성인기 부정적 경험

아동·청소년기의 경험뿐만 아니라, 성인기에 어떠한 경험을 하는지도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성인기 부정적 경험에 대해서 이 연구는 다섯 가지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표 Ⅲ-16 성인기 부정적 경험

구분			사례수	성인기 부정적 경험					
				(1)	(2)	(3)	(4)	(5)	(6)
전체			(2,041)	5.1	6.2	9.0	17.5	7.3	27.4
연 결 망	도와줄 사람	0명	(54)	9.4	13.7	14.3	20.8	16.0	38.7
		1~2명	(304)	6.5	10.4	10.6	20.9	11.1	33.0
		3명이상	(1,683)	4.7	5.1	8.6	16.7	6.3	26.0
	대면	교류적임	(185)	5.7	10.3	9.7	23.8	16.0	37.6
		교류많음	(1,856)	5.0	5.8	9.0	16.9	6.5	26.5
	비대면	교류적임	(166)	2.7	7.4	8.9	18.2	11.0	28.0
			교류많음	(1,875)	5.3	6.1	9.0	17.4	27.3
지 원	정보	없음	(196)	7.1	10.8	11.6	23.5	8.8	37.3
		있음	(1,845)	4.8	5.7	8.7	16.8	7.2	26.4
	도구	없음	(108)	7.5	11.5	9.1	20.7	10.5	31.1
		있음	(1,933)	5.0	5.9	9.0	17.3	7.2	27.2
	정서	없음	(89)	10.2	11.0	10.4	18.6	11.2	28.8
		있음	(1,952)	4.9	6.0	9.0	17.4	7.2	27.3
외 출	비은둔		(1,940)	4.9	5.9	8.7	16.4	7.1	26.2
	은둔(a+b)		(101)	7.9	10.9	14.7	37.0	11.0	49.0
	은둔	초기(a)	(16)	6.1	2.5	27.8	53.0	13.0	62.3
		중장기(b)	(85)	8.3	12.7	11.9	33.6	10.6	46.2
내부 고립	고립감 (단일)	낮음	(1,744)	4.7	5.3	8.1	16.8	6.6	26.1
		높음	(297)	7.4	11.8	14.9	22.1	11.9	35.6
	고립감 (종합)	낮음	(1,328)	4.1	4.5	8.2	15.2	6.2	24.5
		높음	(713)	6.8	9.3	10.6	21.6	9.4	32.8

* (1)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학교를 휴학하거나 그만두어야 했던 경험, (2)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취업 압박을 받거나 진로 변경을 강요받은 경험, (3) 내가 원했던 시기에 대학입학을 못했던 경험, (4) 내가 원했던 시기에 취업을 못했던 경험, (5)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거나 사기를 당한 경험, (6) (1)~(5) 중 한 개라도 경험한 비율

전체 현황을 살펴보면, 5.1%에 해당하는 청년이 성인기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학교를 휴학하거나 그만두어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취업 압박을 받거나 진로 변경을 강요받은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서 6.2%의 청년이 그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스스로 원했던 시기에 대학입학을 못했던 적이 있는 청년의 비율은 9.0%였으며, 원했던 시기에 취업을 못했던 청년의 비율은 17.5%로 이보다 높았다. 마지막으로 7.3%는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거나 사기를 당한 적이 있었다. 전체의 27.4%는 이와 같은 경험을 한 가지 이상이라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앞서 아동·청소년기 부정적 경험과 사회적 고립의 관계에서 확인한 결과와 마찬가지로 성인기 부정적 경험과 사회적 고립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변에 어려울 때 도와줄 사람이 없거나(38.7%), 1-2명으로 매우 적은 청년(33.0%)이 성인기에 부정적인 경험을 한 사례가 많았다. 또한, 성인기 부정적 경험을 한 가지 이상이라도 한 적이 있는 청년의 경우 다른 청년들에 비해 대면 및 비대면 교류의 활발함이 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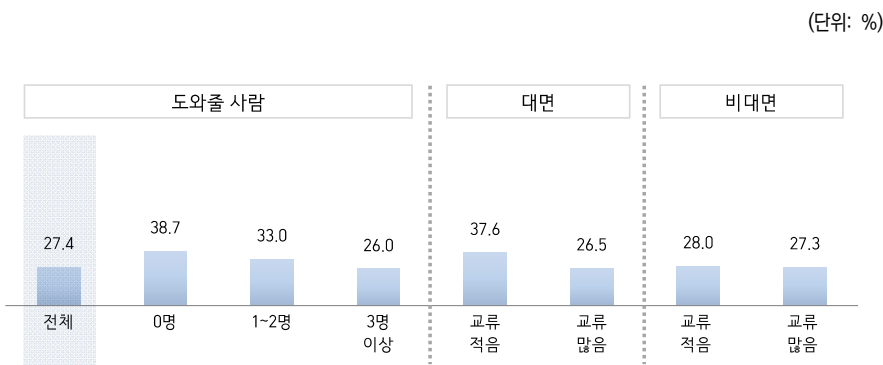


그림 III-13 성인기 부정적 경험 - 연결망

성인기 부정적 경험을 가지고 있는 청년은 주변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원도 많지 않았다. 정보적 지원이 없다고 응답한 청년의 37.3%는 성인기 부정적 경험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정보적 지원이 있다고 응답한 청년보다 약 11% 높은 수치다. 도구적 지원의 결과도 유사했으나 그 차이가 3.9%로 다소 작은 편이었다. 정서적 지원이 없는 경우는 지원이 있는 경우와 비교해 성인기 부정적 경험을 한 가지 이상이라도 한 비율이 1.5% 높은 수준에 불과했다. 다만, 아동·청소년기 부정적 경험에서 나타난 결과와 마찬가지로 정서적 지원이 없는 경우 다섯 가지 유형의 부정적 경험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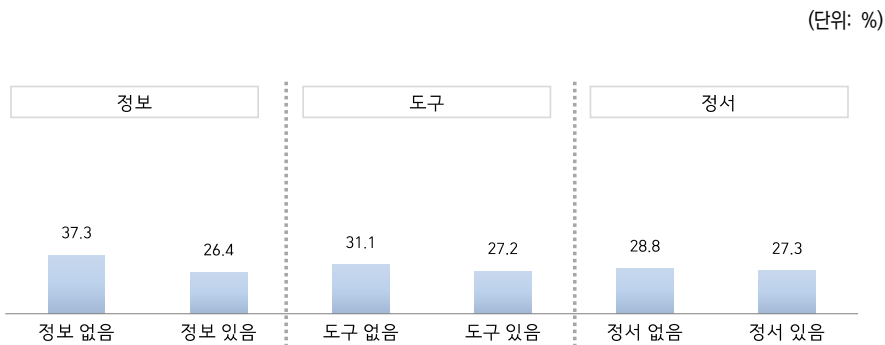


그림 Ⅲ-14 성인기 부정적 경험-지원

외출에 따라서도 성인기 부정적 경험이 있는 청년의 비율은 달라졌다. 일상적인 외출을 하는 청년 중에서 성인기에 부정적인 경험을 한 청년의 비율은 26.2%였던 것에 반해, 거의 외출하지 않는 청년 중에서는 그 비율이 은둔초기 62.3%, 은둔 중장기 46.2%로 더 높았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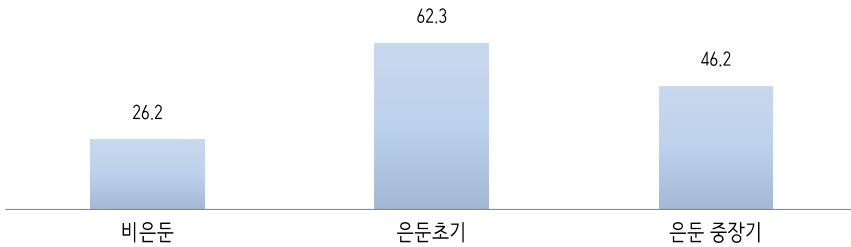


그림 Ⅲ-15 성인기 부정적 경험 - 외출

사회적 고립감에서도 앞선 사회적 고립 지표에서와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고립감을 경험한 청년이 성인기에 부정적인 경험을 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내부적 고립감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성인기 부정적인 경험을 한 청년의 비율이 단일 문항에서는 9.5%, 그리고 종합 문항에서는 8.3% 각각 더 높았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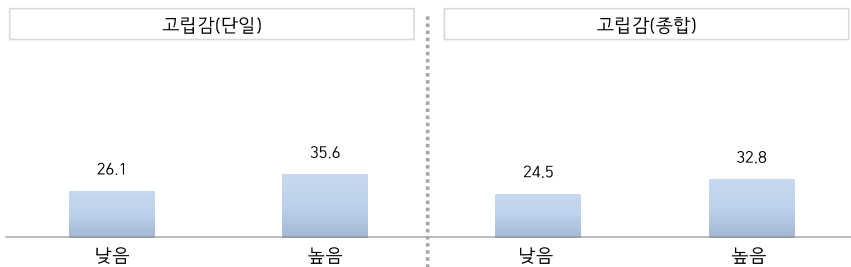


그림 Ⅲ-16 성인기 부정적 경험 - 내부적 고립

(3) 사회적 고립의 현황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고립과 소속감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했다. 청년의 생태체계

를 반영해 가족, 학교, 직장, 이웃, 지역사회, 그리고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포함해 소속감을 느끼는 모든 집단을 모두 고를 수 있게 제시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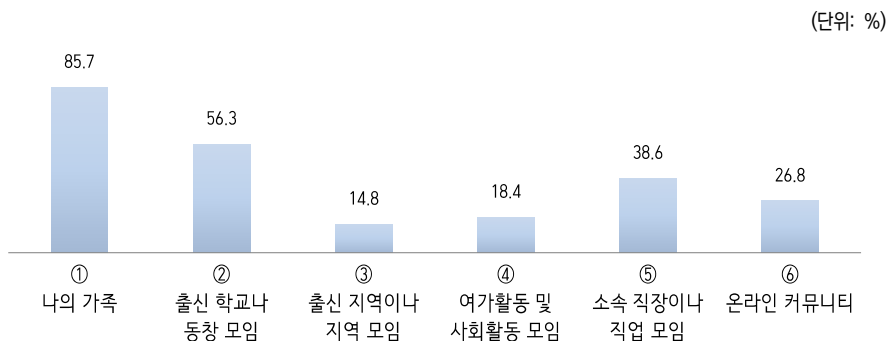


그림 Ⅲ-17 소속감을 느끼는 집단 - 전체

기본적으로 조사에 참여한 청년의 80.8%는 소속감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 있다고 응답했다. 여러 집단 가운데 가족(85.7%)은 가장 많은 청년이 소속감을 밝힌 집단이었다. 출신 학교나 동창 모임은 56.3%를 차지해 두 번째로 높았으며, 소속 직장이나 직업 모임이 세 번째(38.6%)로 높았다.

사회적 고립 지표에 따라 소속감 여부를 비교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회적 고립 수준이 높은 집단의 경우 소속감을 가지고 있는 청년의 비율이 낮았다. 어려운 상황에서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경우 소속감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56.8%였던 것과 비교해, 3명 이상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82.7%로 그 차이가 컸다. 대면 및 비대면 교류의 상황에 따라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다만 상대적으로 그 차이가 크지는 않았다. 대면 교류가 적은 청년(75.4%)들은 교류가 많은 청년(81.3%)들에 비해 소속감을 가지고 있는 비율이 5.9% 더 낮았다. 비대면 교류의 경우는 이와 같은 차이가 2.9%로 대면 교류보다도 그 차이가 작았다. 주변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지원이 없다고 응답한 청년의 경우 소속감이 있다고 응답할 가능

성이 낮았다. 지원의 종류에 따라 각각 62.6%(정보적 지원), 64.3%(도구적 지원), 63.8%(정서적 지원)가 소속감을 느끼는 집단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주변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응답한 청년과 비교해 각각 20.1%, 17.3%, 17.7% 낮은 수치다. 은둔(68.4%)과 비은둔(81.5%)으로 구분되는 청년집단 간 소속감 차이는 13.1%로 나타났다. 내부적 고립감이 높은 청년의 소속감(단일: 70.2%, 종합: 72.6%)도 고립감이 낮은 청년들(단일: 82.4%, 종합: 85.2%)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측정되었다.

소속감을 느끼는 집단에 대해서는 연결망이 약한 청년의 경우 그 대상 집단이 가족에 다소 집중되어 있는 양상을 보였다. 대조적으로 정보적, 도구적, 정서적 지원이 많지 않은 청년은 가족에 대한 소속감이 다소 낮은 반면, 출신 지역이나 지역 모임, 여가활동 및 사회활동 모임이나 소속 직장 및 직업 모임에 소속감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외출 빈도가 낮은 청년의 경우 가족에 대한 소속감이 높았던 반면, 출신학교나 동창 모임, 여가활동 및 사회활동 모임에 대한 소속감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특히, 소속 직장이나 직업 모임에 대해 소속감을 느끼는 비율이 4.7%로 평균에 비해 매우 낮았다. 내부적 고립감 수준이 높은 청년은 가족, 출신 학교나 동창 모임, 그리고 소속 직장이나 직업 모임에 소속감을 느끼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사회적 고립 정도가 높은 일부 유형의 청년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해 소속감을 느끼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점은 특징적이다. 외출이 드문 청년(28.5%), 어려울 때 도와줄 사람이 없는 청년(30.6%), 그리고 도구적 지원이 부족한 청년(33.1%)이 대비되는 청년들(외출 빈도 높음: 26.7%, 도와줄 사람 3명 이상: 27.6%, 도구적 지원 있음: 26.6%)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속감을 느끼는 비율이 높았다. 다만, 그 격차가 두드러질 정도로 크지는 않아 추가적인 분석의 필요성이 있다.

표 III-17 소속감

구분			소속감 있음	소속감을 느끼는 집단					
				①	②	③	④	⑤	⑥
전체			80.8	85.7	56.3	14.8	18.4	38.6	26.8
연 결 망	도와줄 사람	0명	56.8	78.8	42.9	15.3	17.3	28.9	30.6
		1~2명	74.5	80.8	43.7	14.0	11.8	35.3	21.6
		3명이상	82.7	86.7	58.8	15.0	19.6	39.4	27.6
	대면	교류적음	75.4	86.4	42.3	11.5	10.8	31.6	7.8
		교류많음	81.3	85.7	57.5	15.1	19.1	39.2	28.4
	비대면	교류적음	78.1	90.6	36.4	18.9	6.1	15.9	4.9
		교류많음	81.0	85.3	58.0	14.5	19.4	40.5	28.7
지 원	정보	없음	62.6	79.4	38.6	17.9	10.3	25.6	23.0
		있음	82.7	86.2	57.7	14.6	19.0	39.7	27.1
	도구	없음	64.3	67.7	43.5	36.1	21.6	34.9	33.1
		있음	81.6	86.4	56.8	14.1	18.3	38.8	26.6
	정서	없음	63.8	61.6	47.6	23.5	22.1	39.1	19.7
		있음	81.5	86.5	56.6	14.6	18.3	38.6	27.0
외 출	비은돈		81.5	85.6	57.3	14.9	18.8	40.2	26.7
	은돈(a+b)		68.4	88.3	34.5	14.4	10.6	4.7	28.5
	은돈	초기(a)	56.6	98.5	42.6	0.0	0.0	6.0	26.6
		중장기(b)	70.9	86.6	33.2	16.9	12.4	4.4	28.9
내부 고립	고립감 (단일)	낮음	82.4	87.0	58.4	15.3	18.7	39.8	28.1
		높음	70.2	76.5	40.5	11.6	16.4	29.7	17.4
	고립감 (종합)	낮음	85.2	89.7	64.0	15.8	18.3	43.0	27.8
		높음	72.6	77.1	39.5	12.8	18.6	29.2	24.6

* ① 나의 가족, ② 출신 학교나 동창 모임, ③ 출신 지역이나 지역 모임, ④ 여가활동 및 사회활동 모임, ⑤ 소속 직장이나 직업 모임, ⑥ 온라인 커뮤니티

* 주: 소속감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소속감을 느끼는 집단을 모두 선택하였음.

(4) 사회적 고립의 결과

① 삶의 질(관계 영역)

사회적 고립은 다양한 삶의 질 영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여러 영역 중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고립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로부터 비롯된다는 점에서 가족, 친구, 일반적 대인 관계와의 관련성에 주목하였다.

표 III-18 사회적 고립과 주관적 삶의 질

구분			사례수	주관적 삶의 질										
				(1)	(2)	(3)	(4)	(5)	(6)	(7)	(8)	(9)	(10)	(11)
전체			(2,041)	62.6	84.9	64.3	87.4	89.0	79.8	80.5	67.8	68.0	74.3	76.4
연 결 망	도와줄 사람	0명	(54)	32.7	53.1	47.0	54.1	56.0	60.4	61.2	48.7	52.9	48.2	51.4
		1~2명	(304)	54.5	82.5	51.6	83.0	82.1	69.7	78.7	55.8	65.8	69.6	65.5
		3명이상	(1,683)	65.0	86.2	67.2	89.3	91.3	82.3	81.4	70.7	68.9	75.9	79.2
	대면	교류적응	(185)	56.6	64.8	44.8	75.3	72.7	56.4	72.6	55.0	57.7	58.8	58.6
		교류많음	(1,856)	63.1	86.7	66.1	88.6	90.5	81.9	81.2	69.0	69.0	75.7	78.1
	비대면	교류적응	(166)	59.1	66.0	51.3	76.3	71.7	58.6	72.3	52.1	53.9	67.5	63.0
		교류많음	(1,875)	62.9	86.5	65.4	88.4	90.5	81.6	81.2	69.2	69.3	74.9	77.6
지 원	정보	없음	(196)	45.3	69.6	47.6	72.8	75.6	61.6	69.8	51.8	64.5	62.7	57.2
		있음	(1,845)	64.4	86.5	66.1	89.0	90.4	81.7	81.6	69.5	68.4	75.5	78.4
	도구	없음	(108)	45.2	71.8	42.6	68.1	72.6	64.6	59.6	47.2	66.0	52.4	57.4
		있음	(1,933)	63.4	85.5	65.3	88.4	89.8	80.5	81.4	68.8	68.1	75.3	77.3
	정서	없음	(89)	60.1	71.7	61.6	69.4	75.1	68.2	74.6	62.6	74.4	63.8	67.5
		있음	(1,952)	62.7	85.4	64.4	88.2	89.6	80.2	80.7	68.0	67.8	74.7	76.8
외 출	비은둔		(1,940)	63.5	86.0	65.5	87.9	90.0	81.1	81.1	68.7	68.3	74.7	77.6
	은둔(a + b)		(101)	45.0	63.4	41.7	79.3	70.3	55.3	69.0	51.4	63.7	66.7	54.6
	은둔	초기(a)	(16)	44.2	67.6	43.9	84.3	83.4	56.7	74.3	59.2	61.9	62.5	59.3
		중장기(b)	(85)	45.2	62.6	41.3	78.2	67.5	55.0	67.9	49.7	64.1	67.6	53.6
내부 고립	고립감 (단일)	낮음	(1,744)	64.1	88.5	66.6	89.5	91.6	82.6	81.9	70.0	69.1	75.3	79.1
		높음	(297)	52.9	61.6	49.2	74.3	72.2	61.3	71.3	53.6	61.4	67.8	59.0
	고립감 (종합)	낮음	(1,328)	66.5	90.4	68.2	93.1	94.3	85.8	84.5	73.1	69.4	76.8	82.6
		높음	(713)	55.2	74.6	57.0	76.9	79.1	68.6	73.0	58.1	65.5	69.6	65.0

* (1) 생활수준, (2) 건강, (3) 삶에서 성취한 것, (4) 가족관계, (5) 친구관계, (6) 일반적 대인 관계, (7) 삶 전반에서의 안전, (8) 미래 안정성, (9) 시간적 여유, (10) 내가 살고 있는 동네환경, (11) 전반적인 나의 인생

* 주: 삶의 질 각 영역에 대해 6점 이상(10점 척도: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매우 만족한다)으로 응답한 비율.

삶의 질 영역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생활수준이나 삶에서 성취한 것에 대해 만족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62.6%와 64.3%였으나, 가족관계, 친구관계, 일반적 대인 관계에 대해서는 각각 87.4%, 89.0%, 그리고 79.8%가 만족하는 편이라고 응답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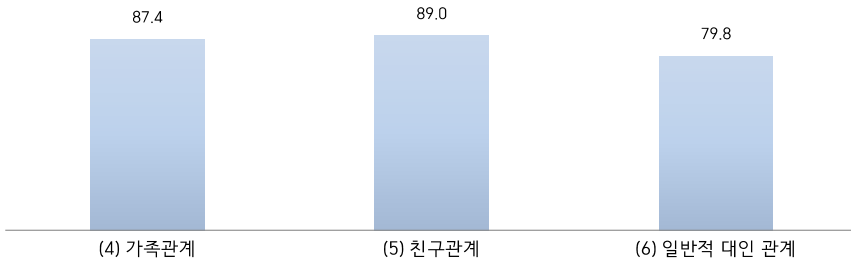


그림 III-18 사회적 고립과 주관적 삶의 질-전체

사회적 고립 상태에 있는 청년일수록 전반적인 삶의 질 지표와 함께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만족하는 비율이 낮았다. 예컨대,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경우 가족관계, 친구관계, 일반적 대인 관계에 대해 만족하는 비율은 각각 54.1%, 56.0%, 그리고 60.4%였던 것과 비교해, 3명 이상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각각 89.3%, 91.3%, 그리고 82.3%로 나타나 그 차이가 컸다. 대면 교류의 많고 적음이나 비대면 교류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도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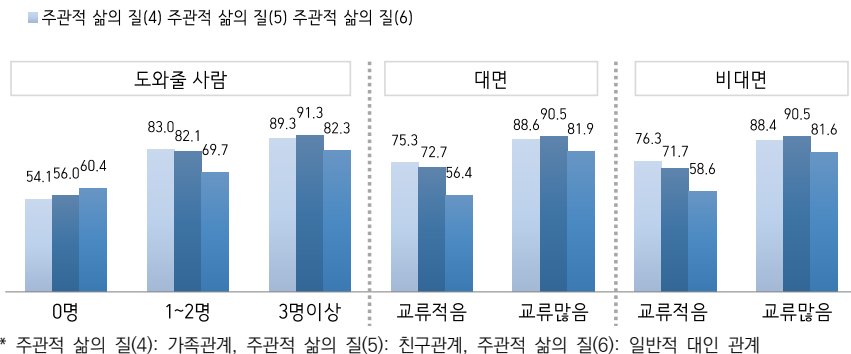


그림 III-19 사회적 고립과 주관적 삶의 질-연결망

정보, 도구, 정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른 분석 결과도 유사했다. 각 유형에 대한 지원이 없는 경우 가족, 친구, 일반적 대인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예를 들어, 정보적 지원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 각 관계에 대해 만족하는 비율이 72.8%, 75.6%, 그리고 61.6%였으며, 이는 정보를 제공해 줄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청년의 만족 비율(89.0%, 90.4%, 그리고 81.7%)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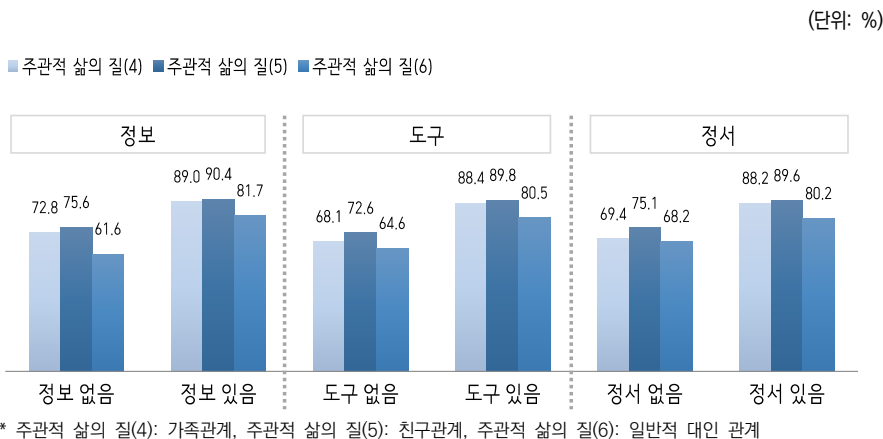


그림 III-20 사회적 고립과 주관적 삶의 질-지원

외출이나 내부적 고립감과 관계 영역에서의 삶의 질을 분석한 결과도 다르지 않았다. 내부적 고립감의 높고 낮음에 따라 삶의 질 영역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 만족하는 비율의 차이가 컸다. 예컨대, 내부적 고립감이 높은 경우의 가족 관계(74.3%), 친구관계(72.2%), 일반적 대인 관계(61.3%)는 내부적 고립감이 낮은 경우(가족: 89.5%, 친구: 91.6%, 일반적 대인 관계: 82.6%)에 비해 약 15~20%가량 만족하는 비율이 낮았다.

② 주관적 건강(신체적 건강 및 정신적 건강)

사회적 고립은 신체 및 정신적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에서 신체 및 정신적 상태에 대한 주관적 의견을 묻은 문항을 통해 사회적 고립의 영향력을 파악하고자 했다.

표 Ⅲ-19 사회적 고립과 주관적 건강(신체 및 정신)

구분			사례수	신체적 건강	주관적 건강 상태						우울	
					정신적 건강						환산총점 평균	비율
					(1)	(2)	(3)	(4)	(5)	(6)		
전체			(2,041)	4.1	3.5	3.5	3.3	2.9	2.6	3.2	6.0	10.4
연 결 망	도와줄 사람	0명	(54)	3.7	2.6	2.5	2.5	2.1	2.1	2.4	16.4	48.0
		1~2명	(304)	4.0	3.3	3.3	3.0	2.9	2.4	3.0	6.9	12.9
		3명이상	(1,683)	4.1	3.6	3.5	3.4	3.0	2.7	3.2	5.5	8.8
	대면	교류적음	(185)	3.7	2.7	2.8	2.3	1.9	1.7	2.3	9.7	22.4
		교류많음	(1,856)	4.1	3.6	3.5	3.4	3.0	2.7	3.2	5.7	9.3
	비대면	교류적음	(166)	3.9	2.8	3.0	2.7	2.3	2.0	2.5	8.0	17.2
		교류많음	(1,875)	4.1	3.5	3.5	3.4	3.0	2.7	3.2	5.8	9.8
지 원	정보	없음	(196)	3.9	3.0	3.1	2.8	2.5	2.3	2.7	9.6	21.7
		있음	(1,845)	4.1	3.5	3.5	3.4	3.0	2.6	3.2	5.6	9.2
	도구	없음	(108)	3.8	3.0	3.1	3.0	2.6	2.5	2.8	9.8	24.4
		있음	(1,933)	4.1	3.5	3.5	3.3	2.9	2.6	3.2	5.8	9.7
	정서	없음	(89)	3.7	3.2	3.2	3.2	2.6	2.6	3.0	10.0	25.6
		있음	(1,952)	4.1	3.5	3.5	3.3	2.9	2.6	3.2	5.8	9.8
외 출	비은둔		(1,940)	4.1	3.5	3.5	3.4	3.0	2.6	3.2	5.6	9.3
	은둔(a + b)		(101)	3.6	2.7	2.8	2.5	2.1	2.0	2.4	12.6	31.6
	은둔	초기(a)	(16)	4.0	2.9	2.8	2.5	2.0	2.3	2.5	10.8	21.2
		중장기(b)	(85)	3.5	2.7	2.8	2.5	2.2	2.0	2.4	13.0	33.7
내부 고립	고립감 (단일)	낮음	(1,744)	4.1	3.6	3.5	3.4	3.0	2.6	3.2	5.1	7.3
		높음	(297)	3.7	3.0	3.0	2.8	2.4	2.5	2.7	11.6	30.2
	고립감 (종합)	낮음	(1,328)	4.2	3.7	3.7	3.5	3.1	2.7	3.3	4.1	3.7
		높음	(713)	3.9	3.1	3.1	3.0	2.7	2.4	2.9	9.6	22.9

* (1) 나는 밝고 즐거운 기분을 느낀다, (2) 나는 차분하고 편안함을 느낀다, (3) 나는 활동적이고 활기참을 느낀다, (4) 나는 잠에서 깨었을 때, 피로가 다 가시고 상쾌했다, (5) 나의 일상은 흥미로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 (6) (1)~(5) 문항 전체 평균값

* 주: 우울 환산총점-우울과 관련한 11개 문항 합산*20/11; 우울 비율-환산총점 기준 16점 이상 비율

먼저, 사회적 고립 지표에 따라 주관적으로 느끼는 신체 건강 상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면, 고립 상태에 가까울수록 신체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경향이 확인된다. 신체 건강에 대해 청년들은 평균적으로 5점 만점에 4.1점(건강하다)을 주었는데, 연결망이 부족하고, 사회적 지원에 취약하며, 외출의 빈도가 낮은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었을 때, 그리고 내부적 고립감이 높은 경우에 해당하는 청년들은 3.5~3.9점의 평균점수를 보여 건강 상태에 대한 평가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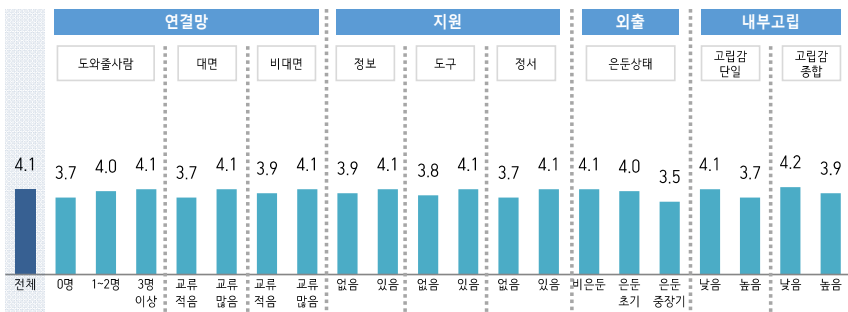


그림 III-21 사회적 고립과 주관적 건강(신체 및 정신) - 신체적 건강

다섯 가지의 문항을 통해 측정한 정신적 건강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해당 문항은 지난 2주 간 일상생활을 보내면서 느낀 감정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0)’, ‘때때로 그렇다(1)’, ‘2주의 절반 이하는 그렇다(2)’, ‘2주의 절반 이상은 그렇다(3)’, ‘대부분 그렇다(4)’, ‘항상 그렇다(5)’의 6점 척도로 측정되었는데, 이들 문항에 대한 전체 평균은 3.2점이었다. 이는 청년들이 평균적으로 지난 2주의 절반 이상은 긍정적으로 생활했다는 의미다. 그러나 여러 지표에서 사회적 고립 상태로 분류할 수 있는 청년들의 경우 대체로 긍정적인 감정을 느낀 빈도가 더 낮았다.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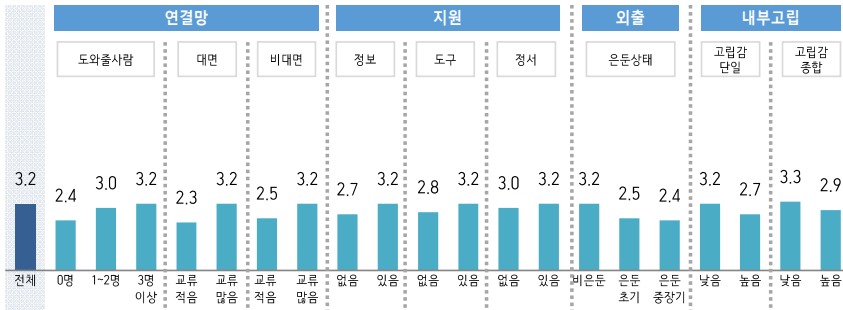


그림 III-22 사회적 고립과 주관적 건강(신체 및 정신) - 정신적 건강

우울한 상태로 분류할 수 있는 청년의 비율을 사회적 고립 지표별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참여자 가운데 10.4%를 우울한 상태로 분류할 수 있었는데, 사회적 고립에 해당하는 집단에서는 이러한 상태에 놓인 청년의 비율이 매우 높았다. 특히, 도와줄 사람이 한명도 없다고 응답한 청년과 은둔 상태가 오래 지속된 청년의 우울 비율은 각각 48.0%와 33.7%에 달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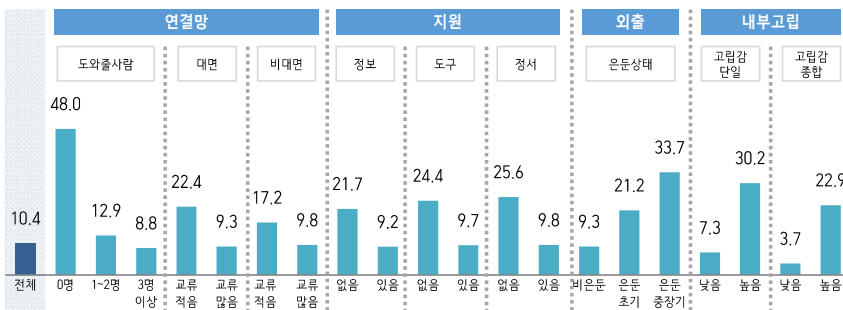


그림 III-23 사회적 고립과 주관적 건강(신체 및 정신) - 우울

(5) 사회서비스 욕구

사회적 고립 청년이 어떠한 정책적 지원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년들은 제시된 사회 서비스에 대해 필요성 여부를 응답했으며, 전반적으로 청년들의 사회서비스 욕구가 큰 분야는 순서대로 주거지원(59.4%), 건강검진(59.2%), 그리고 문화 및 취미 지원(58.7%)이었다.

사회적 고립 상태의 청년들이 특징적으로 더욱 필요로 하는 것은 심리·마음건강 상담 서비스와 복지·생활 관련 상담 및 지원 서비스였다. 예를 들어, 심리·마음건강 상담 서비스에 대해서 평균적인 수준에 비해 고립 청년의 경우 적게는 7.8%(정보적 지원 없음)부터 많게는 23.6%(도구적 지원 없음) 더 많은 수요가 있었다. 다만, 은둔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상담에 대한 욕구가 더 크지 않은 점은 예외적이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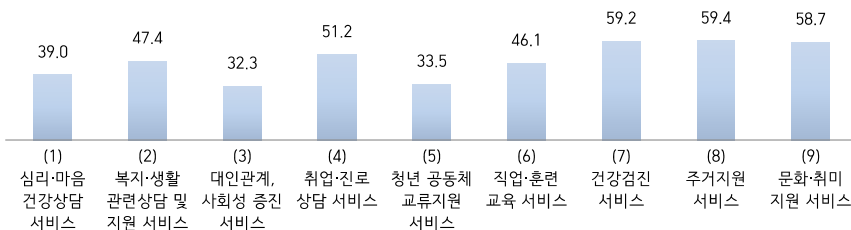


그림 Ⅲ-24 서비스 욕구

평균보다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여러 분야에 걸쳐 특히 큰 집단은 어려울 때 도와줄 주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청년과 내부적인 고립감이 높은 청년이었다. 이들은 심리·마음건강, 대인관계, 취업, 직업훈련, 건강, 주거 등 모든 영역에서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서비스 수요를 보여 복합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드러낸다.

외출을 적게 하는 청년도 복지·생활, 취업·진로, 직업·훈련 교육, 주거, 문화·취미 지원 등 다양한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서비스 수요를 보였다. 대조적으로 일부 사회적 고립 유형은 특정 영역에 관한 서비스에 대해서만 더 높은 수요를 보였다. 예를 들어, 대면 교류가 적은 청년은 상대적으로 심리·마음건강 상담 서비스와 직업·훈련 교육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았고, 도구적·정서적 지원이 부족한 청년은 심리·마음건강 상담 서비스뿐 아니라 대인관계 및 사회성 증진 서비스나 청년 공동체 교류지원 서비스, 문화·취미 지원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고립 상태에 대한 정확한 판별과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표 III-20 서비스 욕구

구분			사례수	서비스 욕구								
				(1)	(2)	(3)	(4)	(5)	(6)	(7)	(8)	(9)
전체			(2,041)	39.0	47.4	32.3	51.2	33.5	46.1	59.2	59.4	58.7
연 결 망	도와줄 사람	0명	(54)	59.0	62.3	48.9	60.6	48.6	57.7	69.4	64.7	66.5
		1~2명	(304)	36.6	45.9	28.7	50.5	31.3	42.9	56.9	55.7	56.6
		3명이상	(1,683)	38.9	47.3	32.5	51.1	33.5	46.3	59.3	60.0	58.9
	대면	교류적응	(185)	49.3	51.4	35.0	53.9	33.6	52.5	61.2	59.8	56.1
		교류많음	(1,856)	38.1	47.1	32.1	51.0	33.5	45.5	59.0	59.4	58.9
		비대면	교류적응	(166)	50.3	61.1	37.1	67.0	36.8	55.7	67.4	71.0
교류많음	(1,875)		38.0	46.2	31.9	49.9	33.3	45.2	58.4	58.4	58.4	
지 원	정보	없음	(196)	46.1	52.1	34.6	53.0	33.7	46.8	54.1	56.2	65.4
		있음	(1,845)	38.3	46.9	32.1	51.1	33.5	46.0	59.7	59.8	58.0
	도구	없음	(108)	61.6	53.0	41.4	50.8	41.1	47.2	59.2	61.2	69.7
		있음	(1,933)	38.0	47.2	31.9	51.3	33.2	46.0	59.2	59.3	58.2
	정서	없음	(89)	53.0	57.8	46.2	55.8	44.4	48.5	62.6	57.9	63.6
		있음	(1,952)	38.5	47.0	31.7	51.1	33.1	46.0	59.0	59.5	58.5
외 출	비은둔		(1,940)	39.0	46.9	32.3	50.4	33.6	45.6	58.5	59.0	58.6
	은둔(a+b)		(101)	39.6	57.3	32.1	67.7	32.3	54.3	72.2	66.5	61.3
	은둔	초기(a)	(16)	23.0	70.6	20.9	61.4	21.8	57.2	85.3	92.0	78.3
		중장기(b)	(85)	43.2	54.5	34.5	69.0	34.5	53.7	69.4	61.1	57.7
내부 고립	고립감 (단일)	낮음	(1,744)	36.3	44.4	29.3	48.8	30.4	43.1	57.1	57.5	57.0
		높음	(297)	57.0	67.0	52.0	67.2	53.9	65.0	72.1	71.8	69.8
	고립감 (종합)	낮음	(1,328)	33.1	42.2	25.5	47.0	28.7	42.2	56.7	57.6	57.3
		높음	(713)	50.1	57.1	44.9	59.0	42.5	53.2	63.7	62.8	61.3

* (1) 심리·마음건강 상담 서비스, (2) 복지·생활 관련 상담 및 지원 서비스, (3) 대인관계, 사회성 증진 서비스, (4) 취업·진로 상담 서비스, (5) 청년 공동체 교류지원 서비스, (6) 직업·훈련 교육 서비스, (7) 건강검진 서비스, (8) 주거지원 서비스, (9) 문화·취미 지원 서비스

3. 생애전반기 경험이 청년의 사회적 고립에 미치는 영향(심화분석)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청년들이 사회적 고립 상태가 되는 데에는 다양한 영향요인이 있을 수 있다. 아동·청소년기 또래 관계나 가족 관계에서의 문제 등은 사회적 고립 청년과 관련한 선행연구에서 지속적으로 지목하는 영향요인이다(임형문 외, 2020; 파이교육그룹, 2020). 또한, 앞선 절의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아동·청소년기와 성인기의 부정적 경험은 사회적 고립 상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다만, 선행연구는 주로 회고적 자료에 의존하거나, 자료의 크기가 작다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아동·청소년기 경험이 청년기 고립 상태를 얼마만큼 예측하는지 분석하였다. 이어서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가 사회적 고립을 다각도로 측정한 장점을 활용하여 추가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2) 분석자료 및 연구방법

청년들이 사회적 고립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살펴보기 위해 이 절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년 동안 3개의 코호트(초1, 초4, 중1)를 대상으로 추적 조사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이하 KCYPs 2010)」를 활용했다. KCYPs 2010은 아동·청소년기의 성장과 발달을 이해하기 위해 여러 분야에 대한 경험을 반복적으로 조사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여기에는 부모 및 친구관계에 관한 문항도 포함되어 있어, 아동·청소년기 사회적 관계에서의 어떠한 경험이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지는 데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한 유용한 자료를 제공한다. 한 가지 제한점으로 중1 코호트가 대학 1학년에 진학한 시기까지만 조사가 진행되어 청년기 상태와 연계하여 관찰하기에는 다소 부족함이 있었다.

이와 같은 한계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2018년 새로운 패널조사를 시작하면서 KCYPS 2010의 중1 코호트를 대상으로 매년 유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코호트 유지조사는 지난 2020년까지 총 4차례 이루어졌으며, 조사 참여자의 학교 재학 및 취업여부 등과 관련한 배경 문항을 포함하였다. 즉, 사회적 고립에 대한 이해가 정립되지 않고, 관련된 자료가 충분하게 구축되어 있지 않은 현 상황에서 KCYPS 2010 유지패널 자료는 아동·청소년기의 경험과 청년기 사회적 고립 관계를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최선의 자료라고 판단할 수 있다. 다만, 교육, 취업, 훈련 참여 여부나 외출과 같이 기존 사회적 고립과 관련성이 높은 개념을 측정하는 방식과 달리 사회적 고립은 다차원적인 특성이 있다는 점에서 여러 지표를 통해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유지조사에서는 비교적 제한적인 범위로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러한 이유로 이 연구에서는 부득이 니트 청년 중 심도가 깊은 청년을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로 인해 고립 상태의 변화를 추적하기에도 제한점이 많았다. 따라서 분석결과는 이러한 한계점을 고려하여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고립 상태를 측정하기 위해서 재학 및 취업 여부를 활용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재학 및 취업의 공백이 발생하는 것은 일정부분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추가 문항을 통해 니트 상태의 심도가 더욱 깊은 청년들을 구분하였다. 구체적으로 유지조사에서 학교에 재학하고 있지 않으면서 취업 상태도 아닌 조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 묻고, 대학 진학 및 취업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한 참여자에게 이어서 그 이유를 확인한 문항을 활용하였다. 이때, 병역문제가 주된 이유라고 응답한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 응답자를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고립 상태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KCYPS 2010의 제7차 조사 및 4차례의 유지패널 조사를 포함해 총 5년의 기간에 해당하는 상태 변수를 생성하였다. 일반적으로는 이러한 변수를 통해 시간의 경과에 따른 상태의 유지와 변화 등을 관찰할

수 있지만, 병역해결을 위한 목적이 아니면서 대학 진학 및 취업을 준비하고 있지 않은 니트 상태를 경험한 청년이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이 분석에는 한 차례 이상 이와 같은 상태를 경험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이분화해 분석을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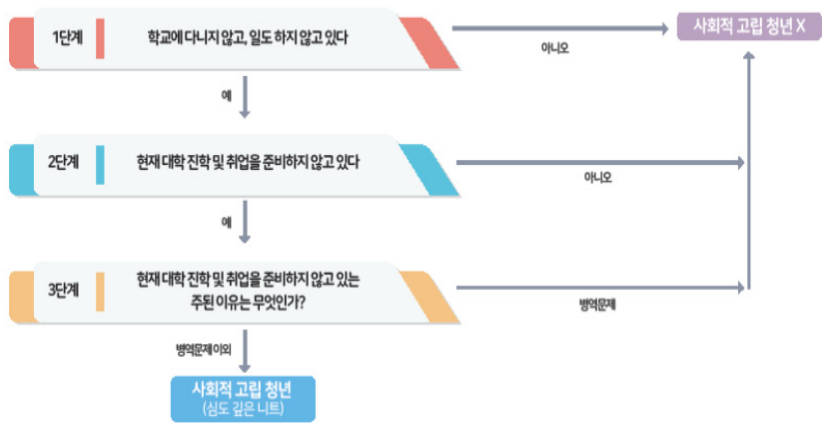


그림 III-25 사회적 고립(심도 깊은 니트) 측정

아동·청소년기 경험에서는 타인으로부터의 피해 경험과 부모로부터의 학대 및 방임 경험에 주목했다. 먼저, 피해 경험에 관한 문항은 심한 놀림이나 조롱, 따돌림, 폭행, 돈이나 물건 뺏기기, 성희롱이나 성폭행, 심한 욕설 등을 포함하며, KCYPS 2010의 제2차 조사에서 7차 조사에 이르기까지 매년 조사되었다. 각 문항은 경험의 유무로 측정되었으며, 조사 기간 내 얼마만큼의 피해 경험을 보고했는지를 변수로 구성해 활용하였다.

다음으로는 부모로부터 학대 경험의 영향력을 파악하고자 제2차 조사에서 6차 조사까지 매년 조사된 총 네 개의 문항⁹⁾을 활용했다. 해당 문항들은 ‘매우 그렇다’

9) ① 내가 무언가 잘못했을 때 정도 이상으로 심하게 혼내신다, ② 내가 잘못하면 부모님(보호자)께서는

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로 구성된 4점 척도로 측정되었는데, 이를 활용해 조사 기간 부모로부터 학대받은 경험이 평균적으로 얼마만큼 있는지 변수화했고, 점수가 높을수록 그러한 경험이 많은 것으로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부모로부터의 방임 경험 역시 총 네 개의 문항¹⁰⁾을 통해 제2차 조사에서 6차 조사까지 ‘매우 그렇다’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까지의 4점 척도로 동일하게 측정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전체 조사의 문항 응답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로부터의 방임 경험이 많은 것으로 구성해 측정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구성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는 사회적 고립 경험 여부이며, 주요 독립변수는 총 세 가지로 타인(주로 또래 관계)으로부터 피해 경험, 부모로부터의 학대와 방임 경험이다. 이외에 인구사회학적 배경의 영향력을 통제하기 위해서 성별, 학업성적, 그리고 부모 교육 및 경제 수준 등을 변수로 투입하였다. 성별은 남자(0)와 여자(1)로 구성하였고, 학업성적은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 조사 때 7점 척도로 측정된 문항을 평균하여 활용하였다. 부모 교육 수준은 양육자 중 높은 학력을 변수화했고, 부모 경제 수준은 매년 측정된 가구 연간 소득(만원단위)의 평균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을 활용하였다.

패널조사는 특성상 조사 참여자의 이탈이 일정부분 발생할 수밖에 없다. 또한, 유지패널의 경우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다양한 사유로 인해 조사가 어려워지는 사례가 발생한다. 더구나 패널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설문에 꾸준히 참여했더라도, 조사 종료 후 유지패널에서 한 차례의 설문에도 응하지 않은 경우 성인기 이행과정을 파악할 수 없어 자료 활용에 제한점이 있다. 이와 같은 점을 반영해

무조건 때리려고 하신다, ③ 내 몸에 멍이 들거나 상처가 남을 정도로 부모님(보호자)께서 나를 심하게 대하신 적이 많다, ④ 나에게 심한 말이나 욕을 하신 적이 많다.

10) ① 다른 일(직장이나 바깥일)보다 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② 내가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관심을 갖고 물어 보신다, ③ 내 몸이나, 옷, 이불 등이 깨끗하도록 항상 신경 쓰신다, ④ 내가 많이 아프면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신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고립을 측정한 2016년에서 2020년까지의 다섯 차례 조사 중 최소 두 차례 이상 참여한 참여자를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결론적으로 KCYPs 2010 중1 코호트는 2,351명으로 시작했지만, 조사 진행과정에서의 자연스러운 이탈과 부모의 경제적 수준이나 학업성적과 같은 정보의 일부 누락으로 최종 분석에서는 총 1,927명의 자료가 활용되었다.

3) 분석결과

(1) 기초분석 결과

이 연구 분석 대상의 기본적인 특성은 다음의 <표 III-21>과 같다. 먼저, 조사에 참여한 학생의 49%는 남학생, 51%는 여학생이었다. 주요 관심 변수인 사회적 고립의 경우 전체 조사 참여자 가운데 5%가 최소 한 차례 이상 해당 경험이 있었다.

표 III-21 주요 변수 기초통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성별*	0.49	0.50	0	1
사회적 고립 경험 유무*	0.05	0.22	0	1
비행 피해 경험	0.45	1.22	0	13
양육자로부터 학대 경험	1.70	0.46	1	3.65
양육자로부터 방임 경험	1.87	0.37	1	3.05
학업성적	4.02	1.20	1	7
부모학력	3.22	1.07	1	5
부모경제력	8.32	0.53	5.89	9.87

* 주: 성별 및 사회적 고립은 이분 변수로 평균을 비율로 해석해야함.

다음으로 아동·청소년기 경험과 관련하여 비행 피해 경험은 평균적으로 0.45회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의 학생이 7년의 조사 기간 동안 1회 미만의 비행 피해 경험을 보고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양육자로부터 학대 및 방임 경험은 각각 1.70

과 1.87의 평균값을 보였다. 이는 평균적으로 조사 참여자들이 양육자로부터 부정적인 양육방식을 경험하지 않은 편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학업성적의 평균은 4.02(보통: 4.0)였고, 표준편차는 1.20으로 나타나 스스로의 성적에 대한 평가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부모학력과 부모경제력은 가정배경 변수라고 할 수 있다. 부모학력의 평균은 3.22로 해당 점수는 전문대 졸업(3.0)과 대학교 졸업(4.0) 사이에 위치한다. 부모 경제력의 경우 평균이 8.32였는데, 이는 만원 단위 연급여로 환산 시 약 4천1백만 원에 해당한다.

조사 시점에 따라 고립 상태로 분류할 수 있는 청년이 얼마만큼 있는지 살펴보면 [그림 III-26]과 같다. 패널조사의 마지막 조사 시점이었던 2016년은 대부분의 참여자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로 이때 사회적 고립 청년은 전체 참여자의 1.12%였다. 이와 같은 수치는 패널 유지조사가 진행되면서 점차 상승하는 양상을 보여 2020년에는 2.39%의 참여자가 학교에 다니지 않고, 취업 상태도 아니면서 특별한 진학이나 취업 준비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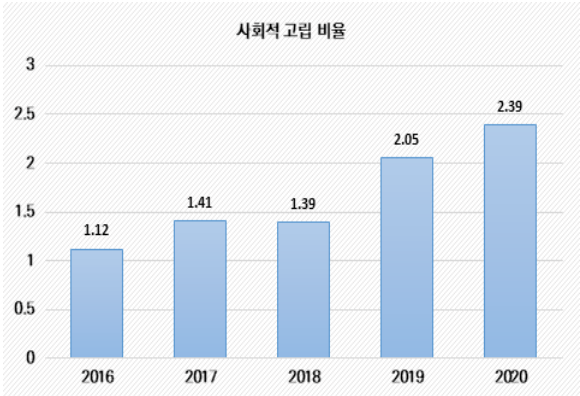


그림 III-26 조사 시점별 사회적 고립(심도 깊은 니트) 청년 비율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사회적 고립 여부에 따라 주요 변수의

평균값이 얼마만큼 다른지 살펴보았다. <표 III-2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사회적 고립 경험이 있는 청년과 그렇지 않은 청년 사이에는 크고 작은 아동·청소년기 경험의 차이가 있었다. 대체로 사회적 고립을 경험한 청년의 경우 부정적인 경험을 더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행 피해 경험과 양육자로부터 방임 경험의 차이는 두드러졌는데, 이 중 방임 경험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였다.

표 III-22 변수별 t-test 결과

	사회적 고립 없음	사회적 고립 있음 (심도 깊은 니트)	t	Pr(T > t)
비행 피해 경험	0.44	0.68	-1.87	0.06
양육자로부터 학대 경험	1.70	1.76	-1.34	0.18
양육자로부터 방임 경험	1.87	2.02	-4.09	0.00***
성별	0.49	0.51	-0.35	0.72
학업성적	4.05	3.55	4.03	0.00***
부모학력	3.22	3.09	1.20	0.23
부모경제력	8.33	8.21	2.20	0.03*

※ 성별은 이분 변수로 해당 수치는 여성의 비율과 동일함.

*p<0.05, **p<0.01, ***p<0.001

학업성적 역시 사회적 고립 경험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사회적 고립 경험 이 없는 청년의 경우 자신의 성적에 대해 평균적으로 보통이라고 응답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었다. 반면, 사회적 고립 경험이 있는 청년은 보통이나 약간 미흡한 수준 정도로 평가할 가능성이 컸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가정 배경 변수 중에서는 부모 경제력에 따른 차이가 발견되었다. 사회적 고립 경험이 있는 청년의 경우 부모의 경제력이 더 낮은 수준이었다. 다만, 이러한 결과는 상호 관계가 있는 변수 간 영향력을 통제하지 않은 결과이므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추가로 실시하였다.

(2)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아동·청소년기 부정적 경험이 청년기 사회적 고립 경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기 위해, 사회적 고립 경험 여부를 종속변수로 아동·청소년기 피해 경험, 학대 및 방임 경험을 독립변수로 두고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통제변수는 성별, 학업성적, 부모 교육 및 경제 수준을 모형에 투입하였다.

표 III-23 사회적 고립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B	S.E	z	P>z	Odds Ratio
독립변수					
비행 피해 경험	0.10	0.07	1.49	0.14	1.11
양육자로부터 학대 경험	-0.14	0.24	-0.57	0.57	0.87
양육자로부터 방임 경험	1.02	0.32	3.20***	0.00	2.77
통제변수					
성별(여자)	0.11	0.21	0.54	0.59	1.12
학업성적	-0.30	0.09	-3.22***	0.00	0.74
부모학력	0.03	0.11	0.25	0.80	1.03
부모경제력	-0.24	0.21	-1.13	0.26	0.79
상수	-1.74	1.87	-0.93	0.35	0.18

*p<0.05, **p<0.01, ***p<0.001

분석결과 아동·청소년기 양육자로부터 방임 경험이 청년기 사회적 고립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예컨대, 양육자가 본인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신경 써주는지에 관한 문항에서 평균적으로 ‘그렇지 않은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 ‘그런 편’이라고 응답했을 때와 비교해 사회적 고립을 경험할 가능성이 약 2.77배 높았다. 비행 피해 경험과 양육자로부터 학대 경험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로 도출되지 않았다. 다만, 이와 같은 결과에는 자료 내 사회적 고립을 경험한 청년의 비율이 높지 않은 점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비행

피해 경험의 경우 t-test에서 0.10수준에서 유의미한 결과로 나왔던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통제변수 중 학업성적은 t-test에서의 결과와 유사했다. 학업성적이 좋다고 응답한 학생일수록 사회적 고립을 경험할 가능성이 낮았다. 구체적으로 학업성적이 '보통'이라고 응답한 학생보다 '약간 우수'하다고 응답한 학생은 사회적 고립을 경험할 가능성이 약 26% 낮았다. 학업성적이 사회적 고립 경험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난 것은 이 연구의 사회적 고립 측정 방식으로 인한 결과일 수 있다. 즉, 학교에 다니지 않고, 취업 상태도 아닌 청년 중 진학이나 취업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청년을 사회적 고립으로 정의한 까닭에 학업에 대한 어려움으로 대학 진학에 실패하고 진로탐색 중인 청년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해당 경험이 지속될 경우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는 점에서 향후 정책적 지원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종합하면, 이와 같은 결과는 대규모 패널자료를 통해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사회적 고립의 영향요인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여러 요인 가운데 아동·청소년기에 양육자가 얼마만큼 자녀의 교육 및 건강 등에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주는지가 핵심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결과는 청년기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기 위해 선제적 대응과 양육자 교육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4) 횡단 자료(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한 추가 분석

(1) 개요

이 분석에서는 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아동·청소년기와 청년기 부정적 생애경험이 사회적 고립과 주관적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앞서 문헌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년기의 사회적 고립 상태는 특별한 배경 없이 갑자기 발생한 것이라기보다 생애전반기에 걸쳐 나타난 사건들이 누적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앞서 패널자료를 통해 분석한 연구의 결과는 이를 확인한다. 다만, 사회적 고립을 다차원적으로 살피지 못한 점은 한계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사회적 고립을 외부적, 내부적 사회적 고립과 같이 다차원적으로 구성해 아동기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일들이 이들 변수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또한, 여기서는 아동·청소년기 부정적 생애경험뿐만 아니라 청년기 이행지연과 관련한 내용을 부정적 생애경험으로 개념화하여 함께 분석하였다.

표 Ⅲ-24 부정적 생애경험 리스트(아동·청소년기, 청년기)

아동기 경험 (0세부터 만18세까지)	· 가정형편이 급격히 어려워진 경험 · 양육자로부터 과도한 체벌 또는 정서적 공격을 당한 경험 ·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가족구성원이 있었던 경험 · 가까운 사람을 잃은 경험 · 전학이나 이사를 자주 한 경험 · 학교나 동네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당했던 경험
청년기 경험 (18세부터 현재까지, 연령의 상한선은 34세임)	·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학교를 휴학하거나 그만두어야 했던 경험 ·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취업 압박을 받거나 진로 변경을 강요받은 경험 · 내가 원했던 시기에 대학입학을 못했던 경험 · 내가 원했던 시기에 취업을 못했던 경험 ·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거나 사기를 당한 경험

(2) 분석내용

이 연구 자료는 청년 자신이 아동·청소년기에 경험한 부정적 생애경험(adverse childhood experience)을 회고적(retrospective)으로 응답한 자료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부정적 생애경험이 완화된 형태로 들어가게 되어 심각한 형태의 경험에 대해서는 조사되지 못하였다는 제한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 18세

이전의 부정적 경험에 관한 문항으로 가정형편이 급격히 어려워진 경험, 양육자로부터 과도한 체벌 또는 정서적 공격을 당한 경험,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가족구성원이 있었던 경험, 가까운 사람을 잃은 경험, 전학이나 이사를 자주 한 경험, 학교나 동네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당했던 경험 등을 포함해 아동·청소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부정적 경험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청년기 부정적 생애 경험은 연구자들이 선행연구들에서 고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언급된 항목들을 한국적 맥락을 고려하여 직접 구성하였다. 추가된 문항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학교를 휴학하거나 그만두어야 했던 경험,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취업 압박을 받거나 진로 변경을 강요받은 경험, 내가 원했던 시기에 대학입학을 못했던 경험, 내가 원했던 시기에 취업을 못했던 경험,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거나 사기를 당한 경험 등이었다.

분석 데이터는 기초분석의 자료로 활용된 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이며, 종속변수로 투입된 변수는 외부적 고립 관련 문항(대면교류/비대면교류), 사회적 지지(정보적, 도구적, 정서적 지원 포괄) 관련 문항, 내부적 고립 관련 문항(외로움), 주관적 삶의 질(삶의 만족도) 등 5가지였다. 여기서 주관적 삶의 질은 아동·청소년기와 청년기의 부정적 영향들이 삶의 질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투입되었다. 분석방법은 다중회귀분석이었으며, 독립변수는 아동·청소년기 부정적 생애경험(경험한 사례의 총합), 청년기 부정적 생애경험(경험한 사례의 총합) 등이었으며, 통제변수는 성별, 연령, 지역, 독립여부 등이었다.

표 III-25 아동·청소년기와 청년기 부정적 생애경험이 사회적 고립과 삶의 질에 미친 영향

변수		교류		사회적 지지	내부적 고립	주관적 삶의 질
		대면 Coef. (S.E.)	비대면 Coef. (S.E.)	Coef. (S.E.)	Coef. (S.E.)	Coef. (S.E.)
독립변수						
아동·청소년기 부정적 경험		-0.41*** (0.07)	-0.23** (0.09)	-0.09** (0.03)	0.85*** (0.14)	-0.12*** (0.02)
청년기 부정적 경험		-0.01 (0.11)	-0.01 (0.12)	-0.14*** (0.04)	0.36 (0.20)	-0.26*** (0.03)
통제변수						
여자		-0.05 (0.17)	0.32 (0.20)	0.11 (0.07)	0.03 (0.32)	-0.03 (0.05)
연령	만 20 ~ 24세	-0.14 (0.32)	-0.09 (0.38)	-0.09 (0.13)	0.47 (0.61)	0.05 (0.10)
	만 25 ~ 29세	-0.28 (0.35)	0.08 (0.41)	0.02 (0.14)	0.15 (0.66)	0.13 (0.11)
	만 30 ~ 34세	-0.39 (0.37)	0.11 (0.44)	0.09 (0.15)	0.78 (0.70)	0.14 (0.12)
지역	경기, 인천	-0.18 (0.24)	-0.07 (0.28)	-0.12 (0.10)	-0.49 (0.45)	-0.42*** (0.07)
	대전, 세종, 충청, 강원	0.81** (0.28)	-0.54 (0.33)	-0.12 (0.12)	-1.35* (0.54)	-0.17 (0.09)
	광주, 전라, 제주	0.52 (0.31)	-1.05** (0.37)	-0.32* (0.13)	-1.29* (0.59)	-0.19 (0.10)
	부산, 울산, 경남	0.08 (0.29)	-0.83* (0.34)	-0.34** (0.12)	1.27* (0.54)	-0.26** (0.09)
	대구, 경북	-1.16*** (0.33)	-0.11 (0.39)	-0.18 (0.13)	-1.79** (0.62)	0.12 (0.10)
교육	대학/대학원 재학	0.26 (0.25)	0.78** (0.30)	0.33** (0.10)	-2.60*** (0.48)	0.17* (0.08)
	대졸이상	0.22 (0.21)	0.47 (0.25)	0.40*** (0.09)	-1.97*** (0.40)	0.04 (0.07)
독립여부		-1.47*** (0.19)	-0.14 (0.22)	-0.21** (0.08)	0.07 (0.36)	-0.08 (0.06)
상수		23.11 (0.66)	22.06 (0.78)	7.10 (0.27)	26.91 (1.25)	8.90 (0.21)
R2		0.080	0.018	0.044	0.071	0.102

※연령(reference group: 만 18-19세), 지역(reference group: 서울), 교육수준(reference group: 고졸이하)

*p<0.05, **p<0.01, ***p<0.001

분석결과 아동·청소년기 부정적 생애경험은 교류, 사회적지지, 주관적 삶의 질에 일관되게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내부적 고립(외로움)은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패널자료를 통해 살펴본 결과와 일치한다. 즉, 아동·청소년기에 어떠한 경험을 하는지는 다양한 차원에 걸친 사회적 고립 경험 가능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청년기 부정적 생애경험은 사회적 지지와 주관적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동·청소년기의 경험이 교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과 달리 청년기 부정적 생애경험은 다른 사람들과의 대면 및 비대면 교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아동·청소년기 부정적 경험은 또래 관계의 단절을 불러일으키고, 장기적으로 연결망의 약화를 야기해 교류의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반면, 청년기 부정적 경험은 기존 구축되어 있는 또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 교류에 관한 아동·청소년기와 성인기 부정적 경험의 영향력 차이는 이와 같은 내용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청년기 부정적 경험이 내부적 고립(외로움)에 미치는 영향은 낮은 수준($p < 0.10$)에서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추가적인 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요컨대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를 생애전반기로 설정할 경우 생애전반기에 나타나는 부정적 생애경험들은 다양한 차원의 사회적 고립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고립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기와 청년기를 포괄하여 생애전반기에 연속적으로 설계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선제적 대응과 사후적 지원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4. 요약 및 시사점

이 장은 양적연구 파트로서 2021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자료와 아동·청소년패널조사 및 유지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청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횡단적 영향요인, 종단적 영향요인을 살펴보았다.

청년의 사회적 고립의 실태를 보면, ① 어려울 때 도와줄 사람이 2명 이하인 청년 18.1%, ② 타인과 전반적인 교류 빈도가 3개월에 한두 번 미만인 청년 8.5% (대면 교류) 및 8.1%(비대면 교류) ③ 사회적 지원이 없는 청년 9.6%(정보적 지원), 4.5%(도구적 지원), 3.8%(정서적 지원), ④ 은둔 청년 5.1%, ⑤ 타인으로부터 고립감을 느낀 적이 있는 청년 13.4%(단일 문항) 및 외로운 감정들을 일정 수준 이상 느낀 적이 있는 청년 35.0%(종합 문항)로 나타났다. 전체 청년 중 2.5%는 총 9개의 지표 중 5개 이상의 지표에서 취약하였다.

청년들의 아동·청소년기 및 성인기 부정적 경험의 비율을 보면, 사회적 고립 지표에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 청년에게 더 높았다. 일반적으로 가족에 소속감을 느끼는 사례가 대부분이나, 사회적 고립 청년의 경우 소속감 자체가 낮고, 가족 이외의 집단에서 다른 청년에 비해 더 많은 소속감을 느끼는 사례가 관찰되었다. 사회적 고립 청년은 삶의 질과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대해 부정적으로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사회적 고립 상태의 청년들이 특징적으로 더욱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는 심리·마음건강 상담과 복지·생활 관련 상담 및 지원이었다. 도와줄 주변 사람이 없는 청년과 내부적인 고립감이 높은 청년은 대인관계, 취업, 직업훈련, 건강, 주거 등 모든 영역에서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수요를 보였다. 이는 사회적 고립 청년에 대한 서비스가 개별화되면서도 통합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를 통해 아동·청소년기 경험이 사회적 고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결과, 아동·청소년기에 양육자가 얼마만큼 방임하지 않고

자녀의 교육 및 건강 등에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는지가 핵심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결과는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ACEs: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만큼이나, 아동기 긍정적 생애경험(PCEs: positive childhood experiences)도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분석은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재연결할 수 있는 정책을 구상할 때 큰 함의를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심화분석을 통해 아동·청소년기와 청년기 부정적 생애경험이 사회적 고립에 영향을 미치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이는 회고적(retrospective) 특성을 가지고 있는 변수였는데, 분석 결과 아동·청소년기뿐만 아니라 청년기의 부정적 사건들도 고립감과 주관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년기 사회적 고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기부터 청년기까지 생애주기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고립은 인생의 어느 시기에서든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인생의 어느 시기에서나 고립의 위험요인으로부터 보호받고 지지받을 수 있는 서비스 설계가 필요하다.

표 Ⅲ-26 우리나라 사회적 고립 청년의 실태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주요 내용		시사점
청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대상 특성별 사회적 고립 유형이 상이함	사회적 고립의 복합적이고 다차원적 특성을 확인할 수 있음. 주거 형태에 따른 사회적 고립 정도의 차이는 크지 않아 1인 가구 중심의 정책 추진에 변화가 필요함
	사회적 고립과 아동·청소년 및 성인기 부정적 경험의 관련성은 대부분의 지표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됨	지표별 정도의 차이가 있어 선제적 대응시 참고할 필요가 있음
	사회적 고립 청년의 소속감은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나, 지표와 소속감을 느끼는 집단에 따라 일부 고립감이 낮은 청년보다 높은 소속감을 보이는 경우도 있음	건강한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향후 심도 깊은 분석을 통한 지원이 요청됨
	사회적 고립 상태에 있는 청년들의 주관적 삶의 질과 신체적·정신적 건강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관계 회복, 건강검진, 심리상담 지원과 같이 현재 추진되는 정책의 방향성은 적절하나 지원 대상을 다차원적으로 파악 및 확대할 필요가 있음
	사회적 고립 상태의 청년들이 특징적으로 더욱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는 심리·마음건강 상담과 복지·생활 관련 상담 및 지원이었음	도와줄 주변 사람이 없는 청년과 내부적인 고립감이 높은 청년은 대인관계, 취업, 직업훈련, 건강, 주거 등 모든 영역에서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수요를 보여 복합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드러냄
생애 전반기 경험과 사회적 고립	대규모 패널자료를 통해 아동·청소년기 경험의 성인기 고립에 대한 인과성을 확인함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ACEs: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도 중요하지만, 아동기 긍정적 생애경험(PCEs: positive childhood experiences) 역시 매우 중요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를 활용한 심화분석에서 아동·청소년기/청년기 부정적 생애경험이 사회적 고립에 영향을 미치는 경향을 확인함	아동·청소년기뿐만 아니라 청년기의 부정적 사건들도 고립감과 주관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침. 청년기 사회적 고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기부터의 생애주기적 개입이 필요함.

○———— 제4장 사회적 고립을 경험한 청년 당사자들과 가족, 서비스 실무자들의 목소리

- 1. 연구개요
- 2. 사회적 고립 청년 당사자들과
가족, 서비스 실무자들의 목소리
- 3. 요약 및 시사점

1. 연구개요

이 장의 목적은 청년들이 사회적 고립 상태에 놓이게 되었던 원인, 고립의 과정 및 결과에 대해 들어보고,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 방향에 대해 살펴보는 보는 것에 있다. 사회적 고립을 경험한 청년 당사자들, 가족, 서비스 제공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여 그들의 경험과 정책 욕구에 대해 들어보았다.

이 연구는 선행연구와 양적연구를 통해 청년 당사자들의 사회적 고립 경험은 아동·청소년기와 청년기의 경험들이 누적되어 발생할 수 있음을 가정하고 있다. 따라서 연구진은 사회적 고립 경험에 영향을 미친 사건들이 어떻게 누적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누적적인 경험이 발생하는 동안 당사자들은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였고 그 결과는 어떠한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와 함께 이러한 상황에서의 개선을 위해서는 어떠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묻고 정리하였다.

연구진은 청년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과 서비스 제공자들에 대해서도 면담을 진행하였는데 가족들은 청년들의 사회적 고립 경험으로 어떠한 경험을 함께 하게 되는지, 가족들이 생각했을 때의 필요한 개선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정보를 제공

11) 이 장은 유민상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작성하였다.

12) 연구에 참여해주신 청년 당사자 여러분들과 부모 가족모임 관계자 분들, 관련 서비스 현장 전문가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해주었다. 서비스 실무자들은 학교, 지역사회 체계에서 청소년들을 상담하고 지원하는 체계 내에서 사회적 고립 상황에 어떠한 지원을 하고 있고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변화는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을 전해주었다.

고립 청년 당사자, 가족, 실무자들은 매우 생생하고 풍부한 이야기를 전해주었으나, 질적연구의 결과는 당사자성을 최우선순위에 두기 위하여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가족과 실무자들이 전해준 개선의견들은 주로 정책제언을 도출하는데 활용하였다.

1) 면접조사의 목적

면접조사의 목적은 청년들 당사자들에게 사회적 고립 상태에 놓이게 되었던 원인, 고립의 과정 및 결과에 대해 들어보고,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 방향에 대해 살펴보는 보는 것에 있다.



그림 IV-1 면접조사 연구수행과정 도식

2) 면접조사의 주요 방법

면접조사는 심층적인 내용 분석을 위하여 사회적 고립을 경험한 청년 당사자, 가족 모임 참여자, 서비스 실무자들에 대한 심층 인터뷰와 초점집단면접(FGI)으로 진행되었다. 모든 면접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대면 면접을 시행하지 않고 온라인 회의 플랫폼인 줌(Zoom) 회의실을 통해 면담 진행하였다.

(1) 개별면접

사회적 고립 청년은 연구자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모집, 청년 관련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한 모집, 고립 청년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한 모집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연구진은 눈덩이 표집을 통해 참여자들을 모집하였고 대부분의 청년 당사자들의 경우 2회 면담을 기본으로 하여 면접을 진행하였다.

연구진은 사회적 고립 청년 면담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청년 당사자 중 주요 정보제공자를 설정하여 1차 자문회의를 거쳤고, 아동·청소년 연구 및 청년 연구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연구 프레임 및 질문 내용을 수정하였다. 이후 청년 당사자 면담에서는 사회적 고립을 경험한 청년들의 심리상태를 고려하여 라포(rapport) 형성 후 면담을 진행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판단하여 1회 면담 이후 2회 면담을 진행하여 더 깊이 있는 내용에 대해 질문하였다. 다만 청년 니트 상황에 더 가까운 참여자 2인은 1회 면담을 통해 충분한 면담이 이루어졌다고 보고 추가 면담을 진행하지 않는 등 면접 방식을 유연하게 적용하였다. 11인의 참여자 중 2명은 1회 면담, 9명은 2회 면담 이상 진행하였다.

(2)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연구진은 청년 당사자 이외에도 부모, 심리상담 전문가, 관련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개별면담 초점집단면담을 시행하였다. 부모는 사회적 고립 청년 자녀를 둔 부모 모임을 통해 섭외하여 초점집단면접 형태로 면접하였고, 관련기관 종사자들은 소속 기관에 따라 초점집단면접과 개별면담을 병행하여 면접하였다.

표 IV-1 질적연구 개요

주요 요소	내 용
면담참여자 수	• 총 22명 면담
면담참여자 특성 개요	• 고립 청년 개별면담 (11명) • 고립 청년의 부모 FGI (3명) • 고립 청년 지원사업 실무자 FGI 및 개별면담 (8명)
면담방식 (공식성 정도, 구조화 정도, 개별 혹은 집단면담)	•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한 면접방식 • 개별면담(IDI) & 초점집단면접(FGI)
면담장소	• 온라인 줌(Zoom) 회의실 ※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대면면접을 시행하지 않고 온라인 줌 회의실을 통해 면담 진행함
면담 시간 및 횟수	• 개별면접 1인당 90분씩, 1-2회 면담 • 초점집단면접 1그룹 당 90분씩 1회
면담자료 기록 및 녹취 여부	• 면접 시 녹음하여 전사
참여자 모집 방법	• 연구자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모집 • 청년 관련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한 모집 • 고립 청년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한 모집
면담자 및 분석	• 연구진

(3) 면접 절차(온라인 회의 플랫폼 줌 회의실을 통한 면접)

연구진은 참여자들에게 전화나 문자 등의 방법으로 면접 일정을 조율한 후, 이메일을 통해 참여에 대한 안내 및 참여 동의서와 줌(Zoom) 회의실 접속 링크를 발송하였다. 모든 참여자들은 참여 동의서를 작성한 후 인터뷰에 참여하였고, 면접은 스크립트 작성을 위한 회의 녹화에 대한 동의를 획득한 후 진행되었다. 참여자는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유로운 공간에서 개별적으로 접속하였으며, 면접이 끝난 후 면접 수당이 제공되었다. 청년 당사자들은 2차 면접에 동의한 경우 두 번째 면접을 한 달 이내 기간에 진행하였다.

3) 면접조사 주요 질문 프레임과 초점

면접조사의 주요 질문 프레임은 본 연구의 연구문제의 연속선상에서 설정되었다. 이 연구의 첫 번째 연구문제는 생애전반기 사회적 고립은 누구에게, 왜, 어떻게 발생하고, 그 결과는 어떠한가이다. 이 연구는 생애전반기(아동기·청소년기·청년기) 부정적 생애경험(adverse life experience) 등으로 인해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는 사회적 고립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청년 당사자들의 주요한 생애경험에 대해 묻고, 현재의 상태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 연구의 두 번째 연구 문제는 생애전반기의 사회적 고립에 대한 정책대응 방안은 무엇인가이다. 고립을 유발하는 사건 발생 당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도움을 요청하였고, 실제 도움은 어떠한하였으며, 다시 돌아가서 생각한다면 어떠한 도움을 주고 싶은 지에 관한 질문이었다. 이러한 주요 질문 프레임을 가지고 청년 당사자, 고립 청년 부모 모임 참여자, 서비스 제공기관 실무자들에게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하여 면접하였다.

모든 연구참여자들은 다음과 같은 설명을 듣고 연구에 참여하였다. 연구자들은

모든 참여자들에게 “최근 청년들이 사회로 진출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이것이 장기화되면서 여러 네트워크가 끊어진 채로 고립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한 후, “이에 따라 청년들이 사회에서 고립되지 않고 연결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이후 연구자들은 참여자들에게 “아동·청소년기의 경험에서부터 고립을 경험하게 된 원인과 과정에 대해 묻고, 고립 상태의 경과와 고립으로부터의 재연결까지의 과정 혹은 전망이 무엇인지”에 대해 묻고자 한다고 설명하였다.

이후 각 집단별로 특화된 질문을 진행하였다. 청년 당사자들에게는 생애경험, 현재 상태, 앞으로의 전망 및 정책 욕구를 중심으로 질문하였고, 고립 청년 부모 모임 참여자들에게는 고립 생활의 원인, 청년과 가족들의 현재 상태, 가족의 정책 욕구 등에 대해 질문하였다. 서비스 제공기관 실무자들은 서비스 제공 배경, 주요 서비스 내용 및 경험, 적극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변화 등에 대해 질문하였다.

표 IV-2 청년 당사자 심층면접의 면접내용 프레임

주요 요소	내 용
생애경험	• 고립 생활의 원인과 과정
현재 상태	• 고립 생활의 특성(외부적/내부적 고립) • 고립 생활의 어려움 파악 • 고립 생활로부터의 변화 노력 경험 • 변화가 어려웠던 이유와 필요했었던 지원
전망 및 정책 욕구	• 고립 생활로부터의 변화 가능성 • 고립 생활 변화를 위해 필요한 조건 • 고립 생활 변화를 위한 정책 욕구

표 IV-3 고립 청년 부모 모임 참여자 FGI의 면접내용 프레임

주요 요소	내 용
고립 생활의 원인	• 자녀가 고립생활을 하게 된 원인과 과정
청년과 가족의 현재 상태	• 자녀의 고립생활로 인한 가족의 어려움 • 고립 생활로부터의 변화 노력 경험
가족의 정책 욕구	• 자녀가 고립생활을 청산하고 가족의 기능이 회복되기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한 의견

표 IV-4 고립 청년 지원사업 실무자 FGI의 면접내용 프레임

주요 요소	내 용
서비스 제공 배경	• 고립 청년 지원 서비스가 시작된 배경과 과정
주요 서비스 내용 및 경험	• 고립 청년 지원 서비스의 주요 내용과 경험 • 효과적/비효과적 지원 서비스의 경험 • 대상자 발굴 과정, 지원 프로그램의 내용/주기/기간, 프로그램 전문성 등
적극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변화	• 고립 청년 지원 서비스 확대를 위해 필요한 법적/제도적/사회적 변화

4) 샘플링 및 참여자 정보

면접조사를 위한 대상자 모집은 눈덩이 표집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연구자들은 선행연구를 통해 대상자 모집의 어려움에 대해 파악을 하였고, 고립 상태에 있는 청년 당사자들의 직접적인 모집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았다. 연구진은 일반 청년 중 니트(NEETs) 상태에 있는 청년들의 모집은 비교적 쉽게 진행하였으나, 보다 고립 상태가 만성적으로 나타난 대상들을 모집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대안적으로 연구진은 고립 청년 지원 기관을 중심으로 표집을 진행하였고, 전문가 자문의견에 따라 추가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동기에 시설보호를 받았던 청년을 포함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다.¹³⁾ 다음으로 고립 청년의 부모 역시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 기관에서 운영하는 부모 자조 모임 등을 통해 모집하여 FGI를 실시하였다. 다만, 부모-자녀 쌍체조사(커플조사)는 참여자의 비밀보장 등 권익보호에 취약할 수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 표집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청년 지원사업 실무자 면담은 교육부의 학교 체계 내의 위클래스 상담 실무자, 고립 청년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 NPO 실무자, 시설 퇴소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자립지원전담요원 등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5) 분석방법

면접조사의 면접과 분석은 모두 참여 연구진에 의해 진행되었다. 코로나19의 상황을 고려하여 온라인 회의 플랫폼을 활용하여 면접하였으나 진행방법과 분석 방법에서는 기존의 방식과 큰 차이는 없었다.

본 연구는 면담 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먼저 인터뷰 내용을 항목별로 분류하였다. 녹음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전사하여 분석의 원자료(raw data)로 활용하였고, 연구의 엄격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터뷰 직후 내용을 반복하여 듣고 전사된 내용을 분석하였다. 연구자는 녹음된 내용을 전사하여 스크립트를 생성하고, 기록된 내용을 반복하여 읽고, 항목별로 분류하고 코드화하는 단계를 거쳤고, 분류된 자료를 각 항목의 특성대로 차례대로 분석하여 비교하였다. 이 장에서 소개된 질적연구 내용은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여 기록하고 의미를 도출한 결과이다. 연구자들은 체계적 분석 및 자료의 시각화(visualization)를 위하여 질적연구 분석 프로그램(Nvivo)을 활용하였다.

13) 이 기관에서는 ‘은둔형 외톨이’라는 말을 사용하여 대상자들을 특정하고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고립을 심각하게 경험하고 있는 대상으로 명명하고자 한다.

표 IV-5 면담 참여자 주요 정보

구분		ID	연령 (만)	성 별	학력	고립경험	이용 서비스	면접
청년 당사자	일반 청년	참여자AY	27	여	대학원졸	없음	없음	2회 개별
		참여자BY	27	여	대학졸	취준(2년)	없음	1회 개별
		참여자CY	26	여	대학졸	취준(2년)	국민취업 지원제도	1회 개별
	자립 준비 청년	참여자DY	21	여	대학재학	거의 없음	자립지원	2회 개별
		참여자EY	24	남	대학재학	거의 없음	자립지원	2회 개별
		참여자FY	21	남	대학재학	거의 없음	자립지원	2회 개별
	장기 고립 경험 청년	참여자GY	27	여	고졸	장기경험	민간기관	1회 개별
		참여자HY	24	남	고등중퇴	장기경험	민간기관	2회 개별
		참여자IY	28	남	대학재학	장기경험	민간기관	2회 개별
		참여자JY	27	여	중등중퇴	장기경험	민간기관	2회 개별
		참여자KY	21	남	고등중퇴	2년	민간기관	2회 개별
가족	가족 모임 참여자	참여자LP	50대	여	-	-	-	1회 FGI
		참여자MP	50대	여	-	-	-	
		참여자NP	50대	여	-	-	-	
서비스 실무자	상담 서비스 실무자	참여자OW	30대	여	-	-	-	1회 FGI
		참여자PW	30대	여	-	-	-	
		참여자QW	40대	여	-	-	-	
		참여자RW	50대	여	-	-	-	
	고립청년 사업실무자	참여자SW	40대	남	-	-	-	1회 FGI
		참여자TW	40대	남	-	-	-	
	자립지원 전담요원	참여자UW	40대	남	-	-	-	1회 개별
		참여자VW	30대	여	-	-	-	1회 개별

* 연구참여자 보호를 위하여 참여자들의 일부 정보는 수정되었음.

* 청년은 Youth, 부모는 Parent, 실무자는 Worker의 첫 글자를 따서 ID에 부여하였음. A, B, C는 참여자를 표로 정리하기 위해서만 사용되었으며 아무런 의미를 갖지 않음.

6) 연구윤리에 관한 고려

이 연구는 사회적 고립을 경험한 취약한 상태에 있거나 있었던 청년들을 인터뷰 하였다. 연구진은 연구참여자들에게 사전에 연구참여에 대한 동의를 득하였고, 연구참여자들이 원치 않으면 조사를 중단할 수 있음을 연구 참여 설명서를 통해 사전에 안내하였다. 또한 연구자들은 참여자들이 아동·청소년기나 청년기에 경험한 부정적 경험에 대해 인터뷰하면서 당사자들이 원하지 않으면 대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인터뷰 중간에 안내하기도 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이 연구자들에 의해 과거의 상처를 회상하며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였다.

이 연구의 면접조사는 2021년 8월 17일 NYPI IRB의 승인을 받았으며, 승인번호는 NYPI-202104-HR-고유-004이다.

2. 사회적 고립 청년 당사자들과 가족, 서비스 실무자들의 목소리

1) 연구 결과

사회적 고립 청년 당사자, 가족, 서비스 실무자들과 면접을 실시하여 수집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 연구는 기존 학술논문들에 비하여 넓은 주제를 연구하고 있고, 질적연구를 기반으로 세부적인 정책 근거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주제, 범주, 하위범주를 폭넓게 제시하였다. 이는 향후 분석의 초점에 따라 분리된 연구로 발전될 수 있을 것이나, 여기서는 정책 보고서의 목적에 맞게 포괄적으로 정리하여 정책제언 도출의 근거자료로 활용하였다.

이 연구가 도출한 주제는 “사회적 고립의 상황”, “사회적 고립의 원인”, “사회적 고립의 과정과 개인에게 남은 결과”, “고립을 막아주는 우산과 완충제”, “새로운 기회를 통한 재연결 방안” 등이다. “사회적 고립의 상황”은 ‘고립인 줄 모르고 생활’, ‘점점 깊어지는 고립의 나날’, ‘끊어진 연결망과 지지망’으로 구성되었고, “사회적 고립의 원인”은 ‘개인적 기질과 특성’, ‘아동기 부정적 경험’, ‘청년기 부정적 경험’, ‘고립을 유발하는 사회적 조건’으로 구성되었다. “사회적 고립의 과정과 개인에게 남은 결과”는 ‘고립의 고통이 시작됨’, ‘위축의 악순환과 장기화’, ‘제대로 된 도움이 없음’, ‘사회적 고립의 결과’, ‘사회적 고립의 긴 영향’으로 구성되었다. “고립을 막아주는 우산과 완충제”는 ‘개인의 회복탄력성’, ‘공동체 지원과 소속감’, ‘외부의 전문적 개입’으로 구성되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기회를 통한 재연결 방안”은 이 연구가 정책개발을 위해 수행되었으므로 구체적으로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정책제언을 도출하고자 진행되었다. 이 주제는 ‘전환기 지원 통한 연결’, ‘단계적인 기회 통한 재연결’, ‘개별화를 통한 재연결’, ‘역할부여와 교류기회 통한 재연결’, ‘재연결의 법제도적 방향’으로 구성되었다. 분석 결과에 대해 종합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표 IV-6 심층면담 분석결과

주제	범주	하위범주
사회적 고립의 상황	고립인 줄 모르고 생활	처음엔 잘 모름
		지나고 보니 알게 됨
	점점 깊어지는 고립의 나날	어린 시기부터 시작
		점진적인 변화를 겪음
		고립되어 있음을 느낌
	끊어진 연결망과 지지망	관계망의 결핍
		교환자원의 결핍
사회적 고립의 원인	개인적 기질과 특성	관계에 대한 욕구 정도가 낮음
		관계 맺기가 잘 안되거나 꺼려함
		어울리기 어려운 심리상태
	아동기 부정적 경험	가족 간 불화와 폭력
		가정 밖 보호 경험
		학교폭력 및 부적응
		결핍과 지역사회 분리
		게임중독과 중첩된 취약성
		사회적 역할 지연과 상실
	청년기 부정적 경험	실업과 취업준비
		멀리 떨어져 생활함
		관계에 대한 실망
		치열한 경쟁
	고립을 유발하는 사회적 조건	연령규범과 역할규범
		차별과 타자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와 사회경제적 충격
사회적 고립의 과정과 개인에게 남은 결과	고립의 고통이 시작됨	연결망이 와해되어감
		타인과 비교는 고통
	위축의 악순환과 장기화	온라인 연결망은 알고 느슨함
		홀로 있는 상태가 강화됨
		부정적 사고가 계속됨
	제대로 된 도움이 없음	알고도 신경 안 씀
		도움받지 못해 실망과 좌절만

주제	범주	하위범주
	사회적 고립의 결과	외로움과 깊은 우울감
		삶의 의미에 대한 회의
		장기화된 고립과 더딘 회복
		미래 관계와 역할의 포기
	사회적 고립의 긴 영향	취업해도 고립위험은 계속
		상처받고 다시 고립으로 회귀
고립을 막아주는 우산 과 완충제	개인의 회복탄력성	다시 돌아오는 힘
	공동체 지원과 소속감	가족의 지지와 공감
		중요한 사람의 도움과 경청
	외부의 전문적 개입	공동체의 지원과 지지
새로운 기회를 통한 재 연결 방안	전환기 지원 통한 연결	전문적 서비스
		다음 단계를 위해 지원하기
	단계적 기회를 통한 재연결	사회와 연결의 끈 이어주기
		달기 힘든 사람 발굴하기
		사전 단계 만들어 기다리기
		점진적 단계를 통해 연습하기
	개별화를 통한 재연결	개별화와 맞춤형 접근
		회복을 위한 연속적·장기적 접근
		가족에 대한 통합적 지원
	역할부여와 교류기회 통한 재연결	역할을 갖도록 지원하기
		교류하도록 지원하기
		조력자를 통해 지원하기
	재연결의 법제도적 방향	사회적 고립 상태 중심적 지원
		제도화를 통한 안정적, 전문적 지원
		당사자 의견반영 및 당사자 중심적 지원

2) 청년들이 말하는 사회적 고립의 상황

청년들은 어떠한 사회적 고립 상황에 놓이게 될까? 그들이 경험하는 고립 상황은 유사할까? 우리가 만난 청년들의 상태를 이렇게 정의해도 될까 의심스럽기는 하지만, 잠정적으로 우리는 ‘사회적 고립’이라는 것은 특정한 ‘상태’이며, 사람들은 다양한 경로를 거쳐 이 ‘상태’로 빠져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 상태는 인생의 어느 시기에나 발생할 수 있고, 누구나 빠져들 수 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특히 취약해서 이러한 상태에 빠질 위험이 더 클 수 있다. 이 상태는 오래 서 있을수록 깊이 빠지는 늪과 같아서 고립이 오래될수록 고립의 심도가 깊어진다. 오래되고 깊어진 고립은 자기 자신도 함께 변화시킨다. 고립에서 빠져나와서 늪에 빠졌던 흔적을 지우는 것은 매우 더디게 일어난다. 고립을 해소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고립되었던 시간과 비례한다. 이는 개인의 기질과 자원, 연결망에 따라 차이가 있다. 누군가는 쉽게 회복하지만 누군가는 회복되기 어려운 경로로 나아가기도 한다. 그 상태에 들어오게 된 계기도 다르고, 그 상태를 빠져나가는 방법도 다르다. 사람들의 인생이 다양한 것처럼 고립을 해소하는 방법도 다양해야 한다.

표 IV-7 사회적 고립 상황의 범주 및 하위범주

주제	범주	하위범주
사회적 고립의 상황	고립인 줄 모르고 생활	처음엔 잘 모름
		지나고 보니 알게 됨
	점점 깊어지는 고립의 나날	어린 시기부터 시작
		점진적인 변화를 겪음
		그럼 난 평생 고립
	끊어진 연결망과 지지망	관계망의 결핍
		교환자원의 결핍

우리가 만난 청년들은 서로 다른 배경들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는 아동·청소년기를 아동양육시설에서 자라나 퇴소를 한 청년들, 아동·청소년기에서부터 학교를 그만두거나 다른 사유로 장기적 고립을 경험한 청년들, 그리고 대학까지 큰 어려움 없이 지냈으나 취업과 재취업 과정에서 고립을 경험한 청년들을 만났다. 기존 연구에서 이들은 모두 다른 청년들로 다루어졌다. 이들은 과거에는 가정 밖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학교폭력 피해아동, 아동학대 피해아동으로 불려왔고, 청년기에는 보호종료아동, 자립준비청년, 은둔형 외톨이, 은둔청년, 니트족, 니트청년 등으로 불려왔다.

이 연구에서도 이들을 모두 ‘고립청년’이라 부르기는 어렵지만 모두 ‘고립을 경험한 청년들’이라고 부르기에는 적절해 보인다. 이들은 타인과의 교류가 줄어들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들고, 사회 속에서 스스로 고립되었다는 느낌을 갖거나 외로움을 느낀 경험이 있다. 고립이 심화될 경우 사회와 스스로 단절하거나 자해 행위를 하는 등 부정적 경험을 하기도 하였다. 청년들은 이를 연구자의 어휘에 따라 고립이라고 표현하기도 했고 은둔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이 연구에서는 은둔은 장기화되고 심각한 상태의 고립의 한 형태로 보고 고립으로 정리하였다. 우리의 면담에서 청년들이 이야기한 고립의 상황은 다음과 같다.

(1) 고립인 줄 모르고 생활

우리가 “고립을 경험한 청년들”이라고 지칭한 청년들은 과연 자신이 고립되었거나 고립되었다고 생각할까?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어느 상황을 고립된 상황으로 묘사하였다. 하지만 바로 자각하지는 못한다고 입을 모은다. 심지어 스스로를 ‘은둔형 외톨이’였다고 생각하는 참여자들조차도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데는 시간이 걸렸다고 이야기한다.

“점진적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중략) 고립되고 있는지도 별로 자각도 못했던 것 같아요” (IY, 청년당사자, 28세, 남, 장기고립생활 후 자립노력중)

“지금 와서 정신적으로 좀 안정이 되고 과거를 되돌아보면 그게 은둔이었구나라고 생각은 들고...” (HY, 청년당사자, 24세, 남, 장기고립생활 후 자립훈련중)

“단어조차... 조금은 생소했거든요. 근데 지금 멤버들 보면 이제 은둔이구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시 은둔했을 때 제가...” (KY, 청년당사자, 21세, 남, 고립생활 후 자립훈련중)

사회적 고립 청년들 중 가장 특징이 강해 보이는 은둔 청년들조차 자신들의 상태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다고 했다. 그것을 ‘은둔형 외톨이’라는 개념을 빌려 유사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방문을 스스로 닫고 들어가 나오지 않는 동일한 모습으로 존재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고립이 진행된지 오래 지나서야 자각하게 되고, 서비스를 요청하게 된다. 이 때문에 한 청년은 그것이 은둔형 외톨이라고 불리든 장기고립으로 불리든 서비스 연결을 위해서는 청년들에게 이 상태에 대해 알려주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였다.

“저도 제가 옛날에는 우울증이라는 것도 인지를 못하고 우울증에 대해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나의 문제다’, 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는데 이겨를 좀 바꿀 수 있게 좀 널리 알리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은 내가 은둔형 외톨이라는 걸 알지 못 하면은 찾아볼 생각조차 못하잖아요.” (GY, 청년당사자, 27세, 여, 장기고립생활 후 자립노력중)

(2) 점점 깊어지는 고립의 나날

고립의 배경은 각기 다르지만 고립의 상태는 유사한 측면이 있다. 한 청년은

고립의 상태를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집에 안 나가고. 사람들과 교류가 없는 거죠” (JY, 청년당사자, 27세, 여, 장기
고립생활 후 자립훈련중)*

이 청년의 설명은 우리가 개념정의한 외부적 고립(external social isolation)을 간단명료하게 정리한 것과 같다. 그렇다면 내부적 고립(internal social isolation)은 어떨까? 청년들을 만나기 전까지는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사람들 중에는 사회생활을 싫어하고 혼자 있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었는데, 사회생활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 것은 맞았지만 혼자 있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적어도 우리 연구에서는) 없었다. 이들은 외로움을 안고 장기화된 어려움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고립이라는 것은 나도 모르게 계속 깊은 동굴로 나가 들어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오는 시기도 더 오래 걸리는 것 같고...” (AY, 청년당사자, 27세, 여, 취업준비중)

외로움을 경험하는 것은 드물지 않다. 하지만 내면의 깊은 외로움을 토로하고 내보이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 이러한 상황은 사람을 점점 더 고립되게 만든다. 학교를 다니고 사회적 역할을 가지고 있어도 고립의 경험이 쌓이는 이유이다.

“(타지에서 공부할 때 우울했던 이유는) 그냥 외로운 거? 혼자 가고 쓸쓸하고 그냥 그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BY, 청년당사자, 24세, 남, 아동양육시설 퇴소 후 대학재학중)

“은둔 생활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이랑 관계는 그 당시까지는 제 머릿속에 이

문제는 보편적인 것이 아니고 나만 가지고 있는 어떤 되게 부끄러운 영역이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치부 같은 느낌이었고 누군가한테 이걸 드러낸다는 걸 용납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주변의 관계가 기본적으로 항상 많았고 친구가 항상 많았지만 단 한 명한테도 숨겼어요. 한 도합 은둔 기간이 20살 때부터 조금 2~3년, 그리고 스물다섯 살부터 일곱 살까지 한 2년 그 정도 시기를 보내면서 항상 숨겼어요” (IY, 청년당사자, 28세, 남, 장기고립생활 후 자립노력중)

고립생활이 심화되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변화하면서 사회와의 연결이 점차 끊어지게 된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 관계의 단절이 아닌 심리적 관계의 단절과도 연관이 되어 있고, 이런 경험이 장기화되면 마음의 문을 닫게 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사람에 대한 불신이 조금씩 쌓여왔다고..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이 문을 닫는 사람은 없다 하거든요. 조금씩 사람에 대한 불신이 쌓이고 쌓여서 이제 더 이상 사람과 사회를 믿을 수 없고 너무나도 두렵고 두려움이 견딜 수 없을 때 문을 닫아버린다고 생각해요” (HY, 청년당사자, 24세, 남, 장기고립생활 후 자립훈련중)

고립을 자기 방문을 닫고 들어간 ‘은둔형 인간’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이 맥락에서 혼란이 있을 수 있다. 이들은 결국에 방문을 닫고 들어가기는 했지만 사회에 참여하여 관계를 맺고 있었고, 학교를 다니고 있어 니트(NEETs)의 범주에도 들어가지 않았다. 사회 속에 있지만 사회와 단절되고 고립되었다고 느끼는 경우, 즉 내부적 고립 혹은 주관적 고립감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이유이다.

“사실 사람들과의 그냥 어딘가에 그냥 걸으려는 소속되어 있어도 사람들과의 관계, 자기 자신이 원하지 않는데도 관계가 크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그게 은둔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은 평생 은둔인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모로 거의 어린 시절 내내 평생은 은둔했는지도 모르고, 선생님이 이야기한 기반이면... 어디 학교나

직장에 속하지 않고 그냥 집 안에만 있는 것이 은둔이라고 한다면은 대안학교 이후에는 거의 사람들하고 만나지 않아서, 거의 6년 정도네요. 6, 7년 정도...”
(HY, 청년당사자, 24세, 남, 장기고립생활 후 자립훈련중)

(3) 끊어진 연결망과 지지망

고립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사회적 연결망(social network)과 사회적 지지망(social support network)이 서서히 줄어드는 걸 경험하게 된다. 면접 초기에는 이러한 현상이 “잠수를 타는 행동”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는데, 한 참여자는 “잠수를 타는 것”과 “고립되는 것”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잠수는 내가 선택해서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고립이라는 것은 나도 모르게 계속 깊은 동굴로 나가 들어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오는 시기도 더 오래 걸리는 것 같고...” (AY, 청년당사자, 27세, 여, 취업준비중)

즉, 고립은 사회적 연결망(social network)과 사회적 지지망(social support network)이 사라져버리는 것이고, 잠수는 일시적으로 연결망에서 벗어났다가 돌아오는 것이다. 특히 고립은 연결망의 소실과 외로움이라고 하는 비자발적인 상태나 감정에 기인한다는 점에 그 특수성이 있다.

청년들은 몇 가지 과정을 거쳐 이러한 연결망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학교에서 취업으로의 전환(transition)이다. 대학을 다니다가 취준(취업준비)에 나선 청년들은 서서히 주변 사람들과 연락 빈도가 줄어든다고 이야기한다.

“요즘에는 저는 이제 또 코로나도 있고 이러니까 취업을 많이 못 한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인 잠수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취업 못 하고 공부하고 있으니까 괜히 연락하기도 좀 그렇고 하나까 그 사람도 이제 자기도 공부 중이니까 연락하기 그렇고 이러니까 연락 안 하게 되는 경우는 좀 많은 것 같아요.” (BY, 청년당사자, 27세, 여, 재취업경험)

학교에서 취업으로의 전환(transition)은 자신의 소속이 변화하고 소속된 사람들 혹은 공동체의 전환을 의미한다. 전환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 혹은 이행이 지연되었다는 것은 기존 소속된 공동체와의 연락과 교류가 줄어들고 새로운 공동체로의 진입이 지연된다는 것이다. 네트워크는 점차 소실되고 친구들에게 무엇인가 털어놓기도 어려워지는 상황은 지속된다.

시설에서 사회로의 전환(transition)을 경험하는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들도 비슷한 단절을 경험한다. 우리가 면담한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들은 자립지원전담기관 및 자립지원전담요원과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었고, 5년 간의 지원과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공동생활을 하다가 나와 혼자 생활하는 것은 서서히 적응이 필요하다.

“저랑 친했던 형조차도 저랑 연락이 잘 안 됐어요. 저도 진짜 친했던. 결국은 20년 동안 돌잔치도 같이 했던 친구가 있어요. 같이 퇴소한 친구. 그 친구랑도 제대로 연락이 안 되는데. 같이 살았던 제가 애지중지하던 동생들조차도 제가 연락을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FY, 청년당사자, 21세, 남, 아동양육시설 퇴소 후 대학재학중)

“되게 옛날에는 연락한다는 거에 대해서 중요성이 뭔지 잘 몰랐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연락을 끊고 안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되게 쓸데없는 말이라도, ‘잘 지내니?’ 이런 거라도 좀 보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최근에 깨닫고 있어요.” (DY, 청년당사자, 21세, 여, 아동양육시설 퇴소 후 대학재학중)

이들은 자립지원전담요원 선생님들의 관심과 지원 덕분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이야기하였지만 혼자서 아파야 하는 상황에서는 아쉬움을 느낀다고 하였다. 아픈 시기 혼자 지내는 것이 고립인지 아닌지는 중요치 않다. 혼자 아프게 되었을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과 자원이 없다면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가 부산에 혼자 있을 때 그때 몇 번 있어가지고 약간 슬프긴 했었어요.”
 (EY, 청년당사자, 24세, 남, 아동양육시설 퇴소 후 대학재학중)

“1학년 때 시험 기간에 혼자 아파가지고 누워 있었는데 그때 좀 섭섭했어요.”
 (DY, 청년당사자, 21세, 여, 아동양육시설 퇴소 후 대학재학중)

3) 고립의 원인

그렇다면 이들은 왜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게 되었는가? 이 연구는 사회적 고립의 원인을 ‘개인적 기질과 특성’, ‘아동기 부정적 경험’, ‘청년기 부정적 경험’, ‘고립을 유발하는 사회적 조건’으로 구분하였다. 이는 생태체계적으로 개인의 특성에서부터 사회문화적 환경까지를 살펴보고, 생애주기적으로 아동·청소년기에 서부터 청년기까지의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표 IV-8 사회적 고립 원인의 범주 및 하위범주

주제	범주	하위범주
사회적 고립의 원인	개인적 기질과 특성	관계에 대한 욕구 정도가 낮음
		관계 맺기가 잘 안되거나 꺼려함
		어울리기 어려운 심리적 상태
	아동기 부정적 경험	가족 간 불화와 폭력
		가정 밖 보호 경험
		학교폭력 및 부적응

주제	범주	하위범주
		결핍과 지역사회 분리
		게임중독과 중첩된 취약성
	청년기 부정적 경험	사회적 역할 지연과 상실
		실업과 취업준비
		낯선 곳에서 생활하기
		관계에 대한 실망
		치열한 경쟁
	고립을 유발하는 사회적 조건	연령규범과 역할규범
		차별과 타자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와 사회경제적 충격

(1) 개인적 기질과 특성

사회적 고립은 개인적 특성에도 영향을 받는다. 청년 당사자들은 개인이 가진 기질과 성격, 대처능력, 사회적 기술(social skills) 등도 고립으로 가는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개인적 기질과 특성은 관계에 소극적임, 관계에 미숙하여 어울리지 못함, 어울리기 어려운 심리적 상태로 구성되었다.

① 관계에 대한 욕구정도가 낮음

사회적 고립은 개인의 자발적 선택일 수 있다(김춘남 외, 2018). 내성적인 사람들이나 관계에 대한 욕구가 낮은 사람들은 타인들과의 관계를 선호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것이 고립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고립의 자발성은 고립에 대한 강제적 개입을 경계하기 위하여 유념할 필요가 있다.

“내성적인 친구들은 확실히 많이 뭐랄까... 고립을 더 잘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 그러니까 내향적이고 내성적인 친구들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성향에 따라 이 고립이 얼마나 깊이 유지 잘할 수 있냐 못하느냐도 있을 것 같아

요.” (AY, 청년당사자, 27세, 여, 취업준비중)

“근데 그런 친구도 있어요. 그냥 무기력한 친구. 그냥 어느 나의 누구랑 비교하고 그런 것 상관없이 그냥 되게 공허하고... 그냥 니트죽. 흔히 말하면 그냥 그런. (중략) 그냥 무기력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AY, 청년당사자, 27세, 여, 취업준비중)

자발적으로 관계망을 끊는 것을 개인의 선택으로 보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없어보인다. 하지만 관계의 단절은 향후 지원의 단절과 함께 개인의 안위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으로까지 발전될 수 있다. 개인적 차원의 일에 대해 사회적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이유이다.

“저희 사무실 직원들뿐만 아니라 양육자 선생님들이 주변 지인을 통해서 뭔가 공장이라든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해주시겠다고 하였던 분들이 진짜 많으세요. 다 거절했어요. 이렇게 도와준다고 하는데도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거절을 하다 보면 그 선생님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지칠 수밖에 없잖아요. 이 그것 때문에 이제는 놓아버린 건 아니지만 전보다는 도와줘도 무시하고. 그러니까 답답하고 지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계속적으로 도움을 주려고 하는 분들은 있지만 거절하거나 무시하는 사람들은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FY, 청년당사자, 21세, 남, 아동양육시설 퇴소 후 대학재학중)

② 관계 맺기가 잘 안되거나 꺼려함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에게 대한 오해는 이들이 일부러 관계를 맺지 않고 혼자 있는 상황을 즐길 것이란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하기도 하고 외로움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다.

“지금 생각해 보면 안 좋아했던 것보다는 어떻게 어울리는지도 모르겠고 어울려지지

도 않고 그랬던 것 같아요.” (HY, 청년당사자, 24세, 남, 장기고립생활 후 자립훈련중)

이 청년(HY)은 자신의 고립을 해소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기동안 여러 노력을 한 경험이 있었다. 이 청년은 어릴 때 친구들과 어디에서 어떻게 관계 맺고 놀아야 하는지에 대해 알 수 없었다고 했다. 교류할 사람도 필요하지만 교류할 장소, 교류할 수 있는 사회적 기술도 필요하다.

“어른들이 다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는지 알려줄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모여 있는 곳이 없고 아이들이 모여 있을 수 있는 곳이 없는 데다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이제 설명해줄 만한 어른이 없다라는 게 저한테는 제일 컸던 것 같아요.”
(HY, 청년당사자, 24세, 남, 장기고립생활 후 자립훈련중)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피상적으로 흘러서 좋은 관계를 맺기 꺼려진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것은 개인이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을 꺼려하는 특성이 생겼다고 보아 개인 특성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특성은 개인의 인적 네트워크의 양이 관계의 질이나 호혜성에 기반한 교류, 고립감과 외로움과는 관련이 낮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너무 딥(deep)하게 사귀지 않는 것 같아요 다 상처가 있잖아요. 동급생이나 후배들과고 관련된 거는 일단 결국은 다 인간관계로부터 받은 상처들이 있잖아요. 그 상처들을 받지 않기 위한 그 사람들만의 방어 기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깊게 사귀지 않으려고 하는 것, 사람을 잘 믿지 않는 것. 때문에 뭔가 그 친구들이 있을 때만 잘해주는 거 뭔가 더 잘해주지도 않고 못해주지도 않고, 그냥 그 상황에 있을 때만 좀 최선을 다하는 관계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FY, 청년당사자, 21세, 남, 아동양육시설 퇴소 후 대학재학중)

③ 어울리기 어려운 심리적 상태

사회적 고립은 다른 사람과 어울리기 어려운 심리적 상태에 있을 때에도 발생한다. 이것이 기질적인 것인지, 성장과정에서 환경적 영향을 받은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다만 개인의 상태가 타인과의 교류하기 어려운 심리상태에 있을 경우 타인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지고 고립 상태로 진입할 수 있다.

“뭔가 알 수 없는 두려움이라든지 뭔가 불안이라든지 우울이라든지 무기력이라든지 그런 게 몰려오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HY, 청년당사자, 24세, 남, 장기 고립생활 후 자립훈련중)

청년 당사자 GY는 가족사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는 경우였는데 이것으로 인해 우울증이 심화되면서 타인과 교류하기 어려운 상태에 진입하였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불안정하게 변하면서 사회적인 교류를 중단하였다.

“저는 이제 이제 딱 시작이 된 거는 고등학교 때부터였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지금은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그때 지금 와서 보면 그때부터 좀 우울증이 심해졌었어요. 우울증이 너무 심해져서 이제 어느 날부터 아침에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GY, 청년당사자, 27세, 여, 장기고립생활 후 자립노력중)

“근데 이제 주변의 어떤 사회적인 교류는 전혀 하고 싶지 않았고 할 수도 없었고 이전에 있었던 친구들이랑 다 연락을 끊는다든지 그런 게 반복이 됐었어요. 어떤 사회적인 교류는 전혀 없었어요.” (GY, 청년당사자, 27세, 여, 장기고립생활 후 자립노력중)

어울리기 어려운 개인의 심리적 상태는 고립의 시작점일 수는 있으나, 개인의 심리적 상태를 어렵게 만든 원인은 따로 있을 가능성이 크다. 지금부터 살펴보는

내용은 개인의 심리적 상태를 악화시키는 데 영향을 미친 부정적 생애 사건들이다.

(2) 아동·청소년기 부정적 경험

아동·청소년기에 경험한 부정적 생애 경험(adverse childhood experience)은 사회적 고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 가지 유념할 것은 고립을 경험한 청년 당사자들은 고립의 기간이 길수록 고립의 정도가 심해지고 회복이 오래 걸린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이다. 아동·청소년기에 부정적인 경험을 하고 청년기에 사회적 고립의 경로에 들어서면 심각한 고립 단계에 진입할 위험성이 높다.

① 가족 간 불화와 폭력

청년당사자 IY는 자신도 장기화되고 심각한 고립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서 같은 경험을 하는 청년들과 많은 교류를 해왔다. 그는 유사한 경험을 한 청년들은 대부분 원가족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고 이야기한다.

“제가 만나본 청년들 중에는 가족과 관계가 좋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뭐 간혹 있긴 했지만. 그래도 따지고 보면 엄마든 아빠든 둘 중에 좀 더 센 사람이랑은 이게 대화가 안 된다고 이미 학습된 분들이 많았어요.” (IY, 청년당사자, 28세, 남, 장기고립생활 후 자립노력중)

부모님의 사업 실패로 가족 간 불화가 생긴 이후, 청년당사자 GY는 우울을 경험하며 심각한 고립 상태로 진입한다. 그녀는 가정폭력을 목격하고 직접 폭력을 경험했지만, 가정 내 불화에 어떠한 외부적 개입이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성인기로 진입하게 된다. 가족 간 불화는 더욱 심해지고 고립과 우울 역시 계속 발전하다 자해를 경험하기에 이른다. 우리는 그녀의 사례에서 아동·청소년기에 경험한 가정 폭력과 같은 부정적 사건이 개인의 성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부정적으로 강화

되어갔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저는 아버지의 사업이 망한 것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때 저희 가족이 정부라는
지 어디서 알아보면 도움을 받았을 수도 있을 수 있지만, 그때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런 걸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었고. 그래서 아버지부터도 일단 그때 도움받았으면
지금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거고. 약간 연쇄 작용 같은 거였거든요. 아버지가
사업이 망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괜히 이제 매일 술 마시고 들어와가지
고 때리고 이런 식으로 점점 이어져 온 건데 그런 것도 있고....” (GY, 청년당사자,
27세, 여, 장기고립생활 후 자립노력중)

② 가정 밖 보호 경험

아동·청소년기 부모와 떨어져 양육된 경험도 아동·청소년들의 성장발달에 중요
한 영향을 미친다. 더욱이 가정 밖에서 양육된 아동·청소년들은 성인으로의 전환
기(transition period)에 가족이라는 보호막 없이 성공적인 이행이 어려울 수
있으며, 개인의 네트워크나 지지망이 약하여 고립되기 쉬워진다.

“저희 같은 보육원 출신 아이들은 이 사회적 고립이라는 남들과의 접촉을 안
하는 타인과의 관계 형성이 안 되고 있는 아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UW, 자립준비
청년 지원 실무자, 40대, 남)

아동양육시설에서 아동·청소년기를 보내다 퇴소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
동)들은 시설에서의 인간관계가 퇴소 이후에는 잘 이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한다.

“그냥 나와서 거기 시설에 있는 애들끼리 만나서, 꾸준히 만나는 거는 흔하게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DY, 청년당사자, 21세, 여, 아동양육시설 퇴소 후
대학재학중).

“저희 시설에서의 이제 동기나 형이나 그리고 아직 퇴소하지 않은 동생들까지 다 겪으면요. 공통적으로 연라이 잘 안 돼요.” (FY, 청년당사자, 21세, 남, 아동양육시설 퇴소 후 대학재학중)

시설에서의 퇴소는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되는 일이지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연결망이 감소된 상태에서 사회에 나가는 것은 사회와 단절되어 있는 느낌을 준다. 우리가 면담한 청년들은 사실 현재 상태에서 고립청년으로 부르기 어려운 활성화 되고 연결된 상태에 있었다. 하지만 퇴소 이후의 경험을 들여다보면 고립으로 인한 외로움과 우울의 경험을 찾을 수 있었다.

“그때, 완전 처음에는 그냥 좀 들렸고 이제 사회생활 비슷한 거 하나까 두근대고 약간 재밌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초반에 재밌었고 했는데, 다른 사람은 잘 모르겠는데 약간의 우울증 같은 게 온 것 같기도 하고 그랬었다가 그냥 이제 지금은 괜찮고 잘 생활하고 있는 것 같아요.” (EY, 청년당사자, 24세, 남, 아동양육시설 퇴소 후 대학재학중)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은 퇴소 후 5년 이내 기간 동안 자립지원전담요원 으로부터 사후관리를 받도록 되어 있다. 이것은 퇴소한 청년당사자들에게 여러 도움을 주지만, 누구나 이런 도움을 바라는 것은 아니다.

“향상. 한 해에 20%는 끌어져요 (중략). 우리가 먼저 끄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먼저 끄습니다.” (UW, 자립준비청년 지원 실무자, 40대, 남)

“실은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 친구가 한 명 있어요 (중략). 제가 전화를 하면 안 받을 때도 있고, 또 받을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저희가 많은 자원이 있잖아요. 알바 하게 할 수 있고, 또 일자리도 취업도 할 수 있게 할 수 있지만은 (중략). 그렇게 하려고 해도 의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VW, 자립준비청년 지원 실무자, 40대, 남)

연결되는 게 부담스러워서이든 불쾌해서이든 이들이 스스로 연결망을 끊으면 외부와의 연결망은 더 협소해지고, 연결망을 통한 지지체계도 무너질 수 있다. 이는 고립의 충격을 심화시킬 수 있다.

“그 형이 고3 때 늘 이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했어요. 내가 불쌍한가 사람들 왜 다 챙겨주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제 퇴소 후에도 뭔가 좀 남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피해 의식이라기보다는 내가 불쌍하니깐 사람들이 도와주는 거야 그러니까 난 그 도움 받기 싫어. 이렇게 강하게 방어 기제가 나왔던 것 같아요.” (FY, 청년당사자, 21세, 남, 아동양육시설 퇴소 후 대학재학중)

③ 학교폭력 및 부적응

학교폭력은 청년당사자들과 실무자들이 가장 많이 지적하는 고립의 요인이다. 학교폭력은 학교생활을 무기력하거나 학업중단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많이 드는 생각은 학교폭력을 당한 친구들이 꽤 많아요. 이 친구들이 이제 그래서 결국 이제 폭력을 당한 친구들이 대부분 어딘가로 쫓겨났다는 게 약간 정말 너무 이상하더라고요...(중략) 왜 이 친구들은 피해자인데 왜 가해자들은 저희 계속 원래 제도권 사회에 그대로 있고 이 친구들만 대안학교라든지 그런 데로 밀려난 건지. 그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있어서” (GY, 청년당사자, 27세, 여, 장기고립생활 후 자립노력중)

“좀 조용한 그런 스타일의 학생이었죠... 조용한... 근데 제 생각은 좀 외모나 좀 말이 좀 어눌하거나 그런 부분에서 좀 이런 게 있었어요. 옛날에 좀 아이들한테 이런 그런 게 커가면서 비슷했던 거 계속 그렇게 하다가 중학교 때 좀 심하게 왕따 당하고, 그런 걸 좀 당하고 고등학교 때는 또 비슷하고. 그냥 그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조용한데 그냥...” (KY, 청년당사자, 21세, 남, 고립생활 후 자립훈련중)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학교 밖으로 나가게 되는 경우 고립의 기간은 길어지고 그 부정적 영향은 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

“중고등학교 때 왕따 경험 있는 스펙트럼도 꽤 많은 것 같아요. 왕따나 어떤 폭력의 경험이 있어서, 저는 그 경험은 사실 없거든요. 근데 그 경험이 이제 있었던 친구들은 아마 그때부터 학교나 등교 거부를 이렇게 시도했고, 근데 등교 거부를 시도한 경우에 등교 거부만 하고 끝난 경우도 있겠지만 부모가 오히려 이제 '어, 학교는 그래도 가야지' 오히려 이렇게 더 강요되는 문화 속에서 부모와의 소통 단절이 시작이 됐던 케이스들도 있어서...” (IY, 청년당사자, 28세, 남, 장기고립생 활 후 자립노력중)

학교폭력이 아니더라도 학교에 적응하기 어려운 청소년들도 있다. 이들 역시 학교를 계속 다니지 못하고 학교 밖으로 나가게 될 수 있다.

“그 분위기 자체가 견디기 어렵더라고요. 나는 계속해서 이해받지 못하고 걸도는 것 같고 뭔가.. 정신적으로 어렵더라고요.” (HY, 청년당사자, 24세, 남, 장기고립생활 후 자립훈련중)

자녀가 학교를 그만두는 시기 부모의 역할도 중요한데 부모와의 관계가 좋지 않을 경우 청년당사자뿐만 아니라 부모에게도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회적 고립 청년에 대한 문제에 접근할 때는 함께 있는 가족들의 어려움도 보살펴야 할 필요가 있다.

“엄마들이 학교에서 상처받지. 애는 또 내 말을 안 듣지. 그래서 이중고 삼중고예요.” (NP, 장기고립청년 어머니, 50대, 가족모임 참여중)

④ 결핍과 지역사회 분리

아동·청소년기 물질적 결핍(material deprivation)은 친구와의 관계에서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 아동양육시설에서 퇴소한 청년당사자 DY는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초등학생 때부터 아마 시설에 들어가서 살짝 뭔가 좀 움츠러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때... 뭐 외모적으로도 그렇고 뭔가 옷도 되게 다른 애들은 이쁜 거 입고 오는데 저희는 좀, 좀 유행에 뒤쳐진 옷들을 입을 때가 많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도 있고, 거기서는 단체 생활이니까 뭐 화장이라든지 여자애들은 남자에들은 머리를 멋있게 깎는다든지 이런 것들도 다 못하게 하셨거든요. 화장은 진짜 고등학생 때도 제대로 허락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도 움츠러들었고. 엄청 뭔가 그것 때문에, 아, 모르겠다. 네, 아무튼 환경적인 것도 컸었던 것 같아요.” (DY, 청년당사자, 21세, 여, 아동양육시설 퇴소 후 대학재학중)

이와 같은 차이는 다른 아이들과의 교류도 소극적으로 만들고 결국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적 네트워크의 범위를 협소하게 만든다. 아동양육시설 실무자는 이러한 일이 일반적으로 나타난다고 이야기한다.

“나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하고 안 만나게 돼요. 보육원 아이들끼리만 놀아요 학교에서도” (UW, 자립준비청년 지원 실무자, 40대, 남)

개인적 차원의 결핍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결핍도 아동·청소년의 연결망을 협소하게 만든다. 장기간 심각한 고립을 경험한 청년당사자 HY는 자신이 살던 지역의 재개발로 인해 이웃들이 모두 이주하는 상황에서 가장 늦게까지 남아 학교를 다녔다고 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저학년 때쯤은 옛날 같은 경우에는 약간 오래된 거주지, 약간 오래된 아파트 오래된 거주지 같은 데 보면 이게 자연스럽게 형성돼 있는 마을 공동체 같은 게 있잖아요. 약간 무슨 무슨 유니온.. 이렇게 정해지지 않아도 그냥 마을 사람들끼리 그냥 서로 잘 알고 애들끼리 골목에 뛰어놀고 그런 그런 분위기였잖아 옛날에...” (HY, 청년당사자, 24세, 남, 장기고립생활 후 자립훈련중)

그는 학교에서 자신에게 주는 차별은 없었으나 주민들이 모두 떠나고 소수의 사람들만 남게 되자 사람들과의 교류 자체가 어려워졌다고 했다. 다른 사람들과의 생활반경이 달라지면서 지역사회 분리가 나타났고, 다른 사람들은 물론 다른 사람들과의 놀이공간, 교류공간이 사라지면서 함께 고립된 것이다.

“학교 1학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1학년 2학년 뭐 이런 얘기 그때는 그랬었는데. 이게 재개발이 돼서 다 흩어지고. 놀 곳이 없어진 것 같아요...(중략) 저희는 이사를 제일 늦게 갔어요. 저희는 이사를 제일 늦게 간 편이어서.. 이게 황폐화되는 거를 좀 보고 자라는 느낌이죠..” (HY, 청년당사자, 24세, 남, 장기고립생활 후 자립훈련중)

⑤ 게임중독과 증착된 취약성

게임에 중독되면 타인과의 교류에 비해 게임을 하는 것을 선호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실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교류를 줄이게 된다. 장기간 심각한 고립을 경험한 청년당사자 JY는 초등학교 때부터 게임에 중독되고 학교를 안다니려고 하게 되었다고 했다.

“이제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때 이때 제가 등교 거부를 했었어요 한 번씩. 제일 길었던 게 6학년 때 한 달 정도.... 제가 게임 중독 우울증에다가 게임 중독이 있으니까 이제 학교 다니기 싫은 거예요. 좀 등교 거부를 했던 것 같아요.” (JY, 청년당사자, 27세, 여, 장기고립생활 후 자립훈련중)

이 참여자는 고립의 원인을 게임중독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가정폭력에도 있다고 이야기하였는데 중복적인 취약성 혹은 중첩된 취약성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에게 게임중독이 없었다면 고립되지 않았을지에 대해 묻자 그녀는 그래도 자신은 가정폭력이 있었기 때문에 고립을 언젠가는 경험했을 것이라 이야기하였다.

“근데 저는 은둔... (게임중독) 말고도 가정폭력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짧게라도 은둔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좀 늦게라도” (JY, 청년당사자, 27세, 여, 장기고립생활 후 자립훈련중)

(3) 청년기 부정적 경험

아동·청소년기의 경험은 청년기까지 장기적이고 심각한 고립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이는 청년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 그렇다면 청년기에 발생한 일들은 사회적 고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연구진은 아동·청소년기의 부정적 사건들은 청년기까지 누적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했고, 동시에 아동·청소년기에 부정적 경험 없이 지냈던 사람들도 청년기에 학교나 직장으로 원활한 이행을 하지 못할 경우 사회적 고립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실업이나 취업준비는 타인과의 네트워크의 빈도와 강도를 줄어둘게 했으며, 자원교류의 가능성도 줄어둘게 했다. 아동·청소년기에 별다른 부정적인 일이 없었던 사람들은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회복하는 속도도 빨랐지만, 청년기에 발생한 문제들도 장기화될 경우 인적 네트워크를 소멸시키고 부정적인 악순환 고리에 빠져들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여기서 청년기 부정적 경험은 사회적 역할 지연과 상실, 실업과 취업준비, 낯선 곳에서 생활하기, 관계에 대한 실망 등으로 구성된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사회적 역할 지연과 상실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은 사회적 역할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아동·청소년기에서부터 학생으로서, 가족으로서, 친구로서의 역할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사회에 참여해야 하는 역할을 상실한 채로 지내고 있었다. 이것은 장기적이고 심각한 고립 상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사회참여를 거부한 채로 스스로 고립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참여의 기회를 갖지 못한 채 고립될 수밖에 없는 경로로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히려 굉장히 활발한 사람이었어요.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하면 제일 먼저 올라가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반복된 그런 실패 경험으로, 되게 나로서 사는 방법을 점점 잃어 갔고, 그래서. 딱 결정되는 시기는 20살 때 아마 가장 많이...” (IY, 청년당사자, 28세, 남, 장기고립생활 후 자립노력중)

아동·청소년기에는 학교 다니는 역할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러한 역할이 갑자기 사라진 사람은 역할 없이 집에 머물게 되고 고립이 장기화될 수 있다. 장기적인 고립은 부정적 효과가 심화되어 회복을 더디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이다.

“저 딱 졸업하고 나서부터 집도 평소에 잘 안 나가서 그냥 계속 안 나게 되는 시간이 많아서. 대학을 안 가가지고...” (KY, 청년당사자, 21세, 남, 고립생활 후 자립훈련중)

한 참여자는 사회적 역할이 지연되는 것은 자기비하를 불러오고 무기력에 빠지게 한다고 이야기하였다. 특히 사회에 참여하면서 사람들은 자신의 지위에 대해 끊임없이 묻는데 자신에게 그런 지위와 역할이 없다는 것이 자신을 다시 숨게 만든다고 이야기하였다. 사회적 고립의 부정적 영향이 청년기에까지 이어지고, 더 강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지금 많이 나아지고 마음이 나아진 케이스였는데 사실 이제 치료를 하고 사회적으로 보면 제가 어떤 학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뭔가 좀 우울증 치료를 하고 좀 나아져가지고. 밖으로 나가려고 해도 뭐 뭘 어떻게 나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하다 못해 알바를 가도 아니면 스무살 중반인데, 대학도 안 갔어요? 이 나이 때 대학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도 많이 들었고. 하다못해 알바 면접을 봐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이제 자신이 없고. 사회 진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나는 안 되는 것 같다. 이 사회에서 더 이상 늦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더 심해진 것 같아요.”
(GY, 청년당사자, 27세, 여, 장기고립생활 후 자립노력중)

이것은 비단 대면 관계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이제 어떠한 지위를 가져야 하는 나이가 되었는데 이에 대해 마땅히 대응할 수 없는 것이 불편해진다. 한 참여자는 이를 피하기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교류도 줄여버렸다고 했다.

“그런 자기에 대한 소개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런 이제 사람들을 온라인에서나마 만나고. 자기소개를 하는 그 시간이 너무 불편해졌어요. 음 아예 그런 걸 피해야겠다 싶어서 사람들이랑 유대를 안 했어요. 길드 같은 것도 안 들고 그냥 혼자 게임하고 어쩌다 사람 만나면은 조금 놀다가 더 친해지기 전에 그냥 손절하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JY, 청년당사자, 27세, 여, 장기고립생활 후 자립훈련중)

사회적 역할이 상실되거나 지연되는 것은 청년들에게 많은 스트레스와 부담을 주고, 자기존중감에도 영향을 미치는 기재로 작용하고 있었다.

② 실업과 취업준비(취준)

청년은 학교에서 직장으로의 전환(school to work transition) 과정에서 소속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소속은 소속되어 있는 사람과의 관계 및 소속감 등 인간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들을 제공한다.

반면 실업과 취업준비는 소속을 잃어버리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직장에 다니다 직장을 그만두거나 실직해버리면 직장에서 만나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된다.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준비를 하게 되면 학교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관계가 줄어들게 된다. 무엇보다 실업과 취업준비는 경제적 상황을 악화시키고 미래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하기 때문에 개인의 자존감을 낮추어 타인과의 교류 가능성을 더욱 낮춘다.

“아예 연락을 끊는 경우면 자기가 한 엄청 많이 시험에, 시험을 쳤었는데 거기서 줄줄이 다 떨어졌다는가, 내가 만약에 너무 실패한 사람 같아서 자존감이 많이 떨어진 상태라든가, 그런 쪽이면 저도 연락을 다 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DY, 청년당사자, 21세, 여, 아동양육시설 퇴소 후 대학재학중)

청년들은 기성세대에 비해 정보통신기술을 더 잘 활용하고 있고, 소셜미디어(social media)를 통한 타인과의 교류에도 더 익숙하다. 그러나 이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연결망은 실업과 취업준비 기간에는 잘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자존감이 낮아진 상태에서 자신을 드러내 보이는 걸 꺼려하거나 타인의 생활을 보며 자존감을 더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근데 그때 한참 취업 준비하고 지금도 그렇지만 한참 취업 준비할 때 이럴 때는 SNS를 좀 덜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올릴 것도 딱히 없고 그냥 빨리 어떤 제대로 직장에 잡아서 좀 여유로워질 때 올리자 약간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CY, 청년당사자, 27세, 여, 코로나19로 실직경험)

취준 기간에는 자신의 네트워크가 자연스럽게 감소한다. 이는 연락을 안하다보니 연락이 끊겨 인간관계가 정리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취준에 보다 집중하여 생활의 안정을 이루기 위해 타인과의 연락을 두절시키는 경우들도 쉽게 볼 수 있다.

“확실히 제가 느낀 거는 고등학교 때 친구들도 연락을 자주, 저는 연락을 자주 안 해요. 친구들이 자주 해요. 자주 하는데 가끔씩 한 과제를 한다거나 뭔가 일을 하고 있을 때 카톡에 오면 안 봐요. 왜냐하면 무언가에 집중을 하고 있잖아요. 그때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건 과제인데 만약에 제가 취업 준비를 한다거나 뭔가 중요한 졸업이라던가 그런 예민한 시기에 있을 때는 연락을 진짜 더 안 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때는 친구들한테 미리 얘기를 한 다음에 내 이거 준비 때문에 연락을 잘하지 못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진짜로 준비하려고 했었어요.” (FY, 청년당사자, 21세, 남, 아동양육시설 퇴소 후 대학재학중)

취준 기간이 길어지면 부정적 효과가 증가한다. 취준을 위해 관계를 멀리하면 타인과의 정서적인 교류도 줄어들게 되고 개인의 부정적 감정들이 해소되지 못하고 강화될 수도 있다. 재취업을 준비했었던 BY의 사례는 이와 같은 상황을 잘 보여준다.

“제가 취준할 때는 친구들이랑 연락을 안 하고 지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만날 돈도 없고 좀 공부해야 되니까 좀 우울하기도 하고 오히려 공부를 안 하면은 좀 그런 불안한 감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취준생들 진짜 많고 저는 이제 막 완전 관련 없다는 이제 이쪽으로 하게 되는 거니까 제가 너무 늦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나이도 많고 또 같이 준비하는 스터디를 하거나 이러면 같이 준비한 애들은 다 대학생이거나 다 어린데 보통 이제 제가 약간 나이가 많은 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자꾸 늦었다고 생각이 되니까....취준 기간에는 좀 편히 잠든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BY, 청년당사자, 27세, 여, 재취업경험)

③ 낯선 곳에서 생활하기

이사를 가거나 타지에서 생활을 하는 것은 한 사람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인적네트워크를 축소시키고 호혜적 교류 가능성을 낮추어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을 감소시킨다. 이사를 하는 것이 모두 청년기 부정적 경험으로 인식될

수는 없겠지만 청년들 중 일부는 타지에서의 생활이 청년들의 심리적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엿볼 수 있게 한다.

“좀 고립되긴 했어요. 약간 그. 1년 동안 약간 자취방에서 그냥 공부하거나 아니면 학원 갔다가 진짜 왔다 갔다 하는 정도. 그리고 가끔씩 스터디 같은 거 가면은 또 가면 그때 또 친구들 사귄 수 있고 스터디도 할 수 있으니까. 그때 그 스터디원들이랑 좀 가까워지고 친구들은 또 많이 좀 멀어졌던 것 같아요 그때.”
(CY, 청년당사자, 27세, 여, 코로나19로 실직경험)

낯선 곳에서의 생활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새로운 관계들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곳에 적응하면서 그 부정적 영향이 감소 될 수 있다. 그러나 초기 적응 과정에서의 어려움이 있거나, 낯선 곳에서 실업을 경험하고 취업준비를 해야 할 경우 인적 네트워크 및 지지망이 없어 부정적 충격을 완화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을 수 있다는 걸 유념할 필요가 있다.

“그냥 잘 어울리지 못하고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인서울로 대학교를 가게 돼서 이제 지내는데 자취방도 이제 작고 하니까. 그런 데 계속 있고 만약에 친구도 많이 없는 경우에는 그냥 간혀 있고 계속 그러다 보면은 약간 잡생각도 많아지고 그런 어떤 우울증 걸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GY, 청년당사자, 27세, 여, 장기고립생활 후 자립노력중)

④ 관계에 대한 실망

고립을 경험한 청년들은 타인들과의 관계를 경계하기도 한다.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은 퇴소 후 자립지원금을 받고 사회로 나오기 때문에 이 돈을 잘 지켜서 필요할 때 정착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청년들에게 비교적 큰돈이 지급되므로 이 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문제는 이 돈을 다양한 경로로 잃어버리게 될 경우 이에 대한 자책감, 타인에 대한 실망이 함께 나타난다는 것이다.

“다른 시설 친구를 알게 된 사람이 있는데, 그 친구는 형이 있고 동생이 있어요. 그래서 그 큰돈을 이제 빌려주면서 돈을 다 쓰는 경우도 있었고...” (FY, 청년당사자, 21세, 남, 아동양육시설 퇴소 후 대학재학중)

이런 사례가 개인의 경험이 되든 타인의 경험이 되든, 타인과의 관계에서 이런 위험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건 타인에 대한 신뢰 정도를 낮추고 네트워크를 단절해버리는 기제가 될 수 있다. 이것은 지지집단 및 자조집단을 구성하는데 유의해야 하는 지점이며, 고립 청년 지원 시 이를 방지하는 장치에 대해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고3 때 이거 엄청나게 교육을 받았는데 선생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 퇴소하고 형들이 돈 빌려달라고 담당 선생님들이 돈을 빌려달라고 해도 절대로 빌려주지 말라고, 확실하게 각인시키고, 확실하게 각인을 시키지만 잘 안 되더라 고요. 사실 어떤 형은 나 이 돈 정말 필요해. 나 너 이거 안 빌려주면 나 자살할 거야. 이렇게 해서 돈을 빌린 경우도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주변에 도박하는 사람이나 뭘 돈을 계속 빌리고 안 갚는 사람들이랑은 연락을 다 끊었어요.” (FY, 청년당사자, 21세, 남, 아동양육시설 퇴소 후 대학재학중)

(4) 고립을 유발하는 사회적 조건

장기적으로 심각한 고립을 경험하는 청년들은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의 히키코모리 문제는 1990년대부터 발생하였고, 한국도 2000년대 들어 이러한 문제가 사회문제화되고 있지만, 유럽의 경우 이것은 심각한 문제로 취급받지는 않고 있다. 이것은 동아시아의 공유하는 사회·문화·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화에 기인할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고립청년에 대한 인터뷰에서 이에 대한 단서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 경쟁적인 문화로 타인에 대한 신뢰가 낮고, 나이에 걸맞은 역할과 지위에 대한 인식이 있어 이를 벗어나는 것에 대한 부담이 크며, 집단적 기준과 맞지 않는 경우 차이가 차별로 발전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의 영향에 대해서도 관찰이 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으로 일자리를 잃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관계망이 협소해지는 경우가 발견되었다. 이로 인한 고립감과 우울감의 심화도 목격이 되었다.

① 치열한 경쟁

치열한 경쟁은 외부적인 성과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내재화되어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거나 타인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청년들의 사회진출이 어려워지고 경쟁이 심화되면서 타인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고 유대 관계가 약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어쨌든 간에 서로 다 경쟁의식을 가진다고 해야 하나. 어쨌든 그 사람 한 명 한 명이 다 경쟁자잖아요. 대학에서든 사회에서든 그러다 보니까 다 잘 안 믿어요.”
(FY, 청년당사자, 21세, 남, 아동양육시설 퇴소 후 대학재학중)

② 연령규범과 역할규범

아동·청소년기를 순탄하게 보내다가 청년기 사회 진출이 어려워져 고립을 경험한 청년들은 ‘남들은 다 하는데 나만 못하는 기분’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고 이것이 위축감과 좌절감을 가져온다고 이야기했다. 이것은 치열한 경쟁에서 자기가 뒤처져 있다는 기분이 들게 하고, 자신이 나이를 먹고 있으나 나이에 걸맞은 일을 못하고 있다는 자괴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보인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때는 그 나이도 되게 많아졌는데 취업 안 되면은 신입이 나이가 너무 많으면 조금 약간 어렵기도 하고 안 뽑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또 이제 여자들은 취업하면은 시집간다고 안 뽑기도 하고....” (BY, 청년당사자, 27세, 여, 재취업경험)

사회적 고립을 경험한 사람들은 무언가 해야 할 시기를 놓친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우리나라는 생애전반기에 연령에 따라 해야 할 일이 명확히 정해져 있는데, 이로 인해 남들이 다 하는 일을 본인만 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심리적인 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는 이것을 우리 사회문화가 가지고 있는 규범적(normative) 기준으로 해석하였고, 연령에 대한 규범과 역할에 대한 규범이 내재화된 것으로 보았다.

“나이가 많아지니까 그런 걱정이 좀 생기더라고요. 나이 관련해서 구애를 많이 안 받는 게 공기업이나 공무원이잖아요. 약간 공무원에게 나이가 많아서 안 했을 것 같고 취업 준비를 한다거나 이제 저는 약간 공기업 준비했을 것 같아요. 공기업이 그래도 나이를 많이 안 본다는 인식이 있으니까 사기업보다는 그럼 공공기관. 공기업 이런 데 준비했을 것 같아요.” (BY, 청년당사자, 27세, 여, 재취업경험)

20대 중후반에서 30대 초반은 이런 연령에 대한 기준이 세부적이어서 제 연령에 맞는 일을 하지 못하거나 늦어지면 많은 불안함을 느끼는 것처럼 보였다. 이것은 실제 사회에서 ‘이 나이가 지나면 뽑지 않는다’라는 신호를 주고 있기 때문이었다.

“한국에 오기 전 일한 게 1년밖에 안 돼가지고 지금 그러면 경력으로 못 하거든요 1년이어서 최소 2년 이상이어가지고 근데 지금 또 *** 항공에서 또 연락이 와서 또 다시 올 수 있냐는 그런 지금 사람들을 다시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1년 정도 갔다 와야 하나 그런 것도 고민이에요. 제가 나이가 있어서 조금 갔다 와서 또 취직을 더 힘들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지금 그런 고민이 제일 커요” (CY,

청년당사자, 27세, 여, 코로나19로 실직경험)

청년들은 실업이나 취준으로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것이 자연되면 선택의 폭이 좁아지고 이후의 인생 단계에도 영향을 받는다는 걸 알고 있었다.

“20대는 진짜 25든 28이든 다 자기 나이는 좀 많이 뭉가 늦었다 조금 촉박하다 약간 다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25살 때도 뭉가를 하고 있었지만 되게 조금 늦은 게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27인데도 지금도 저는 많이 늦었다 이런 생각을 많이... 제 동생이 지금 25인데 개네 지금 뭉해도 다 할 수 있는 나인데. 또 개 입장에서 좀 많이 늦은 거 아닌가 하고 아빠랑 상담하는 걸 어제 봤거든요. 그러니까 20대에게 나이라는 거는 그냥 적든 많든 다 그냥 각자 개인이 조금 되게 뭉가 쫓기듯이 좀 늦었다 약간 그런 느낌을 많이 드는 것 같아요.” (AY, 청년당사자, 27세, 여, 취업준비중)

이러한 연령규범과 역할규범은 무언가를 제 나이에 성취하지 못한 것에 대한 실망감을 키우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으며, 자존감이 떨어지게 되면 타인과의 교류를 단절하는 경우도 발견된다. 이는 이후 ‘사회적 고립의 과정’ 주제에서 다시 다룰 것이다.

③ 차별과 타자화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청년들은 차별을 직접적으로 받거나 간접적으로 느끼는 경우들이 있었다. 이것은 특정 속성이 있는 청년들을 타자화시켜 공동체에서 소외 되게끔 만든다. 아동양육시설에서 퇴소하고 대학에 진학한 청년당사자 FY는 아르바이트와 대학생활에 적극적이었지만 자신의 출신에 대한 사회적 시선에 대해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고, 공동체 일원으로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가난한 친구들이랑 저는 기초생활수급자랑 또 이제 대우가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는 이제는 국가에서 지원받는 금액이 없어요. 가구 내에서 차가 있다가 아니면 집 1억 미만 잘 모르는데, 그 분명 돈이 없는데 차가 있다는 조건으로 돈을 못 받거나 그런 그것을 학교 사이트라든가 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이제 고등학교 친구가 나 다시 태어나고 싶다. 부정적인 얘기를 하니깐요, 어 뭘가 제가 미안하더라고요. 이상하게 왜냐면 그래서 애들도 막 물론 장난이지만 그런 식으로 말을 많이 해요. ‘나도 그냥 보육원에서 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진짜 많았고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상처받죠.” (FY, 청년당사자, 21세, 남, 아동양육시설 퇴소 후 대학재학중)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고 이것에 대한 언론보도가 늘어나자 한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이 자신들에 대해 무엇이라 이야기하는지도 눈여겨보게 되었다. 친구들의 반응을 알면서 인터넷 뉴스의 댓글을 보면 사람들이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도 함께 찾아온다.

“부러운 감정에서도 좀 이제는 혐오의 감정을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FY, 청년당사자, 21세, 남, 아동양육시설 퇴소 후 대학재학중)

청년당사자 FY는 앞으로 상담전문가로 성장하고 싶다는 확고한 욕구가 있었지만 자신의 출신과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우려하고 있었다. 이것은 향후 취업과 결혼에 대한 우려까지 연결이 되며, 각 단계에 이런 부정적 시선이 자리잡고 있을까하는 걱정을 가지고 있었다.

“좋은 기사보다 나쁜 기사가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어떻게 알았냐면 ‘시설 퇴소생 고독사로 사망’ 이라던가 뭘가 시설 퇴소하고 나서 범죄를 저질렀다 이런 기사들은 진짜 많이 봤어요. 그 시설퇴소생 열심히 공부해서 사업에 성공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진짜 많이 못 봤거든요. 어떤 사람은 과학적으로 뭘가

연구해서 인정받았더라는 기사를 옛날에 봤었는데 좀 긍정적인 기사보다 좀 부정적인 기사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대중 매체 같은 것들로 인해서 뭔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사회적 약자 애들의 시선도 시선이 좀 부정적으로 보이는 건 아닐까. 그래서 어디 가서 ‘기초생활수급자다’ 이렇게 얘기하기 어려운 것도 어떻게 보면 그냥 맞으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인식이 무서우니까 얘기를 못하는 거잖아요.” (FY, 청년당사자, 21세, 남, 아동양육시설 퇴소 후 대학재학중)

이것은 특정한 사회적 인식, 특히 차별적인 인식이 개인을 공동체의 일원이라기 보다는 소수의 구성원으로 인식하게 만들어 점차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④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와 사회경제적 충격

전세계적인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은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미쳤고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로 인해 개인들의 인적·물적 교류에 큰 영향을 받았다. 코로나19의 영향은 사회적 고립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학교가 문을 닫고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되고, 단기 일자리와 안정적 일자리가 줄어들고, 일자리를 잃고 실업상태에 놓이거나 취업준비 기간이 늘어나고, 사적인 교류의 기회가 감소한 것은 개인의 고립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대학교 1, 2학년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사적인 관계를 넓혀가는 시기이다. 그러나 코로나19로 대학 수업이 비대면으로 진행되자 학교에서의 관계는 ‘온라인 관계’와 같은 얇고, 느슨하고, 언제든 단절이 쉬운 관계로 머무르게 되었다. 개인의 특별한 노력이나 계기 없이는 공동체로서의 유대감과 상호작용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입학식도 안 했었고 오티(오리엔테이션)도 안 했었으니까. 원래 오티 한 다음에 진짜 술자리 갖고 사실 친해질 시간을 가지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직접

만난 것도 없었고 첫수업할 때 처음 만났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갑자기 막 친해지려고 했었는데 되게 힘들었어요. 애들도 다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DY, 청년당사자, 21세, 여, 아동양육시설 퇴소 후 대학재학중)

기존의 관계가 악화되기도 했다. 기존에는 어느 장소에 찾아가거나 모임에 찾아가면 자연스럽게 대면할 수 있었던 관계가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개인적 관계가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관계에 소극적인 경우 누군가 자신을 찾아주지 않으면 관계를 쉽게 이어나가지 못하게 된 것이다.

“먼저 연락을 안 하다 버릇하니까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도 못하잖아요. 뭐 시설 놀러 갈 수도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얼굴도 못 보고 서로 연락도 안 하고 하니까 이젠 아예 남이 된 듯, 살짝 갑자기 연락 보내기 민망스러운 사이가 된 것 같아요.” (DY, 청년당사자, 21세, 여, 아동양육시설 퇴소 후 대학재학중)

이것은 공동체의 기능을 약화시키기도 한다. 공동체 구성원들의 교류가 줄어들면서 기존 공동체를 통해 교환되었던 정보 역시 줄어들게 되고, 구성원들이 함께 사적으로 소통하고 교류했던 것도 줄어들게 된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타인과의 소통 빈도가 줄고 사회적 자원의 교환이 줄어들거나 없어지는 것은 외부적 고립(external social isolation)의 상황에 가깝다. 또한 이것은 내부적 고립(internal social isolation)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저는 확실히 모임이나 이런 거는 줄어든 것 같아요. 코로나라는 핑계로 만나지를 않으니까 그런 건 확실히 줄어든 것 같고 이번에 대학원 들어간 언니는 수업은 듣는데 누가 누군지 하나도 모른대요. 왜냐하면 영상을 꺼놓고 있는 상태여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도움을 어디다 요청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AY, 청년당사자, 27세, 여, 취업준비중)

“왜냐하면 코로나니까 그리고 그분들도 가정이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의 역할도 있고 그렇다고 저희들이랑 만나서 만약에 코로나가 걸려서 가정에까지 하면 서로 이제 만나자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서로 만나지 못하는 건 서로 알고 있어요. 조심하는 편이다 보니까 확실히 자기가 그 힘든 것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게 확실한 것 같아요.” (FY, 청년당사자, 21세, 남, 아동양육 시설 퇴소 후 대학재학중)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취준생들이 공공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면서 취준생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취준생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취업공고가 나지 않기 때문에 심리적 부담이 더 커졌다고 이야기한다. 또한 도서관과 같은 공공장소가 문을 닫으면서 갈 곳도 잃어버리게 되었다.

“진짜 공부할 수 있는 장소가. 아 카페밖에 없어요. 근데 카페도 요즘 문도 일찍 닫았고 몇 명 이상은 또 안 된다 그리고 마스크도 다 쓰고 있으려고 하고 이어서 뭐 좀 불편한 상황이 진짜 많았던 것 같아요. 취준생들이라서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BY, 청년당사자, 27세, 여, 재취업경험)

항공사에 다니던 청년당사자 CY는 코로나19로 인해 항공업에 심각한 경제적 타격이 일어나자 일시 휴직을 거쳐 퇴직을 하게 되었다.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당사자 CY는 현재 재취업 준비 중이며 청년인턴,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같은 시도를 하면서 재취업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녀는 코로나19로 인해 기존에 일을 하던 산업에 타격을 받게 되면서 직종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왜냐하면 저는 아무래도 항공업에서 일을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항공업이 코로나로 타격을 받은 업종 중에서 한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 저 포함해서 많은 항공업 종사하시는 분들이 또 직장도 있고 하셨는데 지금 채용도 안 뜬지도 지금 꽤 됐거든요. 그래서 아예 관련되지 않은 다른

직무로 이제 직장을 구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일단 어렵죠 약간. 경력이 아예 다른 쪽이고 하나니까?” (CY, 청년당사자, 27세, 여, 코로나19로 실직경험)

모든 사람에게 코로나19의 영향이 동일하게 작용한 것은 아니다. 일부 청년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자신의 ‘관계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어 오히려 편해졌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이미 다른 사람들과 거리를 두었던 사람에게는 큰 문제가 아니거나 오히려 좋은 핑계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특히 본인들이 사회적 거리두기에는 선배라는 ‘은둔고수’의 말은 매우 흥미롭다.

“처음에는 되게 두려웠거든요. 처음에는 되게 두려웠고. 마스크 쓰고 처음에는 되게 심각하게 집에 심각하고 뭔가 힘들었는데 별반 다를 바가 없더라고요. 활달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히키코모리면 크게 바뀌는 건 없지 않을까.” (HY, 청년당사자, 24세, 남, 장기고립생활 후 자립훈련중)

“제가 뭐 이렇게 그 이전에 은둔했고 코로나 이전에도 거의 터지기 전에 있었니까 했는데. **형 얘기를 들어보면 우린 이미 했다 은둔을 근데 코로나 이후로 일을 못 나가서. 학교에 못 가서 은둔하고 그러다가 오래 있으신 분들한테 우리가 선배다. 직접 가서 치유해 줄 수 있다. 공감해 줄 수도 있다.” (KY, 청년당사자, 21세, 남, 고립생활 후 자립훈련중)

코로나19의 영향에 대한 분석은 이미 고립되어 있었던 사람들의 상태를 고립으로 유지시키면서 새롭게 고립되게 만드는 기제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공동체에 새롭게 진입해야 하는 사람들은 공동체의 기능이 약화되면서 필요한 도움을 못 받는 일도 생겨나고 있고 개인적 관계에 의해 심리적으로 도움을 받을 가능성도 줄어들고 있다. 이것으로 인해 해외에서는 이러한 세대를 잃어버린 세대(Lost-generation)이나 락다운 세대(Lock-down generation)로 지칭하여 관심을 기울이기도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립의 기간은 심도와 회복기간에

영향을 미치므로 새롭게 발생한 고립청년들의 상황이 장기화되지 않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4) 사회적 고립의 과정과 개인에게 남은 결과

청년들은 다양한 고립의 원인에 의해 서서히 고립을 경험하기 시작한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과정(process)과 상호작용(interaction)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고 보았는데 고립이라는 것은 한순간의 사건(event)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나타나고 개인과 주변 환경이 상호작용하며 나타나는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사회적 고립의 과정과 개인에게 남은 결과는 ‘고립의 고통이 시작됨’, ‘위축의 악순환과 장기화’, ‘제대로 된 도움이 없음’, ‘사회적 고립의 결과’, ‘사회적 고립의 긴 영향’ 등으로 구성된다.

표 IV-9 사회적 고립의 과정과 개인에게 남은 결과 범주 및 하위범주

주제	범주	하위범주
사회적 고립의 과정과 개인에게 남은 결과	고립의 고통이 시작됨	연결망이 와해되어감
		타인과 비교는 고통
	위축의 악순환과 장기화	온라인 연결망은 알고 느슨함
		홀로 있는 상태가 강화됨
		부정적 사고가 계속됨
	제대로 된 도움이 없음	알고도 신경 안 씀
		도움받지 못해 실망과 좌절만
	사회적 고립의 결과	외로움과 깊은 우울감
		삶의 의미에 대한 회의
		장기화된 고립과 더딘 회복
	사회에서 계속되는 고립위험	미래 관계와 역할의 포기
		취업해도 고립위험은 계속 상처받고 다시 고립으로 회귀

(1) 고립의 고통이 시작됨

① 연결망이 와해되어감

고립의 과정은 기존에 있었던 연결망이 서서히 와해되거나 소멸되는 과정으로 부터 시작한다. 원래 소속되어 있는 곳에서의 관계가 점차 줄어드는 과정을 거치는데 처음에는 끊어졌다가 금방 돌아갈 수 있는 관계망으로 기능하지만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갑자기 연락하기 어려운 관계로 변화하기도 한다. 연락의 빈도가 줄어들게 되면 갑자기 연락해서 부탁을 하기에 서로 난처한 관계가 되어 버린다. 연결망을 통한 자원의 교환과 지지에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

“그래도 초반에는 친구들도 좀 자주 만나고... 한 1년 안 돼 있을 때는 친구들도 자주 만나고 보고 이랬다면... 점점 이제 할수록 진짜 제가 먼저 연락하는 일은 진짜 없었던 것 같아요. 만나면 그게 부담이었거든요” (BY, 청년당사자, 27세, 여, 재취업경험)

“카톡을 한 번 탈퇴한 적도 있었고. 전화번호 같은 건 다 수신 차단을 하고...(중략) 어떨 때는 이제 전화 오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아예 비행기 모드를 켜놓고 그냥 와이파이라만 이제 인터넷 서핑만 하고 막 그랬었어요.” (GY, 청년당사자, 27세, 여, 장기고립생활 후 자립노력중)

연결망이 와해되어 가는 것은 타인과의 교류가 부담스러워지기 때문에 관계하기를 꺼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때문에 관계로부터 얻는 좋은 점도 함께 누리지 못하게 된다. 연결망의 와해는 외부의 충격을 줄여줄 완충제 역할을 할 좋은 관계를 줄여들게 만들고 정서적인 고통이 강화되어 가는 것과 연결된다.

“집에만 있어서 우울한 건지, 취업이 안 돼서 우울한 건지는 모르지만 확실히

직장생활을 할 때보다는 더 우울한 것 같긴 해요. 생활이 똑같으니까 매일매일”
(BY, 청년당사자, 27세, 여, 재취업경험)

② 타인과 비교는 고통

고립에 대한 선택은 양면적(ambivalent)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특히 초연결시대를 살고 있는 청년들의 온라인 생활에서 이러한 측면을 발견할 수 있다. 청년들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타인과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고, 페이스북/인스타그램/카카오톡과 같은 온라인을 통한 소셜네트워크(SNS) 활동도 활발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이 연구는 처음 “초연결시대를 살고 있는 청년들은 왜 고립되어 가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었는데, 청년들의 온라인 네트워크는 타인과 연락을 용이하게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한편으로 개인과 온라인 속 타인과의 비교 기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청년들은 자신들이 타인과 온라인을 통해 연결되어 있고 쉽게 다시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지만, 자신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할 경우 온라인 소셜네트워크망에서도 서서히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방식으로 행동했다. 사회적 고립 측면에서 온라인 소셜네트워크는 양날의 검이다.

“온라인을 보면 더 우울해요...(중략) 그렇게 차단하는 친구는 SNS도 다 끊고 카톡도 거의 안 하고 그냥 다 아무것도 안 해요. 그나마 카톡은 살아 있어도 SNS는 안 하는 거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SNS 보면 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네들은 다 취업이 돼 있고 좋은 모습만 많이 보이는데 그제 더 비참하게 만드니까” (AY, 청년당사자, 27세, 여, 취업준비중)

“요즘 청년들 보면 인스타 같은 것도 사진 찍을 때 되게 예쁘게 찍어서 자랑하듯이 올리시잖아요? 그런 거 보면 애는 되게 잘 사네? 나는, 나는 조금 부족하게 하는데, 애는 진짜 여기저기 많이 놀러 댕기고 친구들도 많고 되게 잘 나가네?”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조금 주눅 드는 경우는 웹툰이라든지 여러 데에서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그런 정도는 또 다양한 사람들이 그런 감정을 느끼지 않은 건가 생각하고.” (DY, 청년당사자, 21세, 여, 아동양육시설 퇴소 후 대학재학중)

“나는 공부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은 저렇게 놀러 다니네 약간 이런 게 하나까. 보는 게 스트레스니까 이제 아예 이제 지워버린 거죠” (BY, 청년당사자, 27세, 여, 재취업경험)

이와 같이 온라인 소셜네트워크는 타인과의 비교의 기제가 있어 개인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할 수 있다. 개인의 신상이 공개되고 타인에게 자신의 상태를 보여줄 수 있는 온라인 소셜네트워크는 연결되어 있되 연결을 통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기는 어려울 수 있다. 그리고 때로는 고립을 심화시킬 수도 있다. 초연결 사회에서의 고립을 일부 설명할 수 있는 단서이다.

“지금 본인 상황은 아직 미래가. 뭔가 좀 불안정하고 또 취업 준비하는 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SNS 같은 데는 사람들이 그거 자기들도 실제 상황 힘들 수 있지만 가장 좋고 뭔가 행복해 보이는 사진들을 올리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이 친구들은 다른 사람들은 지금 다 잘 나가고 하는데 나는 왜 약간 아직 이렇까 하는 그런 어떤 비교. 상대적 박탈감 이런 거 느껴서 그런 것 같아요” (CY, 청년당사자, 27세, 여, 코로나19로 실직경험)

“근데 그때 한참 취업 준비하고 지금도 그렇지만 한참 취업 준비할 때 이럴 때는 SNS를 좀 덜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올릴 것도 딱히 없고 그냥 빨리 어떤 제대로 직장에 잡아서 좀 여유로워질 때 올리자 약간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CY, 청년당사자, 27세, 여, 코로나19로 실직경험)

(2) 위축의 악순환과 장기화

① 온라인 연결망은 얇고 느슨함

자신을 드러내는 온라인 소셜네트워크에서는 벗어나 있지만 익명성을 가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다. 자신을 드러내놓고 활동하지는 못하지만 또 다른 세상과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저는 그때 이제 한창 집에 있었을 때는 게임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게임 친구들이랑 소통을 했었고... 근데 그것도 막 오래 가진 않았고요. 그냥 이제 온라인 고민 게시판이라든지 그런 데 자주 갔었고” (GY, 청년당사자, 27세, 여, 장기고립생활 후 자립노력중)

하지만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은 타인이 나를 인지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자신이 드러내지 않으면 관계를 이어나가기 어렵고 쉽게 관계를 단절할 수 있는 얇고 느슨한 연결망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는 정보 공유차원에서 온라인 커뮤니티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타인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해나가는 기제로서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걸로 한다는 생각조차 못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얹은 관계에서 그냥 게임으로 하면 게임 한 길드 원 정도다라고 생각하지..그걸로 새로운 연이 되나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KY, 청년당사자, 21세, 남, 고립생활 후 자립훈련중)

“글 정도만 봤는데 이제 세상 돌아가는 거를 이제 궁금해서. 그냥 사람들이 일상 글 쓰는 거 이런 건 구경을 했는데 댓글도 가끔 달았어요. 근데 거의 일회성으로 인스턴트적인 그런 소통을 했었고요 나를 드러내지 않아도 되는. 그 이외에는 소통은 전혀 없었다고 봐야죠” (Y, 청년당사자, 27세, 여, 장기고립생활 후 자립훈련중)

“그냥 보기만 했어요.” (HY, 청년당사자, 24세, 남, 장기고립생활 후 자립훈련중)

② 홀로 있는 상태가 강화됨

사회적 관계망이 협소해지고 교류 빈도가 줄어들게 되면 자신의 혼자만의 생활 패턴이 고착화되고 타인과 교류를 위한 기술도 줄어들게 된다.

“일단 밤에 잠을 안 자고요. 아침 7시에 자요.” (KY, 청년당사자, 21세, 남, 고립생활 후 자립훈련중)

“그냥 오면 받고 오면 카톡이나 뭐 그런 거 해주고 그런 스타일이어서. 괜히 아픈 걸 말해봤자 약간 위로받거나 그런 것도 있는데 괜히 오지랄 부리는 것도 있고. 먼저 일단 제가 먼저 말하질 않아가지고 저는...” (BY, 청년당사자, 24세, 남, 아동양육시설 퇴소 후 대학재학중)

“확실히 말 같은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가족들이랑 같이 살고 하면 좀 수다스럽고 한데 애네들은 조금 말 같은 거를 먼저 이렇게 막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좀 다른 것 같고 패턴 같은 것도 있을 때 되게 그냥 뭐 하고 있느냐고 하면 되게 힘없이 얘기를 하는데 되게 진부하게 지루하게 지내는 것 같아요.” (AY, 청년당사자, 27세, 여, 취업준비중)

혼자 있는 상태가 오래 지속되었을 경우 사회에 나가서 바로 교류하기 어려운 상태에 진입할 수 있다. 이것이 특별한 장애가 아니더라도 타인과의 교류가 줄어들게 되면서 일상적인 교류에 어려움을 크게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사회적 고립 청년 사업은 바로 직접적인 교육과 훈련보다는 사전 단계를 마련하여 초기적응이 잘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

“기본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학교를 장기간 못 가게 됐다든지 기본 학습의 기회

를 놓쳐버린 경우에는 확실히 감정을 느끼는 민감도가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아예 실어증처럼 이야기 안 하는 친구도 있거든요. 말도 안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커뮤니케이션도 어렵고 습득하는 정보량도 되게 달라서, 자각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확실히 다른 것 같습니다.” (IY, 청년당사자, 28세, 남, 장기고립생활 후 자립노력중)

③ 부정적 사고가 계속됨

청년과의 면담에서 고립이 심화되는 과정에는 부정적 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강화되어 가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아동·청소년기의 부정적 경험뿐만 아니라 청년기의 부정적 경험 이후에도 나타나게 되었다. 보통 자신이 고립되게 된 이유에 대해 생각하고, 자신의 과거에 대해 후회하고, 자신의 능력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등의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청년을 위로해주고 지지해주는 타인이 있다면 상태가 완화될 수 있지만, 홀로 이 상태를 감내한다면 더 깊은 터널 속으로 빠져들게 될 수도 있다.

“이제는 집에 있는 시간만 많아질 텐데 결국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잖아요. 집에 혼자 있고. 움직이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진짜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 나가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그런 것도 아니다 보니까...좀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남들은 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누구는 인간관계로 힘든 사람들도 많았어요.” (FY, 청년당사자, 21세, 남, 아동양육시설 퇴소 후 대학재학중)

“잘 모를 때 오히려 이렇게 자기 혼자 생각하면 이게 편한 대로 이렇게 생각이 굳어버린다고 해야 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옆에서 좀 좋게 봐주시고 지지해 주시면 분명히 변화는 있었고 이렇게 변화가 됐죠.” (KY, 청년당사자, 21세, 남, 고립생활 후 자립훈련중)

“어떻게 다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이런 게 막막한 상태고 그리고 이제 은둔 생활을 저는 한 8년 정도 했었는데 8년 정도 하면서 망가진 것들이 되게 많아요. 좀 인지적으로 굉장히 꼬여서 평소에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있고 또 이제 당장 이제 서른이 가까워져 가니까 어쨌든 부모님은 늙어가시고 경제적 독립을 빨리 해야 되는데” (GY, 청년당사자, 27세, 여, 장기고립생활 후 자립노력중)

(3) 제대로 된 도움이 없음

아동, 청소년, 청년기 사회적 고립을 유발하는 경험을 하면서 당사자들은 주변에 어려움을 토로하거나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다고 했다. 그런데 청년들은 이들을 도와주는 지원체계가 전문적이지 않거나, 단기간 서비스에 불과하거나, 근본적인 것에 대한 도움을 제공해주지 못한다고 이야기한다.

① 문제 해결 못하는 도움들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는 청년들은 학교와 양육시설에서 상담을 경험한 적이 있었다고 했지만 이러한 상담이 자신의 문제 해결에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것은 학교의 위(Wee) 클래스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자신이 접근할 수 있는 체계에서는 자신이 가진 어려움을 제대로 상담받고 고민을 해결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그때 저는 되게 낯을 많이 가려가지고 그런 걸로 되게 친구 문제라든가 그런 걸 많이 상담했었거든요. 아니면 뭐 시설 선생님들, 돌봐주시는 선생님들, 그런 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좀 했었고, 그런데 결국 해결하고 마음을 다 바꾸는 건 저 혼자서 해야 하는 일이잖아요? 거기서는 그냥 상담, 그 이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해결되는 건 결국 아무것도 없었던.” (DY, 청년당사자, 21세, 여, 아동양육시설 퇴소 후 대학재학중)

“가끔씩 가서, 제 친구가 위클래스를 가끔씩 가서 뭐 보드 게임이라든가 그런 걸 하자고 해서 하긴 했었는데 직접 상담을 받아보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DY, 청년당사자, 21세, 여, 아동양육시설 퇴소 후 대학재학중)

이것은 단지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서 그렇다기보다는 체계가 제 기능을 할 조건이 안 되기 때문이어서 그럴 수 있다. 위클래스의 상담이나 자립지원전담요원의 상담은 규정화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들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는 서비스의 질 하락과 지역 간, 기관 간 서비스의 차등을 가져오는 것으로 보인다. 청년당사자는 이러한 상황과 원인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었다.

“1년에 3명만 나가도 5년 동안 엄청 수가 많이 불어나잖아요? 그런 거를 장학금 하나하나 다 챙겨주는 게 엄청 힘드니까 제가, 제 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좀 그런 거 못 챙김 받은 사람이 좀 많았었어요. 제가 있었던 장학 프로그램 그쪽 시설에서는...(중략) 그 장학 프로그램에 있었던 언니들이나 오빠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런 거 전혀 몰랐었다고 하고 도움도 엄청 많이는 못 받는 것 같다고 이야기했었어요.” (DY, 청년당사자, 21세, 여, 아동양육시설 퇴소 후 대학재학중)

부모님의 사업실패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아버지의 가정폭력, 이로 인한 자신의 우울과 고립을 경험한 청년당사자 GY는 자신의 어려움에 대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고, 실제 도움 받지 못했다고 말한다.

“딱히 없네요. 뭔가 그때는 약간 사회 분위기 자체가 좀 그런 건 가족의 문제고 훈육이다라는 식으로 되는 경우가 있었어서 많았어서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 자체를 좀 인지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GY, 청년당사자, 27세, 여, 장기고립생활 후 자립노력중)

학교의 담임교사는 자신의 상황을 이해해주고 지지해주어 도움이 되었으나, 다음 해에 담임교사가 바뀌고 교육방식이 바뀌자 다시 어려움을 혼자 감내해야 했고, 결국 학교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가정 내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족과의 교류를 최소화하고, 학교에서의 위협과 부담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로부터 벗어나는 과정은 하나의 고립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당사자들이 경험하는 사회적 개입이 필요한 위험을 방치한 결과이다.

“학교에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그나마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버텨던 게 이제 그 당시 담임 선생님이 좀 담임 선생님 좀 아버지에 대한 폭력에 대한 기억을 갖고 계신 분이어서 저를 이해를 많이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갑자기 막 빠져도 그게 다 완전히 좋다고는 할 수 없지만 좀 이제 사정을 많이 헤아려주시고, 봐주시고, 결석 같은 것도 좀 크게 문제 안 되게 조금 체크를 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1년을 다녔던 건데 이제 2학년 때부터는 교육관의 차이지만 그런 걸 엄청 혼내기만 해 하면서 잡는 그런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못 버티고 2학년 때 튕겨져 나온 거였어가지고 어떻게 어떤 선생님을 만났느냐도 굉장히 사실 운이잖아요. 그런 어떤 그런 운적인 것들에 평생이 좌우된다는 게 되게 저한테는 불합리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GY, 청년당사자, 27세, 여, 장기고립생활 후 자립노력중)

“그때도 상담 선생님이 사실 계시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학생들에게 그렇게 지지를 못 받았었어요. 뭔가 그냥 다들 해주는 말만 한다. 되게 힘내라고만 한다. 그런 식의 말들이 있었어서 있으면 좋지만 교육이 잘 된 분이라면 좋을 것 같아요” (GY, 청년당사자, 27세, 여, 장기고립생활 후 자립노력중)

학교폭력으로 인해 고립이 되었던 청년당사자 KY의 사례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을 목격할 수 있었다. 그는 장기간의 괴롭힘으로 주변에서 이런 상황을 인지할 수 있는 수준이었으나 이에 제대로 된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고 했다.

“일단은 그렇게 당했을 때 신고를 하면 그건 정말 올바른 그건데 저는 그냥 못 했죠. 안 했죠. 예 그냥. 그런 걸 생각도 못했고 이 공공연하게 이렇게 알리는 게 싫어가지고 주변한테 그래서.. 아무한테도 안 알렸어요. 부모든...” (KY, 청년당사자, 21세, 남, 고립생활 후 자립훈련중)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물으셨어요. 한번 이렇게 ‘혹시 반에서 요즘 좀 괜찮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데. 대중 눈치를 좀 채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전 괜찮다, 별 문제없다’라고 이렇게 한 생각이 나네요.” (KY, 청년당사자, 21세, 남, 고립생활 후 자립훈련중)

② 도움 요청했었지만 이제 실망과 좌절만

반복적인 도움 요청에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할 경우 실망과 좌절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 사회적 고립 청년에 대한 지원은 장기적이고 전문적이어야 하는데 기존의 체계는 단기적이고 단편적이고 비전문적인 측면이 있었다. 이로 인해 서비스를 찾아 헤매며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할 경우 이후 도움 요청을 꺼리게 될 수 있다.

“대부분은 여기까지 오시는 분들은 상담센터도 가 보셨고, 병원에도 가 보셨고, 그러니까 뭐 하실 수 있는 건 대부분 해보셨다가 도저히 안 돼서 오신 경우들, 아니면 그런 기존의 전문가 분들에게 이미 상처를 받았던 분들도 꽤 많으세요.” (IY, 청년당사자, 28세, 남, 장기고립생활 후 자립노력중)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그 희망을 잃어가지고 뭐라고 생각이 안 나서...딱히 학교에 대한 희망 같은 게 없어가지고, 이제 잘 모르겠어요.” (HY, 청년당사자, 24세, 남, 장기고립생활 후 자립훈련중)

어릴 때부터 무기력과 우울을 경험하고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은 청년당사자

HY는 기존 공교육에 대해 실망하여 대안학교에 진학하였고 대안학교가 자신의 상태에 대해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하였다. 하지만 이 청년당사자 HY는 해당 학교의 교사는 아이들의 상태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이상을 강요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실망을 했다고 했고, 다시 학교를 떠나게 되었다.

“선생님들은 학교가 가진 사회적인 이상이 있어요. 사회적인 이상을 아이들에게 이제 좋게 이야기하면 교육시키고, 나쁘게 이야기하면 주입시키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써요. 그래서 거기에 개인은 없어요. 그래서 점점 질려가는 거죠. 커리큘럼이 제가 느끼기에 너무 딱딱하게 짜여져 있으니까. 무슨 일 터지면 시위 가야 되고, 릴레이 시위 해야 되고 어디 봉사 가야 되고 어디 농사 지어야 되고... 너무 딱딱하니까...” (HY, 청년당사자, 24세, 남, 장기고립생활 후 자립훈련중)

“검정고시, 전문학교, 검정고시를 쳐서 전문학교를 들어가거나 직업을 가지거나 이런 곳이어서, 사실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저한테는 잘 안 맞았던 것 같아요.” (HY, 청년당사자, 24세, 남, 장기고립생활 후 자립훈련중)

그는 학교 안과 밖, 청소년보호체계와 정신건강체계를 돌아다니며 열심히 도움을 청했다고 했다.

“얼마나 열심히 청하고 다녔는지...” (HY, 청년당사자, 24세, 남, 장기고립생활 후 자립훈련중)

우리는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의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주변으로 도움을 청하는 아동, 청소년, 청년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에 대한 서비스를 구상해야 한다.

(4) 사회적 고립의 결과

① 외로움과 깊은 우울감

사회적 고립 상황은 외로움과 우울감을 유발한다. 우리가 만난 청년들은 고립 상황은 정신적으로 힘들었고, 외로웠고, 우울했다고 이야기했다. 이 중에는 사회에서 상처를 받고 자기 스스로를 가둔 경우도 있었다. 이 경우에도 힘든 건 마찬가지였다. 사회적 고립은 정신적인 고통을 유발한다.

“글쎄요 그래도 히키코모리라도 소통은 하고 싶어 하거든요. 사실은 이 사람들이 되게 외로운 사람들이예요” (JY, 청년당사자, 27세, 여, 장기고립생활 후 자립 훈련중).

“거기 애들은 시설 애들이랑도 관계가 원만해가지고 나 지금 감기 걸려서 진짜 아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도 털 외로울 텐데” (DY, 청년당사자, 21세, 여, 아동양육시설 퇴소 후 대학재학중)

“되게 우울하고 왜 나는 세상이 이렇게 힘들까? 그리고 엄마는 왜 나를 이렇게 낳았지? 왜 아빠랑 결혼했지? 왜 아빠랑 결혼해서 날 낳았지? 이런 생각이 많았죠. 엄마가 원망스러웠고, 아빠는 되게 증오스럽고, 그리고 내가 너무 불쌍했고, 자기 비하보다는 자기 연민이 심했던 것 같아요.” (JY, 청년당사자, 27세, 여, 장기고립 생활 후 자립훈련중)

“저는 그때 진짜 제 생각에 제 인생 뭔가 최하의 시기이었던 것 같아요. 인생에서 제일 별로였던 시기” (BY, 청년당사자, 27세, 여, 재취업경험)

② 삶의 의미에 대한 회의

고립이 길어질 경우 삶에 대한 회의를 갖게 되는 것도 발견할 수 있었다. 사회생

활을 활기차게 하고 미래에 대한 목표도 뚜렷했던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FY에게서 얼핏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이것은 사회생활에 잘 적응하는 사례에서 발견한 일종의 위험신호였는데, 이것은 사회적 연결망과 지지체계가 부족한 상황에 있을 경우, 외부적 충격을 완충해줄 보호망이 없고, 이것이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뭔가 주변에서 뭔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가장 컸고요. 결국은 침대에 누워서 스마트폰만 하니깐요. 밥도 잘 안 먹고 무기력해지더라고요. 삶의 의미가 나 왜 살지. 이런 전 그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나 왜 살지. 진짜 힘들었을 때 그 생각은 늘 했고요. 살기 싫다라고도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살기 싫고 그냥 사람들 다 연락처 지워버리고 혼자 떠나고 싶다 이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차단하고 삭제하고 혼자 떠나가고 싶다 이 생각도 많이 했고 원인은 혼자 있어서 밥을 잘 안 먹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안 움직여서인 것 같아요.” (FY, 청년당사자, 21세, 남, 아동양육시설 퇴소 후 대학재학중).

삶에 대한 회의는 장기화되고 심각한 고립 상태에 놓인 청년당사자들의 면접에서도 자주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고립이 장기화되고 무기력해지는 과정에서 자신의 연령에 맞는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회의감을 토로하며 나타났다.

“저는 그때 그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정말 제 스스로 왜냐하면 이제 하는 게 없는데 그러니까 밥만 축내고 전기료 쓴다는 그게 죽고 싶더라고요. 이제 왜 사는지 이유도 모르겠고. 독방 같았어요. 방이 또 좁아가지고..” (KY, 청년당사자, 21세, 남, 고립생활 후 자립훈련중)

“지금 어디에 아무 때나 안 좋은 기업이라도 줘. 예를 들어 평이 안 좋은 기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좀 한번 사장님이 되게 좀 압박을 하신다라든지 안전하지 못한 기업이라도. 어떻게 들어가서 버티는 게 맞나. 그런데 버틸 자신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저는 약간 죽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라는 식으로 이제 사고가 쉽게 흐르는 것 같아요” (GY, 청년당사자, 27세, 여, 장기고립생활 후 자립노력중)

③ 장기화된 고립상태와 더딘 회복

고립 상태의 장기화는 부정적 영향을 심화시키는데, 장기적인 고립을 한 당사자들은 회복에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을 자신의 경험이나 타인의 경험을 통해 알고 있었다. 한 청년 당사자의 말에서 이에 대한 개념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다.

“아마 기간에 따라 은둔한 연도에 상응하는 연도를 이렇게 또 옆에서 지켜봐줘야 괜찮아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KY, 청년당사자, 21세, 남, 고립생활 후 자립훈련중)

“그것도 이제 굉장히 이제 부모님과 분리가 되고 정신과 약이 굉장히 잘 되는 상태에서 좀 어떤 어머니와 동생이 좀 무조건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5년이었으니까 그것도 이제 제가 그 어떻게 생각하면 저 한 20년 정도를 학대를 당한 건데 5년으로 생각하면 5년 정도 걸려서 사회에 나갔다고 하면 굉장히 빠른 회복인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보기에 5년이라는 기간이 길지 않잖아요. 그 정도의 기간은 어쨌든 보고 가져가야 하는 작업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GY, 청년당사자, 27세, 여, 장기고립생활 후 자립노력중)

장기적인 고립을 경험한 청년당사자 중 가장 활력이 높아보였던 JY는 자신이 많이 회복된 상태이지만 집에 가면 다시 예전의 성향이 나온다고 토로했다. 그녀는 사회로 나온지 2년이 넘는 시간을 보냈지만 자신의 그러한 특성으로 인해 자신의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했다.

“그렇죠. 저도. 저는 여기서는 되게 의욕적인데 저는 집에 가면은 은둔했던 상태. 그때 내가 아직도 있어요. 그 집에 가면 본가에 가면은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저의 컴퓨터만 하려고 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고 그런 게 아직 많이 남아 있죠
그게 저를 괴롭히죠.” (JY, 청년당사자, 27세, 여, 장기고립생활 후 자립훈련중)

무엇보다 장기화된 고립은 사회로 나아가기까지 심리적인 부담이 클 수도 있다. 사회적 고립에 영향을 미친 상처가 아물지 않았다면 사회로 다시 나가는 걸 거부할 수도 있다. 고립청년 지원에서는 발굴, 초기상담, 서비스 제공 단계에서 이와 같은 상황을 잘 이해해야 한다. 무엇보다 예방이 가장 중요하며 장기화되지 않도록 초반에 개입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지금은 자기 자신의 정신 문제에 신경 쓰는 게 더 우선인 것 같아요. 역지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HY, 청년당사자, 24세, 남, 장기고립생활 후 자립
훈련중)

④ 미래 관계와 역할의 포기

사회적 고립은 자신에게 사회적 역할이 부여되지 않고 이러한 기간이 지연되면 서 심화되기도 한다. 자신의 나이에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이후의 과정들도 지연되거나 포기될 수 있다. 이는 청년들이 자신들을 3포 세대(3가지를 포기한 세대)나 n포 세대(많은 것을 포기한 세대)로 부르는 것에 공감하는 이유일 것이다. 취준과 재취업으로 인해 사회적 고립 청년에게 n포 세대라는 말에 공감하는지를 묻자 매우 공감한다고 이야기했다.

“그때는... 그때는 완전 이해됐죠. 만약에 취업도 못하면 결혼도 포기해야 되는
거 맞는 것 같고. 맞죠. 다 포기하게 될 것 같아요. 진짜 계속 취준생이었으면...”
(BY, 청년당사자, 27세, 여, 재취업경험)

사회적 고립은 결혼과 출산과 같은 과업도 포기하게 만들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항공사에서 실직한 청년당사자 CY는 자신의 인생계획이 ‘틀어지는’ 상황에 답답해했다. 취업단계로 자연스럽게 넘어갔다면 가능했었던 일들이 하나둘씩 포기되는 것이다. 연애와 같은 사적 교류 역시 부담이 되고 이에 대한 욕구도 사라지게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저는 약간 계획을 인생의 계획을 조금 크게 세우는 사람이어가지고... 예를 들면 네 살 때부터 몇 살 안에는 꼭 이렇게 해야 되고. 몇 살 때부터. 몇 살에는 이제 결혼 준비해야 되고. 약간 이런. 그런 걸 좀 제가 세워져 가지고. 근데 그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살짝 틀어져가지고. 그때 상황이란 지금 상황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약간 스트레스 받는 정도가” (CY, 청년당사자, 27세, 여, 코로나19로 실직경험)

“어떤 연애 같은 게 하려면 시간 경제적인 게 많이 소비가 되는 건데 지금 경제 활동 안 하다 보니까 부담이죠. 아무래도 그런 게 이제 자존감도 좀 깎이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떤 만약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하면은 떳떳하게 상대방한테도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이런 어떤 멋있어 자기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멋있어 보이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같이 취업 준비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또 연애도 조금 그렇고. 어 그런 게 있죠. 약간 상대방한테도 눈치 보이고 약간 그런 게 크더라고 요” (CY, 청년당사자, 27세, 여, 코로나19로 실직경험)

청년당사자 BY는 취준과 재취업 단계를 거쳐 다시 직장으로 돌아갔다. 그녀는 고립을 경험하면서 삶의 많은 것들이 유예되는 것을 느꼈다고 했다. 그녀는 직장을 잡고 다시 원래의 인생단계로 갔다고 이야기하였지만, 만약 자신의 고립이 지속되었다면 많은 것들을 포기했어야 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친척들을 만나면 다 언니들은 다 빨리 취업했는데 저는 아직도 막 놀고 있고 이러니까 가족 모임도 좀 참석하기 싫고 약간 그런 게 점점 있으니까 점점 막

뭔가 자신감이 없어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진짜 그 친구들 안 만나게 되고
이랬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중략) 진짜 한 30살 계속 진짜 취업 준비만 했는데
30살도 넘기고 이러면 언젠가 약간 포기하고 살지 않을까요. 뭔가 진짜 삶을 포기
할 그 정도는 아니어도 좀 슬슬 포기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BY, 청년당사
자, 27세, 여, 재취업경험)

삶의 부정적 사건은 아동·청소년기뿐만 아니라 청년기에도 발생하고, 이로 인한
고립의 영향은 여전히 누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기간이 짧을수록
회복은 빨라지고 원래의 인생 궤적으로 돌아가기도 수월해질 수 있다.

(5) 사회에서 계속되는 고립위험

① 취업해도 고립위험은 계속

사회적 고립과 유사하게 다루어지는 니트(NETs)에 초점을 맞추다보면 이 상
태를 벗어나 취업, 훈련, 진학의 단계로 넘어가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 청년의 고용을 늘리려는 서비스들은 주로 이런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취업률이나 고용률의 증가에 초점을 맞추고 취업률과 같은 양적 지표를 성과지표
로 활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청년들은 니트 상태를 벗어나 취업, 훈련, 진학의 지위를 갖게 되는
것만으로 청년들의 고립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 청년당사자 AY는
계약직으로 일하는 친구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면서 취업을 한 사람들도 고립되어
있을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취업하는데 소개시켜주고. 하지만 개네들이 취업하고 난 후에도 그 우울감이
파연 사라질까. 그거 항상 저는 제일 의문인 거였거든요” (AY, 청년당사자, 27세,
여, 취업준비중)

이는 사회적 고립 문제를 외출을 중심으로 파악하는 ‘은둔형 외톨이’ 측정 방식이나 취업/훈련/교육 여부로 판단하는 ‘니트(NETs)’ 측정 방식으로는 다룰 수 없는 문제이다. 이는 사회적 고립의 외부적 고립과 내부적 고립 접근 방식이 기존의 방식에 비해 다른 측면을 보여줄 수 있음을 나타낸다.

“딱 보여지기는 지금 돈이 없어. 그럼 돈 채워줄게. 이렇게는 해줄 수 있지만
심리적인 건 보이지 않는 부분이다 보니까 정말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AY, 청년당사자, 27세, 여, 취업준비중)

내부적 고립 혹은 외로움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러한 상태는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완화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일지를 고민할 때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고립을 경험한 청년들에게 촉발된 위험요인들은 직장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청년들이 취업을 위해 노동시장에 나가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지만, 조율된 형태의 노동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을 경우 다시 회귀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이제 편견일 수도 있고 한데 뭔가 나에게 안전한 직장이 있을까? 약간 이런
고민. 뭔가 어떤 좀 또 불합리하거나 부당한 갈등이 없이. 이제 친구가 저번에
알바는 아니고 잠깐이 중소기업에서 일을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일을 그만두려고
하니까 사장이 굉장히 막 엄청 되게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너 하나 정도
막 때리는 어떻게 하는 거야,’ ‘일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협박을 하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 얘기도 이제 듣다 보니까. 그게 사실 자주 있는 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제 내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런 불안감이 뭔가 하면은
이제 직업 훈련 교육을 하긴 하겠는데 그게 정말 내가 취직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내가 또 실패하지는 않을까 이런 머뭇거림이 있어요” (GY, 청년당사자, 27세,
여, 장기고립생활 후 자립노력중)

장기적이고 심각한 고립 청년들을 대상으로 공동생활 및 일자리를 제공하는 한 기관에서는 공동생활 이후 사회로의 자립을 위해 많은 ‘관대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예를 들어,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자유롭게 연차를 사용하게 하고 업무를 강요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여러 과정 동안 고립 청년들이 하루아침에 어떤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보아왔기 때문이다. 청년들의 고립 정도와 개인적 상황에 따라 이러한 배려와 고려는 달라져야겠으나, 우리가 고립 청년들을 사회에 다시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현재보다는 더 관대하고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

“아니 그래도 출근은 해야지. 시간 약속은 잘 지켜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좀 다르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경험자들이 있다 보니까. 분명히 못 나온 데는 못 나온 이유가 있고, 그것들이 다 긴 시간 동안 켜여있는 어떤 수면 장애일 수도 있고 어떤 거일 수도 있는데 그걸 갑자기 어느 순간 천지개벽 하듯이 취업을 했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게 절대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기업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은둔형 외톨이 경험을 한 10년 했던 분들도 지금 한 1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케이스들이 아마 유일한 것 같아요” (Y, 청년당사자, 28세, 남, 장기고립생활 후 자립노력중)

② 상처받고 다시 고립으로 회귀

단지 일자리를 주는 것만으로는 고립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 사회적 고립 청년에게 특별히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이들에게 기회를 주고 자립을 도울 수 있는 바람직한 일로 평가될 수 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역할이 부여되지 않고 ‘역할 없는 역할’이 부여된다면 일을 하는 과정에서 오는 보람과 자기 발전 기회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일 경험 프로그램들이 지금 처음 연계가 되고 있어요...(중략) 외부로 연결된

사람들 사례를 보니까 일도 마땅히 안 시킨대요. 오히려 일을 하면서 더 자존감이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쓸모가 없다는 걸 일을 하면서 더 느끼니까요.” (IY, 청년당사자, 28세, 남, 장기고립생활 후 자립노력중)

사회적 고립 청년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일자리 역시 문제이다. 아무리 사회에 다시 진입하겠다는 동기를 가지고 일을 시작하더라도 이 과정에서 상처를 받게 되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게 될 위험이 있다. 사회적 고립 청년들에게는 단지 소득을 위한 일자리가 아니라 일자리를 통해 자신이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들면서 타인에게도 존중과 인정을 받는 일들이 필요하다.

“저랑 같이 쓰시는 분 한 명 있는데 그분도 아르바이트 과정에 상처 입으신 적이 있다고 하는데... 아르바이트로 일하는데 거기 매니저가 자기 자신을 갈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너무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처 입고 그냥 은둔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약간 상냥하고 관대하지 않으면 약해진 상태에서 또 약간 혼이 나가는 것 같아요. 못 견디고 또 은둔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IY, 청년당사자, 27세, 여, 장기고립생활 후 자립훈련중)

“이야기를 해보면 미용사가 꿈인 남성분 한 분 계시는데 거기에서도 약간 폭력적인 게 다루어져가지고 가르치시는 분이 막 화를 내신다고 하더라고요 하는 그것 때문에 상처 입고 미용사 일을 그만두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꽤 많더라고요 여기 있으신 분들이...” (IY, 청년당사자, 27세, 여, 장기고립생활 후 자립훈련중)

일자리를 통해 자신이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느낌이 갖고 자신을 스스로 존중하고 타인에게도 존중받으며 성장해 나가는 것은 고립청년뿐만 아니라 모든 청년들에게 필요한 조건이라 할 수 있다. 과연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지 않은 청년들에게는 이러한 환경이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가 사회적 고립은 인생 어느 시기에나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청년기 일터에서 부정적 경험을 하는 것은 미래를 위해 부정적일 수 있다. 청년기의 삶은 이후의 50년 이상의 세월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경험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사회적 고립 청년들을 위한 고민과 함께 향후 모든 청년들이 사회에서 부정적 경험 없이 여생을 살아갈 수 있는 조건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야 한다. 이것은 특별한 타인들을 위한 것이 아닌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다.

5) 고립을 막아주는 우산과 완충제

청년들은 고립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고립의 심화를 막아주는 중요한 사람이나 공동체의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었다. 여기서는 고립을 막아주는 우산과 완충제라는 이름으로 표현하였는데 고립의 위험 상황에서 위험을 막아주거나 충격을 완화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이 주제는 개인의 회복탄력성, 공동체 지원과 소속감, 외부의 전문적 개입으로 구성되었다. 개인의 회복탄력성을 이 주제에 넣은 이유는 외부적 고립이나 내부적 고립이라는 것은 개인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표 IV-10 심층면담 분석결과

주제	범주	하위범주
고립을 막아주는 우산과 완충제	개인의 회복탄력성	다시 돌아오는 힘
	공동체 지원과 소속감	가족의 지지와 공감
		중요한 사람의 도움과 경청
		공동체의 지원과 지지
	외부의 전문적 개입	전문적 서비스

(1) 개인의 회복탄력성

① 다시 돌아오는 힘

이 연구는 보편적인 시각에서 개인이 생애전반기에 경험하는 부정적 경험들이 사회적 고립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고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이러한 영향들은 개인의 성격 특성 및 가족과 같은 지지체계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고 이야기하였다. 사회과학을 전공한 참여자들은 회복탄력성(resilience)이라는 말을 직접 사용하면서 이에 대해 설명하였다.

“개인의 성향도 섞여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허들이라는 게 뭐랄까. 어떠한 허들이나에 따라 되게 또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중략) 개인의 성향이 또 달려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한 이유가 한 친구가 긍정적이거든요. 제가 조금 그래가지고 다른 애들에 비해서는 제가 봤을 때 회복탄력성도 되게 높은 친구여가지고 같은 상황이어도 개는 조금 그걸 극복해 나오고 빠져나갈 수 있는 이제 조금 빨리 나올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고립된 좀 내향적인 친구들은 자신감 없는 친구들은 좀 힘들어해서 개인적인 성향도 있어 성향이 있을 것 같고 또 물론 당연히 배경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성향은 무시하지 못할 것 같아요.” (AY, 청년당사자, 27세, 여, 취업준비중)

“회복탄력성이라고 뭐 있나 봐요. 그 단어를 회복탄력성을 주제로 강의하시는 분들도 점점 생기고 있는데 저희 퇴소생들한테 그런 강의를 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마인드 훈련, 좀 이제는 경제교육도 다 중요해요. 사회 나가면 다 중요 한데 마인드 훈련은 제대로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이... 뭔가 퇴소 후에도, 퇴소 전에도 마인드 훈련을 좀 하는 그래서 힘들 때 안 움직이고 스마트폰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 때 더 움직여 자기 팀이 찾아서 운동을 한다거나. 그러한 것들을 미리 훈련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도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FY, 청년당사자, 21세, 남, 아동양육시설 퇴소 후 대학재학중)

개인의 회복탄력성에 의해 고립의 위험이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는 것, 이런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개인 능력이 증진되어야 한다는 것은 사회적 고립 위험을 이해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할 때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다만 회복탄력성이 교육을 통해 증진될 수 있는지, 어떠한 프로그램을 통해 증진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사회적 고립의 사회적 작동 방식을 설명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강구하고 있지만, 개인이 삶의 주체로서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상황이 나아지기 어렵다는 것은 항상 유념해야 한다. 자신의 상황이 개선될 수 있는 기회와 서비스가 있다면 그런 기회를 활용하여 고립을 해소하고 재연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저는 이 은둔에서 나오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것도 결국 사실은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보거든요. 내가 뭐 우리가 방문 상담을 한다고 해도 그 집에 이제 방을 놓고는 해요. 그래서 얘기를 좀 해봐 그래도 본인의 의지가 없으면 결국은 대화는 성공하지 않는 거거든요.” (Y, 청년당사자, 27세, 여, 장기 고립생활 후 자립훈련중)

(2) 공동체 지원과 소속감

가족의 역기능(family dysfunction)은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을 구성하는 한 축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가족의 기능은 이미 신화일지도 모른다. 여기서 가족을 별도의 개념으로 분리하지 않고 공동체 안에 묶은 이유는 고립을 막아주는 것은 가족이라는 생물학적 존재가 아닌 가족이 주는 유대감, 안정감, 친밀감, 사회적 지지 제공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① 가족의 지지와 공감

앞서 장기적이고 심각한 고립을 경험한 사람들은 대부분 가족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는 청년당사자의 이야기에 대해 기술한 바 있다. 이는 외부적 충격이 심화되지 않도록 보호망의 역할을 한다는 것으로, 실업과 취준을 경험하며 고립감을 호소한 청년당사자들의 이야기에서 어떻게 가족이 완충제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그럼 좀 더 힘들지 않았을까 그래도. 이제 저는 이제 집에 있고 강아지도 있고
엄마 아빠도 있고 동생도 있고 이러니까 그래도 매끼 잘 챙겨 먹고. 힘들면은
가족들이랑 있고 이러니까 마음의 안정이 있잖아요. 이 이제 혼자 살면 맨날 밥도
혼자 해 먹어야 하고 청소도 혼자 다 해야 하고 이러니까 좀 우울할 것 같아요.”
(BY, 청년당사자, 27세, 여, 재취업경험)

“엄마가 조금 긍정적인 성격이셔서 어떤 좀 항상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또
응원을 많이 해주시고 하는 그런 가지고 좀 그런 거 좀 정서적으로 도움을 좀
받고 그러니까. 아빠는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엄마도 그렇게 저한테 잔소리하지
말라 그래요. 그런 어떤 그래가지고 아예 그런 거 일절 말 안 하세요. 언제 취직하나
그런 건 없어요.” (CY, 청년당사자, 27세, 여, 코로나19로 실직경험)

“저도 언젠가 그런 시기가 겪을 수 있는 거 궁금해 궁금증이 많아요. 제가 그래
가지고 물어보면 거의 3명 중에 2명은 다 그래도 부모님이 옆에 있어줘서 자기는
진짜 많이 힘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AY, 청년당사자, 27세, 여, 취업준비중)

가족은 고립의 상황에서 중요한 정보제공자가 되기도 한다. 자신은 비록 가족과
의 불화와 학교폭력으로 고립을 경험했지만 세상에 가장 든든한 큰 누나가 있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청년당사자의 사례는 가족이 완충제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

라 고립을 해소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원의 역할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고립된 당사자와 서비스의 연결이 어렵다면 고립 청년의 가족을 통한 서비스 연결도 가능할 것이다.

“큰누나랑 이제 잘 전화도 하고 소통도 하고 그리고 작은 누나는 많이 친하지 않아
요...(중략) 어렸을 때부터 되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엄마처럼 저를...(중략)
저는 든든한 누나가 있으니까” (KY, 청년당사자, 21세, 남, 고립생활 후 자립훈련중)

고립 청년들에게 가족은 상처를 가장 크게 주기도 하고, 상처를 가장 강력하게 보듬어주기도 한다. 과거에는 가장 큰 상처를 주었던 가족이 청년당사자들의 상태를 우려하여 보호막의 역할로 변화하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가정 내에서도 복잡적이고 중첩된 위험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이것이 당사자들을 해하는 방식으로 작동할 수도 있지만, 가족 내 심경변화나 외부의 교육을 통해 변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고립 청년 지원에서는 청년 당사자를 직접 지원해주는 것만큼이나 가족에 대한 지원 기회를 열어놓는 것이 중요하다.

“엄마와 동생은 제가 자해를 한 이후부터는 이제 완전히 이제 저를. 거의 뭐
완전히 이제 지지해 주는 언니가 정말 힘들었구나. 네가 정말 힘들었구나 하면서
잔소리도 안 하고 그냥 쉬어라고만 해주는 그런 지지가 있었죠” (GY, 청년당사자,
27세, 여, 장기고립생활 후 자립노력중)

“그냥 너 힘들었구나라고 말하는 거 그것도 이제 어머니 지금 문득 생각난 게 이제
어머니가 제가 한창 치료를 받고 있을 때 옛날에 있었던 일을 뭔가 말씀하시면서 그때
엄마가 이렇게 말했는데 그게 이제 제가 누워만 있으니까 엄마가 이제 막 너무 속상해
서 막 그럴 거면 죽어버려라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거를 말하면
서 그게 진심이 아니었다 진심이 아니었고 그때 네가 힘들었던 걸 몰랐다. 엄마가
너무 엄마가 너무 좀 어렸었다라고 하면서 사과를 해 주신 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생각이 갑자기 나네요” (GY, 청년당사자, 27세, 여, 장기고립생활 후 자립노력중)

② 중요한 사람의 도움과 경청

한 청년은 자신의 아동·청소년기로 돌아가서 어린 자신에게 무슨 도움을 주고 싶냐는 연구자의 질문에, 그때로 돌아간다면 자신에 대한 지지자가 되어주겠다고 이야기했다. 어머니와의 오랜 갈등을 겪고 학교 폭력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자신을 옆에서 지지해주겠다는 것이다. 만약 자신에게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자신이 은둔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졌을 것이라 이야기한다.

“좀 든든한 지지자가 되지 않을까. 옆에 그냥 계속 있어만 주고 계속 전화를 저한테 만약 걸면 전화도 잘 받아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은둔하는 사람 다른 거 없다 생각해요. 그냥 옆에 지지할 사람이 없고 혼자 생각해서 혼자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냥 방에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무조건 도움과 옆에 지지해 줄 사람 한 명. 저한테 그 한 명은 큰 누나였고, 지지할 사람이 한 명만이라도 있으면 은둔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KY, 청년당사자, 21세, 남, 고립생활 후 자립훈련중)

현실에서도 지지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면담한 아동양육시설에서 퇴소한 자립준비청년(아동보호아동)들은 현재 고립상태에 있기보다는 고립을 일시적으로 경험했고 그러한 위험이 조금 높은 상태에 있었다. 이들은 모두 시설에 있는 자립지원전담요원 선생님들의 도움이 절대적이라고 이야기하였는데, 퇴소 후 5년 이내 사후관리를 해야 하는 정책이 효과를 보이는 것이다.

“저희 시설에 있는 자립, 자립 담당 선생님은 그런 거에 되게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남을 도와주는 거 되게 좋아하시고. 그래서 저도 한 달에 두 번씩 안부 전화하시고 이것저것 물어보시고, 장학금 같은 것도 먼저 알아봐 주시고 그러세요.”

(DY, 청년당사자, 21세, 여, 아동양육시설 퇴소 후 대학재학중)

“뭔가 좀 기댈 사람이 필요해서 병원 어디 가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거기 시설 선생님한테 연락을 했었거든요 최근에. 뭐 그런 걸로 도움을 받았었지만, 저는 도움을 받고자 하면 그냥 전화하면 다 받아주시기 때문에 뭔가 그런 경험은 없었어요.” (DY, 청년당사자, 21세, 여, 아동양육시설 퇴소 후 대학재학중)

자립지원전담요원의 존재는 심리적 지지망과 보호망뿐만 아니라 자립에 주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처의 기능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존 시설에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청년당사자들은 믿을 수 있고, 털어놓기 쉽다고 이야기했다. 공적서비스의 신뢰성, 장기성, 전문성이 어떤 효과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해 봐야 하는 지점이다.

“항상 뭘 찾아주세요. 이런 장학금이 있다. 이런 제도 있다. 약간 이런 거를 항상 있을 때마다 올려주시고. 힘들 때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하시고. 그냥 언제든지 연락도 해주시고 그냥 아무리 이래도...” (EY, 청년당사자, 24세, 남, 아동양육시설 퇴소 후 대학재학중)

“털어놓는 사람은 자립전담선생님. 그분한테 의무일지 몰라도 적어도 저희 시절에 자리 전담 선생님은 의무라기보다는 진짜로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도와주시려고 해서 저도 마음 터놓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힘든 일은 다 그분한테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얘기를 안 했고....” (FY, 청년당사자, 21세, 남, 아동양육시설 퇴소 후 대학재학중)

“저는 완벽하게 자취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살짝 반찬도 맨날 사 먹어야 된다. 뭐 이런 것만 이야기하지만, 필요하면 그 언니들이랑 그쪽에 있는 선생님들한테 다른 사람들은 많이 물어보고 도움을 구하는 것 같아요.” (DY, 청년당사자, 21세, 여, 아동양육시설 퇴소 후 대학재학중)

하지만 자립지원전담요원들은 관리해야 하는 사람의 수가 많고, 업무가 제대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여러 가지 일을 맡느라 업무가 과중해질 수 있으며, 사후관리를 위한 시간을 위해 야근을 하거나 비용을 개인이 감내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기도 하다. 이는 향후 보고서의 제언에서 다시 다룰 것이다.

③ 공동체의 지원과 지지

신뢰할 수 있고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공동체를 만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자립준비청년 중 한 청년당사자인 DY는 자신의 공동체 경험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이야기했다. 정부의 커뮤니티 케어센터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 공동체는 자립준비청년에 특화되어 있어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저기 사는 언니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살짝 비슷한, 비슷한 사정이 있는 사람들 끼리 모여 있는 모임에서 이것저것 정보도 나누고 서로 사는 이야기도 하고 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긴 했었어요.” (DY, 청년당사자, 21세, 여, 아동양육 시설 퇴소 후 대학재학중)

청년당사자 DY의 사례에서 신뢰할 수 있는 공동체에 장기적으로 속하여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은 자신이 받은 것을 다시 돌려줄 수 있다는 자신감도 함께 증진시켰다.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은 연결망을 통해 물질적 자원을 교환하고 심리적 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역할과 소속감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제가 알고 지냈던 게 되게 한 달 정도 장학 프로그램을 하고, 그리고 그 후에 연락을 하는 게 자주이지는 않지만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해봤을 때 되게 좋은 사람들도 많고 되게 저 담당하신 선생님이 되게 힘드시게 일을 하시는데 이런 일을 하면서 뿌듯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저를 들었는데 너무, 너무 대단하시더라고요.” (DY, 청년당사자, 21세, 여, 아동양육시설 퇴소 후 대학재학중)

(3) 외부의 전문적 개입

① 전문적 서비스

비록 고립 청년과 관련한 서비스들이 모두 상황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니고 때로는 악화하는데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청년들은 전문적인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었고 특히 자신의 상황에 특화된 서비스를 기대하고 있었다.

사회적 고립이 장기화되고 심화될 경우 정신과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정신과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도 극과 극이었으나 자해와 같은 극단적인 상황에서 정신과 의사의 치료 및 서비스 권유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병원세팅에서의 지원체계가 함께 결합되어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다.

“아버지랑 너무 갈등이 격해져가지고 아버지랑 싸워 보던 중에 자해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병원에 실려 갔을 때 저를 수술해준 의사 선생님이 좀 부모님을 설득을 해 주셨어요. 이거는 의지라든지 그런 문제가 아니고 우울증이 있는 친구인 거고 그럼 우울증 치료하려면 정신과에 가서 진료를 받는 게 좋다.” (GY, 청년당사자, 27세, 여, 장기고립생활 후 자립노력중)

“정신과를 병행을 한 게 약간 시너지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신과에 가면서... 저는 이제 약이 잘 듣는 편이어서... 이 선생님도 막 정말 야기 잘 듣는 환자다. 이제 처음에는 정말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열심히 하셔가지고 잘 될 것 같다 이렇게 하시면서 계속 격려를 해 주셨고. 그래서 5년 동안 이제 되게 꼬박꼬박 약을 먹었고요. 저도 이제 약을 먹기 전에는 몰랐는데. 약을 먹기 시작하니

까 이제 예전에는 너무너무 힘들었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때의 심리상태로 다시 돌아가면 다시 일어날 자신이 없다. 이런 마음에 좀 죽기 살기로 이제 약을 먹었던 것도 있어요” (GY, 청년당사자, 27세, 여, 장기고립생활 후 자립노력중)

“저희 주치의 선생님이 좀 좋으신 분이었어요. 제가 이제 입원도 하고 이제 정신과도 다녀보면서 의사를 여러 차례 만나봤잖아요. 근데 다들 되게 좀 나는 의사다. 나는 너를 담당하는 주치의야.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면은 저희 주치의 선생님은 좀. 좀 옆집 아저씨 같은 그런 좀 다정한 아저씨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분이 계속 저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렇게 조금씩 나오긴 했습니다.” (JY, 청년당사자, 27세, 여, 장기고립생활 후 자립훈련중)

물론 당사자들은 자신에게 맞는 정신과를 찾기 위해 여러 병원을 전전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는 사회적 고립과 특화된 서비스와 정보연계가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인 것으로 보인다. 전술한 것과 같이 어렵게 도움을 요청하였는데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면 상심하여 다시 장기적 고립의 경로로 회귀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발견이 된다. 고립을 경험하는 당사자와 가족들이 서비스를 전전하지 않고 적합한 서비스를 빠르게 찾을 수 있는 정보의 제공이 필요하다.

“대학병원 이전에 개인병원에서는 할아버지 의사 선생님이셨는데 뭐가.. 나는 일이 너무 하기 싫다라는 투로 사람을 대했어요. 상담에 대해서는 약간 궁금한 게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선생님이 가족력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아버지하고 할아버지한테 있느냐고. 그래서 그거를 왜 물어보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냥 자기 뒤편에 있는 논문 그냥 그냥 논문 건내더니 이 여기 이렇게 써져 있었을 때 이야기하는 거다라는 식으로밖에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HY, 청년당사자, 24세, 남, 장기고립생활 후 자립훈련중)

“정신과에서 그리고 상담소도 처음에는 감정을 듣는 듯하다가도 이제 나중에

가면 이상적인 부분을 이야기해요. 제 생각에는 이게 이성적인 설득, 이상적인 판단에 집중하면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등을 돌릴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다 지친 사람들에게... 이미 다 지치고 희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이성적인 부분을 그렇게 일장 연설을 해버리면은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되고" (HY, 청년당사자, 24세, 남, 장기고립생활 후 자립훈련중)

6) 새로운 기회를 통한 재연결 방안

지금까지 사회적 고립의 원인, 과정, 결과에 대해 살펴보고 사회적 고립의 부정적 영향을 막아주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연구는 사회적 고립 청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청년들에게 다양한 정책 관련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에 대한 주제는 ‘새로운 기회를 통한 재연결 방안’으로 정하였는데 기존의 상황에서 개인의 변화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정책을 통해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재연결을 지향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괄하기 위한 고려였다. 이 주제에 대한 범주들은 ‘전환기 지원을 통한 연결’, ‘단계적 기회를 통한 재연결’, ‘개별화를 통한 재연결’, ‘역할부여와 교류기회를 통한 재연결’, ‘재연결의 법제도적 방향’이었다. 이 주제는 정책관련 내용을 세부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비교적 많은 하위범주로 구분하였다는 것을 미리 일러둔다.

표 IV-11 새로운 기회를 통한 재연결 방안 범주 및 하위범주

주제	범주	하위범주
새로운 기회를 통한 재연결 방안	전환기 지원을 통한 연결	다음 단계를 위해 지원하기
		사회와 연결의 끈 이어주기
	단계적 기회를 통한 재연결	달기 힘든 사람 발굴하기
		사전 단계 만들어 기다리기
		점진적 단계를 통해 연습하기
	개별화를 통한 재연결	개별화와 맞춤형 접근

주제	범주	하위범주
	역할부여와 교류기회 통한 재연결	회복을 위한 연속적·장기적 접근
		가족에 대한 통합적 지원
		역할을 갖도록 지원하기
	재연결의 법제도적 방향	교류하도록 지원하기
		조력자를 통해 지원하기
		사회적 고립 상태 중심적 지원
		제도화를 통한 안정적, 전문적 지원
		당사자 의견반영 및 당사자 중심적 지원

(1) 전환기 지원 통한 연결

청년들에 대한 면담을 통해 사회적 고립은 생애전반기에 걸쳐 누적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생애전반기에서의 경험은 다음 단계로의 전환(transition) 과정에서 새로운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생애전반기에 나타나는 위험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이것이 다음의 인생 단계에서 부정적 영향을 가져오지 않도록 예방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① 다음 단계를 위해 지원하기

우리가 면담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들은 아동양육시설을 벗어나 사회로 나가 대학이나 일터에서 새로운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위치에 있었고, 새로운 곳에서의 적응과정이 그리 쉽지 않았다는 걸 이야기하였다. 이들은 인생의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마다 새로운 궁금증이 생기고 알아야 할 정보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고, 이에 대한 적절한 안내가 이루어진다면 사회와 고립되지 않고 안정적인 이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이는 사전적으로 정보와 안내를 제공한다라는 점에서 예방적인 지원으로 볼 수 있다.

“퇴소하기 전에 많이 이야기해주고 또 5년 동안 퇴소한 아동들 살짝 맨날 전화 하면서 안부 물어보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런 걸 좀 더 활성화시켜서 아이들이 좀 더 편하게 어른들한테 물어보고 상담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면 그런 일이 조금이나마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 해봅니다.” (DY, 청년당사자, 21세, 여, 아동양육시설 퇴소 후 대학재학중)

“만약에 취업 관련하면은 그 분야에 있는 사람이 맞는 것 같고, 거기 일하는 사람. 아니면 사회생활이나 다른 생활할 때 필요한 것들은 그냥 생활지도원분이나 아니면 그런 선생님들이 될 수도 있고, 집 구할 때는 그냥 공인중개사 분이나 아니면은 그 분야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 상황마다 다를 거 같아요.” (EY, 청년당사자, 24세, 남, 아동양육시설 퇴소 후 대학재학중)

“25살이 돼도 주저라든가 그런 거, 경제라든가 그런 거는 되게 전문적으로 공부 하지 않으면 모르는 게 계속 계속 생겨나는 그런 종목?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들한테 쉽게 쉽게 물어볼 수 있는 환경이 청년들한테 생긴다는 거는 진짜 너무 좋은 정책 같아요. 또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몰릴 테니까 그거를 다 감당할 수 있는 상담원들이 충당이 된다면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DY, 청년당사자, 21세, 여, 아동양육시설 퇴소 후 대학재학중)

② 사회와 연결의 끈 이어주기

장기적 고립을 경험한 청년에게 자신의 과거로 돌아가서 어린 자신을 만났을 때 해주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물었을 때, 그 청년은 사회와의 끈을 끊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한 번 끊어진 끈은 연결하려면 너무 어렵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회와의 이제 연결고리를 끊지 않는 거. 그게 가장 중요 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한 번 끊어져 버리면은. 다시 잇기가 너무 힘들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 (JY, 청년당사자, 27세, 여, 장기고립생활 후 자립훈련중)

사회와의 끈이 중요하다는 것은 취준을 위해 고립을 택한 청년에게도 공감가는 일이었다. 그녀는 전문가와 지속적으로 연결되면서 자신의 안위를 묻는 방안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동굴 속에 들어가 있지만 옆에 뭔가 끈이 있다는 생각에... (중략) 왜냐면 좀 가정환경이 안 좋은 사람들한테는 그런 끈이 되게 많이 필요하고 불운한 사람들한테는 그게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전문가이면 좋을 것 같아요.” (AY, 청년당사자, 27세, 여, 취업준비중)

(2) 단계적 기회를 통한 재연결

① 닿기 힘든 사람 발굴하기

고립청년에 대한 지원에서 가장 어렵고도 중요한 부분은 ‘닿을 수 없는 사람에게 가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즉, 아웃리치(outreach)를 통해 고립된 청년들에게 서비스를 연결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절대 안 열었을 것 같아요 한 한 6개월 동안 찾아오면은 한 번쯤 열어줄 수는 있겠죠.” (JY, 청년당사자, 27세, 여, 장기고립생활 후 자립훈련중)

“저는 보통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이미 문을 닫고 안 열어줄때에는 이미 그러한 상황이 수없이 반복된 사람일 거라고 봅니다. 이미 방문을 닫고 안 나오는 사람하고 접촉하기에는 주변 사람들의 긴 긴 노력이 필요할 거라 생각해요.” (HY, 청년당사자, 24세, 남, 장기고립생활 후 자립훈련중)

사실 장기고립 상태에 놓인 청년들은 서비스를 거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들의 필요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에 그 센터가 있다면요. 이 한 번 손을 내밀었다가 거절당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일단 그 센터가 있다는 걸 아는 거잖아요. 언제라도 마음이 마음이 이제 의지가 생기면 센터에 문을 두드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JY, 청년당사자, 27세, 여, 장기고립생활 후 자립훈련중)

“방문 앞에서 기다려주는 그거를 그것까지 정부와 공무원이 해주는 조금 힘들어 보여요. 예산을 대줄 수는 있는데, 그 작업을 공무원이 하기에는 굉장히 힘들어 보이거든요. 그 사실 커뮤니티 사실상 가족이나 커뮤니티 안에 있는 친구나 그런 마을을 돌보는 자원활동가 등 있잖아요 약간 그런 부분이 아니면 솔직히 제일 힘들 것 같더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문 넘어 있는 사람에게 애착이 있어야 가능한거죠.” (HY, 청년당사자, 24세, 남, 장기고립생활 후 자립훈련중)

그런 면에서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여러 가능성이 있다. 청년 당사자들은 온라인을 통해 연결되는 경험에 대해 이야기해주었다. 앞에서 이야기 한 것과 같이 고립 생활하는 청년들은 소셜네트워크(SNS) 활용을 잘 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익명성이 부여되는 온라인서비스 및 커뮤니티 등에서의 활동은 보다는 나올 수 있다.

“사실 SNS로 홍보하려면 거의 효과가 없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소통을 하지 않으니까 쌍방향적인 커뮤니티가 좋다고 생각해요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거 그러면 좀 오픈 채팅 같은 사람 특정 부류에 은둔형 외톨이들이 많이 있는 그런 데를 저는 사실 추천하고 싶거든요” (JY, 청년당사자, 27세, 여, 장기고립생활 후 자립훈련중)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톡 플러스 친구의 자립 정보를 알려주는 채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쪽으로 맨날 봐서..." (FY, 청년당사자, 21세, 남, 아동
양육시설 퇴소 후 대학재학중)

정보제공 및 고립 청년 서비스에 대한 홍보에 국한해서 보면, 많은 이들이 시간을 쏟는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이 더 좋다는 의견도 있었다. 정보제공에 국한해보면 마치 지하철에 광고를 내는 고립 청년들이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동선에 정보를 많이 노출시킬 필요가 있다.

"차라리 사람들이 좀 많이 보는 유튜브라든가 그런 거에서 광고를 하는 게 좀 더 노출성이 높을 것 같아요." (DY, 청년당사자, 21세, 여, 아동양육시설 퇴소 후 대학재학중)

"사실 저희 은둔 고수 1기를 했었을 때도 진행했던 친구가 많이 고민을 하면서 이제 여기저기 다 올려봤었대요. 이 구인 구직 사이트도 올려봤고 당근마켓 이런 데도 올려봤고. 게임 들어가서 확성기 불면서 좀 모집을 할까. 이런 생각까지 했었대요. 그렇게 열심히 했었던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취직 사이트에서 봤거든요. 알바몬이라든가 대외 활동 취직 사이트에서 봤었고." (GY, 청년당사자, 27세, 여, 장기고립생활 후 자립노력중)

온라인에서 정보제공을 넘어서 상담도 가능할까? 이번 연구에서 모든 면담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었고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졌다. 고립 경험이 있는 청년들은 자신이 시간을 보내는 편안한 공간에서 면담을 진행하는 것에 만족해했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도 크지 않았다. 디지털 기기와 상담을 통한 접근은 많은 한계가 있겠지만, 개인의 성향과 상황에 따라 이점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약간 눈치 본다고 해야 되나? 약간 좀 그런 티를 안 내, 약간 그런 시설에 살았다거나

약간 그런 환경이다, 약간 이런 거를 안 보이고 싶어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상담 말고 약간 인터넷 상담도 있고 요즘에는 약간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EY, 청년당사자, 24세, 남, 아동양육시설 퇴소 후 대학재학중)

“오히려 자기가 힘든 거 있을 때 제가 아는 사람들에게 터놓는 것보다 모르는 사람한테 터놓는 게 더 편할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고요.” (FY, 청년당사자, 21세, 남, 아동양육시설 퇴소 후 대학재학중)

메타버스(metaverse)라고 하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상담에 대한 아이디어도 있었다. 이는 초연결시대의 이점을 활용하는 것으로 익명성을 유지하면서도 정보를 공유하고 비대면 면담을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일 수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활용하여 연결의 장점을 살리는 방식의 창의적 접근이 필요한 시기이다.

“히키코모리 도와주는... 그거 메타버스랑 연결해서 그걸 합쳐가지고 아이들이 집에 안 나오니까 메타버스로 만나게 하자...(중략) 저희가 저는 지금 회사를 다녀가지고 하진 않지만 저희 멤버들끼리 제패트로 회의를 하거든요. 아침마다 그냥 안부도 묻고 뭐 어땠냐고. 그런 걸 하고 있어요.” (KY, 청년당사자, 21세, 남, 고립생활 후 자립훈련중)

“근데 자기 센터에서도 채팅 상담을 열었는데 신청하는 사람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리고 대부분의 신청 건수가 새벽에 들어온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것으로 미뤄봤을 때는 당연히 그 비밀 보장, 그리고 내가 전화를 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 그러니까 저도 전화가 더 편한 세대거든요. 근데 요즘 친구들은 채팅 상담이나 익명성이 보장되는 어떤 창구가 없으면 애초에 그 홈페이지를 바로 나가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상담센터의 의견이나 아니면 제가 따로 이제 좀 10대 친구들을 만나봤을 때도. 그래서 또 메타버스 플랫폼들 이런 것들이 요즘 좀 부흥하고 있는 것보다 아마 요즘에는 될 텐데 굉장히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IY, 청년당사자, 28세, 남, 장기고립생활 후 자립노력중)

고립된 청년들과 온라인상에서 연결되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도움을 청하기 위한 검색을 할 때 적절한 지원 서비스가 노출되어 이목을 끌어야 한다. 인터넷 포털을 이용하는 고립 청년이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찾을 때 앞에 나와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현재는 포털 사이트에서는 관련 단어를 검색할 경우 공익적 내용보다는 상업적 내용이 앞에 나와서 적절한 경로로의 이동을 방해하므로 포털의 사회적 책임 혹은 사회 공헌 차원에서 공익적 정보를 가장 상단에 위치하게 하는 등의 변화를 고려할 수 있다.

*“**(고립 청년들이 포털에 검색하는 단어는) ‘집 밖에 안 나가요’ 이런 키워드가 가장 제일 좀 메인적인 걸 상징하는 거 아닐까요? 아니면 “우울” 등 키워드가 가장 핵심일 거라는 생각도 해요. 왜냐면은 사실 안 나간다는 것은 내가 만약에 이제 우울증이 있기 때문이라고도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장애물도 있겠지만 불안 장애가 공황 장애 이런 것도 아니지만 우울증이 가장 메인 질환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라고 보기 때문에 우울증이랑 관련해서 이제 키워 키워드를 넣어도 좋을 것 같아요**” (GY, 청년당사자, 27세, 여, 장기고립생활 후 자립노력중)*

② 사전 단계 만들어 기다리기(0층에서 출발하는 고립청년지원 서비스)

앞서 살펴보았듯이 청년들의 고립의 상황에 따라 바로 교육, 훈련, 고용의 영역으로 이동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는 0층에서 출발하는 고립청년 지원서비스라 부를 수 있다. 이는 니트 청년 지원사업을 펼쳤던 희망플랜의 사례에서의 시행착오로 지적되었던 것이기도 한데, 사업 초기 니트 청년들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바로 교육/훈련을 시행했으나 참여에 어려움을 느끼는 청년들을 위해 이전 단계를 고려했다는 것이다(6장 ‘전주시 희망플랜 사례’ 참조), 이는 장기적 고립을 경험한 청년에 대한 사업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고립청년에 대한 지원은 개인의 상태에 따른 맞춤형 접근, 초기 상태를 감안한 프로그램의 정도를 설정하여 점진적으로 개선해나가는 접근 등이 필요할 것이다.

“저희 그 사고방식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이고. 지금 회사에서도 사실 지금 K2에서도 사실 몇 번 그만두려고 했었는데 그게 이제 결국 이야기를 나눠보면 이제 막 되게 자책하는 습관 이런 거고 처음이니까 모르는 게 당연한 건데 그거를 좀 내가 모자라서 이렇게 생각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심리 상담으로 풀어나가야 할 것 같아라고 지금 최근에 인지를 했는데 또 그렇게 하려면 또 돈이 들고.” (GY, 청년당사자, 27세, 여, 장기고립생활 후 자립노력중)

“당사자들이 좀 이제 그러니까 회복기에 있는 당사자들이, 어떤 이런 사업에서 일을 한다는 게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하다 못해 가정 모임하다 이제 갑자기 연락이 뚝 끊기는 친구가 있어도 그거를 좀 어떻게 접근해야 이 친구를 좀 다시 잘 끌어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이거든요. 지금 있는 친구들은...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GY, 청년당사자, 27세, 여, 장기고립생활 후 자립노력중)

③ 점진적 단계를 통해 연습하기

이 연구의 면접단계에서 장기적인 고립을 경험한 청년들에게 ‘언젠가는 사회로 나아가야할 때 무슨 일을 할 것인지’ 물었을 때만큼 갑자기 분위기가 냉각되었던 적은 없었다. 아마 고립을 넘어서 사회로 연결되는 것은 이제 고립에서 회복하는 청년들에게는 더 큰 부담으로 다가왔을 것이고, 고립청년의 아픔을 공감하고 회복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하던 연구자가 결국 다른 사람들과 같은 것을 강요하는 것에 대해 실망감을 느꼈을 것이다.

하지만 언젠가는 사회로 나가서 재연결되어야 한다는 가정은 고립 청년 지원 서비스의 목표로는 매우 타당해 보인다. 그렇다면 당사자들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사회로의 재연결을 하게 만드는 방안은 무엇인가? 앞서 0층에서부터 출발하는 서비스를 제안한 것과 같이 사회로 나아가는 단계가 계단과 같이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게 저한테는 처음 알바였거든요. 의미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어 그런 것 같았어요. 좀 안전하다고 해야 하나요. 아이들을 돌보는 거니까 이렇게 완전 어른들 상대하는 것도 아니고 나를 안전하게 처음 알바를 했던..” (KY, 청년 당사자, 21세, 남, 고립생활 후 자립훈련중)

“그냥 회사가 필요한 건 절대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진짜 제가 강력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를 사람들이 지금 1년 이상 재직을 하는 이유는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기존의 방식과 다른 대우랑 인정이 수반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휴가 쓴 사람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거든요? 근데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아무도 뭐라고 안 하고. 물론 규모가 커지면서 이것들이 더 디테일하게 보완돼야 되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규모가 작으니까 가능한 일일 수도 있겠는데 다들 일 열심히 해요.” (IY, 청년당사자, 28세, 남, 장기고립생활 후 자립노력중)

사회로의 진출을 계단방식으로 만드는 것은 예기적 사회화(anticipatory socialization)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 장기적 고립을 경험한 청년들은 무기력해 지거나 자존감이 매우 낮은 특성을 보이는데, 다른 사람들이 단계를 올라가며 회복되는 것을 보는 것은 자신의 상황이 단계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는 걸 미리 알게 할 수 있다.

“경험한 라인이 있어야 사람들도 어떤 그런 퇴소에 대한 불안도 많이 좀 줄어들 것이고 저렇게 좀 다음 스텝이 있구나.” (IY, 청년당사자, 28세, 남, 장기고립생활 후 자립노력중)

“아예 사회적 기업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서 취업을 하게끔 한 다음에 그러니까 연수가 쌓이면 거기서 이제 예 그러면 자기 자신도 은둔형 외톨이 같은 경험자고 은둔형 외톨이 경험자면은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을 대하는 뭐라고 해야 될 노하

우 같은 게 쌓이는 그럼 이제 그 사람이 아랫사람을 이끌어주는 그런 시스템이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자기 자신이 원할 때 떠나도록 하는 게 저는 제일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HY, 청년당사자, 24세, 남, 장기고립생활 후 자립훈련중)

한 참여자는 일본의 히키코모리 채용 카페의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참여자들이 다양한 역할들을 나누어서 일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였다. 이 참여자는 비록 자신이 앞에서 손님을 상대하는 일을 하기는 어렵지만 자신은 뒤에서 음료를 만드는 일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강점(strength)을 살리는 방향에서 역할을 맡아 사회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완벽하지 않더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금씩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한발씩 앞으로 나갈 수 있다.

“신문에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그 곰 발바닥 카페라고 일본에 하나가 있는데요. 히키코모리라든지 사람을 대하는 게 어려운 사람들이 벽 너머에서 일하고 음료를 건넌 때는 그냥 구멍으로 주는 그런 가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할 거면은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사람을 직접적으로 대해야 되는 서비스 사업은 너무 힘들어 보여요. 그럴 것 같아요. 요즘에는 손님 갑질도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서비스업을 하게 되면 인간 혐오에 걸린다는 이야기도 있고...온갖 사람들을 다 만나요. 그래서 사실 서비스업은 안 될 것 같아요. 이 멀쩡한 사람도 어려운..” (HY, 청년당사자, 24세, 남, 장기고립생활 후 자립훈련중)

(3) 개별화를 통한 재연결

① 개별화와 맞춤형 접근

유럽의 청년보장제(Youth Guarantee)는 청년 니트(NETs)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지만, 제도의 발전 과정에서 니트 청년들의 개별적 특성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특화되고 있다. 사실 니트는 굉장히 이질적인

특성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고립 청년 역시 이와 유사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중첩된 취약성으로 인해 장기화된 고립 청년들에게 어떠한 준비 없이 취업처를 연결해주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지만, 일시적인 고립을 경험한 청년은 단편적인 취업처 연결 이외에 상담서비스를 의무화하는 것은 오히려 서비스 진입을 막는 기제가 될 수도 있다.

“심리치료는... 치료 그 얘기 들어주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약간 저는 친구들한테도 이런 얘기를 잘해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다시 저도 생각해 보는 그런 스타일인데. 이게 어떤 심리라고 해도 제가 어떤 이런 고민을 말했을 때 저는 약간 성향이 어떤 해결책 같은 거를 좀 그런 걸 좀 듣길 원하는데 그냥 공감만 해주는 그런 경우에는 사실 저는 약간 (안 맞아가지고요)....” (CY, 청년당사자, 27세, 여, 코로나19로 실직경험)

현실에서는 사회적 고립 청년에 대한 서비스들이 고립청년지원사업, 니트청년 지원사업, 은둔청년지원사업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서비스들은 대상자를 발굴하는 것도 어렵지만 대상자들이 오더라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애를 먹고 있다. 이는 보다 큰 우산개념(umbrella concept)을 사용하는 정책에서 초기 사정을 통해 대상자들을 맞춤형 서비스로 연계해주는 작업이 필요한 지점이다.

“사실 전화하시는 분들 보면 되게 보편은 '어? 이 분은 은둔은 아닌데?' 이렇게 되는 경우도 꽤 많아요. 오히려 적합하지 않은 서비스로 연결되는 경우도 저는 많이 경험한 것 같아요.” (IY, 청년당사자, 28세, 남, 장기고립생활 후 자립노력중)

면접에 참여한 일부 청년들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 사업에 참여하면서 스펙트럼(spectrum)이란 용어를 자주 사용하는데, 가장 장기화되고 심각한 형태의 사회적 고립 청년들도 세부적으로 보면 굉장히 다양한 상태와 특성을 보이기 때문이다.

“어떤 지원이든 이렇게 모든 스펙트럼을 다 때려박아놓고 이렇게 한 번에 케어 한다는 게 사실은 좀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은둔형 외톨이도 여러 가지 구분, 고립 청년이나 니트, 세분화하는 부분에서는 또 분화가 돼 있지만, 그 안에서도 되게 뭐 이제 기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스펙트럼이 되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조금 저희도 통제가 조금 더 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IY, 청년당사자, 28세, 남, 장기고립생활 후 자립노력중)

“팀장님이 한 네 가지 스펙트럼을 만드신 것 같더라고요. 진입기, 침잠기, 모색기, 활동기. 그래서 전 한 둘들 정도. 많으면 4개 전부 다 구분되면 좋겠지만 둘들 정도는 구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A기관 같은 어떤 통제력이 있고 전문가도 있고 지속적으로 술도 금지시키고 약물도 먹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약물 먹는 것도 체크해 주고, 이런 체계들을 위해서는 기존 전문가분들이 훨씬 더 유효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대로 이제 조금 활동을 해보려고, 모색하거나 아니면 약간 극복해서 취업을 했는데 간당간당해서 다시 되돌아갈까 막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확실히 경험자분들을 양성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IY, 청년당사자, 28세, 남, 장기고립생활 후 자립노력중)**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들도 부모와 떨어져 대리양육을 받았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가족에서 분리가 되었던 이유와 경험들이 모두 다른 특성이 있다. 현재는 이와 같은 차이에 대한 서비스 대응이 부족하다. 한 자립준비청년은 이와 같은 일이 매우 안타깝다고 이야기했다.

“저 같은 경우는 엄청 예민한 편이 아니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예를 들면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는데 그래서 아빠랑 같이 살다가 뭐 어찌고저찌고 해가지고 살짝 좀 어려운 게 있었고, 저도 뭐 아팠던 기억은 있지만 그게 엄청나게 심각한 일은 아니었어 가지고 또 극복을 하고 좀 정상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었지만, 뭐 처음부터 부모님이 안 계셨다든지 아니면 부모님이 계셨는데 너무 폭력적인 사람들이셔서 맨날 맞고 자랐든지 아니면, 심리적으로 너무 큰 상처를 받았었다든

지, 그런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도 되게 티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말을 하는
것도 좀 다르고 일반적인 사람들이랑 행동하는 패턴도 다르고 그런 것 같습니다.”

(DY, 청년당사자, 21세, 여, 아동양육시설 퇴소 후 대학재학중)

② 회복을 위한 연속적·장기적 접근

우리나라는 아동, 청소년, 청년에 관한 법률이 각기 존재하고 있고 담당하는
부처도 모두 다르다. 2021년 현재 아동(0-18세 미만)은 보건복지부가, 청소년
(9-24세 이하)은 여성가족부가, 청년(19세-34세 이하)는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
정실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부처의 분절은 서비스의 분절을 가지고 오고
있으며, 아동·청소년·청년 당사자들은 생애 단계에 따라 서로 다른 부처의 전달체
계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각 연령별 서비스도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기보
다는 단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물론 일방적인 예방이지만은 회복하려고 나오게끔 하는 것만도 굉장히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해요.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정해져 있잖아요. 조례 같은 경우에는
은둔형 외톨이에게 상담사 몇 회 방문. 이렇게 딱딱 정해져 있잖아요. 많게는 적게
는 3회 정도이고 길게는 10회 그렇게 일 것 같은데. 아마 그런 공무 집행같이
그렇게 진행해 버리면 아마 굉장히 힘들실 거예요. 어떠한 공무집행은 어떠한
결과를 내야 되는데, 어떤 결과를 내야 되는데 그렇게 돈을 쏟아부어도 어떤 실적
이 잘 안 나오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식이면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HY, 청년당사자, 24세, 남, 장기고립생활 후 자립훈련중)

우리가 면담한 청년들은 하나 같이 서비스의 연속성을 강조했다.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단기적으로 서비스가 끝나버리는 것은, 또 다른 서비스를 찾아
가 새로운 전문가에게 처음부터 다시 이야기해야 하는 불편함과 불안정함을 불러
오기 때문이다.

“아까 이야기했던 그 연계를 받았던 곳인데 거기가 상담을 또 하더라고요. 거기도 받아봤는데 거기는 딱 10회 정도가 제한이 걸려 있어요...(중략) 지금은 뒤돌아 보면요 상담을 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애착이라고 친근감이라고 해야 하나, 이런 게 쌓이면 그러니까 상담사가 그냥 가버린다는 거는 지금까지 싸워왔던 게 다 박살 나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또 새로... 지치죠. 지금 생각하면 지치는 것 같아요. 선생님 컴퓨터를 문서 작업할 때 다 날려보신 경험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힘들 거예요. 특히 심리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은둔형 외톨이를 상담하려면, 그게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HY, 청년당사자, 24세, 남, 장기고립생활 후 자립훈련중)

“지속적이어야 돼요. 근데 이제 사실 한계가 있죠. 왜냐하면 뭔가 상담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은 많은데 상담자가 만약에 적으면요. 심리적인 에너지를 많이 쏟아부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금방 지칠 거예요. 이제 회기로 근데 또 회기로 진행을 하다 보면요 뭔가 극복은 할 수 있어요. 극복할 수 있어도 뭔가 끝까지 회복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힘든 상황이 올 때 갑자기 어려운 생각이 난다거나 뭔가 지속적인 관계망이 필요할 것 같은데.” (FY, 청년당사자, 21세, 남, 아동양육시설 퇴소 후 대학재학중)

이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이 한 기관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과도 결부된다. 자원활동의 차원에서 서비스가 제공되거나, 계약직·임시직 형태로 서비스 인력을 배치하면 근본적으로 서비스가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서비스 제공자체가 불안정하다면 이를 의지하는 아동·청소년들의 상황은 더욱 불안정해질 것이다.

“상담 자체는 되게 도움이 됐었어요. 상담은 도움 됐었는데. 그게 그 방식 자체가 저 같은 경우에는 관리비 정도만 내고. 한 달에 몇만 원 정도 관리 안 내고. 상담 선생님들은 봉사로 온 형식이었거든요. 봉사 형식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나는 다른 곳으로 간다 그러면 그냥 가는...” (HY, 청년당사자, 24세, 남, 장기고립생활 후 자립훈련중)

③ 가족에 대한 통합적 지원

고립 청년들이 주로 머무는 공간은 집이다. 고립 청년들은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고립 청년들의 상태를 처음 마주하는 가족들은 매우 당황할 수밖에 없다. 한 고립 청년의 부모는 자녀가 고립되면 부모도 함께 고립된다고 이야기한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가족은 고립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고립을 유발하는 외부의 충격을 완화시켜주기도 한다. 가족들이 지지망이 되기 위해서는 부모와 가족에 대한 지원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은 좀 그래도 좀 이것저것 생겨났잖아요. 근데 저 제 아이가 방에 있을 때는 정말 없었거든요. 그리고 뭐 은둔에 대한 이해 자체가 주변에 아는 바가 없었어요. 저도 이제 애가 뭔지 몰랐으니까요. 이게 정신적인 문제인지 우울증인지 뭔지 몰랐는데 주변에 제가 물어볼 데가 없었어요. 그니까 상담도 사실 이제 동네에서 아이를 보내기도 하고 저도 받기도 해보고 한의원도 가보고 별거 다 해봤는데 일단은 이해가 부족해요” (LP, 장기고립청년 어머니, 50대, 가족모임 참여중)

“엄마하고 소통하는 애들은 그나마 난데 아빠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해서. 근데 아빠들은 또 상담 같은 걸 안 받잖아요 잘... 저희 아기 아빠한테. 딱 한 번 받았어요. 딱 한 번. 근데 그때 막 펄펄 울더라고요. 그다음부터 안 받더라고요. 자기가 울고 난 다음에는 안 받더라고요. 이거 느낀 게 있는지. 본인도 불편한지. 일단 아빠하고 사이가 좋아지니까.” (NP, 장기고립청년 어머니, 50대, 가족모임 참여중)

“그 말에 동의를 하는 게 분명히 가족이나 이제 연관이 없을 수가 없어요. 은둔 당사자 가족... 이 사람이 치료된다 해도 그 환경에 또 가정이 있으면 이것은 분명 재발이 날 수가 있어요. 저는 같이 케어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KY, 청년당사자, 21세, 남, 고립생활 후 자립훈련중)

(4) 역할부여와 교류기회 통한 재연결

① 역할 갖도록 지원하기

개인이 가진 사회적 역할은 개인의 삶의 의미와 가치가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삶의 질 연구에서 이와 같은 삶의 상태를 유데모니아(Eudaimonia)라고 지칭하는데, 자신의 삶이 가치 있다고 느끼는 것은 행복한 삶을 사는데 매우 중요하다. 고립 청년들은 사회에서 자신의 적절한 역할을 갖지 못하여 자신의 삶이 가치 없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이러한 부정적 사고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청년들에게 적절한 역할을 부여하고 자신이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 저랑 같이 입사한 저랑 똑같은 걸로 들어온 재단 친구도 그렇고 저 다 할 게 없어서 그렇다고 많이 하고... 별로 시키는 게 잘 없기도 하고, 저희 둘이 들어온 인턴 빼고는 거의 다 바쁘셔가지고 또 못 챙겨주시는 면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중략) 그냥 책상에 앉아서 이거 나를 대체 왜 불렀는가라는 생각이...” (KY, 청년당사자, 21세, 남, 고립생활 후 자립훈련중)

“제가 좀 많이 느낀 게 아까 역할 말씀하셨다시피 내 능력 부족이구나. 일자리 그거 그냥 일 체험이니까 여기 있는데 내가 뭐 자격증을 하나 더 있었으면 뭐라도 제대로 뭘 부여해 줘야 하지 않았을까.. 공부 쪽으로 하고 생활비를 또 쓰니까 그리고 알바 하지 않는 그냥 그렇게...” (KY, 청년당사자, 21세, 남, 고립생활 후 자립훈련중)

② 소속감을 가지고 교류하도록 지원하기

청년들이 고립되어 있다는 느낌을 갖지 않도록 하는데 소속감(sense of belonging)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청년당사자들은 소속감을 느끼는 공동

체를 통해 함께 교류하고, 자원을 교환하고, 성장하는 것으로 보였다. 청년들은 자신이 소속감을 느끼는 공동체를 설명하면서 공동체 구성원들을 신뢰하고, 도움을 서로 제공하고, 서로 존중하는 특성에 대해 설명하였다.

“저랑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고 여기서는 제 치부가 아닐 수가 있어서 좋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저를 저는 경력이 없는데 그런 경력 없는 저도 이제 일을 시켜준 것도 너무 감사하고 다음은 이제 직원인데 사실은 알바잖아요. 근데 이제 그 직원들이 저를 알바 취급을 하지 않아요. 그냥 동료 취급을 해줘요.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온전히 나로 있을 수 있는 거 그리고 나에게 도움을 주고” (JY, 청년당사자, 27세, 여, 장기고립생활 후 자립훈련중)

“학교나 대안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목적성을 가지고 강제적으로 무언가를 해야 되지만 여기 있는 목적을 가지고는 이제 강요를 하지 않는다는 점도 차이가 그래서 개인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솔직히 저는 굉장히 편한 것 같아요. 참여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환경에서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평화로운 거잖아요. 이런 평화로운 환경에서 그냥 있으니까 참 편한 것 같아요.” (HY, 청년당사자, 24세, 남, 장기고립생활 후 자립훈련중)

소속감을 느끼는 집단은 네트워크 안에서 호혜성(reciprocity)을 띤 교환이 이루어지게 한다. 사실 이런 공동체를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네트워크, 신뢰, 호혜성을 갖춘 공동체가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란 사실은 자명하다.

“참여자: 여기 되게 프로그램도 되게 이것저것 많이 가져오시고, 애들한테 장학금, 장학 사업이 끝나면 뭐가 필요한지 되게 한 달? 한 달에 한 번씩 물어봤던 것 같아요. 키트도 뭐가, 뭐가 필요한지 물어보시고, 블로그 같은 데서도 이번에는 이런 키트 사업을 할 거다. 이런 것도 되게 많이 올라오고. 너무 운영을 잘하는 곳이라

생각합니다” (DY, 청년당사자, 21세, 여, 아동양육시설 퇴소 후 대학재학중)

“**연구자:** ○○ 씨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장학 프로그램을 이미 했었으니까 혹시 그 친구 잠깐 통화로 이런 것 좀 알려줄 수 있을까라고 온다. 문의가 온다고 그러면 알려주시겠어요?”

“**참여자:** 제가 알고 있는 거면 당연히 생각을 알려줘야 되고 저도 거기서 도움을 많이 받았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또 예의고 사람으로서 좀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DY, 청년당사자, 21세, 여, 아동양육시설 퇴소 후 대학재학중)

고립 청년들이 소속감을 느끼는 공동체는 자조집단의 형태일 수도 있고, 서비스 제공기관의 형태일 수도 있고, 사적 교류의 장일 수도 있다. 어떠한 형태이건 청년들이 소속감을 느끼면서 서로 연결되어 이점을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

③ 조력자를 통해 지원하기

사회적 고립 청년들이 사회와 원활히 재연결되기 위해서는 이를 옆에서 도와주는 조력자의 존재가 필요하다. 조력자의 모습은 일상에서 가벼운 고민거리를 나누거나, 어떤 역할을 수행하기에 익숙하지 않을 때 옆에서 도움을 제공하거나, 일상에서 무언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때 전문적인 정보를 나누는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 고립 청년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를 체험하고 있는 청년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한 사람 딱 저한테 붙어서 그냥 1부터 10까지 다 알려주는 그런 식으로 그냥 해줬으면 해요. 지금은 너무 방치식이랄까. 그냥 어떤 날은 그냥 하루종일 앉아 있다 온 날 또 있는데 그때마다 그냥 저는 사업 이런 거 계획서 이런 거 보고 있고 그냥 뭔지도 잘 모르는데 단어도 모르는데 보고 있고... (KY, 청년당사자, 21세, 남, 고립생활 후 자립훈련중)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은 자립지원전담요원에게 의지하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관계에 기인하다보니 누구나, 항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자신이 생활했었던 아동양육시설에서만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립지원전담요원의 특성에 따라 서비스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 청년당사자 DY는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출신시설, 생활지역 등과 관계없이 자립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제안하였다. 자신과 같은 상황에 있는 청년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나 블로그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콜센터에 대한 아이디어였다. 이는 새로운 지역에 이주한 자립준비청년은 해당 자립지원전담기관이나 자립지원전담요원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참고할만한 제안이라고 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소소한 문제들은 저번에 말씀드렸던 자립전담요원분이라 되게 카톡을 되게 너무 빨리 읽으셔서 그런 걸 빨리빨리 물어보고 되게 조언을 받는데...(중략) 불특정 다수한테 편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있으면 확실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무리 낯가리는 사람이어도 불특정 다수면 도움을 청하기에 좀 쉽지 않을까요?” (DY, 청년당사자, 21세, 여, 아동양육시설 퇴소 후 대학재학중)

“(개인 관계가 있어 필요할 때만 연락하면 사이가 불편해질 수도 있으니) 뭔가 필요할 때만 연락해서 도움 받을 수 있는 그런 살짝 콜센터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DY, 청년당사자, 21세, 여, 아동양육시설 퇴소 후 대학재학중)

(5) 재연결의 법제도적 방향

① 사회적 고립 상태 중심적 지원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고 재연결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은 고립이라는 상태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동안 사회적 고립이라는 상태는 정책영역에서

잘 다루어지지 않았으며, 특히 외로움과 관련해서는 일부 조례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루어진 적이 없다. 하지만 사회적 고립, 특히 심리적인 고립 상태는 개인의 삶의 질을 해치므로 적절한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 청년당사자 AY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제 어떻게 보면 먹고 사는 데는 아직 막 힘든데 사회가 아니잖아요. 막 한국 사회가 옛날만큼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거 보면 자신의 심리적인 상태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AY, 청년당사자, 27세, 여, 취업준비중)

장기적인 고립을 경험한 청년들은 이러한 지원 필요성을 더 느끼고 있었다. 자신이 경험한 고통스러운 상태에서 다른 청년들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었다.

“아무래도 다들 당사자였던 친구들이다 보니까 이제 사실 안 되는 게 맞고 그걸 우리끼리는 정말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이걸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식시킬까 그런 게 과제인 것 같아요” (GY, 청년당사자, 27세, 여, 장기고립생활 후 자립노력중)

고립 상태에 대한 지원은 현실적으로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나 고립을 경험한 청년당사자들은 자신들에 대한 지원이 1인 가구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이유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였다. 고립이라는 상태에 대한 지원보다는 1인 가구라는 대상에 대한 지원으로 전환되면서 고립 청년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포착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대상 중심적 지원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제 친구들 중에서 진짜 우울했던 애들이 부모님처럼 사는데도 우울했던 애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단지 부모님을 산다는 이유로 개네들을 고립으로 안 본다
 거는 더 조금 억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개네들이 부모님처럼 살고는 사실
 상 더 힘든 거를 부모한테 얘기는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도 이제 나이는 차고
 있는데 취업은 안 되고 있지. 근데 이거 말해봤자 엄마 아빠랑 갈등 나고 싸움
 나하고 엄마 아빠 더 속상하고 나 더 속상하고. 어쨌든 결론이 안 나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네들도 고립이 우울한데, 부모랑 같이 산다는
 이유로 지원을 못 받는다면 되게 억울할 것 같아요. 그냥 타당하지 않는 것 같아요”
 (AY, 청년당사자, 27세, 여, 취업준비중)

“1인 가구랑 자꾸 뭔가 엮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으세요. 아무리 생각
 해도 적합하지 않으니깐, (중략)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도 가족이랑 같이 살고
 계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가족 간의 간극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포함돼 있는데, 그 굵직한 줄기가 그냥 짝뚱 잘린 채로
 1인 가구다라고 하면은 이걸 아예 다른 지원이라고 생각하죠.” (IY, 청년당사자,
 28세, 남, 장기고립생활 후 자립노력중)

② 제도화를 통한 안정적, 전문적 지원

지자체를 중심으로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사업이 확대되고 있지만 아직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이나 인력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사실상 기관과
 인력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전문성을 담보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으며 개선되어 나갈 수밖에 없지만, 어렵게
 손을 내민 고립 청년들을 대상으로 시행착오를 겪다보면 서비스에 실망하고 다시
 고립의 길로 들어설 수도 있다. 실제 이러한 우려는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어떤 준비되지 않은 상태의 이런 지원 사업은 어떻게 보면 2차 가해일 수도
 있다. 뭔가 이런 사업으로 한 8년 정도 은둔한 사람이 이제 신청을 했는데 A기관
 밖에 없고, 은둔형 외톨이에 대해서 다루는 곳이 여기 밖에... 근데 여기에 전화했

는데 바빠서 전화도 잘 안 받고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대. 그렇게 하면 그 친구는 다시 이제 숨어서 안 나오겠지 그런 이야기를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GY, 청년당사자, 27세, 여, 장기고립생활 후 자립노력중)

“왜냐면 아직 이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없으니까. 단어 하나만 실수해도 사실 되게, 골든타임에 왔다고 하더라도 다시 들어가 버리고, 그러면 그제 또 몇 년이 될지 모르는 분야가 이 분야인 것 같아요.” (IY, 청년당사자, 28세, 남, 장기고립생활 후 자립노력중)

사회적 고립에 대한 제도화는 매우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 중첩되어 있는 어려움과 취약성에 대해 고려하여 전문적인 개입을 해야 하며 지속적이고 단계적인 회복 과정이 필요하다. 만약 임시방편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인 방식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질 경우 그에 대한 효과성은 담보하기 어려워진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은 현재로서는 고립을 경험한 당사자 위주로 구성이 되고 있거나 이 분야에서 오래 활동해온 민간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주지하다시피 장기화된 고립 상황은 여러 가지 취약성들이 중첩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개입이 필요하나, 현재는 개입에 대한 표준화된 매뉴얼이 없어 기관에 따라, 실무자에 따라 서비스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 서비스의 시행은 기관, 시설, 프로그램, 인력 등의 기준 마련 등을 통해 질적인 개선을 이루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 상담사가 누구냐. 선생님이 누구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이것이 쉽게 가면 되게 형식적으로 같 있는 일이기도 하겠지만 이제 또 쉽게 가지 않으면 되게 뭐랄까. 좋은 일로 발판이 될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솔직히 막 크게 우려한다고 했을 때. 이제 분명히 전국으로 한다고 하면 분명히 잘 되는 지역이 분명히 안 되는 지역이 있을 거라고 저는 100% 장담하거든요” (AY, 청년당사자, 27세, 여, 취업준비중)

③ 당사자 의견반영 및 당사자 중심적 지원

새로운 기회를 통한 재연결 방안 마지막은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정책에서 청년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고립 청년 관련 서비스들이 실효성 있게 발전하기 위해, 서비스의 궁극적인 목적이 청년 당사자의 권익향상이 되기 위해 필요하다.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당사자나 다른 친구들 입장에서 들어봤을 때 실효성 있는 이야기들이 별로 없을 때도 있어요. 어떤 파트의 이야기들은, 아니 이제 당사자를 빼고 논의하는 게 말이 되나? 그게 무슨 일이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IY, 청년당사자, 28세, 남, 장기고립생활 후 자립노력중)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지금 굉장히 제가 좋게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당사자들이 만든 회사들이 꽤 있어요. 뭐 주식회사 니트라든가 몇 개 있더라고요. 그들이 잡지도 발행하고 히키포스라는 잡지도 발행하고요. 뭐 그런 것들, 콘텐츠를 올리면서 인식 개선에 앞장을 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지원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IY, 청년당사자, 28세, 남, 장기고립생활 후 자립노력중)

당사자 중심적 지원이 되기 위해서는 정책의 수혜를 입는 사람들이 낙인찍히지 않는 방식으로 당사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동안 여러 정부 정책의 수혜를 입었지만, 세심하지 못한 방식으로 홍보를 하여 오히려 낙인이 심해지는 경험을 한 자립준비청년도 있었다.

“뭘 주든 말든 상관없는데 확실한 건 그거예요. 사회 인식이 좀 변해야 한다. 사람들의 인식이 좀 변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너무 제 친구들 중에서도 그런 기초 수급자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해주는

사람들이나 이해해주는 사람들도 많지 않고요. 특히 저희 또래 애들은요, 그것을 사람들을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저 같은 상황을 겪은 사람들은 알잖아요. 근데 사회적 소수자다 보니까. 공감해주는 사람도 적고 그래서 좀 인식의 변화도 필요한 것 같아요.” (FY, 청년당사자, 21세, 남, 아동양육시설 퇴소 후 대학재학중)

“정부를 까는 건 아니지만 큰 회사나 대기업 그리고 정부 같은 경우는 그냥 ‘사람을 도와주었습니다’, ‘뭔가 이런 제도를 추진했습니다’ 했을 때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만... 그 사람들이 진짜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걸까. 아니면, 인식 뭔가 좀. 이미지를 위해서 하는 걸까...(중략) 차라리 그 주변에 있는 지원받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샅대질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피해를 받는 것도 저인데 그런 것 때문에 참 그냥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괜히 미안하면서 뭔가 화나 기도 하고 내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서 받은 것도 아니고, 해주겠다고 해서 또 그게 선별이 돼서 받은 거잖아요.” (FY, 청년당사자, 21세, 남, 아동양육시설 퇴소 후 대학재학중)

이러한 지적은 우리가 ‘사회적 고립에 대한 사회적 대응’을 하면서 당사자들의 삶의 질과 권익증진을 위해 어떠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설계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게 만든다. 적어도 서비스의 설계에서 당사자들의 권익향상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정책의 실행과정에서 이들의 권익침해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무척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

3. 요약 및 시사점

이 장은 사회적 고립을 경험한 청년 당사자, 가족, 서비스 실무자들에 대한 면담을 통하여 사회적 고립은 어떠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고, 그 상태는 어떠하며, 악화되는 과정은 어떠한지, 부정적 영향을 막아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고립을 막기 위한 정책은 어떻게 설계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전체적으로 사회적 고립은 아동·청소년기뿐만 아니라 청년기에 경험하는 부정적 생애사건들에 의해서도 발생하며, 고립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더 상태가 악화될 수 있었다. 사회적 고립의 상태는 외부적인 교류와 연락이 줄어들고 점차 물질적, 심리적 교환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와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사자들은 이 시기를 거치며 외로움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사회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고립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었다(그림 IV-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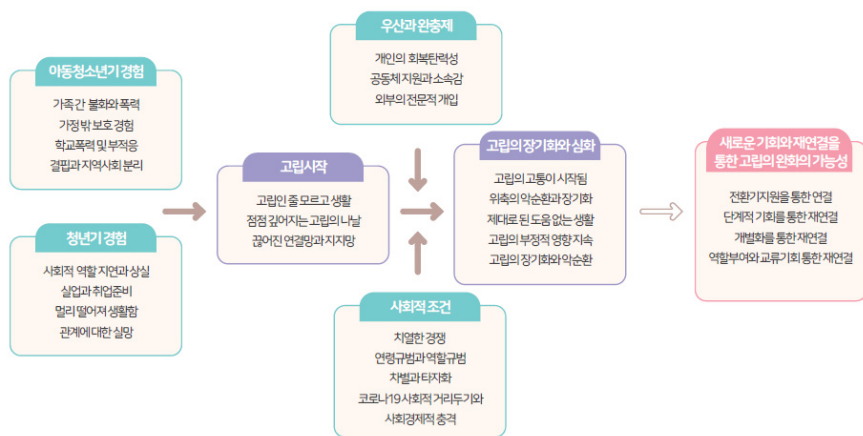


그림 IV-2 질적연구의 결과 도식

* 출처: 저자작성.

사회적 고립 원인은 개인적 기질과 특성, 아동기 부정적 경험, 청년기 부정적 경험 등으로 인해 나타나며 사회적 조건과 상호작용하며 발전할 수 있다. 아동기 부정적 경험은 가족 간 불화와 폭력, 가정 밖 보호 경험, 학교폭력 및 부적응, 결핍과 지역사회 분리, 게임중독과 중첩된 취약성 등이며, 청년기 부정적 경험은 사회적 역할 지연과 상실, 실업과 취업준비, 멀리 떨어져 생활, 관계에 대한 실망

등이었다. 이와 상호작용하는 사회적 조건은 치열한 경쟁, 연령규범과 역할규범, 차별과 타자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사회경제적 충격 등이었다.

사회적 고립이 나타나면 정신적인 고통도 함께 나타났고, 자기 스스로 제 역할을 못하고 나이 먹어간다는 것에 대한 부담과 타인들과의 비교에서 오는 위축이 함께 나타났다. 고립의 상황은 부정적 사고 등의 악순환에 빠지기 쉬우며 장기화될 경우 부정적 영향이 강화되어 나타난다. 고립의 위기에서 당사자들은 주변에 도움을 청하는 경우가 있으나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해 외부지원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는 경우도 함께 발생 한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의 고립의 결과는 외로움, 깊은 우울감, 삶에 대한 회의 등이며 미래의 관계와 역할을 포기하기도 한다. 사회와 다시 연결되어 나갈 수 있으나 이들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상처를 받고 다시 원상태로 돌아갈 수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하다.

고립을 막아주는 우산과 완충제는 개인의 회복탄력성과 소속감을 느끼는 공동체 등이며 외부의 전문적 개입이 도움이 되기도 한다. 가족은 고립을 촉진시키기도 하고 고립에서부터 보호하는 기제로 작용이 되기도 하는데 가족에 대한 지원도 함께 이루어져야 효과적일 수 있다.

재연결을 위한 사회적 방안은 전환기 지원, 단계적 지원, 개별화 지원, 역할부여 및 교류기회 지원 등으로 대별될 수 있으며, 이러한 지향을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대상 중심적 지원보다는 상태 중심적 접근, 제도화를 통한 안정적, 전문적 서비스 지원, 당사자 중심적 정책설계 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 — 제5장 국내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 법률 및 정책 분석

- 1. 개요
- 2.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 관련
법률 및 조례 현황
- 3. 중앙부처 정책 현황 및
지자체 정책현황과 문제점
- 4. 요약 및 시사점

1. 개요

사회적 고립은 전 연령에서 시작된다. 이 연구는 청년의 사회적 고립이라는 주제를 연구하고 있으나 앞선 양적, 질적 연구를 통해 사회적 고립에 대한 대응은 청년기에서만 이루어질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여기서는 청년의 사회적 고립 관련 법률 및 정책 분석을 시행하면서 생애전반기, 즉 아동, 청소년, 청년기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과 정책들에서 사회적 고립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이 작업은 매우 간단한 작업이었는데, 생애전반기를 다루는 법률과 정책에서 사회적 고립을 거의 다루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나마 최근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사회적 고립에 대한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 역시 아직 선언적인 의미에 그치고 있어 나아가야 할 길이 먼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장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사회적 고립은 다차원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법률 및 정책에서 사회적 고립을 잘 정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회적 고립’ 뿐만 아니라 ‘고립 청년’, ‘은둔형 외톨이’, ‘외로움’, ‘고립감’ 등의 단어와의 연관성도 함께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는 이를 상태 중심 개념(외로움, 고립감), 대상 중심 개념(고립 청년, 은둔형 외톨이, 은둔형 청년)으로 정의하고 분석하였다.

14) 이 장은 유민상 연구위원, 신동훈 부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작성하였다.

이 장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다음 절에서는 우리나라의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을 위한 법률 및 조례에 대해 살펴보고, 다음으로는 중앙부처 정책, 지자체 정책 등에 대해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생애전반기 아동·청소년·청년을 대상으로 한 기본법과 정책들에 사회적 고립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관련법과 정책들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를 정리한다. 마지막 절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사회적 고립을 지원하고 예방하는 법과 정책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발전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종합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2.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 관련 법률 및 조례 현황

1) 법률 주요 현황

(1) 생애전반기 대상 법률의 ‘사회적 고립’ 관련 조항 검토

여기서는 생애전반기의 아동, 청소년, 청년들의 삶의 질과 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법에 사회적 고립 대응에 관한 조항이 있는지를 살펴본다.

① 청년기본법 및 시행령¹⁵⁾

2020년 8월 시행된 「청년기본법」의 목적은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청년기본법의 기본이념은 “청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

15) 이 장에서 인용하고 있는 「청년기본법」과 「청년기본법 시행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2021년 10월 13일 검색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다(<https://law.go.kr/법령/청년기본법>, <https://www.law.go.kr/법령/청년기본법시행령>에서 2021년 10월 13일 인출).

으며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 종합적 청년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청년 개개인의 자질 향상과 능동적 삶의 실현”, “청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참여 촉진”,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에서 청년의 평등한 기회 제공”,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 마련” 등의 사항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청년기본법」 및 「청년기본법 시행령」에는 사회적 고립과 관련한 상태 관련 개념(외로움, 고립감), 대상 관련 개념(고립 청년, 은둔형 외톨이, 은둔형 청년)을 반영한 구체적 내용이 부재하다. 기본법의 포괄성을 고려하더라도 하위 법률이나 개별 법률을 통해 대상자를 특정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포괄적 측면에서 청년기본법은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청년기본법」에는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으로 제17조(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에서부터 제24조(청년 국제협력 지원)까지를 나열하고 있는데, 이 중 제21조(청년 복지증진)를 포괄적으로 적용해볼 수 있다. 즉 “청년의 육체적·정신적 건강 증진과 삶의 질 개선 등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의 개념에 사회적 고립 개념을 확대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청소년기본법」의 복지지원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청소년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과 같이 청년의 복지 향상에 대해 별도 규정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청년기본법」은 제8조에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시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청년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명시하고 있으나 법령에는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대상자나 상태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 않다. 향후 ‘취약계층’ 혹은 ‘취약한 상태’를 규정한다면 관련 정책이 출발하는 근거조항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표 V-1 「청년기본법」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 목록

제17조(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청년 일자리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8조(청년 창업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9조(청년 능력개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능력·재능·기술 등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창의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0조(청년 주거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1조(청년 복지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육체적·정신적 건강 증진과 삶의 질 개선 등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2조(청년 금융생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3조(청년 문화활동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4조(청년 국제협력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국제평화증진 운동과 국제협력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2021년 10월 13일 인출.

표 V-2 「청년기본법」 청년정책기본계획 수립 관련 조항(제8조)

제8조(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무총리는 5년마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2. 청년정책의 추진목표
	3. 청년정책에 관한 분야별 주요 시책
	4.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평가
	5. 청년정책에 관한 기능의 조정
	6.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
	7. 그 밖에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본계획에는 고용·교육·복지 등의 분야에서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청년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은 제13조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⑤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2021년 10월 13일 인출.

② 청소년기본법 및 관련법¹⁶⁾

「청소년기본법」은 1991년 12월 31일 제정되고, 1993년 1월 1일 시행되었다. 「청소년기본법」의 목적은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사회·국가·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청소년기본법」의 기본이념은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과 아울러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종합적 청소년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청소년의 참여 보장”, “창의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청소년의 능동적 삶의 실현”, “청소년의 성장 여건과 사회 환경의 개선”, “민주·복지·통일조국에 대비하는 청소년의 자질 향상”을 추진 방향으로 한다.

「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내에 사회적 고립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만 청소년의 권리와 복지의 기본 방향에서 사회적 고립 지원의 근거를 이끌어낼 수는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동법 제3조에 “청소년 복지”를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으로 정의하고 있고, 제5조에서 “청소년의 권리”에 대해 “청소년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기 발전을 추구하고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모든 형태의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것은 관련 근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복지와 관련한 구체적 사항을 「청소년복지 지원법」

16) 여기서 인용하고 있는 「청소년기본법」,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청소년복지 지원법」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2021년 10월 13일 검색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다(<https://law.go.kr/법령/청소년기본법>, <https://www.law.go.kr/법령/청소년기본법시행령>, <https://law.go.kr/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 2021년 10월 13일 인출).

(약칭: 청소년복지법)이라는 별도의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2004년 2월 9일 제정되고, 2005년 2월 10일 시행된 「청소년복지 지원법」은 위기청소년, 가정 밖 청소년, 청소년 부모 등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동법 제2조). 여기서 위기청소년이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의미하고, 가정 밖 청소년이란 “가정 내 갈등·학대·폭력·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으로서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의미하며, 청소년부모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인 사람”을 의미한다.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는 지원 대상을 특정하고 지원 체계와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으나 사회적 고립과 관련하여, 사회적 고립과 관련한 대상 중심 개념(고립 청년, 은둔형 외톨이, 은둔형 청년)이나 상태 중심 개념(사회적 고립, 외로움, 고립감)을 직접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못한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으로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명문화하고자 한 시도가 있었다. 2018년 12월 28일 제20대(2016-2020) 국회에서 발의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7892)은 “정의 규정에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 대한 개념을 추가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3년마다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현행법상 위기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지원 규정이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 대하여도 적용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을 보호·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 안은 사회적 고립 청년에 대한 제20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으나 기존의 청소년복지 대상을 사회적 고립 청년으로 확대하고자 했던 시도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표 V-3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안(의안번호 17892)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이란 사회·경제·문화적 원인 등으로 인하여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일정 기간 이상 외부와 차단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을 말한다.

제9조제1항 중 “위기청소년”을 “위기청소년 및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이하 “위기청소년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1조 중 “위기청소년”을 “위기청소년등”으로 한다.

제4장에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의 현황 및 실태 파악과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련 법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의 제목 중 “위기청소년”을 “위기청소년등”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중 “위기청소년”을 각각 “위기청소년등”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제1항 및 제2항 단서 중 “위기청소년”을 각각 “위기청소년등”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위기청소년”을 “위기청소년등”으로 한다.

* 출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2018.12.28., 권미혁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7892). 의안정보시스템 (likms.assembly.go.kr)에서 2021년 10월 13일 인출.

③ 아동복지법 및 관련법

아동 관련법은 기본법이 없는 상태에서 「아동복지법」이라는 형태로 출발하였다. 「아동복지법」은 1961년 12월 30일 제정되어 1962년 1월 1일 시행되었다. 「아동복지법」이 「아동복지법」으로 전부개정된 것은 1981년 4월 13일이며, 같은 날 시행이 되었다. 「아동복지법」은 이후 수차례 개정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오고 있다. 아동 분야는 청소년, 청년이 기본법을 가지고 있는 것과 달리 아동기본법이 제정되지 않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과 아동

관련법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아동복지법」의 목적(제1조)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이며, 기본이념(제2조)은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함”,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함”,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아동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짐” 등 4가지이다.

「아동복지법」에서도 역시 사회적 고립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만 아동복지법에서 다루고 있는 아동들은 아동기 부정적 생애 경험(adverse childhood experience)으로 인해 사회적 고립 위험이 높은 아동들이라 할 수 있다. 이 법에서는 보호대상아동, 지원대상아동, 아동학대 피해아동 등을 다루고 있는데, 보호대상아동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지원대상아동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경제적·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 아동학대 피해아동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 등을 의미한다.

「아동복지법」은 청년기 사회적 고립의 원인이 되는 가정 외 보호 및 대리 양육, 빈곤과 물질적 결핍,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에 대한 지원근거 및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법률들에 비해 사회적 고립 지원에 연관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대상 중심 개념(고립 청년, 은둔형 외톨이, 은둔형 청년)을 직접적으로 포괄하고 있지 못하고, 상태 중심 개념(외로움, 고립감)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지 못한 한계도 있다.

요컨대 생애전반기 대상을 포괄하고 있는 아동복지법·청소년기본법·청년기본법은 사회적 고립의 대상 중심 개념, 상태 중심 개념을 모두 포괄하고 있지 못하다. 포괄적으로 사회적 고립 관련 조항이 포함될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더 구체적인 법률 혹은 조항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법률은 생애전반기 아동·청소년·청년이 사회적 고립이라는 욕구(needs)를 가졌을 때 국가가 대응할 수 있는 수준으로 명시될 필요가 있다.

(2) 사회적 고립 지원 서비스 관련 법률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고립의 대상 중심 개념에 대응하는 법률(고립 청년, 은둔형 외톨이, 은둔형 청년)이나 상태 중심 개념에 대응하는 법률(외로움, 고립감)이 없다. 앞서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은둔형 외톨이를 포함하는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던 것처럼 「정신건강복지법」에 은둔형 외톨이를 포함시키고자 하는 시도도 있었다.

2019년 1월 17일 발의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8234)은 「정신건강복지법」에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원 서비스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본 입법안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실태파악과 서비스 제공을 하자는 면에서는 타당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나, 은둔형 외톨이를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의 차원에서 제공하는 것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정신건강 혹은 정신질환이라는 상태 중심에서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해서는 진단이 필요하지만, 진단기준 혹은 대상자 선정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것도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이 발의안 역시 제20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으나 기존의 법률에서 은둔형 외톨이를 포괄하고자 하는 노력 중 하나로 평가할 수 있다.

**표 V-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안(의안번호 1823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은둔형 외톨이”란 특별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 이상 자신만의 공간에서 외부와 차단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사회 활동이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제10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은둔형 외톨이의 인구학적·지역별 분포 현황 및 상담·치료 이력

제33조제1항 중 “정신질환자가 정신질환에도 불구하고”를 “정신질환자 및 은둔형 외톨이가”로, “정신질환자에게”를 “정신질환자 및 은둔형 외톨이에게”로 한다.

제34조제1항 및 제2항 중 “정신질환자”를 각각 “정신질환자 및 은둔형 외톨이”로 한다.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정신질환자”를 각각 “정신질환자 및 은둔형 외톨이”로 한다.

제36조 중 “정신질환자”를 “정신질환자 및 은둔형 외톨이”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정신질환자”를 “정신질환자 및 은둔형 외톨이”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정신질환자”를 각각 “정신질환자 및 은둔형 외톨이”로 한다.

* 출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19.01.17., 윤일규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8234).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에서 2021년 10월 13일 인출.

사회적 고립 대상에 대한 서비스는 예방, 발굴, 상담 및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 등 다양할 수 있다. 현재 국내 법률에서는 사회적 고립과 관련하여 명확한 내용을 마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은 기존 서비스 체계의 근거 법률을 참고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상담 서비스의 경우 「청년기본법」에는 구체적 조항이 없으나 「아동복지법」과 「청소년복지 지원법」에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 외에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위(Wee) 프로젝트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도 상담서비스의 근거를 확인할 수 있다.

「아동복지법」에는 아동 대상 상담서비스 자체에 대한 조항은 없으나 아동복지 서비스 제공자의 과업 및 서비스 제공 인력에게 상담 서비스의 과업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상담 서비스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서비스 민간전문인력,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등은 서비스

대상자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 법은 서비스 제공기관 취업의 자격기준을 부여하고 있고, 취업 제한기준도 함께 마련하고 있으므로 상담 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최소기준도 함께 마련하고 있는 의미가 있다.

다른 법령들과 달리 「아동복지법」에는 보호대상아동(제16조2), 아동학대 피해아동(제28조)에 대한 사후관리를 명문화하고 있는 점도 참고할만하다. 여기서 사후관리란 서비스 종결 이후 일정 기간 이후 사례관리를 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에 핵심적인 중장기적인 서비스 접근의 근거가 될 수 있다.

표 V-5 「아동복지법」 내 사후관리 서비스 관련 조항

제16조의2(보호대상아동의 사후관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 및 민간전문인력으로 하여금 보호조치의 종료로 가정으로 복귀한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해당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관리를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제28조(사후관리 등) ①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아동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③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보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2.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이하 “자산형성지원”이라 한다)
3.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4.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의 절차와 방법, 지원이 필요한 아동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2021년 10월 13일 인출.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는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로 상담과 전 설치 등(제12조), 상담 및 교육(제13조)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들은 서비스 대상을 모든 청소년 혹은 위기 청소년으로 명시해놓았기 때문에 사회적 고립 청년에 대한 서비스도 이 조항을 근거로 설정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법률이나 하위법령에서 사회적 고립과 관련한 대상과 상태를 더 명확히 규정해야 특화된 서비스의 수립에 도움이 될 것이다.

표 V-6 「청소년기본법」 내 상담서비스 관련 조항(제12조, 제13조)

-
- 제12조(상담과 전화 설치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청소년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상담을 위하여 전화를 설치·운영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운영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전화의 설치·운영 및 정보통신망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상담 및 교육)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청소년에게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상담 및 교육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 성실히 상담 및 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소득 이하의 가족 및 보호자가 제1항의 상담 및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2021년 10월 13일 인출.

학교 폭력은 사회적 고립을 유발하는 위험요인으로 2004년 1월 29일 제정되고 2004년 7월 30일 시행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 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를 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이다. 이 법률 제16조에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고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사건이 중단된 이후에도 피해가 장기화되는 것을 고려한 사후관리에 대한 근거 마련에는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표 V-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내 상담서비스 관련 조항

제11조의2(학교폭력 조사·상담 등)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과 사후조치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상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1. 학교폭력 피해학생 상담 및 가해학생 조사
 2. 필요한 경우 가해학생 학부모 조사
 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계획의 이행 지도
 4. 관할 구역 학교폭력서클 단속
 5.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민간 기관 및 업소 출입·검사
 6. 그 밖에 학교폭력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조사·상담 등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교육감 및 제2항에 따른 위탁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상담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라 조사·상담 등을 하는 관계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⑤ 제1항 제1호 및 제4호의 조사 등의 결과는 학교의 장 및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① 학교의 장은 학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실을 설치하고,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라 전문상담교사를 둔다.

- ② 전문상담교사는 학교의 장 및 심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의 상담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 학부모 등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구성한다. 이 경우 학부모는 전담기구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삭제 <2012. 3. 21.>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2021년 10월 13일 인출.

사회적 고립 대상들은 아동·청소년기 학업을 중단하는 사례가 있으며, 일본은 등교거부가 사회문제화 되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학업을 중단하는 청소년을 위한 법률이 마련되었는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2014년 5월 28일에 제정되고 2015년 5월 29일 시행되었다. 이 법은 「청소년기본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었고, 여기서 학교 밖 청소년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을 의미한다.

**표 V-8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내 상담서비스 관련 조항**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 제8조(상담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 진로상담, 가족상담 등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조(상담의 방법과 내용)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상담을 학교 밖 청소년과 그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법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통하여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은 대면상담, 전화상담 및 온라인상담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상담은 청소년의 심리, 학교 밖 청소년의 가족관계와 친구관계 및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 등에 관하여 실시한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2021년 10월 13일 인출.

이 법률에 근거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여기서 상담지원은 동법 제8조에 명시되어 있고, 시행규칙 제3조에 상담의 방법과 내용이 정해져 있다. 이 법률 역시 사회적 고립의 대상 중심 개념이나 상태 중심 개념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학교 밖 청소년은 사회적 고립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대상이므로 특화되어 지원할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체계는 아직 매우 초기 단계에 있으므로 본 근거조항이 정책을 통하여 잘 시행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교 내의 학교 상담 및 지원체계인 위(wee) 클래스, 위(wee) 센터, 위(wee) 스쿨, 가정형 위(wee)센터, 병원형 위(wee)센터 등의 위(Wee) 프로젝트는 「위(Wee) 프로젝트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해 운용되고 있다(교육부 훈령 제329호).¹⁷⁾ 위(Wee) 프로젝트는 “2008년 학교폭력·학업 중단 등 학교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위기요인들로부터 학교 구성원 모두가 학생을 보호하고 건전한 교육을 통해 건강한 마음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위클래스 홈페이지, 2021년 10월 14일 인출).

학교 안에 설치된 위(wee) 클래스는 부모나 학생이 상담을 의뢰했을 때 전문상담사를 통해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된다. 교육부 훈령 제329호에 따르면 위(wee) 클래스 장은 “학교 내 부적응 학생 예방, 조기발견 및 상담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교 내 부적응 학생 등에 대한 상담을 일차적으로 담당하며, 상담 내용 및 위기 수준에 따라 위(Wee) 센터, 위(Wee) 스쿨, 전문 상담기관 등에 학생을 의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17) 위 프로젝트 홈페이지(wee.go.kr)에 따르면 Wee는 We(우리들)+education(교육), We(우리들)+emotion(감성)의 합성어이다. Wee 프로젝트는 “나와 너 속에서 우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사람으로 지도하고, 학생에게 감성과 사랑이 녹아드는 위 공간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찾아내자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표 V-9 「위(Wee) 프로젝트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내 상담서비스 관련 조항

- 제4조(위 클래스) ① 위(Wee) 클래스가 설치된 학교의 장이 위(Wee) 클래스의 장이 된다.
- ② 위(Wee) 클래스의 장은 학교 내 부적응 학생 예방, 조기발견 및 상담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1. 위(Wee)클래스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적응 학생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한 계획 수립·시행, 통계관리, 평가 및 개선
 3. 학부모 및 교사에 대한 상담, 자문, 교육지원
 4. 학교 내·외 상담자원 및 유관 기관과의 연계·협력 활성화
 5. 학교보건법 제11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상담 지원
 6. 그밖에 학생 진단, 상담, 치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위(Wee) 클래스는 학교 내 부적응 학생 등에 대한 상담을 일차적으로 담당하며, 상담 내용 및 위기 수준에 따라 위(Wee) 센터, 위(Wee) 스쿨, 전문 상담기관 등에 학생을 의뢰할 수 있다.
- ④ 위(Wee) 클래스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문상담사' 등을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교육감 또는 교육지원청의 장 등은 '전문상담사' 등을 일괄 채용하여 위(Wee) 클래스에 배치할 수 있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2021년 10월 13일 인출.

사회적 고립 대상에 대한 예방적 지원에서 위(wee) 클래스는 좋은 전달체계가 될 구조를 갖추었다. 전문상담사가 학교에 상주하거나 몇몇 학교를 순회하면서 학생들과 부모에 대한 상담을 무료로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위(wee) 클래스의 설치 근거가 교육부 훈령에 기초해 있고, 세부적인 내용은 운영 매뉴얼 등을 통해 확대되고 있다. 이는 위(wee) 클래스의 운영 사항이 학교장의 권한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질적면담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위(wee) 클래스의 비밀보장 문제나 전문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에 대한 개선이 크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학생들의 신뢰 저하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질적면담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일부 전문교사 단체에서는 「학교상담법」이 제정되어 위(wee) 클래스 운영의 근거가 더 공고히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wee) 클래스의 안정적 운영과 이를 통한 위기 아동·청소년에 대한 초기 접근이 이루어진다면 사회적 고립으로 발전하는 위험요인을 감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조례) 주요 현황

청년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의 발전은 중앙정부에 비해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국회에서 「청년기본법」이 2020년 2월 제정되고 같은 해 8월에야 시행된 것에 비해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는 2015년 1월 2일에 제정되고 같은 날부터 시행되었다. 「청년기본법」의 제정 전부터 자치법규를 통해 정책 근거를 마련해왔던 지방자치단체들은 사회적 고립 지원에도 앞서 나가고 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는 기초 지자체 중 처음으로 2020년 10월에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 조례」를 마련하였다. 제주도는 광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고립청년 밀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였다. 광주광역시시는 2019년에 광역 지자체 중 처음으로 「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토대를 마련하였고, 부산광역시와 전라남도에서도 2021년부터 「은둔형 외톨이 지원조례」 제정·시행하였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서 사회적 고립과 사회적 고립 청년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여기서는 사회적 고립과 관련하여 청년의 사회적 고립을 지원하는 조례와 다른 인구 집단을 포함한 사회적 고립 조례를 우선 살펴보고, 대상 중심 개념으로서의 은둔형 외톨이 지원조례, 상태 중심 개념으로서의 외로움 지원조례를 살펴본다.

(1) 청년의 사회적 고립 관련 조례

청년의 사회적 고립에 대한 대응은 학계와 청년단체와 같은 민간부문에서 먼저 시작되었고, 지역사회에서의 노력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먼저 공식화되었다. 2021년 9월 1일 현재 사회적 고립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116개이며 이 중, 고립 청년에 관한 조례는 2개이다. 하나는 기초지자체

수준의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 조례」, 다른 하나는 광역지자체 수준의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고립청년 밀착 지원에 관한 조례」로 2019년과 2021년에 각각 제정되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V-10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고립 청년 관련 조례 현황

지자체	현황	내용	비고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제정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고립청년 밀착 지원에 관한 조례	2021.05. 제정 및 시행
서울특별시 양천구	조례제정	· 양천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2020.10. 제정 및 시행

* 출처: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s://www.elis.go.kr/>)에서 2021년 6월 3일 인출.

두 조례는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모두 간소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 조례」는 목적, 정의, 구청장의 의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본계획 수립 등, 시행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 등,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 포상, 시행규칙 등 총 11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고립청년 밀착 지원에 관한 조례」는 목적, 정의, 도지사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본계획 수립 등, 실태조사 등, 위원회의 심의, 자립지원, 평생교육지원,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등 지원, 자조모임 등 활동단체 지원,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협력체계 구축, 포상, 시행규칙 등 총 11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 조례의 주요한 차이는 두 가지이다. 첫째, 양천구는 실태조사에 대해 임의규정(~할 수 있다)으로 규정한 것에 비해 제주특별자치시는 강행규정(~해야 한다)로 규정한 것이다. 둘째, 양천구에 비해 지원 사업에 대해 제주특별자치시의 지원이 가족 상담 교육, 자립 지원, 여가 지원 등으로 구체화 된 것이다.

표 V-11 서울특별시 양천구와 제주특별자치시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 조례 주요 내용

주요 내용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시 사회적 고립청년 밀착지원에 관한 조례
목적	제1조(목적) 사회적 고립청년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사회 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하여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제1조(목적) 사회적이동이 힘든 청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 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정의	제2조(정의) “사회적 고립청년”이란...(중략) 사회적·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가족 등과 제한적인 관계만 맺고 지내며 1년 이상 장기미취업 상태인 사람으로서 사회진출 과정에 어려움을 느끼고 사회적 관계를 스스로 단절한 사람을 의미	제2조(정의) “사회적 고립청년”이란...(중략) 일정 기간 이상을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가족 등과 제한적인 관계만 맺고 생활하며 정상적인 사회 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의미
기본 계획 수립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지원정책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4.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 기본조례」 제6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사회적 고립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사회적 고립청년 실태조사 3. 사회적 고립청년 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 및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4. 사회적 고립청년의 고용 및 직업훈련 등의 지원 5.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6. 사회적 고립청년을 위한 자원 조달 7.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실태 조사	제7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 마련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사회적 고립청년의 현황 및 실태 파악과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지원 사업	제8조(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지원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사회공동체 참여 기회 및 활동 확대 제공	제8조(지립지원 등) ① 도지사는 사회적 고립청년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능력과 특성에 적합한 직업훈련 및 일자리 창출, 창업지원 등 고용

주요 내용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고립청년 밀착지원에 관한 조례
	사업 2.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 3.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 지원 사업 4. 응급상황 대처 등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 5. 주거 지원 사업 6.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사회적 고립청년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적성 검사 및 진로상담프로그램 2.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 3. 취업을 위한 상담 및 정보 제공 제9조(평생교육 지원) ① 도지사는 사회적 고립청년에게 「교육기본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될 수 있도록 행정시별로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사회적 고립청년을 위한 교육과정을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생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적 고립청년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등 지원) 도지사는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 외에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등의 영역에서 사회적 고립청년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지원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자조모임 등 활동단체 지원) ① 도지사는 사회적 고립청년 부모들의 자조모임이라든가,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사회적 고립청년의 발견·보호 및 지원을 목적으로 활동을 하는 단체 또는 사회적기업을 보호 육성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도지사는 사회적 고립청년에 대한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위하여 사회적 고립청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적절한 치유와 자립에 필요한 정보를 가족 및 보호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 출처: 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에서 2021년 10월 13일 인출.

(2) 전연령 대상의 사회적 고립 관련 조례

비록 청년의 사회적 고립과 관련한 조례는 두 개 밖에 제정되지 않았으나, 더 포괄적인 범위에서 사회적 고립을 다루는 조례들은 많이 있다. 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에 의하면 “사회적 고립”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했을 때 관련 조례는 2021년 9월 1일 현재 119건이 있으며, 폐지된 3개 지역 조례들을 제외하면 116건이 검색된다.

사회적 고립 관련 조례는 대부분 고독사에 대한 대응과 관련이 있다. 전체 조례 중에 “사회적 고립”이라는 키워드가 가장 처음으로 들어간 조례는 「구미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로 2015년 3월 11일 제정·시행되었다.¹⁸⁾ 이 조례는 목적에서만 사회적 고립이 언급될 뿐 사회적 고립과 관련한 별도의 조치가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이 조례는 혼자사는 노인들의 고독사 위험에 대해 사전적으로, 혹은 사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성격이 강하다.

이후 처음으로 조례명에 “사회적 고립”이 포함된 사례는 「서산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이며, 정의에 “사회적 고립가구”를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1인 가구를 말한다”고 규정하였다. 이 조례는 사회적 고립을 조례명에 포함시키고 처음으로 정의를 내린 의의가 있으나, 「노인복지법」 제27조의2를 근거로 하고 있어 노인에 한정된 조례라는 한계가 있다. 이후 2018년 7월 제정·시행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등에서 노인이 아닌 전체 연령으로 확대하여 사회적 고립 가구를 지원하도록 하였으나 1인 가구로 한정하여 지원하는 한계가 있었다.

18) 「서울특별시 중구 홀몸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가 사회적 고립이라는 키워드로 검색되는 최초의 사례로 2014년 9월 24일 제정·시행되었으나 2019년 8월 9일 폐지되었으므로 여기서는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구미시의 사례를 소개하였다.

표 V-12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고립 관련 조례 현황 (예시)

지자체	현황	조례명	비고
경상북도 구미시	조례제정	구미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2015.03. 제정 및 시행
충청남도 서산시	조례제정	서산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2018.04. 제정 및 시행
경기도 포천시	조례제정	포천시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2019.07. 제정 및 시행
충청북도 괴산군	조례제정	괴산군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1.04. 제정 및 시행
충청남도	조례제정	충청남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2021.07. 제정 및 시행

* 출처: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s://www.elis.go.kr/>)에서 2021년 6월 3일 인출.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에 대응하기 위한 조례는 전 연령에 대한 사회적 고립 대응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다. 사회적 고립 관련조례 중 서울시 중구, 관악구, 용산구의 경우 기존 조례가 폐지되고 새로운 조례를 마련하였는데, 모두 ‘홀몸노인’ 혹은 ‘홀로 사는 노인’이라는 특정 대상을 일반 대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였다.

사회적 고립 조례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기 위하여, 청년의 사회적 고립 관련한 두 가지 조례와 다른 사회적 고립 관련 조례들의 내용을 비교하기 위하여 단어의 빈도를 분석하여 도식화하였다.¹⁹⁾ 이 도식은 단어의 빈도에 따라 글자의 크기가 달라지는데, 분석 결과 청년의 사회적 고립 관련 조례는 ‘사회적 고립 청년’이라는 단어가 중점적으로 도출되고, 전체 사회적 고립 관련 조례는 ‘고독사’라는 단어가 중점적으로 도출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사회적 고립 관련 조례는 노인 고독사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기 위하여 제정되었고, 사회적 고립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지기보다는 혼자 사는 노인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대응하다

19) 질적자료 분석프로그램인 NVIVO를 활용하여 분석하였음.

(3)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사회적 고립 상태 중 가장 심각한 상태에 있는 대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움직임도 있다. 2019년 광주광역시에서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가 제정된 이후, 2021년 광주광역시 동구, 부산광역시, 전라남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등에서 은둔형 외톨이 조례가 제정되었다. 광주광역시 남구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의 입법예고 단계에 와있어 곧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서울특별시는 2017년부터 은둔형 외톨이 지원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찍부터 있었고, 2017년과 2020년에 조례가 발의되었으나 여전히 조례가 제정되지는 못하고 있다.²⁰⁾

표 V-14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은둔형 외톨이 관련 조례 현황

지자체	현황	조례명	비고
광주광역시	조례제정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2019.10. 제정 2020.07. 시행
광주광역시 동구	조례제정	광주광역시 동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2021.03. 제정 및 시행
광주광역시 남구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남구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 조례	2021.10.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조례제정	부산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2021.07. 제정 및 시행
전라남도	조례제정	전라남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2021.09. 제정 및 시행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제정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 조례	2021.09. 제정 및 시행
서울특별시	조례발의	서울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관련 조례	2020.10. 발의

* 출처: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go.kr)에서 2021년 10월 1일 인출.

20) 서울시에서는 이 보고서가 발간되기 직전인 2021년 12월에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 조례는 2021년 10월 14일 발의된 조례로 ‘은둔형 외톨이’를 ‘사회적 고립청년’으로 명칭 변경한 특징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서울시 조례를 다루지 못하였음을 밝힌다.

은둔형 외톨이 지원조례는 최근 재활촉진 조례라는 이름으로 제정이 되기도 한다. 광주광역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은둔형 외톨이를 지원하는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를 마련했고, 최근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에서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에 관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 조례」를 제정하였다. 이 두 조례를 비교해보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차이를 감안하고 서라도) 세부내용이나 정책에 큰 차이가 있지는 않다. 오히려 은평구 재활촉진 조례에는 실태파악이나 전달체계 구축 노력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구체성이 떨어지고 강행조항이 부족하여 상징적 의미로만 머무를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활촉진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인정하고 정책이 발전할 토대를 마련한 것에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표 V-15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둔형 외톨이 관련 조례 내용

주요 내용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둔형 외톨이 재활 촉진 조례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나아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경제·문화적으로 다양한 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정 기간 이상을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사회 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경제·문화적으로 다양한 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정 기간 이상을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인하여 사회 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기본 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해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주요 내용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둔형 외톨이 재활 촉진 조례
	한다. 1.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3. 은둔형 외톨이 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 및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4. 은둔형 외톨이의 고용 및 직업훈련 등의 지원 5.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 및 운영 6.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정보체계 및 지원 기반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7.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8.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자원 조달 9.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한다. 1.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 방향 2. 은둔형 외톨이 발생 예방 및 사회적 관계 활력 증진을 위한 사업 및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3. 은둔형 외톨이의 고용 및 직업훈련 등의 지원 4.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정보체계 및 지원 기반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5.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자원 조달 6.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실태 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의 현황 및 실태 파악과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1. 은둔형 외톨이의 인구학적·지역별 분포 현황 2. 성별, 연령 등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은둔형 외톨이의 상담·치유 현황 3. 은둔형 외톨이의 취업·직업훈련·소득·주거상태 및 복지서비스 4. 은둔형 외톨이 가족의 사회·경제적 상황 5. 그 밖에 시장이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 자치구청장 또는 그 밖의 관련 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그 밖에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없음)

주요 내용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둔형 외톨이 재활 촉진 조례
지원 사업	제12조(자립지원 등) 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능력과 특성에 적합한 직업훈련 및 일자리 창출, 창업지원 등 고용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가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적성 검사 및 진로상담프로그램 2.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 3. 취업을 위한 상담 및 정보 제공 제13조(평생교육 지원) 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에게 「교육기본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될 수 있도록 자치구별로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교육과정을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생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등 지원)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 외에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등의 영역에서 은둔형 외톨이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지원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지역사회 거주 및 치유·자립 등 통합 지원)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의 지역사회 거주 및 치유·자립 등 통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6조(주민의 자원 활동 등 지원) ① 시장은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은둔형 외톨이의 발견·보호 및 지원을 목적으로 활동을 하는 단체 또는 시설을 보호 육성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7조(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① 시장	제8조(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 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능력과 특성에 적합한 직업훈련 및 일자리 창출, 창업지원 등 고용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가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적성검사 및 진로상담프로그램 2.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 3. 취업을 위한 상담 및 정보 제공 4.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상담 및 협력 조성프로그램 5.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에 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주요 내용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둔형 외톨이 재활 촉진 조례
	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위하여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및 보호자는 시장이 상담 및 교육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 성실히 상담 및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8조(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이 은둔형 외톨이의 적절한 치유와 자립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전달 체계	제10조(은둔형 외톨이 지원센터) 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고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2. 은둔형 외톨이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체계적인 조사·통계 및 관련 연구에 관한 사항 3. 은둔형 외톨이의 치유를 위한 미술, 음악, 도시농업 등의 교육에 관한 사항 4.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및 관리 5.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의 운영을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은둔형 외톨이와 관련된 법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없음)

* 출처: 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에서 2021년 10월 15일 인출.

(4) 외로움 지원 조례

외로움 관련 지원 조례도 최근에 생겨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제정된 외로움 관련 조례는 4가지인데 기존의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관련 조례의 맥락에서 유사하게 제정된 것과, 외로움이라는 상태에 초점을 맞추어 제정된 것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기존 사회적 고립과 관련하여 외로움을 추가한 조례는 2019년도에 제정·시행된 「통영시 사회적 고립 및 외로움 방지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적 고립 및 외로움 방지 조례」를 들 수 있다. 두 조례 모두 ‘외로움 방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실제로 외로움 방지를 위해 추가된 조치는 없었다.

외로움이라는 상태 중심적 접근을 한 조례는 2019년 5월에 제정되고 같은 해 8월에 시행된 「부산시민 외로움 치유와 행복 증진을 위한 조례」, 「횡성군 외로움 공감과 치유를 위한 조례」가 있다. 이 두 가지 조례는 외로움에 대해 정의하고, 시민(군민)들의 외로움에 대처하기 위한 계획수립, 실태조사, 지원 사업들을 정의하고 있다. 비록 외로움 관련 조례는 청년에 특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기존 조례들이 노인을 주요 대상으로 수립한 것에 비해 이는 연령구분이 없으므로 더 포용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부산의 경우 ‘외로움 치유 센터’라는 전달체계 수립도 명시하고 있으므로 사업의 구체화 가능성도 있다.

표 V-16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외로움 관련 조례 현황

지자체	현황	조례명	비고
강원도 횡성군	조례제정	횡성군 외로움 공감과 치유를 위한 조례	2020.12. 제정 및 시행
대구광역시 수성구	조례제정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적 고립 및 외로움 방지 조례	2019.09. 제정 및 시행
부산시	조례제정	부산시민 외로움 치유와 행복 증진을 위한 조례	2019.05. 제정 2019.08. 시행
경상남도 통영시	조례제정	통영시 사회적 고립 및 외로움 방지 조례	2019.04. 제정 및 시행

* 출처: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go.kr)에서 2021년 10월 1일 인출.

표 V-17 부산시, 강원도 횡성군 외로움 지원 관련 조례 주요 내용

주요 내용	부산시민 외로움 치유와 행복 증진을 위한 조례	횡성군 외로움 공감과 치유를 위한 조례
목적	부산시민이 사회 속에서 느끼는 외로움과 이로 인해 받는 고통을 치유하고 행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 회복과 건전한 공동체적 삶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	횡성군민이 사회 속에서 느끼는 외로움을 공감하고 치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과 건전한 공동체적 삶을 실현하는 데 기여함
정의	“외로움”이란...(중략) 물리적으로 단절되거나 스스로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느끼는 고독한 감정 또는 이로 인한 고통을 말한다. “외로움 치유”란 외로움을 치료하고 극복하기 위한 물리적·사회적 지원을 비롯한 시의 모든 활동을 말하며, 예방을 위한 활동을 포함한다.	“외로움”이란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부적응적인 경험으로 인해 즐기지 않는 상태를 말하며, 정서적·사회적 관계 속에서 느끼는 부정적 심리상태를 말한다. “공감과 치유”란 다른 사람이 경험한 바를 이해하고 느끼며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물리적·사회적 지원을 비롯한 모든 활동을 말하며, 예방을 위한 활동을 포함한다.
지원 대상	(없음)	제6조(지원대상) 군수는 횡성군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 외로움 취약성 조사에 따른 위험군으로 분류된 사람 1인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사회복지기관, 주민 등을 통하여 인지된 외로움 위험군 -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실태 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부산시민의 외로움을 치유하기 위하여 외로움의 원인, 외로움으로 인한 사회적 병리현상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4조에 따른 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구청장·군수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 받은 구청장·군수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외로움 지표의 개발·활용)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부산시민의 외로움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외로움 치유를 위한 시책의 추진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표 개발에 관한 방법 및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외로움 공감과 치유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예방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 시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주요 내용	부산시민 외로움 치유와 행복 증진을 위한 조례	황성군 외로움 공감과 치유를 위한 조례
지원 사업	• 제7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부산시민의 외로움 치유와 행복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외로움의 원인 및 치유 등에 관한 연구 및 조사 지원 2. 외로움과 관련한 문제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사업 3. 외로움 치유 전문가 양성 교육 및 홍보 4. 제2호의 공모사업 결과 선정된 사업 5. 그 밖에 부산시민의 외로움 치유와 행복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구·군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사업)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검사·치료 2. 통합사례관리 및 서비스연계 3. 방문간호서비스 및 맞춤형 긴급복지지원 4. 황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 지원 및 연계 5. 공공복지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연계 6.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 7.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달 체계	• 제8조(외로움 치유 센터) ① 시장은 부산시민의 외로움을 치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부산광역시 외로움 치유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외로움 치유를 위한 전문가 상담 2. 생활·취미 등의 공유를 위한 공간 및 프로그램의 제공 3.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추진 4. 그 밖에 부산시민의 외로움 치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없음)

* 출처: 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에서 2021년 10월 13일 인출.

종합적으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재활촉진 조례 포함)와 외로움 관련 지원 조례의 주요 내용을 도식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은둔형 외톨이 지원조례는 비교적 다양한 내용들을 담고 있으나, 고립의 예방, 당사자의 발굴, 사후관리 등에

대한 내용은 부족하다. 당사자와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서비스 제공은 가족 구성원
에 대한 지원의 시각이 반영될 필요가 있으며, 자조집단 등 커뮤니티 형성 지원
역시 보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은둔형 외톨이’라는 용어가 지니고 있는 사후적
인 의미와 낙인 가능성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외로움 관련 조례는 상태 중심의 조례 제정으로 상당히 진일보한 조례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부산은 전달체계 구축까지 고려하고 있어 향후 정책의 발전이
기대된다. 다만 대구 수성구와 같이 고독사(고립사)에 대한 대응으로 출발할 경우
사전적이고 예방적인 측면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어 더 포괄적인 외로움 대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표 V-18 은둔형 외톨이 조례와 외로움 관련 조례의 Word Cloud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외로움 관련 조례
* 전국 2개 지자체 조례의 단어 빈도 분석 결과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에서 “고립 청년”을 검색하여 취합한 조례 대상, 2021년 9월 1일 기준).	* 주: 전국 116개 지자체 조례의 단어 빈도 분석 결과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사회적 고립”을 검색하여 취합한 조례 대상, 2021년 9월 1일 기준, 폐지된 조례는 삭제하였음).

3. 중앙부처 정책 현황 및 지자체 정책현황과 문제점

1) 중앙부처 정책

청년정책기본계획과 청년정책시행계획은 청년과 관련된 정부 정책을 종합하고 있다. 지난 2020년 12월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제1차 청년정책기본계획(2021~2025)’과 관계부처합동으로 2021년 초에 발표한 ‘2021년 청년정책 시행 계획’은 직접적으로 사회적 고립 청년을 정책의 대상으로 설정하지 않았지만, 이들이 특징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몇 가지 정책을 포함하였다. 구직을 사실상 단념하게 된 청년을 위해 상담과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신체 및 정신적 건강에 취약한 청년층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한 정책을 토대로 사회적 고립 청년을 지원할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관계부처 합동, 2021).

일자리 정책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2021)에서는 구직단념 청년을 발굴하고 고용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한 정책을 2021년 새롭게 신설하였다. 해당 사업의 일부로 추진 중인 ‘청년도전지원사업’은 특히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사업이 대상으로 하는 구직단념 청년은 취업, 학업 및 훈련 중 어느 활동도 하고 있지 않은 니트(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NEET) 가운데에서도 구직활동을 진행하고 있지 않는 상태의 청년을 의미한다. 이러한 청년의 경우 사회적 고립을 이미 경험하고 있거나 향후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 실질적으로 청년도전지원사업에서는 일대일 상담과 취업역량 개발 등으로 구성된 2-3개월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자의 자존감과 자신감을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나아가 곧바로 취업으로 연결되는 것을 기대하기보다 국민취업지원 제도로 연계하여 구직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고립 청년이 사회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으로 기능할 정책적

토대를 갖췄다고 볼 수 있다. 2021년 현재 14개 청년센터에서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 사업이 확대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아직 6주 간의 단기적 서비스만 제공하고, 청년센터 등 지원조직 및 실무자의 기준이 설정되지 않는 등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본격적인 니트 상태의 청년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표 V-19 제1차 청년정책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사회적 고립 청년 관련 정책 현황

분야	목표	과제	주요내용	소관부처
일자리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역량 강화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	- (청년도전지원사업) 구직단념 청년을 발굴하여 일대일 상담, 취업역량 개발 등을 포함하는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고용부
복지·문화	청년건강 증진	청년층 정신건강 서비스 강화	- (마음건강) 청년정신건강 특화사업(마인드링크 등)을 통해 청년 정신질환 초기발견·상담·치료까지 전주기 연계 - (마음건강)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과 청년 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마음건강 바우처 지원 - (자살) 고위험군 청년 대상, 초기상담 +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등 사례관리 + 심리적·경제적 지원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	복지부 및 여가부
		청년 신체건강 인프라 확대	- 모든 청년 대상 국가건강검진 무료 실시 - 17개 시도별 청년사업단 선정, 청년 눈높이에 맞는 신체·정신건강 서비스 개발·제공	복지부
	청년 취약계층 지원 확대	보호종료 청년 지원 강화	- (자립수당) 복지시설에서 보호가 종료된 청년(만 18세 이후)이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립수당 지원 기간 등 확대 검토 - (주거지원) 보호종료청년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매월 임대료 지속 지원 및 공공주거서비스 전국 확대	복지부
		청년정책 사각지대 해소	- (위기청년) 가출, 학교밖 청년(19~24세)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자립·교육서비스 제공 - (청년 1인 가구) 가족센터(전국 97개소) 중심 기초자치체·민간단체 협업체계 구축, 심리상담·커뮤니티 참여 등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여가부

* 출처: 관계부처합동 (2020). 제1차 청년정책기본계획.
관계부처합동 (2021).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

청년층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내용은 정신건강과 신체건강의 두 가지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와 같은 영역에 해당하는 정책은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지는 원인의 일부이자 그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의 완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성이 높다. 우선, 청년정책기본계획에서는 청년의 마음건강의 위기 신호를 초기에 발견하고 상담 및 치료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전주기적 연계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구체적인 방식으로 첫째, 일부 시·도에서 시행중인 정신건강과 관련된 특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이유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우울이나 불안 등을 예방하고 집중치료를 통해 일상회복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마인드링크’로 통칭되는 이 사업은 2012년부터 2019년까지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으로 운영되었으며, 2020년 7개 시·도와 2021년 12개 시·도로 확산되었다. 나아가 2022년에는 전국 17개 시·도로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정신건강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초기 증상을 발견해 개입하는 것이 특징적이므로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둘째, 청년층의 심리적 문제를 예방하고 정신건강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는 마음건강 바우처를 월 18만원씩 3개월 간 제공하여 지역사회에서 심리정서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고립과 고용 불안을 경험하는 청년이 증가하면서 2021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사업으로 소득 기준 없이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사회적 고립에 따른 심리정서적 영향을 정책 추진의 배경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사회적 고립 청년을 지원하는 중심적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마음건강 바우처는 지역사회서비스에만 활용할 수 있어 지역 간 자원의 불균형이 서비스의 양과 질의 차이로 이어질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개선의 여지가 있다.

셋째,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에서는 자살 고위험군 청년을 대상으로 상담과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심리적·경제적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응급실 기반 자살 시도자 사후관리사업을 고도화하고 수행기관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과 자살 유족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자살 고위험군이자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거나 이미 그러한 상태에 놓인 청년에 대한 지원과 대응을 능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사회적 고립 상태에 있는 청년은 신체건강상 취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정서적으로 고립감을 느끼고 야외활동을 극히 제한하는 경우 신체기능의 저하가 동반될 가능성이 크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모든 청년을 국가건강검진 무료 대상으로 포괄하여 지원하고, 다양한 처지에 놓여 있는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회적 고립이 신체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이 완화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고립의 상태에 따라서는 적극적 활동이 동반될 때 유용할 수 있는 신체건강 인프라 확대가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수 있다.

청년정책기본계획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사회적 고립의 원인은 다양할 수 있는데 복지시설에서 보호가 종료된 청년, 가출 또는 학교 밖 청년 등의 경우 사회경제적 단절로부터 취약하여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청년을 대상으로 자립수당 지원을 확대하고 주거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적 노력은 일정 부분 사회적 고립 청년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끊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청년 1인 가구는 특히 사회적 고립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제1차 청년정책기본계획에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중심이 되어 기초지자체 및 민간단체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심리상담과 커뮤니티 참여 등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구체적으로

는 온라인 소통 플랫폼을 구축해 자조모임을 운영하고, 요리나 운동과 같이 취미·여가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심리검사를 통해 요청되는 심리·정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대책을 통해 청년들은 다양한 사회안전망으로 진입하여 고립 위험요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청년정책기본계획에 담겨있는 이와 같은 정책은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거나, 이행하는 과정에 있는,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청년층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회적 고립 청년을 가장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청년 1인 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정책의 경우, 2021년 사업을 위한 정부의 별도 예산 없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한 지자체의 센터 운영비를 통해 프로그램 단위로 추진된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사회적 고립 청년의 경우 원인, 결과, 상태가 다양하고 복합적이어서 보편적 복지 차원의 접근으로는 심도 있는 고립을 예방하거나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고 정서적 고립 상태에 놓인 청년의 경우 정책에 대한 접근성이 현저하게 낮을 가능성이 크므로 정책의 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한 노력이 추가로 요청된다.

2)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사회적 고립 관련 정책

사회적 고립 청년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은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등에서 추진하는 정책에서 살펴볼 수 있다. 사회적 고립 청년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설정하는 정책은 드물지만, 사회적 고립 청년의 주요 특성에 해당하는 내용을 1인 가구와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정책 등에서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정책을 함께 다루었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지난 2019년 10월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를 가장 빠르게 제정하고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약 10만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349명이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채로 지낸 경험이 있거나 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광역시도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한 은둔형 외톨이의 인구학적 특성과 은둔생활의 계기 등을 토대로 향후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단계에 있다. 이에 따라 현재는 구체적인 사업단위로 지원이 이루어지기보다 청년상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과 같은 기관을 통한 서비스 위주로 지원이 전달되고 있다. 광주광역시의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와 실태조사는 대상자의 연령을 한정짓지 않고 있으나, 조사결과에서 당사자 237명 가운데 10대에서 3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80%로 높아 청년층을 위한 집중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임형문 외, 2020).

서울특별시 역시 지난 2018년 이래 사회적 고립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지속해 발의하고 있으며, 2019년 1월 ‘고립청년 밀착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청년이음센터 사업을 통해 사회적 고립 청년을 포함해 사회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사각지대의 청년들의 성장과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지원해왔다.²¹⁾ 서울시는 고립청년 종합서비스 지원사업을 펼치면서 2021년부터 고립청년과 은둔청년을 위한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고립청년 지원사업은 생명의 전화 복지관을 통해, 은둔청년 지원사업은 K2인터내셔널 코리아를 통해 시행 중에 있다. 기존 사업의 형태가 단년도 사업으로 이어져 한계가 있었으나, 지자체 청년정책 시행계획에서는 2025년까지 매년 400명 규모로 지원사업을 이어갈 계획도 구상되고 있어 향후 사회적 고립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제공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서울특별시는 타 시도로부터 전입한 1인 가구 청년의 활력을 증진하고 고립감을 해소할 목적으로 웰컴박스 지원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취약계층 청년의 의식주 생활과 건강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운영되었던 사업의 대상을 전입 청년으로

21) 서울시에서는 2021년 12월에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재설정하고, 2021년 5천 명을 지원하는 사업 규모를 2025년까지 1만5천 명을 지원 하는 것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웰컴박스를 통해 청년들은 중앙정부 및 서울시의 청년 대상 정책과 지역 생활 정보를 안내받게 되며, 서울시는 1인 가구 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청년 1인 가구 정책 설계의 기반을 마련한다. 다른 지역으로부터 서울시로 전입한 청년 1인 가구의 경우 기존 사회적 연결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점에서 고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이와 같은 지원사업을 통해 선제 대응할 수 있다. 다만, 지원 대상으로 사업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전입을 한정하고 있어서 신규로 편입되는 청년에 대한 사례관리만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청년 마음건강사업’을 지난 2018년부터 운영함으로써 학업, 취업, 직장문제 등 청년층이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스트레스 요인 등으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의 해소를 도모하고 있다. 소득 기준 없이 만 14세부터 35세에 해당하는 청년이 대상이며 유관기관 간 연계와 자조모임이나 집단프로그램 등의 운영을 통해 위험군 청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 및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21년 들어서는 은둔형 외톨이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는데, 설문이나 사례관리 등을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등의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많은 은둔형 외톨이가 사회적 고립도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지원 대상의 확대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집단상담이나 자조모임과 같이 주된 활동 내용이 그룹으로 진행되는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 고립의 심도에 따라 일대일 상담이 더욱 효과적인 경우도 존재하므로, 운영 방식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대전광역시에서는 청년 1인 가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목표로 2021년부터 ‘청년 1인 가구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청년 1인 가구의 고립감 해소를 기본으로 쿠킹클래스나 금융생활 강의 등을 제공함으로써 독립생활 역량강화와 사회관계망 구축을 동시에 도모하고 있다. 대전시는 2025년까지 매년 90회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형태의 사업의 경우 프로그램이 단발성으로

이루어지고, 보편적인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고립감의 심도가 깊거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사회적 고립 청년의 경우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어렵고 효과성 역시 높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표 V-20 지자체 사회적 고립 청년 관련 정책 현황

지자체	현황	내용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 운영	- 은둔형 외톨이의 인간다운 삶으로의 회복 지원 - 실태조사 및 심층면접 실시 - 청년상담소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을 통한 상담 제공
서울특별시	고립청년 종합서비스 지원사업	(고립청년 지원사업) - 사회적 고립 청년을 포함해 사회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의 성장을 지원하고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도모 - 사회적 관계망 구축, 청년-가족 자조모임, 진로코칭 및 재능탐색, 자립 및 취·창업 프로그램 지원 등 - 서울시 청년청의 지원을 토대로 생명의전화종합사회복지관이 중심이 되고 도봉서원종합사회복지관,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 등 다양한 기관이 지원 (은둔청년 지원사업) - 은둔청년들의 특성에 맞춘 개인별 자원서비스 지원, 발굴된 은둔 청년을 범주화하여 욕구 및 상태에 따라 개인과 가족의 역량강화를 도모함(당사자 모임, 부모 아카데미 등), 맞춤형 사례관리 등 서비스 제공, 심리적·물리적 접근성을 고려한 '찾아가는 방문 프로그램' 제공 - K2인터넷서널코리아가 담당하여 서비스 제공
	서울전입 청년 1인 가구 웰컴박스 지원사업	- 타시도로부터 서울시에 전입한 1인 가구 청년의 활력 증진 및 고립감 해소 목적 - 청년 대상 정책 및 지역 생활 정보 안내 - 1인 가구 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병행
세종특별자치시	청년 마음건강사업 운영	- 청년 정신건강 문제의 조기발견, 치료, 회복을 위한 기관 간 연계 및 프로그램 참여 등의 기회 제공 - 지원 대상자에 은둔형 외톨이 청년을 포함하여 심리치료프로그램 운영
대전광역시	청년 1인 가구 지원 프로그램	- 청년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예방 및 건강한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세 분야(독립생활 역량강화, 사회관계망 구축, 건강한 금융생활) 지원

* 출처: 광주청년센터 www.gjyouthcenter.kr/index 에서 2021년 2월 14일 인출.
 서울특별시 서울청년포털. youth.seoul.go.kr 에서 2021년 2월 14일 인출.
 서울특별시 의안정보. smc.seoul.kr/info/index.do 에서 2021년 2월 14일 인출.
 자치법규정보시스템. www.elis.go.kr 에서 2021년 2월 14일 인출.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서울, 부산, 대구, 인천). www.2030.go.kr 에서 2021년 9월 1일 인출.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광주, 대전, 울산, 세종). www.2030.go.kr 에서 2021년 9월 1일 인출.

4. 요약 및 시사점

법률과 정책은 지원의 근거가 된다. 이 장의 내용은 우리사회에서 사회적 고립에 대해 다루고 지원하는 근거가 얼마나 마련되어 있는지를 나타낸다. 근거가 미약하다면 누군가 법적, 제도적 근거가 미약한 상태에서 부족한 예산에 허덕이며 불안정한 사업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대상은 불안정한 사업에 의지해야 하는 고립 청년들일 것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의 근거 마련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중앙 수준에서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고립의 대상 중심 개념에 대응하는 법률(고립 청년, 은둔형 외톨이, 은둔형 청년)이나 상태 중심 개념에 대응하는 법률(외로움, 고립감)이 없다. 영국은 「Care Act 2014」를 통해 외로움(loneliness)을 하나의 사회적 욕구로 인정하고 서비스 수급 자격(eligibility)으로 부여하고 있고, 일본은 「어린이·청년 육성지원 추진법」을 통해 히키코모리 등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법률과 정책에는 사회적 고립 청년을 위한 프로그램 내용, 프로그램 제공인력 등에 대한 내용이 부재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더 장기적인 시각으로 포괄적이면서도 정교한 법률 및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보면, 지역사회 청년의 사회적 고립에 대응하고자 하는 노력이 시작되고 있어 긍정적이거나 아직 선언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지역의 고독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고독사에 대한 대응은 사후적일 수밖에 없다. 현재 증가하고 있는 고독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움직임 일지라도, 더 사전적이고 예방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한 사람의 생애주기별로 보면, 아동, 청소년, 청년기에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특히 아동·청소년기에 나타나는 고립에 대해서는 아무런 근거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정책과 서비스도 미발달되어 있다.

생태체계적인 수준에서 보면,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 부정적 생애경험(adverse childhood experience)을 하고 있는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개입근거가 아동학대와 가정 외 보호 등으로 매우 제한적이고, 학교 체계를 통한 지원은 위(Wee) 클래스 등의 지원근거 및 서비스 근거가 미약하여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다. 학교 밖 체계 역시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실행 수준에서의 사업 안정성과 전문성 등에는 어려움이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이는 추후 사회적 고립 아동, 청소년, 청년을 위한 별도의 체계 구상을 요할 수 있으므로, 별도 체계 구성에 대한 득실을 잘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사회적 고립 청년 관련 서비스가 법적, 제도적 근거가 미약한 상태에서 부족한 예산에 허덕이며 불안정한 사업을 하고 있다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대상은 불안정한 사업에 의지해야 하는 고립 청년들일 것이다. 사회적 고립은 어느 시기에나 발생할 수 있고, 사회적 고립의 위험요인은 개인을 둘러싼 삶의 다차원적인 영역에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에 서는 이에 대응하는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제6장 국내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 프로그램 사례

- 1. 개요
- 2. 민간기관 고립 청년 지원 프로그램 사례
- 3.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 사업의 성과, 한계, 대안
: 서울시 무중력시대 양천사례
- 4.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 사업의 지역화 특성
: 전주시 희망플랜 사례
- 5.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의 과정, 성과, 발전방안
: K2인터넷내셔널코리아 사례
- 6. 국내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 프로그램 사례 요약 및 시사점

1. 개요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고립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다. 민간재단과 지자체를 중심으로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사업을 진행 중이나 사회적 고립에 대한 일관된 정의가 없고 지원 프로그램의 마련도 기관수준에서의 시행착오를 통해 발전하고 있다. 사회적 고립 청년 내부의 이질성 혹은 다양한 스펙트럼(spectrum)을 고려한다면 현재의 고립 청년 지원사업들은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아직 먼 길을 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장에서는 민간 영역에서 진행된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사업들의 진행 경과, 한계에 대해 알아보고 대안을 마련해보고자 한다. 이 장은 여러 필자들의 참여로 이루어졌는데, 필자들은 현재까지 자신들이 경험한 시행착오를 기록하고 공유하여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 프로그램이 보다 개선된 형태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하였다. 필자들은 독자들에게 되도록 많은 정보를 전달해주기 위해 자신의 경험을 정리해주었는데, 이 때문에 이 장의 원고 내용은 때로는 에세이 같기도 하고 때로는 사업 매뉴얼 같기도 할 것이다. 우리는 이런 원고가 추후 사업을

22) 이 장은 외부 집필진으로 김광혁 교수(전주대학교), 문유진 대표(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오오쿠사 미노루 슈퍼바이저(K2인터내셔널코리아)가 참여하였다. 민간기관 고립 청년 지원 프로그램 사례는 신동훈 부연구위원이 작성하고, 개요 및 시사점 작성은 유민상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다.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유민상 연구위원, 신동훈 부연구위원이 수정, 보완하였다.

시작하고 연구를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보았다. 독자들이 이를 통해 현재까지 이루어진 니트청년 지원사업, 고립청년 지원사업, 은둔청년 지원사업 등의 시행착오와 경험을 배우고, 앞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생각을 떠올릴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것이다.

이 장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민간에서 진행하였던 사업들을 소개한다. 주로 청년재단, K2인터내셔널 코리아, 나들목 바나바하우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니트생활자 등에서 진행한 사업을 간단히 소개하였다. 둘째, 각 사업을 진행했던 주체들을 필진으로 두어 각 프로그램의 배경, 과정, 내용, 한계와 보완점 등에 대해 정리하였다. 서울시에서 이루어진 무중력시대 양천의 사회적 고립 청년 관련 사업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하고 한국사회복지관협회에서 운영했던 희망플랜 사업의 전라북도 전주시 사례, 서울시에서 이루어진 K2인터내셔널의 은둔청년 지원사업 등의 내용을 소개한다. 셋째, 이를 통해 지금까지 민간사업들에서 얻은 함의와 발전방안을 제시한다.

연구진이 면담한 고립 청년 지원사업의 실무자들은 기존의 청년단체의 사업이나 사회복지기관의 프로그램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한 내용이 무엇인지 정리함으로써 고립청년을 위한 실제적 서비스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2. 민간기관 고립 청년 지원 프로그램 사례

민간기관 및 NGO 차원에서는 사회적 고립 청년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다양한 형태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 및 지자체 정책이 사회적 고립 청년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보다 주로 1인 가구와 정신건강 지원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대조적이라 할 수 있다.

먼저 청년재단²³⁾은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2015년 설립되어 청년의 일자리 문제

해결을 목표로 청년의 일·경험지원, 열린채용, 멘토링, 대상 맞춤형 지원 등과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 고립 청년에 대한 지원 사업을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청년 체인지업과 고립청년 자립경험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청년 체인지업 프로젝트는 사회적 고립(은둔형 외톨이) 청년의 자존감 회복과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자립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기본목적으로 한다. 청년 체인지업 프로젝트는 취·창업 지원 이전 단계 또는 상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으로부터 비롯되었다. 계속되는 지원에도 일을 지속하지 못하는 사례를 청년 고용을 위한 여러 사업을 통해 꾸준히 관찰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청년들 일본에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은둔형 외톨이와 유사한 특성을 공유하고 있었던 점이 체인지업 프로젝트의 대상을 고립청년으로 설정한 계기였다.

청년재단은 일본의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례와 국내의 이와 관련된 지원사업에 대한 검토를 통해 생활경제교육과 공동생활프로그램을 주축으로 체인지업 프로젝트를 구성하여 초창기 사업을 운영하였다. 이 가운데 일본의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서 성과를 거두고 국내에서도 사업을 운영하고 있던 K2인터내셔널과 협업은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의 기반이 되었다. 다만, 일본의 문화에 적합하게 설계된 기존의 지원 프로그램(예컨대, 주어진 훈련 과정을 철저히 수행해야 하는 일본식 직업 훈련 방식)을 국내에 곧바로 적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 직업훈련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거나 훈련 과정 중 이탈자가 발생하는 등의 사례가 몇 차례 반복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프로그램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현재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공동생활, 관계형성, 심리안정, 부모교류회 등 청년의 상태에 따른 차별적 지원을 원칙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체인지업 사업은 참여자의 발굴, 면담을 통한 지원방향 설정, 자립 프로그램 제공, 사후관리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가족관계가 어렵거나 환경변화

23) 청년재단 사업내용은 실무자 면담과 사업설명을 위한 내부 자료를 토대로 작성되었음.

등이 필요한 경우 공동생활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이 과정에서 일과 사회적 관계 형성 경험을 쌓을 수 있다. 정서적 지원의 집중이 필요한 대상에는 1대1 상담을 제공하여 심리적 안정과 자존감을 고취할 수 있도록 돕는다. 최근에는 여기에 더해 직무와 진로에 대한 고민을 공유하고 그 과정을 통해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추가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부모교류회를 진행하여 지원의 대상을 폭넓게 설정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고립된 대상의 경우 개인과 함께 가족이 겪는 어려움이 크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창구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은 지원대상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나아가 부모교류회와 자조모임 등은 직접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대상자를 찾고 정책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청년재단은 고립 청년을 대상으로 2021년 새롭게 자립경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청년 체인지업 프로젝트가 취·창업 이전 단계를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고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자립경험 지원사업은 직접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와 사회 진입을 위한 기본 교육 및 활동 급여 등을 제공해 사회 진입 의지를 고취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올해는 고립을 경험했거나 고립 상태에 있는 청년 가운데 일경험을 희망하는 20명을 대상으로 하며, 이들에게 일경험 현장을 제공할 수 있는 일경험처를 함께 발굴하여 지원한다. 일경험처는 모집과 평가과정을 거쳐 16개가 선정되었으며, 이 중 15개가 비영리 단체에 해당하여 대상자에 대한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다. 일경험처는 6개월 간 고립 청년을 고용하고 인건비(183만원/월)와 운영비(30만원/월)를 지원받으며, 청년들은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역량강화와 업무수행 경험을 쌓을 수 있다.

사회적 고립의 원인과 상태가 다양하다는 점에서 자립경험을 지원함으로써 고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은 의미가 있다. 다만, 기존 청년 인턴 제도나 일경험 지원사업에서 청년들이 적절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수준에 맞는

일경험을 하고 있지 못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점은 이 사업이 경계해야 할 지점이다.

표 VI-1 민간단체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사업 현황

단체	주요사업	사업내용	지원프로그램
청년재단	청년채용사업 프로젝트	- 사회적 고립 청년 대상 - 자존감 회복 및 근로의욕 등의 고취를 통한 자립 지원	- 자립 프로그램 - 부모교류회 - 실태조사 실시
	자립경험 지원	- 사회적 고립 청년 대상 - 일경험, 직업훈련, 사회생활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 안정적 사회 정착 지원	- 일경험 및 개인역량 강화 교육
K2 인터내셔널 코리아	청(소)년 자립지원	- 은둔생활, 대화 거부, NEETs 등의 청(소)년 대상 - 사회능력 회복을 통한 자립지원	- 탈출지원 패키지 - 공동생활 - 내일내일 프로젝트 - 일하기체험
나들목 배너하우스	리커버리 센터	- 사회불안증 또는 정서적 취약성 등으로 인한 사회적 고립 청년 - 고립된 환경에서 벗어나고 사회적 고립으로 무너진 자신을 회복하기 위한 생활공간 및 프로그램 제공	- 리커버리 하우스 - 쿠킹런치 - 리커버리 예술단 - 리커버리 야구단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희망플랜	- 성인이행기(14세~24세)에 있는 취약 아동·청소년 가구를 대상 - 지역사회 지원체계를 활용한 역량강화를 통해 NEETs 비율 감소	- 대상별 역량강화 - 코칭 및 사례관리 - 연구조사
니트생활자	니트컴퍼니	- 니트 상태인 청년 대상 - 회사생활 요소를 활용해 니트 청년들의 생활패턴 개선과 사회적 관계 증진 등 일상 회복 도모	- 일상인증 - 새내동아리를 통한 교류 - 참여기간 성과 전시 및 소개

* 출처: 청년재단. <https://www.yhf.kr/changeup/indexPage.do> (2021년 2월 14일 인출).
 K2인터내셔널코리아. <https://k2-kr.com> (2021년 2월 14일 인출).
 리커버리센터. <https://www.the-recoverycenter.org/> (2021년 10월 14일 인출).
 희망플랜. <http://kaswc.webmaker21.kr/> (2021년 2월 14일 인출).
 니트생활자. <https://neetpeople.kr/> (2021년 10월 14일 인출).

K2인터내셔널코리아²⁴⁾는 사회적 기업으로 일본에서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이후 뉴질랜드와 호주, 그리고 한국 등에도 기관을 설립해 사회적 고립 및 니트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앞서 소개한 청년재단의 체인지업 프로젝트의 프로그램 구성의 일부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립청년 지원사업 운영을 담당하는 등 국내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주요 지원 대상은 은둔생활 중이거나 대화를 거부하는 상태에 있는 청년을 비롯해 NEETs 청년 등이다. 공동생활 쉼어하우스와 ‘슬로카페달팽이X시시:밥’과 같은 자립훈련 식당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립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공동생활은 K2인터내셔널의 특징적인 사업이라 할 수 있다. 기존 거주하던 환경에서 벗어나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는 타인과 교류하고, 공동생활 간 규칙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고립이 가족과의 갈등으로 인해 시작된 경우 환경의 변화를 줄 수 있는 공동생활은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공동생활 운영 경험이나 고립 경험을 가지고 있는 스태프와 밀접하게 교류할 수 있어 안정감을 주기도 한다.

나들목 바나바하우스²⁵⁾는 비영리 민간단체로 다양한 사회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 중 리커버리센터에서는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을 주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리커버리센터 역시 청년재단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K2인터내셔널과 유사하게 공동생활을 통해 고립된 환경에서 벗어나고 일상을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지만, 규칙적인 식생활, 생활규칙 준수, 정기모임 등에 참여하게 하는 등 공동생활훈련에 가깝게 운영되는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더불어 신체, 정서, 관계, 지적 건강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야구단 활동을 바탕으로 신체단련과, 팀워크 등을 익히도록 하는 등 외부활동을 통해 심신

24) K2인터내셔널코리아의 사업내용은 홈페이지(<https://k2-kr.com>) 및 청년재단 실무자 면담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 사례에서 추가로 다루었음.

25) 나들목 바나바하우스의 리커버리센터 사업과 관련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s://www.the-recoverycenter.org/>) 및 청년재단 실무자 면담 내용을 토대로 작성되었음.

회복을 도모하고, 인문·예술 등에 바탕을 둔 활동을 제공하여 정신건강을 증진함으로써 자립과 공생으로 이어지도록 돕는다. 또한, 함께 준비하고 요리한 음식을 나누는 과정에서 협업과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관계건강을 챙기며, 글쓰기, 견학, 교육 등을 통해 지적인 자극을 주어 회복에 이르게끔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다.

희망플랜사업²⁶⁾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운영된 사업이다. 서울, 광명, 부천, 부산, 대구, 원주, 전주, 광주 등 11개 지역에서 니트(NEETs) 문제 해결을 목표로 아동·청소년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 참여 등을 지원하였다. 희망플랜사업은 대상자를 발굴하는 작업부터 발굴된 대상자에게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였다. 사례관리와 상담을 통해 직업교육이나 심리정서 지원과 같은 서비스 수요를 파악하여,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도 함께 지원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의 자원을 발굴, 조직, 구축,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되었다. 구체적으로 개인에게는 진로·직업 교육 및 역량강화 훈련 등과 가족에게는 부모교육, 코칭 등이 제공되었다(노혜진 외, 2019).

일반적으로 정책 사업이 단편적이거나 단기간에 종료되는 것과 대조적으로 사업기간을 3년으로 설정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사업을 운영하도록 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특히, 취약한 배경을 가진 청년 니트 문제의 경우 사회적 고립 청년과 공유하는 특성이 많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복합적 어려움으로 인한 장기간 지원이 필요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적절한 사업 구조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현재 일부 지역에 한정하여 지방 사업으로 전환되어 사업이 유지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3년 이후 사업이 이어지지 못한 점은 기존 다른 정책 사업이 갖는 한계와 다르지 않다.

니트생활자²⁷⁾는 사단법인으로 주요 사업으로 니트컴퍼니를 운영하고 있다. 니

26) 희망플랜사업의 사례는 홈페이지(<http://kaswc.webmaker21.kr/>) 및 사업운영자 자문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다음 절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으로 다루었음.

27) 니트컴퍼니와 관련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s://neetpeople.kr/>)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되었음.

트컴퍼니는 회사생활 요소를 활용해 니트 청년을 대상으로 생활패턴 개선과 사회적 관계 증진 등의 일상을 회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니트컴퍼니 사업에 참여 지원 시 구직과정에서 압박이 될 수 있는 면접 과정을 반대로 수행하도록 하여 흥미를 유발하는 구성을 갖추고 있으며, 자발적 목표를 입사지원서에 작성하도록 하여 참여기간 동안 인증하도록 하는 등 참여자가 스스로 동기부여를 하고 활동을 이어가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이론 결과물을 전시 또는 소개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취미, 자격증 취득 등과 같이 관심사가 유사한 경우 서로 교류할 수 있도록 조직을 구성하는 등의 활동을 제시한다. 즉, 니트컴퍼니는 이와 같은 회사생활의 요소를 통해 니트 생활이 사회적 고립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지원하고, 사회로의 재연결을 추구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니트컴퍼니 프로그램은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단기간 프로그램 일부로도 활용되고 있다. 예컨대, 중앙부처 차원에서 추진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서대문구에서 구성한 프로그램에 니트생활자도 참여하여 변형된 니트컴퍼니를 운영하였다.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사업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이 시사하는 정책적 함의는 크다. 다만 전반적으로 사업기간이 짧은 특징은 사회적 고립의 정도에 따라서는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의 커리큘럼상 심도 깊은 전문적 상담이 가능하지 않은 점은 향후 개선이 필요한 지점이다.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사업과 프로그램은 은둔형 외톨이, 고립 청년, 청년 니트 등과 같이 지원 대상을 달리 표현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사회적 고립 청년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사회적 고립 청년에 대한 이해가 높은 편이고, 단체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고립 해소를 위한 접근을 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수 있다. 그러나 자원의 한계로 인해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체계 유지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과 성과의 확산이 제한적이라는 점은 한계로 작용하고 있으며, 향후 정책 입안 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다.

3.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사업의 성과, 한계, 대안 : 서울시 무중력지대 양천사례²⁸⁾

1) 무중력지대 양천의 고립 청년 지원 사업 수행 배경

서울시는 2014년부터 다양한 청년정책을 시행해왔다. 이후 「2020 청년보장」을 발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을 받는 시기를 지나 일자리를 찾기까지의 이행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와 더불어 거버넌스를 통해 하향식으로 이루어지던 정책 형성 과정을 상향식으로 바꾸어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고자 하였다.

무중력지대 또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청년들의 제안으로 설립된 청년공간이다. 청년공간은 2014년 서울시 청년허브, 2015년 무중력지대 G밸리를 시작으로 2016년 무중력지대 대방동이 개관하였고, 2017년에 무중력지대 양천이 무중력지대 중에서는 세 번째로 개관하였다. 이어서 무중력지대 도봉, 무중력지대 성북, 무중력지대 서대문, 무중력지대 강남, 무중력지대 영등포가 문을 열어 현재는 서울청년센터 금천오랑으로 변경된 G밸리를 제외한 6곳의 무중력지대가 운영되고 있다.

지역에 거점을 두고 있는 청년공간이 늘어나면서 공간을 기반으로 다양한 청년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 이전에는 카페를 배회하다가 청년공간이 생기자 센터에 하루 종일 머무르는 청년을 만나기도 하였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식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었다. 청년공간이 있기 전에는 지역사회 어디엔가 숨어있던 청년들을 청년공간이 생겨난 뒤에는 공간에서 만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취업이나 고용 문제로 축약되지 않는 다양한 형태의 청년 문제를 눈길을 돌리게 되었다. 경제적, 심리·정서적, 문화적, 인적 자원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사회적 자원의 결핍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다.

28) 이 절은 외부 집필진으로 문유진 대표(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가 작성하였다.

2)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의 무중력지대 운영 및 고립 청년 지원사업 운영경험 개요

본 연구의 서두에서도 언급하듯 ‘사회적 고립’에 대한 정의는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서울시에서도 ‘사회적 고립’이라는 용어는 2020년부터 사용하였기 때문에, 무중력지대 양천에서는 ‘고립 청년’을 ‘사회적으로 배제된 청년’으로 개념화하여 사업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 고립’을 ‘한 개인이 사회와 다차원적으로 고립된 상태’로 정의하였듯이 고립을 폭넓게 정의하고자 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무중력지대 양천에서 지원했던 ‘사회적 배제를 경험한 청년’, ‘고립 청년’, ‘니트 청년’을 모두 ‘고립 청년’으로 일컫고자 한다.

표 VI-2 무중력지대 양천의 사업 대상 ‘사회적 배제’의 개념

사회적 배제 분류	구성요소	측정지표
수입/자원	저소득	청년수당을 받는 경우, 일자리를 얻지 못한 경우, 부모로부터 독립한 경우, 단기 아르바이트 등 한시적 일자리를 수입의 원천으로 삼는 경우
	주관적 빈곤	주관적으로 선택한 필수 생활비와 실제 수입 비교
노동시장	실직 상태	퇴직, 학생 제외한 실업상태
	차별	여성 청년의 어려움
주거	주거 비용	높은 주거비로 비용 부담을 느낌
	주거 불안정	불안정한 주거, 거주 환경으로 인한 잦은 이사
서비스	기본적인 서비스 접근 결여 (금융, 서비스 등)	신용유의, 신용불량, 대출 제한, 학자금 장기연체, 학자금 장기미상환, 소득 부족으로 인한 카드(고금리) 대출 등
사회적 관계	사회적 활동에 비참여(고립)	사회적으로 필요한 활동 중 3개 이상 하지 못할 경우
	소외	매일 접하는 가족이나 친구의 부재
	지원	가사 및 정서적 지원의 부재
	이탈	경제문제로 인한 의도적 단절
	사회적 활동 제한	심리상태로 인한 사회활동 제한

* 출처: 정초원 외 (2018), 사회적 배제를 경험한 청년들에게 정책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p.10. 서울: 무중력지대 양천.

무중력지대 양천에서 진행했던 고립 청년 지원 프로그램은 다음 표와 같다. 무중력지대 양천은 2018년 용역 사업을 시작으로 사회적 배제 문제를 겪고 있는, 특히 고립된 청년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였다. 용역 사업을 통해 발굴된 고립 청년의 이야기를 연구로 엮어내었고, 사업 결과를 다음 해 사업에 반영하여 발전시켰다. 지역사회 안에서의 청년공간의 역할과 각 기관의 협력방안 모색을 위해 네트워크를 형성하였으며, 실제 지역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고립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표 VI-3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에서 수행한 고립 청년 지원사업

연도	사업명	유형	담당자수	예산(천원)	주관
2018	양천구 청년지원모델 시범운영	용역	2	16,000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2018	사회적 배제를 경험한 청년에게 정책이 미치는 영향	자체 연구	4	3,000	서울시 (무중력지대 양천)
2019	서서권역(강서·양천·영등포) 자치구 단위 청년지원모델	용역	4	31,000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2020	지역기반 사회적 고립 청년 밀착 지원 사업(네트워크 기관)	용역	1	5,000	서울시 (생명의전화 종합사회복지관)
2020	고용노동부 청년센터 희망멘토링 (취약계층 대상)	위탁	2(3)	30,000	고용노동부, 서울시 (무중력지대 양천)
2021	무중력지대 양천 자립역량강화 사업	자체 사업	2	2,160	서울시 (무중력지대 양천)
2021	고용노동부 청년도전지원사업	위탁	5	240,000	고용노동부, 양천구 (무중력지대 양천)

* 출처: 저자작성.

현재 서울시에 살고 있는 고립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정책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수당’, ‘청년도전지원사업’, ‘사회적 고립 청년 밀착지원사업’과 청년재단의 ‘청년 체인지업 프로젝트’ 정도이다. ‘고립 청년’만을 위한 정책은 아니지만, 고립 청년이 발굴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 것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경우 1유형에서 50만 원씩 6개월간 수당을 받을 수 있고,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쉽게 문을 두드리는 사업이다. 그러나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심리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곧바로 상담 서비스를 연결하는 것은 어렵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에서 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대기해야 하거나, 장기적이고 심층적인 상담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등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3) 고립 청년 지원 사업별 주요 내용

(1) 양천구 청년지원모델 시범운영

2018년에 수행했던 ‘양천구 청년지원모델 시범운영’ 사업은 양천구의 청년수당 참여자들을 지역에서 밀접하게 만나면서 청년들의 욕구를 파악하여 청년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계하는 것과 개별 청년의 특성에 맞게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 사업이다. 청년수당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 청년들의 원활한 구직 활동을 위해 6개월간 매달 50만 원의 수당을 지원하는 정책이다²⁹⁾. 졸업 후 2년이 경과하였으며, 미취업기간이 긴 청년이 청년수당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니트 청년에게 지역 사회 안에서 청년들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했다고 할 수 있다.

29) 서울청년포털 홈페이지(youth.seoul.go.kr)에서 2021년 10월 1일 인출.

표 VI-4 양천구 청년지원모델 시범운영 사업

사업기간	2018.08.01.~2018.12.13.
대상	2018년 청년수당 참여자 및 구직 청년
추진근거	서울시청년기본조례
수행주체	무중력지대 양천(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양천상상마당)
사업 추진구조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가 무중력지대 양천의 모법인과 수의계약, 인력은 뉴딜일자리로 총원

* 출처: 저자작성.

① 사업 개요

양천구 청년지원모델 시범운영 사업의 기간은 2018년 8월 1일부터 12월 13일까지이며, 2018년에 선정된 청년수당 참여자와 구직 청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지난 2016년 3,000명으로 시작한 청년수당은 2018년 7,000명까지 대상자 수가 확대되었다. 청년수당 참여자 수는 크게 확대되었으나 참여자를 지원하는 인력은 변화가 없었고, 결국 청년활동지원센터 매니저 1명이 수당 참여자 1,000명을 지원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에 자치구 단위에서 청년수당 참여자에게 정책 정보를 전달하고 욕구를 파악하여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자치구 단위에서 해당 자치구의 실정에 맞게 청년들을 지원하는 것의 가능성 여부를 판단해야 했다. 당시 필요성에 공감했던 ‘무중력지대 양천’, ‘무중력지대 성북’, ‘은평 청년 새싹공간’에서 ‘청년지원모델 시범운영’이라는 본 사업을 수행하게 되었다.

② 수행주체 및 구조

2018년 8월부터 진행된 본 사업은 수행 기간 자체가 짧았기에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가 무중력지대 양천의 수탁법인인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양천상상마당’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사업비 교부 및 집행이 이루어졌다. 한편,

기존에 1명이 1,000명을 지원해야 했던 인력의 문제는 서울시 뉴딜일자리 정책을 통해 매니저 2명을 채용함으로써 해결하고자 했다. 단기 일자리라는 한계가 있으나 시범운영 사업이었기 때문에 수용되었던 측면이 있다.

③ 프로그램 내용

프로그램은 ‘관계형성 지원’, ‘다양한 활동지원’, ‘취업 지원’, ‘정책 및 자원연계’, ‘자치구 특화지원’이라는 5가지 범주로 구성되었다. ‘식사’라는 일상을 함께 하며 청년들이 매니저의 존재를 인지하게 하였으며, 대면 모임을 통해 니트 청년을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양천구를 4개 구역으로 나누어 식사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거리상 제약을 없애고 누구에게나 접근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와 더불어 영화, 산책 또는 달리기, 클래식, 뮤지컬 공연 등과 같은 문화 프로그램, 양천구 내 운동시설을 활용한 실내운동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참여자를 이끌어내고자 하였다.

음악 심리상담을 통해 심리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청년들이 전문 음악치료사의 상담 프로그램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참여자 중 직접 강사가 되어 팀을 이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효능감과 자존감 향상을 기대하였으며, 참여자 간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효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그 외에도 일반적인 취업 모임과 더불어 개별 참여자 맞춤형 정책을 안내하고, 참여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지역 내 기관에 동행하여 방문함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표 VI-5 2018 양천구 청년지원모델 시범운영 사업 프로그램

구분	프로그램 내용	주기
관계형성 지원	어슬렁 반사회 동네모임 - 식사(도시락·맛집 탐방)모임, 취미생활(영화)모임, 운동 모임	주1회 또는 월1회
다양한 활동지원	문화 지원 프로그램 - 클래식, 뮤지컬 공연 관람, 한복 입고 경복궁 관람, 국립중앙박물관 관람	비정기적 (월2회 이상)
	심리 지원 프로그램 - 음악심리상담 프로그램	주1회씩 총 8회
취업 지원	취업 지원 프로그램 - 한국사 스터디, 현직자 멘토링	주1회
정책 및 자원 연계	주제 모임 - 노동법	사업기간 중 1회
	개별 정책 연계 - 상황에 맞는 정책 연계	상시
자치구 특화지원	지역 내 활동 단체 및 기관과 연계	비정기적 (월1회 이상)

* 출처: 저자작성.

(2) ‘사회적 배제를 경험한 청년에게 정책이 미치는 영향’ 연구 사업³⁰⁾

2018년 무중력지대 개관 이후 양천구 청년지원모델 시범운영 사업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청년들과 마주하게 되었고,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의 측면을 정리하고자 연구를 수행하였다. 무중력지대 양천의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청년들 중 장기간 사회활동을 하지 않거나, 빈곤, 관계의 어려움 등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는 청년들이 있었다. 이러한 청년들에게 정책 또는 무중력지대 양천 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이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30) 이 부분은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정초원, 문유진, 이진수, 노효진 (2018), 사회적 배제를 경험한 청년들에게 정책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서울: 무중력지대 양천.

위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표 VI-6 사회적 배제를 경험한 청년에게 정책이 미치는 영향 연구보고서 개요

사업기간	2018.10.01.~2018.12.31.
대상	무중력지대 양천 이용 경험이 있는 청년 중 사회적 배제를 경험한 만 19세~ 만 39세 청년
추진근거	서울시청년기본조례 및 무중력지대 양천 2018 사업계획서
수행주체	무중력지대 양천(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양천상상마당)
사업 추진구조	무중력지대 양천의 자체 사업으로 진행

* 출처: 정초원, 문유진, 이진수, 노효진 (2018), 사회적 배제를 경험한 청년들에게 정책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서울: 무중력지대 양천.

① 사업 개요

무중력지대 양천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이용 경험이 있는 청년 중 <표 VI-6>에 나타난 ‘사회적 배제’를 경험한 청년 10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분석한 결과를 보고서에 담았다.

② 수행주체 및 구조

무중력지대 양천의 자체 사업으로 수행하였으며, 양천구 청년지원모델 매니저 1인과 무중력지대 양천 직원, 그리고 공동 연구원으로 외부 연구원 2인을 위촉하여 진행하였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1980년생~1999년생 참여자에게 연구 취지를 설명하고 인터뷰 요청을 하였고, 인터뷰 전 연구의 목적과 핵심 개념, 연구 활용 방안 등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은 뒤 인터뷰를 진행했다.

③ 연구 내용

사회적 배제를 경험한 청년에게 정책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사회적 배제의 ‘정태적 측면’과 ‘동태적 측면’으로 나누어 인터뷰 내용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수입과 자원으로부터 배제되어 장기적 시각에서 구직활동을 하기보다 단기 아르바이트로 당장의 생활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청년, 학자금 대출과 생활비 대출 상환 부담이 있는 청년, 심리적 어려움을 치료하기 위해 부담해야 하는 비용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 있었다.

노동시장으로부터 배제된 청년은 현재 한국에 존재하는 사회안전망의 테두리 밖에 있는 일자리를 가지고 있거나, 연이은 구직 실패로 좌절한 청년, 장기 구직상태로 스펙을 쌓고 있는 청년이 있었다. 특히 여성 청년이 채용 시장에서 열악한 지위에 놓여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외에도 1인 가구의 주거 불안정 문제가 드러났으며, 경제적 측면의 어려움은 사회적 관계 측면에서도 고립 문제를 초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친구와의 만남을 피하거나, 스스로 단절시키는 사례도 찾을 수 있었으며, 10명 중 9명이 가족 또는 친구집단과 갈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다보니 주변 사람을 신뢰하기보다는 종교에 의지하거나 자력으로 극복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연구를 통해 알 수 있었던 것은 사회적 배제를 경험한 청년들에게 기존 고용 정책, 일자리 정책은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오히려 참여자들은 서울시 공간지원사업과,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자치구협력모델 시범운영 사업이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고 답하였다. 현금지원 또는 프로그램 지원으로 비용부담 없이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고, 자신을 지원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안정감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흥미로웠던 지점은 참여자들이 주로 정책에 접근하는 통로가 지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또한 하나의 정책에 참여함으로써 그 이후

다른 정책으로 연계되는 사례를 접할 수 있었다. 연구를 통해 알 수 있었던 정책적 함의는 청년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점, 정신건강에 대한 지원이 요청된다는 점, 정책 접근성 향상을 위해 접근 경로의 다차원화가 필요하다는 점 등이었다. 또한 청년 개개인을 밀착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보다 지역에서의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을 발견하였다.

(3) 서서권역(강서·양천·영등포) 자치구 단위 청년지원모델

2019년에 진행된 서서권역(강서·양천·영등포) 자치구 단위 청년지원모델은 2018년 양천구 청년지원모델 시범운영 사업과 같은 맥락에서 진행된 사업이다. 2019년에는 센터에서 ‘찾아오는 청년’들을 만나기보다, ‘찾아가서’ 청년들을 ‘발굴’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다. 특히 2018년 ‘사회적 배제를 경험한 청년들에게 정책이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발견되었던 원가정의 빈곤, 폭력경험, 청소년기의 부정적 경험이 청년기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바탕으로 심리지원을 특화 사업으로 선정하여, 전문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였다.

표 VI-7 서서권역(강서·양천·영등포) 자치구 단위 청년지원모델 사업

사업기간	2019.04.01.~2020.02.20.
대상	2018, 2019년 청년수당 참여자 및 청년 일반
추진근거	서울시청년기본조례
수행주체	무중력지대 양천(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양천상상마당)
사업 추진구조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가 무중력지대 양천의 모법인과 수의계약, 인력은 뉴딜일자리 및 용역계약으로 총원

① 사업 개요

2018년에 시범운영에 이어 본 사업은 2019년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8개 권역으로 나누어 용역사업으로 추진되었다. 권역은 서남권역(구로, 관악, 금천), 서서권역(강서, 양천, 영등포), 서북권역(서대문, 마포, 은평), 동동권역(광진, 송파, 강동), 동북권역(도봉, 노원, 중랑), 중부권역(중구, 동대문, 용산, 성동), 중북권역(강북, 성북, 종로)으로 구분되었다.

사업은 각 권역의 거점 공간을 중심으로 담당 매니저를 배치하여 해당 지역의 참여자 상태와 욕구를 파악하고, 참여자 맞춤형 정보와 자원을 연계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였다. 이와 더불어 각 지역 ‘특화매니징’ 대상을 설정하여, 특정 대상 또는 특정 주제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였다. 서서권역의 경우 심리정서 분야를 특화 주제로 우울이나 불안, 무기력에 노출된 저활력 청년을 발굴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과업으로 제시되었다(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2019).

② 수행주체 및 구조

본 사업은 유찰을 거쳐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가 무중력지대 양천의 수탁법인인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양천상상마당’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사업비 교부 및 집행이 이루어졌다. 지역 특화 대상 관리 및 지역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며, 심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감안해 인력은 2명에서 4명으로 증원하였다. 고용형태는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서울시 뉴딜일자리로,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2월 20일까지는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와 매니저가 용역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③ 프로그램 내용

지역에서 청년들을 만난다는 측면에서 큰 틀은 2018년 양천구 청년지원모델 시범운영 사업과 유사하게 유지하였다. 단, 2018년 사업과 차별화된, 주목할만한

프로그램은 ‘두시티톡’이다. 청년들이 정책 정보를 얻거나, 매니저와 만남을 필요로 할 때 찾아올 수 있도록 매주 동일한 요일과 시간에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또한 2018년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식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유입을 위해 ‘반찬 만들기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이외에도 경제적, 정서적 어려움에 노출된 경우 안정적으로 진로를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청년수당을 받는 동안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진로 전문가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2019년에 진행된 권역별 청년지원모델에서 중요한 부분은 청년들에게 정보와 지역 자원을 연계하였다는 것이다. 온라인으로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정보풍풍’, ‘이주의 청년정책’ 정보를 전달하였고, 자기활동 기록서를 분석하여 지역 자원을 연계하였다. 오프라인으로는 ‘우리동네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참여자들과 대면하여 매니저의 역할이 무엇인지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프로그램을 안내하였다.

지역 ‘특화매니징’으로 진행한 음악심리상담의 경우 2018년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상담 전·후 자기효능감 및 스트레스 척도지를 통해 상태를 진단하여 청년들의 변화를 측정하고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청년수당 참여자들에게 진행하는 심리정서진단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위해서는 ‘북테라피’ 프로그램을 통해 회복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집단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강사와의 신뢰가 원활히 형성되어 프로그램 종료 이후에도 청년들의 커뮤니티가 유지되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다.

표 VI-8 서서권역(강서·양천·영등포) 청년지원모델 사업운영 프로그램

구분		주요내용		
매니징	참여자 상태 및 욕구 파악	대면	생활지원 프로그램	두시티톡
				어슬렁산책
				우리의 작은 식탁
				월간고민상담소
			활동지원 프로그램	역량개발 프로그램
				네트워킹 프로그램
			진로지원 프로그램	자아/진로탐색 프로그램
				직종별 모임 프로그램
	대상별 지원 프로그램	연령별 지원 프로그램		
		특성별 지원 프로그램		
		어슬렁반상회 지원		
	비대면	자기활동기록서 모니터링		
참여자 대상 정보 및 자원 연계	온라인 자원 연계	정보포풍	이주의 청년정책	
			우리동네오티	
		오프라인 자원 연계	개별 정보 및 자원 연계	
	서서권역 참여자 관리	참여자 대상 소통 채널 개설·운영(카카오프러스 친구)		
		참여자 상시 사전 문의 응대		
	특화 매니징	심리정서지원	심리지원 프로그램	
자조 프로그램				
전문기관과의 연계				

* 출처: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2019). 『2019 서서권역(강서·양천·영등포) 청년지원모델 사업운영』 운영 제안요청서 (비공개문서).

* 출처: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2019). 『2019 서서권역(강서·양천·영등포) 청년지원모델 사업운영』 용역 제안요청서 (비공개문서).

(4) 지역기반 사회적 고립 청년 밀착지원 사업(네트워크 기관)

2018년부터 2019년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2020년에는 복지관과 함께 사회적 고립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갑작스럽게 발생한 코로나19

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에 차질을 빚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에서 대면이 어려워짐에 따라 고립 청년을 직접 만나기보다 고립 청년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사회적 고립 청년 밀착지원 사업’에 네트워크 기관으로 참여하였다.

표 VI-9 지역기반 사회적 고립 청년 밀착지원 사업(네트워크 기관)

사업기간	2020년 7월 10일 ~ 2020년 12월 31일
대상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에 관심이 있는 지역 내 유관기관
추진근거	서울시청년기본조례 2019 성북구 고립청년 지원사업 시범운영
수행주체	무중력지대 양천(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사업 추진구조	서울시 발주로 생명의전화종합사회복지관에 사회적 고립 청년 밀착지원 사업을 용역계약, 광역 네트워크 기관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복지국가청년 네트워크가 생명의전화종합사회복지관과 컨소시엄 계약을 체결

① 사업 개요

‘지역기반 사회적 고립청년 밀착지원사업’은 고립 청년을 발굴하기 위한 체계를 만들고, 지역 기반을 조성하여 청년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립 청년 지원 정책을 모델화하는 데 목적이 있는 사업이다(지역기반 사회적 고립청년 밀착지원 사업설명회). 무중력지대 양천은 사업을 홍보하고, 고립청년을 발굴하고 연계하며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획 사업을 개발 및 운영하는 네트워크 센터로 참여하게 되었다.

② 수행주체 및 구조

서울시 청년청이 전체 사업 운영지원과 관리감독을 담당하고, 중앙기관인 생명의전화종합사회복지관은 운영 총괄과 컨설팅, 연구사업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중앙기관이 용역사업을 수행할 사업운영기관인 거점센터와 광역 네트워크 기관인 네트워크 센터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구조로 사업이 추진되었다. 거점센터는 사업 전담인력을 1명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배분 금액 또한 1,900만원 이하로 정하였다. 한편 네트워크 센터의 경우 별도의 사업 전담인력이 배치되지 않았으며, 배분 금액은 500만 원 이하로 책정되었다.

③ 프로그램 내용

본 사업에서 무중력지대 양천은 강서·양천·영등포 지역의 고립 청년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에 서서권역 15개 기관과 MOU를 체결하고 협의체를 구축하였다. 또한 교육 책자를 발간하여 서울시 내 39개 기관에 배포하였다. 협의체를 구축한 15개의 유관기관에 대하여 고립 청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4회기 세미나를 기획하여 총 43명에 대한 교육을 완료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만남이 어려운 상황에서 청년과 직접적인 접촉이 없는 관내 기관들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것에 한계가 있었으나, 대면하여 만난 기관의 경우 향후 협력사업에 의지를 보였다. 이 사업의 경우 직접적으로 고립 청년을 발굴하는 성격의 사업은 아니었으나, 고립 청년을 연계할 다양한 기관을 엮어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무중력지대 양천에서는 고립 청년이 꾸준히 발굴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 사업 이전에는 고립 청년이 발굴된다고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구조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었다. 사회적 고립 청년 밀착지원 사업의 네트워크 기관으로 참여하며 연결된 다른 전문성 있는 기관들과의 연계를 통해 보다 쉽게

고립 청년을 발굴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전문 기관과 연계하는 것도 가능해졌다고 할 수 있다.

(5) 고용노동부 청년센터 희망멘토링(취약계층 대상)

고용노동부 청년센터 희망멘토링은 고용노동부 청년센터 사업의 일부로, 총 사업비중 3,000만 원을 반드시 취약계층 대상 사업에 할당하도록 되어 있다. 무중력지대 양천의 희망멘토링 사업 목표는 정책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청년정책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었다. 특히 2018년부터 연속된 사업을 통해 발굴된 청년들이 희망멘토링 사업을 통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자 했다.

표 VI-10 고용노동부 청년센터 희망멘토링

사업기간	2020년 9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대상	장기구직자, 저소득층, 니트(NEETs), 고립 청년 등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청년
추진근거	청년기본법
수행주체	무중력지대 양천(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양천상상마당)
사업 추진구조	서울시와 무중력지대 양천(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양천상상마당)이 컨소시엄으로 고용노동부로부터 공모를 통해 사업을 위탁

① 사업 개요

앞서 언급했듯 희망멘토링 사업은 독자적인 사업이 아닌 고용노동부 청년센터 사업 내 할당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청년센터 사업은 대학생 청년보다는 대학생이 ‘아닌’ 지역 청년을 우선지원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대학 일자리센터와 대상 측면에서 구별된다.

② 수행주체 및 구조

서울시와 무중력지대 양천의 수탁법인인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양천상상마당이 컨소시엄 협약을 체결하여 공모를 통해 고용노동부 청년센터 사업을 위탁받는 구조이다. 국비에 시비를 매칭하여 공모 신청을 하게 되고, 실질적인 사업 수행은 무중력지대 양천에서 이루어진다. 국비에 대해서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시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관리감독 역할을 수행한다.

③ 프로그램 내용

2020년에 시작된 ‘지역기반 사회적 고립 청년 밀착지원사업’을 수행하며 8월 말까지 협의체가 구성되었고, 협의체를 통해 취약 청년들이 연계되었다. 모든 프로그램을 1:1과 집단으로 나누어 진행하였으며, 보다 취약한 청년들을 1:1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프로그램은 크게 진로상담, 심리상담, 정책안내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심리상담의 경우 간단한 척도지를 신청시 작성하도록 하여 심리상담의 필요성이 확인된 경우 1:1 상담으로 연계하였다.

정책안내의 경우, 취약계층이 정책상담만을 위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 하에 공방 원데이클래스와 결합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코로나 상황에 맞게 집으로 재료 키트를 배송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함께 원데이클래스를 진행한 뒤 필요한 정책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기에 적합한 공간이 없거나, 프로그램에 필요한 기기를 갖추지 못한 경우나 학습이 느린 경우 모두 센터에 방문하도록 하여 매니저의 도움 하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고립 청년이 프로그램 참여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정으로 인해 참여를 포기할 것을 대비하여 이러한 내용은 참여자 선정 시 사전에 고지하였다.

(6) 무중력지대 양천 자립역량강화 사업

무중력지대 양천 자립역량강화 사업은 청년역량강화사업의 일부로 진행되었다. 2020년까지 사업을 추진하며 구축된 유관 기관과의 네트워크와 발굴된 취약계층 청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사회 참여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표 VI-11 무중력지대 양천 자립역량강화 사업

사업기간	2021년 2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대상	저소득층, 고립 청년,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 등 취약계층 청년
추진근거	청년기본법, 서울시청년기본조례, 양천구 사회적고립청년지원조례
수행주체	무중력지대 양천(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양천상상마당)
사업 추진구조	무중력지대 양천의 자체 사업으로 진행

① 사업 개요

2020년 지역기반 사회적 고립 청년 밀착지원 사업을 진행하며 형성된 네트워크를 토대로 고립 위험성이 높거나, 고립 상태에 있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기관과의 협력을 1차적인 추진방안으로 삼았다. 이에 서울시가정위탁지원센터와 협력하여 보호종료 시기에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② 수행주체 및 구조

무중력지대 양천의 자체 사업으로 수행하였으며, 기초 강의는 무중력지대 양천 직원이 직접 진행하였고, 심화 강의는 노무사, 공인중개사, 금융유튜버 등 전문가를 초빙하여 강의를 실시하였다. 참여자는 두 집단으로 나누어 유관 기관 연계 및 일반 참여 신청을 받는 방식으로 선정하였다.

③ 프로그램 내용

프로그램은 ‘독립퀘스트 Lv.1’와 ‘독립퀘스트 Lv.2’로 나누어 기초강의와 심화강의로 구성하였다.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의 모임에 찾아가 집을 구할 때, 일을 찾을 때 유의할 점과 금융 기초 상식에 대한 기초강의를 진행한 후, 보다 심층적인 지식을 얻고자 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문가 강의를 지원하였다. 사전에 기관 관계자와 참여 청년들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교류하여 청년들이 어떠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지 파악함으로써 청년들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전문가 강의 이전에도 참여 신청자들에게 질문을 받아, 질문을 중심으로 강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사와 소통하였다. 이후 자조모임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수동적인 강의 뿐 아니라 소그룹 모임을 통해 청년들이 스스로 자립을 준비하는 데 있어 막닥뜨리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7) 고용노동부 청년도전지원사업

고용노동부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코로나19 이후 취업의 어려움 또는 기타 삶의 어려움으로 구직을 단념한 청년들의 구직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21년 신설된 사업이다.

표 VI-12 고용노동부 청년도전지원사업

사업기간	2021년 5월 1일 ~ 2021년 12월 15일
대상	구직단념청년, 지역특화청년
추진근거	청년기본법
수행주체	무중력지대 양천(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양천상상마당)
사업 추진구조	양천구와 무중력지대 양천(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양천상상마당)이 컨소시엄으로 고용노동부로부터 공모를 통해 사업을 위탁

① 사업 개요

프로그램은 ‘밀착상담’, ‘사례관리’, ‘자신감회복’,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양친구맞춤형’ 총 6개의 모듈의 프로그램을 각 2시간 이상, 총 32시간 이상 이수하였을 경우 20만 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은 최근 6개월간 취업 또는 교육·직업훈련에 참여한 이력이 없고, 구직단념청년 문답표 응답 결과가 21점 이상인 만 18~34세 청년이다(청년도전지원사업 홈페이지). 또한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지역 특화대상’을 설정하여 각 청년센터에서 자체 사업계획에 따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 참여를 승인할 수 있다. 현재 청년도전지원사업에는 서울 4곳, 인천 2곳,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각 1개씩 총 14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② 수행주체 및 구조

본 사업은 양친구와 무중력지대 양친의 대표 수탁법인인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가 컨소시엄 협약을 체결하여 공모를 통해 고용노동부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위탁 받는 구조이다. 국비에 구비를 매칭하여 공모 신청을 하게 되고, 실질적인 사업 수행은 무중력지대 양친에서 이루어진다. 국비에 대해서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남부지청이, 구비에 대해서는 양친구가 관리감독 역할을 수행한다.

③ 프로그램 내용

무중력지대 양친에서는 프로그램을 심리특화, 진로특화, 취업집중 세 개의 과정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 사업 신청시 대상자 여부를 판단한 후, 1:1 상담을 통해 구직상태와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 등에 대해 파악한다. 상담내용을 토대로 심리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심리특화 과정으로, 진로탐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진로특화 과정으로, 취업준비에 집중이 필요한 경우 취업집중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4기부터는 심리특화, 취업집중 두 가지 과정으로 나누고, 선택과정을

추가하여 개인의 필요에 맞추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고립청년 지원 사업의 성과와 한계

(1) 주요 성과

① 고립의 다양한 양상 파악

2018년 양천구 청년지원모델 시범운영 사업을 수행한 결과 ‘관계형성 지원’ 17개, ‘다양한 활동지원’ 23개, ‘취업 지원’ 12개, ‘정책 및 자원연계’ 1개 및 상시 프로그램, ‘자치구 특화지원’ 3개 등 상시 프로그램으로 총 56개 유형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프로그램 참여자 수는 중복 참여자를 포함하여 총 276명으로 나타났다. 2019년 서서권역 청년지원모델 사업에서는 자체 프로그램 100회, 어슬렁 반사회 54회로 총 154회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어슬렁 반사회를 제외하고 총 653명의 청년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회에 걸쳐 진행함에 따라 다양한 욕구를 가진 청년들을 만날 수 있었고, 고립 청년을 발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② 고립 청년의 상태에 따른 지원 방법 매뉴얼화

고립 청년들은 각기 다른 욕구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연계할 때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집단프로그램부터 연계해야 하는 경우와 집단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경우를 구분하여야 한다. 고립 상태에 놓인 기간이 길었던 경우 곧바로 1:1 상담을 연계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경우 우선 미술심리상담, 공방 원데이클래스 등 가볍게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기관과 다른 참여자들에 대한 신뢰를 쌓도록 하였다.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에 안전한 공간이라는 신뢰감을 형성하고, 다른 참여자들과 라포를 형성한 후 필요시 1:1 상담 프로그램으로 연계하였다.

한편, 심리적 문제로 인해 집단프로그램 참여에 어려움을 느끼는 참여자도 있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프로그램을 1:1로만 진행할 수는 없지만 초기 상담과 심층 심리상담을 통해 심리적 문제를 일정 정도 해결한 뒤, 참여자와 소통을 통해 단계적으로 집단프로그램의 참여를 독려하였다. 이와 같이 청년들은 각기 다른 상황에 놓여 있으며, 다른 문제를 겪고 있기에 이를 면밀히 파악하여 적절한 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것이 고립 청년 지원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다. 무중력시대 양천은 고립 청년을 지원하면서 참여자의 특성별로 필요한 프로그램을 유형화하였다.

③ 지역 네트워크 구축

무중력시대 양천에서 고립 청년 지원사업의 성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지역사회에서 청년을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는 점이다. 고립 청년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의 존재를 알리는 것이 중요한 지점이라고 보았다. 이에 지역기반 사회적 고립 청년 밀착지원 사업에 네트워크 기관으로 참여하여 지역 기관들을 만나며 고립 청년 지원의 필요성과 무중력시대 양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설명하였다. 고립 상태에 놓인 경우 스스로 찾아오는 경우 뿐 아니라 지인을 통해 정보를 얻게 된다는 점에서 지역 기관은 청년 기관만으로 한정하지 않았다. 그 결과, 유관 기관의 고립 청년 연계 빈도가 증가하였으며,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이 스스로 찾아오는 사례 또한 늘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에 찾아온 청년이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자, 담당자가 무중력시대 양천에 연계하여 심리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사례를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다. 한 부모님의 경우에는 다른 기관에 찾아갔다가 해당 기관으로부터 무중력시대 양천을 추천받고 자녀와 함께 무중력시대 양천을 찾아오기도 했다. 3년 이상 고립 상태에 놓여 있었던 청년은 심리상담과 활력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었다.

고립 청년에게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함께 지원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각

기관이 상담, 활력제고, 취업지원 등 전문분야를 가지고 있기에 기관의 협력을 통해 고립 청년 지원이 가능해졌다는 점도 주목할만한 지점이다. 한 기관에서 모든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지역사회에서 고립 청년에 대응하기 위한 각 기관의 역할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다는 것이 무중력시대 양천의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 사업의 소기의 성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 한계

① 전문가 지원의 한계

심리적으로 고위험군인 경우, 폭력에 노출된 경우 등 전문가의 도움을 긴급하게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상시 대응 가능한 전문가가 없기에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고위험군에 대응이 가능한 전문가들은 비용이 높기 때문에 대상자의 수적 한계도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특히 우울, 불안, 자살시도 등에 대한 대응은 전문성 있는 대응이 매우 중요함에도 이러한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임상심리상담사의 경우 고비용으로 접근성은 낮다고 할 수 있다.

② 상시 대응체계 마련의 어려움

고립 청년은 발굴이 되었을 때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는 성과지표를 ‘양적’ 지표로 설계하다보니 대부분 수를 채우기 위해 ‘기수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소수 정예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힘든 실정이다. 기수제를 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다수의 참여자들을 한번에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이며, 개인별로 프로그램을 달리 구성할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고립 청년들이 외부 자원을 얻고자 용기를 내는 것은 다른 청년에 비해 어려운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립 청년이 유입된

경우 1주일 안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고립 청년의 프로그램 진입이 유효하며,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원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③ 정책의 불안정성

사업이 용역 또는 위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업의 단절 기간이 발생한다. 이는 담당자의 고용 단절이 수반되고, 이로 인해 사업이 새로 시작될 때마다 담당자가 변경되기에 전문성이 축적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사업 공고, 신청 및 선정까지 1~2개월이 소요되고 예산을 교부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의 공백기가 약 3개월간 발생한다. 고립 청년이 발굴되었을 때 바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정책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는 한 놓치는 청년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④ 사업 담당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체계 미비

고립 청년 사업은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초기 상담이 중요하며,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것이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사업 담당자의 고용 단절로 전문성 향상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이와 더불어 사업 담당자들에게 고립 청년의 개념과 특성을 이해시키기 위한 교육 시스템도 전적으로 개별 기관에게 맡겨져 있는 실정이다. 담당자의 고용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아 매년 다른 담당자를 새롭게 교육해야 하는 상황에서 매년 사업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다. 고용안정성 확보를 통해 사업의 발전적 방향을 담당자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며, 사업 담당자가 갖추어야 할 역량의 구체화와 역량 증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⑤ 단기적 관점의 고립 청년 지원정책

고립 청년의 경우 발굴하고 지원하는 과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예측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고립 기간에 따라, 심리적 건강 상태에 따라, 얼마나 중첩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지에 따라 각기 다른 지원을 필요로 하고, 회복되는 속도 또한 다르게 나타난다. 또한 청년들은 각기 이질적인 특성을 가진 존재이고, 고립 청년의 경우 획일화된 프로그램이 아니라 각 청년의 상태에 맞는 개별화된 서비스가 제공될 때 보다 효과성이 클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고립 청년 지원 정책은 참여 청년의 '수'가 가장 중요한 지표로 여겨진다. 앞서 지적했듯이 수적 목표가 사업의 주요 목표가 되어버리면 개별 청년의 특성에 집중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양보다는 질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성과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5) 고립청년 지원 사업의 발전방안

(1) 법적/제도적 측면

① 고립 청년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아직 고립 청년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만큼 고립 청년 지원 사업이 향후 안정적인 구조 속에서 운영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고립 청년의 개념을 명시하고, 고립 청년을 지원하는 주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을 담당하는 부처를 지정하여 고립 청년 실태조사와 고립 청년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고립 청년 지원의 효과성 확보를 위한 제도 마련

우선 고립 청년을 발굴하기 위한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이다. 사업을 담당하는 기관이 개별적으로 청년을 발굴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적은 예산으로 효과적인 홍보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고립 청년이 발굴될 수 있도록 전국 복지관, 고용센터, 특성화고등학교, 아동보호기관 등 유관 기관 관계자들이 고립 청년 지원 사업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지인의 추천을 통한 고립 청년 발굴이 이루어지기 위해 대시민 홍보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고립 청년을 지원하는 담당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이 절실하다. 담당자는 고립 청년의 발굴부터 사례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쳐 청년과 소통하는 주체이다. 따라서 상담을 하고 청년의 욕구와 상태에 맞는 정책 또는 프로그램을 찾아 지원하는 역할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고립 청년 지원사업 담당자가 갖추어야 할 역량을 분석하고, 담당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과정의 제도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2) 사업적 측면

① 장기적 관점의 사업 추진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이 설계되고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2018년에 무중력시대 양천에서 발굴된 고립 청년이 현재까지 프로그램 참여자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청년을 고립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는 데 실패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고립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고, 주변의 지원 등 여건이 되는 경우에는 단기간 지원으로도 충분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 6개월~1년 단위의 프로그램으로 완전히 고립을 탈피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프로그램을 통해 고립 상태에서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다시 고립되는 경우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례관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사후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처럼 고립 청년을 지원하는 사업이 1년 단위 프로젝트성 사업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장기 사업으로 추진되는지 여부는 향후 고립 사업의 성패를 결정짓는 주요 요인이 될 것이다.

② 지역사회, 전문가와의 협력

법적, 제도적 노력과 함께 장기 사업으로 추진이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고립 청년에 대한 지원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그리고 전문가와의 협력

이 필요하다. 이미 지역사회에는 복지관, 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소 등 전문성을 갖춘 기관들이 다수 존재한다. 하나의 기관이 모든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역할분담을 통해 각자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전문가와의 협력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부분이다. 단기 교육을 통해 형성되는 전문성도 있지만, 심리·상담과 같이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형성된 숙련이 중요한 분야도 있다. 청년과의 친밀감이나 접촉 횟수가 중요한 부분과 전문성이 중요한 부분을 구별하여 지역사회 유관 기관과 전문가와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4.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 사업의 지역화 특성 : 전주시 희망플랜 사례³¹⁾

1) 전주시 고립 청년 현황 및 희망플랜 도입 배경

(1) 전라북도의 높은 빈곤율

전라북도는 전국적으로 청소년·청년의 빈곤율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오랜 기간 높은 수준의 청소년·청년 빈곤율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에 따라 빈곤 밀집 지역이 다수 존재하며, 빈곤 고착화 현상이 심화된 지역도 적지 않다. 이로 인해 청소년·청년의 학업 성취를 비롯한 발달 수준이 매우 낮고, 아동학대 발생률은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며, 청소년·청년의 자살률 역시 전국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은 지역 차원의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을 드러낸다. 그러나 지역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 수준을 보이는데다가 복지 정책, 특히 청소년·청년 정책에 대한 정책결정자들의 인식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은 정책 추진에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지역 자체적인 예산으로

31) 이 절은 외부 집필진으로 김광혁 교수(전주대학교)가 작성하였다.

특성화된 청소년·청년 정책이 타 지역에 비해 매우 적은 실정이다. 이러한 사정으로 지역의 청소년·청년의 인구 유출 역시, 매우 높은 상황이다.

(2) 저소득 밀집 지역 전주시 평화동

전라북도의 이와 같은 특성은 특정 지역 또는 마을에 집중되어 나타나거나 고착화되어가고 있다. 전주시는 전북 지역의 도시 빈곤 문제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이며, 특히 희망플랜 사업이 시행된 전주시 평화동 지역의 경우, 30여 년 전에 대규모 영구임대아파트 단지가 형성되어 전북, 전주 지역의 대표적인 저소득 밀집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오랜 기간 저소득 밀집지역으로 남아 있는 전주시 평화동은 지역 빈곤으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가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소위 빈곤 문화가 지역 차원에서 형성된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이로 인해 다양한 주체들에 의한 여러 사회적 지원이 이루어져 왔으나, 지역 빈곤으로 인한 사회문제는 여전하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특히 청소년·청년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사업은 매우 드문 것으로 판단되며, 고립 청소년·청년을 대상으로 한 사업은 그 인식조차도 부재한 상황으로 평가받고 있다.

(3) 평화동에 위치한 평화사회복지관

전주시 평화사회복지관은 1992년 설립 이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저소득 밀집 지역인 평화동에서 30여 년간 지역복지활동을 수행했다. 최근에는 저소득층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강화하면서, 지역의 여러 복지관 중에서 아동과 청소년 사업에 대한 사업 역량을 탄탄하게 축적했다. 이에 저소득 청소년·청년을 대상으로 한 전국적 규모의 사업(희망플랜)이 시행되었을 때, 지역 내에서는 사업을 충실하게 수행할 적임 기관으로 평가받았다.

(4) 저소득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희망플랜 사업

전라북도 지역의 낮은 재정자립도와 높은 빈곤율, 그리고 이러한 빈곤 문제가 집약된 지역인 전주시 평화동은 다양한 지원 사업이 시행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청년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사업은 부재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한국사회복지관협회가 공동으로 수행한 ‘희망플랜’ 사업은 전주시 평화동, 그리고 평화복지관 입장에서는 매우 필요한 사업이었다. ‘희망플랜’은 전국 11개 지역을 선정하여 선별적으로 3년 간 지원하는 시범 성격의 사업으로, 전라북도 지역 내에서도 2개 기관이 이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경쟁한 결과, 전주시 평화동에 위한 평화복지관이 ‘희망플랜’ 사업에 선정되었다.

2) 희망플랜 사업 개요³²⁾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한국사회복지관협회의 ‘빈곤의 대물림 차단’ 사업은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해야 한다는 우리사회의 핵심적 의제에 기반한 지원 사업이다. 기존 사업과 희망플랜 사업의 가장 큰 차이는 지원 대상의 확장이다. 아동에만 초점을 맞췄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청소년 및 초기 청년기에 이르는 기간을 사업의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여기에는 아동·청소년·청년기 사회경제적 경험 인생애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과 이 시기 불안정성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니트 청년의 증가와 같은 사회적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전제되었다.

희망플랜 사업은 이와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가정, 학교, 지역사회와의 연결을

32) 희망플랜 사업 개요는 다음의 두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이봉주, 박미희, 남기철, 노혜진, 이신혜, 이성학 (2018). 배분의제 2-3차년도 성과평가(빈곤) - 니트 (NEETs)청년 지원을 위한 ‘희망플랜’사업.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사회복지관협회 (2019). 성인이행기 빈곤아동·청소년 발달지원사업-희망플랜 연구보고서. 서울: 한국 사회복지관협회.

사업의 핵심 활동으로 설계하였다. 또한, 연령대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한 점이 특징적이다. 구체적으로 만 13-18세 청소년들의 경우 가정과 학교 간 연계성을 강화하는 지원 속에서 진로 및 적성을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참여하였다. 청소년의 수요에 따라 제한되는 활동 없이 전방위적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부모교육이나 코칭 등 가족에 대한 지원으로 확대되기도 하였다. 청년기에 해당하는 만 19-24세 연령층에게는 상급학교 진학이나 교육 및 훈련과 같이 성인 이행기 과업으로 구분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지원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역시 개인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가족상담이나 가족의 경제활동 지원과 같은 가족에 대한 지원도 함께 제공되었다.

나아가 희망플랜 사업은 당사자와 가족을 넘어 지역사회의 조직화 및 지역문화 개선 차원의 지원도 추진하였다. 빈곤 대물림 방지를 위한 기초 아래, 지역의 자원을 발굴 및 연계하고 지역의 활동가를 양성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현안에 조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도모하였다. 이는 단기적으로 사업 참여 대상자에 대한 효과적인 모니터링 및 지원과 관련되며, 장기적으로는 지역문화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3) 희망플랜 운영의 주요 내용³³⁾

(1) 사업명

‘희망플랜’ 사업으로 불린 이 사업의 공식 명칭은 ‘성인이행기 빈곤아동·청소년 발달지원사업-맞춤형 통합사례관리를 통한 빈곤 대물림 차단 프로그램’이다. 이

33) 희망플랜 운영의 주요 내용은 다음의 두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이봉주, 박미희, 남기철, 노혜진, 이신혜, 이성학 (2018). 배분의제 2-3차년도 성과평가(빈곤) - 니트(NEET)청년 지원을 위한 ‘희망플랜’사업.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사회복지관협회 (2019). 성인이행기 빈곤아동·청소년 발달지원사업-희망플랜 연구보고서. 서울: 한국 사회복지관협회.

를 사업 참여자들이 쉽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기 쉽도록 ‘희망플랜’이라 칭하였으며, 평화복지관에서는 ‘희망플랜 평화센터’로 칭하였다.

(2) 사업 대상

희망플랜 지역센터 사업의 지원을 받는 대상자는 크게 연령에 따라 만 13세~18세의 청소년, 만 19세~23세의 청년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가족 소득을 조건으로 빈곤 계층의 자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사업 참여에 동의한 참여자 100여 명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사업 지원이 이루어지며, 정해져 있는 자원 내에서 효율적인 사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희망플랜 지역센터가 소속되어 있는 지역사회복지관의 범위 내에서 거주하는 경우로 한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사업의 대상은 성인이행기 빈곤 아동 및 청소년 가구(핵심표적집단-13세~23세)라 할 수 있으며, 사업에 참여한 인원은 약 1,100명(100명*11개 지역)이다.

표 VI-13 희망플랜 사업 대상자

구분	청소년	청년
대상 수	50명 내외	50명 내외
연령	만 13~18세	만 19~23세
재학 여부	학교밖 청소년 중고등학교 재학생	구직 및 직업훈련 청년 NEET 상태인 청년 대학생, 휴학생
가족소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 가구 차상위 가구(중위소득의 60%) 기타 저소득이라고 판단되는 가구	

* 출처: 이봉주, 박미희, 남기철, 노혜진, 이신혜, 이성학 (2018). 배분외제 2-3차년도 성과평가(빈곤) - 니트(NEET)청년 지원을 위한 ‘희망플랜’사업. 사회복지공동모금회.

(3) 예산 및 인력

희망플랜 사업의 중앙센터의 예산은 총 1,500,000천원 내외이며, 직접 사업비는 총 예산의 75% 내외, 간접사업비는 총 예산의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수준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중앙센터의 전담인력은 총 4명이었다. 각 지역센터별 예산은 연 500,000천원 내외이며, 3차년도의 경우, 지역센터의 사업계획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직접 사업비는 역시, 총 예산의 75% 내외, 간접사업비는 총 예산의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수준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전담인력은 지역별 3명으로 구성되었다.

(4) 사업 지역 및 기관 현황

사업 지역은 사업을 총괄하는 희망플랜 중앙센터(한국사회복지관협회)와 지역별 공모를 통해 선정된 11개 사회복지관이 사업 운영기관이 지역센터를 담당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표 VI-14 사업 지역 및 기관 현황

	지역	수행기관명	지역센터명
1	서울	신림종합사회복지관	신림센터
2		녹번종합사회복지관	은평센터
3		생명의전화 종합사회복지관	성북센터
4	경기	하안종합사회복지관	광명센터
5		춘의종합사회복지관	춘의센터
6	전북	평화사회복지관	평화센터
7	광주	무등종합사회복지관	무등센터
8	대구	남산종합사회복지관	중구센터
9		월성종합사회복지관	달서센터
10	부산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	부산진구센터
11	강원	원주가톨릭종합사회복지관	원주센터

* 출처: 이봉주, 박미희, 남기철, 노혜진, 이신혜, 이성학 (2018). 배분외제 2-3차년도 성과평가(빈곤) - 니트(NET)청년 지원을 위한 '희망플랜'사업. 사회복지공동모금회.

(5) 프로그램 내용

희망플랜 사업은 지원의 핵심 차원으로 개인, 가족, 지역사회를 설정하고 있다. 이는 다른 유사 사업에서 보이는 대상자 중심 사업 설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니트 청년의 증가와 같은 사회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추구하기 위함이다.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나아가서는 지역사회에 대한 통합적 지원이 이루어졌을 때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변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희망플랜 사업은 3년의 사업 기간을 보장함으로써 장기적 관점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희망플랜 사업은 아동·청소년 대상의 사업과 청소년청년을 대상으로 한 사업으로 나누어진다. 아동·청소년 사업의 경우, 비전캠프, 비전스쿨, 교육지원, 직업지원, 사례관리, 코칭 등으로 구성된다. 또한 청소년·청년사업의 경우, 코칭, 경제활동 및 참여활동 지원, 창업지원, 사례관리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 밖에도 가족을 대상으로 한 가족기능강화프로그램,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 마을활동가 조직, 지역 내 자원 발굴, 지역자원 연계, 네트워크 구축 등의 사업도 병행되었다.



* 출처: 희망플랜 홈페이지(<http://kaswc.webmaker21.kr/>).

그림 VI-1 아동·청소년 사업(14-19세)



* 출처: 희망플랜 홈페이지(<http://kaswc.webmaker21.kr/>).

그림 VI-2 청소년·청년 사업

사업의 운영 내용을 step별로 구성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step은 교육지원, 경제활동 및 참여활동 지원, 코칭, 아웃리치 및 사례관리로 구성되며, 2 step은 경제활동 참여, 가족기능 강화, 부모코칭, 사례관리로 구성된다. 3 step은 마을활동가 활동과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연계로 구성된다.

1step 아동·청소년		2step 가족지원	3step 지역사회
14-19세	20-24세	1. 경제활동 참여	마을활동가 활동
교육지원	경제활동 및 참여활동 지원	2. 가족기능 강화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연계
코칭		3. 부모 코칭	
아웃리치 및 사례관리		4. 사례관리	

* 출처: 한국사회복지관협회 (2016). 희망플랜 사업담당자 오리엔테이션 자료집.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자료를 토대로 저자가 수정하였음.

그림 VI-3 희망플랜 단계적 운영모형

1step 아동·청소년	2step 가족지원	3step 지역사회
14-24세	0. 부모 상담 및 역량강화	마을활동가 활동
개인별 역량강화 및 사례관리 (심리정서)	1. 취업 대상자·심리정서 지지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연계
교육+진로지도+상담	2. 가족기능 강화	
교육·진로·취업지원 but창업X	3. 부모 코칭	
	4. 사례관리	

* 출처: 평화사회복지관 희망플랜 전주평화센터(2018). 꿈을 말하다! 희망플랜을 만나다!.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한국사회복지관협회.

그림 VI-4 희망플랜 평화센터 운영모형

희망플랜의 단계적 운영모형은 사업 초기 중앙센터에서 설계되어 전국의 지역 센터에 적용되었다. 그러나 전주 평화센터의 경우, 1-2년차 사업 운영의 경험을 통해 중앙센터에서 제시된 모형이 지역의 특성과 다소 다른 부분이 발견되었고, 사업의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사업 모형 적용 전에 적용될 준비 단계가 필요함을 확인하고, 기존 사업 운영모형에 준비 모형을 추가하였으며, 전주시 평화동 지역에 더 적합한 모형으로 모형을 수정하였다.

기존 모형에서 변화된 부분은 첫째, 진로 및 취업 중심으로 구성된 기존의 사업 이전에 심리정서적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했다. 둘째, 부모 및 가족 역시, 심리정서적 지원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대한 성과가 확인되지 않았다. 셋째, 청소년과 청년을 대상으로 한 진로 지원 및 취업 지원은 성과가 도출되었으나 창업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부분을 중심으로 기존의 희망플랜 운영 모형을 희망플랜 평화센터 운영모형으로 변형하여 전주형 모형을 제안하였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사회복지관협회의 지원을 통한 3년간의 사업 운영 이후, 전주 차원의 사업 운영에서는 새로 전주형으로 변형한 사업 운영 모형이 적용되었다. 다음 표는 희망플랜 평화센터의 세부 프로그램이 제시되었다.

표 VI-15 희망플랜 평화센터의 세부 프로그램

구분	분야	프로그램	
		중앙	전주평화
청소년 청년	교육지원	학업지원	학업지원
		예체능지원	예체능지원
		직업지원	대학연계
	경제활동	직업훈련	직업컨설팅 및 직업연계 (진로코칭)
			청소년놀이터
		창업준비	진로체험박람회
			사회적경제교육
			협동조합교육
	코칭	코칭	직업 비전캠프
			청소년놀이터
			간담회
			비전스쿨
			자존감향상
			꿈틀동아리
			토닥멘토링
아웃리치 및 사례관리	학업 및 학교지속, 복귀	사회성향상	
		탈학교지원	
	사례관리	1년1도전	
가족	경제활동 참여활동 지원	사례관리	사례관리
		직업연계	직업연계
		창업준비	직업지원(학업지원)
	창업지원(바늘꽃)		
	가족기능 강화	가족기능강화	가족여행
			가족문화활동
			심리정서(웃음꽃)
	코칭	부모코칭	부모교육
간담회			
사례관리	사례관리	사례관리	

구분	분야	프로그램	
		중앙	전주평화
지역사회	지역사회 역량강화	마을활동가	마을활동가
		지역사회 자원발굴 및 연계	자문위원회의
			사례판정위원회의
			운영위원회의
			지역사회 자원개발
			지역사회 홍보, 캠페인
			워크숍
		성과발표회	

* 출처: 평화사회복지관 희망플랜 전주평화센터(2018). 꿈을 말하다! 희망플랜을 만나다!.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한국사회복지관협회.

(6) 프로그램 성과

아동·청소년 대상 사업에서 성과가 가장 두드러진 부분 심리정서적 영역 효능감, 자존감, 진로성숙도 등)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행의 경우에도 사업 참여자의 성과가 보고되었다. 특히 사례관리와 개별 프로그램, 그리고 가족 개입의 효과가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났다. 청년 대상 사업에서도 향후 구직의향의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니트로 진입하게 되는 확률 역시, 낮아졌다. 더불어 지역사회 차원에서 청소년과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 및 마을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었으며, 기존의 다양한 관련 사업들과의 연계도 활성화되었음이 보고되었다.

4) 희망플랜 사업의 지역화 과정 및 함의: 희망플랜 운영 종료 후 지역자치 단체의 대응

(1) 희망플랜사업의 선정과 3년간의 사업

빈곤율이 높은 전라북도 및 전주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할 때, 지역의 빈곤문제

를 해소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이라도 시도되어야 하는 것이 이 지역의 현실이다. 특히 지금까지 사업 지원의 대상에서 배제되어 온 사회적 고립 청소년이나 청년을 위한 지원은 최근에 이룰수록 그 중요성과 시급성이 더해지고 있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때, 희망플랜 사업을 통해 사회적 고립 청소년과 청년을 위해 진행된 3년간의 희망플랜 평화센터 사업은 그 선정과정에서부터 사업 종료 시까지 절실함이 적지 않은 사업이었다.

희망플랜 평화센터는 이 사업을 통해 전주시에도 사회적 고립 청소년과 청년이 적지 않음을 파악했고, 이들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운영 및 개발했다. 또한 사업 참여 기관 및 사업 실무자들의 역량 역시, 강화되었으며,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강화되었다. 시범사업의 성격으로 진행된 희망플랜 평화센터 사업은 3년이라는 한시성이 전제되었으나 향후 사회적으로 고립된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지원사업의 토대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2) 생소한 사업, 새로운 예산의 편성 어려움 - 시와 도의 떠넘기기?

시범사업의 성격으로 진행된 희망플랜 사업이 전주시 평화동 지역에서는 나름 의미있는 성과를 도출했고, 향후 사업의 지속을 위한 토대를 만들었음에도 이 사업이 지속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화 노력은 또 다른 어려움의 과정이었다. 먼저, 그동안 사회적 개입의 대상으로 인식되지 않았던 빈곤 또는 고립 청소년이나 청년을 사업 대상으로 하는 예산을 지역 차원에서 확보하는 것은 사업 대상 자체에 대한 생소함으로 이슈화 또는 지역 정책의 아젠더로 인식되지 못하였다.

사실 지역에서는 낮은 재정자립도로 인해, 기존의 중앙정부에서 정해져 내려온 복지정책 외에 자체적인 복지사업을 개발하는 데 어려움이 적지 않다. 더구나 기존에 사업 대상이 아니었던 사회적 고립 청소년과 청년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라는 생소함으로 인해 사업의 제도화 단계는 도입 단계에서부터 한계에 직면했다고

할 수 있다. 어렵게 이슈화에 성공하여 사업 대안을 제시했으나 역시, 지역의 특성으로 인해 전라북도와 전주시의 예산 부담 떠넘기기의 모습이 나타났다.

사회적 고립 청소년과 청년의 문제가 전라북도 전체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의 한 동에서 시작된 사업을 전라북도 예산을 통해 지원하기 어렵다는 전라북도 의회 및 행정의 의견과 전라북도에서 조금이라도 예산을 매칭해 내려주면 전주시 차원에서 대응 예산을 확보하기 수월하다는 논리가 부딪혀 사업 제도에 난항이 시작되었다.

(3) 수행기관과 운영위원회의 노력

시범사업의 성격으로 시작된 사업이었으나 지역에서는 3년간 매년 약 5억 정도의 예산을 지원받아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통합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 큰 기회이고, 혜택이라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전주시 평화동 지역의 특성상 이러한 성격의 시범사업도 안정적인 사업이라 말하기는 부족함이 컸다. 사업 설명회에 참여한 대상 청소년 중 한 명은 인터뷰 과정에서 이러한 얘기를 했다. ‘3년 이후에 또 우리는 버려지는 건가요?’ 사업운영 기관과 실무자, 그리고 운영·자문위원들은 대상 청소년의 언급에 적지 않게 당황했으나 절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그 상황을 모면한 기억이 선명하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치 않았다. 대략 선택 가능한 향후 대안은 첫 번째, 전라북도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을 지속하되, 사업 모형이 전라북도 전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수행한다. 두 번째 선택 가능한 대안은 전라북도에서 지원을 못 받더라도 전주시 지원을 받아 사업을 지속하되, 사업 모형이 전주시 전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수행한 후, 그 모형이 전라북도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세 번째 대안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한시적이거나 향후에도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한다. 네 번째 선택 가능한 대안은 기존 사업 기관인 평화복지관에서 외부 사업(복지 예산 지원 재단)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의 명목적 지속이라고 보전한다는 정도였다. 당시에는 네 가지 대안 모두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은 상황이었다.

(4) 단체장의 결정과 공동모금회 - 사업의 분담을 통한 사업 지속

사업 수행 기관인 평화복지관과 이 사업의 운영·자문위원, 그리고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진 시의회 의원을 중심으로 한 대안 제시와 지속적인 설득, 언론을 통한 지역 이슈화 등을 통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 갖추어졌다. 결국, 시의회의 노력, 전주시 행정의 관심, 그리고 지자체장인 전주시장의 결단으로 최소한 사회적 고립 청소년을 위한 지원사업은 지속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를 발판으로 지역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논의를 통해 사회적 고립 청년을 위한 지원사업은 지역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하기로 협의되었다. 물론 긴 협의 및 결정의 과정, 그리고 예산 집행까지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기존의 희망플랜 평화센터 담당 직원은 대부분 이직하였고, 사업에 참여했던 청소년과 청년들에게도 공백이 발생했으나 희망플랜 사업을 통해 개발한 전주형 사업 모형은 지속되었다. 더불어 전주시 인근의 정읍시에서도 희망플랜 평화센터 모형을 적용한 사업이 시작되었다.

5) 전주시 사례의 시사점 및 고립 청년 지원 발전 방안

(1) 고립 청소년·청년 대상 사업의 부재 - 공동체의 역할 대체 필요

사회적 고립 청소년의 문제나 사회적 고립 청년의 문제는 최근 우리나라 경제

및 노동시장 변화 등에 기인한 바 크다. 과거에는 이들 문제가 큰 사회적 이슈가 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초고속 경제 성장을 하던 시기도 지나갔으며, 노동집약적인 산업이라 할 수 있는 제조업도 인건비가 싼 다른 나라로 옮겨가고 있다. 남은 일자리는 양극화되고 있고, 이에 적응하고 있는 교육 환경과 취업 시장은 날로 각박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책결정자들이나 우리 사회의 기성세대는 이러한 변화된 청소년과 청년들의 문제를 쉽게 이해하지 못한다. 변화된 사회문제에 어른들의 인식이나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라 판단된다. 자신들은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상황은 바뀌었고, 지금의 청소년과 청년은 사회적 고립이라는 그들에 갇혀 있는 사례가 적지 않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선택의 제한은 사회적으로 고립된 청소년과 청년을 늘려가고 있다. 인식의 전환과 적응이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된다.

(2) 고립 청소년·청년 대상 사업의 3가지 차원

희망플랜에 기초하여 수행한 전주시의 고립 청소년·청년 사업은 결과적으로 세 가지 지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는 심리정서 영역 및 가족 영역에 대한 지원이고, 둘째는 취업 및 창업 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및 진로지도 영역, 그리고 세 번째는 취업 및 창업 영역에 대한 지원이었다. 전주시에서 수행한 경험에 기초했을 때, 교육 및 진로지도에만 지원됐을 경우 또는 취업 및 창업 영역에만 지원되었을 경우, 사업의 성과를 얻기 쉽지 않았다. 고립 청소년·청년은 이미 오랜 기간 동안 고립 및 배제되어 왔고, 이로 인한 심리정서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표 VI-16 고립 청소년·청년에 대한 주요 개입 지점

	주요 개입1	주요 개입2	주요 개입3
주요 개입지점	심리정서 및 가족	교육 및 진로지도	취업 및 창업

따라서 고립 청소년·청년에 대한 지원은 아래 <표 VI-17>에 제시된 바와 같이, 심리정서 및 가족 지원이 전제된 상태에서 교육 및 진로지도나 취업 및 창업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심리정서 및 가족지원과 교육 및 진로지도가 결합된 ‘유형 I’ 또는 심리정서 및 가족지원과 취업 및 창업 지원이 결합된 ‘유형 II’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더 나아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유형 I 과 II, III이 모두 결합된 형태로 사업이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VI-17 고립 청소년·청년에 대한 주요 개입 유형

	유형 I	유형 II	유형 III
주요 개입지점	개입1+개입2	개입1+개입3	개입1+개입2+개입3

(3) 제도화의 조건 - 문제, 대안, 정치적 결정의 결합 필요

한 사회의 문제가 이슈화되고, 정책적 차원에서 논의로 이어지며, 대안이 개발되고, 정책적 결정으로 인한 제도화의 과정으로 이어지기 위한 과정에는 대략 세 가지의 조건이 결합되어야 한다고 알려져 있다. 첫째, 문제의 흐름이다. 즉 해당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화가 필요할 정도의 문제가 존재해야 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사회적 고립 청소년과 청년의 문제는 지금도 충분히 사회문제가 되었지만 향후 더 큰 사회문제로 이어질 개연성이 적지 않다.

제도화의 두 번째 조건은 대안의 흐름이다. 어떠한 사회문제라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마련되지 못한다면 정책 결정, 즉 제도화의 과정으로 이어질 수 없다. 따라서 해당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의 개발은 제도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건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다행스럽게도 사회적 고립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대안은 어렵게 개발되었고, 특성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 모양이나 실행 방안은 다소 다르다 할 수 있으나 분명 대안들이 개발되고 있다. 특히 전주시의 경우, 희망플랜 평화센터를 통해 전주형 모형이 개발되었다.

제도화의 마지막 조건은 법제화 또는 정치적 결정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해당 사회문제를 해소하는 대안이 마련될 경우, 이를 정책화, 즉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행정기관 및 의회 등의 공식적 결정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정책 결정 관계자들이 해당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거나 이해가 부족할 경우, 어렵게 만들어진 대안이 사장될 수도 있다. 따라서 정책결정 과정에 있는 관계자들이 제도화의 마지막 마침표를 찍어 주는 과정이 필요하다. 전주시 희망플랜 사업의 경우, 이 세 가지 조건이 과정상 어려움과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한 결과였지만 해당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조건의 결합이 이루어졌다.

지금도 희망플랜 사업이 종료된 이후, 3년 차를 맞이하고 있지만, 여전히 전주시 희망플랜 사업은 평화복지관에서 두 가지 버전으로 나누어져 진행되고 있다. 전주시에서는 사회적 고립 청소년을 위한 사업을 지속해서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의 확장을 검토한다는 의견도 제안되었다. 더불어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전라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도 사업의 추가적인 지속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전라북도 전역으로의 확대 또는 연속적 과정에 있는 청소년과 청년을 통합한 사업으로 가는 과정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4) 관계 부서 간의 협력과 연계

사회적으로 고립된 청소년과 청년 지원 사업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또는 중앙 정부 차원에서 부분적으로 시행되거나 검토되고 있다. 또한 같은 성격의 사업이 복지 관련 부서에서 또는 청소년 관련 부서에서, 그리고 교육 관련 부서에서 독자적으로 수행 및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수행 방법이나 관점 역시,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업의 대상은 같은 사람들이고, 또한 통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졌을 때,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연구 보고가 대다수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지방과 중앙, 각 부처, 그리고 사업 수행 방법이나 관점도 청소년과 청년 중심으로 논의하여 협력과 연계를 통해 역할 분담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범정부 논의기구를 기대해 본다.

[참고] 희망플랜 평화센터의 세부 프로그램과 내용

구분	분야	프로그램		내용
		중앙	전주평화	
아동 · 청소년	교육 지원	학업지원	학업지원	· 참여자 욕구 및 진로 취업 계획에 따른 맞춤 학원비 지원
		예체능 지원	예체능지원	· 재능개발을 위한 학업 지원
		직업지원	대학연계	· 전주시의 경우 직업에 관한 인프라는 대학교가 가장 잘 되어 있어 대학교와 연계하여 직업프로그램을 진행함.
	경제 활동	직업훈련	직업컨설팅 및 직업 연계 (진로코칭)	· 전주평화 참여자의 경우 취업에 필요한 사전준비과정이 전혀 되어있지 않아, 사전준비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 이력서, 자기소개서, 이미지메이킹, 면접기술 교육 실시함. · 전주평화 참여자의 경우 취업에 대한 욕구, 인식 등이 매우 부족하여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 요구됨. · 전주평화 참여자의 경우 현재 바로 직업을 연계할 준비가 된 참여자가 없어 취업에 대한 욕구를 고취시키기 위하여 직업교육 프로그램 진행함.
			청소년 놀이터	· 전주 평화 참여자의 경우 취업 전 교육 필요한데 지역사회 내에는 실제 현장에서 훈련을 할 공간이 없어 청소년 놀이터를 활용하여 직업체험 기회 제공(바리스타, 인턴십 진행)
		창업 준비	진로체험 박람회	· 지역사회 내 청년 취업박람회 횡수가 적어 희망플랜에서 박람회를 개최함.
			사회적 경제교육 협동조합 교육	· 창업에 대한 다양한 방법 중 소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한 방법을 교육하고 소개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협동조합교육 진행함. (희망플랜 참여자의 경우 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소자본 창업만 가능함.)
			직업 비전캠프	· 전주시에 청소년, 청년들이 다양한 직종을 체험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하여 다른지역을 방문하여 다양한 직종을 체험함.
	코칭	코칭	청소년 놀이터	· 전주시 평화동의 경우 청소년 이용시설이 전무하여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전용공간 마련하기 위하여 청소년 놀이터를 구축하였음.
			간담회	· 차년도 사업에 대한 참여자 욕구조사 및 당해년도 피드백 진행
			비전스쿨	· 자신의 대한 이해, 직업에 대한 이해, 진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바로 취 창업에 유도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비전스쿨 프로그램 진행 · 성격유형검사13종(폴버터리검사), 진로프로그램, 1:1상담, 진학상담 등

구분	분야	프로그램		내용
		중앙	전주평화	
			자존감 향상	· 평화동 지역의 경우 수급자, 차상위 계층의 비율이 높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없음에 따라 자존감이 현저히 떨어져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자존감 프로그램 기획하였음.
			꿈들 동아리	· 동아리 활동을 하고자하는 참여자들의 욕구에 반해 평화동 지역내에는 밴드, 네일아트, 스피치 등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 평화센터(청소년 놀이터)를 활용하여 동아리 활동을 진행함
			토닥 멘토링	· 평화동 지역 특성상 수급자, 차상위 계층의 비율이 높고, 자신의 자녀에게 관심이 낮아 정서적 지지를 위해 지역 내 마을 활동가를 모집하여 정서적 지지 도모 및 소속감 고취
			사회성향상	
	아웃리치 및 사례관리	학업 및 학교지속, 복귀	탈학교 지원	· 학교복귀에 의지가 있는 청소년에 대하여 지속적인 상담을 진행 하였으며 학교 복귀에 전혀 관심이 없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아이들의 흥미유발을 통해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음(사진촬영, 창업 준비).
			1년 1도전	· 희망플랜 참여자 100명 모두 프로그램 제공 · 자신의 어려운 가정환경을 극복하고 도전하기 위한 신체적 정신 함양을 위해 진행 - 다이어트, 한라산 등반
		사례관리	사례관리	· 일반사례의 경우 수시상담 진행, 긴급사례의 경우 사례회의(민관합동, 사례판정위원회의 등)를 통한 집중상담 진행.
가족	경제 활동 및 참여 활동 지원	직업연계	직업연계	· 주양육자의 경우 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실질적으로 근무가 가능한 파트타임으로만 직업을 가질 수 있어 평화동 지역 내 인프라 중 집에서 출퇴근 할 수 있는 안전 도우미 활동이 있어 연계함.
		창업 준비	직업지원 (학업지원)	· 수급비로는 취업기술 훈련학원을 다닐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 학업지원으로 취업기술훈련을 습득 후 취업하여 자녀의 빈곤 대물림 차단시키기 위한 지원.
			창업지원 (바늘꽃)	· 경제활동을 희망하는 주 양육자 요구가 재봉틀을 하고 싶다는 욕구를 나타냈으며, 창업에 있어서 소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 바늘꽃 프로그램을 진행함. (희망플랜 참여자의 경우 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소자본 창업만 가능함)
	가족 기능 강화	가족 기능 강화	가족여행	· 빈곤층이 대다수인 희망플랜 참여자의 특성 상 자부담으로 가족여행과 문화활동을 하기에는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여 프로그램진행.
			가족 문화 활동	

구분	분야	프로그램		내용
		중앙	전주평화	
지역 사회	코칭	부모 코칭	심리정서 (웃음꽃)	· 평화동 지역 특성상 수급자, 차상위 계층의 비율이 높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따라 정서적으로 우울감이 높은 모습을 보여, 정서적 지지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 진행.
			부모교육	· 평화동 지역주민의 빈곤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빈곤에 대하여 인식을 부모교육을 통해 인식시킴으로써 빈곤 대물림 방지 · 생계형 주양육자 유형 비중이 높음에 따라 자녀와의 관계형성이 부족하여 부모자녀와의 관계 회복을 위한 부모교육 진행
			간담회	· 차년도 사업에 대한 참여자 욕구조사 및 당해년도 피드백 진행
	사례 관리	사례관리	사례 관리	· 일반사례의 경우 수시상담 진행, 긴급사례의 경우 사례회의(민관합동, 사례판정위원회의 등)를 통한 집중상담 진행.
	지역 사회 역량 강화	마을 활동가	마을 활동가	· 희망플랜 사업의 대상인 평화동, 서서학동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을 위한 마을활동가 조직이 없어 희망플랜 사업에 참여하는 아동·청소년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마을활동가 조직을 발굴함.
			자문위원 회의	· 지역사회 전문가들과 운영위원회가 함께 사업의 전반적인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전주지역에서 사업의 안정화 도모 및 효과성 증대.
			사례판정 위원회의	· 운영위원회의 경우 주양육자 10인을 구성하여 사업의 지지망을 형성하고 사업에 대한 적극적 참여 동기부여를 위한 구성.
			운영위원 회의	· 중앙센터 프로그램 자문위원회, 사례판정위원회 실시.
			지역사회 자원개발	· 중앙센터의 사업내용 지역 내 자원 발굴, 지역사회 연계, 네트워크 구축 지원과 동일하게 진행.
			지역사회 홍보, 캠페인	
			워크숍	
			성과발표회	

* 출처: 희망플랜 평화센터 내부자료(비공개).

5. 은둔형 외톨이 지원 사업의 과정, 성과, 발전방안 : K2인터내셔널코리아 사례³⁴⁾

1) K2인터내셔널코리아를 중심으로 한 약 10년 동안의 활동

한국에서 2021년 10월 현재 은둔형 외톨이를 대상으로 전문적 지원 활동을 하는 단체는 사회적 기업인 케이투인터내셔널코리아(이하 'K2코리아'로 표기)와 리커버리센터가 대표적이다. 이들 단체 이전에는 2009년부터 하자센터에서 은둔형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되었던 '유자살롱(유유자족살롱)'이 있었으나 2015년 12월에 문을 닫았다. 리커버리센터는 2014년부터 주로 위기청소년·청년을 중심으로 고립된 청년에 대한 지원을 해왔으며, 2020년부터 청년재단의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공동생활 지원을 위탁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상담 - 아웃리치 - 내부/외부 단기프로그램 - 공동생활 - 일경험/인턴 현장연수 - 인재양성 - 취업 지원 - 직원 고용'까지 총괄적인 지원체계로 운영하는 국내 단체는 K2코리아가 유일하다. 본 절에서는 K2코리아의 9년간 활동을 살펴보고, 그 경험을 통해 한국에서의 은둔형 외톨이 지원 과제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1) 활동 연혁

K2코리아는 일본 요코하마에 본사를 두는 K2인터내셔널그룹의 한국법인으로 2012년 11월에 서울시 마포구에 등기되어 활동을 시작하였다. 출자금은 모두 그룹대표인 카나모리 카츠오의 개인 출자였고, 본사의 해외총괄부장인 야마모토

34) 이 절은 외부 집필진으로 오오쿠사 미노루 슈퍼바이저(K2인터내셔널코리아)가 직접 작성하였다. 그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어로 원고를 작성하였고 연구진이 일부 내용을 한국어 교정하여 신게 되었다. K2인터내셔널코리아는 2021년 12월을 기점으로 한국에서 사업을 철수하였다. 이 글은 K2인터내셔널코리아의 사업철수 결정 이전에 작성된 것이다.

마사토가 회사 대표를 맡았다. 당초 대표, 생활지도사, 교육팀장 각각 1명씩과 프로그램 참여 청년 1명, 모두 일본에서 온 일본인으로 합정역 인근에 단독주택을 기숙사/사무실로 임대하여 사업을 시작했다.

K2코리아가 한국에서 활동을 시작한 이유는 2008년에 국제교류기금의 지원으로 야마모토가 한-일 사회적기업 교류로 한국을 방문하여 하자센터 등 한국의 청소년지원의 현장을 보고 감탄하면서다. 많은 한국인 참여자들에게 “한국에도 은둔형 외톨이가 엄청 많은데, K2와 같은 지원단체가 없다. 꼭 한국에 와서 활동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카나모리 그룹 대표가 “국적은 상관없이, 어려운 청년들이 있다면, 일본에서 쌓아온 노하우가 도움이 된다면 우리가 가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K2코리아는 한국에서 활동을 시작하고 나서 바로 하자센터, 유자살롱, 청년허브 준비팀, 지역퍼실리테이터와 함께 ‘한일청년포럼 준비위원회’를 조직하여 매주 토론을 하면서 한국과 일본의 청년문제를 함께 논의하는 토론장 ‘한일청년포럼’을 1월에 열었다. 이후 한일청년포럼은 K2코리아의 사회제언, 네트워크사업으로서 2019년까지 총 9회 한·일 양국에서 개최되었다. 또한, K2코리아는 2017년 서울시 청년정책네트워크에 참여해서 니트(NEETs) 지원 분과회에서 활동하였다. K2코리아가 활동을 시작한 2012년 당시에는 은둔형 외톨이나 니트 개념이 일반 대중에게는 생소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분야였다. 하지만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수많은 단체들과 교류하며 청년허브를 중심으로 청년활동가들과 언론기자들에게 은둔형 외톨이의 존재와 그들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이 조금씩 인지되어 왔다. K2코리아는 2016년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그리고 2019년에는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았고, 나아가 2021년에는 우수사회적기업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2) 주 사업과 자립까지의 지원 과정

K2코리아에서는 크게 공동생활 셰어하우스 사업, 공동체일터 일경험 식당사업, 네트워크 및 홍보사업의 3가지 축으로 운영되고 있고, ‘① 인테이크 상담 - ② 아웃리치 - ③ 내부/외부 단기프로그램 - ④ 공동생활 - ⑤ 일경험 - ⑥ 인턴 현장연수 - ⑦ 인재양성 - ⑧ 취업 지원 - ⑨ 직원 고용’에 이르는 총괄적인 지원체계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는 각 단계마다 어떻게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실태에 대해 살펴본다.



그림 VI-5 단계별 은둔형 외톨이 지원

* 출처: 서울시복지재단 (2021). K2인턴내셔널의 은둔외톨이 연결. 2021년 서울시 사회적 고립지원포럼(제2차 익명의 도시, 고립을 넘어 연결로) 자료집. p.25.

① 홍보

은둔형 외톨이 및 고립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할 때, 입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지원이 필요한 당사자와 가족에게 지원의 정보가 전달될 수 있을까이다.

지원과 관련한 정보에 접근한 이후 당사자 본인의 참여 여부는 그 다음 문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언론, 각종 미디어, 인터넷, 지자체 홍보 등을 통해 가능한 많은 홍보를 해서 지원 단체 및 프로그램의 존재를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K2코리아가 활동한 지 9년이 되어가지만, 오랫동안 은둔했던 당사자의 가족으로부터 “이런 단체가 있는지 전혀 몰랐어요. 진작 알았더라면...”과 같은 이야기를 아직도 많이 듣게 된다. 이는 국내 인프라의 한계로 은둔형 외톨이와 가족에게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 K2코리아를 비롯한 지원단체가 워낙 적고, 검색을 해도 찾기가 힘들다.
- 지역의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동주민센터, 종합복지관 등 각종 공공복지기관에서 상담했지만, 도움을 받지 못했거나 효과가 없었다.
- 부모가 민간의 상담소에 가서 심리상담을 받아봤지만, “아이를 데리고 와주세요”라는 말만 듣고 아무것도 안 해줬다.
- 본인이 심리·상담을 받았지만 아무것도 말하지 않아서 선생님이 포기했다.
- 정신과 병원에 가봤지만, 약 처방만 받았고 도움이 되지 않았다.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또는 청소년동반자를 신청했지만 아이가 방문을 열지 않아 결국 선생님이 포기했다. K2에서 상담을 받는 가족 및 당사자는 거의 모두가 ‘현재 한국의 일반 심리상담사나 정신과의사, 지역의 사례복지사, 청소년동반자 중에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노하우가 있는 사람이 지극히 드물기 때문에, 효과적인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호소한다. 즉, 가족들도 당사자도 ‘어디로 가도 효과적인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절망감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다.

은둔형 외톨이 상태가 되면 가족과 당사자만의 노력으로 그 상황을 벗어나는 것이 어렵다. 이 때문에 은둔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컨대, 2020년까지 K2코리아가 받은 은둔형 외톨이 상담 신청자의 평균 은둔 기간은 4.8년이었고, 전체의 31%가 10년 이상이었다.

지자체나 복지기관에서는 은둔형 외톨이 발굴의 어려움을 이야기하지만, K2코리아는 반대로 당사자들의 손쉬운 접근을 강조한다. 당사자와 가족에게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있음이 적절하게 홍보되면 곧바로 지원할 당사자와 가족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당사자를 어떻게 찾는지’가 아니라,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지’, ‘그것을 누가 하는지’이다. 당사자와 가족들은 이미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곳이 어디에도 없다는 절망감을 경험한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② 인테이크(intake) 상담

초기 상담, 접수상담이라고도 하고, 당사자 및 가족이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경위를 거쳐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듣고, 적절한 조언과 연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면담이다. K2코리아에서는 코로나 사태 이후 인테이크 상담을 전면적으로 ZOOM을 이용한 온라인 면담으로 전환했다가, 현재는 온·오프라인을 희망에 따라 병행하고 있다. K2코리아에서 2020년까지 축적한 256명의 사례에 의하면 인테이크 상담의 신청자는 41.3%가 당사자 본인이며, 39.1%가 당사자의 어머니, 8.3%가 아버지, 5.4%가 자매, 3.2%가 형제, 2.6%가 기타 관계자였다. 일반적인 이미지와는 달리, 본인 스스로가 은둔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도움이 필요해서 스스로 신청하고 있는 것이다(K2인터내셔널코리아 비공개 내부자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반적인 심리상담사나 정신과에서는 당사자가 치료 대상자이자 고객이기 때문에, 당사자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진행이 안 된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은둔형 외톨이의 문제는 은둔하고 있는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도 당사자라고 봐야 한다. 은둔형 외톨이는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K2코리아에서는 은둔자 본인만 먼저 상담을 받은 경우에도, 공동생활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에 반드시 부모도

상담을 받아야 한다. 부모가 상담을 신청한 사례에서는 많은 경우 부모들이 상담 신청 시에 아이를 참여를 어떻게든 성사시키겠다고 하지만, 나가기 싫어하는 자녀를 억지로 설득해서 데려오는 것은 역효과이기 때문에, 오히려 부모 상담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한다.

③ 아웃리치

당사자가 방 또는 집에서 나오지 않는 이유로 방문 상담이 필요할 시에 아웃리치를 나가는 경우가 있다. K2코리아에서는 ‘초기아웃리치 패키지’ 프로그램으로 3개월 동안 한 달에 1회 집을 방문하면서 대화를 시도하는 형태의 지원을 수행해 왔다. 원래 부모와의 관계 형성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 외부인이 방문하는 것은 당사자에게는 먼저 경계심을 일으키고 오히려 태도를 경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긴 호흡을 가지고 오랫동안 방문을 지속해야 효과가 있다. 하지만 K2코리아는 공공복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자주 방문하는 것이 어려웠다. 한두 번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속적으로 몇 달에 걸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등의 바우처와 같은 비용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다.

당사자를 만나게 되면, 먼저 친밀감을 만들기 위해 자신의 좋아하는 것(게임, 노래, 책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위험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 기회를 주는 사람임을 알려준다. 당사자가 문을 안 열어주면, 문밖에서 방 안에 있는 당사자에게 잘 들리게 인사를 하고, 거실에서 부모님과 대화를 나눈다. 이때 부모님 편을 들어주지 말고, 당사자 편을 들어주고 당사자가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떠나기 전에는 손편지를 남겨준다. 아웃리치의 효과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대인공포증 등으로 인해 외부에 상담하러 나가기 어려운 경우에 상담사가 집으로 찾아가는 것으로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 방 구조와 정리 상태 등 집의 내부 환경, 근처의 시설 등 주변 환경을 직접 관찰하는 것으로 본인의 생활환경에 대해 피부로 느끼며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다.
- 고착된 부모-자녀 관계와 가정 분위기에 외부인이 들어감으로써 변화를 만든다. 당사자는 “이 사람이 혹시 나를 구해줄 수 있을까?”라는 기대와 “부모가 또 나한테 쓸데없는 것을 시킨다”는 불만 사이에서 흔들린다.

또 다른 아웃리치의 효과에 대해서는 오상빈(2020)³⁵⁾에 자세하게 나와 있다. 반대로 아웃리치의 단점으로는 아래와 같은 점을 들 수 있다.

- 상담자가 찾아와주는 안심감으로 부모가 스스로 노력을 하지 않게 될 수 있다.
- 부모와 당사자의 관계가 안 좋은 상황에서 아웃리치를 강행하면, 당사자가 부모에게 화를 내고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 당사자에게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정방문을 하면, 당사자는 자신에 대한 위협으로 생각하거나, 공포감이나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
- 집을 방문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내담자가 시설을 방문하는 것에 비해 비용이 비싸서 내담자에게는 경제적 부담, 상담자에게는 시간적 부담이 크다.

결과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3개월 방문하는 것으로는 효과를 보기가 어렵고,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여 외부인의 집 방문 자체를 피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K2코리아에서는 아웃리치 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온라인 부모 코칭 PT’로 전환하였다.

아웃리치 사례 중에는 처음에는 눈도 마주치지 않다가 몇 번 만남을 시도하면서 관계가 형성되고 같이 게임을 하거나 공동생활사업에 참여하게 된 경우도 있다. 아웃리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아이를 위한 진정한 마음을 표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전문가에게만 모든 것을 맡기려 하는 태도로 부모가 아무런 시도를

35) 오상빈 (2020). 고립 생활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은둔형 외톨이 치유와 예방. 서울: 솔과학. pp.218-226.

하지 않으려는 가정에서는 변화를 만들기 어려웠다. 결국 은둔의 원인이 된 부모의 태도에 변화가 없으면, 설사 아웃리치에 성공해서 당사자가 프로그램에 참여하더라도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에, K2코리아에서는 당사자를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시간적·비용적으로 부담이 큰 당사자 아웃리치보다는 오히려 부모교육이 선행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④ 부모 코칭

코로나 사태 이후 가정 방문이 어려워졌고, 그동안의 아웃리치 사업성고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K2코리아에서는 당사자와의 소통이 어려운 경우에는 아웃리치에 앞서 부모 코칭 PT 프로그램을 통해 부모의 인지와 소통방식을 변화시키는 방침으로 전환했다. 격주마다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로 온라인 회의 플랫폼 줌(ZOOM)을 통해 부모와 상담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진행하였다.

- 그동안의 자녀와 부모의 행동과 고민, 현재 상태 확인
- 지난번 코칭 후에 있었던 일, 현재 기분 확인
-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 자녀와의 효과적인 소통 방법 학습(PET 개념 활용)
- 부모 안에 있는 무의식적인 잣대 내려놓기(Byron Katie's The Work 활용)

아직 사례가 많지 않지만, 6개월간 온라인 상담만 진행한 20살 남자의 부모 사례에서는, 아들이 완전히 대화를 거부하고 방에 갇혀 있던 상태에서, 매일 셋이 같이 식사하고, 1주일에 한 번 외식도 하면서, 코칭 시간에 아들이 등장하며 아버지에게 불만을 당당하게 표현하는 정도까지 관계가 호전하였다.

⑤ 공동생활

일본의 많은 히키코모리 지원 단체들이 하고 있는 것과 같이 K2코리아의 주된

프로그램도 공동생활 프로그램이다. 은둔형 외톨이 지원으로 공동생활을 하는 이유는, 당사자에게 가장 강한 영향을 주고 있는 부모와 떨어져 사는 ‘장면 전환’ 하기, 비슷한 경험을 가진 비슷한 나이 또래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사는 것으로 친구를 사귀고 일상생활을 재경험 하기, 함께 사는 것으로,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다른 사람과 서로 보여주고, ‘나의 못난 모습을 보여줘도 받아들여지는 경험’하기 등이 있다.

현재 공동생활 기숙사는 총 세 채(정릉동 1, 미아동 2)로 가급적 방이 많은 일반주택을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정릉동 집은 청년의 주거와 삶의 문제를 돕는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과 공동운영, 미아동의 집은 SH공사와 터무늬있는집 협동조합이 지원한 터무늬있는 SH청년희망아지트 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다. K2 코리아와 같이 작은 지원기관에서는 주거 및 사무실의 임대료가 계속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지원이나 혜택이 큰 도움이 된다.

공동생활은 아침 식사부터 시작된다. 일과는 오전 8시30분에 아침 식사와 청소를 모두 모여서 하고, 전체 아침 미팅, 스트레칭 체조, 산책 등으로 이어진다. 프로그램은 입소하고 있는 당사자의 수요와 특성에 따라 수시로 바뀐다. 멤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할 때도 있고, 멤버가 잘하는 것을 모두에게 나눠주는 프로그램도 있다. 전자로는 요가, 그림 그리기, 후자로는 호주인 멤버가 가르치는 영어 시간, 일본어를 잘 하는 멤버가 진행하는 일본어 시간, 과자 만들기를 잘하는 멤버의 제과 시간, 운동을 잘 하는 멤버가 하는 근육트레이닝 시간 등이다.

프로그램 수행에 있어 어려운 부분은 참여에 대한 강제력을 어느 정도 유지하느냐는 점이다. 은둔에서 벗어나 함께 살고 있다고 해도, 이 시설 내에서 은둔하고 있는 상태인 멤버도 있고, 우울감의 변화가 큰 멤버도 많다. 우울증세가 있는 경우는 쉬게 하지만, 그렇다고 많은 멤버들이 계속 참여하지 않는 상태로 있게 되면 프로그램이 설립되지 않거나, 다른 멤버들에게 영향을 주게 된다. 상태를 잘 파악하고, 적절한 동기부여로 모두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우울

증세 등으로 힘들어하는 멤버들에게는 본인이 쉬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도록 배려가 필요하다.

공동생활을 하는데 K2코리아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세 가지가 있다(小林献, 2018: pp.68-75).³⁶⁾ 아무도 배제되지 않고 소외감을 느끼지 않는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직원들은 항상 자신들에게 이 질문을 묻고 있다.

- 역할: 모든 멤버들에게 각자의 역할이 주어졌을까?

누구나 자신이 무엇을 하면 될지 모르면, 자존감이나 성취감을 느끼는 기회를 놓치고 만다. 어려운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라기보다 잘하는 것을 발휘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내어 용기를 주면서 멤버가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일상생활이나 일, 행사 등에서 담당해야 하는 일이 명시되었을 때 스스로가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 기뻐한다는 사례도 있었다(小林献, 2018: p.70).

- 상담: 모든 멤버들에게 뭐든지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은둔형 외톨이는 자라온 가정환경에 인해 자유로운 자기표현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힘든 일이 있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말할 수 없고 참고만 있으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나는 감정을 표현하면 안 돼”라는 저주를 스스로에게 걸고 있는 사람은 솔직하게 상담을 하거나 도움을 구하기까지 오래 걸릴 수도 있다. 그런 멤버에게는 자기가 이상한 말을 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말해봤자 어차피 아무도 들어주지 않을 거라는 체념감 등이 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고민이나 하소연, 또는 자랑 등 뭐든지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리고 나를 알아준다는 것만으로 고립에서 벗어나 긍정적으로 될 수 있다(小林献, 2018: pp.70-72).

- 소중함: 모든 멤버들이 자신이 소중하게 여겨지고 있다고 느끼고 있을까?

K2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주변 사람들이 자신에게 신경을 써주고, 도와주기도 하는 경험을 통해, 자신이 ‘있어도 없어도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실감을 본인이 가지게 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일을 앞선하는

36) 小林献 (2018). 『生きづらさを抱える若者たちと〜共にくらし共に生きる若者支援のリアル〜』いのちのことば社, pp. 68-75.

직장에서도 인사하러 갔을 때 그 멤버를 결원보충 정도로 생각하고 소중히 대해주지 않는 분위기라면 바로 철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小林献, 2018: pp.72-74).

K2의 공동생활에서는 식사를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자신이 누군가와 함께 따뜻하고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다는 안정감이 무엇보다도 삶의 만족감과 자존감을 주기 때문이다. 식사는 자립생활을 하는데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훈련을 위해서도 쉼어하우스에서는 점심과 저녁을 당번제로 모든 멤버가 1주일에 2번 정도 식사를 만든다. 메뉴 선정부터 장보기, 요리까지의 준비과정, 그리고 모두가 같이 식탁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며 밥을 먹고, 치우고 정리하기까지, 멤버들에게는 모든 과정이 소중한 기회이다.

⑥ 일경험 지원과 직접고용

청년자립지원의 ‘입구’가 상담이라면, ‘출구’를 일본에서는 ‘취로지원(就労支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단순한 취업지원이나 직업훈련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위해서 안정적으로 일을 계속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을 익히는 훈련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로 일경험 지원을 하는 훈련장과 중간적일자리로 이뤄지는데, K2 코리아를 비롯한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가진 민간 청년자립지원단체에서는 ‘취로지원’을 위해 일경험 지원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 공동생활시설에서 어느 정도 쉬면서 충전이 되고, 기력이 회복되어 인간관계에 익숙해지면서 뭔가에 도전하고 싶어지면, 본인과의 면담을 통해 의사를 확인하면서 일경험지원에 도전하는 것을 권하고 있다.

K2코리아에서는 요식업으로서 2015~2020년에는 Don Cafe, 2021년 3월부터는 <시시:밥/슬로우 카페 달팽이>를 운영하고, 직원 2~4명, 프로그램 참여자 1~3명 정도가 가게에서 일을 하면서 현장에서 연수를 받았다. 또 사무실에서 사무직을 하는 인원도 원래 은둔 당사자였던 청년을 지속적으로 고용하여, 현재 10명의 스태프 중 은둔형 외톨이 당사자 출신자가 8명 근무하고 있다. 당사자성이

강하고, 프로그램을 생각할 때도 당사자의 입장에서 고민할 수 있는 것이 큰 이점이다. 반면, 경험과 지식을 가진 사회복지사나 상담사가 없기 때문에 경험부족에 인한 한계점도 있다.

K2의 자립지원은 ‘취로지원’이 마지막은 아니다. 지원구조의 사이클 안에서 스스로가 지원 받는 입장에서 지원하는 입장으로 전환되는 것을 통해 후배들을 위해 ‘Pay it forward(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갚기)’할 수 있게 한다. 이 경험이 자존감을 더 높여주고, 은둔했던 과거를 긍정하며 그것을 가치로 전환하여 의미 있게 사는 힘을 준다. 또한 외부에 취업하면 그것으로 지원이 끝나는 것도 아니다. 많은 청년들이 취업을 하더라도 거기서 만나는 인간관계 등의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고, 1년 안 되게 그만두게 되어 또 좌절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일을 계속하기 위한 지원’, 즉 심리적 멘토 지원이 필수적이다.

⑦ 피어 서포터(peer supporter): ‘은둔고수’

K2코리아에서는 2020년에 서울시주민참여예산제로 성북구에서 지원하는 사업 <사각지대청년지원사업>을 통해 은둔 극복 단계에 있는 당사자들에게 ‘포레 상담사’ 양성과정을 진행하고, 8명의 피어 서포터, ‘은둔고수’를 배출하였다. ‘은둔고수’는 자신이 은둔 생활을 했던 기간만큼 별점을 받고, 우울, 집순이, 덕질, 게임중독과 같은 일반적으로는 안 좋게 생각할 만한 점들을 오히려 당사자들을 이해하고 친해지기 위한 최고의 ‘스팩’이라는 가치관의 전환을 받는다. 동시에 그들의 존재가 이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의 성과를 증명하는 롤모델이 되어 지금 당사자와 부모들에게 빛으로 다가올 수 있다(K2인터내셔널코리아, 2020).³⁷⁾

은둔고수 양성프로그램에서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일선에 있는 전문상담사와 슈퍼바이저 등으로부터 3달간 교육을 받고, 스스로의 경험을 내면에서 소화하고, 실제로 은둔형 외톨이 자녀를 둔 부모와의 대화 실습 등의 프로그램을 받으면서

37) K2인터내셔널코리아 (2020). *앗! 나도 모르게 나와 버렸다* - K2코리아가 전하는 은둔 그리고 삶.

공감의 기술을 익힌다. 양성을 받은 은둔고수는 실제로 지금 은둔하고 있는 청년 및 당사자의 부모와 각 5회씩 멘토링을 하는 활동에 참여하게 되고, 소정의 활동비도 받게 된다.

당사자들이 자신에게 미래가 안 보인다고 절망하는 것은 지금 이 길을 걸어갔을 때 앞에 무엇이 있는지, 롤모델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최근의 접수상담에서 매번 은둔고수 영상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은 많은 당사자들이 은둔고수 개념에 대해 모두 호의적이고 그 가치관의 전환에 영감을 받아 용기를 얻었다고 한다는 점이다. 향후 각 지자체에서 수요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센터에서 실제로 누가 일하는지 생각해봤을 때, 은둔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고 당사자에서 거리가 먼 기존의 상담사나 복지사로는 역부족일 수 있다. 이에 K2코리아는 은둔고수가 상담사나 복지사에게 당사자의 말을 대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인재로 보고 양성교육에 힘을 싣고 있다.

⑧ 부모 모임

K2코리아에서는 2017년부터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부모 모임(열쇠방 사람들)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기숙사의 거실에서 멤버들의 부모님 수 명부터 시작한 이 모임은 청년재단의 협력으로 재단 행사장에서 열리게 되었으며, 이후 K2코리아에서 독립해서 활동을 시작했다. <은둔형외톨이 부모모임 NAVER 카페> 회원 수의 증가와 함께 모임 참여자도 늘어나 코로나 직전에는 매번 30~40명 정도의 부모, 당사자, 관계자가 참석하는 큰 모임으로 성장했다.

2020년 1월에는 이 모임을 모체로 <한국은둔형외톨이부모협회>가 발족되어 창립총회를 열었다. 이 부모협회는 현재 한국에 존재하는 유일한 은둔형 외톨이 부모 지원 법인 단체로 자조 모임, 독서회, 저자강연회 등을 개최하고, 2021년에는 서울시 청년청 은둔청년 발굴 및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K2코리아와 함께 부모 아카데미 1, 2, 3기를 진행하였다. 이 아카데미에서는 각기 8회씩, 주말마다 3시

간 진행되며, 약 10명 정도의 부모가 참여하고, 관련 전문가의 강연으로 은둔 자녀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하는 한편, 부모로서의 맹점을 발견하고 자녀와의 효과적인 소통을 통해 가정의 변화를 만드는 방법을 배우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⑨ 청년재단

재단법인 청년재단은 2018년에 청년재단 사무총장의 의향으로 니트 청년 지원을 시작하기 위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K2코리아를 만났고, 은둔형 외톨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지원 대상을 19~34세 은둔형 외톨이 청년으로 설정해 ‘청년제 인지업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공동생활과 금융지도·지원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2019년 초부터 시작하였다. 이는 2019년 기준 K2코리아의 공동생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10명과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의 금융 상담을 받는 청년 10명, <이아당심리상담센터>의 심리·상담을 받는 청년 20명의 프로그램 예산을 전액 지원하고, 동시에 이 대상자들을 <공감인>이 집단치유 프로그램으로 지원하는 내용이었다. 한국에서 니트가 아니라 은둔형 외톨이 당사자를 위한 무료 지원이 이 청년재단의 프로그램이 처음이었고, 그동안 경제적인 이유로 K2 공동생활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어려웠던 가정에 기회가 생겼으며, 회사 입장에서도 안정적으로 10명의 입주자를 확보할 수 있다는 등 큰 의미가 있었다.

다만, 전액 무료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인해, ‘부모가 프로그램의 가치를 모르고 아이를 그냥 내보내는 경향’, ‘프로그램 참여 의욕에 진정성이 떨어지는 측면’, ‘무료로 들어갈 수 있는 시기를 놓친 당사자 부모가 다음 무료 모집 시기를 기다리기 때문에 유료로는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지원의 기회를 놓치게 되는 점’ 등 개선이 필요한 지점이 있어 ‘일부라도 유료로 하는 것이 낫다’ 등의 비판이 일부 참여 단체에서 제시되었다. 2020년에는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대신에 새롭게 은둔형 외톨이 지원 활동을 시작한 <리커버리 센터>가 새로 참여하고, 10명에 대한 지원을 받고 K2와 마찬가지로 공동생활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3) 한국은둔형외톨이지원연대와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정책

2019년에 서울시청년정책네트워크에서 제출된 은둔형외톨이 지원 정책안(예산 5억원)이 채택되어 시의회에서 통과되었다(확정 예산 3억 5천만 원). 관계자는 기쁜 소식에 서울시에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정책이나 용역사업이 나오는 것을 기다렸으나, 청년청의 판단으로 원래 니트 지원 정책으로 2019년에 진행되었던 ‘고립청년지원사업’(생명의전화종합복지관 수탁운영)의 예산 2억 원과 예산이 합쳐져 니트와 은둔형 외톨이를 나누지 않고 생명의전화 종합복지관에서 같이 지원하는 것으로 되었다. 그러나 원래 제출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정책안에 포함되어 있었던 은둔형 외톨이에 특화된 내용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주로 취업 준비와 마음 건강을 위한 활동 위주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프로그램 내용이었기 때문에, 은둔형 외톨이 정책을 기다렸던 관계자에게는 실망이 컸다.

이에 이 정책을 준비했던 청년당사자, K2코리아, 사람마중, 한국은둔형외톨이 부모협회를 중심으로 회의를 열고, 각자 작은 단체로 따로따로 활동하면 힘이 약하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단체를 만들고 서울시에 단호하게 주장을 해야 한다는 뜻으로 2020년 5월에 <한국은둔형외톨이지원연대> 준비위원회를 결성하여 네트워크와 연대 설립 준비를 시작했다.

준비위원회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네트워크 컨설팅사업의 지원을 받고 결성 준비를 진행하며, 2020년 8월 5일에는 내외 은둔형 외톨이 지원 관계자들이 넓게 모여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때 가장 큰 주제는 ‘은둔형 외톨이가 무엇인가?’라는 정의의 문제와 ‘어떻게 부르는가?’라는 호칭 문제였다. ‘은둔형 외톨이’라는 호칭이 당사자에게 상처를 준다는 강한 의견도 있었고, 사회적 고립자, 고립인, 무중력청년 등 여러 대안도 나왔지만, 결과적으로는 학술적·정치적으로 통용하는 이름이어야 한다는 이유와 이미 사회에서 사용되는 이름이 있다는 이유로 호칭은 당분간 ‘은둔형 외톨이’로 그대로 가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준비위원회에서는 서울시의회 청년의원인 여명 의원과 연계하여 국민의힘, 민주당, 정의당 3당 공동으

로 서울시의회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조례안’을 제출하게 도와주고, 8월 25일에는 여명 의원 좌장으로 서울시의회에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서울특별시의회, 2020).³⁸⁾ 11월 14개의 법인이 참여하고 정식으로 법인을 설립하였다. 조례안은 결국 통과되지 못했고, 여명 의원은 2021년 8월 25일에 다시 서울시의회에서 정책토론회를 열어 2021년 안에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서울신문, 2021.8.26.).^{39), 40)}

이 준비과정에도 광주광역시, 부산시, 제주시, 전라남도, 서울시 은평구 등 여러 지자체에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가 생겼다. 연대와 그 소속기관들은 그 과정에서 각 지자체에 자문도 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으며, 서울시에 조례가 생긴 후에는 국회에서 은둔형 외톨이 지원법을 제출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다.

(4) 서울시 청년청 은둔 청년 발굴 및 지원사업

① 서울시 청년청 지원사업의 실시 과정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20년에 원래 니트 지원 예산과 은둔형 외톨이 지원 예산이 합쳐져 진행된 고립청년지원사업은 외톨이 지원에 대한 노하우가 없어 결국 은둔형 외톨이의 발굴과 지원을 거의 할 수 없었다. 서울시 청년청에서는 2021년도에 이 예산을 은둔 청년과 니트 청년으로 분할하고, 3억 8천만 원으로 서울시의 니트 청년 150명을, 6천 5백만 원으로 은둔형 외톨이 50명을 각각 지원하기로 하여 3월에 용역 사업 공지를 냈다. 대상은 서울시 거주, 자신을 은둔형 외톨이라고 생각하는 만 19세~34세 청년이며, 기타 구체적인 조건은 걸지 않았다. 니트 청년보다 지원하기 어려운 은둔형 외톨이 청년을 50명 지원하기에는

38) 서울특별시의회 (2020). 서울시 은둔형 외톨이 현황과 지원 방안.

39) 서울신문 (2021.8.26.). 「여명 서울시의원, 은둔형 외톨이 관련 전문가들과 토론회…지원 조례안 논의」.

<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826500063>에서 2021년 10월 22일 인출.

40) 서울특별시에서는 이 원고가 작성된 이후인 2021년 12월에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서울시의회를 통과하였다.

6천 5백만 원이라는 예산은 턱없이 적은 금액이지만, 한국은둔형외톨이지원연대에서는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어 유일하게 지원 자격이 있는 K2코리아가 수탁업체가 되어 연대에 소속하는 여러 기관들이 그것을 도와주는 형태로 이 용역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한국에서 거의 처음으로 지자체 이름으로 시작된 은둔 청년 지원사업은 5월 13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했는데, 6월 중순에 서울시 청년포털에서 홍보 페이지가 생기자 신청자가 밀려와 한 달 만에 50명을 초과하였고, 그 다음 달은 100명을 넘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받으면 지원하기 어려울 것을 판단하여 9월에 신규 모집을 마감했다.

② 사업의 특징

이번 사업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첫 번째 은둔형 외톨이 무료 지원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은둔형 외톨이는 사회가 청년들을 배제하는 것으로 만들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이제 그들을 돕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K2에서는 이번 사업을 위해 일본 규슈대학에서 개발된 히키코모리 체크 테스트를 참고로 은둔 경향 체크 테스트를 개발했다(Teo et al, 2018; Kato, Kanba & Teo, 2019). 25개의 질문으로 당사자의 상태를 ① 버려짐 불안도(안전기지와 인정 결여 경향), ② 감정의 억압도(참는 경향), ③ 자존감 결여도(자기부정 경향), ④ 정신적 고립도(마음의 외톨이 경향), ⑤ 공간적 고립도(히키코모리 경향), ⑥ 우울증상도(무기력·신체적 증상 경향), ⑦ 노동적 고립도(NEET 경향)로 각각 10점 만점으로 된 그래프로 볼 수 있고, 전체 은둔 경향을 140만점으로 확인하고, 점수에 따른 간단한 해설과 조언도 받을 수 있다.

③ 사업의 문제점

사업의 문제점으로서 첫 번째로 부족한 예산을 들 수밖에 없다. 애초에 작년에 운영된 예산 4억5천만 원 중 은둔형 외톨이를 위해 책정된 금액이 3억 5천만 원, 니트 부분이 2억 원이었는데, 어떤 논리로 올해 예산 배분을 만들었는지 모두가 이해하기 힘들다. 고립청년 사업은 한 명 당 약 235만원이지만 은둔 청년 지원 사업은 그 반 정도밖에 안 되는 한 명 당 130만 원이다. 최저임금 수준으로 3명을 고용해도 4,800만 원은 드는데, 그러면 프로그램 비용이 안 나오기 때문에 결국 K2코리아에서는 인건비는 담당자 한 명밖에 책정할 수 없었다.

코로나 사태에 의한 오프라인 모임 제한도 영향이 많았다. 상담 형태로 대면 상담을 원하는 사람들이 반 정도 있어 결국 120명 가까이 되는 신청자 중 반 정도는 접수면담에 이르기 전에 연락이 두절되었다.

이바쇼 사업을 위해 공간을 마련했지만, 대면 활동 제한으로 결국 9월까지 현장에서 모일 수가 없어 상담 및 모임활동을 할 수가 없었다. 당사자 자조 모임은 8, 9월에 온라인으로 1번씩 진행했다가, 10월부터 오프라인으로 1달에 2번 진행하는 것으로 바꾸었다.

가장 희망자가 많은 심리상담 프로그램은 예산이 부족하여 취약계층을 위한 프로보노 심리·상담을 하고 있는 ‘마음복지관’에 1인당 1회 당 15,000원으로 의뢰했다. 상담 시작에 앞서 대상자를 담당할 심리상담사들에게 2번의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담당 심리상담사 12명 중에는 은둔형 외톨이를 제대로 만나본 적이 있는 사람은 두세 명이었다.

(5) K2코리아의 활동으로 보는 한국의 은둔형 외톨이 지원

지난 9년간의 K2코리아 지원 활동을 통해 한국에서의 은둔형 외톨이 지원 방향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당사자를 중심으로 한

지원구조의 필요성이다. K2코리아가 지향하는 사업 모델은 자립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어가는 지원의 선순환 구조이다. 비슷한 고민을 안고 사는 사람끼리의 공동체에서 선배나 주변사람의 도움으로 스스로가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 수 있게 되었다면, 그 은혜를 다음 세대 후배들, 자기보다 뒤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갚아주는 것이다. K2그룹에서는 이를 ‘Pay it forward’라고 부르며, 그 단계를 자립지원의 중심으로 보고 있다. 이 개념을 재현한 ‘은둔고수’들이 한국에서 앞으로 많아질 은둔형 외톨이 지원 현장에서 활약하는 주인공이 되어야, 그 존재 자체가 지금 은둔하고 있는 당사자들에게 멘토인 동시에 롤모델이 되어 자기긍정감을 주는 ‘구조적 지원’이 될 것이다.

둘째, ‘가정지원 중심주의’다. 은둔이란 당사자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살아남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스스로를 격리시키는 반응이자 생존본능의 결과다. 지원자나 부모도 당사자를 ‘고쳐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인정해야 하는 대상’으로 보아야 하며, 특히 당사자와의 소통이 어려운 경우 부모를 위한 상담 및 교육 지원을 통해 가정 전체에 변화가 이뤄지도록 도와야 한다.

셋째, 능력주의적 프로그램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기존의 고립청년 지원은 이 사회가 험하고 경쟁사회인 것을 전제로, 거기서 살아가기 위한 힘을 키우는 것이었다. 즉, 지원프로그램조차 능력주의의 영향을 지닌 것이었다. 하지만 올해의 서울시 은둔청년 지원사업에서 참여자들은 입을 모아 그런 프로그램들이 “나한테 안 맞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들은 ‘성공’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은둔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법을 알려주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다.

넷째,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이다. K2인터내셔널 그룹은 공동생활과 일경험, 중간적 일자리 지원을 중심으로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해왔다. 공동생활은 특히 핵심적 프로그램으로 잘 되면 효과가 아주 높지만 스태프의 인적자원에 의존하는 바가 크고, 그 노하우를 전달하거나 효율성을 높이는 것 역시 쉽지 않다. 또한, 지원 대상 인원수를 늘리는 것에 거주환경과 직원 수라는 한계가 있고, 참여자

입장에서도 경제적 부담이 크므로 공적 지원이 없으면 참여의 문턱이 높다. 지난 9년 사이에 같은 공동생활 사업을 하는 단체가 1개 밖에 생기지 않았던 현실을 보았을 때, 한국에서 37만 명이라고 보도되는 은둔형 외톨이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방법론은 한없이 역부족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 문제를 직면하여 K2코리아에서는 최근 ‘은둔고수’ 양성, 부모코칭, 슈퍼바이징 등 사업의 다양화를 시도하고 있다. 동시에 무의식의 발견과 내면아이 치유, 효과적인 소통법 등을 중심으로 한 부모 교육 및 당사자를 위한 은둔형 외톨이 인지 전환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다. 이러한 특화 프로그램 없이 기존의 고립청년 및 은둔형 외톨이 지원 프로그램으로는 앞으로 생길 은둔형 외톨이 공적 지원서비스에서 아무리 많은 청년을 ‘발굴’하더라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섯째, 목표 설정이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에서 나가는 것’이 목적이 되면, 은둔에서 벗어난 후에도 심리적 어려움이 계속되어 다시 은둔하게 될 확률이 높다. 실제로 공동생활 프로그램이나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도 지속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참여자들이 많다. 그 당사자가 무엇 때문에 힘든지 잘 들어주고 공감하며, 정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고민하고, 걸어가는 지원이 당사자에게는 필요하다. 집에서 부모가 시켰던 것처럼 뭔가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눈으로 보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느끼고 말할 수 있는 여유와 자신감을 주는 지원. 차가운 겨울과 같은 험한 이 세상에서 견뎌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따뜻한 봄을 만들어가는 지원, 실패를 해도, 부족하더라도, 어떤 ‘나’라도 즐기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으로 뭔가를 할 수 있게 되고, 직장으로 연결하기 전에, 이바쇼에서 ‘나의 자리’를 찾고, 사는 것 자체가 즐겁다고 느낄 수 있게 하는 지원,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세상에 ‘나의 자리’를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목적지가 될 것이다. 기존의 노동시장에 적응하기 어려운 청년들도 많다. 지원사업의 평가 측정이라는 정부나 지자체의 사정으로 프로그램에서의 ‘성공’이 참여자들에게 강요된다면, 참여자들

에게 또 다른 폭력으로 다가갈 것이다. 일의 개념이 바뀌어 가고 있는 오늘, 일을 해서 자립하는 것이 아닌, 기존의 노동시장에 적응해서 힘들게 일을 하지 않아도 모두가 배제 당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어떻게 만들지, 그들은 우리에게 물음을 던지고 있다.

6. 국내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 프로그램 사례 요약 및 시사점

지금까지 민간에서의 고립 청년 지원 프로그램 사례를 살펴보았다. K2인터내셔널은 국내에서 거의 최초로 사회적 고립 청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일본에서의 사업경험을 바탕으로 ‘은둔형 외톨이’ 관련 사업의 확대를 이끌고 있었다. 희망플랜은 비록 공동모금회 지원사업으로서는 종료되었지만 전주지역에서 지역화되고 있으며 사회복지분야에서 청년사업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진행되고 있다. 무중력지대 양천은 청년단체에서 청년사업의 운영을 맡아 진행하였으며, 고립청년 관련 위탁사업과 자체사업을 통해 청년단체의 활동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우리가 살펴본 사례들은 모두 향후 우리나라의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사업이 확대되는데 있어 좋은 본보기가 되어 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민간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업은 여러 한계를 보이고 있어 개선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어, 고립 청년 관련 사업은 대상의 포괄성, 예산지원의 안정성, 사업기간의 연속성, 프로그램의 효과성, 제공자의 전문성 면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 장에서 살펴본 사례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민간사업 경향에서 청년 당사자와 가족을 함께 지원하는 서비스 패키지가 구축되어 있었고, 이는 빈곤청년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 사용하였다. 효과적인 고립 청년 지원을 위해서 가족지원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원, 심리정서적 지원을 포함한 것에 의의가 있다. 둘째, 희망플랜은 3년 사업 이후 본 사업이 종료되어 사업 연속성이 떨어졌으므로, 향후 고립 청년들에 대한 사업은 중장기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즉, 사업 불안정성은 청년들의 서비스 회피 요인이 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한편, 장기고립 상태에 있는 청년들이 바로 직업훈련으로 넘어가기 어려웠던 점에서 도입된 초기 진입단계이자 사전 단계인 0단계 서비스는 향후 서비스 구축 단계에서 참고할만하다. 셋째, 무중력지대양천 사례에서 지적하듯 단기사업을 많이 수행하면 단기성과를 내기 위하여 변화가 용이한 청년을 대상으로 서비스할 위험이 높아지고 목표 타당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단기성과의 강조는 크림 스킴(cream skimming)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고, 단기사업이 연달아 일어나 사업의 연속성, 인력운용의 안정성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또한, 대상자의 안정과 지속적 상태변화를 이루고 실무자의 직업 안정을 높여 노하우를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장기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K2인터내셔널 예를 보면 국내에서는 고립 청년 지원에 관한 사업근거가 불분명해 민간에서 온전히 부담하면서 사업이 시작되고 유지되었다. 따라서 정책 근거마련을 통해 사업근거, 예산근거를 마련하여 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K2코리아는 2021년 서울시 은둔청년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부족한 예산과 과다한 서비스 인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준비되지 않은 서비스는 청년들의 신뢰를 잃고, 더 깊숙이 고립되게 만들 수 있으므로 적절 서비스 규모를 제시하고 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는 향후 기관양성 및 인력 양성에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⁴¹⁾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41) 이와 같이 고립청년 대상 사업주체가 부족한 상황에서 K2코리아 역시 2021년을 기점으로 문을 닫게 되었다. 이는 고립청년 지원사업을 민간에 맡겨두면 제대로 된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고립청년 지원 서비스 제공에는 공공의 역할이 필요하다.

표 VI-18 국내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 정책 및 프로그램 사례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주요 내용		시사점
전체 민간사업 경향	청년 당사자와 가족을 함께 지원하는 서비스 패키지 구축	(다차원적 서비스) 빈곤청년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가족지원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원, 심리·정서적 지원이 포함되어야 함
희망플랜	3년 사업 이후 본 사업이 종료되어 사업 연속성이 떨어짐	(사업연속성) 고립 청년들에 대한 사업은 중장기적인 고려가 필요함. 사업 불안정성은 청년들의 서비스 회피 요인이 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됨.
	초기 진입단계에 0단계 서비스를 도입	(기초단계) 장기고립 상태에 있는 청년들은 바로 직업훈련으로 넘어가기 어려워 사전 단계를 마련해야 함
무중력지대양천	단기성과를 내기 위하여 변화가 용이한 청년을 대상으로 서비스하여 목표 타당성이 떨어지는 문제	(단기성과) 프로그램의 위험성이 지적되고 있음
	단기사업이 연달아 일어나 사업의 연속성, 인력운용의 안정성 떨어짐	(장기서비스 필요) 대상자의 안정과 지속적 상태변화를 이루고 실무자의 직업 안정을 높여 노하우를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장기서비스 지원이 필요
K2 인터내셔널	사업근거가 없어 민간에서 온전히 부담하면서 사업이 시작되고 유지되었음	(근거 마련) 근거마련을 통해 사업근거, 예산근거를 마련하여 서비스 확대 필요
	기관이 가지고 있는 서비스 제공역량보다 많은 서비스 지원을 해야 함	(적정 서비스 규모) 준비되지 않은 서비스는 청년들의 신뢰를 잃고, 더 깊숙이 고립되게 만들 수 있음
	유관 기관 연대를 통해 서비스 확대를 꾀하고 있으나 역량 있는 기관과 종사자가 부족함	(서비스체계 마련) 서비스 기관 발굴 및 종사자 양성 과정이 필요

○ — 제7장 해외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정책 사례

- 1. 개요
- 2. 영국의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 정책
(Tackling loneliness)
- 3. 미국의 단절 청년을 위한
성과협력 시범사업(P3)
- 4. 일본의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 정책
- 5. 해외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정책 사례 요약
및 시사점

1. 개요

이 장에서는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정책의 해외사례를 살펴보고 국내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해외사례로 선정한 국가는 세 국가로 일본, 영국, 미국이다. 이 보고서에서 이와 같은 국가를 선정한 이유는 각기 다르다. 일본은 장기화된 사회적 고립 청년에 대한 사회적 지원, 영국은 인지된 사회적 고립 상태에 대한 사회적 지원, 미국은 사회와 단절된 청년들에 대한 지역 특화 지원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 선정하였다. 청년의 사회적 진입을 권리적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니트(NEETs) 청년을 지원하는 유럽의 청년보장제(Youth Guarantee)도 하나의 사례로 제시할 수 있으나 여기서는 고용이나 훈련에 대한 지원보다는 심리 정서적인 지원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자 다른 사례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영국(U.K.) 사례는 잉글랜드(England)의 심리·정서적 고립 상태에 포괄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국에서는 2000년대 이후로 우울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는데 인지된 사회적 고립(perceived social isolation)의 측면으로서의 외로움(loneliness)에 대해서는 아직 사회적인 관심이 낮다. 하지만 영국에서는 외로움 역시 국민의 삶의 질과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적극적으로 국가

42) 이 장은 외부 집필진으로 손동영 연구원(University of York, 박사과정), 송호준 부연구위원(한국교육개발원), 오오쿠사 미노루 슈퍼바이저(K2인터내셔널코리아)가 참여하고, 유민상 연구위원, 신동훈 부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수정, 보완하였다.

가 대처해야 할 사안으로 보고 있으며, 외로움을 관할하는 정부부처를 두고 책임자를 임명하여 사회적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Duncan & Bell, 2015; 윤혜준, 2018; 신인철, 최지원, 2019; 조근식, 2020). 사회적 고립 문제는 단지 외부적 사회적 고립뿐만 아니라 내부적 사회적 고립 문제로도 나타나므로 영국의 외로움 대응 사례는 우리나라의 사회적 고립 대응 방안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미국 사례는 단절 청년(disconnected youth) 지원사업을 소개하였다. 각 국가에서 정책 대상(policy target)으로 삼는 청년의 유형은 각기 다른데 유럽은 학습/고용/훈련 중 어느 하나도 하고 있지 않은 니트(NEETs) 청년, 일본은 일정 기간 외출을 하지 않고 사회참여를 거부하는 히키코모리 청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미국은 단절 청년이라는 용어로 사회와 연결되어 있지 않은 청년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기서는 「단절 청년을 위한 성과협력 시범사업」(Performance Partnership Pilots for Disconnected Youth; P3 사업)을 소개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고립된 청년을 의미하는 단절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단일 정책이 아닌 지역사회의 상황에 맞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각 지역의 상황에 맞게 중기적으로 청년들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는 민간과 지역에서 먼저 정책을 이끌어가고 중앙정부에서 뒤늦게 문제를 인지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본 사례는 장기적 고립 상태에 있는 청년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앞서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 고립의 장기화가 은둔의 형태로 나타나는 형태를 살펴보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 지원 형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1990년대 발생한 히키코모리 문제가 장기화되면서 8050의 세대 문제로 변화되고 있다는 점은 두 가지 면에서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첫째는 사회적 고립은 생애에 걸쳐 나타나고, 고립 생활이 장기화될 경우 다시 사회로 진입할 가능성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게 된다는 것, 둘째는 고립 생활은 청년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것은

결국 사회 문제로 돌아온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일본은 어떻게 장기적 고립 상태의 청년들을 지원하고 있는지, 가족들에 대한 지원은 어떠한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와 같이 사회적 고립 문제에 대해 사회 문제로 인식하고 사회적으로 대응한 국가들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하였다. 나아가 그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해야 할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 받고자 한다.

2. 영국의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 정책(Tackling loneliness)⁴³⁾

1) 현대 사회에서 개인의 외로움은 왜 사회 문제화 되는가

외로움 문제는 성별, 인종, 연령, 거주지역 등 개인의 특성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경험한다는 측면에서 ‘감기’에 비유되고는 한다(Weiss, 1973, 신지은, 김가영, 2018: p.297에서 재인용). 또한, 개인의 감정 그리고 관계 문제와 결부된다는 점에서 외로움은, 공적인 영역에서 논의할 대상이라기보다는 지극히 사적인 이슈로 받아들여지기 쉽다. 이러한 견지에서 영국 정부가 외로움 문제를 “현시대의 가장 큰 공중 보건 문제 중 하나”(DCMS, 2018: p.2)로 규정하고, 세계 최초로 외로움 관련 업무를 주도하는 장관을 임명한 점은 일견 비상식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

영국에서는 감기와도 같이 모든 이가 살아가면서 이따금씩 경험하며, 가장 사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외로움 문제를 어떠한 이유로 정부가 나서서 개입해야만 할 주요한 사회적 문제로 정의내리는 것인가? 더구나 ‘외로움’이라는 하나의 단어로 현상을 포착하고자 하더라도, 개인의 인구·사회·문화·경제적 특성에 따라 혹은

43) 이 장은 외부 집필진으로 손동영 연구원(University of York, 박사과정)이 작성하였다.

개인의 성향에 따라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와 그 양상은 다양할 수밖에 없는데 이들에 대해 사회적 처방을 내리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외로움 문제를 대하는 영국 정부의 기본 인식은 2018년에 발표된 “A connected society: A Strategy for tackling loneliness – laying the foundations for change”(이하 “연결된 사회(2018)”)의 서문에 가장 집약적으로 나타난다. 테레사 메이(Theresa May) 전 영국 총리가 작성한 해당 글의 핵심부를 발췌해서 옮기면 다음과 같다(DCMS, 2018: p.2).

“연령과 배경을 막론하고 누구나 외로움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더욱이 우리 사회가 점차 발전함에 따라, 삶에 개선을 가져다주는 변화들이 다른 한편으로는 외로움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유연근무와 원격근무가 확대되고, 온라인 장보기가 가능한 생활환경에서, 사람끼리 어울리는 데서 피어나는 그 온기가 우리의 일상에서 사라질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대인 접촉의 감소는 우리의 인간다운 삶(humanity)을 크게 파괴하며, 영향을 받는 개개인 모두의 건강과 행복에 심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오늘날 [관련] 연구들은 외로움 문제가 우리의 신체적 건강에 흡연만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국 정부는 외로움 문제를 주요한 사회문제로 규정하는 이유로 첫째 다수의 개인이 경험하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둘째 특히 개인 간의 접촉 빈도가 줄어드는 현대 사회의 특성으로 인해 개인들은 외로움 문제에 더 쉽게 노출되고 있다는 점을 꼽는다. 무엇보다도 만성적으로 경험하는 외로움 문제는 개개인들의 건강과 삶의 수준에 심대한 타격을 입힌다는 점에서 영국 정부는 외로움 문제를 공공의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해결해야 할 “오늘날 가장 중요한 공중보건의 이슈 중 하나(one of the greatest public health challenges of our time)”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DCMS, 2018).

그렇다면 실제 영국 정부는 사회구성원들이 경험하는 외로움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어떠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가? 구체적으로, 외로움 관련 부처를 신설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외로움부 장관을 임명’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며, 외로움 대처 정책은 어떠한 업무 구조를 통해 수행되고 있는가? 세계의 수많은 국가 중 유독 영국에서 외로움 문제가 주요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계기는 무엇인가? 실제 외로움 관련 사업은 어떠한 양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어지는 챕터들에서는 이 질문들에 하나씩 답해보고자 한다. 단, 서술의 범위는, 영연방에 속한 국가 중 외로움 대처 정책이 중앙정부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잉글랜드의 사례⁴⁴⁾로 한정한다는 점을 미리 밝혀둔다.

2) 잉글랜드인들의 외로움 실태 및 원인에 관한 논의

(1) 외로움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논의

잉글랜드에서 외로움 문제 대처가 정부의 핵심 정책 의제로 부상하는 데는 조 콕스(Jo Cox) 전 국회의원의 역할이 지대했다. 실제 외로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영국 정부의 비전과 포괄적인 정책 목표를 제시한 “연결된 사회(DCMS, 2018)”에서는 잉글랜드의 외로움 대처 정책의 기본 취지가 조 콕스 의원의 유지를 계승하는 것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밝히고 있다(DCMS, 2018: p.12, 14, 16). 2015년 노동당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기 이전 빈곤, 사회적 차별, 폭력 및 산모 사망 등의 이슈를 중심으로 자선 단체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는 조 콕스는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후에는 외로움 문제에 큰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다.⁴⁵⁾ 개인적으로 대학교

44) 참고로 잉글랜드 외 영연방에 속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는 영국 중앙정부와 국회의 의사결정에 일정 수준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동시에 자체적인 정부와 국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그만큼 높은 수준의 자치를 누린다. 반면, 잉글랜드는 별도의 국회와 정부를 구성하지 않고 있으며 영국 중앙정부와 국회의 의사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외로움 대처 정책의 경우에도 2021년 6월 현재 스코틀랜드와 웨일즈에서는 자체적인 외로움 대처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북아일랜드에서는 아직 관련 정책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Macdonald et al., 2021: pp.65-71).

45) Jo Cox의 생애에 대한 설명은 다음 웹사이트 참고: <https://www.jocoxfoundation.org>

재학 시절 심각한 외로움 문제에 시달린 경험이 있는 조 콕스는 자신의 고향이기도 한 자신의 선거구 내에서 많은 지역민들이 외로움 문제로 고통받는 모습을 대면했다.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그녀는 사회 구성원 누구나 외로움 문제에 노출될 수 있으며, 외로움 경험으로 인한 피해가 실질적이며 지속적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나아가 외로움 문제가 영국 사회의 주요한 사회 문제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려나가기 시작했다(Jo Cox Commission on Loneliness, 2017: p.1). 그녀의 지론은 외로움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자선단체뿐만 아니라 개인과 공동체 그리고 기업까지 함께 연대해서 공동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었다. 이러한 믿음을 바탕으로 그녀는 보수당의 심마 케네디(Seema Kennedy) 의원과 함께 초당 파적인 위원회를 조직했으며, 나아가 자선단체, 영리 기업, 정부 조직을 아우르는 광범한 정책 네트워크를 형성하고자 했다(DCMS, 2018: p.12).

불행하게도 조 콕스는 2016년 6월 불의의 사고로 인해 사망했다. 하지만 조 콕스의 문제 인식에 공감하는 의원들이 조 콕스 의원의 의지를 계승하기 위해 2017년 1월 ‘조 콕스 위원회(Jo Cox Commission on Loneliness)’를 창립하였다. Age UK, Carers UK, 영국 적십자 등 12개의 자선 단체뿐만 아니라 유통업체인 Co-op와도 파트너십을 형성한 조 콕스 위원회는 “Combatting loneliness one conversation at a time: A call to action”(Jo Cox Commission on Loneliness, 2017)라는 보고서를 발간하여 영국에서의 외로움 실태의 심각성에 대해 알리고, 영국 정부에 구체적인 정책 권고안들을 제시했다. 해당 보고서 내 정책 권고안들을 찬찬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⁴⁶⁾.

첫째, 조 콕스 위원회에서는 외로움 대처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국가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주문했다. 조 콕스 위원회는 외로움 문제가 정부 자체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성질의 문제가 아니며, 또한 이미 외로움 문제

46) Jo Cox Commission on Loneliness(2017)에서도 영국인들의 외로움 실태에 대한 경험 분석 내용을 제시하나, 본 보고서에서는 해당 분석 내용을 소개하지 않는다. 대신 보다 최신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 통계 분석 결과를 ‘2. 외로움 실태 및 원인에 대한 경험 분석’ 파트에서 소개한다.

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개인·가족·공동체·자선 단체·기업 및 지방 정부 등이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 콕스 위원회는 개별 주체들의 노력을 조율하고, 촉진하는 역할은 정부가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리더십 수행과 관련하여 조 콕스 위원회에서는 다음의 세 가지 세부적인 정책 권고안을 제시했다(Jo Cox Commission on Loneliness 2017: p.14).

- ① 전 연령대의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적 차원의 외로움 대처 전략을 정부가 주도한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타 주체들의 아이디어와 전문성, 역량을 적극 활용한다. 지방 정부 차원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외로움 대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한다. 또한, 중앙 정부는 매 년 1회 국회에 외로움 대처 사업의 성과에 대해 보고하도록 한다.
- ② 외로움 대처 정책과 관련하여 리더 역할을 수행하는 정부 책임자(Minister)⁴⁷⁾를 임명한다. 해당 인물은 외로움 대처 전략을 개발하고 관련 정책을 시행하는 데 주된 책임을 진다.
- ③ 현재 시행되고 있는 'Family Test'⁴⁸⁾를 'Family and Relationships Test'로 확대 개편한다. 이를 통해 사회정책이 가족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개개인 간의 관계, 공동체 내의 네트워크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검토하도록 한다.

둘째, 조 콕스 위원회는 외로움 관련 측정 지표 개발 및 경험 자료 축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위원회에서는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을 위해, 외로움 문제의 실태와 외로움 대처 정책의 효과를 측정할 지표들을 개발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사회의 각 주체들이 외로움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로 노력을 펼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각양각색의 외로움 대처 전략의 효과성을 평가할 경험 자료(evidence)의 축적이 필요하다는 점을

47) Minister는 '부장관'으로 해석될 수 있음

48) 영국 정부가 정부의 정책이 가족형성 및 해체, 가족 내 역할 수행(부모 역할, 돌봄), 가족 간의 관계 등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수행하는 조사. 보다 자세한 설명은 DWP (2020). The Family Test, London: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을 참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개인들에게 외로움 문제가 생겨날 수 있는 잠재적인 원인들에 대해 설명하고, 외로움을 느낄 시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알릴 것을 권고했다. 측정 및 경험 자료 축적 이슈와 관련된 다섯 가지 세부 정책안들은 아래와 같다(Jo Cox Commission on Loneliness, 2017: p.16).

- ① 전 연령대의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지표를 개발한다. 이를 통해 국가적·지역적 차원의 정책성과를 모니터링 한다.
- ② ‘Understanding Society’와 ‘Good Childhood’ 등 주요 서베이에 외로움 측정 항목을 포함시킨다. 이는 외로움의 원인과 효과에 대해 파악하는 양질의 자료를 생산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 ③ 통계청(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에서 외로움에 대한 연간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 ④ 외로움 대처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연구에 투자한다. 관련 업무는 What Works 센터에서 주도한다.
- ⑤ 잉글랜드 공중 보건국(Public Health England)이 주도하여 외로움 예방과 개인 간의 관계 개선에 도움을 주는 쉽고 이해하기 쉬운 메시지들을 개발하여 국민들에게 전달한다.

마지막으로 조 콕스 위원회에서는 외로움 문제 해결의 실천을 촉구하는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위원회는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역량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지원 - 특히 금전적 지원 - 의 부족으로 인해 관련 서비스를 충분하게 공급하지 못하는 기관과 단체가 많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적은 돈을 투자하는 것만으로도 개인들이 관계를 새로이 형성하거나 회복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관련된 3개의 정책 권고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Jo Cox Commission on Loneliness, 2017: p.18).

- ① 각종 재단 및 후원자들과 협력을 통해 [각 주체가 외로움 대처 전략을 수립하는 데] 혁신의 기운을 불어넣는다(stimulate innovation).
- ② 사람들 간에 관계 유지 및 형성을 돕기 위해 자체적인 사업을 펼치려는 지역 공동체(communities)에 초기 사업금(seed funding)을 제공한다.
- ③ 모범적인(promising) 접근법들이 더 확산되고,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도록 돕는다.

조 콕스 위원과 조 콕스 위원회의 활동은 잉글랜드에서 정부 주도의 외로움 대처 정책 및 전략이 마련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조 콕스 위원회의 정책 권고안은 이후 영국 정부에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외로움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DCMS, 2018: p.12, 14, 16).

2018년 1월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는 조 콕스 위원회의 권고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잉글랜드 차원의 외로움 대처 정책을 구상하는 데 착수하기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영국 보수당 정부는 통계청에 외로움 측정을 위한 지표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고, 또한 외로움 대처 사업을 수행하는 주체 및 기관들에 대규모 재정 지원을 약속했다. 최초의 외로움 관련 업무는 문화부(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⁴⁹⁾와 보건·사회적 돌봄부에 할당되었으며, 외로움 대처 정책에 관여하는 정부 부처의 수는 급속하게 확대되어 2018년 연중에 이미 주택·커뮤니티 지방정부부, 교통부, 사업·에너지·산업전략부 또한 외로움 대처 정책을 다루기 시작했다(Macdonald et al., 2021: p.34).

또한, 조 콕스 위원회의 활동과 메이 정부의 외로움 대처 정책의 관계에 대해 논할 때, 반드시 언급해야 할 지점은 메이 정부가 조 콕스 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여 시민사회 장관을 ‘외로움부 장관’에 임명했다는 점이다(DCMS, 2018: p.2).

구체적인 잉글랜드에서 집행되고 있는 외로움 관련 정책의 사례들, 그리고 실제

49) 후술하겠지만, 잉글랜드 외로움 정책의 총괄 책임을 맡는 직책인 시민사회 장관(Minister for Civil Society)은 한국 행정 각료 체계와 비교하면 장관직이 아니라 차관직에 해당되는 직책임. 시민사회부 또한 독립된 정부 부처가 아니라 문화부에 소속된 부서임.

영국 혹은 잉글랜드에서 외로움 정책이 수행되는 업무 구조에 대해서는 “정부 주도의 외로움 대처 정책”에서 설명한다.

(2) 외로움 실태 및 원인에 대한 경험 분석

잉글랜드인이 겪는 외로움 문제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취약 집단을 선정하는 일은 잉글랜드 외로움 대처 정책의 주요 사업으로 꼽힌다. 이 실태 파악 작업의 중요성은 외로움 문제를 겪는 이들을 수월하게 발견하고, 외로움 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완화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DCMS, 2018: p.21).

표 VII-1 잉글랜드에서의 외로움 측정 문항

Measures	Items	Response categories
The three-item UCLA Loneliness scale	1. How often do you feel that you lack companionship?	Hardly ever or never, Some of the time, Often
	2. How often do you feel left out?	Hardly ever or never, Some of the time, Often
	3. How often do you feel isolated from others?	Hardly ever or never, Some of the time, Often
The direct measure of loneliness	How often do you feel lonely?	Often/always, Some of the time, Occasionally, Hardly ever, Never

* 자료: ONS (2018b). Measuring loneliness: guidance for use of the national indicators on surveys, p.4.

영국에서는, 외로움에 대한 개념 정의는 Perlman과 Peplau(1981)의 안을 활용 하여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관계의 지지가 양적 또는 질적인 면에서 기대보다 부족한 경우 발생하는 유쾌하지 않은 감정”(이동귀 외, 2016: p.18)으로 정의 내리고 있다. 또한, 영국 정부는 개개인이 느끼는 외로움의 빈도를 측정하기

위해 UCLA에서 개발한 3개 문항 혹은 “How often do you feel lonely?”라는 단일 문항을 활용하고 있다(표 VII-1 참고).

영국 정부에서는 이따금씩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는 문제적 상황이 아니지만, 외로움을 느끼는 빈도가 많거나 만성적인 외로움을 느낄 경우에는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것으로 간주한다(Macdonald et al., 2021: p.8). 또한, 사회적 고립(social isolation)과 외로움을 구분하여, 주체가 얼마나 자주 홀로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경험이 아니라 외로움에 대한 주관적이고 정서적인 경험에 초점을 두고 외로움 수준을 파악하고 있다(ONS, 2018a).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잉글랜드인들이, 어떠한 유형의 잉글랜드인들이 자주 혹은 만성적으로 외로움을 느끼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Macdonald et al.(2021)은 ‘Community Life Survey 2019/20’ 자료를 활용하여, 16세 이상 잉글랜드인들이 느끼는 외로움 수준을 주요 집단별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주요 분석 결과들을 살펴보면 다음 그림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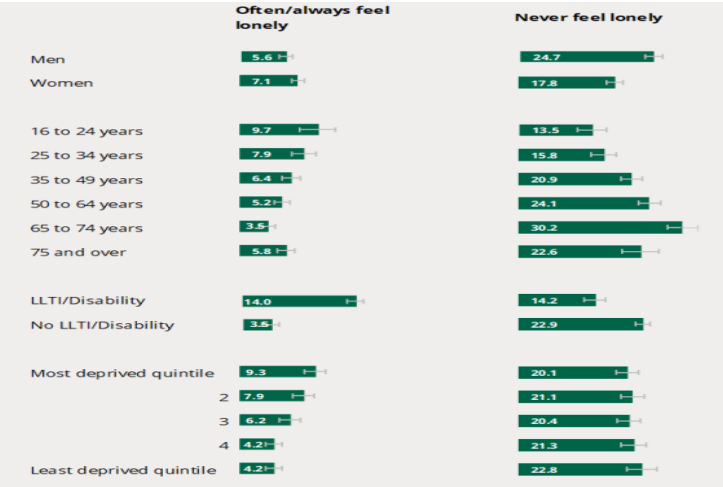


그림 VII-1 인구·사회적 집단별 ‘외로움을 빈번하게’/‘결코 느끼지 않는’ 이들의 비율

* 자료: Macdonald et al. (2021), Tackling Loneliness. p.9.

첫째, 16세 이상 잉글랜드 성인 중 47% 이상이 일정 수준 이상의 외로움을 느끼는 것으로 드러났다. 53%의 응답자가 전혀 외로움을 느끼지 않거나 거의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다고答한 반면, 나머지 47%의 응답자는 “가끔”, “종종”, “자주/항상” 외로움을 경험한다고答했다(Macdonald et al., 2021: p.10).

둘째, 16세 이상 잉글랜드 성인 중 6%가 ‘자주’ 혹은 ‘항상’ 외로움을 느낀다고答했다(Macdonald et al., 2021: p.10).

셋째, 절대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다고答한 남성의 비율은 24.7%로, 동일한答을 한 여성의 비율 17.8%보다 높게 나타났다(Macdonald et al., 2021: p.10).

넷째, 가장 빈번하게 외로움을 느끼는 연령대는 16-24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 16세에서 24세 이하 응답자 중 “자주/항상” 외로움을 느낀다고答한 이의 비율은 9.7%이며, 25세에서 34세 연령대의 경우에도 7.9%가 “자주/항상” 외로운 감정을 경험한다고答변했다. 이에 반해 35세 이상 연령군들의 경우 동일한答변을 한 응답자의 비율이 3.5%에서 6.4%로, 35세 미만 인구에 비해 만성적인 외로움을 느끼는 개인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만성질환을 앓거나 장애를 갖고 있는 이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외로움을 더 빈번하게 느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후자의 경우 “자주/항상” 외로움을 느낀다고答한 사람의 비율이 3.5%에 불과한 반면, 전자의 경우 그 비율이 14%에 달한다(Macdonald et al., 2021: p.10).

여섯째, 사회적 박탈 수준이 심각한 지역에 사는 지역민들이 사회적 박탈 수준이 낮은 지역에 사는 지역민보다 외로움을 빈번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박탈 수준에 따라 각 지역들을 오분위별로 묶어서 파악했을 때, 사회적 박탈 수준이 높은 지역일수록 지역민 중 “자주/항상” 외로움을 느낀다고答한 이들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가장 사회적 박탈 수준이 높은 20% 지역에 사는 개인 중 “자주/항상” 외로움을 느낀다고答한 이들의 비율은 9.3%였다. 마지막으로 인종 간, 지역 간에는 “자주/항상” 외로움을 느낀다고答한 응답자의 비율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Macdonald et al., 2021: p.10).

ONS(2018a)에서는 ‘Community Life Survey’ 2016/17년 자료를 활용하여 보다 다양한 인구·사회·건강·경제학적 변수들과 개개인이 느끼는 외로움의 빈도 간의 영향 관계를 탐색하였다. ONS(2018a)의 주요 분석 결과를 발췌하여 옮기면 아래의 표와 같다. 참고로 아래의 표에는 Macdonald et al.(2021)에서 다룬 설명 변수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표 VII-2 외로움을 빈번하게 느끼는 개인들의 특성

변수	각 집단별 “자주/항상” 외로움을 느낀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
혼인 관계	· 기혼(married or in a civil partnership): 2.47% · 미혼: 8.60% · 별거 혹은 이혼: 8.87% · 사별: 9.88%
고용 지위	· 취직: 4.65% · 실업: 12.58% · 노동시장 미참여: 6.48%
타인과 동거 여부	· 타인과 동거: 4.68% · 독거: 11.42%
주택 소유 여부	· 자가 보유: 3.59% · 임대 주택 거주: 9.50%
지역 소속감	· 지역소속감이 강함: 3.50% · 지역소속감이 보통: 6.37% · 지역소속감이 약함: 14.76%
전반적인 건강 수준	· 건강 상태 매우 좋음: 2.87% · 건강 상태 좋음: 4.22% · 건강 상태 나쁘지 않음: 8.45% · 건강 상태 나쁨: 17.65% · 건강 상태 매우 나쁨: 25.80%

* 자료: ONS (2018a), "Loneliness: What characteristics and circumstances are associated with feeling lonely?"에서 관련 정보를 발췌하여 직접 표를 구성.

나아가 ONS(2018a)은 동일 자료를 활용하여 잉글랜드에서 외로움 문제에 가장 취약한 위험군 집단 세 개를 선정하였다. 이와 대비하여 잉글랜드인 중에서

가장 외로움을 느끼는 빈도가 낮은 대조 집단도 제시한다. 각 집단의 구체적인 특성과 각 집단에 속한 개인 중 “가끔” 혹은 그보다 외로움을 느끼는 빈도가 빈번하다고 대답한 이들의 비율은 아래의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The Community Life Survey 2016/17’ 전체 응답자 중 “가끔” 혹은 그보다 자주 외로움을 느낀다고 응답한 이의 비율은 46%이다(ONS, 2018a: p.16).

표 VII-3 외로움 문제에 가장 취약한 집단

분류	집단	특성	“가끔” 혹은 그보다 빈번하게 외로움을 느끼는 개인의 비율
취약 집단	신뢰 수준이 낮고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대한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는 세입자	· 연령은 16-34세 · 혼인 상태는 미혼이거나 별거 중이거나 이혼 상태임. · 임대 주택 거주 · 다른 이들과 동거함. · 건강상태가 양호하며 만성적인 질환이나 장애가 없음	61%
	사별 후 독거 중이며 장기질환에 시달리는 고령의 자가거주자	· 연령은 65세 이상 · 건강 상태가 양호하지 못함 · 독거 · 자가소유 · 신체적인 장기 질환이나 정신 질환을 앓음	69%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독신 중년인	· 35-64세 연령대 · 미혼 혹은 별거 중이거나 이혼 상태임 · 신체적인 장애나 장기 질환을 갖고 있거나 정신 질환을 앓음. · 혼자 거주함. 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보다는 주거 공간을 임대해서 사는 경우가 많음 · 주관적인 건강 수준이 보통이라고 답하거나 양호하지 않다고 답한 경우가 많음.	81%
대조 집단	건강한 기혼의 주택보유자	· 35세 이상(특히,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높음) · 기혼 · 건강상태가 양호함 · 주택을 보유함 · 지역소속감이 강함	15%

* 자료: ONS (2018a), “Loneliness – What characteristics and circumstances are associated with feeling lonely?”, pp.15-19를 바탕으로 직접 표를 구성.

‘Community Life Survey 2019/20’은 16세 이상 응답자의 외로움 경험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해주는 반면, ‘2018 Good Childhood Index Survey’ 자료에서는 10-15세 잉글랜드 아동·청소년의 외로운 경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10-15세 연령대 응답자 중 “자주” 외로움을 느낀다고 답한 이의 비율은 11%이며(Macdonald et al., 2021: p.11), 특히 10-12세 아동·청소년의 경우 그 비율이 14%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질문 문항과 응답 선택지의 차이⁵⁰⁾로 인해 이 수치를, ‘Community Life Survey 2019/20’에 대한 분석 결과와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 Good Childhood Index Survey’의 설문 결과는 10-15세 아동·청소년 역시 16-24세 연령군과 마찬가지로, 다른 연령군에 비해 외로움 문제에 보다 취약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3) 정부 주도의 외로움 대처 정책

(1) 업무 수행 구조

잉글랜드를 대상으로 영국 정부가 외로움 대처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각종 뉴스매체를 통해 알려진, “2018년 1월 테레이시 크라우치(Tracey Crouch) 시민사회부 장관(Minister for Civil Society)이 세계 최초의 ‘외로움부 장관’(Loneliness Minister)으로 임명되었다”는 정보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먼저 언급할 점은 ‘외로움부 장관’의 직책이 한국의 각료 체계에 견주면, 장관직이 아니라 차관직에 해당된다는 점이다. 최초의 외로움부 장관인 테레이시 크라우치 - 2021년 8월 현재 해당 직책은 바로니스 바란(Baroness Barran)이 맡고

50) 10-15세(children) 대상 외로움 측정 문항에 대한 설명은 (ONS, 2018a)을 참고.

있음 - 는 문화부 하위 부서인 시민사회부의 장관이며, 시민사회부의 장관직은 'Parliamentary Under Secretary of State'로 칭해지는데 이 직책은 영국 행정부 각료 중 가장 낮은 직책이며 엄밀히 말해 차관직에 해당된다.⁵¹⁾

둘째, 시민사회부 장관이 기존에 수행하던 업무에 더해 외로움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추가적으로 맡게 된 것이다. 즉, 별도로 외로움부에 해당되는 정부 부처가 신설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셋째, 외로움부 혹은 시민사회부가 외로움 관련 정부 정책을 총괄하고 조율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맞지만, 관련 업무가 해당 부서에만 할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참고로 “연결된 사회(2018)”에서는 정부가 추구할 3대 목표 중 하나로 모든 정부 부처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해당 정책이 개개인의 외로움 감정과 행복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는 것을 꼽고 있으며(DCMS, 2018: p.7), 실제 9개의 정부 부처가 “연결된 사회(2018)”에 설정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외로움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유의해야 할 점은 중앙 정부가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영국의 외로움 대처 전략은 “모든 이들이 관계망을 있고 협력하는 과정에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외로움 문제에 대처할 수 있다(Everyone can play a role in connecting and collaborating to tackle loneliness)”라는 표어를 강조한다. 특히, 영국 중앙 정부는 외로움 대처 전략의 주요 주체로 중앙 정부와 더불어 친구·가족·공동체, 고용주, 제3섹터(voluntary and community sector), 그리고 지방 정부 및 공공/건강 서비스 기관들을 호명하고 있다(DCMS, 2018: p.15).

그렇다면 영국 중앙 정부 내 외로움 대처 업무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외로움에 대처하는 전(全) 사회적인 협업을 수행해나가는 과정에서 각 주체들

51) 영국 행정부 각료의 직책은 장관(Secretary of State), 부장관(ministry of State) 그리고 차관(Parliamentary Under Secretary of State)으로 나누어지며, 장관-부장관-차관 순으로 그 직책이 높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권재현(2018.6.19)을 참고.

에게 어떠한 역할들이 요구되는가? “연결된 사회(2018)”에서는 다음과 같은 상을 제시한다.

먼저, “연결된 사회(2018)”에서는 영국 중앙 정부가 수행해야 할 핵심 역할을 “정보 공유(sharing), 학습, 혁신을 촉진하는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주체들에게] 리더십과 지침(policy)을 제공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다(DCMS, 2018: p.15). 그리고 해당 역할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수행될 것이라 밝힌다(DCMS, 2018: p.61).

- 시민사회부가 외로움 대처 전략에 대한 범정부적 업무들(cross-government work)을 계속 주도적으로 이끌 것임.
- 중앙 정부 내에서 부장관·차관 그룹(‘the cross-government ministerial group’)에 속한 부서들은 외로움에 대처하는 업무를 계속 수행하며 관련 정책전달들이 전달 과정(delivery)을 감독함. 이와 더불어, 중앙 정부는 The Loneliness Action Group - 영국 적십자와 Co-op⁵²⁾을 중심으로 조 콕스 위원회의 협업기관들이 형성한 연대체 - 및 그 구성원들과 상호 정보공유를 하고 효과적인 정책 시행을 위해 긴밀하게 협업
- 주택·커뮤니티 지방정부부, 교통부, 사업·에너지·산업전략부 등 핵심 부처의 부장관, 차관들은 외로움 문제와 관련된 포트폴리오를 맡게 될 것임. 시민사회부와 보건·사회적 돌봄부에서는 이미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외로움 대처 사업은 수세대에 걸쳐서 시행되어야 할 정책이며, 다양한 정부 정책을 통해서 이루어짐. 중앙 정부에서는 외로움 이슈가 지속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질 수 있도록, 새로운 정책을 도입할 때 외로움 이슈가 주요 검토 사항으로 고려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임.
- 2019/20년부터 각 정부 부처들은 외로움 문제와 관련하여 각 부서가 수행한 정책과 그 성과에 대해 설명하는 보고서를 매 년 발표할 것임.
- 정부의 목표는 모든 정부 부처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해당 정책이 개개인의 외로움 감정과 행복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도록 하는 것임. 이를 위해 정부 측에서는 Family Test에 대한 지침을 변경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펼칠 것임.

52) 영국의 주요 유통업체

“연결된 사회(2018)”를 참고하여 중앙정부 이외에 각 주체들에 기대되는 역할들을 간략하게 열거해보면 다음과 같다(아래 그림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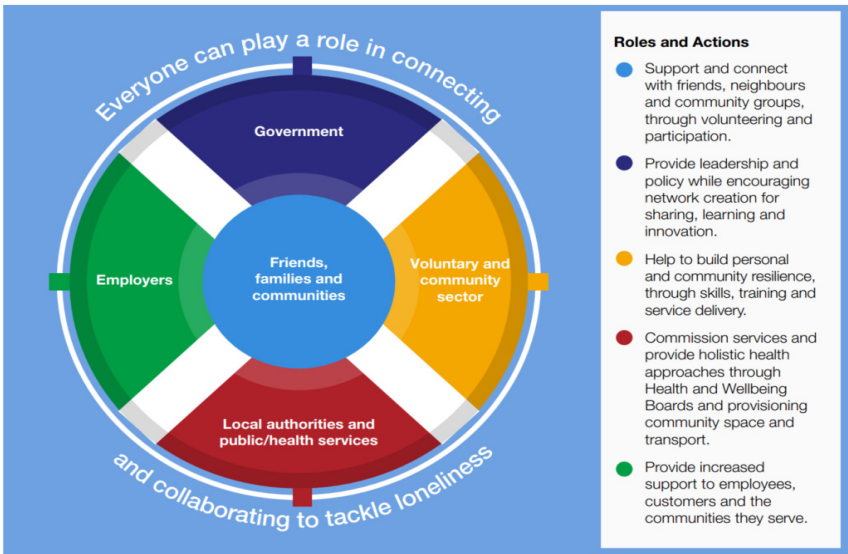


그림 Ⅶ-2 외로움 대처 사업의 주체 및 주체별 역할

* 자료: DCMS (2018), A connected society: A strategy for tackling loneliness-laying the foundations for change-. p.15.

“연결된 사회(2018)”에서는 지방 정부가 지역민의 행복 문제와 관련되는 의사 결정 및 계획을 세울 때 외로움 문제를 고려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DCMS, 2018).

의료 및 기타 공공서비스(health and other public services) 제공기관에 기대되는 역할은 외로움을 빈번하게 느낄 위험이 높은 이들을 확인하고,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기관에 이들을) 의뢰하고, 이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것이다(DCMS, 2018). (후술할 ‘(2) 주요 정책 ① 사회적 처방(social prescribing)’ 참고)

사업체를 포함한 고용주들에게 기대되는 역할은 피고용인들이 직장과 직장 밖 공간에서 자신의 사회적 관계망(social well-being)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

해주는 것이다. 또한, 업무 외 시간에 고객 혹은 지역 주민들에게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해줄 수도 있다(DCMS, 2018).

제 3섹터(voluntary and community sector)에서는 이미 외로움 문제에 대처하고 사람들 간의 교류를 촉진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프로그램(projects)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 참여자들에게 외로움 문제에 대한 지식과 대처법을 함께 전달해주면 더욱 좋을 것이다(DCMS, 2018).

마지막으로 가족·친구 그리고 공동체(communities)의 경우, 서로를 좀 더 포용적으로 대하며,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데도 적극적인 태도를 취해주면 좋을 것이다. 개인들은 자원 봉사와 같은 방식을 통해 공동체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공동체의 경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역할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다. 또한, 모임 내에서 취약하고 고립되기 쉬운 사람들을 공동체 내로 좀 더 포용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DCMS, 2018).

(2) 주요 정책

전술하였듯이, 잉글랜드 외로움 정책의 장기적인 목표와 세부계획은 2018년에 발표된 “연결된 사회(2018)”를 통해서 구체화되었다. “연결된 사회(2018)”는 58개의 정책 목표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정부 내 9개 부처가 수행해야 할 업무와 계획들을 분명하게 기술하고 있다. 보고서 내용에 대한 윤혜준(2018: p.159)의 요약·정리를 옮겨보면 아래와 같다.

표 VII-4 “A Connected Society: A Strategy for Tackling Loneliness”의 주요 내용 및
제시된 정책 목표

구분	내용
Chapter 1	· 증거 기반 전략의 방향 - 외로움에 관한 기존의 연구 및 조사 결과 종합 제공 - 외로움 측정 국가지표 지속적 개발 - 효과적인 정책 개입에 관한 증거 기반 자료 지속적 제공
Chapter 2	· 연결된 사회 구축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파트너십: 조직과 서비스 - 사회 처방 서비스 확대: 2020년까지 영국 전역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며, 다수의 사람들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외로움을 경험할 때 그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 - 관계 기관의 정보 공유: 지역 주민들이 적합한 활동, 서비스, 지원 등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도록 관계 기관들이 4개의 Data pilot 운영(The Department for Digital, Culture, Media and Sport, 지방 당국, the Local Government Association 등) - Home Office는 우체국, 민간 기업, 지방 당국, 지역 단체들과 함께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는 노인들을 찾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
Chapter 3	· 연결된 사회 구축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파트너십: 지역사회 인프라 -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는 다양한 공간을 활용하여 지역사회가 관계 형성을 도울 수 있도록 재정 투입 예정 - 교육부는 지역사회의 중심에서 학교가 접근 가능하고 개방된 공간으로 활용되도록 지침 공개 예정 - 교통부는 외로움을 줄이기 위한 교통수단의 역할 개발을 위해 교통서비스 공급자와 지역 관계 집단들과 함께 파트너십 형성
Chapter 4	· 연결된 사회 구축을 위한 사회적 관계 형성 문화 조성 - 외로움과 관련된 공론을 만들고, 낙인을 없애고, 커뮤니티 그룹을 번영시키기 위한 정부와 다른 기관의 협력 - 캠페인을 통해 외로움에 관한 편견을 줄이고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키우는 방법, 그리고 어떻게 쉬운 메시지와 정보를 통해 사람들이 행동하도록 만들지 탐색
Chapter 5	· 정부의 의제 추진 계획 - 스포츠·시민사회 장관이 외로움 문제와 관련한 범정부 팀 정책을 주도 - 외로움 어젠다의 진행 상황에 관한 보고서 매년 발간

* 자료: 윤혜준 (2018). p.159.

나아가 본 챕터에서는 “연결된 사회(2018)”에 제시된 정책 목표와 결부지어서, 최근 잉글랜드에서 수행되고 있는 주요 정책 혹은 사업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① 사회적 처방

“연결된 사회(2018)”에서는 사회적 처방(Social Prescribing)을 잉글랜드의 외로움 대처 정책의 키워드로 꼽는다. 사회적 처방과 관련한 잉글랜드 정부의 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사회적 처방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연결된 사회(2018: p.25)”에서는 사회적 처방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기관들로 하여금 클라이언트들(people)을 사회적, 정서적 혹은 생활상의 필요에 대한 지원을 제공해주는 다양한 서비스로 의뢰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중략)이 매개자 역할을 하는 정책은 링크 워커(Link Worker)를 고용하는데, 링크 워커들은 지역 담당 의료기관(GP)을 포함한 지역기관으로부터 클라이언트를 의뢰받는다. 링크 워커들은 의뢰받은 클라이언트와 함께 각 개인의 행복 욕구(well-being needs)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적합한 계획을 수립한다. 링크 워커들은 클라이언트들을 채무·주거·고용 관련 상담, 예술활동 참여, 친구사귀기, 체육활동 등 지역 내 활동에 참여하거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시켜줌으로써 그들이 외로움 감정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실제 지금까지 축적된 통계 자료들에 따르면, 사회적 처방은 클라이언트들의 정신건강 수준으로 크게 향상시키고 미래 의료서비스 이용을 크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파악된다. 가령, 2019년 10월 영국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Rotherham에서 사회적 처방을 받은 클라이언트 중 78%가 자신의 건강 혹은 행복 수준이 향상되었다고 답했고, 69%가 사회적 고립 수준이 낮아졌다고 답했으며, 다수가 의료기관 방문 및 치료 횟수가 감소(47%가 외래진료 빈도가 감소했다고 보고했으며, 38%는 응급실 입원 횟수가 줄었다고 답했으며, 40%가 병원입원일이 줄었다고 답함)했다고 응답했다(NHS England, 2019). 이 같은 긍정적인 평가 결과들에

고무되어, 잉글랜드 정부에서는 지역 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링크 워커들을 확대 고용하고 사회적 처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주문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연결된 사회(2018)”에서는 사회적 처방과 관련하여 다양한 정책 목표들을 제시했는데, 다음의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대부분의 정책들이 2021년 현재 이미 달성된 상태이다. 구체적인 정책 목표들과 각 정책목표별 성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Macdonald et al., 2021: pp.37-38; DCMS, 2018: p.10).

표 VII-5 사회적 처방 주요 정책 및 성과

“연결된 사회(2018)”에 명시된 정책 목표	구체화된 계획 혹은 성과
2023년까지 전국적으로 전체 의료 및 돌봄기관에서 링크 워커들을 고용하도록 하고 사회적 처방이 가능하도록 함.	NHS 장기계획(2019년 1월)에서는 천 명의 링크 워커들을 2020/21년까지 양성할 것이며, 이 수는 2023/24년까지 더욱 확대시킬 것이라 계획을 발표함. NHS에서는 [링크 워커들을 확대 고용하고 지방의 의료기관에 배치함으로써]2023년에는 90만 명 이상의 사람이 사회적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히고 있음.
2018년 말까지 사회적 처방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함.	실제 NHS 잉글랜드와 NHS Improvement에서 잉글랜드 내 지역 관계자들과 협업하여 국가 단위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
NHS 잉글랜드에서 사회적 처방에 대한 실무 안내서를 작성하도록 함.	현재까지 NHS 잉글랜드와 잉글랜드 공중보건국(Public Health England)에서 다수의 실무 지침서를 작성함.
2018년 하순부터 의료 인력들 (commissioners and practitioners)을 위한 온라인 사회적 처방 플랫폼을 운영함.	현재 관련 온라인 플랫폼이 운영 중이며, 2020년 1월 기준 1,600명 이상이 가입한 상황
2019년 초부터 링크 워커들을 위한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시행	2019년 10월, 3개 레벨의 자격증을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이 북부 잉글랜드의 링크 워커들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시행됨.
2018년 중 지역별 사회적 처방 운영위원회를 설립	잉글랜드 지역 내에 7개의 지역 사회적 처방 운영위원회가 설립됨. 이 위원회들에서는 각 지역에서 사회적 처방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자료: Macdonald et al. (2021), “Tackling loneliness”, pp.37-38와 DCMS (2018), “A connected society: A strategy for tackling loneliness – laying the foundations for change”, p.10에 서술된 내용을 표로 재구성함.

위의 언급된 성과 외에도, 2019년 10월 사회적 처방 교육원(National Academy for Social Prescribing)이 정부로부터 500만 파운드의 지원금을 받으며 설립되었다. 사회적 처방 교육원은 잉글랜드 지역 내 사회적 처방의 범위와 수준을 표준화하고, 사회적 처방의 장점에 대해 널리 알리며, 모범 사례를 개발하고 이에 대해 전파하며, 실무자를 교육하고 인증하며, 사회적 처방과 관련된 단체들을 결집시키는 것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Macdonald et al., 2021: pp.38-39).

현재까지 잉글랜드에서는 링크 워커들을 NHS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처방을 활용해왔다면, 사회적 처방의 활용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다. 가령, 리버풀, 휘트비, 런던 뉴몰든 지역에서는 2018/19년 우편배달부가 심각한 외로움 문제를 겪을 것으로 추정되는 노인들을 방문하는 시범 사업을 시행한 바 있다. 2020년 1월 영국 정부는 해당 서비스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우편배달부가 주도하는 사회적 처방 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 발표했다(Macdonald et al., 2021: p.39).

② 지역 공동체 내 인프라 구축하기

“연결된 사회(2018)”에서 제시하는 외로움 대처 전략의 특징은 단순히 외로운 사람을 발견하고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의뢰하는 것으로 만드는 것으로 정책의 범위를 한정짓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연결된 사회(2018)”에서는 외로움 문제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것 또한 외로움 정책의 주요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표 VII-5 참고).

나아가 “연결된 사회(2018)”에서는 연결된 사회 구축을 위한 지역사회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공동체 인프라 구축 전략은 직접적으로 외로움을 겪는 이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외로움을 겪는 이들을 발견하고 그들의 욕구를 사정한 후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상적인 접근법과는 분명히 차이점을 보인다. 하지만 지역공동체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작업은 지역민 간의 소통이 증가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외로움 문제 완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외로움 문제에 대한 임상적인 접근법들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적 기반을 조성한다는 점(Jopling, 2020: p.13)에서 그 의의를 지닌다.

일례로 잉글랜드의 교통수단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외로움 대처 정책들이 시행되어왔다. 영국 정부에서는 잉글랜드에 위치한 7개의 자동차 운전교육기관(mobility centre)에서 차량 운전기술을 익히지 못했거나 더 이상 운전을 할 수 없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전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운전능력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향상시키고 보다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운 것이다(Macdonald et al., 2021: p.45). 또한, 영국 교통부 주도 하에 2019년 버스타기 주('Catch the bus' week)를 설정하였는데 이 이벤트에 잉글랜드 전역의 버스업체뿐만 아니라 기차업체들도 참여하여 '대화가 넘치는 버스(chatty bus)'라는 이름하에 해 당 한 주 동안 승객들에게 옆 승객에게 말을 걸어보기를 권유하는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Macdonald et al., 2021).

영국 정부에서는 외로움 문제 대처를 위한 포괄적인 정책의 일환으로 디지털 포용 정책도 펼치고 있다. 가령, 영국 정부에서는 시민들의 인터넷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260만 파운드를 투자하여 잉글랜드에 소재한 도서관 중 99%가 무료 Wi-Fi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했다. 또, 영국 정부에서는 시민들에게 디지털 기기 활용 기술을 교육하는 데도 높은 정책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2014년부터 40만 파운드 규모의 '디지털 포용 기금(Digital Inclusion Fund)'을 운용하며, 약 140만 명의 성인에게 디지털 기기 활용 기술을 가르쳤다. 특히, 영국 정부에서는 고령자, 다운증후군 환자, 간병대상인 말기 환자 등 취약 계층에게 집중적으로 디지털 기기 활용 기술을 교육하고자 하고 있는데, 그럼으로써 이들이 외로움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고 또한 자신의 건강상태를 정기적으로 의료진과 가족들에

게 알릴 수 있도록 돕고자 하고 있다(Macdonald, 2021: pp.45-46).

마지막으로 영국 정부에서는 사회적 고립 문제를 해결하고 외로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커뮤니티 공간을 확보하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커뮤니티 공간의 확보를 위해 문화부 외에도 교육부, 교통부, 노동연금부, 사업·에너지·산업전략부, 환경·식품·지역개발부 등 많은 정부 부처에서 새로운 프로그램 혹은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데, 관련하여 몇 개의 사례를 선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육부의 경우, 2018년 6월 학교건물의 활용에 관한 규정을 수정하여 각 개별 학교들이 관할 시설 및 공간을 지역민들에게 커뮤니티 공간으로 최대한 개방할 것을 권장하였다. 나아가 교육부에서는 학교들의 공간 공유를 촉구하기 위해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는 학교에 대한 통계 자료도 생산하고 있다. 노동연금부에서는 2020년 1월부터 지역 단위의 고용서비스 전달의 핵심기관인 잡센터 플러스(Jobcentre Plus)를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는 사업을 수행 중이다. 노동연금부에서는 이 사업을 통해 잡센터 플러스를 이용하는 서비스 이용자들이 상호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Macdonald, 2021: p.43). 사업·에너지·산업전략부의 경우, 2020년 Campaign to End Loneliness와 함께 근무 시간 외 직원들에게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체의 사례를 발굴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 있다(DCMS, 2020).

③ 외로움에 대해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형성

잉글랜드에서 외로움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낙인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신의 외로움 경험에 대해 털어놓는 데 심리적 부담감을 크게 느끼는 잉글랜드인이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연결된 사회(2018)”에서는 그 낙인으로 인해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끼더라도 이에 대해 타인에게 이야기하지 못함에 따라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게 되고, 고립감을 느끼면 느낄수록 외로움을 느낀 자신의 경험에 대해 타인에게 이야기하거나 타인과 친밀하게 지내는 데 어려움을 겪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DCMS, 2018: p.47). 이러한 견지에서 “연결된 사회(2018)”에서는 건강한 사회적 관계를 맺는 것이 개인의 행복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리고 외로움 문제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줄이는 것을 정부 정책의 핵심 목표 중 하나로 설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누구나 외로움을 느낄 수 있다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달함으로써, 각 개인들이 외로움 경험에 대해 편하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더불어, 외로움을 느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단체 및 기관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개함으로써, 본인 혹은 주변 사람이 외로움 문제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었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것이다(DCMS, 2018: p.7, 47).

잉글랜드에서는 감정 표현을 절제하는 문화가 발달해있고, 어려움이나 불편함을 겪더라도 내색하지 않고 참는 경향이 강하다. 잉글랜드인들은 어려서부터 직접적인 감정 표현을 하는 것을 억제하도록 교육을 받으며, 타인과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경향 - 특히, 상류사회에서 - 이 있다(박우룡, 2003: p.232, 239). 이러한 잉글랜드의 문화적 특성을 이해하면 우리는 왜 외로움 감정에 대해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 자체가 외로움 대처 사업의 주요 목표로서 설정되는지 그 맥락을 이해할 수 있다.

외로움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줄이기 위한 취지에서 실행되고 있는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외로움에 대해 말해보요(Let’s Talk Loneliness)’ 운동을 꼽을 수 있다. 영국 정부는 ‘외로움에 대해 말해보요’ 운동을 통해 외로움 문제와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도움이 필요할 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 혹은 매체로 연결시켜주며 또한 외로움 문제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사례들을 소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DCMS, Barran, & Downen, 2020). 2020년 6월 영국 정부는 ‘외로움 문제에 대한 의식 높이기 주(Loneliness Awareness Week)’를 설정하여 전국 단위 및 지역 단위 신문과 각종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외로움에 문제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린 바 있다. 또한, 런던 최고 중심부에 위치한(Piccadilly Circus와 the BT tower) 스크린들을 활용하여 ‘외로움에 대해 말해봐요’ 캠페인 영상과 메시지를 다수의 시민들에게 공유하기도 했다(DCMS, 2021b).

‘외로움에 대해 말해봐요’ 운동을 통해 영국 정부가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메시지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DCMS, 2021c).

- 주변 이웃 사람들에게 안부 연락을 해보자. 이웃 중에는 가능하지만 하다면 당신과 직접 만나고 어울리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 친구, 가족, 이웃과 꾸준히 연락하며 지내자. 가령, 전화나 편지를 통해 외부 약속을 잡을 수 있는지 물어보자. 나들이를 하고 나면 상대방도 당신도 유쾌함을 느낄 수 있다.
- 온라인 활동에 참여하거나, 정기적인 일을 하거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등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만들어나가자. 시간상 여유가 없어 참여하지 못했던 단체 활동에 다시 참여해보는 것도 좋다. 이미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단체 활동이 있다면 해당 활동에 재참여하고자 하는 이들을 어떻게 따뜻하게 맞이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보자.
-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자. 지역 단체와 함께 봉사활동을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그들에게 정기적으로 말을 걸어보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직접 사람을 만나지 않더라도 전화나 온라인 활동을 통해서 고립되어 있는 이들을 돕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외로움에 대해 말해봐요’ 운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무 부처인 시민사회부는 각종 공공기관 및 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영리 단체 및 영리 기업들과도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고 있다. 가령, 2020년 겨울에는 ASDA, Ukie, Alzheimer’s Society, Royal mail 등과 협업하는 가운데 관련 캠페인 활동을 집중적으로 벌였는데 관련 자료들이 해당 기간 동안 1,200만의 조회수를 기록했다(DCMS, 2021b). 또한, 2021년 7월부터는 80개의 민관 단체들의 협력 기구인

‘외로움 대처 네트워크(Tackling Loneliness Network)’에서는 채팅앱 왓츠앱(Whats app)⁵³⁾과 제휴 하여 사용자가 왓츠앱에서 특정 번호로 문자를 전송하기만 하면, 외로움 문제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보다 직접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기관을 소개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DCMS, 2021c).

④ 서비스 제공 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연결된 사회(2018)”와 조 콕스 위원회의 보고서에서는 공통적으로 역량을 갖춘 기관과 단체에 재정 지원을 함으로써 해당 기관과 단체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돕는 것을 정부 주도 외로움 대처 전략의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Jo Cox Commission on Loneliness, 2017; DCMS, 2018).

예컨대, 영국 정부에서는 2020년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7억 5,000만 파운드에 달하는 구호 단체 지원금을 마련했는데 이 중 3,130만 파운드를 외로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전달하였다. 이후에도 영국 정부는 2020년 겨울 750만 파운드를 관련 재정지원 사업에 추가로 배정하였다. 또한, 정부는 National Lottery Community Fund와 협업하여 2020년 12월 400만 파운드의 기금을 추가로 조성하여 외로움 문제에 대응하는 자선 단체 및 커뮤니티 단체들에 경제적 지원을 하였다(DCMS, 2021a).

외로움 대처 사업 자금 중 하나인 The Local Connections Fund에서 재정 지원을 한 몇 개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DCMS, & Barran., 2021).

- Bedfordshire 지역의 ‘Imagination Dance’라는 단체는 노인 및 치매 환자와 함께 거주하는 가족들을 대상으로 Actively Connection라는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The Local Connection Fund에서는 이 단체에 980파운드의 금액을 지원하였으며, Imagination Dance에서는 해당 지원금을 활용하여 팬데믹 시기

53) 유럽의 카카오톡에 해당함.

중 온라인 수업을 제공하였다.

- Devon 지역의 'Jamming Station'은 후원받은 2,500 파운드를 작사·작곡과 관련한 워크숍을 여는 데 지출했다. 해당 워크숍은 (1) 16-18세 작곡가(songwriters), (2) 18-30세 작곡가, (3) 시인, 랍퍼, 작사가, 세 개 그룹을 대상으로 각각 진행되었다. Jamming Station에서는 해당 워크숍을 통해 청년들에게 멘토링을 제공하고, 그들이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겪는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 문제를 완화하고자 하였다.
- Kent 지역의 'Karibu Community Action'은 지원 받은 2,489 파운드로 12개의 흑인·아시아인 및 소수민족 가족에게 테블릿 PC를 제공했다. 또한, 테블릿 PC를 활용해 온라인 수업을 듣거나 업무를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교육했다.

(3) 정책성과에 대한 평가

영국 중앙 정부에서는 장기적으로 외로움 대처 사업의 성과를 측정할 양적 변수를 개발할 예정이고, 특히 '외로움을 빈번하게 느끼는 이가 얼마나 감소했는가'를 주요 잣대로 사업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라 밝히고 있다. 하지만 영국 정부에서는 아직 관련한 측정 지표를 개발하지는 않은 상태이다(Macdonald et al., 2021). 실제 “연결된 사회(2018)”에서는 구체적인 양적 지표를 설정하기에 앞서, 단기적으로는 각 인구·사회적 집단별 외로움을 느끼는 원인에 대한 경험적 자료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고, 각 집단의 특성에 맞는 문제 해결 혹은 예방법을 모색하는데 집중할 것이라 밝히고 있다(DCMS, 2018: p.16). 덧붙여, 외로움 대처 사업 시행 이후, 단기적으로 외로움을 느끼는 개인들에 대한 보고가 늘어난다하더라도, 이는 외로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고 잉글랜드인들이 보다 편하게 자신의 감정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게 된 데서 연유한 것일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DCMS, 2018: p.67).

비록 정부 측에서 구체적인 평가 지표는 제시되지 않고 있지만, 각종 외부 평가

보고서와 리뷰에서는 잉글랜드에서의 외로움 대처 정책의 방향과 내용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다. 예를 들어, “연결된 사회(2018)” 발표 이후 1년간 관련 정책의 시행과정을 검토한 Loneliness Action Group에서는 다음과 같이 호평을 내린다(Jopling et al., 2019: p.7).

“우리는 전반적으로 외로움 대처 정책들이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직 정책 초기 단계이기는 하지만, 전반적인 흐름은 긍정적이다. 다수의 정책 약속(pledges)들은 이미 성취되었거나 혹은 시행 중에 있다. 외로움 의제는 행정부(government) 전반에 걸쳐서 무난하게 수용되고 있고, 부처 간의 협력을 촉진하고 있다. 이것은 엄청난 성과이다.”

2020년 1월 외로움 관련 사업의 시행내용과 성과를 보고하는 첫 번째 연간 보고서(“Loneliness Annual Report January 2020”)가 발표되었는데, 보고서 발표 내용에 대해 정부 주도의 외로움 대처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들은 정책의 시행 방향과 중앙 정부의 높은 정책 의지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Macdonald et al., 2021: pp.60-61). 이 중 조 콕스 재단의 리뷰를 발췌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Harrison, 2020).

“현 정부가 계속적으로 이 이슈⁵⁴⁾와 관련해서, 성과를 공고히 하고 계속적으로 학습하고 범정부적 접근법을 유지하는 등 리더십을 행사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2019년 10월 현 정부가 외로움 대처 사업을 위해 2백 만 파운드의 재정을 추가로 편성한 것은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의지를 보여주는 분명한 신호이다. 우리는 정부가 향후에도 계속 이 이슈에 대해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기를 희망한다.”

54) 외로움 정책

4) 요약 및 시사점

외로움 문제는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경험한다는 점에서 감기에 비유될 수도 있다. 더구나 개인의 감정, 관계 문제와 연관된다는 점에서 사회 문제가 아닌 사적인 문제로 치부되기 쉽다. 하지만 조 콕스 의원은 점점 더 많은 영국인들이 외로움 문제에 노출되고 있으며, 외로움 경험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이고 치명적이라는 점을 설파했으며, 실제 영국 사회에서의 큰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주요 정당, 기업체, 제3섹터를 아우르는 광범위한 정책 네트워크를 형성하고자 했다. 비록 조 콕스 의원은 2016년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지만 외로움 문제를 주요한 사회적 문제로 진단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범정부적이고 전 사회적인 대응을 촉구했던 조 콕스 의원의 목소리는, 오늘날 잉글랜드에서의 정부 주도의 외로움 대처 정책으로 충실히 계승되고 있다.

잉글랜드의 외로움 대처 정책은 “연결된 사회(2018)”를 통해 그 정책 목표와 장기 계획들이 구체화되었으며, 실제 정책 집행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무부처인 시민사회부가 관련 정부 정책을 총괄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주무부처 외에 교육부, 교통부, 노동연금부, 사업·에너지·산업전략부, 환경·식품·지역개발부 등 다양한 부처에서 사회구성원들이 겪는 외로움 문제를 완화하거나 혹은 외로움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이다(DCMS, 2018; Macdonald et al., 2021). 모든 정부 부처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새로운 정책이 개개인의 외로움 감정과 행복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도록 만들겠다는 정책 목표가, 선언적인 구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훌륭하게 달성되고 있는 것이다. 외로움 문제에 대해 범정부적인 접근이 취해진다는 점 외에도, 중앙 정부, 지방정부, 영리기업, 제3섹터 그리고 가족·친구·공동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외로움 대처 전략의 주요 주체로 호명되고, 각 주체별 역할 수행 및 상호 협력이 모색된다는 점도 잉글랜드 외로움 대처 정책의

주요한 특징이다(DMCS, 2018: pp.15-16).

본문에서 “연결된 사회(2018)”의 구상에 맞추어서 실제 어떠한 정책과 사업들이 잉글랜드에서 실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1) 지역 1차 의료기관들을 중심으로 링크 워커가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맞추어서 적합한 기관이나 서비스로 의뢰하는 사회적 처방, (2) 개인들의 이동권을 향상시키고 디지털 기기への 접근성을 높이고 개개인들이 상호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등 ‘연결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 (3) 외로움 문제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전달하고 외로움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낙인을 없애고자 하는 인식 개선 정책, (4) 서비스 제공 기관과 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정책 등을 살펴보았다.

잉글랜드에서의 외로움 대처 사업은 부처 간의 칸막이를 극복하고 범정부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점, 시민사회 단체뿐만 아니라 영리 기업까지 협업 파트너로 포섭하는 민관협력의 모범적인 사례라는 점에서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효과적인 외로움 정책을 구상하기에는 경험적 증거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하는 가운데서도, 성과 지표 개발 및 관련 연구의 확충에 심혈을 기울이는 점 또한 잉글랜드 사례로부터 배워야 할 점이라 하겠다.

한국은 선진국 중 외로움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는 국가 중 하나로 꼽힌다. 2018년 국내 심리학자들이 평가한 한국의 외로움 지수는 80점에 가까운 약 78점을 기록했으며(Korean Clinical Psychology Association, 2018, 서영석 외, 2020: p.206에서 재인용), 어려움을 맞이했을 때 주변에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지인이 있는지를 묻는 설문 조사에 대해 한국은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렇듯 국내에서의 외로움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적 접근은커녕 관련한 경험 연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서영석 외, 2020: pp.206-207)은 매우 비관적으로 다가온다.

다만, 고무적인 소식은 한국에서도 1인 가구, 고독사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외로움에 대한 지역 단위의 정책이 초보적인 수준에서나마 시도되고 있다는 점이다. 가령, 부산, 대구 수성구, 경남 통영시, 강원 횡성 등 일부 지자체에는 해당 지자체의 시민 혹은 해당 지자체 내에 거주하는 고위험 집단 - 예컨대, 소외·단절된 1인 가구 - 이 겪는 외로움 문제를 완화하고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겠다는 정책 목표를 관련 조례로 명문화하고 있다(조근식, 2020: pp.2-3, pp.22-23). 특히, 65세 고령 인구의 비율이 28.69%로 매우 높고, 고령 인구의 고독사 문제의 위험이 큰 강원도 횡성군에서는 행복나눔복지과 산하에 외로움정책담당을 설치한 것으로 파악된다(조근식, 2020: pp.2-3).

한국에서도 영국과 마찬가지로 외로움 문제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고, 특히 대인 접촉이 제한되고 통제되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거치면서 우리는 여느 때보다도 사회적 관계와 행복 이슈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 한국에서도 사회 구성원들이 겪는 외로움 문제에 대한 보다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적 접근이 이루어질 때, 앞서 모범적으로 국가 차원의 외로움 대처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한 잉글랜드의 사례는 한국판 외로움 대처 정책을 구상하는 데 귀중한 역할 모델이 될 것이라 본다.

3. 미국의 단절 청년을 위한 성과협력 시범사업(P3)⁵⁵⁾

‘단절 청년’(disconnected youth)은 미국에서 교육, 취업 등에 참여하지 않는 16~24세 청년을 일컫는 정책 용어로, 1년 이상 교육에 참여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 인구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 절에서는 미국에서 단절 청년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단절 청년을 위한 성과협력 시범사업」(Performance Partnership Pilots for Disconnected Youth: P3 사업)의 추진 배경과 세부 내용, 성과와 우수사례,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사회적 고립

55) 이 장은 외부 집필진으로 송효준 부연구위원(한국교육개발원)이 작성하였다.

청년 지원을 위하여 단절 청년 문제에 대해 범부처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검토해보는 것은 국내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 정책 방안 수립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 성과협력 시범사업의 개요

미국의 16세에서 24세 사이의 청년 중 학교교육이나 고용상태에 있지 않은 ‘단절 청년’은 2019년 기준 약 410만 명으로, 전체의 약 10.7%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다양한 인종·민족적 구성을 지닌 미국 사회의 경우, 그 구성원에 따라 단절 청년의 비율이 상이한데 전체 단절 청년 중 미국 원주민의 비율이 22.1%로 가장 높은 편이며, 흑인(16.7%)과 라틴계(12.1%) 순으로 단절 청년의 비율이 높은 편으로 그 거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접근이 필요하다(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2020). 이들 청년을 교육이나 노동시장으로 연계하여 성인기로의 이행을 돕는 것은 미국 사회가 직면한 주요한 과제 중 하나이기도 하다(Loprest et al., 2019).

반면, 이들 정책 대상에 연방정부를 중심으로 시행되는 다양하고 분절적인 정책 사업들의 경우, 단절 청년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 우선순위, 사업 성과목표 등의 충돌로 인한 협업을 저해하고 여러 도전과 과제들을 제기하는 것으로 꾸준히 지적받았다(Rosenberg & Brown, 2019). 이러한 파편화된 지원 정책을 정비하고, 실제적인 성과 기반의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해 2012년 3월, 연방 정부에서는 기관 및 정부 간 협업 촉진을 위한 협의체인 ‘단절 청년에 대한 연방 기관 간 포럼’(Interagency Forum on Disconnected Youth)을 구성하고 교육부를 중심으로 하여 단절 청년 지원을 방해하는 요인과 해결책에 대한 의견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제한점들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P3 사업의 주요한 초석을 마련하였다(Stanczyk, Yañez, & Rosenberg, 2020: pp.1-2).

- 효과적인 전략 및 정책에 대한 제한된 이해
- 청년에게 제공되는 교육 및 노동인구 체계 전반에 걸친 조정 부족
- 가장 필요도가 높은 청년을 참여시키고 그들의 전반적인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어렵게 하는 정책 요구사항
- 정보의 흐름을 방해하는 파편화된 여러 개의 데이터 체계
- 단절 청년에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없게 하는 기타 행정적인 요구사항

단절 청년 지원의 제한점과 해결책에 대한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통합 예산전용법」(the 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of 2014) 시행 이후, 법에 의거 「단절 청년을 위한 성과협력 시범사업」이 승인되었다.⁵⁶⁾ P3 사업의 경우, 당초 연방 정부 차원에서 ‘행정관리예산국’(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을 의장으로 하여 ‘교육부’(U.S. Department of Education) 주도 하에 ‘보건복지부’(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노동부’(U.S. Department of Labor), ‘국가 및 지역사회 봉사단’(Corporation for National and Community Service), ‘박물관도서관 지원기구’(Institute of Museum and Library Services)를 중심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2015년 「통합 및 추가 지속 예산전용법」(the Consolidated and Additional Continuing Appropriations Act of 2015)은 ‘법무부’(U.S. Department of Justice)가 법무부 정책 기금을 사용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승인하였고, 2016년 「통합 예산전용법」(the 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of 2016)은 ‘주택 도시 개발부’(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가 노숙자 지원 보조금을 사용하여 참여할 수 있게 승인하는 등 차츰 행정 기관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56) ‘성과협력 시범사업’은 「통합 예산전용법」 이후 2016년 「노동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및 관련 정부 기관 예산전용법」(Departments of Labor, Health and Human Services, and Education, and Related Agencies Appropriations Act, 2016)을 통해 유지가 승인되었다. 이는 의회의 예산전용 승인 권한을 이용하여 단절 청년 관련 연방정부의 범 부처 간 협력과 중앙-지방정부의 협조를 통한 지역 특화 프로그램 운영에 방점을 두고 있다(채창균, 양정승, 김민경, 송선훈, 2018).

이때, ‘성과협력’(performance partnerships)은 연방 보조금을 수혜 받는 대상에게 사업성과에 대한 책무성을 높이는 대가로 정책 실행에 대한 유연성을 제공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연방, 주 또는 지방 정부와 보조금 수혜자가 공동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그 결과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P3 사업에서 ‘시범사업 주도 기관’(lead pilot agency)은 일반적으로 일상적인 운영 및 정책 결정, 협력기관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 등을 가지며, ‘시범사업 협력 기관’(pilot partner agency)으로 노동, 교육, 사법, 주택, 도서관 등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이 참여할 수 있다(Stanczyk et al., 2020).

P3 사업의 경우, 연계를 통한 주/지방/부족 정부의 연방 기금 사용에 유연성을 제공함으로써 단절 청년에 대한 교육, 고용 등에서 실제적인 성과들을 달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목표를 표방하며 추진되고 있다(Rosenberg et al., 2021: p.2).

첫째, “정책 지원 체계의 발전을 위하여 지역의 청년 대상 서비스 기구 간의 협력을 증진한다.”

둘째, “기관 간의 협업을 촉진함으로써 지역사회 내에서 단절 청년에게 정책 지원을 제공하는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접근 방식을 계획하고 실천한다.”

셋째, “시범사업이 기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기존에 존재하는 정책 재원을 조합하거나 묶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에 의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유연성을 발휘한다. 또한, 시범사업의 경우 단절 청년에 대한 정책 지원 체계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개별 재원의 필수 요건에 대한 면제를 요청할 수 있다.”

넷째, “시범사업이 자신의 성과를 평가하고 전략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데이터를 공유하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이를 엄격하게 평가한다.”

이러한 목표는 P3 사업이 단절 청년 지원을 위한 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을 보여준다. 행정기관별 파편화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사업에 대해 여러 행정기관의 예산을 동시에 조합하여 운영하도록 구성함으로써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의 재원의 유연한 활용과 더불어 복합적이고 집중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설정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2) 성과협력 시범사업의 추진경과⁵⁷⁾

「2014년 통합 예산전용법」은 P3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고 문서화하기 위해 미국 노동부가 지원하는 기금을 바탕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고용 및 훈련 프로그램과 정책의 근거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P3 사업성과와 관련한 일련의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Rosenberg et al., 2021; Stanczyk et al., 2020).

총 3년에 걸쳐 미국 전역에서 총 14개의 시범사업이 선정되었으며, 사업 실행 첫해인 2014년에 총 9개의 시범사업이 선정되었고, 2015년과 2016년에 걸쳐 총 5개의 시범사업이 선정되었다. 각 14개의 시범사업별 지역적 분포는 다음 그림에 제시되어 있다. 14개의 시범사업 중 10개의 시범사업은 시/카운티/지방정부 기관이 주도하고 3개의 시범사업은 주 정부 기관, 1개의 시범사업은 부족 정부가 주도하여 사업을 수행하였다. 또한 이들 14개 시범사업의 지역과 연방 컨설팅 기관,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결과는 다음 표에 제시되어 있다(Stanczyk et al., 2020).

57) 여기서 제시되는 내용은 P3 사업에 대한 실행연구 결과 보고서(Rosenberg et al., 2021; Stanczyk et al., 2020)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음.



그림 Ⅶ-3 ‘성과협력 시범사업(P3)’ 지역 분포

* 출처: Stanczyk et al. (2020). Performance Partnership Pilots for Disconnected Youth (P3): Implementation study findings of the pilots’ experiences. p.9.

표 Ⅶ-6 ‘성과협력 시범사업(P3)’ 사업별 지역 및 개요

시범사업 지역	P3 서비스 접근	P3 특화 서비스	기타 서비스 구성요소	배경
코호트 1				
배턴루지, 루이지애나	▶ 학교 내 포괄적 사례 관리 및 집단 기술 향상 기회 제공	▶ 사례관리 ▶ 전문적 학습공동체(대 규모) ▶ 소프트 스킬(soft-skill) 세션(소규모) ▶ 일대일 상담 및 목표 ▶ 현장 견학	▶ 훈련 프로그램	중고등학교
브로워드 카운티, 플로리다	▶ 중등교육 이후 학업/경력 목표 및 여름 인턴 기회에 초점을 맞춘 학교 내 일대일 멘토링 제공	▶ 사례관리 ▶ 고등교육 이행 계획 ▶ 숙제 도우미 ▶ 경제적 지원 정보제공 ▶ 역량개발 및 목표설정 ▶ 현장 견학	▶ 여름 청(소)년 고용 프로그램 ▶ 도제식 프로그램	고등학교
시카고, 일리노이	▶ 헤드스타트 또는 얼리 헤드스타트의 자녀를	▶ 헤드스타트 또는 얼리 헤드스타트에서의 일	▶ 해당 없음	헤드스타트, 얼리

시범사업 지역	P3 서비스 접근	P3 특화 서비스	기타 서비스 구성요소	배경
	둔 학교 내외 청년 일자리를 대상으로 보조금 지원 업무 경험 및 멘토링 프로그램 제공	경험 지원 ▶ 멘토링(소프트 스킬 훈련 및 가정방문 지도) ▶ 타 프로그램 참여자와 사회적 관계 형성(학교 밖 청소년) ▶ 부모대상 교육		헤드스타트 센터, 참여자의 집
동부 켄터키	▶ Promise Zones⁵⁸⁾ 내에 거주하는 학교 안팎의 청년을 지역사회 내 가용한 자원에 연계하는 사례관리 제공	▶ 사례관리 ▶ 자원 연계	▶ 청소년 아웃리치 프로그램 ▶ 경력평가 및 계획 ▶ 교육활동 ▶ 일경험 및 인증 프로그램	학교 정규교육 및 대안교육 등
인디애나폴리스, 인디애나	▶ 위기 청년을 대상으로 건강, 교육, 노동 관련 지역사회 내 자원 연계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례 관리 제공	▶ 사례관리 ▶ 정신건강 및 각종 자원 연계	▶ 지원서비스 및 각종 이벤트 참여	주거단지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 노동 관련 직접적인 서비스 및 주택을 포함한 지역사회 내 서비스 연계 등의 사례 관리	▶ 사례관리 ▶ 자원 연계 ▶ 기본 교육 및 정신건강 진단 ▶ 청(소)년 토레 지원 및 멘토링	▶ YouthSource 센터 프로그램	청(소)년 교육 및 고용 센터
오클라호마	▶ 학교 내 청소년에게 중등교육 이후 및 고용 중심의 전환 서비스를 포함한 사례 관리를 통해 위탁 관리 제공	▶ 사례관리 ▶ 자원 연계	▶ 취업 및 훈련 ▶ 기술직업교육 ▶ 직업훈련	공립학교
시애틀, 워싱턴	▶ 학교 밖 청소년을 교육 재참여 프로그램 및 WIOA⁵⁹⁾ 서비스에 연계하는 사례 관리 제공	▶ WIOA 사례관리 ▶ 교육재참여 서비스 ▶ 토레지원 및 역할모델	▶ WIOA 지원서비스	고용 센터
이슬레타 델 수르 푸에블로	▶ 학교 안팎의 원주민 부족 청소년에게 해당 부족에서 제공하는 고유문화 및 서비스 프로그램 제공	▶ 문화교육 프로그램 ▶ 생활지도 상담 ▶ 각종 자원 연계 ▶ 현장 견학	▶ 해당없음	원주민 부족(Tribal) 교육 부서

시범사업 지역	P3 서비스 접근	P3 특화 서비스	기타 서비스 구성요소	배경
코호트 2, 3				
하트퍼드, 코 네티컷	▶ 통합 데이터 시스템 개발 및 Promise Zones 인근에 거주하 는 학교 안팎의 위기 청소년을 위한 서비스 제공 기관에 효과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례회의 제공	▶ 타 청(소)년 지원 서비 스와 구성 차이는 없음	▶ 멘토링 ▶ 교육활동 ▶ 일관련 기술 훈련 ▶ 여름 청(소)년 고용 ▶ 자원서비스 연계 ▶ 주거서비스 ▶ 건강관리정보 제공	지역 기반 기관
뉴욕 시, 뉴욕	▶ 전담 사례관리자 및 보육지원자를 추가하 여 기존 고등학교 검 정고시 및 직업 준비 프로그램을 임산부와 육아 청소년의 요구 에 맞춰서 조정	▶ 아동대상서비스 사례 관리자 비율 조정 ▶ 학업 및 학위 관련 서 비스	▶ 고등학교 또는 동 등 학력 진학 준비 ▶ 직업 훈련 ▶ 일 기반 학습	지역 기반 기관
뉴욕 주	▶ 학교를 중퇴했거나 최 근 사법제도에 관련된 위기 청소년들의 재연 결을 위한 집중 사례 관리 서비스 제공	▶ 집중 사례관리	▶ 교통지원 ▶ 여름 청(소)년 고용 ▶ 인터뷰를 위한 의복지원	지역 기반 서비스 제공자
피닉스, 애리조나	▶ 학교 밖 위기 청소년 에게 제조 기술 훈련, 생활 기술 교육 및 사 례 관리	▶ 제조관련 직업 훈련 ▶ 사례관리 ▶ 교통지원 ▶ 생활 기술 교육 ▶ 경력개발 서비스 ▶ 일자리 유지 지원	▶ 고등학교 또는 동등 학력 취득 지원	지역고용발 전협의회 및 전문대학
새크라멘토, 캘리포니아	▶ 노숙을 경험하거나 노 숙 위험에 처한 학교 안팎의 청소년에게 주 택 선택 바우처 제공	▶ 사례관리 ▶ 주거 지원	▶ 교육 및 고용 서비스	지역 기반 청(소)년 노숙자 지원 기관

* 출처: Stanczyk et al.(2020). Performance Partnership Pilots for Disconnected Youth (P3): Implementation study findings of the pilots' experiences. pp.B10-B12.

- 58) 오바마 대통령 재임 기간 행정명령으로 실시된 저소득 낙후 지역 개선 사업을 의미한다. 지역재개발 및 치안 안정과 경제적 지원, 교육정책을 연계하여 낙후 지역을 포괄적으로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 59) 「인력 개혁 및 기회법」(Workforce Innovation and Opportunity Act, 2015)을 의미하며, 노동부와 교육부를 중심으로 구직자 및 고용주에게 교육, 훈련, 고용, 취업 등 다각도에 걸친 지원을 골자로 한다. 특히, 연방정부에서 고용정책을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닌 각 주정부가 운영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자원을 배분하는 데 목적이 있다(채창균 외, 2018).

「성과협력 시범사업」에 참여한 총 14개 시범사업에 대한 종합 평가보고서에서는 P3 사업의 3개 회계연도 추진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Rosenberg et al., 2021: pp.5-8). 첫째, 모든 시범사업은 서로 다른 영역의 조직이나 기관과 협력 관계를 형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예컨대, 노숙 청년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의 경우 3개의 청년 서비스 기관과 협력하였으며, 노숙 또는 주거 불안을 경험하고 있는 단절 청년이 주택을 구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주택 선택 바우처 및 사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P3 사업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영역의 조직이나 기관의 구성은 아래의 그림에 제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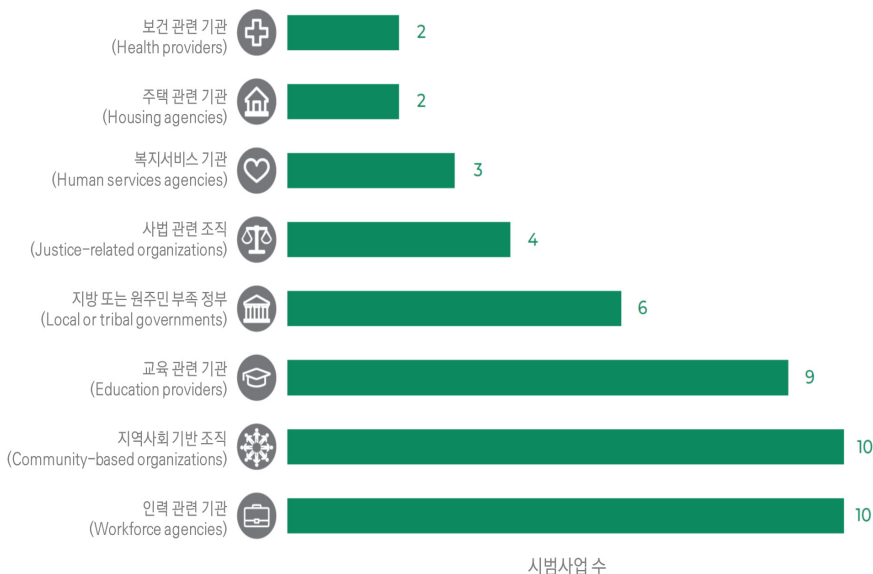


그림 Ⅶ-4 핵심 협력 기관 유형

* 출처: Stanczyk et al. (2020). Performance Partnership Pilots for Disconnected Youth (P3): Implementation study findings of the pilots' experiences. p.13.

둘째, 시범사업은 일반적으로 여러 예산을 결합하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였다. 모든 시범사업은 연방 재량 기금, P3 창업 기금, 기타 단절 청년을 지원 시스템 개선을 위한 주/지역/자선기금과 같은 여러 출처의 예산을 결합하여 사용하였다.⁶⁰⁾ 첫 번째 방식은 총 14개의 시범사업 중 9개의 시범사업이 택한 방식으로, 여러 출처의 예산을 통합하여 공통의 청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두 번째 방식은 5개의 시범사업이 택한 방식으로 협력 기관에 자금을 할당하여 해당 기관이 수행하는 일상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고 예산 또한 원래의 정체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방식은 P3 서비스의 일환으로 수행되지만, 일반적으로 새로운 서비스나 공통의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결합되지는 않는다.

셋째, 연방 면제를 승인받은 13개의 사업 중 10개의 사업이 시범사업은 ‘면제’(waiver)를 활용하였다. 특히, 포괄적인 단절 청년 인구에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특정 대상 청년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다양한 전략을 통해 행정적인 부담을 경감하였다.

넷째, P3 사업을 실행함에 있어서 청년 집단에 대한 세 가지 서로 다른 접근 방식이 활용되었다. 첫 번째 방식은 ‘사례 관리’이다. 총 14개 중 6개 시범사업은 청년에 대한 ‘사례 관리’ 방식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이는 일반적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 지역사회 내 가용한 서비스를 단절 청년에게 연결해주는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두 번째 방식은 ‘사례 관리 및 서비스’ 방식으로 6개의 시범사업이 여기에 해당하며, 앞서 설명한 사례 관리와 함께 시범사업을 통해 단절 청년에게 제공되는 공통의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였다. 세 번째 방식은 ‘프로그램 서비스 모형’이다. 두 개의 시범사업이 프로그램 서비스 모형으로 수행되었으며, 사례 관리와는 달리 일련의 공통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다.

이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2018년과 2019년에는 교육부가 「단절 청년을 위한

60) P3 사업에서 예산을 결합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 방식을 포괄한다. ‘혼합’(blending)은 기금이 공통의 계획이나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결합되며, 별도로 할당되거나 추적되지 않는 방식을 의미하며, ‘브레이딩’(braiding) 방식은 기금 원래의 보고 요구 사항을 유지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성과협력 시범사업 신청 공고」를 통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사업 참여자로 2018 회계연도에 최대 10개와 2019 회계연도에 최대 10개의 성과협력 시범사업을 모집하였다. 또한, 2018년과 2019년 연방 기금을 혼합하여 사용하거나 청년 지원 서비스의 개선을 달성하는 데 저해되는 법적 규제 및 행정 요구사항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발표하였다(Department of Education, 2019).

구체적으로, P3 사업의 경우 각 기관이 주/지방/부족 정부와 성과협력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성과계약은 시범사업에게 특정 기관의 기금을 사용하는 데 있어 유연성을 제공하며, 단절 청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학교 또는 직장에서 이탈을 방지하도록 설계된 두 개 이상의 연방 사업(하나 이상은 반드시 주/지방/부족 정부에서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관리)을 포함해야 한다. P3는 유연성을 확보하고 운영상의 부담을 감소하기 위해 여러 가지 '면제'사항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홈페이지(youth.gov)에 게시하여 혁신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계약 사항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P3 사업은 2018 회계연도의 경우 7개의 연방 기관이 관리하는 사업에 모두 재승인 되었으며, 기관들은 최대 10개의 시범사업을 선택할 수 있다. 2019 회계연도의 경우 교육부(ED), 보건복지부(HHS), 노동부(DOL), 국가 및 지역사회 봉사(CNCS), 박물관도서관 지원기구(IMLS) 다섯 개 기관에서 관리하는 사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재승인되었고, 주택 도시 개발부(HUD)의 노숙자 지원 보조금 및 법무부(DOJ)에서 관리하는 사업에 대한 2019 회계연도 기금의 포함 또한 추가로 승인되었다.

시범사업에 포함될 수 있는 사업은 단절 청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청년이 학교교육 또는 고용상태에서 단절을 방지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제한된다. 청년과 다른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포함될 수 있으며, 여러 기금이 혼합될 때 취약 계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여 다각도로 검토가 필요한 사업들의 경우 예시와 함께 제시하여 신청에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은 P3 사업의 한계점과 함께 개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이

보고되고 있다(Lester, 2016: pp.19-20). 첫째, P3 사업의 면제 권한이 보다 적극적으로 사용될 필요가 있다. 시범사업이 목적 달성에 따르는 어려움을 찾아내고 면제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P3 사업의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모든 1차 시범사업은 2018년 9월 30일 만료되며, 2차 및 3차는 각각 2019년과 2020년에 만료된다. 사업 종료 후에도 지역의 기금으로 사업이 지속될 수 있지만, 관련된 연방 차원의 면제는 종료된다. 일반적으로 사업의 성과 달성을 위해 사업 연장 신청과 함께 이에 따르는 면제 연장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셋째, 단절 청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대한 증거는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저변이 확대되고 있다. 지식 기반이 확대됨에 따라 요구 사항과 평가 기대치가 또한 향상될 필요가 있다.

넷째, 향후 더 많은 지원 후보 중에서 P3 사업에 더욱 적합한 사업을 선정하기 위하여 다른 연방 사업 참여 대상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P3 사업과 유사한 Promise Zones, Promise Neighborhoods, Choice Neighborhoods, Full Service Community Schools 등의 사업이나 국가 및 지역사회 봉사(CNCS)의 사회 혁신 기금 및 교육부(ED)의 혁신 투자(i3) 사업 등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식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3) P3 사업 우수사례: 로스앤젤레스 시와 ReLAY⁶¹⁾

앞서 제시한 P3 사업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우수사례로는 로스앤젤레스 시의 사례를 제시할 수 있다. Brown(2020)의 연구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 시는 단절 청년 지원 서비스의 제공 방식에 대한 재구조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 시 자체적으로 여러 종류의 단절 청년 지원 서비스가 실행되고 있음에도

61) 우수사례에 관한 내용은 로스앤젤레스 시의 사례를 다룬 Brown(2020)의 연구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음.

불구하고, 서비스들이 총괄적으로 조정되거나 정보가 공유되지 않음에 따라 개별 청년이 자신에게 맞는 서비스와 단체를 직접 찾아야 하는 장벽들이 존재하였으며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이는 단절 청년을 지원하는 개별 조직들이 각자의 목표에 따라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전반적인 지원 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조직화되지 못한 것이다.

또한, 청년 지원 기관들 간 서로 협업이 이루어지거나 청년 지원 과정에서의 경험과 교훈에 대한 상호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개별 청년은 자신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지원 기관을 직접 찾아내야 하는 불편함과 이로 인해 여러 기관의 지원을 받는 것에도 일정 부분 한계가 존재하곤 하였다. 청년 지원에 대한 이러한 한계점들은 지원 체계의 전반적인 시스템 변화가 로스앤젤레스 시 P3 사업의 주요한 목표라는 결론으로 귀결되었다.

로스앤젤레스 시의 P3 사업 목표는 “모든 로스앤젤레스의 단절 청년이 양질의 교육, 훈련, 고용 기회를 확보하는 것”이다(Los Angeles Performance Partnership Pilot, 2017). 이를 위해 정부기관, 교육, 청년 지원 기관이 협력적 접근을 통해 단절 청년에 대한 지원하는 방식의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단절 청년에게 필요한 정보와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50개 이상의 공공기관, 자선단체 및 지역사회 기반 조직 등과 협력하여 청년 지원을 저해하는 구조적인 장애요인들을 확인하고 새로운 지원 서비스 전달 체계를 개발하고자 노력하였다.

아울러, 로스앤젤레스 시의 P3 사업은 단절 청년 지원의 연구 및 우수 사례를 집중하고 조정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로 연구기관인 ReLAY를 설립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도 하다.⁶²⁾ ReLAY는 다섯 개의 캘리포니아 주립 대학(California State University)을 중심으로 하여 설립된 협력 기관이며,⁶³⁾ P3

62) ReLAY는 로스앤젤레스 청년의 재연결을 의미하는 “Reconnect Los Angeles Youth”의 머리글자를 축약한 것이다.

63) 다섯 개의 캘리포니아 주립 대학교는 California State University Northridge, California State University Los Angeles, California State University Long Beach, Cal Poly Pomona, and California State

사업에서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로스앤젤레스 P3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협력 기관은 ReLAY의 기능과 역할을 다음과 같이 인식하고 있다. 첫째, 단절 청년 지원을 위한 정보교환의 장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전에는 단절 청년 지원에 대한 정보와 우수 사례가 공유되지 않았으나 ReLAY가 다양한 방식을 통해 정보의 공유와 우수 사례의 보급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둘째, 단절 청년에게 서비스 제공을 촉진한다. 단절 청년이 당면한 문제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대학과 시, 카운티 기관, 자선단체 등을 포괄적으로 협력하게 하는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 셋째, ReLAY는 로스앤젤레스의 사례가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ReLAY의 연구원과 협력 기관에서 제출한 보고서와 기타 참고 자료는 웹사이트에서 공유되며, 이는 전국적으로 확산 가능한 효과적인 단절 청년 지원 서비스의 모형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Brown, 2020).

4) 요약 및 시사점

복합적이고 집중적인 지원이 요청되는 사회적 고립 청년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 및 지원 방안은 학교-가정-지역사회와의 포괄적인 연계체계 속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으며, 미국의 P3 사업은 이러한 연계를 위한 중앙행정기관의 지원 방안을 보여주는 주요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P3 사업 정책이 가지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행정기관을 위시하여 지방 정부 및 부족 공동체와 지역사회 기관들 간의 긴밀한 협업체계가 중요하다. 이는 단절 청년에 대한 지원이 단순히 고용 촉진 혹은 학교 교육에서의 중도탈락 문제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지원 체계 속에서 고민이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임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개인에 대한 사회적 맥락의 효과를 강조하는 사회생태체계론(socio-ecological

University Dominguez Hills 등 다섯 개의 대학을 의미하며, “CSU 5”로도 알려져 있다.

systems perspective)의 관점에서,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가정과 지역사회 환경은 개인에게 자원을 제공하기도 하고 행동의 제약을 야기하기도 하는 주요한 요인이다(Bronfenbrenner, 1986). 개인의 행동과 인지적·정서적 특징은 개인과 이를 둘러싼 환경의 함수로 종합적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P3 사업의 경우, 해당 ‘지역사회’의 특성과 여건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립 청년 지원을 위한 생태계 구축에 대한 의미를 지닌다.

둘째, 단절 청년에 대한 부처 간, 지역 간 협업을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으로서 지역사회의 자율성과 예산 활용상의 유연성을 부여한 시도는 국내 청년 정책 수행에도 주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해당 지역사회의 요구를 더욱 잘 충족할 수 있도록 개별적인 지원 예산을 결합하여 특정 정책 대상에 대한 지원을 가능하게 하거나, 승인 절차 하에 연방 기관의 프로그램 요구 사항에 대한 면제 요청 등이 가능하게 한 P3 사업의 특징은 행정 중심의 정책 추진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정책 추진의 적절한 사례라고 판단된다.

다만, 행정 기관의 기술적 지원과 시간 계획은 유연성을 극대화하고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인이라는 점은 중요하다(Rosenberg & Brown, 2019). 예컨대, 연방 재량 프로그램에 대한 규제 평가 및 이를 극복하기 위한 면제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나, 협력 기관과 모델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것, 청년 지원을 위한 시스템 변화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변경하는 일련의 과정에 대한 행정기관의 지침과 지원을 제공하는 것 등은 P3 사업에 참여한 시범사업을 통해 그 효과성이 확인된 주요한 지원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성과 확산의 측면에서도 주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P3 사업을 승인한 2014년 「통합 예산전용법」은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고 문서화함으로써 향후 정책 수립의 근거자료로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각 시범사업들이 스스로의 성과를 평가하고 지원 전략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데이터를 활용하고 공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요구하였으며, 서비스에 대한 엄격한 평가를 수행하도록 권장하는 등 객관적인 평가와 확산을 위한 기초 자료들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P3 사업의 경우 지속 가능한 시스템 변화를 촉진하는 것에 비전을 두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동부의 예산을 활용하여 장기적인 성과 측정을 위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수행되고 있다는 점은 정책의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한 시도가 중장기적인 시각 속에서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설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국내 상황에 제공하는 의미가 크다. 각 지역사회 내에서 유연성을 발휘하여 수행된 정책이 어떻게 일반화되고 그 성과가 공유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공유하는 것은, 정책 대상에 대한 단기적이고 즉각적인 성과와 양적 수치만을 강조하는 국내 정책 환경에 제공하는 의미가 클 것이다.

국내 사회적 고립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나가는 과정 또한 각 지원 행정기관의 경계를 넘어서 각 개인이 뿌리내리고 있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추진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여러 중앙행정기관의 정책 실행을 위한 여러 추진체계를 지역사회 단위 중심으로 재편하고 조직화함으로써 고립 청년의 사회적 고립을 완화하고 사회로의 재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포괄적인 생태계 구축은 주요한 과제이다. 뿐만 아니라, 정책 효과성의 양적 성장과 함께 지속적인 질적 성장이 수반되기 위해서는 정책 효과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환류, 개선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기존 국내 정책 수행의 경우, 정책 효과성에 대한 양적 성과에 치중되어 추진되어 왔다. 반면, P3 사업의 경우 그 자체가 사업임과 동시에 거대한 실험의 장이며, 후속 정책들을 위한 지식을 제공하는 것을 의무사항으로 강제한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닐 것이다.

이상의 논의에 기초하여 볼 때, 로스앤젤레스 시와 ReLAY는 국내 정책 수립에 관해서도 시사점을 제공하는 우수 사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고립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개인의 수준을 넘어서 개인이 속한 가정과 지역사회와의 면밀한 협력 속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인이 뿌리내리고 있는 지역사회

내 공공기관부터 민간단체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협력 사업 추진과 이에 대해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그 우수사례를 확산·공유하기 위한 지역사회 내 대학의 역할을 보여주는 사례로 판단된다.

4. 일본의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 정책⁶⁴⁾

1) 머리말

본 절에서는 히키코모리(ひきこもり)가 먼저 발생했고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온 일본의 히키코모리 실태와 지원 현황, 최신 동향과 이슈를 보고한다. 동시에 그동안 한국에서 진행해 온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경험과 과제에 대해 검증하고, 앞으로의 한국 히키코모리 지원 모델 마련을 위해 구체적인 과제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본의 현행 히키코모리 지원 정책을 소개하는 자료는 한국에 이미 나와 있으므로, 여기서는 그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한국의 은둔형 외톨이 당사자를 위해 실질적으로 무엇이 필요할지 현 단계에서 최대한 밝혀내고자 했다.

지면의 한계로 각 항목에 대한 깊은 설명을 할 수가 없어 가급적 다양한 화제를 넣고 한국에서 앞으로 전개되어야 할 은둔형 외톨이 담론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절에서는 일본에 있고 후생노동성이 정의하는 은둔 당사자, ‘ひきこもり’를 ‘히키코모리’, 한국에 있고 한국 기준으로 정의하는 은둔 대상자를 ‘은둔형 외톨이’라 부른다. 또한, 일본어 원서의 인용문은 따로 표기가 없는 한 필자가 번역하였다.

64) 이 장은 외부 집필진으로 오오쿠사 미노루 슈퍼바이저(K2인터내셔널코리아)가 작성하였다. 오오쿠사 미노루는 일본에서 한국으로 건너와 K2인터내셔널코리아를 통해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을 펼쳐 왔다. 연구진은 가장 일본과 한국의 상황을 현실감 있게 이해하고 있는 오오쿠사 미노루 슈퍼바이저에게 한국 K2코리아의 지원사례와 일본 해외사례 원고 집필을 의뢰하였다. 그의 원고는 한국어 집필 형식에서는 조금 엇나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의 경험과 인식이 한국 사회의 엇나간 현실을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는데 큰 가치가 있을 것으로 보았다. 독자들의 이해를 바란다.

2) 일본 히키코모리 담론의 각종 개념⁶⁵⁾

(1) ‘히키코모리’란 누구인가?

① ‘히키코모리’를 처음으로 그린 만화

‘도라에몽’으로 유명한 만화가 후지코 후지오가 1971년에 발표한 만화작품에 수록된 그림은, 사회나 조직과 같은 것에 대한 거부 반응으로 고립되어 오늘날의 8050문제의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가정을 그리고 있다.⁶⁶⁾ 아직 비디오게임도 컴퓨터도 휴대폰도 없었던 시절에 그 주인공을 은둔하게 만든 것은 주인공이 자기 표현을 못하게 하는 아버지의 엄격한 양육태도와 어머니의 과도한 간섭과 과보호, 잘 나가는 친구와의 비교, 첫 출근의 실패, 그리고 그러한 개인의 고민을 삼켜버리는 거대한 도시의 분위기로 그려져 있다. 그 시절에 이미 8050문제를 예견하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음과 동시에, 흔히 은둔과 관련해 거론되는 인터넷, 게임 등과 무관하게 히키코모리는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히키코모리는 비정신병성 현상’ 정의의 모순

히키코모리를 논할 때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히키코모리 증상과 대상자의 정의 문제이다. 일본어로 ‘히키코모리’는 ‘틀어박히다’를 의미하는 동사에서 온 일반명사이며, 이 호칭은 일반적으로 ‘집콕’, ‘방콕’, ‘잠수’를 이야기할 때 흔히 사용되는 말이다. 이 말을 사용하고 ‘사회적 히키코모리’라는 용어를 만들어 ‘기존의 정신질환으로 설명이 안 되는 어려움을 안고 집에서만 지내는 사람들’을 부르기 시작한 것은 정신과의사 사이토 타마키였지만, 그것은 사회적으로 이러한 현상을

65) 집필자는 일본어를 읽을 수 없는 독자들의 이해를 위해 일본어 원서로 표기된 문헌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저자명과 제목을 표기해주었다. 이는 일본어 원서에 대한 직역의 의미이며 번역서를 지칭하지 않는다.

66) 후지코 후지오 (1971). 「내일은 일요일, 그리고 내일 모레도」 藤子不二雄 (1971). 「明日は日曜日、そしてまた明後日も……」, 『COM』 4月号, 虫プロ商事, 1971년. (후지코 후지오 「내일은 일요일, 그리고 내일 모레도」, 『COM』 4월호 (무시프로 상사), 1971년.).

이슈화함으로써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 그래서 당초에 사이토(斉藤環, 1998)는 히키코모리에 대해 "20대 후반까지(이후 나이 조건 철회) 그러한 문제가 지속되어 반년 이상 집 안에 틀어박혀 사회생활을 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는데 다른 정신장애가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하기 힘든 것"이라고 정의하였다(斉藤環, 1998).⁶⁷⁾

하지만, 이 정의 안에 일견 명쾌한 정의인데도 불구하고 ‘히키코모리란 무엇인가?’가 복잡하고 알기 어려운 것으로 여겨지게 되는 근본적인 모순이 내포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조현병이나 정신질환이 아님”이라는 항목이 은둔형 외톨이 정의에 들어가면, 방안에만 있는 한 청년을 정신과의사가 검사하고 진단을 내리기 까지 은둔형 외톨이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없게 된다. ‘정의’가 만드는 이러한 ‘판별 작업’은 결국 “은둔하고 있으니까 ‘은둔형 외톨이’인데, 은둔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은둔형 외톨이’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다”는 모순이 생긴다. 동시에 은둔형 외톨이가 정신과에서 “진단”을 받아야 그렇게 부를 수 있다면, 일방적으로 그들을 ‘히키코모리’라고 부르면서도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이중적인 기준을 보이게 된다. 이 부분은 정신과 의사와 당사자, 지원활동가들의 견해가 갈리는 부분이다.

이 문제를 후생노동성에서도 인식하고 있어, 현재 일반적으로 ‘히키코모리의 정의’로 통용되고 있는 후생노동성의 《히키코모리의 평가·지원에 관한 가이드라인》⁶⁸⁾에서는 다음과 같이 히키코모리를 정의하였다(斉藤万比古ほか, 2007).

“여러 요인의 결과로서 사회적 참여(의무교육을 포함한 취학, 비상근직을 포함한 취업, 가정 외에서의 교제 등)를 피하고, 원칙적으로는 6개월 이상 대체로

67) 斉藤環 (1998). 『社会的ひきこもり 終わらない思春期』, PHP新書. (사이토 타마키 (1998). 『사회적 히키코모리 - 끝나지 않은 사춘기』, PHP신서).

68) 斉藤万比古ほか (2007). 『ひきこもりの評価・支援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 厚生労働科学研究費補助金こころの健康科学研究事業.

가정에 계속 머무르는 상태(다른 사람과 교제하지 않는 형태의 외출을 하고 있어도 된다)를 의미하는 현상 개념이다. 또한 은둔형 외톨이는 원칙적으로 조현병의 양성 혹은 음성 증상에 근거한 은둔형 외톨이 상태와는 분명히 구별된 비정신병성 현상이지만, 실제로는 확정 진단이 이루어지기 전의 조현병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은 낮지 않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齊藤万比古ほか, 2007).”

또한 이 가이드라인 2-6 “히키코모리와 정신장애”에서는 “히키코모리가 ‘병명’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면서도, “정신보건복지센터의 히키코모리 상담의 연구(곤도(近藤)외, 2010)⁶⁹⁾에서는 당사자와 면담이 가능한 사례의 대부분에서 정신장애 진단이 가능하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정신장애’란 ICD-10이나 DSM-IV-TR에 기재된 모든 장애를 가리킨다”라고 지적한다.

동 가이드라인 3-7에 있는 <표2. 은둔형 외톨이의 3가지 분류와 지원 전략>에서는 히키코모리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제1군을 “조현병, 기분장애, 불안장애등을 주진단으로 하는 은둔형 외톨이로, 약물요법 등의 생물학적 치료가 불가결 내지는 그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으며, 정신치료법적 접근이나 복지적인 생활·취업지원 등의 심리·사회적 지원도 동시에 실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도 조현병을 포함시키고 있다. 조현병 등 정신장애를 제외하려고 하는 것은 원래 조현병과 같은 정신질환은 잘 알려져 있었고, 그것으로 환자의 고립에 대해 설명이 되는데, <기존의 정신적 질환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칙거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아져 그들을 당초에 ‘사회적 히키코모리’라고 불렀기 때문이다. 사실 그 인식은 정신과적 접근에서는 남아 있지만, 실제로는 은둔하는 사람들 중에 조현병 환자가 보이기 때문에, 지원 현장에서는 히키코모리의 다양한 스펙트럼 중의 한 유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히키코모리는 병이 아니라 상태’라고 하면서 조현병을 제외한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적인 태도로 보인다.

69) 近藤直司, 清田吉和, 北端裕司他 (2010). 「思春期ひきこもりにおける精神医学的障害の実態把握に関する研究」. 厚生労働省.

③ ‘은둔형 외톨이’ 정의

한국에서는 2005년 청소년위원회에서 일본의 ‘히키코모리’ 개념을 참고하여 처음으로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만들었다. 여기에는 특히 일본 ‘히키코모리’ 정의에는 없었던 친구 수에 관한 부분이 추가되어 있다.

〈청소년 위원회 은둔형 외톨이 정의 (2005)〉⁷⁰⁾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인 배경을 고려하고 지금까지의 경험을 토대로 은둔형 외톨이의 정의를 내려 보면,

첫째, 최소한의 사회적 접촉 없이 3개월 이상 집안에 머물러 있고,

둘째, 진학취업 등의 사회참여 활동을 할 수 없거나, 하지 않고 있으며,

셋째, 친구가 하나밖에 없거나 혹은 한 명도 없고,

넷째, 자신의 은둔상태에 대한 불안감이나 초조감을 느끼고 있으며,

다섯째, 정신병적 장애 또는 중증도 이상의 정신지체(IQ 50-55)가 있을 경우는 제외함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실제로 은둔형 외톨이 생활을 해온 당사자들과 상담을 해보면, 대체로 친구가 없는 경향성이 보이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례도 다수 접할 수 있다. 사회적 기업 K2인터내셔널코리아가 2021년 5월부터 서울시 청년청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은둔청년 발굴 및 지원사업’ 대상자 설문조사에서 친구 수에 대한 결과를 보면, 스스로를 ‘은둔형 외톨이’라고 인식하여 프로그램에 신청한 대상자 총 70명 중 친구가 없거나 한 명인 경우는 28명으로 전체의 절반에 못 미쳤으며, 두 명인 경우가 15명, 그리고 세 명인 경우 8명이었다. 나아가 친구가 열 명 이상 있다고 응답한 경우도 6명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이 사업 및 조사의 성격, 그리고 관련된 상담의 경험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첫째, 실제로 친구가 있고, 그들에게서 연락이 오는데

70) 황순길, 여인중, 남재량, 장미경, 허요연, 권해수, 박정민, 손재환, 홍지영 (2005). 은둔형 외톨이 등 사회부적응 청소년 지원 방안. 서울: 청소년위원회.

도 고립생활을 하고, 나중에는 친구들과의 관계를 점점 끊으려 하는 당사자들이 많다. 둘째, 친구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한 상태로 친구 수를 물어봤기 때문에 객관적인 숫자로 볼 수 없다. 셋째,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프로그램 참여 희망 인원을 원칙적으로 스스로에게 맡겨서 진행했기 때문에 실제로 은둔상태가 아닌 사람들이 들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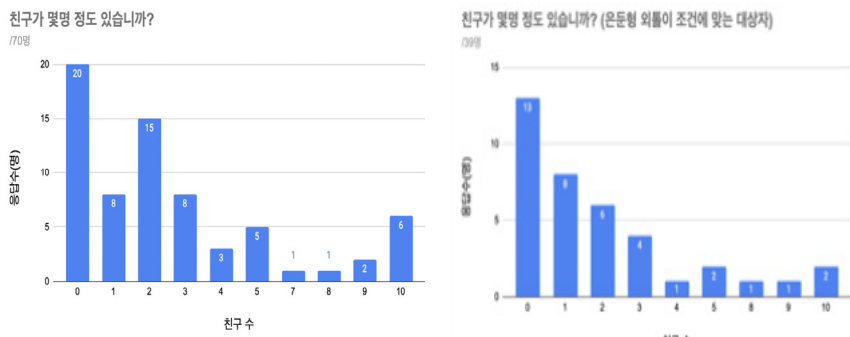


그림 Ⅶ-5 친구가 몇 명 정도 있습니까?

* 출처: K2인터내셔널코리아 (2021). 서울시 청년청 은둔형외톨이 발굴 및 지원사업.

다음 중 당신의 상태로 가장 알맞는 것을 체크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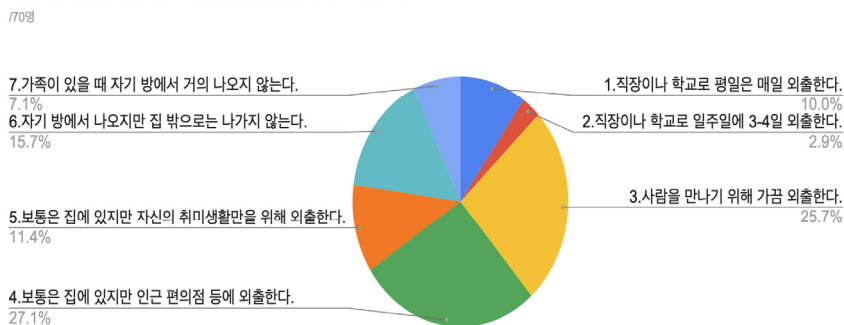


그림 Ⅶ-6 은둔 상태

* 출처: K2인터내셔널코리아 (2021). 서울시 청년청 은둔형외톨이 발굴 및 지원사업.

실제로 이 사업에 신청한 당사자의 약 3분의 1은 현재 상태가 1~3 유형, 즉 어딘가에 다니거나 사람을 만나기 위해 외출하는 사람들이었다. 엄밀한 기준으로는 ‘은둔형 외톨이’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은둔형 외톨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업에 신청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1~3 유형의 요인을 배제하기 위해 4~7 유형의 대상자(은둔형 외톨이 조건에 맞는 대상자)만으로 집계한 것이 [그림 VII-6]의 오른쪽 그래프이며, 여기서도 역시 총 39명 중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은 2명 이상 친구가 있다고 응답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친구 수로 ‘은둔형 외톨이’ 여부를 규정할 때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예컨대, 친구가 있으면서도 은둔생활을 보내고 있는 경우, 밖에는 나가지 않지만, 온라인상에서 사람들과 활발한 교류를 이어가는 경우, 그리고 은둔생활은 하지만 온라인으로 알게 된 사람과 직접 만나러 가거나 여행을 가는 경우 등은 친구 수로 규정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실제로 5년의 은둔 기간을 겪은 한 청년의 경우 은둔 이전 다수의 친구가 있었고 은둔 기간에도 친구와 연락은 지속되었지만,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웠던 경험을 밝혔는데, 이는 친구 수에 근거한 은둔형 외톨이 정의의 한계를 확인한다. 이에 상기 ‘은둔형 외톨이 정의’ 중 “셋째, 친구가 하나밖에 없거나 혹은 한 명도 없고”의 조건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④ 히키코모리의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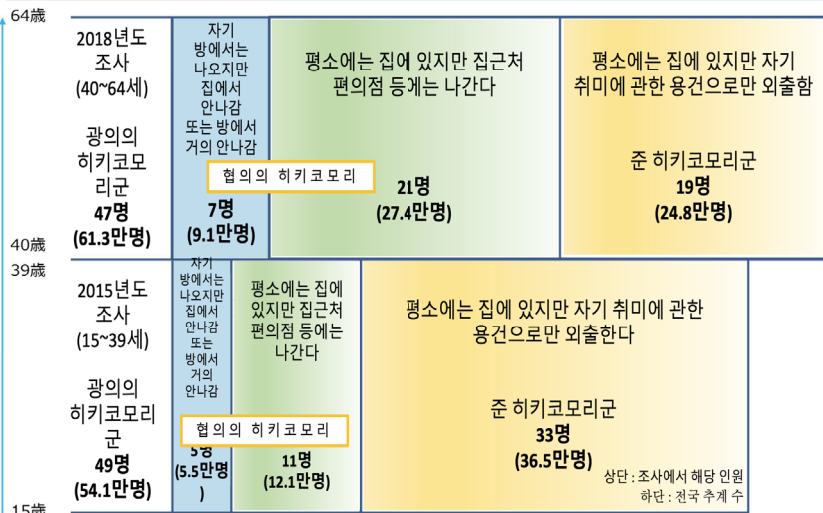
일본에서는 그동안 2009년과 2015년에 만15세~39세, 2018년에 만 40세~64세에 대한 히키코모리 실태조사를 전국 규모로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만15세~39세 히키코모리는 해당인구의 1.57%인 약 54.1만 명(2015년 기준), 40~64세 히키코모리가 해당인구의 1.45%인 61.3만 명(2018년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厚生労働省, 2019).⁷¹⁾ 특히 2018년 조사는 2009년과 2015년 실태조사 및

71) 厚生労働省 (2019). ひきこもり支援施策の方向性と地域共生社会の実現に向けて. (후생노동성 (2019). 「히키코모리 지원시책의 방향성과 지역 공생사회 실현을 위하여」).

현장 지원과정에서 은둔생활의 장기화와 고령화 경향이 나타남에 따라 40대 이상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되었다. 여기서 드러난 고령 히키코모리의 규모와 청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상태의 심각성은 히키코모리의 문제가 나이를 불문하고 발생하며, 나이가 많아질수록 심각성이 커질 수 있음을 드러낸다.

내각부 「생활 상황에 관한 조사」(2020년 3월29일 공표)

내각부가 2015 년도 및 2018 년도에 실시한 「생활 상황에 관한 조사」 결과에서는, 「평소 얼마나 외출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취미와 심부름 때만 외출」, 「인근 편의점 등에는 외출」, 「자기 방에서는 나가지만, 집에서 나가지 않음」, 「자기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음」로 답변했고 그 상태가 6 개월 이상 지났다고 응답한 사람을 「광의의 히키코모리군」으로 정의하고 있다. (※ 2015 년도 조사와 2018 년 조사에서는 일부 정의가 다르다.)



2019 후생노동성 「히키코모리 지원정책의 방향성과 지역 공생사회 실현을 위하여」에서 인용

그림 Ⅶ-7 히키코모리 인구 조사

* 출처: 厚生労働省 (2019). 「ひきこもり支援施策の方向性と地域共生社会の実現に向けて」. (후생노동성 (2019). 「히키코모리 지원정책의 방향성과 지역 공생사회 실현을 위하여」).

(2) 히키코모리를 둘러싼 개념들

① ‘사춘기좌절증후군’

지금은 히키코모리라고 불리는 증상에 대해서 가장 초기에 사회적 증후군의 하나로 보고한 것이 1983년에 출간된 이나무라 히로시(稲村博)의 《사춘기좌절증후군》이었다(稲村博, 1983).⁷²⁾ 이나무라는 ‘사회적 히키코모리’라는 명칭을 만든 사이토 타마키의 스승이 되는 정신과의사로, 기존의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와는 다른 증상을 보이는 청소년들이 많아지고 있음을 밝히고, 144개의 사례를 인용해 이 증상에 대해 검증을 시도하였다.

이나무라(稲村博, 1983)는 이 증상의 주된 발생 요인으로 학업, 진로, 수험, 교우, 연애, 동아리 활동, 취업 등에서의 좌절, 그리고 급격한 환경 변화를 꼽았고, 그들을 ‘치료 대상’으로 보았다. 치료법으로는 ‘마음의 연대 형성법’이라고 부르는 가족요법과 재택방문 상담, 정신질환에 대한 약물요법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접근하였으며, 적절한 접근에 의한 근본적 대응이 이루어질 때 확실한 개선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② 등교거부, 부등교

청년층의 히키코모리는 대부분 학창 시절의 경험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여러 실태조사를 보면 청년 히키코모리 당사자가 학창시절에 부등교(일정 이상 기간의 등교 거부)를 했던 경험이 있는 경우는 많아도 30% 정도에 불과하지만, 실제로 은둔형 외톨이 당사자 상담을 하다 보면 ‘학교에 가기 싫었지만 부모님이 억지로 학교에 가라고 했다’거나 ‘너무 힘들었지만 참고 다녔다’는 고백을 대부분의 당사자 및 부모로부터 듣게 된다.

등교거부는 학교가 ‘가야하는 곳’이기 때문에 발생한다. 즉, 학교가 ‘가지 않아도 되는 곳’이라면, 거부할 이유가 없어서 ‘등교거부’는 발생할 수가 없다. 예를 들어

72) 稲村博 (1983). 『思春期挫折症候群』, 新曜社. (이나무라 히로시 (1983). 『사춘기좌절증후군』, 신요사).

매일 PC방에 다녔던 청년이 어느 날부터 한 달간 다니지 않게 되었을 때, 그것을 ‘PC방 거부’라고 부르지 않는다. 그냥 ‘안 갔구나’라고 보고, 문제로 삼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관련해 미야니시 테루오(宮西照夫, 2014)는 대학의 대중화와 부등교에 대해 언급하며, 옛날에는 대학이 자유롭게 공부하는 분위기라 수업에 출석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 독일에서도 “대학의 대중화가 발생하기 전까지 부등교는 보이지 않았다고 보고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宮西照夫, 2014).⁷³⁾

일본 문부과학성에서 2021년 10월 13일에 발표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2020년의 초중학교 부등교 학생은 196,127명으로 전년도보다 8.2% 증가하여 최고치를 갱신하였다. 지난 10년 사이에 초등학생은 3배 증가하여 100명 중 1명으로, 중학생은 1.5배 증가하여 24명 중 1명꼴로 부등교 학생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등교의 원인으로는 ‘무기력, 불안’이 가장 많아 47%를 차지하고 있고, 생활 리듬이 깨져서(12%), 왕따가 아닌 친구관계의 문제(11%)로 이어진다(文部科学省, 2021).⁷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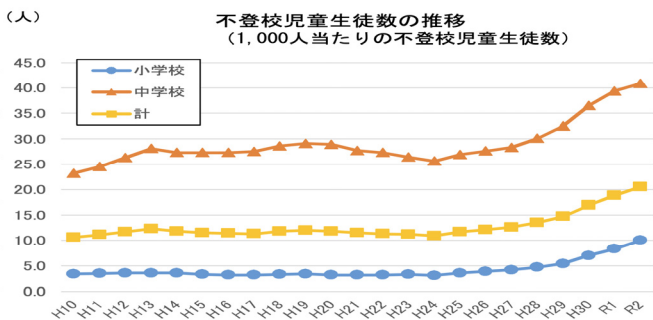


그림 Ⅷ-8 부등교 아동 수의 추이

* 출처: 文部科学省 (2021). 「令和2年度 児童生徒の問題行動・不登校等生徒指導上の諸課題に関する調査結果の概要」 (文部科学省 (2021). 「2021년도 아동의 문제행동·부등교 등 학생지도상의 문제에 관한 조사 결과의 개요」).

73) 宮西照夫 (2014). 『実践ひきこもり回復支援プログラム - アウトリーチ型支援と集団精神療法』. 岩崎学術出版.社. pp.18-19. (미야니시 테루오 (2014). 『실천 히키코모리 회복지원 프로그램 - 아웃리치형 지원과 집단정신요법』 이와사키 학술출판사. pp.18-19.

74) 文部科学省 (2021). 「令和2年度 児童生徒の問題行動・不登校等生徒指導上の諸課題に関する調査結果の概要」. (문부과학성 (2021). 「2021년도 아동의 문제행동·부등교 등 학생지도상의 제문제에 관한 조사 결과의 개요」).

일본에서는 2016년에 성립된 <의무교육의 단계에 의한 보통교육에 상당하는 교육 기회 확보에 관한 법률>⁷⁵⁾에서 부등교 대책으로 ‘학교 복귀’에 고집하지 말 것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부등교 대책의 수정을 검토해온 문부과학성은 2019년 10월 25일에 그동안의 부등교 대응을 전환하는 통지를 전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통보하고, 동시에 그동안 부등교 대응책을 규정했던 3개 통지를 폐지시켰다.

기존의 부등교 대책은 ‘학교 복귀 대응책’으로도 불리듯 부등교 학생에 대해 보건실 등교, 상담, 가정방문, 학습지원, 동기부여 등을 통해 어떻게든 다시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지속적인 고통을 받고 복학은커녕 오히려 은둔생활을 하거나 자살시도를 하는 학생이 늘어나, 현장에서는 “아이가 가기 싫어하는데 왜 학교에 억지로 오게 해야 하느냐”는 교사들의 목소리도 많았다. 이에 ‘학교 복귀’라는 기본 원칙의 전환은 “학교만이 길이 아니다”라는 새로운 교육의 방향성을 표명한 것으로 교육계 내외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朝日新聞, 2019.10.26.).⁷⁶⁾

한국의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는 무조건 가야 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교사나 부모 사이에서 여전히 지배적이다. 코로나 시국에서 사회적으로는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많이 거론되지만, 사이토 타마키(齋藤環)는 “휴교나 리모트 교육은 일부 학생들에게는 큰 유인책이기도 했다. 예를 들어 부등교 아이에게는 플러스 면도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대인공포적인 갈등으로 등교를 못하고 있었던 학생이 진료를 받으며 쉬는 기간 중 힘을 회복하여 대면수업에 다시 출석할 수 있게 된 케이스도 여러 사례 있다”고 말했다(齋藤環, 2020.10.).⁷⁷⁾ 사이토는 학교라는 공간이 갑질, 일상적인 폭력, 폭언, 야유, 무시, 집단 따돌림, 성희롱, 왕따, 비인권적인 교칙 등으로 어른의 세계에서는 용납되지 않는 무법지대인데도

75) 「義務教育の段階における普通教育に相当する教育の機会の確保等に関する法律」(2016).

76) 朝日新聞 (2019.10.26.). 「不登校生「出席」・文科省、学校復帰無理に求めない方針」.

<https://www.asahi.com/articles/ASMBT2RNQMBTUTIL004.html>에서 2021년 10월 20일 인출.

77) 齋藤環 (2020.10.). 「コロナ禍の教育 -リモート教育は「暴力」からの解放である-」 研究所ニュース 「ねざす」 第88号, 神奈川県高等学校教育会館 教育研究所.

불구하고, 목소리를 내도 교사는 제대로 들어주지 않고, “학생을 지켜야 하는 학교 측이 폭력을 용인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③ ‘NEET’, ‘청년무업자(若年無業者)’

‘히키코모리’와 함께 일본에서 널리 알려진 개념으로 ‘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가 있으며, 일하지 않고, 교육을 받지 않고, 훈련을 받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히키코모리’와 차이는 ① 고립도 및 심리적 증상에 무관, ② 물리적 거주 상황에 무관하지만, ‘일할 의욕이 없는 사람’이라는 조건을 더 추가해서 보는 이들도 많다. 취업의 의지가 있는 사람은 ‘NEET’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오해’가 많이 있는 것이다.

일본 정부의 NEET 대책은 이러한 혼란을 피하기 위해 ‘청년무업자(若年無業者)’라는 개념을 쓰고 있다. ‘무업자’란 말 그대로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지만, 2005년에 내각부가 발표한 <청소년의 취로에 관한 연구조사(青少年の就労に関する研究調査)>에서는 청년무업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内閣府, 2005).⁷⁸⁾

- 학교 및 입시학원·직업전문학교 등에 다니고 있지 않은 자
- 배우자가 없는 미혼자
- 평소에 수입이 발생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은 15세 이상 35세 미만인 자

더 나아가, 이를 ‘구직형’, ‘비구직형’, ‘비희망형’으로 분류한다(工藤啓 · 西田亮介, 2014).⁷⁹⁾ 이들이 제시한 개념은 다음과 같다.

- 구직형 : ‘취업을 희망하고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자’ (‘실업자’와 거의 비슷한 개념)
- 비구직형 : ‘취업을 희망하지만 구직활동은 하고 있지 않는 자’
- 비희망형 : ‘취업에 대한 희망조차 하지 않는 자’

78) 内閣府 (2005). 「青少年の就労に関する研究調査」. 内閣府政策統括官 (共生社会政策担当).

79) 工藤啓 · 西田亮介 (2014). 『無業社会』朝日新書. p.8. (한국어판: 구도 게이, 니시다 료수케 『무업 사회』 펜타그램, 함께일하는재단, 2015년, p.17.).

현재까지 일본정부의 NEET 지원 정책은 이 ‘청년무업자’ 개념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그것은 이 정책이 일하고 있지 않은 청년들을 노동시장으로 유인하고자 하는 ‘경제정책’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청년 자립 지원 현장에서는 대부분 주 대상자를 ‘부등교’, ‘히키코모리’ 및 ‘NEET’ 상태에 있는 와카모노(청년, 청소년)로 규정하고 있다. 조금씩 양상이 다른 이들 세 가지 증상군이 공통으로 보이는 ‘고립’, ‘비활동’, ‘계속된 사회적 배제’로 봤을 때, 비슷한 접근방법이 유효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흔히 ‘NEET’는 노동시장에서의 ‘도피’를 상기시키지만, 통계로 보면 그렇지 않은 실태가 보인다. 그들은 일하고 싶어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모르며 한번 잃은 소속과 인간관계를 회복시킬 힘이 없어 어쩔 수 없이 노동시장에서 ‘배제’되어 있다는 것으로 나타난다. 동시에 ‘NEET’가 의미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측면은 ‘소속의 상실’이다. ‘직장’과 ‘학교/학원’, ‘훈련터’를 잃었을 때, 지역 공동체가 거의 붕괴한 현대 사회에서는 바로 사회적 ‘소속’을 잃게 된다. 소속의 상실은 삶에서의 교류, 자기실현, 연애, 사회적 정체성 등 모든 기회의 상실을 의미한다.

능력으로 사람의 가치가 주어지는 기능적 집단(계절샤프트)에서의 소속은 구성원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지만, 그 소속을 잃은 이들이 느끼는 것은 뭐든지 자신의 책임으로 이뤄야 한다는 방대한 자유와 불안감이다. 전통사회에서는 가정이나 지역 공동체, 근처에 사는 친구와 같은 ‘소속만 하면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즉, 지연/혈연 공동체(게마인샤프트)에 소속해 있다는 안정감이 그 불안을 덜해주는 안전망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지역공동체가 거의 붕괴한 현대 사회에서는 마지막 보루인 가정에서 무조건적인 인정과 심리적 보호를 받지 못하였을 때, 또한 청년은 항상 무언가를 하며 그것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불안과 좌절을 느낄 때, 이 세상에서 자신의 ‘자리’를 잃게 된다. 그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내 자리가 없고, 자신이 필요 없는 존재와 같이 느껴지는 ‘버려진 불안’이다.

④ ‘하류 노인’, ‘무연사회(無縁社会)’, ‘고독사’, ‘8050문제’

2007년에 우치다 타츠루(内田樹)가 『하류지향』에서 이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격차의 근원을 지적하고 경종을 울려 사회에 충격을 준 후(内田樹, 2007)⁸⁰⁾, 급증하는 노인의 고독사에 대해 2010년에 NHK에서 제작된 ‘NHK 스페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무연사회 - ‘무연사’ 32,000명의 충격〉⁸¹⁾은 사회적으로 큰 화제가 되었다. 그 이후 2015년 후지타 타카노리(藤田孝典)가 내놓은 『하류 노인 - 1억 총 노후 붕괴의 충격』은 초고령화 사회를 맞이하고 있는 일본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藤田孝典, 2015).⁸²⁾ 후지타는 기사에서 청년층의 빈곤과 노인층의 빈곤 및 고립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이야기하였다.

“나는 고령자 빈곤문제에 대해 『하류노인(下流老人)』(朝日新聞出版)에서 썼다.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것이 있다. 그것은 청년의 빈곤과 고령자의 빈곤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청년들에 대한 지원이 충분하지 않으면, 그들이 나이가 들어 노후를 맞이했을 때 생활 상황이 처참할 수밖에 없다(東洋經濟オンライン, 2016.12.06.).”⁸³⁾

그가 설명하는 ‘하류 노인’이란 ‘모든 안전망을 잃은 상태’에 있는 노인이며, 그 정의를 “기초생활수급을 받거나 그 가능성이 있는 고령자”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① 수입이 현저히 적음, ② 충분한 저축이 없음, ③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음(사회적 고립)” 등의 특징이 있으며, 그로 인한 악영향을 “1.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같이 무너지짐, 2. 가치관의 붕괴, 3. 청년세대의 소비 감소, 4. 저출산 가속”으로 보고 있다. 80대가 된 부모가 50대 자녀를 계속해서 부양해야 하는 8050문제,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혼자 방에서 죽게 되는 ‘고독사’ 문제는 청년층

80) 内田樹 (2007). 『下流志向』 講談社文庫. (우치다 타츠루 (2007). 『하류 지향』, 고단사문고.).

81) NHK (2010). 「無縁社会プロジェクト」取材班『無縁社会 - “無縁死”三万二千人の衝撃』. 文藝春秋, (NHK 스페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무연사회 - ‘무연사’ 32,000명의 충격〉).

82) 藤田孝典 (2015). 『下流老人 一億総老後崩壊の衝撃』朝日新書. (후지타 타카노리 (2015). 『하류노인 일억 총 노후 붕괴의 충격』 아사히 신서).

83) 東洋經濟オンライン(도양경제 온라인) (2016.12.06.). <https://toyokeizai.net/articles/-/147757>에서 2021년 10월 19일 인출.

과 노인층의 복합적인 문제이며, 이 모두가 청소년, 청년 시기에 시작되는 ‘사회적 고립’과 ‘안정적 노동 환경에서의 배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는 아직 ‘은둔형 외톨이’ 문제를 젊은 사람들의 문제로 보아 청소년·청년 지원의 범주로 대처하려는 태도가 대세로 보이지만, 이러한 양극화와 격차, 고립화의 흐름은 전세대적, 전세계적인 것이며 정부가 총체적 접근을 하지 않으면 머지않아 돌이킬 수 없는 국가 전체의 위기로 다가올 것을 경고하고 있다.

⑤ ‘이키즈라사’

‘이키즈라사(生きづらさ)’는 21세기 일본의 사회현상을 말할 때 뺄 수 없는 단어가 되었다. ‘이키즈라사’를 직역하면 ‘살기 어려움’이지만, 이것은 단순한 경제적 또는 신체적 아픔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가 위협을 받아 ‘살면 안 되는 것과 같은 고통’을 받으면서 사는 사람들의 ‘정체성 위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2000년대부터 널리 쓰이게 된 말이다. ‘이키즈라사’를 안고 사는 대표 유형은 ‘히키코모리’, ‘부등교’, ‘발달장애’, ‘LGBTQ’ 등이며, 고가 마사요시(古賀正義, 2018)는 ‘이키즈라사’를 “사회 속에 자신이 있을 자리를 찾지 못해 미래에 대한 전망을 그릴 수 없는 소외된 고립 상태”라고 설명하였다(古賀正義, 2018).⁸⁴⁾

고가(古賀正義)에 의하면 ‘이키즈라사’를 안고 사는 사람들은 ‘일상생활을 자기 부정이나 고립 감각이 덮치면서 사회참여의 회로를 잃고’, ‘못된 나(자기효용감 상실)와의 대화를 끊임없이 반복’한다. ‘당사자가 성실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불안을 회피하려고 하면 할수록 사회와 격리해서 살 수밖에 없게 되며’, 이러한 문제를 ‘규율통제형’으로 대응하는 것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으며, 오히려 청년들과 타자의 관계성(그들을 둘러싼 사회 환경)의 변질, 즉 ‘배제하는 사회’라는 현실

84) 古賀正義 (2018). 「生きづらさを抱える若者の 社会的自立に向けた支援について」. 中央合同庁舎 第8号 館 416会議室 発表資料. (고가 마사요시 (2018). 「이키즈라사를 안고 있는 와카모노의 사회적 자립을 위한 지원에 대하여」. 중앙합동청사 제8호관 416회의실 발표자료).

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고가의 이러한 지적은 아주 중요하다. 당사자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지만, 능력과 환경의 한계에 부딪친다. ‘NEET’에 관련해서 말한 바와 같이, 이미 지연(地緣)적 사회관계를 잃은 현대 능력주의 사회에서는, ‘규율통제형’ 즉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규범과 능력으로 사람을 평가하는데, 이러한 사회 시스템 속에서는 그 가치관과 능력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배제될 수밖에 없다.

표 Ⅶ-7 서포스테 이용자의 실태조사 결과(아웃리치와 내방자 비교)

	항목	전체		아웃리치		내방자	
		있음	비율 %	있음	비율 %	있음	비율 %
부적응 경험	학창시절의 부적응 경험	297	70.2	171	97.2	126	51
계기	왕따(동급생, 선배, 동료, 상사 등)	129	30.5	93	52.8	36	14.6
	대인관계의 트러블(이성, 친구, 교사, 상사, 동료 등)	272	64.3	155	88.1	117	47.4
	사회 생활상의 좌절	213	50.4	112	63.6	101	40.9
	정신질환, 증상(의심 포함)	164	38.8	88	50	76	30.8
배려해야 할 질환	지적장애(의심 포함)	21	5	11	6.3	10	4
	발달장애(의심 포함)	129	30.5	72	40.9	57	23.1
행동면에서의 문제	자해행위, 자살미수 등	67	15.8	48	27.3	19	7.7
	당사자의 가정 폭력 행위	106	25.1	71	40.3	35	14.2
	고집, 이상행동	112	26.5	74	42	38	15.4
	생활리듬의 호트러짐, 주야 역전	172	40.7	112	63.6	60	24.3
	의존행동(휴대폰, 인터넷, 게임)	116	27.4	84	47.7	32	13
	방문형 지원 이용 경험	97	22.9	81	46	16	6.5
지원을 받은 경험	시설형 지원 이용 경험	259	61.2	135	76.7	124	50.2
	의료 기관	152	35.9	69	39.2	83	33.6
	복수의 지원기관 이용	205	48.5	111	63.1	94	38.1
지원기관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	심적 요인(지원에 대한 불신이 있음)	167	39.5	108	61.4	59	23.9
	보호자 요인(지원에 대한 이해를 얻을 수 없음)	81	19.1	51	29	30	12.1
	본인 요인(첫 단계에서 본인의 동의를 얻을 수 없음)	153	36.2	105	59.7	48	19.4
가정환경	학대 유무	20	4.7	11	6.3	9	3.6
	보호자, 가족의 문제(정신질환, DV, 도박 의존 등)	114	27	73	41.5	41	16.6
	보호자와 본인의 관계성 악화	161	38.1	104	59.1	57	23.1
빈곤	피지원 곤란자(경제적 사유로 지원을 받을 수 없다)	97	22.9	61	34.7	36	14.6

* 출처: 岡アユ美 (2018). 「地域若者サポートステーションにおけるキャリアカウンセリングの現状と課題－支援滞留層の心理的発達的検討を中心に－」. (오카 아유미 (2018). 「지역청년서포스테이션에서의 캐리어카운슬링의 현황과 과제－지원체류층의 심리발달적 검토를 중심으로－」 오사카시립대학대학원 창조도시연구과 박사학위논문.).

오카 아유미(岡アユ美, 2018)는 한 지역청년서포터스테이션의 이용자에 대한 타니구치(谷口仁史, 2014)의 조사를 인용하여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분석했다(谷口仁史, 2014).⁸⁵⁾ 다음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당사자들이 복합적이고 다양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특히 시설을 내방할 수 있는 당사자보다 내방이 어렵고 아웃리치를 진행해야 하는 당사자가 훨씬 더 높은 비율로 어려움을 안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아웃리치 대상자의 정신질환/증상(의심 포함)은 50.0%, 발달장애(의심 포함)는 40.9%, 학교 부적응 경험은 무려 97.2%에 달한다(표 VII-7 참고).⁸⁶⁾

⑥ 히키코모리가 끝나도 이키즈라사는 끝나지 않는다

다음의 그림은 2021년에 일본 히키코모리 UX회의가 발표한 ‘히키코모리·이키즈라사 실태조사’ 결과 중 하나이다(ひきこもりUX会議, 2021).⁸⁷⁾ 은둔을 탈출한 전 히키코모리 당사자들에게 지금 현재 “이키즈라사(사는 것 자체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나요?”라는 질문을 한 결과, 무려 80%가 현재도 어려움을 느낀다고 답하였다. 이 데이터가 의미하는 것은 ‘은둔에서 밖으로 나가긴 했지만 여전히 자신의 존재와 정체성, 삶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며, 즉 히키코모리에 대한 지원은 그들을 밖으로 나오게 하는 것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85) 谷口仁史 (2014). 「アウトリーチ(訪問支援)と重層的な支援ネットワークを活用した多面的アプローチ～社会的孤立・排除を生まない総合的な支援体制の確立にむけて.」. (다니구치 히토시 (2014). 「아웃리치(방문지원)와 중층적인 지원 네트워크를 활용한 다면적 접근 - 사회적 고립·배제를 만들지 않는 종합적인 지원체제 마련을 위하여.」).

86) 岡アユ美 (2018). 「地域若者サポートステーションにおけるキャリアカウンセリングの現状と課題 - 支援滞留層の心理発達の検討を中心に -」. 大阪市立大学大学院創造都市研究科 博士学位論文(오카 아유미 (2018). 「지역청년서포터스테이션에서의 캐리어카운슬링의 현황과 과제 - 지원체류층의 심리발달적 검토를 중심으로 -」. 오사카시립대학대학원 창조도시연구과 박사학위논문.).

87) ひきこもりUX会議 (2021). 「ひきこもり白書2021(1,686人の声から見たひきこもり・生きづらさの実態)」. (히키코모리UX회의(2021). 「히키코모리백서(1,686명의 목소리를 통해 본 히키코모리·이키즈라사 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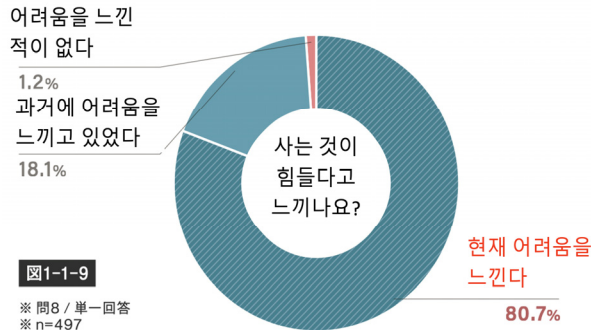


그림 Ⅶ-9 은둔을 탈출한 사람에 대한 질문 - 사는 것이 힘들다고 느끼나요?

* 출처: 히키코모리UX회의 (2021). 히키코모리 백서 2021.

‘은둔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은둔하는 것이다’고 당사자들은 말한다. 부모도 교사도 당사자 본인조차도, 은둔이라는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눈이 가는 나머지, 그 뒤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배경들을 잘 알지 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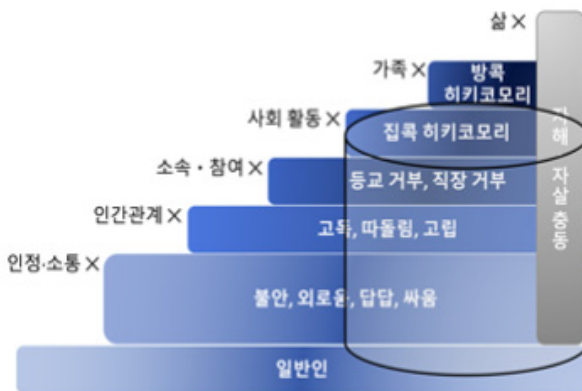


그림 Ⅶ-10 은둔형 외톨이가 밟는 단계와 마음의 어려움

* 출처: 오오쿠사 미노루(2021). 일본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 체계와 한국에서의 실천. 제12회 청년정책포럼 청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대응방안 자료집.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위의 그림은 인생에서 겪게 되는 좌절과 사람 마음속에 있는 ‘마음 어려움 통’에 쌓여가는 어려움을 나타낸 것이다. 이미 마음의 어려움이 한계까지 차 있을 때, 아주 작은 계기로도 사람은 은둔을 하거나 폭발을 일으킬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다 찬 마음의 통에 있는 어려움의 물을 넘치게 한, 마지막에 던져진 돌이 무엇인지가 아니라, 그 동안 마음속에 무의식적으로 쌓여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다. 그리고 그것을 자각하고, 그 상처를 만든 사실과 자신이 만든 해석을 이해하고, 내려놓는 작업을 하면서 쌓여 있던 어려움을 하나씩 풀어가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은둔하게 된 계기”만 찾다가는 고립과 집콕, 방콕을 왔다 갔다 하거나, 은둔에서 밖으로 나가서 일을 하더라도 여전히 찾아오는 ‘이키즈라사’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3) 히키코모리를 만드는 사회배경과 가족관계

① 불안정한 애착

그동안 아이를 히키코모리로 만드는 핵심적인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 다양한 논쟁이 있었지만, 오늘날 부등교/히키코모리 지원 전문 상담사들 사이에서 유력한 개념은 ‘애착장애’와 부모의 불안 및 불안정한 양육태도를 통해 형성된 ‘상처받은 내면 아이’다. 히키코모리 당사자가 발행하는 잡지 <HIKIPOS>에는 자신이 왜 히키코모리가 되었는지에 관한 수많은 체험담이 실려 있으며, 이 중 70% 정도는 부모와의 관계가 좋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과도한 간섭·기대·통제, 가치관의 강요, 불안, 폭언, 폭력, 중독, 바쁜 부모 등 부모에게 수동적인 삶을 살도록 강요받고 학습한 자녀들의 사례가 대부분이다. 히키코모리의 세계기구 GH(O) (Global Hikikomori Organization)을 운영하는 Vosot 이케이다 씨는 <HIKIPOS> 1호 (2018)에서 “어머니와의 관계가 모든 것의 기반이 되었다”며, 이러한 가족의 병리가 고려되지 않고 ‘당사자 개인의 문제’로 치부되거나, 반대로 ‘사회의 문제’로 애매하게 확대 해석되어 버리는 것에 대한 우려를 말하고 있다.⁸⁸⁾

부부의 모습이 바뀌는 것으로 아이가 바뀌는 접근법도 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 부등교 전문 상담사 니라즈카 카오리(蜷塚かおり, 2019)는 “부등교의 근본원인은 부모의 불안감”이며, 부모의 무의식속에 존재하는 상처 받은 어린아이를 치유하고 불안감을 안심감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蜷塚かおり, 2019).⁸⁹⁾ 모리타 나오키(森田直樹)는 저서 『부등교는 하루 3분의 소통으로 99% 해결한다』에서는 자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하루에 3개씩 진정으로 칭찬하는 것으로 부등교는 거의 모두 해결된다고 하였다(森田直樹, 2011).⁹⁰⁾ 마루야마 야스히코(丸山康彦)는 『부등교·히키코모리가 끝날 때』에서 본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 않고 인정하며, 보이는 행동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아프고 힘든 마음을 이해하고 그래도 인정해주는 것으로 관계 회복이 가능하다고 강조하였다(丸山康彦, 2017).⁹¹⁾ 정신과 의사 모가미 유우(最上悠)는 『8050 부모의 ‘경청’이 아이를 구한다』에서, “설령 자녀가 40살, 50살이더라도, 부모가 진정으로 아이에게 경청, 공감해주면 자녀는 크게 바뀌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강조한다(最上悠, 2021).⁹²⁾ 이마무라 코코네(今村心音)는 『아이를 만나지 않고 아이 히키코모리가 개선되는 히키코모리 개선 테라피』에서 “아이에게 일어나는 일은 아이 연령에 상관없이 그 집 전체를 상징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러므로 아이 문제만을 해결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문제가 장기화되고 맙니다.”, “아이에만 문제가 있다고 부모가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는 아무 변화도 생기지 않습니다”라고 단언한다(今村心音, 2018).⁹³⁾ 최근

88) HIKIPOS 웹사이트. <https://www.hikipos.info>에서 2021년 11월 25일 인출.

89) 蜷塚かおり (2019). 『長引いた不登校の根本解決法[Amazon Kindle Edition]』. (니라즈카 카오리 (2019). 『길어진 부등교의 근본 해결법[Amazon Kindle Edition]』).

90) 森田直樹 (2011). 『不登校は1日3分の働きかけで99%解決する』. リーブル出版. (모리타 나오키 (2011). 『부등교는 하루 3분의 행동으로 99% 해결된다』. 리블 출판).

91) 丸山康彦 (2017). 『不登校・ひきこもりが終わるとき』ライフサポート社. (마루야마 야스히코 (2017). 『부등교·히키코모리가 끝날 때』. 라이프서포트사.).

92) 最上悠 (2021). 『8050 親の「傾聴」が子どもを救う (子どもの声に耳を傾けていますか?)』マキノ出版.(모가미 유우 (2021). 『8050 부모의 ‘경청’이 아이를 구한다 (아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나요?)』. 마키노 출판).

93) 今村心音 (2018). 『子どもに会わずに、子どもの引きこもりが改善する引きこもり改善セラピー』. (이마무라 코코네 (2018). 『아이를 만나지 않고 아이의 히키코모리가 개선되는 히키코모리 개선 세라피』. Amazon.).

재등교율 100%의 부등교 해결 세미나를 운영하는 아라이 테루카즈(新井てるかず)는, 부모가 자신이 맞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아이의 부정적인 감정조차 인정하면서, 아이는 무조건 괜찮고 인정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계속해서 전달하는 것으로 무엇을 해도 해결되지 않았던 아이들의 부등교와 히키코모리를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新井てるかず, 2014).⁹⁴⁾

② 기타 은둔을 만드는 요인들

공동체의 붕괴는 청년들이 은둔하게 되는 또 다른 요인으로 볼 수 있다. 핵가족화의 진행과 지역커뮤니티 상실이 동시에 진행되며 어린 시절 부모 외에 옆에 있어주고 지지해주는 존재가 없는 것이다. 또한, 다른 연령대 친구들과 사귀면서 자신의 능력에 상관없이 집단에 함께 들어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경험이 부족하다. 학교에서는 동질성이 강한 조직에서 경쟁을 강요받아, 부모로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는 능력주의, 완벽주의적인 태도로 육아를 받으면, 자신이 못하는 것을 감추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지 못하게 되며 실패 경험은 실제보다 더 크게 느껴지게 된다. 이것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가 신자유주의화하면서 모든 사람을 능력으로 평가하는 능력주의 사회로 가고 있는 것의 당연의 결과지만, 애초에 ‘재능’과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마치 공평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 것처럼 개개인에게 책임을 요구하는 ‘자기책임’ 문화가 다른 사람에 대한 ‘불관용’을 부르게 되는 것이다. 서로 불편하고 불안을 가지면서도 아무도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할 수 없는 답답함을 만들고 있다. 미국의 사회정치학자 마이클 샌델은 『운도 실력 - 능력주의는 정의인가?』에서 현대 사회가 빠져 있는 이러한 능력주의의 함정에 대해 경종을 울렸는데, 히키코모리를 낳는 문화적 배경은 바로 이와 같은 능력주의 문화이다(マイケル・サンデル, 2021).⁹⁵⁾

94) 新井てるかず (2014). 『不登校児童を日本で一番解決した! 子どもと対話する3つの技術』.(아라이 테루카즈 (2014). 『부등교 아동을 일본에서 가장 많이 해결했다! 아이와 대화하는 3가지 기술』.).

95) 마이클・산델 (2021). 『實力も運のうち・能力主義は正義か?』. 早川書房. (마이클 샌델(2021).

(4) ‘히키코모리’와 ‘이키즈라사’를 낳는 구조

아다치 겐야(足立 弦也, 2019)는 “‘히키코모리’가 인정의 훼손으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고립의 한 형태이며, 다른 사회적 고립의 양태 —노숙인, 집콕 고령자, 자살기도 등 — 등과 근본적인 문제는 같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히키코모리의 출발점에는 인정의 훼손·상실이 만성화하는 회로가 있고, 제일차적인 인정의 훼손에 따른 연사적인 인정 훼손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호넷이 제시하는 3개의 인정 형식(친밀권, 법권리관계, 사회적 가치평가) 모두를 상실하여 장기적인 히키코모리에 도달하는” 구조를 제시했다(足立 弦也, 2019).⁹⁶⁾ 이처럼 어렸을 때 무조건적인 인정을 받지 못한 내면아이를 회복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 부등교·히키코모리를 지원하는 민간 상담사 사이에서는 지배적인 접근법이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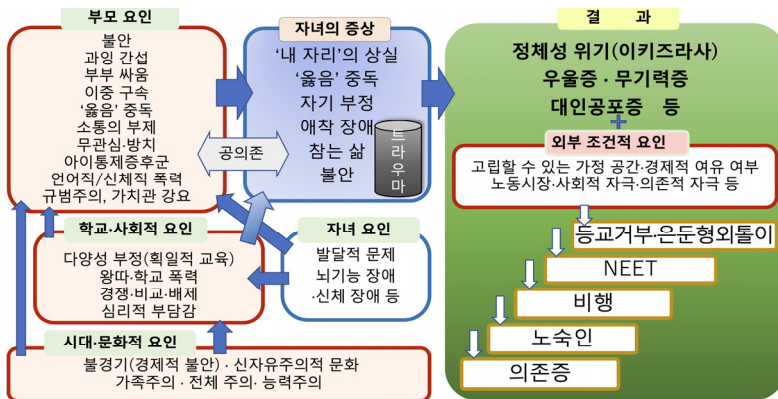


그림 Ⅶ-11 히키코모리·이키즈라사의 발생 구조

* 출처: 서울시복지재단 (2021). K2인터내셔널의 은둔외톨이 연결. 2021년 서울시 사회적 고립지원포럼(제2차 익명의 도시, 고립을 넘어 연결로) 자료집. p.22.

『실력도 운이다 - 능력주의는 정의인가?』. 하야카와서방.).

96) 足立 弦也 (2019). 「社会的孤立における居場所の関係性がもたらす 承認機能についての考察 —ひきこもり当事者・支援者へのインタビュー分析から—」 『立命館産業社会論集』.(아다치 겐야 (2019). 「사회적고립에 있어서 이바쇼의 관계성이 주는 인정기능에 관한 고찰 - 히키코모리 당사자, 지원자에 대한 인터뷰 분석에서-」. 리츠메이칸 산업사회론집.).

3) 일본 히키코모리 지원의 실태

(1) 공적 지원

① ‘히키코모리 가이드라인’과 정책

일본 정부에서는 지역 복지센터 및 민간 히키코모리·부등교 지원 단체들의 목소리를 받아, 늘어나는 히키코모리·부등교 등 고립 청소년·청년에 대한 지원 방침을 내세우기 위해 2002년부터 3년간의 연구 성과로서 보건소·정신보건복지센터 등 지역의 상담기관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했다. 후생노동성에서는 각 지자체에 이 가이드라인을 업무참고자료로 배포하고, 관계기관과 연계하고 상담활동을 충족하도록 2003년 7월에 통지했다(厚生労働省, 2003).⁹⁷⁾

이 가이드라인은 추후에 2007년부터 3년간의 연구조사를 기반으로 개정되어 2010년 ‘신 가이드라인(厚生労働省, 2010)’⁹⁸⁾으로 교체되었다(厚生労働省, 2010). 이 가이드라인은 정신과의 등 전문가가 소속하는 정신보건복지센터에 당사자 본인이 직접 상담으로 온 사례 184건을 분석·검토한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정신의료적 접근부터 지역 사례관리자가 어떻게 당사자와 가족을 만나야 할지까지 망라한 이른바 ‘히키코모리 지원 매뉴얼’이다. 일본의 보건소, 지역복지센터, 히키코모리지역지원센터 등 공적지원 기관에서는 이 가이드라인을 기본 매뉴얼로 사용하고 있다. 이 조사에서 진단이 확정된 149건 중 49건은 ① 조현병 및 불안장애, 기분장애 등 약물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 유형, 48건은 ② 발달장애 및 정신지체 유형, 51건은 ③ 전문가의 상담이 치료의 중심이 되는 성격장애 및 적응장애였다. 이에 따라 새로운 가이드라인

97) 厚生労働省 (2003). 「10代・20代を中心とした「ひきこもり」. をめぐる地域精神保健活動のガイドラインー精神保健福祉センター・保健所・市町村でどのように対応するか・援助するかー」. (후생노동성 (2003). 「10대・20대를 중심으로 한 ‘히키코모리’를 둘러싼 지역정신보건활동의 가이드라인ー정신보건복지센터·보건소·시정촌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지원할지-」).

98) 厚生労働省 (2010). 「ひきこもりの評価・支援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 (후생노동성(2010).「히키코모리의 평가·지원에 관한 가이드라인」.)

에서는 히키코모리를 위의 3개 유형으로 분류하였다(厚生労働省, 2010: p.24).

2009년에 제정된 「어린이·청년 육성지원추진법(子供・若者育成支援推進法)」에 따라 내각부에서는 히키코모리 지역지원센터 운영과 지원전문가 인재 양성, 심포지엄 개최 등 종합적인 지원을 주도하고 있다. 또한, 인재양성 사업으로서 ‘어려움을 안고 있는 어린이·청년에 대한 상담·지원에 관한 연수(困難を有する子供・若者の相談・支援に関する研修)’ 및 ‘아웃리치(방문지원)연수회’를 민간/공공 히키코모리 지원 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매년 각각 진행하고 있다(내각부 홈페이지 참조).⁹⁹⁾

지역청년서포트스테이션은 15~49세 청소년과 중년의 NEET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고, 히키코모리 지역지원센터는 연령에 상관없이 히키코모리와 그 가족 상담을 받도록 지원한다. 더 나아가, 고령자의 경우는 지역포괄지원센터가 담당한다. 2021년 5월에 도쿄도가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도쿄 도내 지역포괄지원센터의 92.4%가 담당구역 내에 히키코모리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다고 답했다. 여기서는 그 중 축이 되어 있는 지역청년서포트스테이션과 히키코모리 지역지원센터에 대해 그 실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東京都, 2021).¹⁰⁰⁾

② 지역청년서포트스테이션(서포스테)의 실태

‘지역청년서포트스테이션(地域若者サポートステーション)’, 통칭 ‘서포스테’는 일하는 어려움과 고민을 안고 있는 15세~49세¹⁰¹⁾ 및 그 부모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상담, 커뮤니케이션 훈련, 제휴업체 등의 인턴경험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 당사자가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게 지원하는 기관이다. 비용은 무료이고, 이용 기간은 기본 6개월이며, 경우에 따라 1년 정도 연장하는 경우도 있다. 전국 모든 도도부현 및 주 지자체에 설치되어 있으며, 주로 민간 NPO법인, 기업 등 총 177개

99) 内閣府ウェブサイト(내각부 웹사이트). <https://www8.cao.go.jp/youth/suisin/jinzai-ikusei.html> 에서 2021년 10월 19일 인출.

100) 東京都 (2021). 「ひきこもりに関する支援状況等 調査結果」. (도쿄도 (2021). 「히키코모리에 관한 지원 상황 등 조사결과」.).

101) 2020년에 내각부 주도 취업하기 응원프로그램에 따라 대상연령이 39세에서 49세로 인상되었다.

가 위탁을 받고 현재 운영하고 있다(후생노동성 웹사이트 참고).¹⁰²⁾ 서포스테 운용 주체에는 원래 고립된 청년들을 지원했던 단체들이 많이 선정되어 있으며, 각 단체마다의 특색(프로그램, 인턴 기회, 네트워크 등)을 살려 제공하고 있다. 이 센터는 원래 일하는 것이 어려운 NEET 상태인 청년을 위한 정책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히키코모리 지원 역할을 해온 것이다. 2020년도 신규 등록자는 15,822명, 총 이용 건수는 435,468명으로 지금까지 누적 600만 건 이상 이용되고 있다.

서포스테의 지원은 ① 예약, ② 상담·면담, ③ 각종지원 프로그램 - 커뮤니케이션 강좌/잡트레(Job training:취업체험)/비즈니스 매너 강좌/집중훈련 프로그램/PC 강좌/WORK FIT(자신 찾기&사회 알기)/아웃리치 지원, ④ 취직 지원, ⑤ 정착 및 스텝업 지원의 순서로 이뤄져 있다. 또한, 직업상담사 및 임상심리사, 산업상담사 등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면서 ‘일’에 대한 기본개념부터 이력서 쓰기, 인사법, 면접 등 구체적인 ‘일하기 위한 스텝’을 올라갈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한다.

서포스테 홈페이지에 따르면, 서포스테의 지원을 받고 2020년에 취업한 사람이 9,758명이다. 취직률이 61.7%(취업등자 수/신규등록자수)이지만, 히키코모리 문제 전문가 저널리스트인 이케가미 마사키(池上正樹)는 그 ‘취업’의 내실은 75%가 아르바이트 등 비정규직이라고 지적한다(池上正樹, 2014).¹⁰³⁾ 아직 일반 기업에서 일하는 것이 어려운 청년을 위해 배려를 받으면서 일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이해와 여유를 주는 직장을 ‘중간적 일자리’라고 하는데, 무업 청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많은 단체에서 ‘중간적 일자리’를 직접 운영하거나, 네트워크 안에 가지고 당사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원래 서포스테 프로그램 자체는 ‘중간적

102) 厚生労働省ウェブサイト「地域若者サポートステーション (후생노동성 웹사이트 지역청년서포스테이션).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koyou_roudou/jinzaikaihatsu/saposute.html에서 2021년 10월 19일 인출.

103) 池上正樹 (2014). 「“60万円払って無給労働”が国の就労支援? ブラックすぎるサポステの信じられない実態」ダイヤモンドオンライン. (이케가미 마사키 (2014). 「‘60만엔 내고 무급노동’이 정부의 취업지원? 너무나도 블랙한 서포스테의 믿을 수 없는 실태」 다이아몬드 온라인)에서 <https://diamond.jp/articles/-/57935>에서 2021년 10월 19일 인출.

일자리'를 포함하지 않고, 당사자에 대한 이해가 없는 외부 직장을 소개받고 좌절을 겪는 케이스도 많다.

서포스테는 NEET나 히키코모리를 비롯한 고립 청년을 지원하는 민간 지원단체가 당사자를 만나 일을 하기 위한 중요한 용역사업으로 존재해왔지만, 그 실태에 대해서는 이용자 및 내외 관계자에서 수많은 비판이 나와 있고, 동시에 운영 위탁을 맡은 단체 운영자 및 직원들 사이에서도 이 제도 자체에 대한 비판과 고충을 말하는 소리가 많다. 일본의 청년지원연구 일인자로 서포스테 개설에 앞서 연구팀 좌장을 맡은 미야모토 미치코(宮本みち子, 2015)는 서포스테 개설 후 10년간의 활동을 조사하고, 서포스테의 성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을 발굴하여 사회정책 대상으로서의 인식을 바꿔왔다는 것을 꼽는다(宮本みち子, 2015).¹⁰⁴⁾ 예컨대 고등학교 자퇴자, 아동시설출신자, 가정 붕괴, 기초생활수급자, 저학력문제 등 다양한 어려움을 가진 청년들에 대해 NEET라는 공허한 용어를 쓰는 것이 비현실적이라는 실감이 관계자 사이에서 많아졌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서포스테 위탁단체에 대한 평가기준의 변화가 운영단체를 고민에 빠지게 해왔다. 당초에는 없었던 시설내방자 수, 취업률 등이 평가지표가 되어 다음년도 위탁비에 반영되게 되었다. 운영단체는 본래 일하기 어려운 당사자일수록 도와줘야 하는 대상인데, 그런 당사자는 성과를 내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어려운 대상자에 시간을 쓰면 쓸수록 아이러니하게도 성과 숫자가 떨어지고, 위탁단체로서의 평가가 안 좋아져 지속적인 용역 수탁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모순이다. 사업이 단 년도 사업이며 매년 성과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하는 부분도, 운영단체에서 늘 비판되어 왔다.¹⁰⁵⁾ 복지적인 성격의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 평가에 능력주의적 지표를 적용하기 때문에 생기는 혼란이다. 이것은 히키코모리 문제의 본질이라고도 할 수 있는, 능력주의사회에 의한 '게마인샤프트'의 '게젤샤프트화', 가

104) 宮本みち子 (2015). 「若年無業者と地域若者サポートステーション事業」『社会保障研究』51号 No1. pp.18-28.

(미야모토 미치코 (2015). 「청년무업자와 지역청년서포스테이션사업」『사회보장연구』51(1). 18-28.

105) 이 부분은 2021년도부터 2년제 사업으로 전환되었고, 지원 단체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죽이 회사가 되고 학교가 되어버리는 현상과도 통하는 갈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사단법인 office 도너츠토크 대표인 다나카 히데토시(田中俊英, 2019)는 “10년 동안 히키코모리 지원의 중심이었던 <지역청년서포스테이션>은 나를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계속 지적해온 대로 ‘실패’였다고 단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¹⁰⁶⁾ 상태가 아직 ‘취업’단계까지 도달하지 못한 청년은 그것을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바로 떠나버린다. 그것은 즉 ‘이바쇼’를 통한 ‘일상생활경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존재하고, 그들을 위해 작은 스텝으로 ‘이바쇼’를 설정하고, 거기서 천천히 요리나 청소, 노래방과 같은 일상생활을 경험한 다음에 비로소 노동을 위해 천천히 준비를 해야 한다. 그러나 서포스테에서는 그것이 무시되어 왔다는 것이다. 이에 다나카 히데토시(田中俊英, 2019)는 서포스테가 그 지원의 한계를 인정하고, 예산을 축소함과 동시에 그 예산을 지역에서 활동하는 이바쇼 및 발달장애 지원센터로 돌리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상황에 치명타를 입힌 것이 2020년도부터 도입된 운영단체 경쟁입찰제 전환이다(村田拓也, 2021.10.10).¹⁰⁷⁾ 경쟁입찰 도입과 인건비를 압축한 대기업 참입으로 인해 낙찰률(낙찰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의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현저히 나타나고 있고, 유명 서포스테 운영단체가 낙찰에 실패하여 갱신을 못해, 지역마다 운영주체가 바뀌는 서포스테가 속출하고 있다. 서포스테에는 낙찰액이 정해져 있기 않기 때문에, 인건비를 압축하고 더 싼 가격을 제시한 대기업이, 오랫동안 활동하고 노하우를 가진 업체에 이겨 낙찰받게 된 것이다. <소다테아게넷>과 같은 당연히 이 사업을 계속할 것으로 모두가 생각했던 단체가 복수의 서포스테 입찰에서 떨어지게 된 이 사태는 지원 단체 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NPO법인

106) 田中俊英 (2019). 「サポステは失敗だった～40才以上ひきこもりが61万人。『居場所』に予算を」BLOGOS. (다나카 히데토시 (2019). 「서포스테는 실패였다 - 40세 이상 히키코모리가 61만 명. '이바쇼'에 예산을. BLOGOS, <https://blogs.com/article/367613>에서 2021년 10월 20일 인출).

107) 村田拓也 (2021.10.10.). 「若者の就職支援の場で“仁義なき戦い” 大企業殴り込みでNPO窮地」. 毎日新聞. (무라타 타쿠야 (2021.10.10.). 「청년의 취직지원 현장에서 '인의 없는 싸움' 대기업 참입으로 NPO 궁지. 마이니치 신문). <https://mainichi.jp/articles/20211008/k00/00m/040/438000c>에서 2021년 10월 19일 인출.

파노라마의 이시이 마사히로(石井正宏)는 저가경쟁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이대로는 지원의 질을 유지할 수 없으며, 이제 그만하고 싶다고 비판하는 여러 서포스테 운영단체 대표들의 말을 소개하고, 시장논리가 도입된 종합입찰제도 때문에 사명감이 높은 단체가 아니라 가격설정이 싼 단체가 낙찰되는 ‘열화 스파이럴’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特定非営利活動法人, 2021.4.2.).¹⁰⁸⁾ 하지만 그래도 그만둘 수 없는 ‘중독증상’에 많은 NPO가 빠져 있는 것은, 서포스테가 처음 창설되었을 때, 그전까지 수익자부담으로 사업을 운영했던 많은 민간단체들은 공공이 지원사업을 무료로 시작했기 때문에, 서비스 대상자로부터 대가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서포스테 제도에 잠입할 수밖에 없게 된 경위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공공사업이 만든 인프라가 기존의 유료 민간사업을 존립하기 어렵게 한 셈이다. 그러면, 복지적 영역일 수도 있는 이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질이 담보되는데, 신자유주의적 사장원리의 흐름으로 2013년에 한 때 구조정리로 폐지할 뻔도 했던 서포스테는 우선순위가 떨어져 경쟁입찰제 도입으로 더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다. 이시이는 그것은 NPO활동의 지원대상으로 정부에서 지정된 사회과제분야에 아직도 ‘청년’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서포스테에 대해 10년 이상 연구를 지속하고 있는 오가와 유키코(小川祐喜子, 2021)¹⁰⁹⁾는 “서포스테 지원 현장이 인재부족으로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기회도 받지 못한 채 불안정한 환경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며, 지원기관 내부에서 일하고 직접 당사자를 만나는 인재의 일의 질에 대한 우려를 지적한다. 서포스테 직원의 95.6%가 일에 대한 보람을 느끼지만 64.2%가 임금 대우에 불만을 표현했다.

108) 特定非営利活動法人 (2021.4.2.). パノラマ ブログ「これでいいのか？ 地域若者サポート・ステーション (ほぼ朝). (NPO법인 파노라마 블로그 「이걸로 괜찮은거야? 지역청년서포트스테이션」 (거의 아침). <https://note.com/npopanorama/n/n3837d2d2fba90>에서 2021년 10월 19일 인출.

109) 小川祐喜子 (2021). 「若年無業者支援者の現状 ―地域若者サポートステーションの支援者事例から―」. 東洋大学人間科学総合研究所紀要 第23号. (오가와 유키코 (2021). 「청년무업자 지원자의 현황 - 지역청년서포트스테이션의 지원자 사례에서」. 도쿄대학교 인간과학종합연구소 기요 제23호.).

또한 경쟁입찰제도에 인해 “행정의 위탁사업에서는 지원내용보다는 정부가 평가할 수 있는 ‘성과’가 목적이 된다”, “사업위탁으로 인해 당사자지원과 별도로 고용 유지와 사업위탁의 계속이 목적이 되며, 본래 목적이 왜곡되고 ‘행정의 하청화’로 가는 논리가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고 오가와는 서포스테 사업에 대해 “앞으로 급히 대응해야할 과제는 지원자가 안심하고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매년의 경쟁입찰을 폐지하고, 계속형 사업으로 전환’, ‘지원자에 대한 충분한 마음 케어’, ‘우수한 인재 확보 및 지원자 수 증가를 위한 임금 인상’, ‘목표치 등 사업평가 폐지’ 등 지원자 개인에 대한 지원과 사업요강을 검토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야모토는 서포스테 사업의 한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지적하고, 서포스테와 청년지원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경종을 올렸다.

- 취로지원이라는 정책으로는 100%의 자립이 어려운 청년들이 발견된 이상, 임금을 보충하는 소득보장과 주택보장과 같은 현물지원을 접목한 자립의 기회를 상정해야 하지만, 아직 검토가 시작되지 않았다.
- 이 사업이 사회적 포섭이 되지 못하는 정책상의 한계가 있다. 2000년대에 퍼진 사회적 격차의 확대는 당초 계획단계에서는 예상하지 못할 정도의 짧은 사회적 배제층을 만들었다. 따라서 서포스테를 포함한 청년자립지원책은 사회에서 배제되는 청년의 증가를 막고, 사회적 통합을 회복한다는 사명을 갖고 있다. 하지만, 서포스테를 포함한 서포스테를 비롯한 현재 청년지원정책은 부모(가족)의 부양을 안목적인 전제로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경제적 지원/수당은 일절 없다). 부모에 기댈 수 없는 청년들은 공적보장이 없는 상황 속에서 자기책임으로 자립하는 것이 요구되어 있지만, 그것을 못한 채 청년기가 끝나는 층을 공적책임으로 사회가 책임져야 할 시기가 곧 올 것이다. 하지만 그 사태에 직면하는 것을 우려하고 일정 재정지출을 하더라도 사회적 포섭책을 추진하는 청년정책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지역청년서포스테이션은 문제에 빠져 있다.

③ 히키코모리 지역지원센터

후생노동성은 2009년부터 히키코모리에 특화된 전문적인 제1차 상담 창구 기능을 가진 ‘히키코모리 지역지원센터’를 개설했는데, 현재 전국 모든 도도부현, 정령 지정도시(한국의 광역시에 해당)에서 총 79개가 운영되고 있다. 이 센터는 주로 지역의 청소년 상담센터, 정신보건복지센터 마음의 건강 센터 등이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히키코모리 상태에 있는 당사자와 가족이 지역의 어디에서 우선 상담하면 될지를 명백하게 함으로써 적절한 지원에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센터에서는 당사자와 가족으로부터 상담을 받고, 아웃리치, 전문기관 연계, 이바쇼 운영, 히키코모리 정책 정보 제공, 연구조사 등 다양한 일을 하고 있다. 또한 은둔 경험자를 포함한 피어서포터 및 히키코모리 지원 코디네이터를 양성하여 이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인재 양성에도 힘을 쓰고 있다.

이에 앞서 운영되던 지역청년서포터스테이션이 히키코모리를 지원하는 데 역부족임이 점점 드러나면서, 히키코모리에 특화된 상담 창구의 역할을 맡고 있으나 그 성격은 많이 다르다. 서포스테가 민간단체의 각자 각색의 성격과 분위기를 지니고 있는데 비해 히키코모리지역지원센터는 주로 원래정신보건복지센터와 같은 공적 복지센터가 위탁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지도 딱딱하고, 받을 수 있는 지원은 상담, 아웃리치, 이바쇼, 가족모임, 세미나, 정도로 제한되어 있으며, 기타 당사자에게 필요하게 될 프로그램은 모두 외부 단체에 연계를 하는 방식이다.

④ 공적 히키코모리 지원의 한계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히키코모리를 지원하기 위한 공적 지원센터들이 있지만, NHK가 2020년에 특설 사이트에서 당사자 434건, 가족 257건의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불안이나 고민을 상담한 결과, 어떻게 되었나요?”라는 질문에 “지원을 받고 해결했다”고 답한 비율이 불과 당사자 2.5%, 부모 2.7% 밖에 되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대해 NHK의 인터뷰에서 시라우메가구엔대학의 하세

가와 토시오 교수는 “제도의 미비에 의한 부분이 크다. 예를 들면 가족이 상담을 받으러 왔을 때, 정기적으로 하소연이라도 하러 오라고 할 수 있는 체제가 있으면 좋겠지만 실제로는 그런 인적 여유가 없다”고 설명하였다. 당사자 가족의 의견으로는 “시의 공무원도 사회복지협의회도 가족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본인이 직접 어려움을 호소하면 대응하겠다’는 정도의 자세로 있다.”,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을 지지하는 지원이 중요하다. 은둔하는 것을 가족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야 한다. 은둔 당사자를 부정하는 뉘앙스의 지원으로는 은둔을 극복하기 힘들 것이다” 등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을 지원하는 필요를 호소하는 의견이 보였다(NHK 히키코모리 지원 특별 웹사이트 참고).¹¹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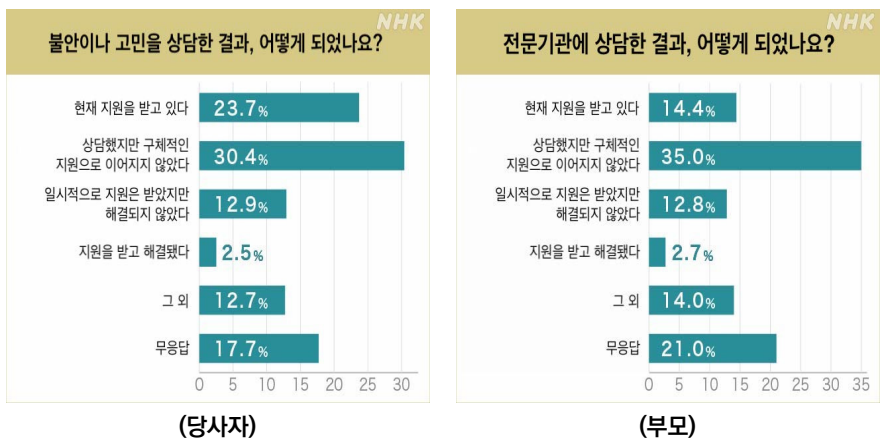


그림 Ⅶ-12 불안이나 고민을 상담한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 출처: NHK 히키코모리 지원 특별 웹사이트 〈こもりびと(코모리비토)〉.
https://www3.nhk.or.jp/news/special/hikikomori/pages/articles_90.html에서 2021년 10월 19일 인출.

110) NHK 히키코모리 지원 특별 웹사이트 〈こもりびと(코모리비토)〉.
https://www3.nhk.or.jp/news/special/hikikomori/pages/articles_90.html에서 2021년 10월 19일 인출.

(2) 민간 지원 단체

히키코모리 지역 지원센터에서 연계되는 민간 히키코모리 지원 단체는 전국에서 1,089개로 파악된다(厚生労働省, 2018).¹¹¹⁾ 이들은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협의회, NPO법인, 사회적기업, 당사자 조직, 부모 모임 등이 대부분이며, 지원 내용은 히키코모리에 특화된 상담, 이바쇼 제공, 취로지원(중간적 일자리 제공 및 취업 지원), 가족지원, 가정방문, 집단 상담, 합숙형 프로그램 등 다양하다. 일본은 정부가 2001년에 후생노동성에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 전부터 민간에서는 1980년대부터 부등교·히키코모리에 대한 수많은 지원 단체가 활동을 해왔고, 2003년에 『전국 히키코모리·부등교원조단체 레포트[숙박형시설 편』이 출판되었을 때, 전국에 이미 79개의 숙박형 지원단체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プラットフォームプロジェクト, 2003).¹¹²⁾

(3) 민간 부등교·히키코모리 전문 상담사, 코디네이터

일본에서 히키코모리, 부등교, NEET 등 고립에 대한 지원을 하는 중요한 주체 중 하나는 민간 전문 상담사이다. 일본에서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은 일반인 민간 상담사 및 코디네이터가 전국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 책을 출판하거나 특히 최근에는 유튜브로 활동하면서 고객을 모아 상담을 진행하거나 온/오프라인 세미나를 여는 등의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들 민간 지원가들은 대부분이 원래 고립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부모였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며, 그 고통을 좋은 도움을 받아 극복한 경험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스스로 상담 공부를 하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111) 厚生労働省 (2018). 「ひきこもり支援を行う民間団体に関する状況確認結果」. (후생노동성 (2018). 「히키코모리 지원을 하는 민간단체에 관한 상황확인 결과」).

112) プラットフォームプロジェクト (2003). 『全国ひきこもり・不登校援助団体レポート』. ポット出版. (플랫폼 프로젝트 (2003). 『전국 히키코모리·부등교 지원단체 리포트』. 포트 출판).

이러한 활동가 사람들은 일부는 당사자를 주 대상으로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 대상을 부모로 삼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이들은 개인적으로 또는 작은 사업자 형태로 활동하고 공적 히키코모리 담론장에 나올 일은 드물지만, 유튜브를 비롯한 인터넷미디어나 책 등으로 당사자와 부모의 눈에 띄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영향력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민간 상담사를 위한 히키코모리 전문 상담사 국가자격증은 없지만, KHJ 전국히키코모리부모연합회가 만든 민간자격증으로 ‘히키코모리 지원상담사’ 자격증이 있다.

(4) 가족 모임

일본에는 지역마다 히키코모리 가족 모임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 전국의 가족 모임을 대표하는 것이 ‘NPO법인 KHJ전국히키코모리가족연합회’이다. 1999년에 한 히키코모리 아버지인 오쿠야마 마사히사가 창설했고, 현재 약 40도도부현에 지부를 두고, 약 3,600 가족이 가입되어 “히키코모리를 안고 있는 가족과 본인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도록 전국의 가족 모임들과 연계하여 행정 기관에도 주장을 하고 모두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회 실현을 목표로 한다”라는 이념으로 활동하고 있다(共同通信ひきこもり取材班, 2019).¹¹³⁾ 전국의 가족 모임을 지원하는 활동 외에도 히키코모리의 사회적 이해와 지역 연계, 관-민 연계를 촉진하는 활동, 기관지 발행 및 홍보, 히키코모리 지원에 대한 제언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으며, 히키코모리 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 활동도 진행하고 있다(전국 히키코모리 가족회 연합회 홈페이지 참고).¹¹⁴⁾

113) 共同通信ひきこもり取材班 (2019). 『扉を開けて - ひきこもり、その声が聞こえますか』かもがわ出版.
(교도통신 히키코모리 취재반 (2019). 『문을 열어 - 히키코모리, 그 목소리가 들리나요』. 카모가와 출판.).

114) KHJ全国ひきこもり家族会連合会 (KHJ 전국 히키코모리 가족회 연합회 · 홈페이지).
<https://www.khj-h.com>에서 2021년 10월 20일 인출.

(5) 당사자단체·활동

최근에 은둔을 경험한 당사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는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① ‘Hikikomori Future Session 庵-Iori(히키코모리 퓨처세션 이오리)’

2012년 9월에 “히키코모리가 문제가 되지 않는 사회란 어떤 것일까?”라는 물음에서 시작하여 히키코모리 문제에 대해 당사자 관계자가 한 자리에 모여 자유롭게 논의하는 장을 만들자는 기획으로 시작된 모임으로 도쿄에서 지금까지 총 50회 개최되었다. ‘이바쇼’와 유사하지만, 당사자뿐만 아니라 과거 경험자, 가족, 지원자 등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누구나 수평하게 위아래 입장 없이 말하고 들을 수 있는 토론회와 같은 형식을 지니고 있는 부분이 다르다. 매번 1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큰 행사가 되었으나 코로나19 사태에 인한 모임 제한으로 2020년부터 온라인으로 전환되었고, 현재 중단된 상태이다. 이 모임에서 자유롭게 토론된 내용을 바탕으로 ‘히키코모리 대학’, ‘HIKIPOS’와 같이 그 아이디어가 실현된 기획도 여러 개 나왔다.¹¹⁵⁾

② ‘히키코모리 대학’

‘히키코모리 대학’은 은둔 당사자와 경험자가 강사가 되어 고민하는 부모나 지원자, 가족관계자, 당사자, 언론인을 대상으로 강의를 한다는 역전의 발상으로 만들어진 이동식 캠퍼스이다. 2013년부터 활동을 시작했고, 2014년 5월에는 100명 이상이 모이는 행사로 발전되어 NHK 뉴스에도 등장했다. 당사자가 주인공이 되어 사회에 공식적으로 메시지를 발신한다는 것이 당사자에게도 관계자에게도 의미가 크고,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¹¹⁶⁾ 2020년에는 히키코모리 대학에서

115) ひきこもりフューチャーセッション庵-iori 웹사이트(히키코모리 퓨처세션 이오리 웹사이트) <https://iorihiki.wordpress.com>에서 2021년 11월 25일 인출.

116) ひきこもり大学 KHJ全国キャラバン 웹사이트(히키코모리 대학 KHJ전국 캐러밴 웹사이트). <https://www.khj-h.com/khj-c.net/>에서 2021년 11월 25일에 인출.

진행된 다양한 강의내용을 담은 책도 출간되었다.¹¹⁷⁾

③ ‘HIKIPOS(히키포스)’

2018년 2월에는 히키코모리 당사자의 경험담을 담은 잡지, HIKIPOS가 창간되었다. 2021년 10월 현재까지 11호가 발간되었다. 각 호에는 중심 주제가 있고 그 주제에 따른 당사자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 주제는 ‘왜 은둔했는지?’, ‘난 이렇게 사람들과 연결되었다’, ‘히키코모리와 연애, 결혼’, ‘히키코모리와 일하기’, ‘히키코모리와 행복’, ‘히키코모리와 아버지’, ‘히키코모리와 편견’, ‘히키코모리와 친구’, ‘히키코모리와 건강’, ‘히키코모리와 돈’, ‘히키코모리와 지방’이었다. 히키코모리 관련 미디어로는 이외에도 ‘히키코모리 신문’¹¹⁸⁾, ‘부등교 신문’¹¹⁹⁾이 있고, 모두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공유하는 데 힘을 쓰고 있다.¹²⁰⁾

(6) ‘이바쇼(居場所)’

이바쇼는 일본어로 흔히 많이 쓰이는 일반명사로 ‘내 자리, 내가 있어도 되는 공간’ 정도의 의미를 가진 말이다. 히키코모리 상태는 <이 세상 어디에도 내 자리(이바쇼)가 없는 상태>라고 볼 수도 있는데, 당사자들이 원하는 지원에 항상 상위에 나오는 것이 바로 당사자들이 그냥 마음 편히 존재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누군가와 교류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인 ‘이바쇼’ 사업이다. 2019년에 KHJ전국히키코모리가족연합회가 조사하여 보고한 ‘히키코모리의 이바쇼에 관한 실태조사 보고서’¹²¹⁾에 따르면, 히키코모리지역지원센터에서 운영되는 이바쇼가 45개, 기

117) ひきこもり大学出版チーム (2020). 『特別講義「ひきこもり大学」』. 潮出版社. (히키코모리 대학 출판팀 (2020). 『특별강의 「히키코모리 대학」』. 우시오 출판사).

118) ひきこもり新聞 ウェブサイト (히키코모리 신문 웹사이트) <http://www.hikikomori-news.com>에서 2021년 11월 25일 인출.

119) 不登校新聞 ウェブサイト (부등교 신문 웹사이트). <https://futoko.publishers.fm>에서 2021년 11월 25일 인출.

120) HIKIPOS 웹사이트. <https://www.hikipos.info>에서 2021년 11월 25일 인출.

121) KHJ (2020). 「ひきこもりの居場所に関する実態調査報告書 (設置状況・家族調査・連携調査)」

타 민간에서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된 이바쇼가 242개였다(KHJ, 2020). 총 287개 이바쇼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참여 여부를 확인하고, 111개 운영자로부터 설문조사 회답을 받은 결과, 이용료는 72.2%가 '무료'로 운영되고 있고, 효과적인 활동으로는 '이바쇼 이용자끼리의 교류', '레크리에이션', '이바쇼 외 사람들과의 교류', '운영자에 의한 상담활동', '스포츠 활동', '요리 활동', '농사 활동', '스트레스 매니지먼트', '진로 체험' 등의 순서로 나왔다. 대상자가 현재 히키코모리 상태인지를 물어본 질문에는 가족의 68.6%, 당사자 본인의 42.5%가 '현재 히키코모리 상태임'으로 답했다. 본인의 만족도에 대한 질문에는 '만족'이 54.2%, '조금 만족'이 38.7%로 90%가 넘는 높은 만족도가 나타났다. 이바쇼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는 것',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배려가 있는 것', '이용자의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것', '이용자의 자기 이해를 깊게 할 것', '이용자의 자기결정이 존중 받을 것', '이용자가 인생의 즐거움을 찾을 것', '운영자가 위아래 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입장으로 대해줄 것', '히키코모리 지원에 특화되어 있는 것', '이용자가 취업하는 것' 순서로 나타났다(KHJ, 2020).

(7) 학교 환경개선의 시도

2017년에 도쿄도립 고등학교의 60%에서 머리 염색을 금지한 교칙을 위반한 학생과 원래 머리가 노란 학생을 구분하기 위해 보호자에게 '제 머리 증명서' 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는 조사가 아사히신문에서 보도되어 큰 화제를 모았다. 이 뉴스 이후 일본에서는 학교 현장에서 교칙 또는 관습으로 행해지고 있는 비인권적인 일들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 비합리적인 교칙을 개선시키자는 움직임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것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요코하마 소에이 중·고등학교의 쿠도 유이치 교장 후쿠오카에서 교복 개혁에 도전하는 고토

(KHJ (2020). 「히키코모리의 이바쇼에 관한 실태조사 보고서(설치상황·가족조사·연계조사)」)

토미카즈 변호사와 같은 사람들이다. 쿠도 교장은 “다 같이 정한 것은 다 같이 지키자”는 ‘다수결의 원칙’이나 ‘단결’을 ‘소수파를 배제하는 이지메의 논리’라며 부정한다. “‘다 사이 좋게’라고 교육 받은 아이들은 생각이 다르면 배제되는 것처럼 느껴 모두 겁먹고 있다. 모두가 다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¹²²⁾고 강조한다(東洋経済オンライン, 2021.08.10.). 고토 변호사는 비합리적이고 비인권적인 이른바 ‘블랙 교칙’들이 오히려 많아지고 있는 상황을 바꾸려고 변호사의 시점에서 각 학교 교장에게 비인권적인 교칙의 개선을 요청하는 활동이나, LGBTQ를 배려한 남녀 통합적인 표준복 제정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일본의 학교가 가진 이러한 있는 그대로의 아이를 인정하지 않고 정해진 규격에 끼어 맞추려고 하며 그것에 맞지 않는 사람은 배제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부등교 학생들이 학교를 거부하는 주된 이유로 거론되어 있으며, 지금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학교 개선의 움직임이 주목을 받고 있다.

(8) 피어 서포터 프로그램

당사자가 자신의 경험을 살려 지원자가 되어 활동하는 것을 ‘피어 서포터(peer support)’라고 하는데, 일본에서 성과를 올리고 있는 프로그램에 와카야마 대학에서 미야니시 교수가 운영하는 ‘아미고’ 프로그램이 있다. 현재 NPO법인 비다- 리브레를 운영하는 미야니시 교수는 히키코모리 상태가 되어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히키코모리를 과거에 겪은 선배가 대상자를 만나 천천히 친해지며 당사자모임에 나오게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くらし&ハウス 暮らしの知恵, 2011.2.1.).¹²³⁾ 이

122) 東洋経済オンライン (2021.08.10.). 「子どものトラブル」大人が関わるときに重要な事」(동양경제 온라인 (2021.08.10.). 「어린이의 트러블」 어른이 관여될 때 중요한 일」).

<https://toyokeizai.net/articles/-/445859>에서 10월 19일 인출.

123) くらし&ハウス 暮らしの知恵 (2011.2.1.). 「ひきこもり、和歌山大の回復プログラムに学べ - 8割を超す回復率」. (삶&하우스 삶의 지혜 (2011.2.1.). 「히키코모리, 와카야마 대학의 회복 프로그램에 배워라 -

것은 미야니시 교수가 20년 동안 대학교 생활에 부적응했던 120 명의 임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든 것이며, 우선 대상자의 정신 상태를 정신과의가 진단한 후, 상황에 따라 의료적인 접근과 가족에 대한 상담과 지원을 병행하면서, 천천히 당사자와 피어 서포터 ‘아미고’와 만나게 한다. 교수는 이 방법으로 성공률이 80%를 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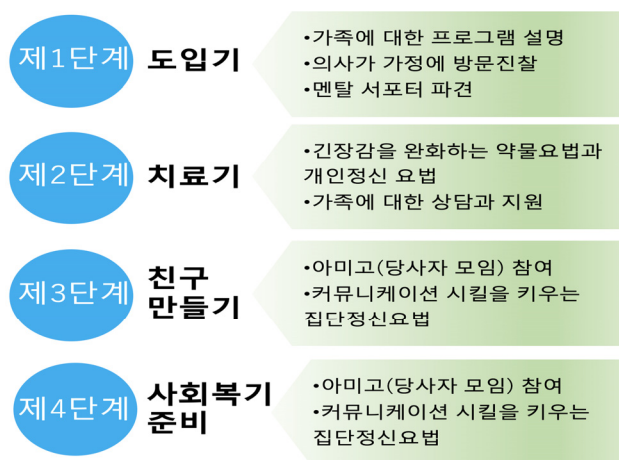


그림 Ⅷ-13 와카야마 대학교의 히키코모리 지원 프로그램

* 출처: くらし&ハウス 暮らしの知恵 (2011.2.1.).

80%가 넘는 회복률」), <https://style.nikkei.com/article/DGXBZO22585780R30C11A1WZ8000/>에서 2021년 10월 19일 인출.

5. 해외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정책 사례 요약 및 시사점

지금까지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에 관한 각 국가의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다. 해외의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은 우리나라에 비해 사회적 고립 문제를 일찍 사회문제로 인식하였고, 고립된 대상들(청년들)을 위한 근거와 사회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였다. 각 사례들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일본 사례는 1990년대 이래로 사회문제로 지적되어 온 히키코모리(ひきこもり) 지원에 관한 법적, 제도적, 정책적 측면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일본은 사회적 고립은 전연령에 걸쳐 나타난다는 기조 아래 0~30대 아동·청년에 대한 사회적 고립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며, 히키코모리에 대한 실태파악을 통하여 증거기반의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등교거부 및 학업중단에 대한 조기 대응을 위하여 학교뿐만 아니라 학교외부의 히키코모리 지원체계 및 청년지원체계를 마련하여 학교 안팎의 지원을 이어나가고 있다. 일본체계는 NPO와의 협력을 매우 강조하고 있으며, 정부는 리더십과 책무성을 가지고 NPO와 협력하여 미시체계에서의 서비스 전달이 잘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영국 잉글랜드(England) 사례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영국 정부는 Jo Cox 보고가 발간된 이래로 현대 사회의 변화가 외로움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국민들의 건강과 행복에 심대한 어려움을 끼친다고 가정한다. 영국은 외로움이 매일 담배 15개피를 피는 것 정도의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강조한다. 외로움(loneliness)은 생애 어느 시기에나 발생할 수 있고, 따라서 외로움 문제를 오늘날 가장 중요한 공중보건의 이슈의 하나로 설정한다. 이를 위해 영국 정부는 전 연령대의 인구를 대상으로 한 국가 수준의 외로움 대처 정책, 국가 수준에서 이를 관할하는 책임자 임명 및 부처 설정 등을 시행하였다. 또한 영국은 부처, 정당, 자선단체, 기업, 민간기관 등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외로움에 대응하였다. Jo Cox 위원회는 외로움 관련 대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측정 지표 개발 및 실증적

자료 측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위원회는 영국 통계청에서 외로움에 대한 연간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사회조사 및 아동·청소년 종합 실태조사에 해당하는 ‘Understanding Society’와 ‘Good Childhood’ 등 주요 조사에 외로움 측정 항목을 포함시킬 것을 주문하기도 하였다.

미국의 사례는 「단절 청년을 위한 성과협력 시범사업(Performance Partnership Pilots for Disconnected Youth)」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 사업은 16세에서 24세 사이의 청년 중 학교교육이나 고용상태에 있지 않은 단절청년(Disconnected Youth)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사회와 단절된 청년들의 지원을 위한 연방정부 사업이다. 이 사업은 연방정부의 파편화된 지원 정책을 정비하고, 실제적인 성과 기반의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해 마련이 되었고, ‘통합 및 추가 지속 예산 전용법’을 통해 단절 청년 지원 사업이 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 촉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14개 지역에서 이루어진 시범사업은 각 지역별 상황에 따라 특화된 형태를 보였고, 주로 사례관리(case management)나 사례관리에 개별 서비스를 추가하는 모형, 공동 프로그램 사업을 수행하는 모형 등으로 이루어졌다. 로스앤젤레스의 예를 보면, 기존 분절적으로 이루어진 단절 청년을 위한 프로그램들은 시에서 설립한 연구기관 ReLAY(Reconnect Los Angeles Youth)에 의해 다양한 정보가 취합되고, 취합된 정보 및 우수사례가 교환되고, 서비스 모형이 확산되는 변화를 보였다.

표 VII-8 해외 사례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주요 내용		한국에의 시사점
영국 사례	영국의 외로움 담당부처 지정	영국은 개인의 외로움에 대해 국가수준의 사회정책으로 대응한 최초의 국가임. 우리나라는 고립 및 외로움 문제에 대한 국가적 대응 미비함. 고립 문제를 노인 문제로 한정하여 접근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외로움 대처 정책의 발간	영국은 Tackling loneliness, A connected society와 같은 국가 수준의 외로움 대처 전략 및 사회적 처방이 마련되어 있음
	민관협력의 Tackling Loneliness Network 구축	영국은 지역사회 및 미시체계에서 작동하는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미국 사례	단절 청년을 위한 성과동반시범사업의 예산 체계	지역사회의 자율성과 예산 활용상의 유연성을 부여함으로써 동일한 정책 대상에 대한 부처 간 분절적 접근으로 인한 비효율을 개선할 수 있음
	단절 청년을 위한 성과동반시범사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원체계 도모	정책 대상에 대한 단기적이고 즉각적인 성과와 양적 수치만을 강조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효과성을 측정함으로써 대상의 특성에 맞는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LA의 단절 청년을 위한 성과동반시범사업 운영 사례	정보 및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성과 확산에 기여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연구하는 중심 기관을 운영하여 사업 운영에 효과성을 더할 수 있음
일본 사례	히키코모리 지원 근거 법률/정책 마련	(법률) 생애전반기 (아동·청소년·청년) 대상의 개입 근거 마련(일본은 0~30대 지원 법률) (정책) 일본은 아동 관련 계획에서 고립/외로움을 중요한 문제로 다루고 있으나 국내에서 그에 상응하는 정책에서는 지원 정책이 전무함
	히키코모리 실태조사	한국의 사회적 고립 청년의 규모 추정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전국적인 규모 추정 조사 필요
	지역사회 히키코모리 지원체계 구축	지역청년서포터스테이션의 운영은 성과평가체계 변경으로 안정화되지 못하고 위축되는 결과를 가지고 옴. 히키코모리 지역지원센터의 설립으로 지역사회지원체계를 갖추었으나 공식 지원체계로서의 한계는 존재함.

종합하면, 해외사례를 통해 도출한 함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국가 수준의 법률 및 정책 수립과 국가수준에서 대응하기 위한 담당부처 설정이 중요하다. 영국은 세계 최초로 외로움에 대한 사회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였고 일본은 영국에 뒤이어 외로움 관련 국가 사무를 볼 수 있는 부처와 부서를 지정하였다. 영국은 국가 수준의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였으며, 자체적으로 일정 부분의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일본은 전연령을 대상으로 한 고립과 외로움과 관련한 정책을 펴고 있고, 아동·청소년 대상의 계획에 사회적 고립 대응 정책을 추가하였다.

둘째, 증거기반의 정책개발을 위한 실태조사 및 실증자료 구축이 중요하다. 증거기반의 정책(evidence-based policy)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실증자료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며, 실증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 다양한 연구결과가 도출되어야 한다.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 관련 증거기반 정책을 위해서는 이러한 개념에 대한 정교화 및 측정(measurement)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정부차원의 문제 인식과 이에 대한 법적, 정책적 근거가 뒤따라야 한다.

셋째, 파트너십이 중요하다.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은 개인적인 것이고 주로 미시체계의 상호작용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다. 국가는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에 대한 책무성을 가지고 사회적 지원을 할 수는 있지만, 개인에게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 해소를 위한 지원을 하는 것은 사람과 공동체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고립에 대한 대처는 중앙-지방정부, 지역 공동체, NPO, 민간기업 등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 제8장 정책제언

- 1. 제언 도출 과정
- 2. 사회적 고립 청년을 위한
정책 방향
- 3. 사회적 고립 청년을 위한
정책과제

1. 제언 도출 과정

지금까지 우리나라 청년들의 사회적 고립(social isolation) 실태 및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는 청년들의 사회적 고립의 실태, 원인, 과정, 결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문헌연구, 양적연구(설문조사 및 2차데이터 분석), 질적연구(고립 청년 당사자들과 가족, 서비스 실무자 면담), 국내 법률 및 정책분석, 국내 사회적 고립청년 민간프로그램 사례분석, 해외 정책사례 분석 등을 진행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이 연구는 우리나라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을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정책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고립 경험이 있는 청년 당사자, 현장 실무자, 학계 전문가, 정책 전문가 등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연구에 반영하고 체계적으로 정책제언을 도출하기 위하여 본 연구진은 각 장의 내용분석을 통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고, 이를 종합하여 정책제언을 마련하였다. 또한 포럼개최를 통하여 유럽의 전문가에게 유럽의 청년보장제(youth guarantee)가 코로나19 시기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 듣고 논의함으로써 해외에서의 청년정책 변화 움직임도 반영하고자 하였다. 무엇보다 이 연구는 청년 당사자에 대한 면담조사를 통하여 정책욕구 및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을 함께 청취하여 “청년 중심적 접근”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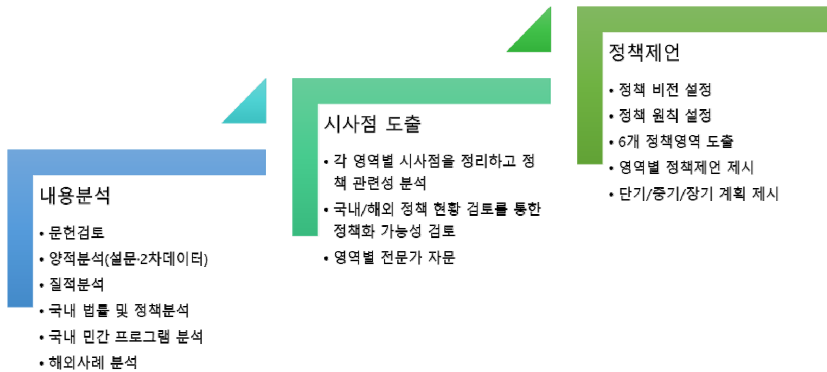


그림 VIII-1 제언 도출과정

각 장의 내용의 시사점을 도출하여 정책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은 순조로운 작업이 아니었다. 연구진은 혼란을 방지하고 정책리스트를 체계화하기 위해 최상위 목표로서의 비전을 도출하고, 비전 달성을 위해 필요한 원칙을 정리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세부 정책 리스트를 작성하였다. 이 과정은 위계적 과정이 아닌 순환적인 과정으로 진행되었으며 조금씩 내용을 수정하면서 최적의 구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림 VIII-2 이 연구의 비전, 원칙, 정책 도출 간의 순환 관계

1) 보고서 주요 내용 요약 및 정책 방향 도출

(1) 문헌연구 주요내용 및 시사점

사회적 고립이란 ‘한 개인이 사회와 다차원적으로 고립된 상태’를 의미한다. 외부적 고립(external isolation)은 ‘한 개인이 타인과의 관계망이 없거나 거의 없는 상태’로 정의하고, 내적 단절인 내부적 고립(internal isolation)은 ‘한 개인이 사회적 관계망에서 고립감을 느끼고 있는 상태’로 정의할 수 있다. 외부적 고립은 타인과의 사회적 연락(social contact), 사회적 지원(social support), 개인 간 정서적 교류(emotional relationship)가 없거나 거의 없는 상태로 정의한다. 내부적 고립은 인지된 사회적 고립(perceived social isolation)이나 외로움(loneliness)이라는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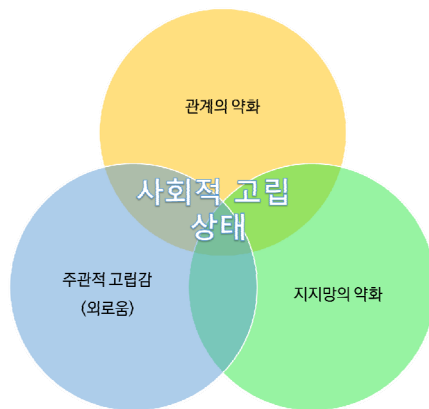


그림 VIII-3 사회적 고립 상태의 개념도

사회적 고립은 인생의 어느 시기에나 나타날 수 있으므로 생애주기적 관점을 통해 분석되어 왔다. 사회적 고립은 노인 연구들에서 먼저 시작되었으나 개인화와

공동체의 소멸과 같은 문제로 인하여 사회적 고립은 청년기의 문제로도 지적되기 시작하였다. 사회적 고립의 영향요인은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adverse childhood experience)이나 청년기에 경험하는 부정적 경험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아동기 영향은 아동학대, 가정폭력 목격과 같은 가정환경 요인, 학교폭력, 따돌림, 낮은 학업성취, 진학실패와 같은 학교 관련 요인 등이 있다. 청년기 영향은 취업실패, 노동시장에서의 부적응, 장기실업상태 등과 같은 노동시장 요인이 있다. 사회적 고립은 개인에게 우울증과 자살생각 같은 정신건강 문제, 성인기의 낮은 사회적 네트워크와 사회적 기술로 인한 진로의 불안정과 경제적 안정성 문제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장기화되는 사회적 고립은 문제를 더 강화시킬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문헌연구의 주요 시사점은 개념 차원에서 사회적 고립 개념은 다차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니트와 은둔형 외톨이 개념으로 측정하지 못하는 것을 측정할 수 있다는 것, 사회활동을 하면서도 개인의 연결망과 사회적 자본이 부실할 경우 고립될 수 있고 내부적으로도 고립될 수 있어 실제 이 사회에 고립된 사람들은 더 많을 수 있다는 것 등이다. 영향요인 측면에서 사회적 고립은 모든 연령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 따라서 아동, 청소년, 청년기 등의 경험이 누적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등이다. 따라서 정책적 시사점은 기존 니트와 은둔형 외톨이로 측정하지 못하는 사회적 고립 청년들의 취약성을 발견하고 지원해주어야 한다는 것, 생애전반기 누적적으로 쌓이는 부정적 생애경험에 대해서 초기에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 등이었다.

(2) 양적연구 주요내용 및 시사점

양적연구 파트는 2021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자료와 아동·청소년패널조사의 유지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청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횡단적 영향요인, 종단적

영향요인을 살펴보았다. 청년의 사회적 고립의 실태를 보면, ① 어려울 때 도와줄 사람이 2명 이하인 청년 18.1%, ② 타인과 전반적인 교류 빈도가 3개월에 한두 번 미만인 청년 8.5%(대면 교류) 및 8.1%(비대면 교류) ③ 사회적 지원이 없는 청년 9.6%(정보적 지원), 4.5%(도구적 지원), 3.8%(정서적 지원), ④ 은둔 청년 5.1%, ⑤ 타인으로부터 고립감을 느낀 적이 있는 청년 13.4%(단일 문항) 및 외로운 감정들을 일정 수준 이상 느낀 적이 있는 청년 35.0%(종합 문항)로 나타났다. 전체 청년 중 2.5%는 총 9개의 지표 중 5개 이상의 지표에서 취약하였다. 청년들의 아동·청소년기 및 성인기 부정적 경험의 비율을 보면, 사회적 고립 지표에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 청년에게 더 높았다. 일반적으로 가족에 소속감을 느끼는 사례가 대부분이나, 사회적 고립 청년의 경우 소속감 자체가 낮고, 가족 이외의 집단에서 다른 청년에 비해 더 많은 소속감을 느끼는 사례가 관찰되었다. 사회적 고립 청년은 삶의 질과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대해 부정적으로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사회적 고립 상태의 청년들이 특징적으로 더욱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는 심리·마음 건강 상담과 복지·생활 관련 상담 및 지원이었다. 주변에 자신이 필요할 때 도와줄 사람이 없는 청년과 내부적인 고립감이 높은 청년은 대인관계, 취업, 직업훈련, 건강, 주거 등 모든 영역에서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수요를 보였다. 이는 사회적 고립 청년에 대한 서비스가 개별화되면서도 통합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를 통해 아동·청소년기 경험이 사회적 고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결과, 아동·청소년기에 양육자가 얼마만큼 자녀의 교육 및 건강 등에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는지가 핵심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결과는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ACEs: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도 중요하지만, 아동기 긍정적 생애경험(PCEs: positive childhood experiences)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분석은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재연결할 수 있는 정책을 구상할 때 매우 큰 함의를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

로 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를 활용한 심화분석을 통해 아동·청소년기와 청년기 부정적 생애경험이 사회적 고립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아동·청소년기뿐만 아니라 청년기의 부정적 사건들도 고립감과 주관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년기 사회적 고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기부터 청년기까지 생애주기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고립은 인생의 어느 시기에서든 나타날 수 있고, 따라서 인생의 어느 시기에 서나 고립의 위험요인으로부터 보호받고 지지받을 수 있는 서비스 설계가 필요하다.

양적연구의 시사점은 사회적 고립의 경험하는 청년들의 집단이 매우 이질적이라는 것, 사회적 고립 상태에 있는 청년들은 주관적 삶의 질과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 사회적 고립 상태에 있는 청년들의 서비스 지원 욕구가 복합적이며 다른 청년들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는 것 등이었다. 아동·청소년기와 청년기의 부정적 생애경험은 현재의 사회적 고립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긍정적 생애경험은 청년기 사회적 고립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책적 시사점은 이질적인 집단에 대한 개별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낮은 삶의 질과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지원에 대한 욕구가 있는 사회적 고립 청년들을 찾아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주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아동·청소년기와 청년기에 경험한 부정적 생애사건이 현재의 사회적 고립에 영향을 미치므로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아동기부터의 초기개입과 예방적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 긍정적 생애경험은 사회적 고립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므로 아동·청소년 가족을 대상으로 긍정적훈육프로그램(Triple P: Positive Parenting Program) 등에 대한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 등이다.¹²⁴⁾

124) Triple P 홈페이지. <https://www.triplep.net/glo-en/home/>에서 2021년 10월 22일 인출.

(3) 질적연구 주요내용 및 시사점

질적연구 파트는 사회적 고립을 경험한 청년 당사자, 가족, 서비스 실무자들에 대한 면담을 통하여 사회적 고립은 어떠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고, 그 상태는 어떠한지, 악화되는 과정은 어떠한지, 부정적 영향을 막아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고립을 막기 위한 정책은 어떻게 설계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전체적으로 사회적 고립은 아동·청소년기뿐만 아니라 청년기에 경험하는 부정적 생애사건들에 의해서도 발생하며, 고립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더 상태가 악화될 수 있었다. 사회적 고립의 상태는 외부적인 교류와 연락이 줄어들고 점차 물질적, 심리적 교환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와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사자들은 이 시기를 거치며 외로움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사회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고립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었다. 사회적 고립 원인은 개인적 기질과 특성, 아동기 부정적 경험, 청년기 부정적 경험 등으로 인해 나타나며 사회적 조건과 상호작용하며 발전할 수 있다. 아동기 부정적 경험은 가족 간 불화와 폭력, 가정 밖 보호 경험, 학교폭력 및 부적응, 결핍과 지역사회 분리, 게임중독과 중첩된 취약성 등이며, 청년기 부정적 경험은 사회적 역할 지연과 상실, 실업과 취업준비, 멀리 떨어져 생활한 경험, 관계에 대한 실망 등이었다. 이와 상호작용하는 사회적 조건은 치열한 경쟁, 연령규범과 역할규범, 차별과 타자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사회경제적 충격 등이었다.

사회적 고립이 나타나면 정신적인 고통도 함께 나타났고, 자기 스스로 제 역할을 못하고 나이 먹어간다는 것에 대한 부담과 타인들과의 비교에서 오는 위축이 함께 나타났다. 고립의 상황은 부정적 사고 등의 악순환에 빠지기 쉬우며 장기화될 경우 부정적 영향이 강화되어 나타난다. 고립의 위기에서 당사자들은 주변에 도움을 청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때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할 경우 외부지원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기도 한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고립의 결과는 외로움, 깊은 우울

감, 삶에 대한 회의 등이며 미래의 관계와 역할을 포기하기도 한다. 사회와 다시 연결되어 나갈 수 있으나 이들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상처를 받고 다시 원상태로 돌아갈 수 있으므로 유익이 필요하다. 고립을 막아주는 우산과 완충제는 개인의 회복탄력성과 소속감을 느끼는 공동체 등이며 외부의 전문적 개입이 도움이 되기도 한다. 가족은 고립을 촉진시키기도 하고 고립에서부터 보호하는 기제로 작용이 되기도 하는데 가족에 대한 지원도 함께 이루어져야 효과적일 수 있다. 재연결을 위한 사회적 방안은 전환기 지원, 단계적 지원, 개별화 지원, 역할부여 및 교류기회 지원 등으로 대별될 수 있으며, 이러한 지향을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대상 중심적 지원보다는 상태 중심적 접근, 제도화를 통한 안정적, 전문적 서비스 지원, 당사자 중심적 정책 설계 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질적연구의 시사점은 사회적 고립 청년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자 하고 이에 맞는 정책의 발전을 바라고 있다는 것, 아동·청소년기 경험이 청년기 사회적 고립에 영향을 미치고 부정적 경험이 장기화되면 고립을 더욱 심화시킨다는 것, 고립의 해소는 고립의 기간과 비례할 수 있다는 것, 고립의 완충역할은 가족, 친구, 소속감을 느끼는 공동체 등이라는 것 등이다. 정책적 시사점은 청년 당사자 중심의 접근에 기반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 아동·청소년기의 부정적 경험에 대한 긴급한 개입이 필요하며 고립상태가 악화되지 않도록 조력자에 의한 지지와 전문가에 의한 전문적 서비스와 사례관리(case management)가 필요하다는 것, 중요한 사람들이 생애단계에서의 전환기(이행기)를 조력하면 도움이 되므로 이를 비공식적 영역과 공식적 영역에서 시도해 볼 수 있다는 것 등이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청년들의 교류 정도가 낮아지고 있고 사회적 지지망이 약해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4) 국내 법률 및 정책분석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국내 법률과 정책분석 내용은 우리사회에서 사회적 고립에 대해 다루고 지원하는 근거가 얼마나 마련되어 있는지를 나타낸다. 중앙 수준에서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고립의 대상 중심 개념에 대응하는 법률(고립 청년, 은둔형 외톨이, 은둔형 청년)이나 상태 중심 개념에 대응하는 법률(외로움, 고립감)이 없다. 영국은 「Care Act 2014」를 통해 외로움(loneliness)을 하나의 사회적 욕구로 인정하고 서비스 수급 자격(eligibility)으로 부여하고 있고, 일본은 「어린이·청년 육성지원 추진법」을 통해 히키코모리 등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법률과 정책에는 사회적 고립 청년을 위한 프로그램 내용, 프로그램 제공인력 등에 대한 내용이 부재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더 장기적인 시각으로 포괄적이면서도 정교한 법률 및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보면, 지역사회 청년의 사회적 고립에 대응하고자 하는 노력이 시작되고 있어 긍정적이나 아직 선언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지역의 고독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고독사에 대한 대응은 사후적일 수밖에 없다. 현재 증가하고 있는 고독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움직임 일지라도, 더 사전적이고 예방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국내 법률과 정책분석의 시사점은 한 사람의 생애주기별로 보면, 아동, 청소년, 청년기에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 생태체계적인 수준에서 보면,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 부정적 생애경험(adverse childhood experience)을 하고 있는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개입근거가 아동학대와 가정 외 보호 등으로 매우 제한적이고, 학교 체계를 통한 지원은 위(Wee)클래스 등의 지원근거 및 서비스 근거가 미약하다는 것, 사회적 고립 아동, 청소년,

청년을 위한 별도의 체계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신규설치를 신중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 등이다. 국내 법률과 정책분석의 정책적 시사점은 국내에 사회적 고립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제대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 정책적 수준에서 아동·청소년청년기의 사회적 고립에 대해 개입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 예산의 증액과 함께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신분보장 및 고용 안정성을 높여 서비스 안정성도 함께 높여야 한다는 것 등이다.

(5) 국내 민간 프로그램 사례분석

국내 민간 프로그램의 사례를 보면, K2인터내셔널은 국내에서 거의 최초로 사회적 고립 청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일본에서의 사업경험을 바탕으로 ‘은둔형 외톨이’ 관련 사업의 확대를 이끌고 있었다. 희망플랜은 비록 공동모금회 지원사업으로서는 종료되었지만 전주지역에서 지역화되고 있으며 사회복지분야에서 청년사업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진행되고 있다. 무중력지대 양천은 청년단체에서 청년사업의 운영을 맡아 진행하였으며, 고립청년 관련 위탁사업과 자체사업을 통해 청년단체의 활동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국내 사례분석으로부터의 시사점은 민간사업 경향에서 청년 당사자와 가족을 함께 지원하는 서비스 패키지 구축되어 있었다는 것, 고립 청년 지원사업의 연속성이 떨어지면 청년들의 사업 참여 회피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 고립청년을 위한 초기 진입단계에 0단계 서비스를 도입하여 장기고립 상태에 있는 청년들은 바로 직업훈련으로 넘어가기 어려워 사전 단계(기초단계)를 마련했다는 것, 단기사업의 수행은 단기성과를 위해 사회적 고립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의 우선순위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 등이다. 이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은 프로그램을 체계화할 때 청년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지원을 되도록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 법적 근거를 마련해 고립청년지원사업의 불안정성을 개선하는 한편, 중장기적 사업 운영으로 단기성

과를 위한 크림 스킴링(cream skimming)의 위험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 등이다. 무엇보다 법적, 제도적 근거가 미약한 상황에서 민간 기관들의 사업은 불안정하고 불연속적이며 비전문적인 형태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법적 근거 및 토대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6) 해외사례 분석

영국, 미국, 일본 등은 우리나라에 비해 사회적 고립 문제를 일찍 사회문제로 인식하였고, 고립된 대상들(청년들)을 위한 근거와 사회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였다. 영국 정부는 Jo Cox 보고서가 발간된 이래로 현대 사회의 변화가 외로움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국민의 건강과 행복에 심대한 어려움을 끼친다고 가정한다. 또한 외로움이 매일 담배 15개비를 피는 것 정도의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강조한다. 외로움(loneliness)은 생애 어느 시기에나 발생할 수 있고, 따라서 외로움 문제를 오늘날 가장 중요한 공중보건의 이슈의 하나로 설정한다. 이를 위해 영국 정부는 전 연령대의 인구를 대상으로 한 국가 수준의 외로움 대처 정책, 국가 수준에서 이를 관할하는 책임자 임명 및 부처 설정 등을 시행하였다. 나아가 영국은 부처, 정당, 자선단체, 기업, 민간기관 등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외로움에 대응하였다. 미국의 사례는 「단절 청년을 위한 성과협력 시범사업(Performance Partnership Pilots for Disconnected Youth)」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 사업은 16세에서 24세 사이의 청년 중 학교교육이나 고용상태에 있지 않은 단절청년(Disconnected Youth)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사회와 단절된 청년들의 지원을 위한 연방정부 사업이다. 이 사업은 연방정부의 파편화된 지원 정책을 정비하고, 실제적인 성과 기반의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해 마련이 되었고, ‘통합 및 추가 지속 예산 전용법’을 통해 단절 청년 지원 사업이 기관 간의 협업을 통해 촉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일본 사례는 1990년대 이래로 사회문제로

지적되어 온 히키코모리(ひきこもり) 지원에 관한 법적, 제도적, 정책적 측면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일본은 사회적 고립이 전연령에 걸쳐 나타난다는 기초 아래 0~30대 아동·청년에 대한 사회적 고립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며, 히키코모리에 대한 실태파악을 통하여 증거기반의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등교거부 및 학업중단에 대한 조기 대응을 위하여 학교뿐만 아니라 학교외부의 히키코모리 지원체계 및 청년지원체계를 마련하여 학교 안팎의 지원을 이어나가고 있다.

해외사례의 시사점은 사회적 고립 및 외로움에 대한 사회적 대응 필요성을 일찍 인정하였다는 점이다. 특히 영국과 일본은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에 대한 사무를 맡는 정부부처 혹은 부서를 지정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으며, 사회적 고립 및 외로움에 대해 측정하고 증거기반의 정책을 개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영국, 미국, 일본 사례 모두 지역 내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해외사례의 정책적 시사점은 국가 수준에서 사회적 고립 및 외로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 이를 맡을 수 있는 정부부처를 설정하여 구체적인 시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통계청 등 국가에서 사회적 고립 및 외로움 실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것, 효과적인 정책 시행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 민과 관의 파트너십(partnership)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등이다.

요컨대 해외에서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은 국가가 대응해야 하는 문제로 인정받고 있으며, 국가 수준에서 고립되고 외로운 사람들이 다시 사회와 연결되도록 하는 정책들이 확대되고 있다. 우리 역시 청년들이 사회와 재연결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책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아동·청소년기의 부정적 생애경험에 대한 대처하는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어 생애전반기의 어린 나이부터 가정, 학교, 지역사회를 통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서비스의 제공은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는 형태가 아닌 존중받으며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일자리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점진적으로 사회와 통합되는 방향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국내의 경우 사회적 고립 사업이 민간에서 먼저 시작되었고

근거가 마련될 경우 이들이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으므로 좋은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청년들의 사회적 관계망이 협소해지고 있고, 적절한 사회적 지지를 받지 못할 확률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코로나19로 인한 관계단절 영향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사회적 고립 청년을 위한 정책 방향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본 연구의 정책제언은 “고립과 외로움을 넘어 새로운 기회를 통한 재연결로”라는 비전을 설정하였다. 이는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에 대해 사회적 대응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사회적 고립 청년들에게 ‘새로운 서비스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일자리 기회를 제공해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자명하다.



그림 VIII-4 본 연구의 비전, 원칙, 정책영역 개념도

주요한 원칙으로는 “생애전반기 예방원칙”, “역할과 소속감 증진 원칙”, “서비스 제공 협력 및 통합원칙”을 도출하였다. “생애전반기 예방원칙”은 문헌연구, 양적 연구, 질적연구에서 나타난 생애전반기의 위험에 대한 예방적 지원을 강조하기 위해 원칙으로 선정하였다. “역할과 소속감 증진 원칙”은 양적연구와 질적연구에서 나타난 사회적 고립 완화를 위한 사회적 역할 부여와 소속감 증진을 강조하기 위해 원칙으로 선정하였다. “서비스 제공 협력 및 통합원칙”은 질적연구와 해외사례에서 나타난 아동·청소년 대상 서비스의 분절화로 인한 당사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십 및 서비스 통합을 강조하기 위해 선정하였다. 청년 대상 서비스가 청년 당사자 중심으로 되어야 한다는 청년 당사자 중심 원칙(youth-centered principal)은 모든 청년 연구에 기본이 된다고 판단하여 여기서는 제외하였다.

이를 통해 도출한 정책영역은 6가지이다. 첫 번째 정책영역은 ‘법제도적 근거 및 기반 마련’으로 개인이 경험하는 사회적 고립에 사회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토대 마련 관련 영역이다. 두 번째 정책영역은 ‘생애주기별 지원체계 마련’으로 아동·청소년·청년기 발생하는 고립위험으로부터의 대응에 관한 영역이다. 세 번째 정책영역은 ‘생태체계적 지원체계 마련’으로 가족, 학교, 직장 생활에서의 지원 및 사회문화적 환경개선에 관한 영역이다. 네 번째 정책영역은 ‘서비스 연결망 강화’로 전통적 이웃리치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재연결 강화 관련 영역이다. 다섯 번째 정책영역은 ‘새로운 기회 제공을 통한 재사회화’로 역할과 정체감 부여를 통한 사회통합을 위한 영역이다. 여섯 번째 정책영역은 ‘코로나19에의 대응’ 영역으로 2019년부터 현재까지 나타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충격이 청년들에게 장기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집중지원하는 것과 관련한 영역이다. 다음 절에는 이와 같은 비전, 원칙, 정책영역 설정을 바탕으로 세부정책과제를 도출한 결과를 제시하여 세부정책과제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3. 사회적 고립 청년을 위한 정책과제

1) 세부정책과제 도출

이 절에서는 앞서 정리된 비전, 원칙, 정책영역을 바탕으로 6개 정책 영역의 세부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정책세부과제는 보고서 내용분석을 통해 도출한 것을 바탕으로 하였고, 일부 과제는 이와 연계된 정책들을 추가하여 제시하였다.



그림 VIII-5 본 연구의 주요 정책 과제

6개 정책영역의 세부정책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제도적 근거 및 기반 마련 영역의 세부정책과제는 개인이 경험하는 사회적 고립에 사회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기 위한 6개의 세부과제를 제시하였다. 세부과제는 ‘아동·청소년·청년 기본법 내 사회적 고립 대응 추가’, ‘사회적 고립 관련 조례의

개정 및 제정’, ‘아동·청소년·청년 정책기본계획 내 사회적 고립 관련 정책 추가’, ‘사회적 고립 관할 부처 지정 및 사무 부여’, ‘사회적 고립 실태조사 및 정기 보고서 발간’, ‘고립 청년 대상 서비스 제공인력 및 실행기관 양성’ 등이다.

둘째, 생애주기별 지원체계 마련 영역의 세부정책과제는 아동·청소년·청년기 발생하는 고립위험에 대한 대응에 관한 영역으로 3개 과제를 도출하였다. ‘학령기 학교안팎의 지원체계 마련’, ‘성인 이행기 어려움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 ‘서비스 연속성을 고려한 장기적, 통합적 서비스 제공’ 등이다.

셋째, 생태체계적 지원체계 마련 영역은 가족, 학교, 직장 생활에서의 지원 및 사회문화적 환경개선에 관한 영역으로 4개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 영역의 세부정책과제는 ‘당사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 ‘생태체계를 고려한 공동체 및 연결망 구성’, ‘고립을 촉진하는 사회문화적 규범 및 환경개선’, ‘생태체계적 지원 체계의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 강화’ 등이다.

넷째, 서비스 연결망 강화 영역은 전통적 아웃리치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재연결 강화 관련 영역으로 4개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 영역의 세부정책과제는 ‘아웃리치를 통한 재연결’, ‘재연결을 위한 이동 편의와 공간 제공’,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정보접근성 증진 및 가상공동체 구성을 통한 재연결’, ‘메타버스 및 AI 활용을 활용한 고립의 완화 및 연결’ 등이다.

다섯째, 새로운 기회 제공을 통한 재사회화 영역은 역할과 정체감 부여를 통한 사회통합을 위한 영역이다. 이 영역은 3개의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활성화 프로그램을 통한 맞춤형 출발기회 제공’, ‘시민사회의 파트너십을 통한 역할기회 제공’, ‘단계적 역할제공과 조력자의 지원 제공’ 등이다.

여섯째, 코로나19에의 대응 영역의 세부과제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나타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충격이 청년들에게 장기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집중 지원하는 것과 관련한 영역으로 2개 세부과제를 제시하였다. ‘코로나19 특별 활성화(activation) 대책 마련’, ‘코로나19 특별 외로움 지원 대책 마련’ 등이다.

표 VIII-1 세부 정책 과제

정책과제명	도출근거				
	문헌 검토 및 법제도 분석	양적 연구	질적 연구	민간 사례 분석	해외 사례 분석
I. 법제도적 근거 및 기반 마련: 사회적 고립에 대한 사회적 대응					
과제 I-1. 아동·청소년·청년 기본법 및 관련법 내 사회적 고립 대응 추가	◎			◎	◎
과제 I-2. 사회적 고립 관련 조례의 개정 및 제정	◎				◎
과제 I-3. 아동·청소년·청년 정책/계획 내 사회적 고립 관련 정책 추가					◎
과제 I-4. 사회적 고립 관할 부처 지정 및 사무 부여					◎
과제 I-5. 사회적 고립 실태조사 및 정기 보고서 발간	◎				◎
과제 I-6. 고립 청년 대상 서비스 제공인력 및 실행기관 양성	◎		◎		◎
II. 생애주기별 지원체계 마련: 아동·청소년·청년기 고립 위험에 대한 대응					
과제 II-1. 학령기 학교안팎의 지원체계 마련		◎	◎		◎
과제 II-2. 성인 이행기 어려움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		◎	◎	◎	
과제 II-3. 서비스 연속성을 고려한 장기적, 통합적 서비스 제공	◎	◎	◎		◎
III. 생태체계적 지원체계 마련: 가족·학교·직장 지원 및 사회문화적 환경개선					
과제 III-1. 당사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	◎		◎	◎	◎
과제 III-2. 생태체계를 고려한 공동체 및 연결망 구성			◎		
과제 III-3. 고립을 촉진하는 사회문화적 규범 및 환경개선			◎		◎
과제 III-4. 생태체계적 지원체계의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 강화					◎
IV. 서비스 연결망 강화: 전통적 아웃리치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재연결 강화					
과제 IV-1. 아웃리치를 통한 재연결			◎		
과제 IV-2. 재연결을 위한 이동 편의와 공간 제공				◎	
과제 IV-3.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정보접근성 증진 및 가상공동체 구성을 통한 재연결			◎		
과제 IV-4. 메타버스 및 AI를 활용한 고립의 완화 및 연결			◎		
V. 새로운 기회 제공을 통한 재사회화: 역할과 정체감 부여를 통한 사회통합					
과제 V-1. 활성화 프로그램을 통한 맞춤형 출발기회 제공	◎				◎
과제 V-2. 시민사회의 파트너십을 통한 역할기회 제공	◎		◎	◎	◎
과제 V-3. 단계적 역할제공과 조력자의 지원 제공			◎	◎	◎
VI. 코로나19에의 대응: 잃어버린 세대(Lost-generation)에 대한 집중 지원					
과제 VI-1. 코로나19 특별 활성화(activation) 대책 마련		◎	◎		◎
과제 VI-2. 코로나19 특별 외로움 지원 대책 마련		◎	◎		◎

2) 정책영역별 세부 정책과제

법제도적 근거 및 기반 마련: 사회적 고립에 대한 사회적 대응

법제도적 근거 및 기반 마련 영역은 개인이 경험하는 사회적 고립에 사회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토대 마련 관련 영역이며 세부정책과제는 6개로 구성되어 있다.

표 VIII-2 법제도적 근거 및 기반 마련 영역의 주요 정책과제

정책과제
1. 법제도적 근거 및 기반 마련: 사회적 고립 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응
과제 1-1. 아동·청소년·청년 기본법 및 관련법 내 사회적 고립 대응 추가
과제 1-2. 사회적 고립 관련 조례의 개정 및 제정
과제 1-3. 아동·청소년·청년 정책기본계획 내 사회적 고립 관련 정책 추가
과제 1-4. 사회적 고립 관할 부처 지정 및 사무 부여
과제 1-5. 사회적 고립 실태조사 및 정기 보고서 발간
과제 1-6. 고립 청년 대상 서비스 제공인력 및 실행기관 양성

첫째, 아동·청소년·청년 기본법 내 사회적 고립 대응 추가 과제는 생애전반기 사회적 고립 지원 및 예방의 법적 근거마련을 위해 제시되었다. 둘째, 사회적 고립 관련 조례의 개정 및 제정은 중앙에 비해 먼저 사회적 고립에 대한 지원이 시작되었으나 노인과 고독사에 집중되어 있는 조례들의 개정을 요구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셋째, ‘아동·청소년·청년 정책기본계획 내 사회적 고립 추가’는 일본과 같이 정부정책에 아동·청소년·청년들의 사회적 고립에 대한 대응방안을 추가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넷째, ‘사회적 고립 관할 부처 지정 및 사무 부여’는 영국이나 일본과 같이 사회적 고립 및 외로움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부처의 책임자 지정을 제안하고자 선정하였다. 다섯째, ‘사회적 고립 실태조사 및 정기 보고서 발간’은 사회적

고립 및 외로움 실태를 파악하고 실증데이터 기반의 프로그램과 정부정책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고립 청년 대상 서비스 제공인력 및 실행기관 양성’은 실제 사회적 고립에 대한 관심은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 인력, 서비스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가 이에 대한 양성을 지원하도록 하기 위해 제안하였다.

과제 1-1 아동·청소년·청년 기본법 및 관련법 내 사회적 고립 대응 추가

□ 제안배경 및 필요성 (신규)

- 사회적 고립은 생애전반기(아동·청소년·청년)에서부터 시작하여 당사자들의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장기화될 경우 회복이 어려움.
- 우리는 ① 아동·청소년·청년 관련 기본법 및 근거법률이 연령에 따라 다르고, 담당부처도 다른 상황이어서 정책 및 서비스의 분절이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② 아동·청소년·청년 관련 지원 법률에 사회적 고립, 외로움 등에 대한 근거조항이 존재하지 않음.
- 일본은 「어린이·청년육성지원추진법」을 통해 0세부터 30세까지의 사람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있고, 기본이념에 부등교와 히키코모리 등을 위한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세부내용

- 일본의 「어린이·청년육성지원추진법」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제7항 수학 및 취업 등을 하지 않는 어린이·청년, 기타 어린이·청년이며, 사회 생활을 원활하게 영위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을 갖는 것에 대하여는 그 어려움의 내용 및 정도에 따라 해당 어린이·청년의 의사를 충분히 존중하면서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청년기본법 일부개정(안)

※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도 유사하게 개정 필요

표 Ⅷ-3 해당 과제 실현을 위한 청년기본법 개정(안)

현행 청년기본법	개정안 청년기본법
제2조(기본이념) ① 이 법은 청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으며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종합적 청년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청년 개개인의 자질향상과 능동적 삶의 실현 2.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참여 촉진 3.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에서 청년의 평등한 기회 제공 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 마련	제2조(기본이념) ① 이 법은 청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으며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종합적 청년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청년 개개인의 자질향상과 능동적 삶의 실현 2.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참여 촉진 3.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에서 청년의 평등한 기회 제공 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 마련 5. 청년이 고립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지원방안 및 환경 마련

□ 법개정 등 특이사항

○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청년기본법」 일부개정

□ 관련부처 및 기관

○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

표 Ⅷ-4 아동·청소년·청년 기본법 및 관련법 내 사회적 고립 대응 추가 과제의 추진사항

추진일정			주관부처	신규 여부
단기('22-'24)	중기('24-'29)	장기('30-'35)		
●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	신규

과제 1-2 사회적 고립 관련 조례의 개정 및 제정

□ 제언배경 및 필요성 (신규·기존 모두 해당)

- 2010년대 중반 이래로 지자체 조례에 ‘사회적 고립’ 관련 문항이 추가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사회적 고립을 제목으로 한 조례들도 생겨나고 있음.
- 초기의 사회적 고립 조례들은 대부분 홀몸노인(독거어르신)의 고독사 대응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이후 고독사 지원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대상을 특정하지 않거나 고독사를 특정하지 않고 더 넓은 용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음.
- 그러나 아직 조례의 실제적인 내용들은 고독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사회적 고립에 대한 예방적 지원, 특히 아동·청소년기 지원을 위해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개정이 되거나 별도의 조례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음.

표 VIII-5 청년 사회적 고립 관련 조례 및 전체 사회적 고립 관련 조례의 Word Clou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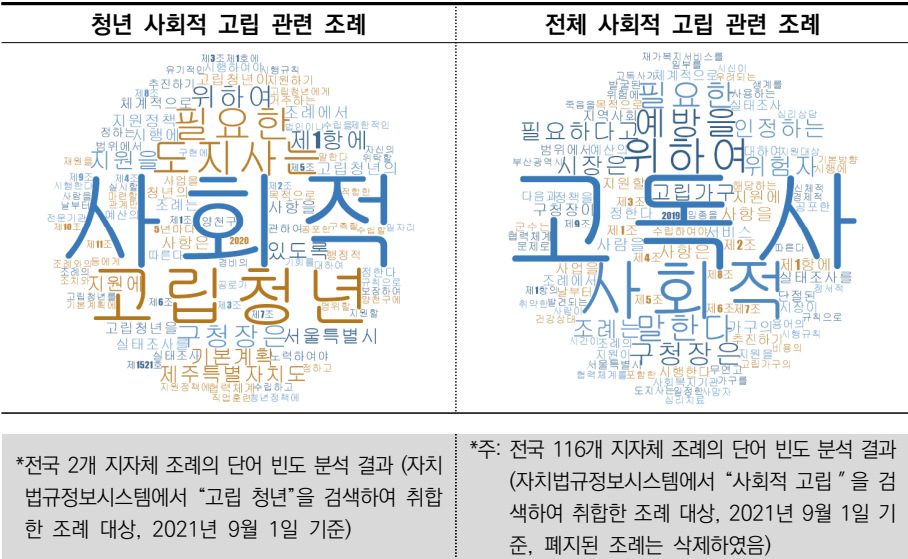


표 VIII-6 은둔형 외톨이 조례와 외로움 관련 조례의 Word Cloud



□ 세부내용

- 지자체 조례 중 ‘사회적 고립’ 관련 조례들이 사회적 고립 당사자들의 위험 예방 및 지원 관련하여 개정될 필요가 있음.
- 기존 조례를 관할하는 부서의 역할범위 차이 등으로 인하여 개정이 어려울 경우, 광주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조례’나 ‘부산시 외로움 지원 조례’와 같이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여 사회적 고립에 대응할 수 있음.

표 Ⅷ-7 부산시, 강원도 횡성군 외로움 지원 조례의 예

주요 내용	부산시민 외로움 치유와 행복 증진을 위한 조례	횡성군 외로움 공감과 치유를 위한 조례
목적	부산시민이 사회 속에서 느끼는 외로움과 이로 인해 받는 고통을 치유하고 행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 회복과 건전한 공동체적 삶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	횡성군민이 사회 속에서 느끼는 외로움을 공감하고 치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과 건전한 공동체적 삶을 실현하는 데 기여함
정의	“외로움”이란...(중략) 물리적으로 단절되거나 스스로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느끼는 고독한 감정 또는 이로 인한 고통을 말한다. “외로움 치유”란 외로움을 치료하고 극복하기 위한 물리적·사회적 지원을 비롯한 시의 모든 활동을 말하며, 예방을 위한 활동을 포함한다.	“외로움”이란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부정응적인 경험으로 인해 즐기지 않는 상태를 말하며, 정서적·사회적 관계 속에서 느끼는 부정적 심리상태를 말한다. “공감과 치유”란 다른 사람이 경험한 바를 이해하고 느끼며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물리적·사회적 지원을 비롯한 모든 활동을 말하며, 예방을 위한 활동을 포함한다.

□ 법개정 등 특이사항

- 광역,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개정 필요

☐ 관련부처 및 기관

○ 광역, 기초지방자치단체

표 Ⅷ-8 사회적 고립 관련 조례의 개정 및 제정 과제의 추진사항

추진일정			주관부처	신규 여부
단기('22-'24)	중기('24-'29)	장기('30-'35)		
	●		지방자치단체	혼합

과제 1-3 아동·청소년·청년 정책기본계획 내 사회적 고립 관련 정책 추가

☐ 제안배경 및 필요성 (신규)

○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청년 정책기본계획 내에는 사회적 고립 관련 지원 계획이 존재하지 않아 이에 대한 정책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 세부내용

○ 일본에서 2021년 발표된 「제3차 어린이·청년육성지원추진대강」에는 ‘어려운 상황 별 대처’에 ‘니트, 히키코모리, 부등교의 아동, 청년 지원’이 명시되어 있음.

「제3차 어린이·청년육성지원추진대강」 중 관련 조항

(2) 어려운 상황별 대처 ① 니트, 히키코모리, 부등교의 아이·청년 지원 등

(히키코모리의 지원) 도도부 현 및 지정 도시에 설치되어 있는 히키코모리의 전문적인 상담 창구인 히키코모리 지역 지원 센터, 정신 보건 복지 센터, 보건소, 자립 상담 지원 기관, 지역 젊은이 서포트 스테이션, 민간 지원 단체, 의료기관 등의 관계기관과 연계해 상담·지원한다. 또한 보다 밀접한 대응이 가능한 시정촌의 히키코모리 지원 체제 구축을 위해, 히키코모리 상담 창구의 명확화와 주, 지역 지원 대상자의 실태 및 요구 파악, 관계기관에 의한 시정촌 플랫폼의 설치를 진행함으로써 아웃리치를 포함한 상담 지원이나 당사자 개인에게 적합한 곳 만들기를 추진한다. 또한, 다양한 관계기관의 연계에 의한 지원이 실시되도록 지원체계 종사자의 양성을 추진한다.

(등교 거부 아동·청소년 지원) 부등교의 미연 방지, 조기 발견 및 대응을 위해 학교 상담사 및 사회 복지사의 배치 시간 등 충실한 상담을 위한 체제의 정비, 아웃리치형 지원을 포함해 등교 거부 지원의 핵심이 된다. 교육 지원센터의 기능 강화, 부등교 특례 학교의 설치 촉진, 민관협력에 의한 시설의 설치·운영 등 교육위원회·학교와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프리스쿨 등 민간 단체와 연계하고 상호 협력·보완 하면서 등교 거부 학생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는 활동, ICT 활용 등 다양한 교육 기회의 확보 등 학교 내외에서 개별상황에 따라 단계적인 지원책을 강구한다.

(니트 등 청년 지원) 니트 등의 청년에 대해 각자의 처한 상황에 따라 전문적인 상담, 지역청년 지원 기관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유도 등 다양한 취업 지원 메뉴를 제공, 지역 청년 서포트 스테이션 사업으로 니트 등 청년의 직업적 자립 지원을 추진한다.

(고등학교 중퇴者与 진로 미결정 졸업자의 지원) 지역 청년 서포트 스테이션, 학교 등이 연계 및 협력하여 퇴학, 졸업 후의 상황 등에 관한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출처: 「子供・若者育成支援推進大綱」(어린이·청년육성지원추진대강)
<https://www8.cao.go.jp/youth/wakugumi.html> 에서 10월 10일 인출.

☐ 법개정 등 특이사항

○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청년기본법」 일부개정 필요할 수 있음

☐ 관련부처 및 기관

○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

표 Ⅷ-9 아동·청소년·청년 정책기본계획 내 사회적 고립 관련 정책 추가 과제의 추진사항

추진일정			주관부처	신규 여부
단기('22-'24)	중기('24-'29)	장기('30-'35)		
●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	신규

과제 Ⅰ-4 사회적 고립 관할 부처 지정 및 사무 부여

□ 제언배경 및 필요성 (신규)

- 영국정부는 세계최초로 국민의 외로움을 관할하는 부처를 지정하고 차관급 공무원을 ‘외로움 담당 차관’으로 임명하였음.
- 일본 정부는 국민의 고독/고립 담당부처를 신설하여 국민의 외로움에 대해 국가적 대응을 시행하고 있음.

□ 세부내용

- 정부조직 내 국민의 외로움을 담당하는 부처 및 부서를 지정하여 적극적으로 국민들의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 문제에 대응 필요
- 영국과 같이 국민의 사회적 고립 및 외로움에 대처하는 정부정책, 소위 사회적 처방(Social Prescribing) 수립 및 시행

표 Ⅷ-10 사회적 처방 주요 정책 및 성과

“연결된 사회(2018)”에 명시된 정책 목표	구체화된 계획 혹은 성과
2023년까지 전국적으로 전체 의료 및 돌봄기관에서 링크 워크들을 고용하도록 하고 사회적 처방이 가능하도록 함.	NHS 장기계획(2019년 1월)에서는 천 명의 링크 워크들을 2020/21년까지 양성할 것이며, 이 수는 2023/24년까지 더욱 확대시킬 것이라 계획을 발표함. NHS에서는 [링크 워크들을 확대 고용하고 지방의 의료기관에 배치함으로써] 2023년에는 90만 명 이상의 사람이 사회적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히고 있음.

“연결된 사회(2018)”에 명시된 정책 목표	구체화된 계획 혹은 성과
2018년 말까지 사회적 처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	실제 NHS 잉글랜드와 NHS Improvement에서 잉글랜드 내 지역 관계자들과 협업하여 국가 단위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
NHS 잉글랜드에서 사회적 처방에 대한 실무 안내서를 작성하도록 함.	현재까지 NHS 잉글랜드와 잉글랜드 공중보건국(Public Health England)에서 다수의 실무 지침서를 작성함.
2018년 하순부터 의료 인력들(commissioners and practitioners)을 위한 온라인 사회적 처방 플랫폼을 운영함.	현재 관련 온라인 플랫폼이 운영 중이며, 2020년 1월 기준 1,600명 이상이 가입한 상황
2019년 초부터 링크 워커들을 위한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시행.	2019년 10월, 3개 레벨의 자격증을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이 북부 잉글랜드의 링크 워커들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시행됨.
2018년 중 지역별 사회적 처방 운영위원회를 설립	잉글랜드 지역 내에 7개의 지역 사회적 처방 운영위원회가 설립됨. 이 위원회들에서는 각 지역에서 사회적 처방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자료: Macdonald et al.(2021), “Tackling loneliness”, pp.37-38와 DCMS (2018), “A connected society: A strategy for tackling loneliness – laying the foundations for change”, p.10에 서술된 내용을 표로 재구성함.

☐ 법개정 등 특이사항

○ 「정부조직법」 개정

☐ 관련부처 및 기관

○ 보건복지부

표 Ⅷ-11 사회적 고립 관할 부처 지정 및 사무 부여 과제의 추진사항

추진일정			주관부처	신규 여부
단기('22-'24)	중기('24-'29)	장기('30-'35)		
●			보건복지부	신규

□ 제안배경 및 필요성 (신규)

- 사회적 고립 및 외로움 관련 정책의 시행은 증거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외로움에 관한 기존의 연구 및 조사 결과 종합 제공
 - 외로움 측정 국가지표 지속적 개발
 - 효과적인 정책 개입에 관한 증거 기반 자료 지속적 제공
- 국내는 사회적 고립 및 외로움에 관한 측정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최근 은둔형 외톨이 현황 파악을 위한 움직임이 있으나 시행에 어려움이 있어 제한적임.
 - 은둔형 청년 실태 관련 현재 국가승인 통계로는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미승인통계로는 광주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2020)가 있음.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는 전국대표성 있는 확률표집 기반의 반복횡단조사로 2017년 이래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본에서 정의한 외출 빈도를 기준으로 은둔형 청년의 규모를 추정하고 있음.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는 2020년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조례’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3년 주기의 반복횡단 조사이며, 국내에서 최초로 은둔형 외톨이에 초점을 맞추어 조사한 의의가 있음. 단, 비확률 표집으로 조사가 되었고 65세 미만을 포괄하고 있는 조사로 은둔형 청년의 실태 파악 및 규모 추정에는 한계.
- 은둔형 외톨이 측정에서의 난점은 근거 법률 및 정책이 부재하다는 것, 측정기준이 불명확하다는 것임. 사회적 고립도 유사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조사방식에서도 일반가구방식의 조사에서는 은둔형 청년이 조사참여를 거부할 확률이 높아 과소추정될 가능성이 있음.

□ 세부내용

- 사회적 고립 청년 실태 파악을 위한 법률/정책 마련 및 조사방안 마련 필요
 - (근거마련) 사회적 고립 청년 실태 파악의 근거 법률/정책 마련 필요(청년기본법 내 청년 삶 실태조사에 관한 조항으로 수정 가능)
 - (개념정의) 사회적 고립 청년에 대한 개념 정의 및 협의 필요
 - (외로움 측정) 외로움의 측정에서 영국 잉글랜드는 UCLA 외로움 척도를 활용하고 있음. 일부 문항만 활용할 경우 응답부담이 크지 않은 장점이 있음. 생애주기별 비교를 위해서는 아동·청소년·청년·장년·노년까지 응답 가능한 문항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UCLA 척도를 활용하여 전국 대표성 있는 조사를 수행할 경우 국제비교도 가능

표 Ⅷ-12 잉글랜드에서의 외로움 측정 문항

Measures	Items	Response categories
The three-item UCLA Loneliness scale	1. How often do you feel that you lack companionship?	Hardly ever or never, Some of the time, Often
	2. How often do you feel left out?	Hardly ever or never, Some of the time, Often
	3. How often do you feel isolated from others?	Hardly ever or never, Some of the time, Often
The direct measure of loneliness	How often do you feel lonely?	Often/always, Some of the time, Occasionally, Hardly ever, Never

* 자료: ONS (2018a), "Loneliness: What characteristics and circumstances are associated with feeling lonely?"

- (사회적 고립 측정) 현재는 각 조사에서 사회적 고립의 측정 문항이 나뉘어져 있어 종합적인 파악이 어려움. 외부적 고립과 내부적 고립 등에 대한 다차원적인 측정을 통해 청년세대 내, 기타 연령세대 간 비교가 가능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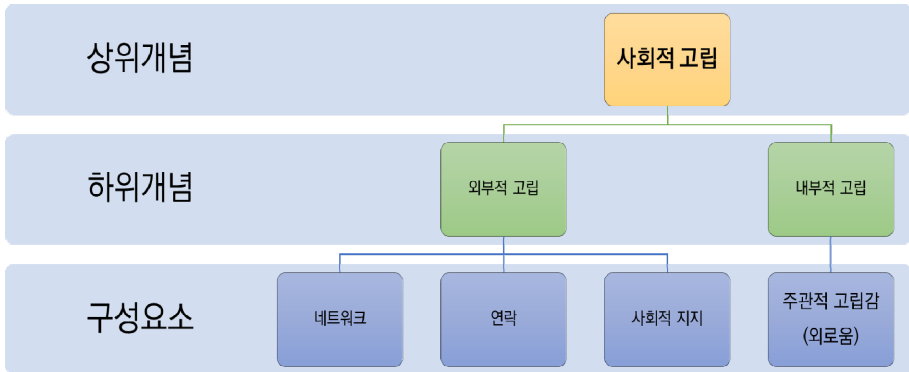


그림 Ⅷ-6 사회적 고립 개념의 하위개념 및 측정요소

- (조사방법) 장기화되고 심각한 수준의 사회적 고립 청년(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측정을 포함할 경우 전국 대표성 있는 확률표집 방법의 조사(예. 청년기본법에 근거한 ‘청년 삶 실태조사’)를 통한 규모 추정과 은둔형 청년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한 심층조사(부가조사)가 병행되어야 종합적인 실태 파악 가능.
 - (조사연령) 사회적 고립 청년의 발생은 매우 사후적으로 나타나는 결과이고, 사회적 단절 및 고립은 모든 연령에서 나타날 수 있음. 따라서 아동·청소년·청년기에 나타나는 사회적 고립 경험에 대한 조사 및 실태파악이 이루어져야 증거기반의 정책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임.
- ※ 광주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2020)에 따르면 첫 은둔 생활 나이가 18세 이하에서부터 시작되는 경우는 전체의 13.5%, 19세 이상 24세 이하에서 시작되는 경우는 전체의 32.5%임.

표 Ⅷ-13 해당 과제 실현을 위한 청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현행 청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8조(청년 실태조사)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청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별·연령·학력·혼인상태 등 청년의 일반특성에 관한 사항 2. 소득·지출 등 경제상태에 관한 사항 3. 주거·소비생활 등 생활환경에 관한 사항 4. 취업상태·근로환경 등 일자리에 관한 사항 5. 교육·직업훈련 등 역량개발에 관한 사항 6. 놀이·여가 등 문화환경에 관한 사항 7. 건강·복지서비스 등 보건복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효율적인 청년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2년을 주기로 하여 소관 분야별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사회 환경의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청년 실태조사)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청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별·연령·학력·혼인상태 등 청년의 일반특성에 관한 사항 2. 소득·지출 등 경제상태에 관한 사항 3. 주거·소비생활 등 생활환경에 관한 사항 4. 취업상태·근로환경 등 일자리에 관한 사항 5. 교육·직업훈련 등 역량개발에 관한 사항 6. 놀이·여가 등 문화환경에 관한 사항 7. 건강·복지서비스 등 보건복지에 관한 사항 8. 청년의 사회적 관계 및 고립과 정서적 외로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효율적인 청년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2년을 주기로 하여 소관 분야별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사회 환경의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법개정 등 특이사항

○ 「청소년복지지원법」, 「청년기본법 시행령」 개정

□ 관련부처 및 기관

○ 여성가족부,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

표 Ⅷ-14 사회적 고립 실태조사 및 정기 보고서 발간 과제의 추진사항

추진일정			주관부처	신규 여부
단기('22-'24)	중기('24-'29)	장기('30-'35)		
●			여성가족부,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	신규

☐ 제안배경 및 필요성 (신규)

- 일본의 경우 「어린이·청년육성지원추진법」 제13조에 근거하여 현 아동·청년종합 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있으며, 0세부터 30세까지의 생애전반기를 아우르고 있음.
- 영국의 경우 외로움에 대처하기 위하여 Link Work 등의 사업을 시행중에 있어 사회적 고립 및 외로움에 대처할 수 있는 기관 및 지원인력을 양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우리의 경우 아동기/청소년기/청년기에 연속적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센터가 공공영역에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사회적 고립 청년 혹은 은둔청년에 특화되어 있는 기관은 없음. 따라서 연속성 있는 서비스와 사회적 고립 청년에 특화된 기관 및 전문가를 양성할 필요가 있음.

☐ 세부내용

- 생애전반기 사회적 고립을 아우를 수 있는 서비스 전달체계 마련 및 특화된 상담서비스와 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 배치
- 사회적 고립 사업은 제대로 된 성과를 도출하기 어려우므로 평가기준과 기간 조정, 사후관리를 통한 지속적 서비스 제공 노력 등을 참고하여 서비스 구성 (예를 들어, 일본의 five differential indicator 사례)

☐ 법개정 등 특이사항

- 「아동복지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년기본법」 등

☐ 관련부처 및 기관

-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

표 Ⅷ-15 고립 청년 대상 서비스 제공인력 및 실행기관 양성 과제의 추진사항

추진일정			주관부처	신규 여부
단기('22-'24)	중기('24-'29)	장기('30-'35)		
●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	신규

II

생애주기별 지원체계 마련: 아동·청소년·청년기 고립 위험에 대한 대응

두 번째 정책영역은 '생애주기별 지원체계 마련'으로 아동·청소년·청년기 발생하는 고립위험에 대한 대응 관련 영역이다. '학령기 학교안팎의 지원체계 마련'은 아동·청소년기 학교 안과 학교 밖의 지원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성인 이행기 어려움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은 자립준비청년과 같이 새로운 단계로 전환(transition)되는 대상들이 원활히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서비스 연속성을 고려한 장기적, 통합적 서비스 제공' 등은 아동·청소년·청년기 서비스들의 분절성으로 당사자들이 제대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일을 방지하고자 제시되었다. 예를 들어, 서비스 연속성을 위해서는 사례관리(case management)가 필요한데 아동기의 드림스타트는 청소년기의 CYS-NET과 같은 안전망과 연계가 되지 않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아동전담공무원이나 청소년전담공무원 등이 사례관리 역할을 맡아 사회적 고립 아동, 청소년,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

표 Ⅷ-16 생애주기별 지원체계 마련 영역의 주요 정책과제

정책과제
II. 생애주기별 지원체계 마련: 아동·청소년·청년기 고립 위험에 대한 대응
과제 II-1. 학령기 학교안팎의 지원체계 마련
과제 II-2. 성인 이행기 어려움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
과제 II-3. 서비스 연속성을 고려한 장기적, 통합적 서비스 제공

□ 제안배경 및 필요성 (기존)

- 고립은 아동·청소년기부터 누적적으로 발생을 하나, 이에 대한 도움을 받을 체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 발생
- 학교 안에는 교육부에서 설치한 위(Wee) 클래스 등 상담체계가 마련되어 있으나 아직 인력과 프로그램의 전문성에 개선의 여지가 있음.
- 학교 밖에는 여성가족부에서 설치한 꿈드림센터가 마련되어 있으나 인력과 프로그램의 전문성에 개선 여지가 있고, 인력의 부족과 고용의 불안정성이 연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음.

□ 세부내용

- 학교 안 상담체계(위클래스), 학교 밖 상담체계(꿈드림센터)를 통해 아동·청소년기에서부터 원활히 지원
- 학교 안 고립 아동·청소년 지원체계 강화: 위(Wee) 클래스를 통한 지원
 - 현재는 위(Wee) 클래스에 고립 아동·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상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학교장 재량에 따라 운영방식에 영향을 받아 불안정하며, 관련 전문가 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현재 위클래스는 아직 시군구별 구축률에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 더 보편적인 아동·청소년 지원체계로 편입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표 Ⅷ-17 위(Wee) 클래스 및 위(Wee) 센터 구축 현황('21. 4월 기준)

(단위: 개, %)

시도	위(Wee) 클래스			위(Wee) 센터	
	학교 수	설치 수	구축률	교육청, 교육지원청 수	설치 수
서울	1,368	938	68.6	12	26
부산	635	550	86.6	5	5
대구	463	451	97.4	5	12
인천	537	439	81.8	6	14
광주	322	213	66.1	2	4
대전	307	255	83.1	3	5
울산	248	223	89.9	3	4
세종	99	95	96.0	1	3
경기	2,474	1,840	74.4	25	31
강원	638	410	64.3	17	22
충북	485	285	58.8	10	12
충남	726	396	54.5	14	17
전북	774	328	42.4	14	18
전남	836	426	51.0	22	24
경북	935	504	53.9	23	23
경남	981	578	58.9	18	18
제주	191	128	67.0	2	2
총계	12,019	8,059	67.1	182	240

* 주: 학교 수: 교육통계 및 학교정보공시('20.10.) 기준

구축률 = (지역 내 위(Wee) 클래스 설치학교 수 / 지역 내 학교 수)*100

「위(Wee) 프로젝트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라 학교 단위에 설치한 학교상담실을 말함

「위(Wee) 프로젝트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라 교육지원청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단위에 설치한 학생상담지원시설을 말함

* 출처: 윤영덕 의원실 (2021.09.29.). “최근 5년간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진료 환자 수 23%나 증가.” 윤영덕의원실 국정감사 보도자료.

- 학교 안에서 학교 밖으로 이동하는 경우(학교를 그만두는 경우), 제대로 된 연계나 정보제공이 되지 않아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학업중단과 미진학의 경우 기존의 연결망이 끊어져 고립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고, 은둔으로 발전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학업중단 전후로 청소년 당사자와 부모에게 서비스를 안내하고 연계할 필요가 있음

※ 은둔청년 부모들의 경험에 따르면 학교를 갑자기 그만두는 경우, 그 상황에 대해 자각하고 제대로 된 서비스를 찾는 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적기를 놓치고 장기화의 경로에 들어갈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학교 밖 청소년지원체계(꿈드림센터)의 경우 아직 사업 초기로 서비스의 전문성, 연속성, 충분성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가 학교와 관계망으로부터 고립된 청소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창구로 기능할 수 있어야 함.

※ 특히 고립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중장기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데 꿈드림센터 종사자들의 고용 불안정이 상존하고 있어 상담 및 지원의 연속성도 떨어질 수 있음. 고립 청소년·청년 지원 서비스는 중장기적인 서비스가 필요하므로 서비스 제공인력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함.

□ 법개정 등 특이사항

○ 「위(Wee) 프로젝트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교육부훈령 제108호)

- 서비스 범위에 고립위기 청소년에 대한 지원 및 학교 밖 지원체계 연계조항 신설 및 전문상담사 채용 조항을 강행규정으로 변경

※ 추가적으로 학교 상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상담을 교육의 일환으로 보고 전문적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표 Ⅷ-18 「위(Wee) 프로젝트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5조 ③ 위 센터의 장은 위기학생에 대한 상담, 치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좌동)
1. 위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7. 고립위기 청소년에 대한 지원 및 학교 밖 지원체계와의 연계(신설)
2. 학교폭력 가·피해 학생 등 위기학생에 대한 진단·상담·치유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계획 수립·시행, 통계관리, 평가 및 개선	8. 그 밖에 학생 진단, 상담, 치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 ④ 위 센터의 장은 제3항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문상담사'를 채용하여 활용해야 한다(수정)
4. 상담 내용 및 위기 수준에 따라 외부 기관 등에 배정하는 코디네이터 기능	
5. 사업 종사자 연수, 컨설팅 등 전문성 신장에 관한 사항	
6. 교육지원청 내·외 상담자원 및 유관 기관과의 연계 협력 활성화	
7. 그 밖에 학생 진단, 상담, 치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위 센터의 장은 제3항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문상담사'를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 서비스 범위에 고립위기 청소년에 대한 예방 및 지원 조항 신설

표 Ⅷ-19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좌동)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7. <u>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신설)</u>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좌동)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등 사회적 지원방안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자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관련부처 및 기관**
 - 교육부, 여성가족부

표 Ⅷ-20 학령기 학교 안팎의 지원체계 마련 과제의 추진사항

추진일정			주관부처	신규 여부
단기('22-'24)	중기('24-'29)	장기('30-'35)		
●			교육부, 여성가족부	기존

과제 II-2 성인 이행기 어려움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

□ 제안배경 및 필요성 (신규)

- 과거 성인 이행기(transition period)는 예기적 사회화가 가능했을 뿐만 아니라 친구·동료·선후배와 같은 비공식적 연결망으로부터 정보를 취득하고 적응하는데 도움을 받아왔음. 하지만 현대사회의 개인화 혹은 개별화로 인해 성인 이행기 도움 받을 수 있는 자원이 없는 경우가 많아 지고 있음.
- 현재는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과 같이 새로운 단계로 전환(transition)되는 대상들을 위한 서비스 위주로 설계되어 있음. 이와 같은 현상은 향후 보편적으로 일어날 수 있으므로, 청년들이 원활히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보편성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 필요

□ 세부내용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지원
 - 연령도래로 인한 보호종료 시 자립역량 평가 및 지원 → 자립역량을 가지고 타인과 교류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확인 필요
 - ※ 본 연구에서 인터뷰한 자립지원전담요원에 따르면 보호종료 시 향후 자립 성공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단서(예. 개인 물건을 전혀 정리하지 못하는 사례, 보호사유 발생사유에 따른 트라우마 및 부정적 영향 잔존 등)들을 발견할 수 있어 고립 위험이 있을 경우 이를 완화하기 위한 특별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전문적인 심리정서 서비스, 보호종료 이후 자립지원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음.
 - 현재는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사후관리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초기 5년 이후 사회적 연결망이 끊어져 고립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립지원전담요원의 정보제공 및 사후관리를 연장하는 방안 모색 (기존) 5년, (변경)

5년 + 5년 연장

○ 일반청년 지원

- 청년들이 학교에서 노동시장에서 전환(school to work transition) 시기 이를 준비하고, 적응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 제공 필요
- 학교에서 진학 혹은 취업하는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적응 상담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청년기에 진입할 때 지역의 청년센터, 대학의 상담센터 등 자원을 활용하고 일상적 고민을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 생성을 도움으로써 성인 이행기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것을 방지

□ 법개정 등 특이사항

- 「아동복지법」, 「청년기본법」 개정

□ 관련부처 및 기관

-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

표 Ⅷ-21 성인 이행기 어려움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 과제의 추진사항

추진일정			주관부처	신규 여부
단기('22-'24)	중기('24-'29)	장기('30-'35)		
●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 청년 정책조정실	신규

□ 제안배경 및 필요성 (신규)

- 고립은 아동·청소년·청년기를 통해 점진적이고 누적적으로 발생하나, 이들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들은 분절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당사자들이 제대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
- 일회성 상담이나 단기 서비스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욕구가 있는 청소년과 연결 고리가 끊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 세부내용

- 사례관리(case management)에 기반을 두고 장기적, 통합적 서비스 제공
- 모든 서비스가 장기적일 필요는 없으나 당사자들이 장기적 서비스를 원할 경우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상해야 함.
- 사후관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상태를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 서비스의 연계 기능을 지속적으로 수행
- 현재 아동·청소년·청년기 서비스 체계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무자(worker)의 고용이 불안정하여 서비스의 연속성 또한 떨어지고 있으므로, 실무자의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법개정 등 특이사항

- 관계부처합동 정책을 통해 교육부의 위프로젝트, 여성가족부의 꿈드림센터, 고용노동부의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자체 청년센터,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센터 등

서비스 연계, 장기적 서비스 제공, 통합적 서비스 제공에 대한 안을 마련해야 함.

□ 관련부처 및 기관

○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표 Ⅷ-22 서비스 연속성을 고려한 장기적, 통합적 서비스 제공 과제의 추진사항

추진일정			주관부처	신규 여부
단기('22-'24)	중기('24-'29)	장기('30-'35)		
●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신규

세 번째 정책영역은 ‘생태체계적 지원체계 마련’으로 가족, 학교, 직장 생활에서의 지원 및 사회문화적 환경개선에 관한 영역이다. 총 네 가지의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세부정책과제는 ‘당사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으로 질적연구의 결과와 희망플랜 사례에서 도출된 바와 같이 청년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들에 대한 지원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때문에 제시되었다. ‘생태체계를 고려한 공동체 및 연결망 구성’은 지역사회에서의 정보제공 및 자조집단 구성 혹은 K2인터내셔널과 같은 공동생활의 구성을 원하는 고립 청년들이 존재하므로 지역사회 특화된 연결망을 구성하는 걸 제안할 수 있다(지역단위의 서비스 제공망 구성). 또한 사회적 관계를 맺을 장소를 지역사회에 많이 공급하여 청년들이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줘야 한다. ‘고립을 촉진하는 사회문화적 규범 및 환경개선’은 청년들에게 압박을 가하는 사회문화적 환경과 학교, 조직문화의 개선을 포괄하며, ‘생태체계적 지원체계의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 강화’는 영국, 미국, 일본의 사례와 같이 민과 관이 협력관계를 맺고 공공에서 책무성을, 민간에서 세밀한 프로그램 제공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고려할 수 있다.

표 VIII-23 생태체계적 지원체계 마련의 주요 정책과제

정책과제
III. 생태체계적 지원체계 마련: 가족, 학교, 직장 지원 및 사회문화적 환경 개선
과제 III-1. 당사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
과제 III-2. 생태체계를 고려한 공동체 및 연결망 구성
과제 III-3. 고립을 촉진하는 사회문화적 규범 및 환경개선
과제 III-4. 생태체계적 지원체계의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 강화

□ 제안배경 및 필요성 (신규)

- 사회적 고립 과정은 청년들에게 상당한 고통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고립 상황에서는 청년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들 역시 큰 고통을 당할 가능성이 있음.
- 은둔청년 부모들의 인터뷰에서 부모들은 자녀가 은둔을 시작하며 함께 정신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사회적 활동을 제한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함.
- 고립과 은둔 상황에서의 청년들은 가족에 의해 도움을 받을 수도, 해를 입을 수도 있으므로 가족에 대한 정서적 지원과 교육을 함께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세부내용

- 고립과 은둔 경험 청년 당사자를 위한 상담 및 지원체계 마련
- 고립과 은둔 청년의 부모, 가족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지원체계 마련

□ 법개정 등 특이사항

- 「청년기본법」 개정, 「청년복지지원법(안)」 제정
- ※ 「청년기본법」을 통한 지원대상에 고립 청년을 추가하고, 고립 청년에 대한 지원 근거를 「청년복지지원법(안)」을 제정하여 명시하는 방안 검토

□ 관련부처 및 기관

-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 보건복지부

표 Ⅷ-24 당사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 과제의 추진사항

추진일정			주관부처	신규 여부
단기('22-'24)	중기('24-'29)	장기('30-'35)		
●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 보건복지부	신규

과제 III-2

생태체계를 고려한 공동체 및 연결망 구성

□ 제안배경 및 필요성 (신규·기존 모두 해당)

- 사회적 고립은 사회와 외부적, 내부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함. 고립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회와의 연결이 필요하며, 연결은 당사자들을 둘러싼 생태체계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음.
- 생태체계 내에는 연결을 위한 사람, 장소, 자원이 있어야 하며, 자연스러운 연결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함.

□ 세부내용

- 지역사회 청년센터 등 청년공간에 연결을 위한 사람, 장소, 자원을 배치하고, 아웃리치를 통해 지역사회 청년들이 연결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해야 함.
- 1인 가구의 연결을 위해 공식적 연결체계(예.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비공식적 연결체계(지역사회 기반 공동체, 웹 기반 공동체)를 구성

□ 법개정 등 특이사항

- 청년센터 운영프로그램에 고립청년에 대한 연결망 형성 사업을 명시
- 기존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1인 가구 청년 연결망 사업 발전 및 재구성 고려

□ 관련부처 및 기관

- 지자체 청년센터

표 VIII-25 생태체계를 고려한 공동체 및 연결망 구성 과제의 추진사항

추진일정			주관부처	신규 여부
단기('22-'24)	중기('24-'29)	장기('30-'35)		
●			지방자치단체	혼합

☐ 제안배경 및 필요성 (신규)

- 고립과 은둔은 집단적이고 경쟁적인 사회문화 속에서 개인들이 타인의 시선, 평가 등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행하는 전략일 수 있음. 은둔이 유럽이나 영미권보다 일본과 한국 등 동아시아에서 많이 나타나는 이유는 사회문화적 요인과 관련이 있을 것임.

☐ 세부내용

- 사회문화는 단기적이고 세부적인 정책만으로 변화되기 어려움. 다만 고립과 은둔이 한 사회의 근원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개선을 위한 노력을 중장기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아동, 청소년, 청년기 경쟁, 낙오, 차별, 배제를 막을 수 있는 법적, 정책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와 노동시장에서 차별적인 대우를 줄이는 방안 모색

☐ 법개정 등 특이사항

-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한 사회적 차별 및 배제 방지

☐ 관련부처 및 기관

- 법무처

표 VIII-26 고립을 촉진하는 사회문화적 규범 및 환경개선 과제의 추진사항

추진일정			주관부처	신규 여부
단기('22~'24)	중기('24~'29)	장기('30~'35)		
		●	법무처	신규

과제 III-4

생태체계적 지원체계의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 강화

□ 제안배경 및 필요성 (신규)

- 고립청년 지원사업은 주로 민간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공공의 지원도 연단위 사업이 많아 사업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영국, 일본, 미국의 사례와 같이 민과 관이 협력관계를 맺고 공공에서 책무성을, 민간에서 세밀한 프로그램 제공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고려

□ 세부내용

- 공공에서 민관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 서비스를 시행
- 공공에서 안정적으로 재정을 지원하고, 민간의 인력과 서비스를 통해 고립 청년 특화 서비스를 시행. 단 민간이 공공에 종속되지 않고 경직되지 않으며, 민간 특유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중요함.

□ 법개정 등 특이사항

-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기본계획에 고립청년 지원서비스 명시(기간 포함)

□ 관련부처 및 기관

-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청년서비스 기관

표 VIII-27 생태체계적 지원체계의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 강화 과제의 추진사항

추진일정			주관부처	신규 여부
단기('22-'24)	중기('24-'29)	장기('30-'35)		
●			지방자치단체	신규

네 번째 정책영역은 ‘서비스 연결망 강화’로 전통적 아웃리치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재연결 강화 관련 영역이다. 이 연구에서는 총 네 가지의 주요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서비스 연결망 강화 영역의 세부정책과제는 ‘아웃리치를 통한 재연결’로 전통적인 아웃리치 방식을 통해 고립 청년들과 연결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아울러, 서울시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같이 지역사회 특화된 연결망을 활용할 수도 있다. ‘재연결을 위한 이동 편의와 공간 제공’은 청년들이 쉽게 이동할 수 있고 무료로 교류할 수 있는 장소를 공공에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정보접근성 증진 및 가상공동체 구성을 통한 재연결’, ‘메타버스 및 AI를 활용한 고립의 완화 및 연결’ 등은 정보통신기술(ICT)기술을 활용하여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청년들과 교류하는 것이다. 현재 해외에서도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서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기 위한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

표 VIII-28 서비스 연결망 생성의 주요 정책과제

정책과제
IV. 서비스 연결망 강화: 전통적 아웃리치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재연결 강화
과제 IV-1. 아웃리치를 통한 재연결
과제 IV-2. 재연결을 위한 이동 편의와 공간 제공
과제 IV-3.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정보접근성 증진 및 가상공동체 구성을 통한 재연결
과제 IV-4. 메타버스 및 AI를 활용한 고립의 완화 및 연결

과제 IV-1 아웃리치를 통한 재연결

□ 제안배경 및 필요성 (신규)

- 고립청년 대상 사업은 아웃리치가 핵심적임. 고립 청년들과의 인터뷰에서 고립이 심화되면서 점차적으로 외부와의 단절이 심해진 것을 알 수 있었음. 고립의 심화로 사회와 단절된 청년들이 스스로 서비스를 찾아오기 어려우므로 아웃리치(out-reach)를 통해 청년들이 서비스에 진입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함.
- 다만 단지 외부에서 고립된 청년들을 찾는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서비스에 연결되는 것은 아님. 아웃리치를 통해 발굴한 청년들에게는 이후 서비스 연결도 매우 중요함. 아웃리치 이후 청년들에게 제공할 서비스가 없다면 아웃리치도 단발성에 그칠 가능성이 높음.
- 또한 아웃리치 업무만 이루어질 경우 라포(rapport) 형성을 통한 지속적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어려우므로, 아웃리치만 하는 기관이나 실무자를 양성하기보다는 아웃리치를 통해 고립청년을 발굴한 후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모형을 개발해야 함.

□ 세부내용

- 아웃리치는 통합 고립청년 발굴이 필요함. 고립청년 대상 사업에서 아웃리치의 목적은 서비스 연결망에 닿기 어려운 청년들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것에 맞추어야 하며, 일선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청년들을 찾아 나설 수 있도록 서비스 성과 평가 등에서 아웃리치에 대해 가점을 부여해야 함.
- 아웃리치 전문가 양성이 필요함. 고립 청년들은 물리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심리·정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음. 고립 청년 대상 아웃리치 전문가는 자원영역에 있기보다는 전문영역에 속해 있어야 할 것이며, 고립 청년에 대

한 이해가 높아야 함. 대인 서비스(personal service) 관련 전문성이 담보되어야 하며, 높은 전문성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고용 안정성을 보장해주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아웃리치는 전통적인 방식(예. 길거리에서 청년 당사자 모집)과 새로운 방식(예. 온라인에서 청년 당사자 모집)을 함께 사용할 수 있어야 함. 또한 현장 전문가 인터뷰에 따르면 관련 기관들을 통해 관련 케이스가 전달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관련 기관들 간의 연계와 홍보도 중요함.

☐ 법개정 등 특이사항

- 「청년복지지원법(안)」 제정
 - ※ 「청년복지지원법(안)」에 고립 청년 대상 기관의 기능에 아웃리치를 통한 대상자 발굴 및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을 명시하고, 아웃리치 전문가 양성에 대한 조항 추가

☐ 관련부처 및 기관

-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

표 Ⅷ-29 아웃리치를 통한 재연결 과제의 추진사항

추진일정			주관부처	신규 여부
단기('22-'24)	중기('24-'29)	장기('30-'35)		
	●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 청년 정책조정실	신규

과제 IV-2

재연결을 위한 이동 편의와 공간 제공

☐ 제안배경 및 필요성 (신규)

- 고립 청년들이 고립을 해소하고 타인과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함.

☐ 세부내용

- 고립 청년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공공 공간이 필요함. 해당 공간은 휴식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담과 프로그램 안내를 받고 쉽게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함. 해당 공간에서의 자신의 역할을 부여받고 타인과 함께 교류하며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형태의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
- 고립의 기간과 유형 및 심도에 따라 고립 청년 특화 공간에 대해 선호하거나 일반 청년들과 함께 교류하는 공간을 선호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적절한 고려가 필요함.
- 현재는 일부 지자체만 청년 공간이 제공되고 있으므로 다른 광역시도에서도 청년 공간이 늘어날 필요가 있음.

☐ 법개정 등 특이사항

- 지방자치단체 청년기본조례의 청년공간 조항

☐ 관련부처 및 기관

- 지방자치단체

표 VIII-30 재연결을 위한 이동 편의와 공간 제공 과제의 추진사항

추진일정			주관부처	신규 여부
단기('22-'24)	중기('24-'29)	장기('30-'35)		
●			지방자치단체	신규

□ 제안배경 및 필요성 (신규)

- 청년들을 둘러싼 생태체계에 디지털 공간이 편입됨에 따라 청년들을 위한 서비스들도 디지털화 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현장 활동가들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공간에서의 아웃리치를 모두 고민하고 있으므로, 공공에서도 온라인에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서비스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세부내용

-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정보접근성 증진은 정보통신기술(ICT)기술을 활용하여 중앙정부 혹은 지자체의 청년정책 플랫폼을 통해 정보제공 및 서비스 연결까지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임.
- 가상공동체 구성을 통한 재연결은 청년들이 자신과 유사한 고립 상황의 타인과 교류하는 것에 대해 선호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온라인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정보제공 및 자조집단의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것임.

□ 법개정 등 특이사항

- 지자체 조례에 청년의 정보 접근성 증진 및 가상 공간에 대한 지원 추가

□ 관련부처 및 기관

- 지방자치단체

표 Ⅷ-31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정보접근성 증진 및 가상공동체 구성을 통한 재연결 과제의 추진사항

추진일정			주관부처	신규 여부
단기('22-'24)	중기('24-'29)	장기('30-'35)		
●			지방자치단체	신규

□ 제안배경 및 필요성 (신규)

-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기 위한 과학기술의 발전이 필요하며, 공공은 과학기술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형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 및 수요 창출을 위해 노력해야 함.
- 현재 해외에서도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서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기 위한 시도들을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교류의 감소와 개인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는데, 이를 활용한 교류와 상호작용을 증대시키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음.

□ 세부내용

- 메타버스(metaverse)는 가상공간에서의 교류의 장으로, 인공지능(AI)은 기초적인 상호작용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루어진 화상회의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교류는 많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으나 물리적 거리가 멀거나 자신의 공간에서 벗어나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는 타인과의 연결 편의성을 높이기도 하였음. 고립 청년 대상 기관에서 메타버스를 교류 플랫폼으로 활용하기도 하고 있어 적용 검토 필요
- 인공지능(AI) 활용은 인공지능 스피커를 보급하는 형태로 지자체 단위에서 현재 1인 가구 노인의 생활편의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해 활용되고 있음. 현재 인공지능 스피커를 통해 노인의 생활이 이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으나 향후에는 교류를 통하여 감성증강을 할 수 있는 기능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하영옥, 2019). 인공지능과 로봇기술의 결합 등 다양한 형태로 기술이 발전하고 있으므로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기술이 함께 발전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단기적으로는 현재의 기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청년 당사자들에게 이용 요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출발하고, 장기적으로는 과학기술이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완화하는 방향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 등이 필요할 것임.

□ 법개정 등 특이사항

- 공공 플랫폼 구축보다는 민간 플랫폼 이용금액 지원이나 민간업체와의 MOU를 통해서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 검토 필요
- 현재는 일부 민간업체와의 MOU 체결 등을 통해 기술을 활용하고 있으나 지자체 청년기본조례 등에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지원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과학기술의 발전이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완화하기 위한 기술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해당 영역에 대한 예산 지원 등이 필요

□ 관련부처 및 기관

- 지방자치단체

표 Ⅷ-32 메타버스 및 AI를 활용한 고립의 완화 및 연결 과제의 추진사항

추진일정			주관부처	신규 여부
단기('22-'24)	중기('24-'29)	장기('30-'35)		
●	●	●	지방자치단체	신규

다섯 번째 정책영역은 ‘새로운 기회 제공을 통한 재사회화’로 역할과 정체감 부여를 통한 사회통합을 위한 영역이다. 이 영역의 세부과제는 3가지이다.

‘활성화 프로그램을 통한 맞춤형 출발기회 제공’은 잠시 일자리를 잃거나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들을 위하여 단기 일자리, 인턴일자리 등을 제공하는 것, ‘시민사회의 파트너십을 통한 역할기회 제공’은 바로 노동시장으로 나아가기 어려운 심각한 고립을 경험한 청년들을 위해 보조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 ‘단계적 역할제공과 조력자의 지원 제공’은 보조적 일자리 등에서 조력자를 두어서 청년들이 여러 어려움을 겪는 것을 해결해주고 지원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맞춤형 서비스제공은 유럽의 청년보장제(Youth Guarantee)가 니트의 하위집단 특성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profiling NEETs)과 같은 맥락에서 접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단기적으로 취업을 하지 못한 사람과 오랜 기간 동안 단념하여 비경활상태에 있는 사람에게는 별도의 서비스 패키지를 제공할 수 있다. 사회적 고립의 스펙트럼은 매우 다양하므로 맞춤형 서비스의 제공은 매우 중요하다.

표 VIII-33 새로운 기회 제공을 통한 재사회화 영역 세부정책과제

정책과제
V. 새로운 기회 제공을 통한 재사회화: 역할과 정체감 부여를 통한 사회통합
과제 V-1. 활성화 프로그램을 통한 맞춤형 출발기회 제공
과제 V-2. 시민사회의 파트너십을 통한 역할기회 제공
과제 V-3. 단계적 역할제공과 조력자의 지원 제공

□ 제안배경 및 필요성 (신규)

- 잠시 일자리를 잃거나 취업준비를 하는 청년들을 위하여 맞춤형 활성화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사회로의 진입을 단계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 필요
- 고립의 장기화는 개인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고립이 장기화되지 않고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단계적인 활성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

□ 세부내용

- 맞춤형 서비스제공은 유럽의 청년보장제(Youth Guarantee)가 니트 하위 집단 특성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profiling NEETs)과 같은 맥락에서 접근할 수 있음. 예를 들어, 단기적으로 취업을 하지 못한 사람과 오랜 기간 동안 단념하여 비경활상태에 있는 사람에게는 별도의 서비스 패키지를 제공할 수 있음. 사회적 고립의 스펙트럼은 매우 다양하므로 맞춤형 서비스의 제공은 매우 중요함.
- 국내에서는 2021년부터 청년도전지원사업이 시행되었고, 동 사업을 2022년 확대 시행할 예정에 있음. 고용노동부의 청년도전지원사업과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더욱 확대하고,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사전 프로그램에서부터 단계적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설계하여 아직 사회에 진입하지 못한 청년들이 활성화된 상태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
- 니트 상태에 있는 고립 청년들은 한 번에 사회로의 진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다시 원래 상태로 회귀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사후관리를 통해 청년이 지속적으로 활성화 상태에 있는지에 대해 점검할 필요가 있음. 점검 후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경우 다른 서비스를 매칭하여 고립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청년도전지원사업과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취업, 훈련 특화 사업이지만 향후 사례관리, 사후관리 등 사회복지에서 주로 활용하는 방법의 추가가 요청되므로 어떻게 이러한 인력과 기술을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장기화된 고립 상태에 있는 청년들의 경우 바로 훈련, 취업으로 연결되지 못하므로 대상 특화된 인력을 선발하고 고용할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할 필요가 있음.

□ 법개정 등 특이사항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

□ 관련부처 및 기관

-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

표 Ⅷ-34 활성화 프로그램을 통한 맞춤형 출발기회 제공 과제의 추진사항

추진일정			주관부처	신규 여부
단기('22-'24)	중기('24-'29)	장기('30-'35)		
●	●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	신규

과제 V-2

시민사회의 파트너십을 통한 역할기회 제공

□ 제안배경 및 필요성 (신규)

- 현재 민간의 고립 청년 지원사업은 청년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 기회를 비영리 영역의 일자리 혹은 민간 일자리 차원에서 제공하고 있음. 고립 청년들이 사회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사회 참여에 대한 연습이 필요하여 시민사회의 파트너십을 활용하여 역할기회를 늘릴 필요가 있음.

□ 세부내용

- 비영리 영역에서 고립 청년들이 사회생활을 체험하며 사회적 관계를 연습할 수 있는 일자리 제공 (공공은 예산 지원)

□ 법개정 등 특이사항

- 지방자치단체 청년기본조례 개정

□ 관련부처 및 기관

- 지방자치단체

표 Ⅷ-35 시민사회의 파트너십을 통한 역할기회 제공 과제의 추진사항

추진일정			주관부처	신규 여부
단기('22-'24)	중기('24-'29)	장기('30-'35)		
●			지방자치단체	신규

□ 제언배경 및 필요성 (신규·기존 모두 해당)

- 고립을 경험하는 사람이 주로 경험하는 현상은 ‘역할 없는 역할(roleless role)’임. 이는 과거에는 노인이나 장애인 등에서 주로 나타났으나, 최근 사회 진입이 어려워지면서 자신의 역할이 없어 심리정서적, 사회경제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음.
- 이들에게 적절한 역할을 부여하여 사회진입을 준비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중요한 원칙은 단계적 경로 설정임. 고립의 회복은 단계적으로 일어나므로 단순히 교류하는 단계에서부터, 서서히 사회에 진입하는 단계, 사회에 진입하여 제한적 역할을 수행하고 사회적 관계를 이어나가는 단계를 거쳐 사회에 진입하는 경로를 설정해줄 필요가 있음.

□ 세부내용

-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조력자를 두어서 청년들이 여러 어려움을 겪는 것을 해결하고 지원해줄 필요가 있음
 - ※ 본 연구의 인터뷰에서 별다른 역할이 없는 사회적 일자리를 경험한 고립 청년들이 자신의 역할에 대해 의문을 품고 좌절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언급이 있었음. 직업은 단지 경제적 의미뿐만 아니라 사회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자신의 의미를 인정받는 심리사회적 기능도 제공하므로 개인의 삶 차원에서 일자리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
 - ※ 일자리에 초점을 맞출 경우 일자리 주선 기관이 청년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단기 일자리를 매칭하여 상황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주의 필요
- 명확한 역할을 부여하고 실무자의 조력 제공이 담보된 일자리가 필요

□ 법개정 등 특이사항

○ 신규: 「청소년복지지원법」제정

※ 청년복지지원법을 제정하여 고립 및 은둔청년을 위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할 필요가 있음.

○ 기존: 「청년고용촉진특별법」개정, 지자체 청년기본조례 개정

※ 현재의 논의 수준은 법개정 보다는 향후 고립 청년 및 니트 청년 지원을 위한 기본 원칙과 세부적 프로그램 실행 방안의 일환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서울의 경우 2021년 현재 고립청년 지원사업과 은둔청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사업이 확대될 경우 서울시 내의 비영리 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단계적 회복을 위한 일 자리를 제공할 수 있음. 이때 ‘단계적 역할제공과 조력자의 지원 제공’ 원칙을 적용 필요

□ 관련부처 및 기관

○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

표 VIII-36 단계적 역할제공과 조력자의 지원 제공 과제의 추진사항

추진일정			주관부처	신규 여부
단기('22-'24)	중기('24-'29)	장기('30-'35)		
●	●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	신규 및 기존

여섯 번째 정책영역은 ‘코로나19에의 대응’ 영역으로 2019년부터 현재까지 나타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충격이 청년들에게 장기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집중 지원하는 것과 관련한 영역이다. 본 영역은 아직 정책이 미발달 상태이므로 전체적인 원칙을 강조하는 수준에서만 제안한다.

코로나19에의 대응 영역의 세부과제는 ‘코로나19 특별 활성화(activation) 대책 마련’, ‘코로나19 특별 외로움 지원 대책 마련’ 등이다. 현재 많은 청년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고, 사회적 고립이 장기화될 상황에 놓여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할 수 있는 사회적 교류의 장 마련, 외로움에 대처할 수 있는 지원 방안 마련(온라인 상담, 바우처 제공 등)을 시도해볼 수 있다.

특히 한국의 사회정책에서 고립과 외로움은 노인의 문제에 국한되어 있었으며 이마저도 공공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코로나19 이후 고립과 외로움이 사회 정책의 영역에 포괄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증거기반의 정책들이 많이 설계, 시행될 필요가 있다.

표 VIII-37 코로나19에의 대응에 관한 정책과제

정책과제
VI. 코로나19에의 대응: 잃어버린 세대(Lost-generation)에 대한 집중 지원
과제 VI-1. 코로나19 대응 활성화(activation) 대책 마련
과제 VI-2. 코로나19 대응 고립과 외로움 지원 대책 마련



참고문헌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 (2021). **청년도전지원사업 착수 워크숍 자료집**. 고용노동부 내부자료.
- 관계부처합동 (2020).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 관계부처합동.
- 관계부처합동 (2021). 제1차 청년정책 시행계획[‘21~’25] 2021년 청년정책 시행 계획 [중앙행정기관 과제별 시행계획]. 관계부처합동.
- 권재현 (2018.6.19). 세계 최초 ‘외로움 담당 장관’은 장관급 맞아?, 주간동아, <https://weekly.donga.com/3/search/11/1353714/1>에서 2021년 10월 1일 인출.
- 김기현, 배상률, 성재민 (2018).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I: 청년 니트(NEET)**.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기현, 신동훈, 변금선, 고혜진, 신인철 (2020).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III: 청년 이직자**.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기현, 유민상, 김창환, 정지운 (2019).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II: 학교 졸업예정자**.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기현, 유민상, 배정희, 신동훈, 박성재, 정지운 (2021). **니트 등 비경제활동 청년층의 노동시장 유입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세종: 고용노동부.
- 김재우 (2015). 사회적 지지와 연결망 배태: 자아연결망 다층분석의 활용. **한국사회학**, 49(1), 43-76.
- 김춘남, 박승민, 박승희, 김서인 (2018). **사회적 고립의 유형분석 및 지원방안**. 경기: 경기복지재단.
- 김형주, 연보라, 배정희 (2020). **청년 사회·경제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V**.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노혜진, 남기철, 박미희, 이봉주, 이성학, 이신혜 (2019). 희망플랜(니트청년 지원 사업)에 참여한 청년의 변화과정: 근거이론을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21(3), 1-33.

류정희, 전진아, 이상정, 이주연, 정익중, 유민상 (2018). **생애주기별 학대 경험 연구 -아동기 학대: 폭력의 중복적 경험과 정책적 대응**.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우룡 (2003). 영국인의 정체성과 의사 표현 방식. **영미연구**, 9, 211-254.

박찬웅, 김노을, 유부원, 윤민지 (2020). 한국 사회의 사회적 고립과 사회인구학적 특성. **한국사회**, 21(2), 41-73.

서영석, 안수정, 김현진, 고세인 (2020). 한국인의 외로움(loneliness): 개념적 정의와 측정에 관한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9(2), 205-247.

서울시복지재단 (2021). K2인터내셔널의 은둔외톨이 연결. **2021년 서울시 사회적 고립지원포럼(제2차 익명의 도시, 고립을 넘어 연결로)** 자료집.

서울신문 (2021.8.26.). 「여명 서울시의원, 은둔형 외톨이 관련 전문가들과 토론회…지원 조례안 논의」. <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826500063> 에서 2021년 10월 22일 인출.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2019). 『2019 서서권역(강서·양천·영등포) 청년지원 모델 사업운영』 용역 제안요청서(비공개문서).

서울특별시의회 (2020). **서울시 은둔형 외톨이 현황과 지원 방안**. 서울: 서울특별시의회.

신인철, 최지원 (2019). **외로움은 개인만의 문제 아닌 사회적 질병, 사회적 관계고려 공동체 지원 다각화 필요**. 서울: 서울연구원.

신지은, 김가영 (2018). 청소년의 외로움과 목소리에 대한 주의 및 해석. **한국청소년연구**, 29(1), 295-321.

오상빈 (2020). **고립 생활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은둔형 외톨이 치유와 예방**. 서울: 솔과학.

- 오오쿠사 미노루 (2020). 한국에서의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어려움과 관점. **서울 시 은둔형 외톨이 현황과 지원방안 자료집**. 서울: 서울특별시의회.
- _____ (2021). 일본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 체계와 한국에서의 실천. **제12회 청년정책포럼 청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대응방안 자료집**.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윤영덕 의원실 (2021.09.29.). “최근 5년간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진료 환자 수 23%나 증가.” 윤영덕의원실 국정감사 보도자료.
- 윤혜준 (2018). ‘외로움’에 대한 영국 정부의 접근과 정책적 함의. **글로벌 이슈 & 리포트**, 21(4), 152-167.
- 이동귀, 양난미, 박현주, 배병훈, 천영아 (2016). 한국 중년의 자존감 평가영역 중요도에 따른 하위집단별 정신건강. **인문학논총**, 40, 135-176.
- 이문웅 (1998). **현대 한국인의 의식과 관행조사 CODE BOOK**. 한국사회과학자료원 홈페이지 <https://kossda.snu.ac.kr/>에서 2021년 6월 1일 검색 및 인출.
- 이봉주, 박미희, 남기철, 노혜진, 이신혜, 이성학 (2018). **배분의제 2-3차년도 성과평가(빈곤) - 니트(NEET)청년 지원을 위한 ‘희망플랜’ 사업-**.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임형문, 김석웅, 박순영, 이세라, 최상희, 김영지, 이찬미, 장경철, 장혜진, 박유경, 이수아 (2020).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연구**. 광주: 폴인사이트.
- 정초원, 문유진, 이진수, 노효진 (2018). **사회적 배제를 경험한 청년들에게 정책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서울: 무중력지대 양천.
- 조근식 (2020). **외로움 담당관 제도에 관한 기초 연구**. 강원: 강원연구원.
- 진은주, 황석현 (2019). 한국판 UCLA 외로움 척도 3판의 타당화. **청소년학연구**, 26(10), 53-80.
- 채창균, 양정승, 김민경, 송선혜 (2018).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I: 청년 니트(NEET) - 해외사례 조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통계청 (2019). 2019 사회조사 조사표.

<https://www.narastat.kr/metasvc/index.do>에서 2021년 6월 1일 검색 및 인출.

파이교육그룹 (2020). **고립청년(은둔형외톨이) 실태조사 최종보고서**. 서울: 청년재단.

평화사회복지관 희망플랜 전주평화센터 (2018). **꿈을 말하다! 희망플랜을 만나다!**.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하영옥 (2019). 사회적 고립 완화를 위한 AI 기반 감성증강. **ETRI Insight** 2019-45. 대전: ETRI.

한국사회복지관협회 (2016). **희망플랜 사업담당자 오리엔테이션 자료집**. 서울: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사회복지관협회 (2019). **성인이행기 빈곤아동청소년 발달지원사업-희망플랜 연구보고서**. 서울: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1).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2010)」.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각년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한준 (2019). **사회적 고립의 현황과 결과. 한국의 사회동향 2019**. 대전: 통계청 통계개발원.

황순길, 여인중, 남재량, 장미경, 허묘연, 권해수, 박정민, 손재환, 홍지영 (2005). **은둔형 외톨이 등 사회부적응 청소년 지원 방안**. 서울: 청소년위원회.

통계청 (각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17&tblId=DT_417001_0035&conn_path=I2에서 2021년 10월 1일 인출.

통계청 (각년도). 「사회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SP041R&conn_path=I2에서 2021년 10월 1일 인출.

K2인터내셔널코리아 (2020). **앗! 나도 모르게 나와 버렸다 - K2코리아가 전하는 은둔 그리고 삶**. 서울: K2인터내셔널코리아.

K2인터내셔널코리아 (2021). **서울시 청년청 은둔형외톨이 발굴 및 지원사업**. 서울: K2인터내셔널코리아.

- Bronfenbrenner, U. (1986). Ecology of the Family as a Context for Human Development: Research perspectives. *Developmental psychology*, 22(6), 723-742.
- Brown, E. (2020). *Performance Partnership Pilots for disconnected youth (P3): Sustaining Systems Change Efforts and Coordinated Services for Youth*. Princeton, NJ: Mathematica.
- Burd-Sharps, S., & Lewis, K. (2013). *One in seven: Ranking youth disconnection in the 25 largest metro areas*. Measure of America of the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SSRC, New York: Measure of America of the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 Cacioppo, J. T., & Hawkley, L. C. (2009). Perceived social isolation and cognition. *Trends in cognitive sciences*, 13(10), 447-454.
- Caspi, A., Harrington, H., Moffitt, T. E., Milne B. J., & Poulton, R. (2006). Socially Isolated Children 20 Years Later: Risk of Cardiovascular Disease. *Arch Pediatr Adolesc Med*. 160(8), 805-811.
- Clarke, D., & McDougall, L. (2014). *Social Isolation in Bristol: Risks, Interventions and Recommendations Report*. Bristol: Bristol City Council.
- DCMS (2018). *A connected society: A strategy for tackling loneliness - laying the foundations for change*. London: Department for Digital, Culture, Media and Sport.
- DCMS (2020). *Loneliness Annual Report: The First Report*. London: Department for Digital, Culture, Media and Sport.
- DCMS (2021a). *Emerging together: the Tackling Loneliness Network Action Plan*. London: Department for Digital, Culture, Media and Sport.
- DCMS (2021b). *Loneliness Annual Report January 2021*. London:

- Department for Digital, Culture, Media and Sport.
- DCMS (2021c). *Loneliness ministers: "It's more important than ever to take action"*, London: Department for Digital, Culture, Media and Sport.
- DCMS & Barran, B. (2021). *Over 800 organisations receive new funding to tackle loneliness*, London: Department for Digital, Culture, Media and Sport.
- DCMS, Barran, B. & Downen, O. (2020). *Government launches plan to tackle loneliness during coronavirus lockdown*, London: Department for Digital, Culture, Media and Sport.
- Department of Education (2019). Applications for Selection as a Performance Partnership Pilot; Performance Partnership Pilots for Disconnected Youth.
-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19/01/28/2019-00200/applications-for-selection-as-a-performance-partnership-pilot-performance-partnership-pilots-for> 에서 2021년 9월 1일 인출.
- Duncan, D., & Bell, R. (2015). *Local action on health inequalities: Reducing social isolation across the lifecourse*. London: Public Health England.
- DWP (2020). *The Family Test*. London: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 Felitti, V. J., Anda, R. F., Nordenberg, D., Williamson, D. F., Spitz, A. M., Edwards, V., & Marks, J. S. (1998). Relationship of childhood abuse and household dysfunction to many of the leading causes of death in adults: The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ACE) Study. *America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14(4), 245-258.
- Harrison, E. (2020). *Loneliness and social isolation: a new decade of action*. UK: The Jo Cox Foundation.

- International Wellbeing Group (2013). *Personal Wellbeing Index: 5th Edition*. Melbourne: Australian Centre on Quality of Life, Deakin University.
- Jo Cox Commission on Loneliness (2017). *Combatting loneliness one conversation at a time: a call to action*. England: Jo Cox Commission on Loneliness.
- Jopling, K. (2020). *Promising Approaches Revisited: Effective action on loneliness in later life*. London: Campaign to End Loneliness.
- Jopling, K., Jones, D., & Brighter Together Consulting (2019). *A connected society? Assessing progress in tackling loneliness: A shadow report for the Loneliness Action Group*, London: Loneliness Action Group.
- Kato, T. A., Kanba, S., & Teo, A. R. (2019). Hikikomori: Multidimensional Understanding, Assessment, and Future International Perspectives. *Psychiatry and clinical neurosciences*, 73(8), 427-440.
- Korean Clinical Psychology Association (2018). *Korea Loneliness Index*.
- Lester, P. (2016). *Performance Partnership Pilots: Projects may need more time to test local flexibility and coordinated services*. Social Innovation Research Center.
- Loprest, P., Spaulding, S., & Nightingale, D. S. (2019). Disconnected young adults: Increasing engagement and opportunity. *RSF: The Russell Sage Foundation Journal of the Social Sciences*, 5(5), 221-243.
- Los Angeles Performance Partnership Pilot (2017). 2017-2020 Strategic Plan Serving Disconnected Youth.
https://ewddlacity.com/images/reports/p3/071417_P3_StrategicPlan_OPTIMIZED.pdf에서 2021년 9월 23일 인출.

- NHS England (2019). *Improving Access with the Rotherham social prescribing service*.
<https://www.england.nhs.uk/gp/case-studies/rotherham-social-prescribing/>에서 2021년 10월 1일 인출.
- Macdonald, M., Kulakiewicz, A., & Library specialists (2021). *Tackling loneliness*, UK: House of Commons Library.
- Mascherini, M., Salvatore, L., Meierkord, A., & Jungblut, J. M. (2012). *NEETs: Young people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Characteristics, costs and policy responses in Europe*. Luxembourg: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 OECD (2016). *Society at a Glance*. Paris: OECD.
- OECD (2021). Youth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NEET) (indicator). doi: 10.1787/72d1033a-en. https://www.oecd-ilibrary.org/education/youth-not-in-employment-education-or-training-neet/indicator/english_72d1033a-en에서 2021년 2월 19일 검색 및 인출.
- ONS (2018a). *Loneliness - What characteristics and circumstances are associated with feeling lonely?*. London: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 ONS (2018b). *Measuring loneliness: guidance for use of the national indicators on surveys*. London: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 Perlman, D. & Peplau, L. A. (1981). *Toward a social psychology of loneliness*, In Duck, S. and Gilmour, R.(eds.), *Personal Relationships in Disorder*. London: Academic Press.
- Public Health Wales (2016).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and their association with chronic disease and health service use in the welsh adult population*. Wales: Public Health Wales NHS Trust.
- Rosenberg, L., Bradley, M. C., Yañez, A., Stanczyk, A., & Brown, E.

- (2021). *National evaluation of the Performance Partnership Pilots for Disconnected Youth (P3): Summary of the Evaluation's Reports and Findings*. Princeton, NJ: Mathematica.
- Rosenberg, L., & Brown, E. (2019). *Early experiences of the Performance Partnership Pilots for Disconnected Youth (P3): Cohort 1 pilots*. Princeton, Princeton. NJ: Mathematica.
- Russell, D. W. (1996). UCLA Loneliness Scale (Version 3): Reliability, Validity, and Factor Structur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66(1), 20-40.
-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2020). Youth Disconnection.
[https:// measureofamerica.org/disconnected-youth/](https://measureofamerica.org/disconnected-youth/)에서 2021년 8월 30일 인출.
- Stanczyk, A., Yañez, A., & Rosenberg, L. (2020). *Performance Partnership Pilots for Disconnected Youth (P3): Implementation Study Findings of the Pilots' Experiences*. Princeton, NJ: Mathematica.
- Teo, A. R., Chen, J. I., Kubo, H., Katsuki, R., Sato-Kasai, M., Shimokawa, N., Hayakawa, K., Umene-Nakano, W., Aikens J. E., Kanba, S., & Kato, T. A. (2018).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25-item Hikikomori Questionnaire (HQ-25). *Psychiatry and clinical neurosciences*, 72(10), 780-788.
- Valtorta, N. K., Kanaan, M., Gilbody, S., & Hanratty, B. (2016). Loneliness, social isolation and social relationships: What are we measuring? A novel framework for classifying and comparing tools. *BMJ open*, 6(4). 1-7.
- Weiss, R. S. (1973). *Loneliness: The experience of emotional and social isolation*. Cambridge, MA: MIT Press.

Zavaleta, D., Samuel, K., & Mills, C. T. (2017). Measures of social isolation. *Social Indicators Research*, 131(1), 367-391.

藤子不二雄 (1971). 「明日は日曜日、そしてまた明後日も……」, 『COM』 4月号, 虫プロ商事, 1971年. (후지코 후지오 (1971). 「내일은 일요일, 그리고 내일모레도」, 『COM』 4월호 (무시프로 상사), 1971년.).

斉藤環 (1998). 『社会的ひきこもり 終わらない思春期』, PHP新書. (사이토 타마키 (1998). 『사회적 히키코모리 - 끝나지 않은 사춘기』, PHP신서).

斉藤万比古ほか (2007). 『ひきこもりの評価・支援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 厚生労働科学研究費補助金こころの健康科学研究事業. きこもり.

厚生労働省 (2003). 「10代・20代を中心とした「ひきこもり」. をめぐる地域精神保健活動のガイドライン - 精神保健福祉センター・保健所・市町村でどのように対応するか・援助するか-.」. (후생노동성 (2003). 「10대・20대를 중심으로 한 ‘히키코모리’를 둘러싼 지역정신보건활동의 가이드라인 - 정신보건복지센터·보건소·시정촌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지원할지-.」).

厚生労働省 (2010). 「ひきこもりの評価・支援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 (후생노동성 (2010). 「히키코모리의 평가·지원에 관한 가이드라인」.

厚生労働省 (2018). 「ひきこもり支援を行う民間団体に関する状況確認結果」. (후생노동성 (2018). 「히키코모리 지원을 하는 민간단체에 관한 상황확인 결과」).

厚生労働省 (2019). ひきこもり支援施策の方向性と地域共生社会の実現に向けて. (후생노동성 (2019). 「히키코모리 지원시책의 방향성과 지역 공생사회 실현을 위하여」).

稲村博 (1983). 『思春期挫折症候群』, 新曜社. (이나무라 히로시 (1983). 『사춘기좌절증후군』. 신요샤).

宮西照夫 (2014). 『実践ひきこもり回復支援プログラム - アウトリーチ型支援と集団精神療法』. 岩崎学術出版社. (미야니시 테루오 (2014). 『실천 히키코모리

- 회복지원 프로그램 - 아웃리치형 지원과 집단정신요법』. 이와사키 학술출판사.
문부과학성.
- 文部科学省 (2021). 「令和2年度 児童生徒の問題行動・不登校等生徒指導上の諸課題に関する調査結果の概要」. (문부과학성 (2021). 「2021년도 아동의 문제행동·부등교 등 학생지도상의 문제에 관한 조사 결과의 개요」.).
- 朝日新聞 (2019.10.26.). 「不登校生「出席」- 文科省、学校復帰無理に求めない方針」.
<https://www.asahi.com/articles/ASMBT2RNQMBTUTIL004.html>에서
2021년 10월 20일 인출.
- 斎藤環 (2020.10.). 「コロナ禍の教育 -リモート教育は「暴力」からの解放である-」. 研究所ニュース 「ねざす」第88号, 神奈川県高等学校教育会館 教育研究所.
- 工藤啓・西田亮介 (2014). 『無業社会』 朝日新書. (한국어판: 구도 게이, 니시다 료수케. 『무업 사회』 펜타그램, 함께일하는재단, 2015년.).
- 内田樹 (2007). 『下流志向』 講談社文庫. (우치다 타츠루 (2007). 『하류 지향』. 고단사문고).
- 藤田孝典 (2015). 『下流老人 一億総老後崩壊の衝撃』 朝日新書. (후지타 타카노리 (2015). 『하류노인 일억 총 노후 붕괴의 충격』 아사히 신서).
- 東洋経済オンライン (도양경제 온라인) (2016.12.06.).
<https://toyokeizai.net/articles/-/147757>에서 2021년 10월 19일 인출.
- 東洋経済オンライン (동양경제 온라인) (2021.08.10.). 「子どものトラブル」大人が関わるときに重要な事」 (2021.08.10.). 「어린이의 트러블」 어른이 관여될 때 중요한 일」.
<https://toyokeizai.net/articles/-/445859>에서 10월 19일 인출.
- 古賀正義 (2018). 「生きづらさを抱える若者の 社会的自立に向けた支援について」.
中央合同庁舎 第8号館 416会議室 発表資料. (고가 마사요시 (2018). 「이키즈라사를 안고 있는 와카모노의 사회적 자립을 위한 지원에 대하여」. 중앙합동청사 제8호관 416회의실 발표자료.).
- 岡アユ美 (2018). 「地域若者サポートステーションにおけるキャリアカウンセリングの現状と課題 -支援滞留層の心理発達の検討を中心に-」. (오카 아유미 (2018). 「지역

- 청년서포트스테이션에서의 캐리어카운슬링의 현황과 과제 - 지원체류층의 심리발달적 검토를 중심으로-. 오사카시립대학대학원 창조도시연구과 박사학위논문.).
- 谷口仁史 (2014). 「アウトリーチ(訪問支援)と重層的な支援ネットワークを活用した多面的アプローチ ~社会的孤立・排除を生まない総合的な支援体制の確立にむけて」. (다니구치 히토시 (2014). 「아웃리치(방문지원)와 중층적인 지원 네트워크를 활용한 다면적 접근 - 사회적 고립·배제를 만들지 않는 종합적인 지원체제 마련을 위하여」.).
- 菲塚かおり (2019). 『長引いた不登校の根本解決法』 [Amazon Kindle Edition].
- (니라즈카 카오리 (2019). 『길어진 부등교의 근본 해결법』 [Amazon Kindle Edition]).
- 森田直樹 (2011). 『不登校は1日3分の働きかけで99%解決する』. リーブル出版. (모리타 나오키 (2011). 『부등교는 하루 3분의 행동으로 99% 해결된다』. 리블 출판).
- 丸山康彦 (2017). 『不登校・ひきこもりが終わるとき』ライフサポート社. (마루야마 야스히코 (2017). 『부등교·히키코모리가 끝날 때』 라이프서포트사).
- 最上悠 (2021). 『8050 親の「傾聴」が子どもを救う (子どもの声に耳を傾けていますか?)』. マキノ出版. (모가미 유우 (2021). 『8050 부모의 '경청'이 아이를 구한다 (아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나요?)』. 마키노 출판).
- 今村心音 (2018). 『子どもに会わずに、子どもの引きこもりが改善する引きこもり改善セラピー』. Amazon. (이마무라 코코네 (2018). 『아이를 만나지 않고 아이의 히키코모리가 개선되는 히키코모리 개선 세라피』. Amazon.).
- 新井てるかず (2014). 『不登校児童を日本で一番解決した！子どもと対話する3つの技術』. [Amazon Kindle Edition]. (아라이 테루카즈 (2014). 『부등교 아동을 일본에서 가장 많이 해결했다! 아이와 대화하는 3가지 기술』. [Amazon Kindle Edition]).
- マイケル・サンデル (2021). 『実力も運のうち・能力主義は正義か?』. 早川書房. (마이클 샌델(2021). 『실력도 운이다 - 능력주의는 정의인가?』. 하야카와서방.).

足立 弦也 (2019). 「社会的孤立における居場所の関係性がもたらす 承認機能についての考察 —ひきこもり当事者・支援者へのインタビュー分析から—」. 『立命館産業社会論集』. (아다치 겐야 (2019). 「사회적고립에 있어서 이바쇼의 관계성이 주는 인정기능에 관한 고찰 - 히키코모리 당사자, 지원자에 대한 인터뷰 분석에서-」. 리츠메이칸 산업사회론집.).

東京都 (2021). 「ひきこもりに関する支援状況等 調査結果」. (도쿄도 (2021). 「히키코모리에 관한 지원 상황 등 조사결과」.).

池上正樹 (2014). 「“60万円払って無給労働”が国の就労支援？ ブラックすぎるサポステの信じられない実態」. ダイアモンドオンライン. (이케가미 마사키 (2014). 「‘60만엔 내고 무급노동’이 정부의 취업지원? 너무나도 블랙한 서포스테의 믿을 수 없는 실태」. 다이아몬드 온라인)에서 <https://diamond.jp/articles/-/57935>에서 2021년 10월 19일 인출.

宮本みち子 (2015). 「-若年無業者と地域若者サポートステーション事業」. 社会保障研究. 51 号 No1. pp.18-28. (미야모토 미치코 (2015). 「청년무업자와 지역 청년서포트스테이션사업」. 사회보장연구 51(1). 18-28.

田中俊英 (2019). 「サポステは失敗だった～40才以上ひきこもりが61万人。『居場所』に予算を」. BLOGOS. (다나카 히데토시 (2019). 「서포스테는 실패였다 - 40세 이상 히키코모리가 61만 명. ‘이바쇼’에 예산을」. BLOGOS, <https://blogos.com/article/367613/>에서 2021년 10월 20일 인출.

村田拓也 (2021.10.10.). 「若者の就職支援の場で“仁義なき戦い”・大企業殴り込みでNPO窮地」. 毎日新聞. (무라타 타쿠야 (2021.10.10.). 「청년의 취직지원 현장에서 ‘인의 없는 싸움’ 대기업 참입으로 NPO 궁지」. 마이니치 신문). <https://mainichi.jp/articles/20211008/k00/00m/040/438000c>에서 2021년 10월 19일 인출.

特定非営利活動法人 (2021.4.2.). パノラマ ブログ「これでいいのか？ 地域若者サポート・ステーション (ほぼ朝)」. (NPO법인 파노라마 블로그. 「이걸로 괜찮은거

야? 지역청년서포터스테이션」. (거의 아침).

<https://note.com/npopanorama/n/n3837d2d2fba9>에서 2021년 10월 19일 인출.

小川祐喜子 (2021). 「若年無業者支援者の現状 ―地域若者サポートステーションの支援者事例から―」. 東洋大学人間科学総合研究所紀要 第23号. (오가와 유키코 (2021). 「청년무업자 지원자의 현황 - 지역청년서포터스테이션의 지원자 사례에서」. 도쿄대학교 인간과학융합연구소 기요 제23호.).

プラットフォームプロジェクト (2003). 『全国ひきこもり・不登校援助団体レポート』. ポット出版. (플랫폼 프로젝트 (2003). 『전국 히키코모리·부등교 지원단체 리포트』. 포트 출판.).

共同通信ひきこもり取材班 (2019). 『扉を開けて - ひきこもり、その声が聞こえますか』かもがわ出版. (교도통신 히키코모리 취재반 (2019). 『문을 열어 - 히키코모리, 그 목소리가 들리나요』. 카모가와 출판.).

ひきこもり大学出版チーム (2020). 『特別講義「ひきこもり大学」』. 潮出版社. (히키코모리 대학 출판팀 (2020). 『특별강의 「히키코모리 대학」』. 우시오 출판사).

KHJ (2020). 「ひきこもりの居場所に関する実態調査報告書 (設置状況・家族調査・連携調査)」 (KHJ (2020). 「히키코모리의 이바쇼에 관한 실태조사 보고서 (설치상황·가족조사·연계조사)」.)

ひきこもりUX会議 (2021). 「ひきこもり白書2021〈1,686人の声から見えたひきこもり・生きづらさの実態〉」. ひきこもりUX会議. (히키코모리UX회의 (2021). 「히키코모리백서〈1,686명의 목소리를 통해 본 히키코모리·이키즈라사 실태조사〉」. 히키코모리UX회의.

くらし&ハウス 暮らしの知恵 (2011.2.1.). 「ひきこもり、和歌山大の回復プログラムに学べ - 8割を超す回復率」. (삶&하우스 삶의 지혜 (2011.2.1.). 「히키코모리, 와카야마 대학의 회복 프로그램에 배워라 - 80%가 넘는 회복률」,

<https://style.nikkei.com/article/DGXBZO22585780R30C11A1WZ800>

0/에서 2021년 10월 19일 인출.

小林献 (2018). 『生きづらさを抱える若者たちとー共にくらし共に生きる若者支援のリアルー』いのちのことは社.

近藤直司, 清田吉和, 北端裕司他 (2010). 「思春期ひきこもりにおける精神医学的障害の実態把握に関する研究」. 厚生労働省.

内閣府 (2005). 「青少年の就労に関する研究調査」. 内閣府政策統括官 (共生社会政策担当).

NHK (2010). 「無縁社会プロジェクト」取材班『無縁社会ー“無縁死”三万二千人の衝撃』. 文藝春秋, (NHK 스페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무연사회 - ‘무연사’ 32,000명의 충격〉.).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www.law.go.kr/자치법규/서울특별시청년기본조례에서 2021년 10월 1일 인출.

「아동복지법」. www.law.go.kr/법령/아동복지법 에서 2021년 10월 13일 인출.

「아동복지법 시행령」. www.law.go.kr/법령/아동복지법시행령 에서 2021년 10월 13일 인출.

「위(Wee) 프로젝트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https://www.law.go.kr/행정규칙/위\(Wee\)프로젝트사업관리·운영에관한규정/\(329,20200302\)](https://www.law.go.kr/행정규칙/위(Wee)프로젝트사업관리·운영에관한규정/(329,20200302))에서 2021년 10월 13일 인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9.01.17., 윤일규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8234). 의안정보시스템 (likms.assembly.go.kr)에서 2021년 10월 13일 인출.

「청년기본법」. <https://law.go.kr/법령/청년기본법>에서 2021년 10월 13일 인출.

「청년기본법 시행령」. <https://www.law.go.kr/법령/청년기본법시행령>에서 2021년 10월 13일 인출.

「청소년기본법」. <https://law.go.kr/법령/청소년기본법>에서 2021년 10월 13일 인출.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https://www.law.go.kr/법령/청소년기본법시행령>에서 2021년 10월 13일 인출.

「청소년복지 지원법」. <https://www.law.go.kr/법령/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 2021년 10월 13일 인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2018.12.28., 권미혁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7892).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에서 2021년 10월 13일 인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에서 2021년 10월 13일 인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https://www.law.go.kr/법령/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서 2021년 10월 13일 인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에서 2021년 10월 13일 인출.

[자치법규정보시스템_조례]

구미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2015.03. 제정 및 시행).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s://www.elis.go.kr/>)에서 2021년 6월 3일 인출.

광주광역시 남구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 조례 (2021.10. 입법예고).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s://www.elis.go.kr/>)에서 2021년 10월 1일 인출.

광주광역시 동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2021.03. 제정 및 시행).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s://www.elis.go.kr/>)에서 2021년 10월 1일 인출.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2019.10. 제정, 2020.07. 시행).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s://www.elis.go.kr/>)에서 2021년 10월 1일 인출.

괴산군 사회적 고립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1.04. 제정 및 시행).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s://www.elis.go.kr/>)에서 2021년 6월 3일 인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적 고립 및 외로움 방지 조례 (2019.09. 제정 및 시행).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s://www.elis.go.kr/>)에서 2021년 10월 1일 인출.
 부산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2021.07. 제정 및 시행).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s://www.elis.go.kr/>)에서 2021년 10월 1일 인출.
 부산시민 외로움 치유와 행복 증진을 위한 조례 (2019.05. 제정, 2019.08. 시행).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s://www.elis.go.kr/>)에서 2021년 10월 1일 인출.
 서산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2018.04. 제정 및 시행).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s://www.elis.go.kr/>)에서 2021년 6월 3일 인출.
 서울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관련 조례 (2020.10. 발의).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s://www.elis.go.kr/>)에서 2021년 10월 1일 인출.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 조례 (2021.09. 제정 및 시행).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s://www.elis.go.kr/>)에서 2021년 10월 1일 인출.
 양천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2020.10. 제정 및 시행).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s://www.elis.go.kr/>)에서 2021년 6월 3일 인출.
 전라남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2021.09. 제정 및 시행).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s://www.elis.go.kr/>)에서 2021년 10월 1일 인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고립청년 밀착 지원에 관한 조례 (2021.05. 제정 및 시행).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s://www.elis.go.kr/>)에서 2021년 6월 3일 인출.
 충청남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2021.07. 제정 및 시행).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s://www.elis.go.kr/>)에서 2021년 6월 3일 인출.
 통영시 사회적 고립 및 외로움 방지 조례 (2019.04. 제정 및 시행).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s://www.elis.go.kr/>)에서 2021년 10월 1일 인출.
 포천시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2019.07. 제정 및 시행).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s://www.elis.go.kr/>)에서 2021년 6월 3일 인출.
 횡성군 외로움 공감과 치유를 위한 조례 (2020.12. 제정 및 시행).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s://www.elis.go.kr/>)에서 2021년 10월 1일 인출.

[해외 법률 및 정책]

「子ども・若者育成支援推進法」(어린이·청년육성지원추진법)

<https://elaws.e-gov.go.jp/document?lawid=421AC0000000071>에서
2021년 10월 10일 인출.

「子供・若者育成支援推進大綱」(어린이·청년육성지원추진대강)

<https://www8.cao.go.jp/youth/wakugumi.html>에서 10월 10일 인출.

「義務教育の段階における普通教育に相当する教育の機会の確保等に関する法律
(의무교육의 단계에 의한 보통교육에 상당하는 교육기회 확보에 관한 법률)」

https://elaws.e-gov.go.jp/document?lawid=428AC1000000105_20170214_0000000000000000에서 2021년 10월 10일 인출.

영국 「Care Act 2014」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14/23/contents/enacted>에
서 2021년 10월 1일 인출.

[참고사이트]

광주청년센터 홈페이지. <http://www.gjyouthcenter.kr/index>에서 2021년 2월
14일 인출.

니트생활자 홈페이지. <https://neetpeople.kr/>에서 2021년 10월 14일 인출.

리커버리센터 홈페이지. <https://www.the-recoverycenter.org/>에서 2021년
2월 14일 인출.

서울특별시 서울청년포털 홈페이지. <https://youth.seoul.go.kr/>에서 2021년
2월 14일, 10월 1일 인출.

서울시 의안정보 홈페이지. <https://smc.seoul.kr/info/index.do>에서 2021년
2월 14일 인출.

위(Wee) 프로젝트 홈페이지. <https://www.wee.go.kr/>에서 2021년 10월 14일 인출.

자치법규정보시스템 홈페이지. <https://www.elis.go.kr/>에서 2021년 2월 14일 인출.

청년도전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s://www.work.go.kr/youngChallenge/index.do>
에서 9월 25일 인출.

청년재단 홈페이지. <https://www.yhf.kr>에서 2021년 2월 14일 인출.

청년포털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 홈페이지). <https://2030.go.kr>에서 2021
년 10월 1일 인출.

한국은둔형외톨이지원연대 홈페이지. <http://hsak.kr/>에서 2021년 2월 14일 인출.

희망플랜 홈페이지. <http://kaswc.webmaker21.kr/>에서 2021년 2월 14일 인출.

HIKIPOS 웹사이트. <https://www.hikipos.info>에서 2021년 11월 25일 인출.

K2인터내셔널코리아 홈페이지. <https://k2-kr.com/>에서 2021년 2월 14일 인출.

KHJ全国ひきこもり家族会連合会 (KHJ 전국 히키코모리 가족회 연합회 홈페이지).
<https://www.khj-h.com>에서 2021년 10월 20일 인출.

NHK 히키코모리 지원 특별 웹사이트 〈こもりびと(코모리비토)〉.

https://www3.nhk.or.jp/news/special/hikikomori/pages/articles_90.html
에서 2021년 10월 1일 인출.

The Jo Cox Foundation 홈페이지. <https://www.jocoxfoundation.org> 에서
2021년 10월 1일 인출.

Triple P 홈페이지. <https://www.triplep.net/glo-en/home/>에서 2021년 10월
22일 인출.

内閣府ウェブサイト(내각부 웹사이트).

<https://www8.cao.go.jp/youth/suisin/jinzai-ikusei.html>에서 2021년
10월 19일 인출.

ひきこもりフューチャーセッション庵-iori 웹사이트(히키코모로 퓨처세션 이오
리 웹사이트). <https://iorihiki.wordpress.com>에서 2021년 11월 25일 인출.

ひきこもり大学 KHJ全国キャラバン 웹사이트(히키코모리 대학 KHJ전국 캐러밴
웹사이트). <https://www.khj-h.com/khj-c.net/>에서 2021년 11월 25일에 인출.

ひきこもり新聞 웹사이트(히키코모리 신문 웹사이트).

<http://www.hikikomori-news.com>에서 2021년 11월 25일 인출.

不登校新聞 ウェブサイト (부등교 신문 웹사이트). <https://futoko.publishers.fm>
에서 2021년 11월 25일 인출.

厚生労働省ウェブサイト「地域若者サポートステーション」(후생노동성 웹사이트 지역
청년서포트스테이션).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
koyou_roudou/jinzaikaihatsu/saposute.html](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koyou_roudou/jinzaikaihatsu/saposute.html)에서 2021년 10월 19일 인출.

○ — 부 록

- 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중
사회적 고립 관련 문항

부록

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중 사회적 고립 관련 문항

구분	영역	하위 영역	지표	문항번호
사회적 고립의 측정	외부적 고립	연결망	어려울 때 도와줄 친구(가족, 지인) 수	문102
			교류하는 가족/친구/그 외 사람들 여부 및 빈도	문99-1 문99-2
		지원	사회적 지지 혹은 지원(social support)의 3가지 차원 통합 (정서적 지원, 도구적 지원, 정보적 지원)	문98
		외출	평소 외출 형태, 외출이 거의 없었던 기간, 외출을 하지 않게 된 계기	문97 문97-1 문97-2
	내부적 고립	주관적 고립감	외로움	문100 문101
원인	생애전반기 부정적 경험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Adverse childhood experience(ACE) 및 이행지연사건 경험	문103 문104
현황	현재 상태		소속감	문105 문105-1
결과	주관적 삶의 질	인지적 측면	가족/친구/일반관계 만족도	문90
		정서적 측면	우울(CES-D)	문88
		신체적 측면	주관적 건강상태	문83
희망 서비스 및 정책	서비스 욕구		현재 자신에게 필요한 구체적 서비스	문111 문111-1

문102) 친구들 중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 기댈 수 있고 당신의 곤란한 상황을 외면하지 않는 친구가 있습니까?
(본인이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연령, 성별 등에 상관없이 가족 및 친지, 지인, 선생님 등 모든 대상이 포함됩니다)

① 없다

② 있다 (명)

문99-1) 귀하는 다음의 각 집단의 사람들과 직접 만나는 대면 형태로 평소 얼마나 자주 교류하십니까?

 교류란 다른 사람과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거나 의사소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같은 사람이든 다른 사람이든 일주일에 매일 같이 사람들과 만난다면 직접 만나는 교류에서 '거의 매일'로 응답해주시면 됩니다.

문 항	전혀 없다	1년에 한두 번	3개월에 한두 번	한 달에 한두 번	일주일에 한두 번	거의 매일 (일주일에 서너 번 이상)
(1) 가족들과의 대면 교류	①	②	③	④	⑤	⑥
(2) 친인척들과의 대면 교류	①	②	③	④	⑤	⑥
(3) 친한 친구나 친한 사람과의 대면 교류	①	②	③	④	⑤	⑥
(4) 이외 직장, 학교, 동네에서 알고 지내는 사람들과 대면 교류 (업무 상 교류 제외)	①	②	③	④	⑤	⑥
(5) 온라인 커뮤니티, SNS로 알게 된 사람들과의 대면 교류	①	②	③	④	⑤	⑥

문99-2) 귀하는 다음의 각 집단의 사람들과 인터넷(SNS), 전화 등의 비대면 방식으로 평소 얼마나 자주 교류하십니까?

 교류란 다른 사람과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거나 의사소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같은 사람이든 다른 사람이든 일주일에 매일 같이 온라인으로 연락한다면 '거의 매일'로 응답해주시면 됩니다.

문 항	전혀 없다	1년에 한두 번	3개월에 한두 번	한 달에 한두 번	일주일에 한두 번	거의 매일 (일주일에 서너 번 이상)
(1) 가족들과의 비대면 교류	①	②	③	④	⑤	⑥
(2) 친인척들과의 비대면 교류	①	②	③	④	⑤	⑥
(3) 친한 친구나 친한 사람과의 비대면 교류	①	②	③	④	⑤	⑥
(4) 이외 직장, 학교, 동네에서 알고 지내는 사람들과 비대면 교류 (업무 상 교류 제외)	①	②	③	④	⑤	⑥
(5) 온라인 커뮤니티, SNS로 알게 된 사람들과의 비대면 교류	①	②	③	④	⑤	⑥

문98) 귀하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가족, 친척, 친구, 이웃, 직장 동료)이 있습니까?

문 항	없다	있다
(1) 취업이나 진로에 관한 조언이나 정보를 물어볼 수 있는 사람	①	②
(2) 나에게 필요한 주거/금융/법률 관련 정보를 물어볼 수 있는 사람	①	②
(3)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해야 하는 경우, 집안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	①	②
(4) 몸이 아파서 거동하기가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①	②
(5) 내가 돈이 필요할 때 갑자기 큰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	①	②
(6)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①	②
(7) 내가 갑자기 연락 두절되었을 때, 나의 안부(생사)를 확인해줄 수 있는 사람	①	②

문97) 귀하는 평소 얼마나 외출하십니까?

- ① 직장이나 학교로 평일은 매일 외출한다
 - ② 직장이나 학교로 일주일에 3~4일 외출한다
 - ③ 여가생활을 위해 자주 외출한다
 - ④ 사람을 만나기 위해 가끔 외출한다
 - ⑤ 보통은 집에 있지만, 자신의 취미생활만을 위해 외출한다
 - ⑥ 보통은 집에 있지만, 인근 편의점 등에 외출한다
 - ⑦ 자기 방에서 나오지만, 집 밖으로는 나가지 않는다
 - ⑧ 자기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는다

→ 문98로 이동

→ 문97-1로 이동

문97-1) (문97에서 ⑤,⑥,⑦,⑧ 응답자만) 현재의 상태가 얼마나 지속되었습니까?

① 6개월 미만	② 6개월 이상 ~ 1년 미만
③ 1년 이상 ~ 3년 미만	④ 3년 이상 ~ 5년 미만
⑤ 5년 이상 ~ 7년 미만	⑥ 7년 이상

문97-2) (문97에서 ⑤,⑥,⑦,⑧ 응답자만) 현재의 상태가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① 학업중단이나 대학진학 실패로	② 취업이 잘되지 않아서
③ 인간관계가 잘되지 않아서	④ 장애가 있거나 몸이 불편해서
⑤ 임신이나 출산 때문에	⑥ 기타()

문100) 다음 문항을 읽고 얼마나 자주 이러한 감정을 느끼시는지 응답해주시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드물게 그렇다	가끔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나는 주변 사람들과 잘 통한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친구관계가 부족하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3) 나는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없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4) 나는 혼자라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5) 나는 친구들 모임에 속해 있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6) 나는 주위사람들과 비슷한 점이 많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7) 나는 더 이상 아무하고도 가깝지 않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8) 나는 스스로 적극적이고 호의적이라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9) 나는 사람들과 가깝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10) 나는 소외감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11) 나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의미 없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12) 나는 나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13) 나는 내가 원할 때에 함께 있어줄 사람을 찾을 수 있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14) 나는 나를 정말 이해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15) 나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함께 있지 않고 그저 주위에 있는 것이라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16) 나는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17) 나는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18) 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 있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 문100-(18)에 ②, ③, ④를 선택한 경우 문101로 이동, 그 외는 문102로 이동

문101) (100-(18)번의 ②, ③, ④인 경우만 응답) '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 있다고 느낀다' 라는 감정을 느끼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 ① 6개월 미만
- ② 6개월 이내 1년 미만
- ③ 1년 이상 2년 미만
- ④ 2년 이상 3년 미만
- ⑤ 3년 이상

문103) 귀하께서는 성인이 되기 전 시기(아동청소년기)에 다음과 같은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문 항	없다	있다
(1) 가정형편이 급격히 어려워진 경험	①	②
(2) 양육자로부터 과도한 체벌 또는 정서적 공격을 당한 경험	①	②
(3)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가족구성원이 있었던 경험	①	②
(4) 가까운 사람을 잃은 경험	①	②
(5) 전학이나 이사를 자주 한 경험	①	②
(6) 학교나 동네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당했던 경험	①	②

문104) 귀하께서는 성인이 되신 이후 다음과 같은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문 항	없다	있다
(1)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학교를 휴학하거나 그만두어야 했던 경험	①	②
(2)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취업 압박을 받거나 진로 변경을 강요받은 경험	①	②
(3) 내가 원했던 시기에 대학입학을 못했던 경험	①	②
(4) 내가 원했던 시기에 취업을 못했던 경험	①	②
(5)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거나 사기를 당한 경험	①	②

문105) 귀하는 현재 가족, 학교, 직장, 이웃, 지역사회, 또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소속되어 있다는 느낌을 가지고 계십니까?

① 아니다 ➡ **문106으로 이동**

② 그렇다

문105-1) (문105에서 ② 그렇다 응답자만) 다음 중 귀하는 어느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고 느끼십니까?
소속감을 느끼시는 집단을 모두 골라주십시오.

- ① 나의 가족
- ② 출신 학교나 동창 모임
- ③ 출신 지역이나 지역 모임
- ④ 여가활동 및 사회활동 모임 (환경활동, 구호활동, 정치활동 모임 등)
- ⑤ 소속 직장이나 직업 모임 (직업 기반 협회 또는 조합 등)
- ⑥ 온라인 커뮤니티(포털 사이트의 커뮤니티, 온라인 카페, 인터넷 사이트 등)
- ⑦ 기타(적용 것: _____)

문90) 귀하는 다음 삶의 영역들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질문을 듣는 즉시 떠오르는 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항목	←-----→										매우 만족한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1) 생활수준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건강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삶에서 성취한 것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 가족 관계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5) 친구 관계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6) 일반적 대인 관계 (학교, 직장, 동네에서의 인간 관계)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7) 삶 전반에서의 안전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8) 미래 안정성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9) 시간적 여유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0) 내가 살고 있는 동네환경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1) 전반적인 나의 인생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문88) 귀하는 지난 1주 간 얼마나 자주 다음과 같이 느껴셨습니까?

문 항	극히 드물다 (일주일 에 1일 미만)	가끔 있었다 (일주일 에 1-2일간)	종종 있었다 (일주일 에 3-4일간)	대부분 그랬다 (일주일 에 5일 이상)
(1) 먹고 싶지 않고 식욕이 없다	①	①	②	③
(2) 비교적 잘 지냈다	①	①	②	③
(3) 상당히 우울했다	①	①	②	③
(4) 모든 일들이 힘들게 느껴졌다	①	①	②	③
(5) 잠을 설쳤다 (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	①	①	②	③
(6)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①	①	②	③
(7) 큰 불만 없이 생활했다	①	①	②	③
(8) 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다	①	①	②	③
(9) 마음이 슬펐다	①	①	②	③
(10)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①	①	②	③
(11) 도무지 뭘 해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①	①	②	③

문83) 귀하는 신체적으로 건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그렇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문111) 다음의 청년 대상 정책 서비스 중 본인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 서비스를 모두 선택 해 주십시오.

문항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1) 심리·마음건강 상담 서비스 (인간관계 고민 등)	①	②
(2) 복지·생활 관련 상담 및 지원 서비스 (생계급여, 청년수당 등)	①	②
(3) 대인관계, 사회성 증진 서비스 (인간관계 개선 훈련 등)	①	②
(4) 취업·진로 상담 서비스 (취업준비, 일자리 알선 등)	①	②
(5) 청년 공동체 교류지원 서비스 (동아리 및 소모임 구성 등)	①	②
(6) 직업·훈련 교육 서비스 (기술교육, 직업교육 등)	①	②
(7) 건강검진 서비스 (신체건강검진, 정신건강검진 등)	①	②
(8) 주거지원 서비스 (편하게 지낼 수 있는 독립된 공간 제공)	①	②
(9) 문화·취미 지원 서비스 (독서, 영화, 취미 지원)	①	②
(10) 기타 (자세히 적을 것 :)	①	②

➡ 문111에서 (1)/(2)/(3)/(4) 항목 중 1가지 상담이라도 ①필요하다 응답 시 문111-1로 이동, 아닌 경우는 배경문항1로 이동

문111-1) 상담 서비스가 제공될 때 상담사를 만나는 방법으로 다음 중 어느 방법을 가장 선호하십니까?

- ① 내가 담당 센터에 찾아가는 방법(센터 방문)
- ② 온라인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방법(온라인 화상회의 등)
- ③ 상담사(담당자)가 내 집으로 찾아오는 방법(가정 방문)
- ④ 상담사(담당자)가 내 집 근처의 장소로 찾아오는 방법(카페, 공용 회의실 등)

국문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청년들의 사회적 고립(social isolation) 실태 및 특성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아직 학술적, 정책적으로 개념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회적 고립의 개념, 영향요인,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해 살펴보고 정책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는 문헌연구, 양적연구, 질적연구, 법률 및 정책분석, 해외사례 검토 등을 진행하였다.

이 연구는 현대사회의 개인화와 공동체의 소멸이라는 사회적 변화와 정보화와 초연결화라는 기술적 변화 속에서 사회와 점차 연결되지 못하고 외부적, 내부적으로 고립되어 가는 청년들의 문제에 대해 현황을 보고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대응 필요성을 역설하고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사회적 고립을 외부적 고립과 내부적 고립으로 나누고 외부적 고립을 외부 연결망과 지지체계의 결핍 상황, 내부적 고립을 외로움과 고립감으로 정의함으로써 사회로부터 외적 또는 내적으로 고립되어 있거나 단절되어 있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노력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적 고립 청년의 발생은 생애전반기 동안 누적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은 분절되고 파편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롭게 등장한 「청년기본법」과 청년정책기본계획에는 사회적 고립과 관련한 내용이 제외되어 있어, 민간영역을 중심으로한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마저도 가장 장기적이고 심각한 상태에 있는 청년들을 발굴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사후적

조치에 가까워 회복이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 사회적 고립과 관련한 정책들은 사회적 고립 문제가 발생하고 심화된 이후에 개입이 이루어지는 사후적 지원정책의 문제, 지위 회복을 통해 사회 재통합을 이룰 수 있다고 가정한 니트 청년 지원정책의 문제, 심리적 고립에 대한 대응책은 전무한 정책영역의 문제 등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었다. 청년 당사자들은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생애전반기 동안 발생하는 부정적인 생애경험에 대한 적극적 대응, 청년기 사회적 고립을 유발하는 지위상실과 역할지연의 문제에 대한 대응, 단계적 지원을 통한 사회로의 재연결과 재통합, 인생의 각 전환기 동안 연결성 있게 안내 및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 체계 구성 등에 대해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이를 통해 ‘고립과 외로움을 넘어 새로운 기회를 통한 재연결로’라는 목표를 두고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청년 당사자 중심 원칙, 생애전반기 예방 원칙, 역할과 소속감 증진 원칙, 서비스 제공 협력 및 통합 원칙 등을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법제도적 근거 및 기반 마련, 생애주기별 지원 체계 마련, 생태체계적 지원체계 마련, 서비스 연결망 강화, 새로운 기회 제공을 통한 재사회화,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을 정책과제로 제시하였다.

키워드: 사회적 고립, 고립청년, 사회적 관계, 외로움, 재연결 정책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state and characteristics of social isolation of the youth in Korea, and to present a support plan for it. This study tried to prepare policy measures by examining the concept, influencing factors, progress, and results of social isolation that have not yet been clearly defined in academia or policy field. For this purpose, this study conducted literature review,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nalyses, legal, policy, and overseas cases reviews.

This study reports the actual situation of young people who are increasingly isolated internally and externally without being connected to society in the midst of social and technological changes: individualization, community disintegration, informatization, and hyperconnection. The necessity of social response was emphasized and policy measures were presented. In this study, social isolation was divided into external and internal isolation. External isolation was defined as a lack of external networks and social support, while internal isolation was characterized as loneliness and subjective isolation. This study tried to comprehensively

examine the situation of external or internal isolation or disconnection from society.

As a result of analyses, socially isolated youth is caused by the accumulation of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during the first half of their lives; but the social safety net for the first half of life was fragmented. In addition, the newly launched Basic Law on Youth and the Basic Plan for Youth Policy did not include policies related to social isolation. Although some institutions in private sector supported socially isolated youth, those focused on discovering young people in the most long-term and serious condition, which may have weakness in mitigating the early stage of social isolation. As a way to prevent social isolation, social services for young people need to actively respond to adverse life experiences that occur during the first half of their lives, respond to the problems of position loss and role delay that cause social isolation in adolescence, and reconnect to society through step-by-step support. Reintegration and the formation of a social service system that can guide and support in a connected way during each transition period of life were proposed.

In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ed a policy plan with the goal of 'reconnection through new opportunities beyond social isolation and loneliness,' and the goal should be achieved based on the following basic principles: the Youth Centered Principles, the First Half ACEs Prevention Principles, the Principles of Facilitating Roles and Belongings, and the Principles of Collaboration and Integration in Service Delivery.

In particular, this study derived policy tasks such as establishing a legal and institutional foundation, preparing a support system for each life cycle and based on ecological system, strengthening of service networks, providing new opportunities for re-socialization, and responding to COVID-19.

Keywords: social isolation, isolated youth, social relationship, loneliness, social policy reconnection

2021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기관고유과제

- 21-R01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현황 및 대응방안 연구 / 장근영·임지연
- 21-R02 지역사회 청소년 스포츠 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 김정숙·정은주·정현우
- 21-R03 10대 청소년의 정신건강 실태조사 / 최정원·문호영·전진아·박용천
- 21-R04 청소년 정치참여 실태와 활성화방안 연구 / 모상현·최용환·남미자·정건희
- 21-R05 미래지향적 청소년 시설 및 공간 혁신방안 연구 / 김경준·강경균·변나향
- 21-R06 아동·청소년의 놀이 실태 및 성장지원 방안연구 / 김영한·이유진
- 21-R07 청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 유민상·신동훈
- 21-R08 장애청소년 친화적 청소년정책 추진방안 연구 / 김지연·김승경·오욱찬·정소연
- 21-R09 청소년 분야 한국판 뉴딜 대응전략 연구 / 최창욱·좌동훈·성은모·남화성
- 21-R10 2021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총괄보고서 / 김영지·최홍일·유설희·이민희·김진호
- 21-R10-1 2021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심화분석보고서 / 유성상
- 21-R10-2 2021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총괄보고서 / 김영지·최홍일·유설희
- 21-R11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정책 추진체계 구축 방안 연구Ⅲ / 황세영·이경상·송민경·조윤정
- 21-R12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청소년정책 대응 방안 연구 / 서정아·성윤숙·홍순구·권일남
- 21-R12-1 비정형 민원 데이터를 활용한 청소년 정책의제 도출 / 홍순구·임지연
- 21-R12-2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청소년 정책의제 도출 / 홍성호
- 21-R13 2021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 하형석·황진구·김성은·이용해
- 21-R13-1 2021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데이터분석보고서 / 김성은·박찬호
- 21-R14 2021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 양계민·장윤선·정윤미·한지형

21-R14-1 2021 다문화청소년 중단연구: 기초분석보고서(1기 패널) / 양계민·장윤선·정윤미·한지형

21-R14-2 2021 다문화청소년 중단연구: 기초분석보고서(2기 패널) / 양계민·장윤선·정윤미·한지형

협동연구과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1-76-01 학교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Ⅳ: 질적 패널조사를 중심으로 / 김희진·서고운·김은정 (자체번호 21-R15)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1-76-02 학교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Ⅳ: 질적 종단자료 심층분석보고서 / 김희진·서고운·김미정·류정희·권지성 (자체번호 21-R15-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1-77-01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Ⅲ: 후기 청소년 / 임희진·황여정·유성렬 (자체번호 21-R16)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1-77-02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Ⅲ: 후기 청소년 - 해외사례 분석 / 임희진·박윤주·황여정 (자체번호 21-R16-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1-77-03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Ⅲ: 후기 청소년 - 기초분석보고서 / 임희진·황여정 (자체번호 21-R16-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1-78-01 청소년 미디어 이용 실태 및 대상별 정책대응방안 연구Ⅱ: 10대 청소년 / 배상률·이창호·김남두 (자체번호 21-R17)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1-78-02 청소년 미디어 이용 실태 및 대상별 정책대응방안 연구Ⅱ: 10대 청소년 - 청소년 미디어 교육 지원을 위한 부모 참여 중심 소셜리빙랩 운영 방안 / 정현선·조병영·권은선·김광희 (자체번호 21-R17-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1-78-03 청소년 미디어 이용 실태 및 대상별 정책대응방안 연구Ⅱ: 10대 청소년 - 기초분석보고서 / 배상률·이창호 (자체번호 21-R17-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1-79-01 청년 빈곤 실태와 자립안전망 체계 구축방안 연구Ⅰ / 김형주·연보라·정세정·변금선 (자체번호 21-R18)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1-80-01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Ⅰ: 일자리 / 김기현·배정희·김창환·성재민 (자체번호 21-R19)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1-80-02 2021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 기초분석보고서 / 김기현·배정희 (자체번호 21-R19-1)

수 시 과 제

- 21-R20 보호종료아동 및 자립준비청소년 자립지원 현안과 과제 / 김지연
- 21-R21 청소년 자살 원인 탐색 및 예방 대책 연구 / 서고운
- 21-R22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 문호영
- 21-R23 청년정책연구 분야별 현황 분석 / 신동훈·김세현
- 21-R24 학교미디어교육센터 설치 유형별 지역 안착방안 / 배상률
- 21-R25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행정자료 연계 및 법제화방안 연구 / 양계민

연구개발직립금

- 21-R26 정책동향분석 / 이지연

수 탁 과 제

- 21-R27 제4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 김승경·배정희
- 21-R28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및 청소년시설 운영기준 수립 연구용역 / 최용환·이희철·장혜윤
- 21-R29 청소년 자살예방 교육프로그램 효과성 분석 연구 / 김형주·강영배
- 21-R30 2021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 매뉴얼 / 성윤숙·방인자·김유민·조아라
- 21-R31 2020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프로그램 적용효과 분석 / 성윤숙·홍성호·김현수·장원빈
- 21-R32 한국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구축 방안 연구Ⅱ / 유민상
- 21-R33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교과 연계 프로그램(중학교용-영어) / 성윤숙·임희진
- 21-R34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교과 연계 프로그램(중학교용-기술·가정) / 성윤숙·서정아
- 21-R35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교과 연계 프로그램(중학교용-체육) / 성윤숙·김영지
- 21-R36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교과 연계 프로그램(고등학교용-영어) / 성윤숙·임희진

- 21-R37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교과 연계 프로그램(고등학교용-기술·가정) / 성윤숙·서정아
- 21-R38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교과 연계 프로그램(고등학교용-체육) / 성윤숙·김영지
- 21-R39 2020년 학부모용 학교폭력 예방교육 소식지 모음집 / 성윤숙·김옥수
- 21-R40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열어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안내서(초등학교용) / 성윤숙·김정민·김효주·장원빈
- 21-R41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열어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안내서(중학교용) / 성윤숙·김옥수
- 21-R42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열어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안내서(고등학교용) / 성윤숙
- 21-R43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현황통계 생성을 위한 행정자료 연계방안 연구 / 양계민·장윤선
- 21-R44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 김기현·문호영·황세영·유민상·이용해·김규희
- 21-R45 2021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학생서포터즈단 시범 운영 매뉴얼 / 성윤숙·장원빈·최동혁·김예원
- 21-R46 (초등용) 학업중단 위기 학생을 위한 비대면 꿈지락 / 황세영·송원일·배수인·유한별
- 21-R47 (중등용) 학업중단 위기 학생을 위한 비대면 꿈지락 / 황세영·송원일·배수인·유한별
- 21-R48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 / 배상률
- 21-R49 강원 2024 청소년 참여 기본계획 / 김정숙·김경준·정은주·이용해·김혁진
- 21-R50 보호대상아동 심리정서지원체계 통합구축방안 연구 / 김지연·이상정·정소연
- 21-R51 위기청소년 자립지원 표준화방안 및 평가지표 개발 연구 / 김지연·정경은·권해수
- 21-R52 인천 다문화교육 종합발전방안 연구 / 연보라·김정숙·신동훈·김재우
- 21-R53 지자체 및 중앙부처 청년정책 분야별 시행계획 평가방안 심화연구 / 배정희·장근영·이용해
- 21-R54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개선연구 / 최창욱·좌동훈
- 21-R55 청소년 참여활성화 및 권리의식 신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연구 / 좌동훈·김지수
- 21-R56 2021년 대학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실태조사 / 정은주·문호영
- 21-R57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성남시 청소년서비스 수요분석과 대안전략 수립 연구 / 최용환·곽창규·김민주
- 21-R58 2021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 / 김성은·김영지·김지연·강경균·서고운·최홍일·임경원
- 21-R59 학교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컨설팅 매뉴얼 / 정은주·임지연
- 21-R60 (2022년 개정판)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열어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안내서(초등학교용) / 성윤숙·유설희·장원빈

- 21-R61 (2022년 개정판)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열어나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안내서(중학교용) / 성윤숙·유설희·김예원
- 21-R62 (2022년 개정판)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열어나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안내서(고등학교용) / 성윤숙·유설희·신보람
- 21-R63 지속가능한 청소년국제교류사업 발전방안 연구 / 양계민·김민
- 21-R64 2021 경기도 다문화학생 직업교육 지원방안 / 양계민·장윤선·강희숙
- 21-R65 이주배경 청소년 실태조사 / 양계민·정윤미·장윤선
- 21-R66 학업중단 위기 청소년의 유형별·단계별 지원 방안 / 김영지·박하나·손진희
- 21-R67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지역자원 유형 조사 및 연계 방안 / 김성은·송원일·최홍일·배수인
- 21-R68 2021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조사 연구 / 서정아·조아미
- 21-R69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한·중 청소년 생활실태 및 가치관 비교연구 / 배상률·장수·김수영
- 21-R70 니트 등 비경제활동 청년층의 노동시장 유입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김기현·유민상·배정화·신동훈
- 21-R71 청년정책 해외사례 및 시사점 / 김기현
- 21-R72 청년과 정의 연구 / 김기현
- 21-R73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지역기관 연계 시범사업 모니터링, 평가 및 모델개발(2차) / 연보라·좌동훈·장윤선·김재우·오성배·장흔성
- 21-R74 2021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 김희진·임희진·김정숙·서고운
- 21-R75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실무 개발 연구 / 황진구·좌동훈
- 21-R75-1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실무 매뉴얼 / 황진구·좌동훈
- 21-R76 강진 청소년문화예술센터 건립 연구용역 / 김영한·이유진·선민철·이상선
- 21-R77 2021년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모델 운영사업 / 황세영·이경상·유민상·최홍일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21-S01 2020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프로그램 우수사례집 (1.28)
- 21-S02 2021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워크숍(1.27)
- 21-S03 2020년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 우수사례 시상 및 성과보고회(1.28)
- 21-S04 청년 연속기획포럼: 『2020 한국청년을 말하다』3차 포럼-한국청년, 무엇을 원하는가?(1.15)
- 21-S05 청소년정책 토론회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청소년』(2.26)

- 21-S06 2021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학생서포터즈단 발대식 및 사전교육 자료집(6.5)
- 21-S07 근거기반 이주배경청소년정책 추진방안모색을 위한 전문가 포럼(7.27)
- 21-S08 21세기 비전, 한국-몽골 청소년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7.19)
- 21-S09 대안교실 프로그램(꿈지락) 이해 및 활용 직무연수 자료집(7.27)
- 21-S10 2021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상반기 성과보고회(8.10)
- 21-S11 2021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포럼: 미래 대안교육, 함께 길을 찾다-청소년에게 맞춤형 교육기회를(8.20)
- 21-S12 대안학교 및 대안교육특성화학교 역량강화 연수(8.18)
- 21-S13 2021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발전방안 포럼(8.18)
- 21-S14 2021 미디어교육 현장지원단 워크숍: 학교 미디어교육 활성화 제고 및 현장 적용 방안 수업의 실제와 사례 공 유(8.13)
- 21-S15 National Youth Policy Review: India(6.14)
- 21-S16 National Youth Policy Review: Malawi(6.21)
- 21-S17 제41회 청소년정책포럼: 미래 청소년 정책의 새로운 구상(11.5)
- 21-S18 National Youth Policy Review: Gambia(6.29)
- 21-S19 2021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학생서포터즈단 중간워크숍 자료집(8.21)
- 21-S20 제4회 한일진로교육포럼: 코로나 시대의 진로교육, '다양한 배움의 장'에서의 진로교육기 확보장에 관한 한일비교 (9.25)
- 21-S21 미래를 대표하기: 핀란드 정부의 청소년 참여 정책(9.10)
- 21-S22 제12차 청년정책포럼: 청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대응방안(10.5)
- 21-S23 콜로키움 Mongolian Youth Policy Review 5차(10.1)
- 21-S24 콜로키움 Guatemalan Youth Policy Review 6차(10.8)
- 21-S25 Youth and Public Policy in Afghanistan(11.22)
- 21-S26 제42회 청소년정책포럼: 청소년 정치참여 현안과제 및 활성화 방안 모색(11.25)
- 21-S27 청소년정책 릴레이 토론회 자료집 '환경변화에 따른 청소년 위기상황 대응 및 보호지원 방향'(10.27)
- 21-S28 영국의 청년 고용 및 훈련 정책(11.23)
- 21-S29 청소년정책 릴레이 토론회 자료집 '뉴노멀 시대의 청소년 활동 환경 조성 방안'(11.3)
- 21-S30 청소년정책 릴레이 토론회 자료집 '뉴노멀 시대의 청소년 복지정책 방향'(11.10)
- 21-S31 직원역량 콜로키움: 실무자를 위한 예산 편성의 실제(11.22)
- 21-S32 2021 대안학교 관리자 및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랜선토크 워크숍 자료집(11.25)

- 21-S33 청소년 정책 토론회: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성인지 감수성 제고 방안(12.2)
- 21-S34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 구축 시범사업Ⅲ" 시범사업 기관 성과공유 워크숍 (11.24)
- 21-S35 미국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주요 청소년 정책 사례(12.3)
- 21-S36 제10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11.19)
- 21-S37 2021년 우수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사업 연차평가 사전 워크숍(12.17)
- 21-S38 2021 학업중단예방 집중지원학교 및 대안교실 성과공유회(12.16)
- 21-S39 2021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담당자 역량강화 연수(12.16)
- 21-S40 청소년 정책 토론회: 청소년 참여활성화 및 권리의식 신장을 위한 제도(12.15)

학 술 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32권 제1호(통권 제100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32권 제2호(통권 제101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32권 제3호(통권 제102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32권 제4호(통권 제103호)

기타 발간물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30호 : 청소년활동의 사회적 가치 제고방안 연구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31호 : 청소년지도자 양성시스템 재구축 방안 연구Ⅱ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32호 : 국가 미래 인적자원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 성장과 지원방안 연구 Ⅲ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33호 :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 구축방안 연구 Ⅱ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34호 :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Ⅲ: 질적 패널조사를 중심으로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35호 : 청소년 빅데이터 체계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36호 : 청소년·청년의 플랫폼 노동 실태와 대응 방안 연구

NYPI Bluenote 통계 53호 : 위기청소년 실태 파악을 위한 예비조사 결과

NYPI Bluenote 통계 54호 : 아동·청소년의 주거환경 인식조사

NYPI Bluenote 통계 55호 : Z세대 10대 청소년의 가치관 변화 연구

NYPI Bluenote 통계 56호 : 청년 사회·경제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Ⅴ

NYPI Bluenote 통계 57호 : 위기청소년 건강권 실태

NYPI Bluenote 통계 58호 : 2020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2기 패널 주요 조사 결과

NYPI Bluenote 통계 59호 : 청소년 혐오표현 노출 실태 연구

NYPI Bluenote 통계 60호 :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Ⅲ: 청년 이직자

NYPI Bluenote 통계 61호 :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 실태

NYPI Bluenote 통계 62호 :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제3차년도 주요 조사 결과 및 데이터
분석·활용

NYPI Bluenote 통계 63호 :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연구보고 21-R07

청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인 쇄 2021년 12월 23일

발 행 2021년 12월 31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김 현 철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아르빗 전화 044)863-0933 대표 유채란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학술정보관)

ISBN 979-11-5654-315-2 93330

연구보고 21-R07

청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Social Policy Building, Sejong National Research Complex, 370,
Sicheong-daero, Sejong-si, 30147, Korea
Tel. 82-44-415-2114 Fax. 82-44-415-2369



ISBN 979-11-5654-315-2